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27-01

정책보고서 2016-29

#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출문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16-27-01    |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br>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 참여 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연구<br>기관 | 한국보건<br>사회연구원        | 이상림 부연구위원 | 강정한 교수(연세대학교)<br>박원호 교수(서울대학교)<br>신난희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br>신인철 겸임교수(성균관대학교)<br>최인희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br>황규성 교수(한신대학교)<br>최인선 연구원 |
|            | 서울대학교<br>사회발전<br>연구소 | 김석호 교수    |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br>최슬기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br>진보미 연구원   |
| 협력연구<br>기관 | 성균관대<br>서베이<br>리서치센터 | 김지범 교수    | 이연희 연구원<br>김솔이 연구원  |



## 발간사 <<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빠른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기 위해 우리사회와 비슷한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현황과 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산 지속과 인구 구조 고령화의 인구변천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부양 체계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다양한 층위의 사회구조를 통해 교육, 주택, 복지, 소비, 정치구조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영향이 확대되어, 거시적 사회 변동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 및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근저에 있는 사회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구체적 가족 관련 행동들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회변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양질의 자료 구축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사회조사가 동시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는 지난 10년 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 2006년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주도로 중국의 인민대학교, 일본의 오사카상과대학, 대만의 국립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동아시아사회조사는 2년에 한 번씩 공동으로 다양한 주제(가족, 문화, 건강, 사회적 자본)와 관련되어 4개국의 사회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가족의 인식과 행동과 관련된 동아시아 사회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함께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은 우리나라 가족 관련 현상들의 변화 추이와 국제적 비교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시도한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의 가족 상황의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국제 비교 연구에 기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 목 차

|   |            |
|---|------------|
| <b>제1장 서론</b> .....                     | <b>15</b>  |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17         |
| 제2절 연구조사의 설계 .....                      | 18         |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 30         |
| <br>                                    |            |
| <b>제2장 인구학적 변화와 개인의 대응</b> .....        | <b>33</b>  |
| 제1절 21세기 전후 인구학적 변화 .....               | 35         |
| 제2절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대응: 가족 가치와 행위 ..... | 48         |
| 제3절 이전 연구에 대한 평가 .....                  | 58         |
| <br>                                    |            |
| <b>제3장 한국인의 성 역할 인식 변화</b> .....        | <b>63</b>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65         |
| 제2절 연구결과 .....                          | 67         |
| <br>                                    |            |
| <b>제4장 가족 간 행위와 만족도</b> .....           | <b>105</b> |
| 제1절 서론 .....                            | 107        |
| 제2절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생활의 공유 .....           | 110        |
| 제3절 건강상태 .....                          | 117        |
| 제4절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 .....                  | 125        |
| 제5절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                 | 134        |

|   |            |
|---|------------|
| <b>제5장 가족주의 결혼에 대한 태도</b> .....                               | <b>139</b> |
| 제1절 들어가는 글 .....  | 141        |
|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 142        |
| 제3절 한국인의 가족 가치 변화: 2006과 2016년 비교 .....                       | 144        |
| 제4절 소결 .....  | 162        |
| <br>  |            |
| <b>제6장 세대 간 교환관계 I : 세대 간 교환관계 이론의 한국적 적용과 발전 방향 모색</b> ..... | <b>167</b> |
| 제1절 서론 .....  | 169        |
| 제2절 세대 간 관계에 관한 이론 .....                                      | 171        |
| 제3절 한국의 사회변동과 세대 간 관계의 변화 .....                               | 176        |
| 제4절 사회의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관계 이론의 발전 모색 .....                        | 183        |
| 제5절 결어 및 토의 .....   | 190        |
| <br>  |            |
| <b>제7장 가족내 세대관계 II : 인식과 지원형태</b> .....                       | <b>193</b> |
| 제1절 개요 .....  | 195        |
| 제2절 주요 분석결과 .....   | 197        |
| 제3절 소결 및 함의 .....   | 230        |
| <br>  |            |
| <b>제8장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III : 동거와 근접거주의 형태</b> .....              | <b>235</b> |
| 제1절 서론 .....  | 237        |
| 제2절 분석결과 .....  | 242        |
| 제3절 결론 .....  | 255        |

|                               |            |
|-------------------------------|------------|
| <b>제9장 가족관계와 정치행위</b> .....   | <b>257</b> |
| 제1절 서론: 가족과 정치 .....          | 259        |
| 제2절 맥락으로서의 가족 .....           | 261        |
| 제3절 가족관계와 정치행태 .....          | 266        |
| 제4절 결론 .....                  | 297        |
| <br>                          |            |
| <b>제10장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b> ..... | <b>299</b> |
| 제1절 성역할 인식 변화 .....           | 301        |
| 제2절 가족간 행위와 만족도 .....         | 310        |
| 제3절 결혼의 절대성 .....             | 314        |
| 제4절 세대간 교환관계 .....            | 319        |
| <br>                          |            |
| <b>참고문헌</b> .....             | <b>329</b> |
| <br>                          |            |
| <b>부표</b> .....               | <b>343</b> |

## 표 목차

|  |     |
|--|-----|
| 〈표 1-1〉 EASS 주제 모듈, 2006-2016                              | 20  |
| 〈표 1-2〉 층(stratum)의 크기와 표본 할당                              | 23  |
| 〈표 1-3〉 설문문항의 설계 및 주요 내용                                   | 26  |
| 〈표 3-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가사분담실태                               | 70  |
| 〈표 3-2〉 혼인상태 및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장 추이                           | 71  |
| 〈표 3-3〉 주요국 일일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                                | 72  |
| 〈표 3-4〉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여성의 가사부담률                             | 75  |
| 〈표 3-5〉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저녁식사준비                          | 76  |
| 〈표 3-6〉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세탁                              | 77  |
| 〈표 3-7〉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집안청소                            | 79  |
| 〈표 3-8〉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집안수리                            | 80  |
| 〈표 3-9〉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장보기                             | 81  |
| 〈표 3-10〉 성역할 인식  | 83  |
| 〈표 3-1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87  |
| 〈표 3-1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89  |
| 〈표 3-13〉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 91  |
| 〈표 3-14〉 어머니가 취업하면 미취학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 92  |
| 〈표 3-15〉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괜찮다                     | 94  |
| 〈표 3-16〉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 98  |
| 〈표 3-17〉 취업모도 비취업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99  |
| 〈표 3-18〉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이 상당히 어려워 진다            | 100 |
| 〈표 3-19〉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 102 |
| 〈표 4-1〉 성별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110 |
| 〈표 4-2〉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111 |
| 〈표 4-3〉 연령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112 |
| 〈표 4-4〉 교육수준에 따른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112 |
| 〈표 4-5〉 지역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113 |
| 〈표 4-6〉 성별에 따른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114 |
| 〈표 4-7〉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변화(2006/2016년)   | 114 |

|   |     |
|---|-----|
| 〈표 4-8〉 연령에 따른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격차 (2006/2016년) .....       | 115 |
| 〈표 4-9〉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16 |
| 〈표 4-10〉 지역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16 |
| 〈표 4-11〉 성별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17 |
| 〈표 4-12〉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2006/2016년) .....   | 118 |
| 〈표 4-13〉 연령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18 |
| 〈표 4-14〉 학력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19 |
| 〈표 4-15〉 지역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19 |
| 〈표 4-16〉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0 |
| 〈표 4-17〉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0 |
| 〈표 4-18〉 배우자의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1 |
| 〈표 4-19〉 배우자의 학력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1 |
| 〈표 4-20〉 배우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2 |
| 〈표 4-21〉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응답자 부모의 주관적 건강인식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3 |
| 〈표 4-22〉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응답자 부모의 주관적 건강 인식 차이와 변화(2006/2016년) ..... | 123 |
| 〈표 4-23〉 배우자의 부친의 주관적 건강 (2006/2016년) .....                     | 124 |
| 〈표 4-24〉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5 |
| 〈표 4-25〉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6 |
| 〈표 4-26〉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6 |
| 〈표 4-27〉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7 |
| 〈표 4-28〉 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7 |
| 〈표 4-29〉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8 |
| 〈표 4-30〉 가족여가 빈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8 |
| 〈표 4-31〉 부부의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9 |
| 〈표 4-32〉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29 |
| 〈표 4-33〉 결혼만족도 (2006/2016년) .....                               | 130 |
| 〈표 4-34〉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30 |
| 〈표 4-35〉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31 |
| 〈표 4-36〉 지역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32 |
| 〈표 4-37〉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32 |
| 〈표 4-38〉 가족과의 여가생활 빈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33 |

|   |     |
|---|-----|
| 〈표 4-39〉 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                  | 133 |
| 〈표 5-1〉 결혼 적정 연령 .....  | 145 |
| 〈표 5-2〉 평균초혼연령 (1990-2015년) .....                                 | 146 |
| 〈표 5-3〉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                           | 147 |
| 〈표 5-4〉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                        | 148 |
| 〈표 5-5〉 가계 계승을 위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 149 |
| 〈표 5-6〉 가계 계승을 위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 149 |
| 〈표 5-7〉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                        | 151 |
| 〈표 5-8〉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                                 | 152 |
| 〈표 5-9〉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                                | 153 |
| 〈표 5-10〉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                               | 153 |
| 〈표 5-11〉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행복하다 .....                          | 155 |
| 〈표 5-12〉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행복하다 .....                          | 155 |
| 〈표 5-13〉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행복하다 .....                          | 156 |
| 〈표 5-14〉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                            | 158 |
| 〈표 5-15〉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                     | 159 |
| 〈표 5-16〉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이 최선책이다 .....                           | 160 |
| 〈표 6-1〉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규범론과 교환론 .....                                | 173 |
| 〈표 6-2〉 세대 간 관계 변수: 2016 EASS 기준 .....                            | 177 |
| 〈표 6-3〉 동아시아 4개 지역 간 세대 간 동거 변화와 결정요인, 2006 EASS 근거 .....         | 179 |
| 〈표 6-4〉 세대 간 지지에 대한 규범과 행동의 변화, 2006년과 2016년 EASS 비교 .....        | 181 |
| 〈표 6-5〉 현재의 주관적 계층과 부모 연령대 전망 계층 .....                            | 188 |
| 〈표 6-6〉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계층과 전망 계층 간 상관계수 .....                        | 188 |
| 〈표 6-7〉 사회변동이 세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합의 전망 .....                    | 191 |
| 〈표 7-1〉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측정 변수 .....                                   | 196 |
| 〈표 7-2〉 세대교환 행태 측정 변수 .....                                       | 196 |
| 〈표 7-3〉 기혼 남성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  | 198 |
| 〈표 7-4〉 기혼 여성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  | 199 |
| 〈표 7-5〉 기혼 남성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 | 201 |
| 〈표 7-6〉 기혼 여성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 | 203 |
| 〈표 7-7〉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장 큰 사람 (2006/2016년) .....                      | 204 |

|  |     |
|--|-----|
| 〈표 7-8〉 본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                    | 207 |
| 〈표 7-9〉 본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2016년) .....                          | 209 |
| 〈표 7-10〉 본인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                   | 209 |
| 〈표 7-11〉 응답자가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            | 211 |
| 〈표 7-12〉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2016년) .....                       | 212 |
| 〈표 7-13〉 응답자가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            | 213 |
| 〈표 7-14〉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2016년) .....                       | 214 |
| 〈표 7-15〉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                  | 215 |
| 〈표 7-16〉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                  | 217 |
| 〈표 7-17〉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                | 218 |
| 〈표 7-18〉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                | 220 |
| 〈표 7-19〉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 (2006/2016년) .....                     | 222 |
| 〈표 7-20〉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 자녀와 동거 여부 (2006/2016년) .....            | 223 |
| 〈표 7-21〉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          | 225 |
| 〈표 7-22〉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          | 226 |
| 〈표 7-23〉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        | 228 |
| 〈표 7-24〉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        | 229 |
| 〈표 8-1〉 지리적 근접성 분석 관련 변수 .....                                 | 240 |
| 〈표 8-2〉 샘플의 크기 .....   | 241 |
| 〈표 8-3〉 성인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42 |
| 〈표 8-4〉 성인 자녀 연령별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43 |
| 〈표 8-5〉 미혼 남성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44 |
| 〈표 8-6〉 18~34세 미혼 남성 자녀의 특성별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45 |
| 〈표 8-7〉 미혼 여성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46 |
| 〈표 8-8〉 18~34세 미혼 여성 자녀의 특성별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47 |
| 〈표 8-9〉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48 |
| 〈표 8-10〉 18~34세(응답자 기준) 시기,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49 |
| 〈표 8-11〉 35~49세(응답자 기준) 시기,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50 |
| 〈표 8-12〉 50~64세(응답자 기준) 시기,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51 |
| 〈표 8-13〉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52 |
| 〈표 8-14〉 18~34세(응답자 기준) 시기,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53 |

|  |     |
|--|-----|
| 〈표 8-15〉 35~49세(응답자 기준) 시기,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54 |
| 〈표 8-16〉 50~64세(응답자 기준) 시기,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 | 255 |
| 〈표 9-1〉 성별 투표참여율 .....   | 267 |
| 〈표 9-2〉 연령대별 투표 참여 .....                                       | 267 |
| 〈표 9-3〉 가구소득별 투표 참여 .....                                      | 268 |
| 〈표 9-4〉 교육수준별 투표 참여 .....                                      | 268 |
| 〈표 9-5〉 거주지역별 투표참여율 .....                                      | 269 |
| 〈표 9-6〉 성별 정당 선택 .....   | 269 |
| 〈표 9-7〉 연령별 정당지지 .....   | 270 |
| 〈표 9-8〉 가구소득별 정당지지 .....                                       | 271 |
| 〈표 9-9〉 교육수준별 정당지지 .....                                       | 271 |
| 〈표 9-10〉 거주지역별 정당지지 .....                                      | 272 |
| 〈표 9-11〉 성별 정치성향의 세대 간 전승 .....                                | 273 |
| 〈표 9-12〉 연령별 정치성향의 세대간 전승 .....                                | 273 |
| 〈표 9-13〉 소득수준별 정치성향의 전승 .....                                  | 274 |
| 〈표 9-14〉 교육수준별 정치성향의 전승 .....                                  | 274 |
| 〈표 9-15〉 거주지역별 정치성향의 전승 .....                                  | 275 |
| 〈표 9-16〉 성별 가족 간 정치대화 .....                                    | 276 |
| 〈표 9-17〉 연령별 가족 간 정치대화 .....                                   | 277 |
| 〈표 9-18〉 교육수준별 가족 간 정치대화 .....                                 | 278 |
| 〈표 9-19〉 소득수준별 가족 간 정치대화 .....                                 | 278 |
| 〈표 9-20〉 거주지역별 가족 간 정치대화 .....                                 | 279 |
| 〈표 9-21〉 성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                           | 279 |
| 〈표 9-22〉 가구소득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                        | 280 |
| 〈표 9-23〉 연령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                          | 281 |
| 〈표 9-24〉 교육수준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                        | 282 |
| 〈표 9-25〉 거주지역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                        | 282 |
| 〈표 9-26〉 성별 정치관심 .....   | 284 |
| 〈표 9-27〉 가구소득별 정치관심 .....                                      | 284 |
| 〈표 9-28〉 연령별 정치관심 .....  | 285 |
| 〈표 9-29〉 교육수준별 정치관심 .....                                      | 285 |

|  |     |
|--|-----|
| 〈표 9-30〉 거주지역별 정치관심 .....                | 286 |
| 〈표 9-31〉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관심 .....           | 286 |
| 〈표 9-32〉 성별 정치적 냉소주의   .....             | 288 |
| 〈표 9-33〉 가구소득별 정치냉소주의   .....            | 288 |
| 〈표 9-34〉 연령별 정치냉소주의   .....              | 289 |
| 〈표 9-35〉 교육수준별 정치냉소주의   .....            | 289 |
| 〈표 9-36〉 거주지역별 정치냉소주의   .....            | 289 |
| 〈표 9-37〉 성별 정치냉소주의    .....              | 290 |
| 〈표 9-38〉 가구소득별 정치냉소주의    .....           | 291 |
| 〈표 9-39〉 연령별 정치냉소주의    .....             | 291 |
| 〈표 9-40〉 성별 정치적 냉소주의     .....           | 292 |
| 〈표 9-41〉 가구소득별 정치적 냉소주의 .....            | 293 |
| 〈표 9-42〉 연령별 정치적 냉소주의 .....              | 293 |
| 〈표 9-43〉 교육수준별 정치적 냉소주의     .....        | 293 |
| 〈표 9-44〉 거주지역별 정치적 냉소주의     .....        | 294 |
| 〈표 9-45〉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적 냉소주의   .....     | 294 |
| 〈표 9-46〉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적 냉소주의    .....    | 295 |
| 〈표 9-47〉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적 냉소주의     .....   | 295 |
| 〈표 9-48〉 가족 간 정치대화와 투표 참여(국회의원 선거) ..... | 296 |
| 〈표 9-49〉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성향의 세대 간 전승 .....  | 296 |
| 〈표 10-1〉 기혼 남성의 가사참여 정도 .....            | 302 |
| 〈표 10-2〉 기혼 여성의 가사참여 정도 .....            | 304 |
| 〈표 10-3〉 기혼 여성의 가사참여 정도 .....            | 305 |
| 〈표 10-4〉 성역할 인식 .....                    | 307 |
| 〈표 10-5〉 남성의 성역할 인식 .....                | 308 |
| 〈표 10-6〉 여성의 성역할 인식 .....                | 309 |
| 〈표 10-7〉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 .....              | 310 |
| 〈표 10-8〉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빈도 .....            | 311 |
| 〈표 10-9〉 주관적 건강 .....                    | 312 |
| 〈표 10-10〉 결혼생활 만족도 .....                 | 313 |
| 〈표 10-11〉 생활만족도 .....                    | 313 |

---

|  |     |
|--|-----|
| 〈표 10-12〉 국가별 결혼관련 가치관 (2006년) .....                 | 316 |
| 〈표 10-13〉 가족 관련 가치관 (2006년) .....                    | 318 |
| 〈표 10-14〉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 320 |
| 〈표 10-15〉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감 .....                         | 321 |
| 〈표 10-16〉 부모-자녀간 경제적 도구적 교환관계 .....                  | 322 |
| 〈표 10-17〉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                          | 323 |
| 〈표 10-18〉 배우자의 부모와의 지원교환 형태 .....                    | 324 |
| 〈표 10-19〉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                     | 325 |
| 〈표 10-20〉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 .....                        | 325 |
| 〈표 10-21〉 자녀와의 동거여부 .....                            | 326 |
| 〈표 10-22〉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 현황 .....            | 326 |
| 〈표 10-23〉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구적 지원 현황 ..... | 327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 흐름도 .....                                | 24  |
| [그림 2-1] 세대구성별 구성비 .....                             | 36  |
| [그림 2-2] 일반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변화 .....                    | 37  |
| [그림 2-3] 가구원수별 구성비 .....                             | 37  |
| [그림 2-4] 1인 가구의 변화 추이 .....                          | 39  |
| [그림 2-5] 성별 및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                     | 39  |
| [그림 2-6] 한부모 가구 비율 추이 변화 .....                       | 40  |
| [그림 2-7] 다문화 혼인 건 수 .....                            | 41  |
| [그림 2-8]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                    | 42  |
| [그림 2-9] 모(母) 연령별 합계 출산율 .....                       | 43  |
| [그림 2-10]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 .....                          | 44  |
| [그림 2-1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                      | 45  |
| [그림 2-12]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                    | 46  |
| [그림 2-13] 남녀 대학진학률 .....                             | 47  |
| [그림 2-14] 남녀 대학진학률 .....                             | 47  |
| [그림 2-15]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                        | 49  |
| [그림 2-16]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 49  |
| [그림 2-17]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 50  |
| [그림 2-18]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51  |
| [그림 2-19]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 52  |
| [그림 2-20] 부부관계 만족도 .....                             | 53  |
| [그림 2-21] 자녀관계 만족도 .....                             | 54  |
| [그림 2-22] 일가족양립지원제도 도입 비율 .....                      | 55  |
| [그림 2-23]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                         | 57  |
| [그림 2-24] 기혼 여성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치관 .....           | 58  |
| [그림 5-1] 결혼 적정 연령 .....                              | 146 |
| [그림 7-1]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성인남성 → 본인의 부모 .....       | 199 |
| [그림 7-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성인여성 → 본인의 부모 .....       | 200 |
| [그림 7-3]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성인남성 → 배우자의 부모 .....      | 202 |

|   |     |
|---|-----|
| [그림 7-4]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성인여성 → 배우자의 부모 ..... | 204 |
| [그림 7-5] 노부모 부양 책임 주체 .....                     | 206 |
| [그림 7-6] 본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208 |
| [그림 7-7] 본인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                 | 210 |
| [그림 7-8]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               | 212 |
| [그림 7-9]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               | 214 |
| [그림 7-10]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216 |
| [그림 7-11]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               | 218 |
| [그림 7-12]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             | 219 |
| [그림 7-13]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             | 221 |
| [그림 7-14]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 .....             | 223 |
| [그림 7-15]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 .....         | 224 |
| [그림 6-16]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225 |
| [그림 7-17]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       | 227 |
| [그림 7-18]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     | 228 |
| [그림 7-19]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     | 230 |
| [그림 9-1] 가족 간 정치대화 .....                        | 276 |
| [그림 9-2] 정치 관심 .....                            | 283 |
| [그림 9-3] 정치적 냉소주의 I .....                       | 287 |
| [그림 9-4] 정치적 냉소주의 II .....                      | 290 |
| [그림 9-5] 정치적 냉소주의 III .....                     | 292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부양 체계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함. 이러한 인구 및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근저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족 관련 행동들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사회와 비슷한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 사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위치와 앞으로의 변화, 전개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양질의 자료 구축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사회조사가 동시에 실시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해마다 한국종합실태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음. 이번 연구는 조사된 한국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 및 국제비교를 통해 가족 변화 현상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2. 인구학적 변화와 개인의 대응

- 21세기 전후 인구학적 변화
  - 세대구성: 가족구조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두드러진 변화는 가구형태의 축소로 2세대와 1세대가 주를 이룸
    - 전체 가구형태 중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의 핵가족 형태가 여전히 전체 가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반대로 1세대 가구는 크게 증가하였는데,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1인 가구에 기인함
- 가구원 감소: 가구세대 구성과 같이 1인 및 2인 가구원 수는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1인가구 비율이 높음. 남성은 혼인직전인 28세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고, 여성은 26세에서 1차 정점을 이룬 후 혼인으로 감소하였다가 사별로 점차 증가하여 79세에 정점을 다다름.
- 최근 미혼율 증가로 인해 남녀 모두 40세 이전인 연령층에서 미혼 1인 가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함

○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

- 2015년 현재 전체 가구 중 9.5%가 한부모 가구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사별(29.7%)과 이혼(32.8%)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부부의 이혼 및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 함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현상

- 2015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239명 수준임.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빠른 시간에 진행되어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출산율 감소와 함께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 5.0%에서 2000년 7.3%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와 함께 취업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여성의 취업 증가와 함께 또 다른 특징은 남녀 모두 교육수준의 증가임

-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대응: 가족 가치와 행위
  -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지원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볼 수 있음
  -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2년 25.6%에서 2016년 12.5%로 지난 14년간 13.1%p나 감소해,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약화됨
  - 한국인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화함. 최근 들어 중장년층들이 본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차 높아져,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 및 지원은 낮아지고 있음
  
- 이전 연구에 대한 평가
  - 21세기를 전후하여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및 가족구조 변화는 개인 및 가족의 가치와 행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 가족의 가치와 행위 변화에 대한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많은 사회조사에서 성별, 세대, 교육 및 직업 등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조사 및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3. 한국인의 성 역할 인식 변화

- 연구배경 및 목적
  - 어떤 사회든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데, 성, 지역,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대표적임. 그 중 성 차별인식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등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대만은 동일한 유교적 가족문화를 공유하였고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성 평등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널리 확산되었지만 가족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차이로 성 역할인식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실태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사회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전환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 역할 인식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연구결과

○ 가사참여는 성 평등의식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짐.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사에 참여하는 정도는 극히 낮아 관념적 인식과 실제 행동간 간극이 큼

○ 가사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참여가 증가했지만 가사의 내용에 따라 남성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음

- 남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식사준비의 경우 여전히 여성의 분담정도가 높고 반대로 집안청소는 식사준비나 세탁에 비해 남성의 분담률이 높았음.
- 반대로 집안수리는 상시적 일이 아니며 성격상 남성의 참여가 불가피해 여성의 분담률이 낮고 장보기도 남성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분야임

○ 성차별인식은 분야별로 인식차기 큼

- ‘불경기에는 우선적으로 여성을 해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녀 모두 동의정도가 낮음. 노동시장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임.
- 반면 ‘여성의 전일제 취업이 미취학자녀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 동의정도가 높아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차별인식 정도가 높았음
- ‘여성이 취업하더라도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지’에 대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동의 정도가 낮았음. 이

는 남성의 경우 여성(아내)이 일과 가정양립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가진 반면, 여성은 현실적으로 두가지를 한꺼번에 잘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 4. 가족 간 행위와 만족도

### □ 연구의 필요성

- 한국사회의 가족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 중에서 가족 간의 저녁 식사 빈도, 여가생활의 공유 정도와 함께 건강상태 그리고 생활만족도 및 결혼 만족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 □ 연구결과

- 저녁식사빈도: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있어 '거의 매일' 가족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2006년과 2016년 모두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거의매일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의 빈도: 가족과 '한달에 한 번' 정도 여가생활을 공유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일주일에 한 번' 여가를 함께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본인 및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생활만족도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향상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감소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임
-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 가족과의 여가생활, 그리고 부부의 건강상태 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 2016년의 경우 가족과 저녁식사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비율이 2006년에 비해 8.9%p 더

높았음. 즉 가족과의 저녁식사는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만족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편임. 10년의 시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16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5. 가족주의 결혼에 대한 태도

### □ 연구의 필요성

- 가족주의란 한국인의 행동양식의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정부에서 가족 관련 행위의 변화에 대한 알맞은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 선행연구 결과

- 선행연구 분석 결과, 가족형태는 다양화되었지만, 가족주의와 관련된 절대적인 가치가 모두 변화되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음. 한국사회의 가족가치는 다른 아시아 국가 및 서구와 비교하여 더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족 주기에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예: 세대 간 지원 등)는 여전히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 연구결과

-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에 따라 가족 태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함. 특히, 여성은 결혼 후 출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짐.
- 아직 우리사회에서 합리적인 가사 분담은 실제 가정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가족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모든 연령에서 전통적 가족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감소하였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그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짐.

- 젊은 층의 미혼율과 1인 가구(독거노인가구 포함)의 증가 등 가족의 소규모화와 향후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쇠퇴가 전망됨을 예상할 때, 전통적 가치관에 기초한 현재 가족 관련 정책들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이에 새로운 가구 형태에 맞춰 가족이 책임졌던 역할 및 기능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될 필요가 있음

## 6. 세대 간 교환관계 I : 세대 간 교환관계 이론의 한국적 적용과 발전 방향 모색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최고의 수준임. 젊은이들은 갈수록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고 있으며, 자식을 낳기를 포기함. 이처럼 우리나라의 각 세대는 밝지 않은 각각의 전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 이러한 최근의 변화들이 어떻게 세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한국의 세대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함

### □ 연구결과

- 세대 간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지지(support)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됨
  - 세대 간 사회적 지지에는 경제적 지지(financial support),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로 나뉨
- 세대 간 동거
  -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세대 간 동거는 줄어왔고, 2000년대 중반에도 아들 자녀 중심으로 동거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만과 중국은 규범론적 원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세대 간 상호지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결정요인으로 보임
- 세대 간지지

- 세대 간 지지는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교 문화권의 규범론적 특징을 보이나, 지지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세대 간 오고가는 양상을 본다면 경제적 필요에 의해, 그리고 상호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환론적 특성을 보임

○ 한국의 세대 간 관계 변화: 2006년과 2016년

-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지에 대한 규범적 태도는 특히 여성과 30, 40대에게서 약화됨
- 미혼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특히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을 고려했을 때, 최근 젊은 층과 여성들이 느끼는 취업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도구적 지지에 대해서는 부모와 주고 받는 모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함. 대도시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지지에 대해 좀 더 호혜적 가치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임

## 7. 가족 내 세대관계 II: 인식과 지원형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함에 따라 세대 간 결속이 중요해지고 있으며(Bengtson, 2001), 가족형태 다양화 등으로 가족 내 세대관계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가족 내 세대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관계 양상을 포착하고,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주요 연구결과

- 첫째,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원 의무에 대한 규범은 전반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가족부양관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노부모 부양에 있어 가족부양 규범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부양의 주체는 장남 중심의 부양 체계에서 모든 자녀가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 역시 ‘딸’이 증가하고 있는 등 부계중심성과 양계화가 혼재되어 나타남
- 셋째, 자녀와의 지원 행태를 살펴보면 부모가 성인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행태가 아닌, 양방향에서 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호혜적인 관계가 확인됨. 다만, 지원교환에 있어 여전히 부계 중심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계층에 따른 교환형태의 차이가 있음

## 8.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Ⅲ: 동거와 근접거주의 행태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대간 교환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리적 근접성임. 지리적 근접성이란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지리적으로 가까이 사는지를 의미함.
- 한국사회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은 최근 들어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 남편쪽 부모와 동거비중은 줄고 있는 반면 아내쪽 부모와 동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부모와의 동거와 근접거주, 성별 차이, 세대주기별 변화를 주목하여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자 함

### □ 주요 연구결과

- 부모와의 동거와 지리적 근접성: 10년간 동거의 비중은 24.9%에서 27.8%로 소폭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동안에 15분 이내에 근접 거주함을 의미하는 근접성은 8.4%에서 12.5%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한 대상의 특성: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들에게서, 18~39

세의 젊은 응답자들보다도 35~49세의 집단과 50~64세 집단에서 크게 늘어남

- 이는 자녀양육 관련 부모세대로부터 도구적 지원 필요성과, 노부모가 연로 해집에 따라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음

○ 동거하지 않고 근접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은 흥미로운 결과임. 즉, 전통적 가치관과 실용적인 필요성간에 타협된 결과일 수 있음.

## 9. 가족관계와 정치행위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 정치행위의 특징은 가족주의가 정치적 성향을 영향을 미침. 이는 국가가 국민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가족주의는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 태도와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족이 갖는 의미는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도 소수에 불과함

### □ 주요 연구결과

- 세대 간 정치성향 및 지지후보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부모 세대인 50대와 자녀 세대인 20대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있어서 동질성을 가짐
-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투표참가율이 낮음
  - 이는 젊은 세대의 낮은 정치관심과 냉소로 인한 부모 세대의 정치성향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경향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작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젊은 세대의 낮은 참여가 계속된다면 미래 한국사회는 정치실패 또는 거버넌스의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10.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 □ 성역할 인식변화

-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중국 - 대만 - 한국 - 일본의 순으로 나타남
  - 중국과 대만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 정도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가사 노동의 주요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됨
-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젠더인식은 4개국 모두에서 개별 국가 내 남녀 간 인식의 분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에는 남성의 가사 참여와 성별 일/가정 역할 차이 의견에 대한 동의율에서 그 차이가 큼. 중국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의견 동의율, 대만은 남편 경력 우선 의견과 성별 일/가정 역할 차이 의견에 대한 동의율에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일본의 경우에는 성별 일/가정 역할 차이 의견과 가사분담 의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별 동의율의 차이가 발견됨

### □ 가족간 행위와 만족도

-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와 여가활동 공유 빈도를 통해 가족 간의 교류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면 동아시아 4개국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임
  - 대만은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정도가 모두 높은 편이며, 중국은 저녁식사 빈도는 많지만 여가활동은 적은 편임. 반면, 일본은 저녁식사와 여가활동 모두 여타 4개국에 비해 낮은 편임.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족 간의 교류를 많은 편임. 대만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일본은 가족주의의 약화로 인한 가족 간 교류의 감소와 개인주의화의 강화가 눈에 띈다

- 결혼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종합해보면, 대만은 양자 모두 높은 편이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결혼만족도나 생활만족도가 낮은 편임

□ 결혼의 절대성

- 가족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근소하게 한국-중국-대만-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할 때, 가족 가치 영역에 따라 비교대상국가 사이의 일관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동아시아 4개국에서 가족 가치에 동의하는 수준이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각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 가치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동아시아 4개국 모두에서 가부장제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두드러졌으며, 중국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가부장제 가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대만의 경우, 중국과 비슷하게 부모-자식 관계를 강조하는 가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일본은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동의함

□ 세대간 교환관계

- 자녀와 부모세대의 가족 내 세대교환 행태는 전반적으로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가 서로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주고받는 호혜적 성격임
- 가족 내 세대관계는 응답자와 부모의 관계(예: 부모/배우자의 부모)에 따라 주고받는 지원 영역(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및 빈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남
- 전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보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다른 3개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 가부장적 특성에 기반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무가 약해지고, 가족 가치관 및 세대관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 줌.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사회보장시스템, 즉 공적 연금제도 및 개호보험 제도의 정착으로 노인이 자녀세대로부터 부양을 받을 필요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조사의 설계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산 지속과 인구구조 고령화의 인구변천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부양 체계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다양한 층위의 사회구조를 통해 교육, 주택, 복지, 소비, 정치구조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사회 변동의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인구 및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근저에 있는 사회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구체적 가족 관련 행동들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족 및 관련 인식과 태도들의 변화는 거시적 맥락에서 상당한 수준의 보편적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의 특수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에 따라 차별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와 비슷한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 사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위치와 앞으로의 변화 전개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양질의 자료 구축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사회조사가 동시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국제비교가 가능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여러 사회조사들을 국제공조 아래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라고 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회종합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를 활발히 실시중인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는 동아시아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가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두 국제사회조사 모두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

치센터(SRC)가 주관기관이 되어 지난 10여 년 이상 해마다 한국종합실태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특별히 올해에는 ‘동아시아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사회조사가 실시되는데, 이 작업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그리고 조사를 주관하는 SRC가 EASS 데이터 생산 및 분석하는 조사 및 연구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연구는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사회 및 국제비교를 통해 가족 변화 현상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 구성 및 부양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조사항목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시계열적 변화분석 및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비교분석(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ies) 실시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사회 및 동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가 가능한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여 추후 사회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들의 향후 연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연구조사의 설계

### 1. 조사목적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 EASS)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GSS) 형태의 사회조사를 시행하는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관들 사이에 동아시아 비교 연구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한국의 주도로 창설된 동아시아 사회조사 연대기구이다. 4개국의 기관들은 중국의 인민대, 일본의 오사카상과대, 한국의 성균관대, 그리고 대만의 국립중앙연구원으로, 각각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C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J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and Taiwanese Social Change Survey(TSCS)를 수행하고 있다. 이 4개 기관은 공동으로 EASS의 주제모듈(topical modules)을 개발하고, 격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다.<sup>1)</sup>

EASS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에 포함되어

조사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의 NORC에서 1972년 최초로 창안되어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의 ‘한국판’ 조사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미국 GSS를 기본 모형으로 삼고,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GSS 형태의 조사들의 내용을 적극 수용함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적절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핵심적 내용들을 포괄하여 매년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EASS(East Asian Social Survey) 및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 회원국들이 매년 주제를 바꾸어가며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그리고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모듈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문을 구성하며, 현지조사는 대면면접(person to person interview) 방식으로 매년 6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수행한다. 조사된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 센터에서 EASS 원자료의 정선(cleaning) 및 통합(integration and harmonization)과정을 거쳐 EASSDA 아카이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켜왔다.<sup>2)</sup> 올해 조사의 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홈페이지와 EASSDA 아카이브를 통해서 2017년 발표될 예정이다.

## 2. 조사내용

EASS는 지금까지 5번의 조사(2006년 「Family in East Asia」; 2008년 「Globalization & Culture in East Asia」; 2010년 「Health in East Asia」; 2012년 「Network Social Capital in East Asia」)가 수행되었다(표 1-1 참조). 2014년 5번째 모듈 주제 「Work Life in East Asia」는 2015년에 조사 예정이었지만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중단으로 EASS의 한국조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향후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EASS는 더 이상 새로운 모듈 주제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의 5가지 모듈들을 각각 10년 주기로 반복해서 조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은 「Family in

1) Tom W. Smith, Jibum Kim, Achim Koch, and Alison Park. 2006. "Social-Science Research and the General Social Surveys" *Comparative Sociology* 5(1):33-43.

2) <http://www.eassda.org>

East Asia」를 조사하였고, 2018년은 「Globalization & Culture in East Asia」의 조사가 반복될 예정이다.

〈표 1-1〉 EASS 주제 모듈, 2006-2016

| EASS 주제 모듈  | EASS 주제모듈 연도    |
|---|-----------------|
| 동아시아의 가족<br>(Family in East Asia)                           | 2006, 2016      |
|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br>(Globalization and Cultures in East Asia) | 2008, 2018 (예정) |
| 동아시아의 건강<br>(Health in East Asia)                           | 2010            |
| 동아시아의 네트워크·사회적 자본<br>(Network Social Capital in East Asia)  | 2012            |

### 3. 표본 설계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설(예, 기숙사, 군부대)에 살지 않고, 한국어로 소통 가능한 성인 남녀이다. 만약 모든 성인들을 포함한 목록이 존재한다면, 이 목록을 이용하여 표본을 직접 추출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목록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확률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4단계 과정을 통하여 잠정적인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4단계 중 3단계는 가구를 선택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선정된 각 가구에서 응답자로 자격이 되는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다.<sup>3)</sup>

#### 가. 1차 표집단위(Primary sampling unit) 추출

제 1차 표집단위는 동/읍/면 이다. 100개의 1차 표집단위를 인구비례확률(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3) 제1차(2003), 2차(2004)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표본의 크기는 2,000명이었으나 제3차(2005) 한국종합사회조사부터는 표본오차를 줄이고 유효표본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크기를 2,500명으로 증대시켰다. 2014년까지는 1차 표집단위(primary sampling unit)가 200개였다.

## 1) 표집틀(sampling frame)

표집틀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 및 인구현황(www.mogaha.go.kr)의 3,496개의 동/읍/면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 2) 층화(stratification) 및 표본 할당(sample allocation)

추정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집틀을 지역 및 도농 간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 층화(explicit stratification)를 하였다. 1차 표집단위들은 각 층(stratum)인 광역시도에서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다. 각 광역시도의 가구 수에 비례하여 100개의 1차 표집단위를 배분하였다.

$MOS_{ij}$  : 광역시/도( $i^{th}$ ) 동/읍/면( $j^{th}$ )의 가구 수

$n_i$  : 광역시/도( $i^{th}$ ) 1차 표집단위 할당 수

$N_i$  : 광역시/도( $i^{th}$ ) 전체 동/읍/면 수

$$n_i = 100 \times \frac{\sum_{j=1}^{N_i} MOS_{ij}}{\sum_{i=1}^{17} \sum_{j=1}^{N_i} MOS_{ij}}$$

참조로 총 동/읍/면 수는 3,496개 이고, 할당된 총 1차 표집단위 수는 100이다. 이때 표집단위 할당 수는 반올림된 정수가 이용되었다. <표 1-2>은 각 층인 광역시도의 가구 수와 이에 비례한 1차 표집단위의 할당 수를 보여준다.<sup>4)</sup>

## 3) 추출(selection)

1차 표집단위는 각 광역시도의 동/읍/면 목록에서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추출하였다. 표집틀은 표본 선정 이전에 광역시도 그리고 구/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체계적 추출 방법(systematic selection metho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chran(1977), Kish(1965), 그리고 Sarndal, et al.(1992)에서 찾을 수 있다.

4) 8번 층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반올림 시에 1차 표집단위가 0이어야 하지만(포함되지 말아야 함을 의미), 세종특별자치시를 표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표집단위 하나를 배정하였다.

$p_{ij}$  : 광역시/도( $i^{th}$ ) 동/읍/면( $j^{th}$ )의 추출 확률(inclusion probability)

$$p_{ij} = n_i \times \frac{MOS_{ij}}{\sum_{j=1}^{N_i} MOS_{ij}}$$

#### 나. 제 2차 표집단위(Secondary Sampling Unit)의 추출

2 차 표집단위는 동의 경우 통/반 그리고 면의 경우 통/리로 정의된다.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2차 표집단위를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선정한다.

$MOS_{ijk}$  : 광역시/도( $i^{th}$ ) 동/읍/면( $j^{th}$ ) 통/반/리( $k^{th}$ )의 가구 수

$p_{k|ij}$  : 각 광역시/도( $i^{th}$ ) 동/읍/면( $j^{th}$ )에서 통/반/리( $k^{th}$ )의 조건 추출 확률

$$p_{k|ij} = \frac{MOS_{ijk}}{MOS_{ij}}$$

#### 다. 가구 추출

선정된 통/반 또는 통/리에서 표집원(sampler)이 가구의 표집틀(sampling frame)을 전통적 가구명부(traditional listing) 혹은 주민센터의 가구 관련 자료를 얻은 경우는 의존적 가구명부(dependent listing)작성 방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작성된 가구 표집틀을 서베이리서치 센터에 보내면, 서베이리서치 센터는 선정된 지역에서, 미리 정해진( $m=16$ ) 가구 수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p_{l|kij}$  : 각 광역시/도( $i^{th}$ ) 동/읍/면( $j^{th}$ )에서 통/반/리( $k^{th}$ )에서 가구의 조건 추출 확률

$$p_{l|kij} = \frac{m}{MOS_{ijk}}$$

가구의 전체 비조건부 추출 확률은 상수로 2016 KGSS 가구 표본은 동일확률추출 방법(equal probability of selection method, 혹은 epsem)으로 선정된 표본이다.

$$\begin{aligned}
 p_{ijkl} &= 100 \times \frac{\sum_{j=1}^{N_i} MOS_{ij}}{\sum_{i=1}^{17} \sum_{j=1}^{N_i} MOS_{ij}} \times \frac{MOS_{ij}}{\sum_{j=1}^{N_i} MOS_{ij}} \times \frac{MOS_{ijk}}{MOS_{ij}} \times \frac{m}{MOS_{ijk}} \\
 &= 100 \times \frac{m}{\sum_{i=1}^{17} \sum_{j=1}^{N_i} MOS_{ij}}
 \end{aligned}$$

## 라. 가구원 추출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목록을 작성한 후, 이들 가운데 조사시점으로부터 생일을 지낸 시기가 가장 빠른 가구원을 선정하는 방법(the last birthday method)으로 최종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sup>5)</sup> 2016년 KGSS 최종 응답자 수는 1,052명이다.

〈표 1-2〉 층(stratum)의 크기와 표본 할당

| 층  | 시/도     | 가구 수      | %     | 할당 1차 표집단위 |
|----|---------|-----------|-------|------------|
| 1  | 서울특별시   | 4,194,176 | 20.23 | 20         |
| 2  | 부산광역시   | 1,416,648 | 6.83  | 7          |
| 3  | 대구광역시   | 970,618   | 4.68  | 5          |
| 4  | 인천광역시   | 1,136,280 | 5.48  | 5          |
| 5  | 광주광역시   | 573,043   | 2.76  | 3          |
| 6  | 대전광역시   | 592,508   | 2.86  | 3          |
| 7  | 울산광역시   | 442,250   | 2.13  | 2          |
| 8  | 세종특별자치시 | 62,807    | 0.30  | 1          |
| 9  | 경기도     | 4,786,718 | 23.08 | 23         |
| 10 | 강원도     | 673,978   | 3.25  | 3          |
| 11 | 충청북도    | 656,321   | 3.17  | 3          |
| 12 | 충청남도    | 871,459   | 4.20  | 4          |
| 13 | 전라북도    | 774,562   | 3.74  | 4          |

5) 2006과 2007에는 생일이 가장 늦은 가구원을 선정하고, 다른 연도에서는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선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4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 층  | 시/도     | 가구 수       | %      | 할당 1차 표집단위 |
|----|---------|------------|--------|------------|
| 14 | 전라남도    | 840,864    | 4.06   | 4          |
| 15 | 경상북도    | 1,153,559  | 5.56   | 6          |
| 16 | 경상남도    | 1,343,984  | 6.48   | 6          |
| 17 | 제주특별자치도 | 246,516    | 1.19   | 1          |
| 전체 |         | 20,736,291 | 100.00 | 100        |

주: 세종특별자치시에 1개의 1차 표집단위 할당

4. 연구추진 방법6)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국제모듈 중 하나인 “2016년 동아시아사회조사(EASS): 동아시아의 가족”은 다음의 과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이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2016년 11월 현재 최종 클리닝 작업이 마쳐진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 생산 및 보완 작업에 의해 최종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전국 37개 대학의 협력 교수를 통해 조사팀장 역할을 수행할 학생을 추천받는다. 센터에서는 1차 표집단위인 동/읍/면 100개를 추출하고, 이어서 2차 표집단위인 통/반 혹은 통/리를 선정한다. 각 대학의 조사팀장과 2차 표집단위가 확정된 후 1차 조사팀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조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조사팀장들의 역할에 대한 안내, 표집틀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워크숍이 끝나면 팀장들은 선정된 통/반 혹은 통/리에 직접 방문하여 표집틀을 그리게 된다. 조사팀장이 작성한 표집틀이 모두 수거되면 센터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조사팀장을 통해 수정·보완을 하도록 한다.<sup>7)</sup>

센터에서는 조사팀장들이 표집틀을 작성할 동안 설문지 개발에 착수한다. 애초에 영어로 개발된 표준화된 설문 항목들을 한글로 정확하고도 매끄럽게 번역하는 일은 조사의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다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 우선 조사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설문문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차적 번역을 시도한 후, 설문구성에 오랜 경륜과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영어에 능통한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진의 일차적 번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뢰하는 수순을 밟는다. 전문가들의 개별적 검토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모든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후 검토결과들을 다시금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번역된 설문지는 사전조사를 통해 본래 문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응답자들에게 무리 없이 전달되는지, 단어사용은 적절한지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설문번역을 확정한다.

표집틀이 완성되면, 2차 조사팀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사원 선발에 대한 교육과 센터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사전조사 교육을 실시한다. 조사팀장이 면접원을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센터에서는 표집틀을 바탕으로 최종 가구를 선정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모든 협력대학의 조사팀장과 면접원을 센터로 소집해 전체 면접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때, 센터에서는 조사를 하는 목적과 실질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면접원은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면접원이 작성한 설문지는 팀장이 수거하여 검표를 한 뒤에 센터로 보내고, 센터에서는 받은 모든 설문지를 다시 검토한다.

7) KGSS 표집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헌을 참조: 구묘정, 김술이, 김하영, & 김지범 (2014). 가구조사 표집틀 작성: 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연구*, 15(4), 153-174

조사가 끝나면 설문지와 미완료 기록표, 그리고 응답자 인센티브 등 모든 조사도구를 회수하여 확인한 뒤 설문지 수당을 지급한다. 검표가 끝난 설문지는 바로 데이터화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 5. 설문문항 설계 및 구성

“2016년 동아시아사회조사(EASS): 동아시아의 가족”의 주요 설문문항은 크게 17가지 측정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영역은 응답자/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 자녀수, 별거 성인 자녀와의 접촉, 양계 부모와의 접촉, 세대 간 지원 태도, 세대 간 지원 행위, 가사분담, 부양책임, 가족가치, 생활만족도, 가족유대, 결혼 이력, 부부 결속도, 부부 의사결정, 결혼만족도, 결혼 당시 양계 부모의 지원, 건강상태이고, 설문문항 2~42개가 하나의 측정영역을 구성한다. 하지만 설문문항의 순서대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 1-3>에 설문문항 및 문항번호를 표기하였다.

<표 1-3> 설문문항의 설계 및 주요 내용

| 측정영역          | 설문문항                        | 문항번호 |
|---------------|-----------------------------|------|
| 응답자 형제자매 관계   | 응답자 형 또는 오빠                 | 44   |
|               | 응답자 누나 또는 언니                | 44   |
|               | 응답자 본인                      | 44   |
|               | 응답자 남동생                     | 44   |
|               | 응답자 여동생                     | 44   |
|               | 응답자 형제자매 총합                 | 44   |
|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   | 배우자 형 또는 오빠                 | 45   |
|               | 배우자 누나 또는 언니                | 45   |
|               | 배우자 본인                      | 45   |
|               | 배우자 남동생                     | 45   |
|               | 배우자 여동생                     | 45   |
|               | 배우자 형제자매 총합                 | 45   |
| 자녀수           | 아들 수                        | 46   |
|               | 딸 수                         | 46   |
| 별거 성인 자녀와의 접촉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1 : 응답자와의 관계  | 47_1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1 : 나이        | 47_2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1 : 혼인상태      | 47_3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1 : 취업여부      | 47_4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1 : 떨어져 사는 거리 | 47_5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1 : 직접 만나는 빈도 | 47_6 |

| 측정영역                | 설문문항                        | 문항번호                |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1 : 연락하는 빈도   | 47_7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2 : 응답자와의 관계  | 47_1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2 : 나이        | 47_2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2 : 혼인상태      | 47_3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2 : 취업여부      | 47_4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2 : 떨어져 사는 거리 | 47_5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2 : 직접 만나는 빈도 | 47_6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2 : 연락하는 빈도   | 47_7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3 : 응답자와의 관계  | 47_1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3 : 나이        | 47_2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3 : 혼인상태      | 47_3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3 : 취업여부      | 47_4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3 : 떨어져 사는 거리 | 47_5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3 : 직접 만나는 빈도 | 47_6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3 : 연락하는 빈도   | 47_7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4 : 응답자와의 관계  | 47_1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4 : 나이        | 47_2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4 : 혼인상태      | 47_3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4 : 취업여부      | 47_4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4 : 떨어져 사는 거리 | 47_5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4 : 직접 만나는 빈도 | 47_6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4 : 연락하는 빈도   | 47_7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5 : 응답자와의 관계  | 47_1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5 : 나이        | 47_2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5 : 혼인상태      | 47_3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5 : 취업여부      | 47_4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5 : 떨어져 사는 거리 | 47_5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5 : 직접 만나는 빈도 | 47_6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5 : 연락하는 빈도   | 47_7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6 : 응답자와의 관계  | 47_1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6 : 나이        | 47_2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6 : 혼인상태      | 47_3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6 : 취업여부      | 47_4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6 : 떨어져 사는 거리 | 47_5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6 : 직접 만나는 빈도 | 47_6                |      |
|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6 : 연락하는 빈도   | 47_7                |      |
|                     | 응답자 부모와의 접촉                 | 응답자의 부친 : 생존여부      | 48_1 |
|                     |                             | 응답자의 부친 : 나이        | 48_2 |
|                     |                             | 응답자의 부친 : 혼인상태      | 48_3 |
|                     |                             | 응답자의 부친 : 취업여부      | 48_4 |
|                     |                             | 응답자의 부친 : 동거형태      | 48_5 |
|                     |                             | 응답자의 부친 : 떨어져 사는 거리 | 48_6 |
| 응답자의 부친 : 직접 만나는 빈도 |                             | 48_7                |      |
| 응답자의 부친 : 연락하는 빈도   |                             | 48_8                |      |
| 응답자의 모친 : 생존여부      |                             | 48_1                |      |
| 응답자의 모친 : 나이        |                             | 48_2                |      |
| 응답자의 모친 : 혼인상태      |                             | 48_3                |      |
| 응답자의 모친 : 취업여부      |                             | 48_4                |      |

| 측정영역        | 설문문항                              | 문항번호   |
|-------------|-----------------------------------|--------|
|             | 응답자의 모친 : 동거형태                    | 48_5   |
|             | 응답자의 모친 : 떨어져 사는 거리               | 48_6   |
|             | 응답자의 모친 : 직접만나는 빈도                | 48_7   |
|             | 응답자의 모친 : 연락하는 빈도                 | 48_8   |
|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 배우자의 부친 : 생존여부                    | 48_1   |
|             | 배우자의 부친 : 나이                      | 48_2   |
|             | 배우자의 부친 : 혼인상태                    | 48_3   |
|             | 배우자의 부친 : 취업여부                    | 48_4   |
|             | 배우자의 부친 : 동거형태                    | 48_5   |
|             | 배우자의 부친 : 떨어져 사는 거리               | 48_6   |
|             | 배우자의 부친 : 직접만나는 빈도                | 48_7   |
|             | 배우자의 부친 : 연락하는 빈도                 | 48_8   |
|             | 배우자의 모친 : 생존여부                    | 48_1   |
|             | 배우자의 모친 : 나이                      | 48_2   |
|             | 배우자의 모친 : 혼인상태                    | 48_3   |
|             | 배우자의 모친 : 취업여부                    | 48_4   |
|             | 배우자의 모친 : 동거형태                    | 48_5   |
|             | 배우자의 모친 : 떨어져 사는 거리               | 48_6   |
|             | 배우자의 모친 : 직접만나는 빈도                | 48_7   |
|             | 배우자의 모친 : 연락하는 빈도                 | 48_8   |
| 세대 간 지원 태도  | 경제적 지원 : 결혼 한 성인 남자가 본인부모에게       | 59_1   |
|             | 경제적 지원 : 결혼 한 성인 여자가 본인부모에게       | 59_2   |
|             | 경제적 지원 : 결혼 한 성인 남자가 배우자부모에게      | 59_3   |
|             | 경제적 지원 : 결혼 한 성인 여자가 배우자부모에게      | 59_4   |
| 세대 간 지원 행위  | 지난 1년간 본인이 본인부모에게 : 경제적 지원        | 60_1   |
|             | 지난 1년간 본인이 본인부모에게 : 집안일, 건강       | 60_2   |
|             | 지난 1년간 본인부모가 본인에게 : 경제적 지원        | 61_1   |
|             | 지난 1년간 본인부모가 본인에게 : 집안일, 육아       | 61_2   |
|             |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                   | 62     |
|             | (성인자녀有)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 동거여부       | 62.1   |
|             | (성인자녀有) 본인->성인자녀 : 경제적 지원         | 62.2_1 |
|             | (성인자녀有) 본인->성인자녀 : 집안일, 육아        | 62.2_2 |
|             | (성인자녀有) 성인자녀->본인 : 경제적 지원         | 62.3_1 |
|             | (성인자녀有) 성인자녀->본인 : 집안일, 건강        | 62.3_2 |
|             | (배우자有) 본인->배우자부모 : 경제적 지원         | 63_1   |
|             | (배우자有) 본인->배우자부모 : 집안일, 건강        | 63_2   |
|             | (배우자有) 배우자부모->본인 : 경제적 지원         | 64_1   |
|             | (배우자有) 배우자부모->본인 : 집안일, 육아        | 64_2   |
| 가사분담        | 집안일 참여 정도 : 저녁식사준비                | 65_1   |
|             | 집안일 참여 정도 : 세탁                    | 65_2   |
|             | 집안일 참여 정도 : 집안청소                  | 65_3   |
|             | 집안일 참여 정도 : 집안수리                  | 65_4   |
|             | 집안일 참여 정도 : 장보기                   | 65_5   |
| 부양책임        | 부모 부양책임 가장 큰 사람                   | 66     |
| 가족가치        | 가족가치1 :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 67_1   |
|             | 가족가치2 :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 67_2   |
|             | 가족가치3 :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행복하다 | 67_3   |
|             | 가족가치4 :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행복하다 | 67_4   |

| 측정영역           | 설문문항   | 문항번호 |
|----------------|--|------|
|                | 가족가치5 :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 67_5 |
|                | 가족가치6 :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67_6 |
|                | 가족가치7 :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이 최선책이다   | 67_7 |
| 성역할 규범         | 성역할 규범1 :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68_1 |
|                | 성역할 규범2 :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68_2 |
|                | 성역할 규범3 : 남자들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 68_3 |
|                | 성역할 규범4 : 불경기에는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 68_4 |
| 여성취업           | 어떤 경우라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 69_1 |
|                | 여성취업에 대한 의견1 :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69_2 |
|                | 여성취업에 대한 의견3 :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 69_3 |
|                | 여성취업에 대한 의견5 :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 69_4 |
| 가부장제 가치        | 가부장제 가치1 :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 70_1 |
|                | 가부장제 가치2 :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 70_2 |
|                | 가부장제 가치5 : 가계 계승을 위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70_3 |
|                | 가부장제 가치7 :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 70_4 |
| 가족유대           | 가족들과 저녁식사 함께 하는 빈도   | 71   |
|                | 가족들과 여가활동 함께 하는 빈도   | 72   |
| 생활만족도          |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 73   |
| 결혼 이력          | 현 배우자와 결혼한 년도  | 74   |
|                | 현 배우자와 결혼당시 응답자 연령   | 74   |
|                | 응답자 초혼여부   | 75   |
|                | (초혼이 아닌 경우) 초혼 당시 응답자 연령   | 75.1 |
| 가사분담           | 배우자 집안일 하는 빈도1 : 저녁식사준비  | 77_1 |
|                | 배우자 집안일 하는 빈도2 : 세탁  | 77_2 |
|                | 배우자 집안일 하는 빈도3 : 집안청소  | 77_3 |
|                | 배우자 집안일 하는 빈도4 : 집안수리  | 77_4 |
|                | 배우자 집안일 하는 빈도5 : 장보기   | 77_5 |
|                | 배우자 집안일 하는 빈도6 : 기타  | 77_6 |
| 부부 의사결정        | 가족 관련 일 주요 결정자1 : 자녀 훈육과 교육  | 78_1 |
|                | 가족 관련 일 주요 결정자2 : 본인 부모님에 대한 지원  | 78_2 |
|                | 가족 관련 일 주요 결정자3 : 고가 가정용품 구매   | 78_3 |
|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  | 79   |
| 건강상태           | 응답자 건강상태   | 80_1 |
|                | 배우자 건강상태   | 80_2 |
|                | 부친 건강상태  | 80_3 |
|                | 모친 건강상태  | 80_4 |
|                | 배우자 부친 건강상태  | 80_5 |
|                | 배우자 모친 건강상태  | 80_6 |
| 거주 지역 (15세 이전) | 15세 이전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  | 81   |

## 6. 설문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5.2%(476명), 여성이 54.8%(576명)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이하가 18.4%(194명), 30대가 16.5%(174명), 40대가 16.2%(170명), 50대가 16.8%(177명), 60대 이상이 32.0%(337명)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25.3%(266명), 고등학교 졸업이 23.6%(248명), 대학교 졸업 미만이 20.7%(218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30.4%(320명)이었다. 혼인상태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이 58.5%(615명), 사별이 11.7%(123명), 이혼이 3.7%(39명), 별거가 0.9%(9명), 미혼이 25.0%(263명), 동거가 0.3%(3명)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15.8%(152명), 100-199만 원이 10.9%(105명), 200-299만 원이 13.2%(127명), 300-399만 원이 14.0%(135명), 400-499만 원이 11.6%(112명), 500만 원 이상이 34.5%(332명)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가 17.0%(179명), 인천광역시가 4.8%(51명), 경기도가 21.4%(225명), 강원도가 3.5%(37명), 충청도가 10.6%(112명), 전라도가 13.0%(137명), 경상도가 28.3%(298명), 제주도가 1.2%(13명)이었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문항은 5점 척도(매우 진보적=1, 매우 보수적=5)를 이용하였다. 분포를 살펴보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0.7%(312명),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7.6%(382명),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1.8%(323명)로 조사되었다.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앞서 기술한 조사 내용들은 주제에 따라 총 5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에는 인구학적 변화와 한국인들의 가치변화를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인구학적 변화와 개인의 대응, 한국인의 성 역할의 인식 변화, 가족 간 행위와 만족도, 가족주의 결혼에 대한 태도, 세대 간 교환관계, 가족관계와 정치행위,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로 구성된다. 특

별히 별도의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관계 부분은 다시 두 장으로 구분되었다.

이론적 논의 부분을 제외한 각 장들은 단순 통계결과의 기술을 넘는 독립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장들은 배경과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들에 대한 개괄과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소결 부분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조사결과들을 제시하는 통계표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조사 결과의 전체적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제 2 장

# 인구학적 변화와 개인의 대응

제1절 21세기 전후 인구학적 변화

제2절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대응: 가족 가치와 행위

제3절 이전 연구에 대한 평가



# 2

## 인구학적 변화와 개인의 대응 <<

21세기를 전후하여 한국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가족구조 측면에서는 가구원 감소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가족의 세대별 구성 또한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의 증가,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도 주목할 변화이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자녀수 감소로 인해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기혼여성들의 취업률도 높다. 이에, 21세기를 전후하여 한국 가족의 가구형태 변화, 새로운 가족형태 출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 등 인구학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족의 가치 및 행위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

### 제1절 21세기 전후 인구학적 변화

#### 1.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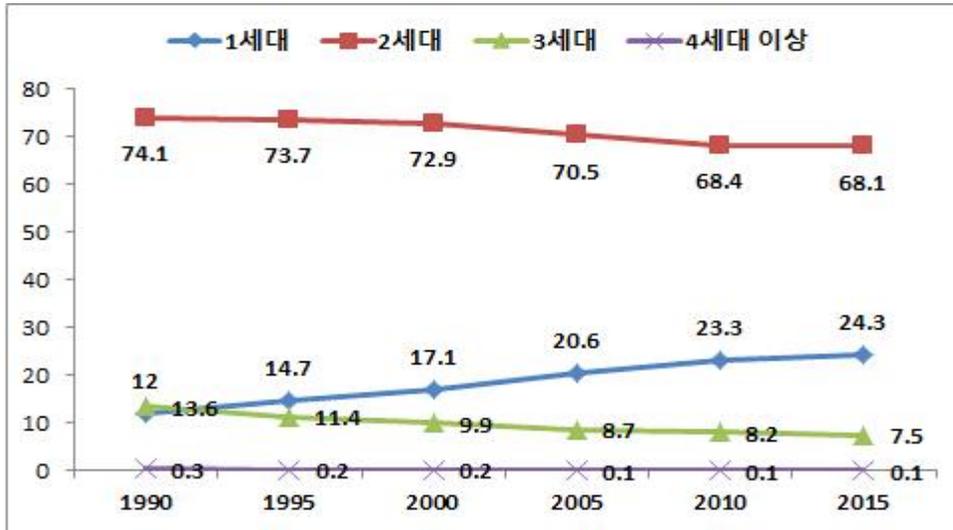
##### 가. 세대구성

가족구조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두드러진 변화는 가구형태의 축소이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가구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2-1 참조), 전체 가구형태 중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의 핵가족 형태가 여전히 전체 가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비율은 1990년 74.1%에서 2015년 68.1%로 25년 전 보다 6%p 감소했다. 또한 한국 가족의 전통적인 형태인 3세대 가구형태도 1990년 13.6%에서 2015년 7.5%로 지난 25년 기간 동안 약 6%p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1세대 가구는 크게 증가하였다. 1세대 가구는 주로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1인 가구에 기인하는데, 그 비율은 1990년 12.0%에서 10년이 지난 2000년 17.1%로 증가했다. 이후 2010년 23.3%에서 2015년 현재

24.3%로 25년 동안 12.3%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1] 세대구성별 구성비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나. 가구원의 감소

연도별 가구원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그림 2-3 참조), 앞에서 살펴보면 가구세대 구성과 같이 1인 및 2인 가구원 수는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비율이 1990년에 9.0%, 15.8%, 19.1%, 29.5%였는데 2015년에 27.2% 26.1% 21.5% 18.8%였다. 또한 평균 가구원 수도 과거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 비율은 1990년 3.7명에서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3.1명이며, 2015년 현재 2.5명까지 감소하였다.

21세기를 전후하여 가구형태 및 가구원 수의 장기적인 축소 현상은 가족형태 변화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세대는 점차 감소하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핵가족을 비롯한 1인 가구 형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형태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도 출현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족형태를 예측해 볼 때, 전체 가구형태 중 1인 가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이며, 다음으로 부부가

족,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 등 전체적인 가구형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홍승아 외, 2016).

[그림 2-2] 일반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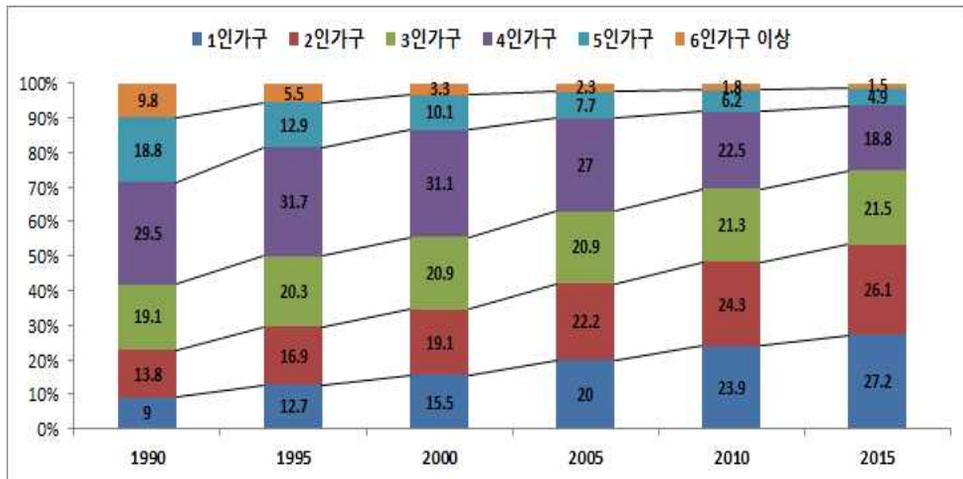
(단위: 천가구, 명)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2-3] 가구원수별 구성비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2. 새로운 가족

### 가.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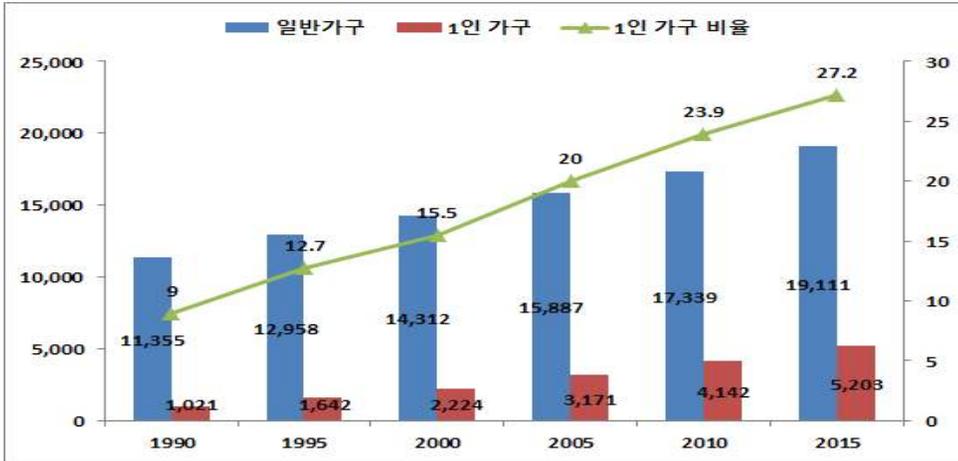
앞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가족형태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이다. 1인 가구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2-4 참조), 1990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0%이다. 그러나 2000년 15.5%에서 2005년에는 20.0%로 증가하였고, 2015년 현재 27.3%로 과거에 비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1인 가구의 이러한 증가 속도는 다른 가족형태보다 빠르다.

성별과 혼인상태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그림 2-5 참조), 남성보다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그러나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때, 미혼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 각 연령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통계청(2012)의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혼인 직전인 28세(17.3%)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여성은 26세(13.0%)에서 1차 정점에 달한 후, 혼인으로 감소했다가 사별로 점차 증가해 79세(36.9%)에 2차 정점을 보이는 패턴을 나타낸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령인구가 늘고 있다. 대체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의 평균수명에 비해 6세에서 7세 정도 많기 때문에 배우자와 사별한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자연히 매우 높다.

또한 최근 미혼율 증가로 인해 남녀 모두 40세 이전인 연령층에서 미혼 1인 가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초혼연령 상승과 높은 미혼율은 청년 실업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청년 실업률 특히 20대 남녀 실업률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20-29세 실업률은 여성의 경우 6.0%, 남성의 경우 8.9%에서 2009년 여성 6.2%, 남성 9.6%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 현재 실업률은 여성 7.6%, 남성 10.5%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은 취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결혼을 연기하게 한다(김혜영, 2014). 따라서 앞으로 1인 가구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형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홍승아 외, 2016).

[그림 2-4] 1인 가구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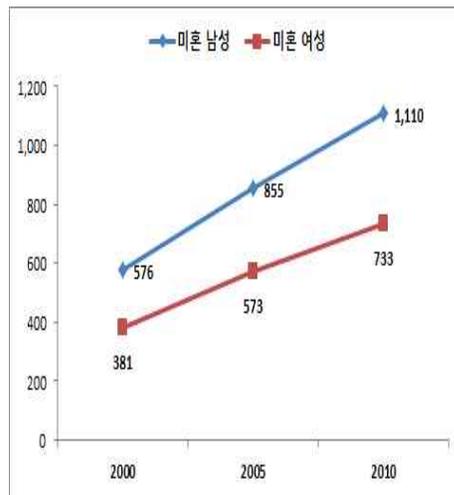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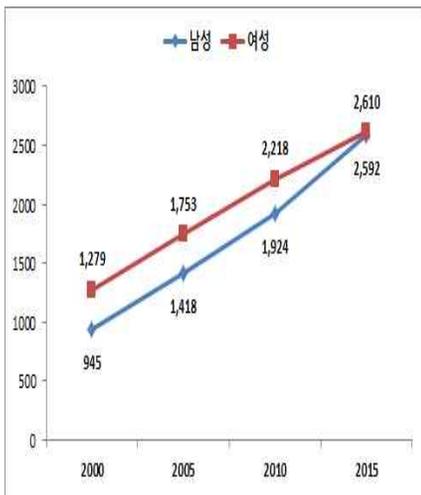
(단위: 천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2-5] 성별 및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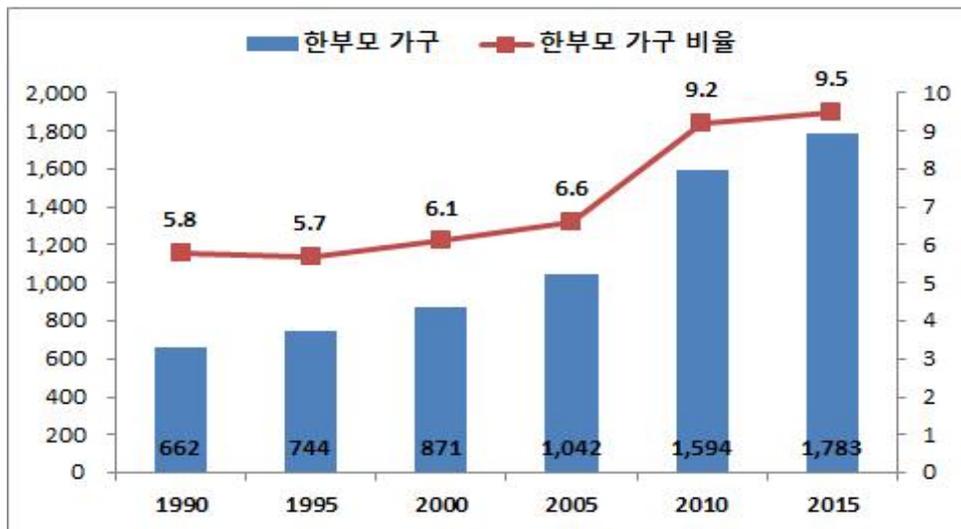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증가 또한 주목할 변화이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6 참조), 1990년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8%였다. 그러나 2000년에 6.1%로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5년 현재 9.5%까지 높아졌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사별(29.7%)과 이혼(32.8%)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다. 과거에 비해 많은 기혼남녀들이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이혼을 생각한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곧 한부모가족의 탄생으로 연결된다.

[그림 2-6] 한부모 가구 비율 추이 변화

(단위: 천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또한 부부의 이혼 및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손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인구가구 총조사를 이용하여 집계한 우리나라의 조손가족은 58,101가구로 전체 가구의 0.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는 45,224가구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다(염동훈 외, 2007). 그러나 조손가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가족형태별 구성에서 조부와 미혼 손자녀 비율은 0.3%이고 한조부모와 미혼 손자녀 0.5%로 전체 가족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외, 2015).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볼 때 이러한 조손가족의 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조손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다. 다문화가족

가족형태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인구학적 변화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 함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체 혼인건수 중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혼인 건수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93년 전체 혼인 중에서 국제결혼 건수는 1.6%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13.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현재 7.4%까지 감소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해외에 나가는 내국인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더욱 늘어나고만 있다.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가족 역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다문화 혼인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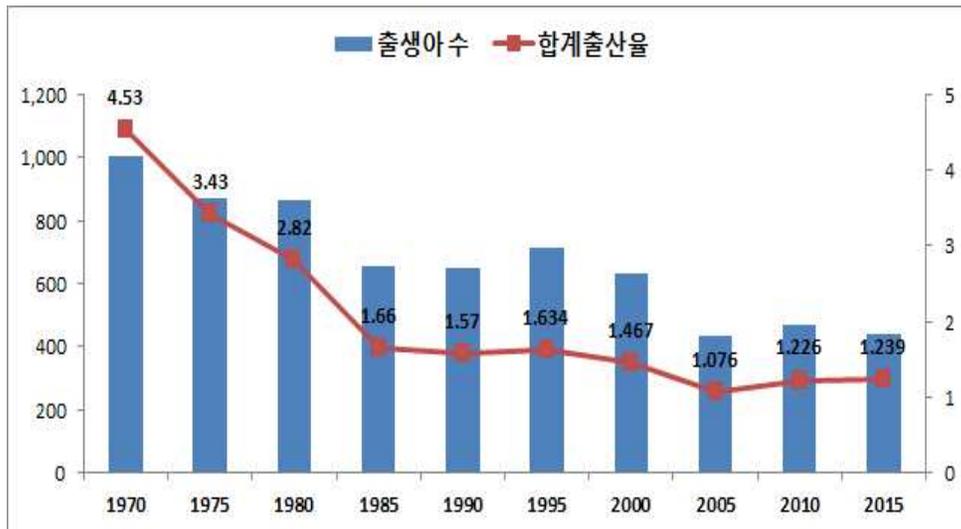
### 3.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

#### 가. 자녀수의 감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높은 출산율은 10여년 지난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아졌고, 2001년에는 1.3명으로 빠른 시간에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다. 4년 후인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현상은 장기화 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239명 수준이다(통계청, 2016).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빠른 시간에 진행되어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2-8]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명, 인구 1천 명당 명, 가입여자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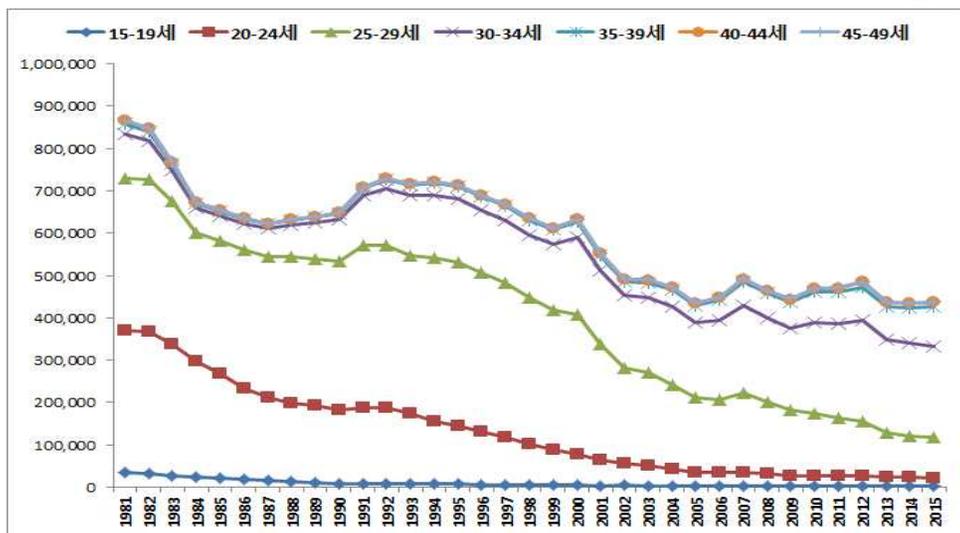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합계출산율 변동은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를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이삼식, 이지혜, 2014). 연령별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9 참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된 1983년 이후로 20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 및 20대 후반(25-29세)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20대 후반의 경우 출산율은 2005년 89.4명에서 2014년 현재 63.4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30대 초반(30-34세) 및 30대 후반(35-38세)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35-30세 출산율은 2006년 21.2명에서 2014년 현재 43.2명으로 증가하였다. 미혼여성들의 만혼화 경향으로 혼인연령이 상승되면서 여성들의 출산 연령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2014년 현재 여성들의 평균 출산연령은 32.04세이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들의 출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5). 그러나 30대 출산율 증가와 달리 20대의 낮은 출산율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이삼식, 이지혜, 2014).

[그림 2-9] 모(母) 연령별 합계 출산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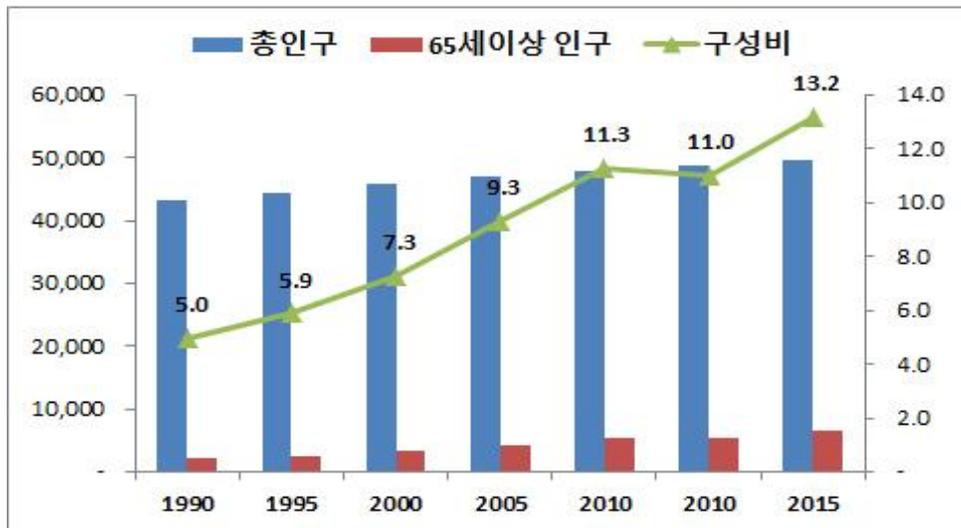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나. 평균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와 함께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2-10 참조), 1990년 5.0%에서 2000년 7.3%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인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되었고, 2015년 현재 13.2%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에는 총 인구 대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15.7%로 2020년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가속화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통계청, 2011). 한국사회 인구학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와 및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비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은퇴와 더불어 노후 준비 등 개인적 및 사회적 정책마련에 중요성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력 저하 및 경제성장의 둔화가 될 것이고, 정부의 급격한 사회복지 지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용석 외, 2011).

[그림 2-10]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4. 여성취업의 증가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와 함께 취업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2-11 참조), 1990년 47%에서 2005년 50.1%로 증가했고, 2015년 현재 51.8%를 나타낸다.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그림 2-12 참조),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전히 M자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25~29세, 그리고 45~49세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다. 특히 20대 미혼 여성들의 취업 증가와 40대 기혼 여성들의 취업 증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30~40대 취업이 높다. 즉 30~40대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2015년 현재 각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40~44세와 45~49세가 각각 79.5%, 82.1%로 가장 높다.

[그림 2-1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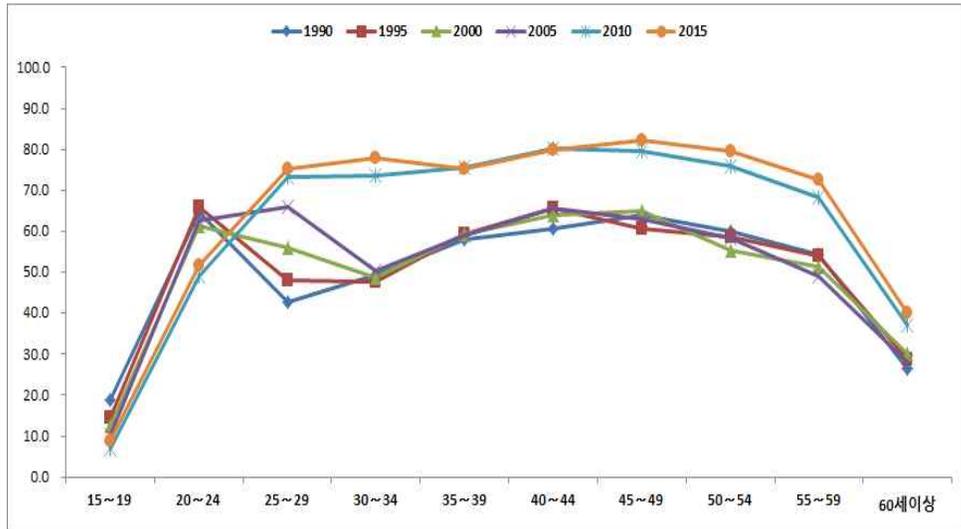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그림 2-12]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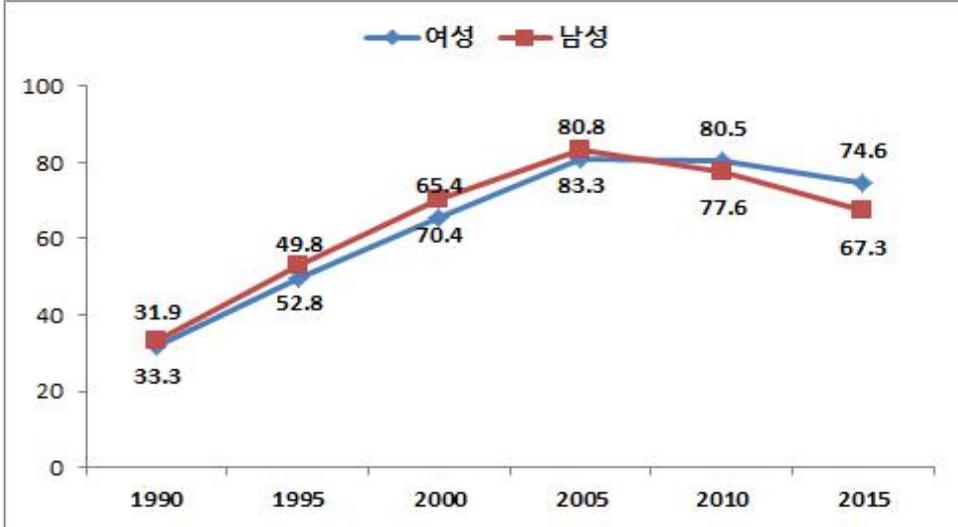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5. 교육수준의 증가

여성의 취업 증가와 함께 또 다른 특징은 남녀 모두 교육수준의 증가이다. 지난 10년간 대학진학률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13 참조),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남녀 대학진학률은 남성의 경우 70.4%(2000년)에서 77.6%(2010년)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65.4%에서 80.5%로 더 크게 증가하여, 2010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휴학을 하거나 대학원을 진학 하는 등 학교에서 머무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어(김승렬, 2015), 앞으로 교육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3] 남녀 대학진학률

(단위: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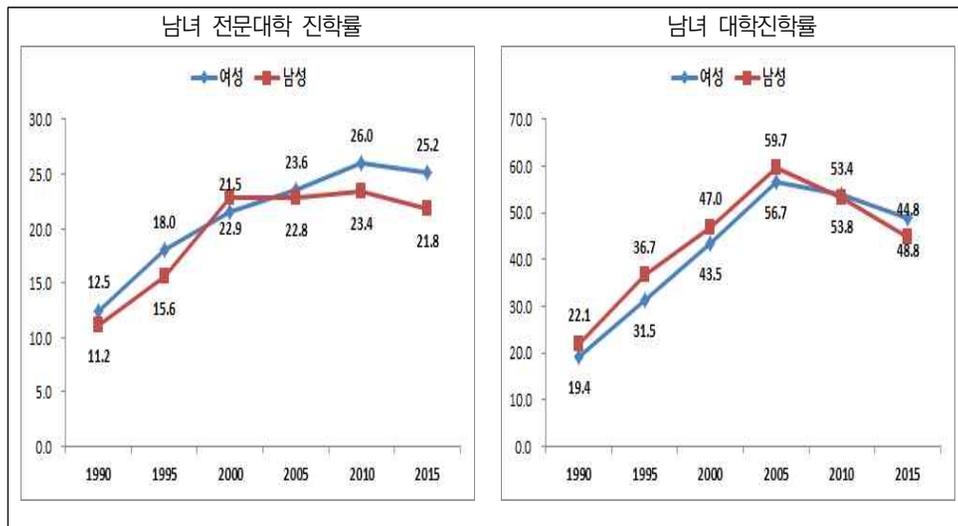
주 1: 진학률은 당해연도 졸업자 중 국내외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2: 국내 진학자에 한함.

3: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됨.

[그림 2-14] 남녀 대학진학률

(단위: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제2절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대응: 가족 가치와 행위

### 1. 가족가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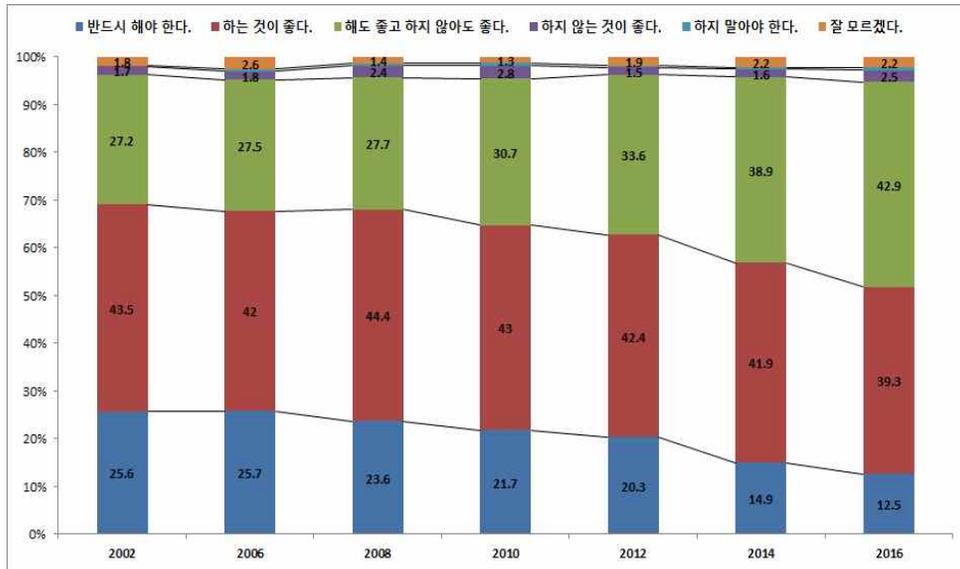
#### 가. 혼인 가치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삼식, 2006).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개인들의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성역할 가치와 태도 변화 등 가족관련 가치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이삼식, 2006; 은기수, 2001).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지원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일지로 모른다(김혜영, 2012). 가치관 변화는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이 각 연도 별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2년 25.6%에서 2016년 12.5%로 지난 14년간 13.1%p나 감소해,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약화되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00년 29.5%에서 2016년 13.4%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21.9%에서 2016년 11.7%로 감소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더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필요성에 대해, 미혼 남성의 경우 2005년 29.4%에서 2015년 18.1%로 감소한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 12.9%에서 7.7%로 미혼 남성과 달리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에 더욱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미혼 남녀들의 이러한 결혼 가치관 변화는 혼인연령 상승과 함께 미혼율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5]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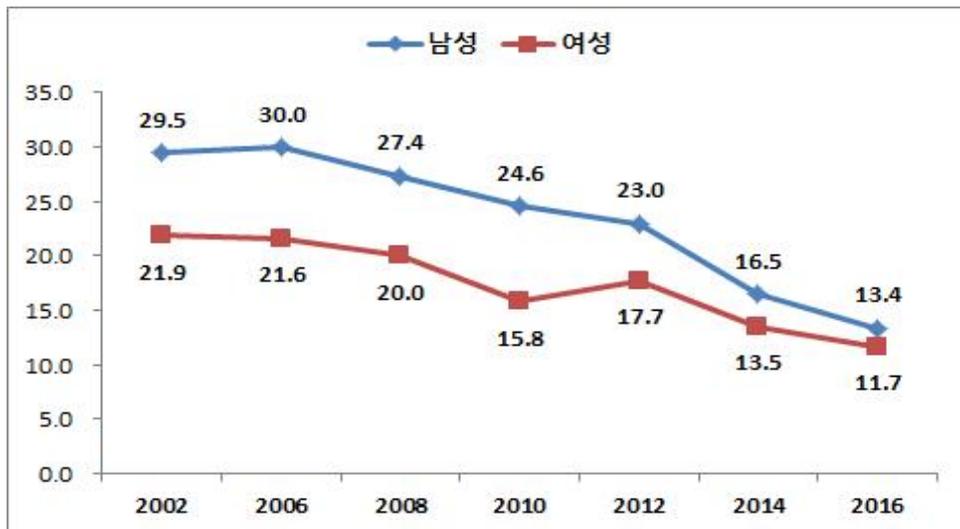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림 2-16]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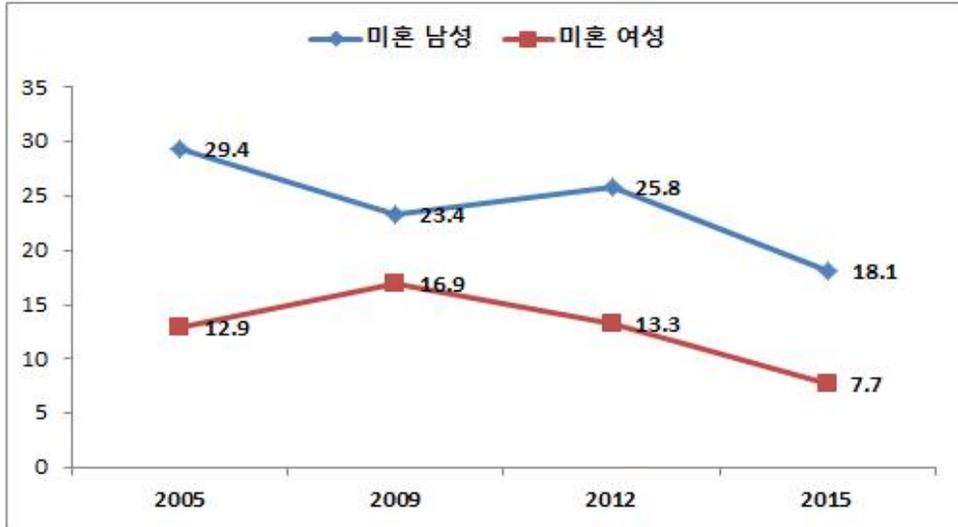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그림 2-17]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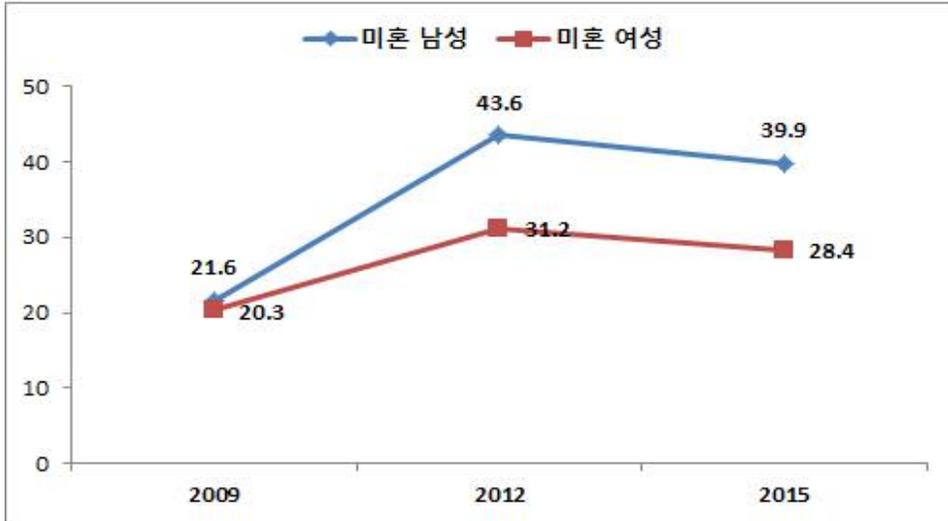
- 자료: 1)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도양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 자녀 가치관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그림 2-18 참조)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출산 및 자녀에 대한 욕구는 미혼 여성의 경우 2005년 24.3%에서 2009년 24.0% 다소 감소하였고, 미혼 남성의 경우 2005년 54.4%에서 2009년 42.1%로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혼남녀들의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개인화 또는 개인주의 가치관 변화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무자녀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이민아, 2013).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미혼남녀의 결혼이행을 높인다면(이삼식, 2006),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미혼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8]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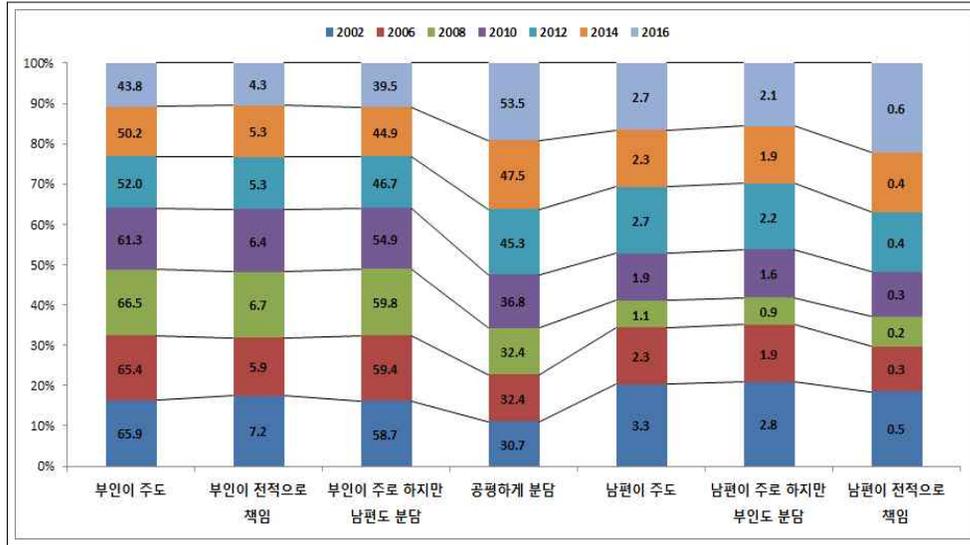
자료: 1)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삼식 외(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도양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 성역할 가치관

부부간 성역할 태도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남녀 모두 평등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역할 태도는 주로 가족 내 부부간의 역할, 집안일 분담정도, 맞벌이 부부간 수입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가사분담에 대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2-19 참조),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2년 30.7%에서 2016년 현재 53.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2016년 사회조사 결과, 남편의 경우 48.1%가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그러나 70% 이상의 부부가 함께 사는 주택의 명의로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가족 내 수입 관리도 남녀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성역할 인식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남녀 평등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이윤석 외, 2016).

[그림 2-19]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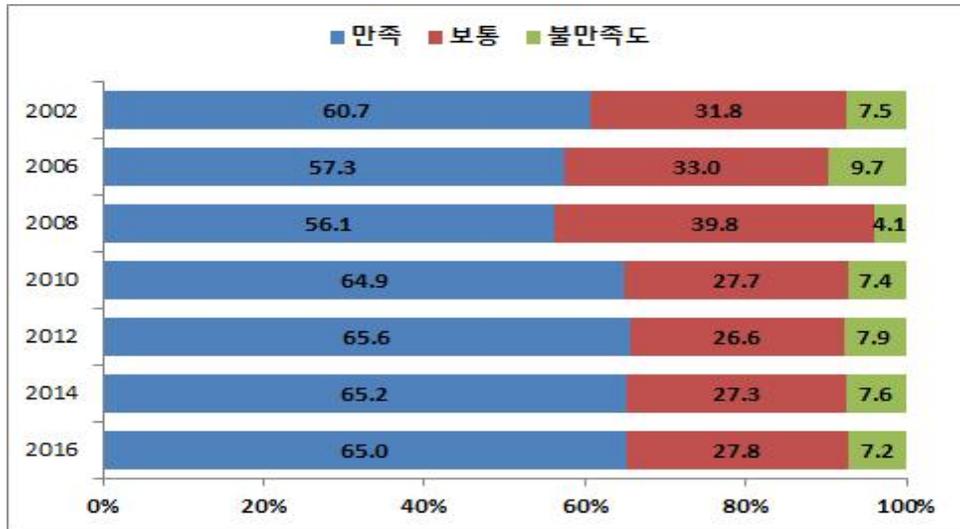
## 2. 가족생활의 변화

### 가. 부부관계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 자녀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 경향을 살펴본다. 먼저 부부관계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 경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살펴보면, 2002년 '만족한다'라는 비율이 60.7%에서 2008년 56.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 현재 65.0%에서 만족도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 만족도의 경우 연령 및 세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연령별 부부관계 만족도 경향은 2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 연령대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에서 나타는 부부관계 만족도의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홍승아 외, 2015).

[그림 2-20] 부부관계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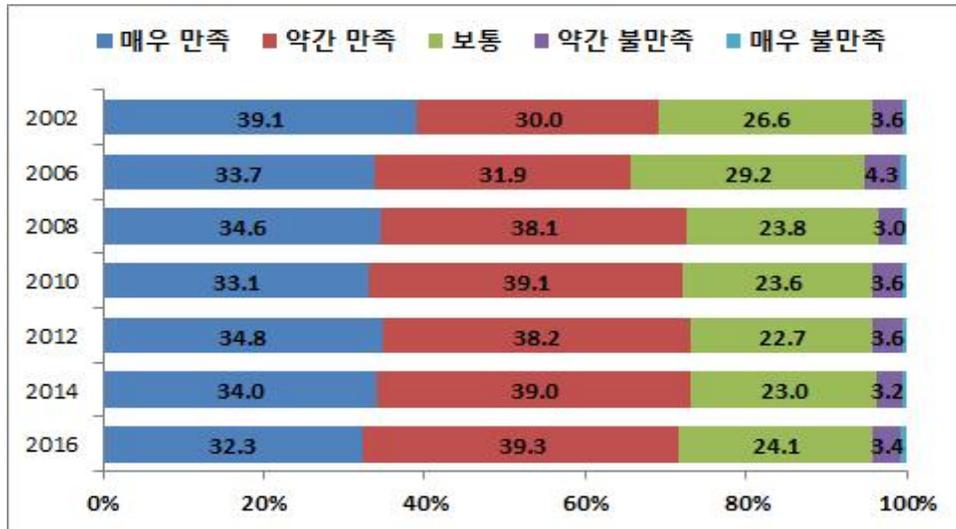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나.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라는 비율은 200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반적인 만족도 비율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39.1%에서 4년 후인 2006년 33.7%로 감소하였고, 2016년 현재 32.3%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앞서 살펴보면 부부관계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만족도 차이가 있고, 성별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홍승아 외, 2015).

[그림 2-21] 자녀관계 만족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다. 일가족 양립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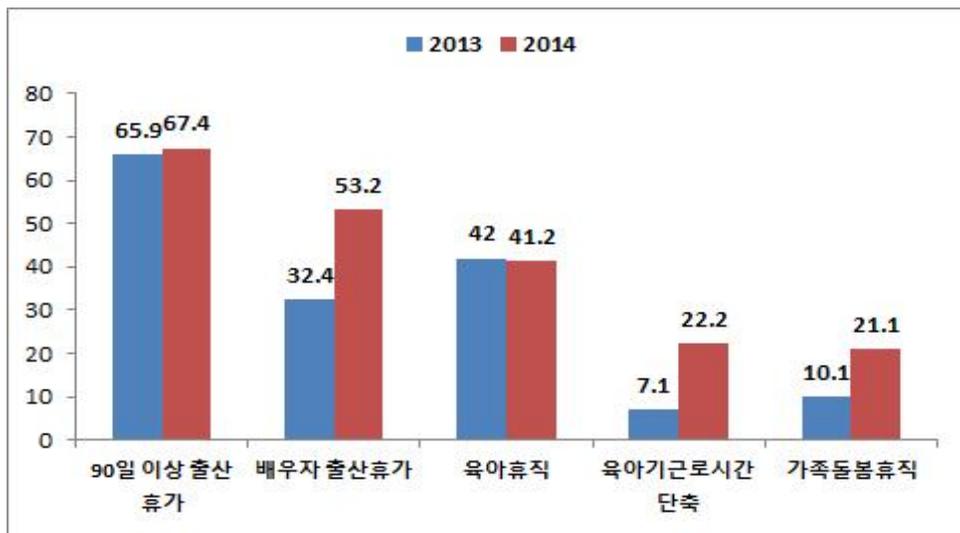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직장 생활과 가족 생활 두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면서(양소남, 신창식, 2011; 이삼식, 이지혜, 2014; 정성호, 2015) 일가족양립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남녀 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기존의 3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로 연장 하는 등 일과 가족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13년 31.4%에서 2014년 53.2%로 증가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2013년 7.1%에서 2014년 22.2%로 높아졌다. 또한 2016년에는 기존의 3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직장과 가족생활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기업에서 도입 및 시행되는 제도는 기업 규모 및 직종에 따라 여전히 제한적이고, 제도

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 또한 많다. 즉, 비정규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제도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제도 이용에 따른 인사상 등의 불이익 등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영역에서도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족관련 일은 여전히 여성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 시간을 볼 때, 여성은 평일 3시간 25분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평일 39분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많은 남성들의 경우 일과 가족생활 간의 적절한 균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간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가족양립은 기업에서도 제도 도입 및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에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부분 미흡한 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 영역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실질적이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일과 가족생활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문은영, 서영주, 2011).

[그림 2-22] 일·가족양립지원제도 도입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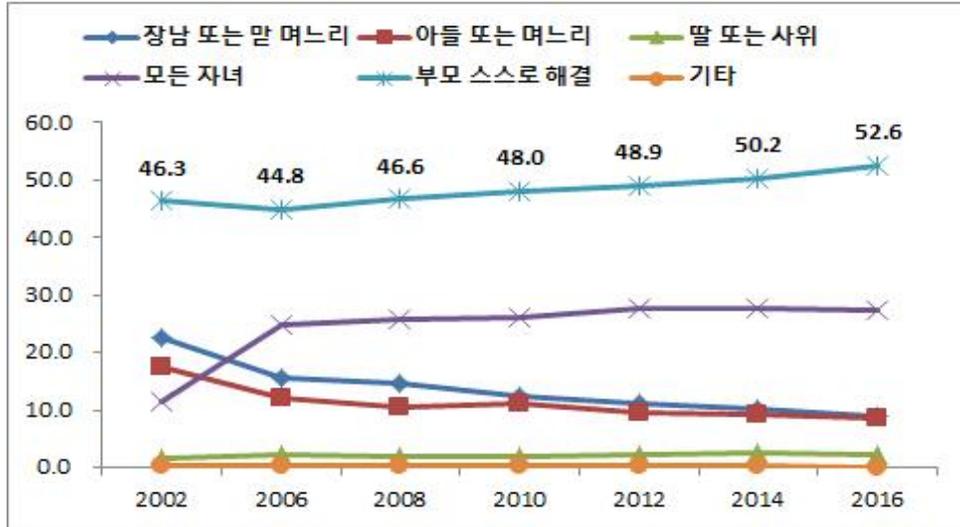
### 3. 세대간 지원

#### 가. 노년세대에 대한 지원

한국인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화했다. 과거 부모의 부양은 자녀들의 1차적 책임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장년층들이 본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차 높아져,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 및 지원은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의 생활비를 자녀가 제공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부모가 본인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장남과 며느리 등 자녀에 대한 지원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인다. 장남 또는 만며느리의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비율은 2002년 22.7%에서 2016년 8.8%로 13년 동안 무려 13.9%p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모 본인 스스로 해결한다는 인식은 2002년 46.3%에서 10년이 지난 2012년 48.9%로 증가했고, 2016년 현재 52.6%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노년기에 대한 지원이 자녀 중심에서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보다는 정부 및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높아지고,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통계청, 2016).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과거 국가와 가족이 일차적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가족, 국가 및 사회가 각자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혜영 외, 2012).

[그림 2-23]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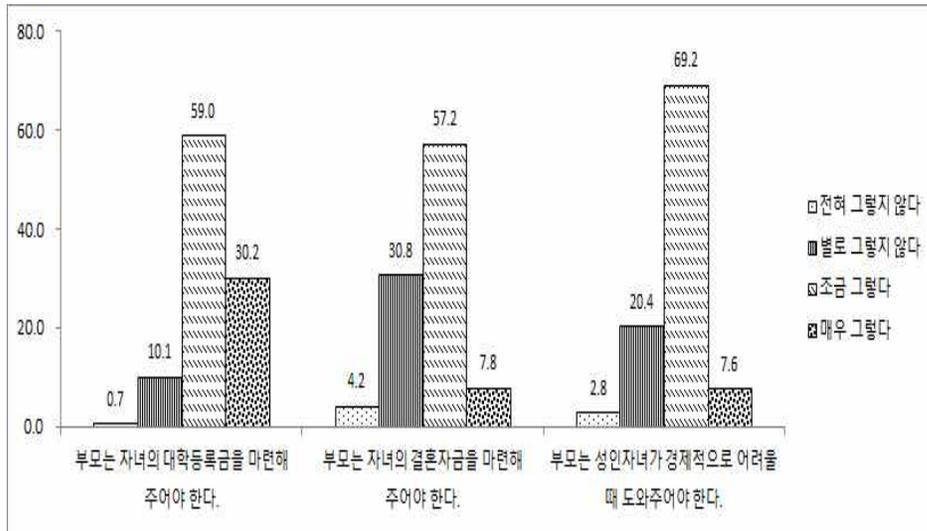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세대 간 지원에 있어 노년 세대의 경우 본인 스스로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높게 인식하는 반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성인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 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2010년(3차)부터 2015년(5차)까지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의견에 5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 65%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 주어야 한다'의 경우 '조금 그렇다'의 경우 69.2%로 높게 나타났다(이윤석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인자녀들의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더욱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비율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성인자녀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4] 기혼 여성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치관

(단위: %)



자료: 이윤석·김필숙·심구선(2016).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미시·거시적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예정.

### 제3절 이전 연구에 대한 평가

#### 1. 다양한 문항

한국사회는 단기에 걸쳐 산업화 및 도시화 등 많은 변화를 거쳤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구성원의 감소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 등 전반적인 가족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이명진 외, 2011). 21세기를 전후하여 이러한 변화는 개인 및 가족의 가치와 행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의 가치와 행위 변화에 대한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는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와 현상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자료 결과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준다(진미정, 2012). 사회조사는 가족,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

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등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횡·종단면적 조사를 통해서도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족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사회통계 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 및 교육수준 증가 등 양적인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와 행위를 살펴볼 때는 무엇보다 가치와 행위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과 가족단위의 변화 추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위해 개인의 인식 변화, 가족 내 역할 및 젠더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유형의 다양화를 포함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필요하다(장혜경 외, 2015). 예를 들어 개인들이 결혼을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결혼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많은 조사에서 결혼가치관 문항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혼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회조사의 경우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로 측정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또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결혼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좋다’, ‘모르겠다’ 등 비슷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삶의 다양한 사건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 뿐 아니라 취업, 출산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태도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업적 성공을 매우 중시하게 되면 되도록 결혼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결혼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자녀는 꼭 갖고 싶은 사람은 되도록 결혼을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치관 영역이 바로 성역할태도이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 사회조사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및 실태 관련 문항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은 성별에 따라 꽤 다양한 분담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문항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들은 가사노동은 성별에 따라 공평하게 나뉘야 하지만 자녀 양육은 꼭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남성은 경제적인 부분은 모두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계부 정리 등 경제영역은 모두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다. 최근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에 따라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되어야 함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실제 행동과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집단 간 차이

많은 사회조사에서 성별, 세대, 교육 및 직업 등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조사 및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 본 문항에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태는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서 성별에 따라 시계열적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이는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들의 교육수준 증가와 함께 높은 취업률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각 집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기혼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일과 가족에서 자녀 양육 등 일과 가족생활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반면(장미나, 한경혜, 2015), 미혼여성들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결혼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필선, 민인철, 2015). 그러나 사회조사의 경우 혼인상태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세대 간 차이에도 주목해야 한다.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 세대 간 분석을 통해 가치관과 의식성향은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회조사 및 여성가족패널을 통해서 본 부모 및 성인자녀 세대에 있어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모들의 생활비 마련은 과거에 비해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부모들의 성인자녀에 대한 등록금 마련, 결혼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은 과거에 비해 그 지원 정도 및 기간은 훨씬 길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와 행위 변화는 전체 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보다는 각 집단별 분석을 통해 보다 집단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직업에 있어 특정 집단을 고려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남녀 교육 수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 연보에서 남녀 대학진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남성은 22.1%, 여성은 19.4로 남성이 여성보다 2.7%p 높다. 이러한 차이는 2005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하여 여성

들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2015년 현재 남성의 경우 48.5%에서 여성의 경우 44.8%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노동시장 진출 및 결혼이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각 집단 간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결과 등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 한국인의 성 역할 인식 변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결과



# 3

## 한국인의 성 역할 인식 변화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태도는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태도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사회적 인식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하나의 가치관으로 형성되는데, 사회 가치관은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혹은 급격하게 변화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인식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을 규정하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규범으로 발전해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을 재규정하는 순환구조를 띠기도 한다. 즉, 한 사회에서 특정한 가치관이 널리 받아들여지면 사회의 통념적 인식과 배치되는 행동을 할 때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평판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따르는 혹은 따라야하는 고정관념이 된다.

어떤 사회든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데, 성, 지역,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대표적이다. 그중 성 차별인식은 많은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공동체가 산업화이전에 성 역할분리에 기초한 남성 가부장제 사회의 전통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성 차별인식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등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Gornick & Meyers, 2003). 일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대만은 동일한 유교적 가족문화를 공유하였고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성 평등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널리 확산되었지만 가족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차이로 성 역할인식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실태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Brinton, 2001; Yu, 2009).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따른 성 차별완화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 사회의 성 평등 정도는 성별 고용률이나 고용형태(종사상 지위, 직업분포, 임금격차 등)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서구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OECD, 2014). 하지만 성별 직종분리, 임금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구 여성들 역시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가사노

동에서의 성별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Sayer, 2010), 직장가정 모든 영역에서의 성 평등 실현은 여전히 과정 중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가부장제문화와 짧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비교적 최근까지도 성 역할 분리 인식이 강했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빠르게 신장되었다. 여학생 대학진학률이 이미 남학생을 추월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직군에서 여성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학력여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향상되고 있지만 전체 여성 경제활동실태를 살펴보면 한계점이 관찰된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경력단절 현상의 지속, 저임금·단순서비스직에의 과다 집중에 따른 높은 성별 격차 현상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30대 초반의 경력단절에서 기인한다. 결혼·출산 및 육아와 같은 여성의 생애사적 사건이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이 놓여있다. 즉, 여성은 남편의 성공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가사 및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여성을 가사 전담자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주변부적 존재로 위치시켰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여성 노동력 수요증가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데 가사를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거나 여성 역시 자신의 자아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 차별적 고용관행이 남아있으며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서구에 비해 훨씬 낮은 위치에 놓이게 했다.

사회가치관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구조변화폭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간 성 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가 큰 편이다. 고학력화와 서구 평등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는 성 평등의식이 높지만 기성세대를 비롯한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갖고 있어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크다. 이 결과 여성에게 전통적인 성 역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환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전히 활용정도가 낮은 청년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국민

들의 성 역할 인식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부 영역별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특히 어떤 분야에서 세대간, 성별로 인식차가 큰지 살펴보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여성고용과 성 역할인식간 관계는 여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국가간 성역할 인식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나 EASS를 활용한 국제비교연구가 활발한데, 우리는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 역할인식 수준 및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KGSS는 한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핵심적 내용들을 포괄하여 매년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및 ISSP의 48개 회원국들이 매년 주제를 바꾸어가며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EASS의 동아시아 4개국이 격년 주기로 주제를 바꾸어가며 공동 개발하고 공동 조사하는 주제모듈, 그리고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모듈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도 KGSS를 활용해 성, 연령, 학력 등의 여러 차원에서 성 역할인식이 어떠한지, 최근 10여 년 동안 노동시장구조 변모에 따라 우리사회의 성 차별인식이 어떻게 변모하였는가를 2006년 및 2016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역할 인식은 가사참여정도 및 여성의 성역할,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응답자의 인적 속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주요 기존연구를 간략하게 검토한 후 2006년 및 2016년 자료 분석결과 나타난 성 역할인식 변화를 기술토록 한다.

## 제2절 연구결과

### 1. 한국인의 가사참여 정도

근대 핵가족은 남녀 간 성 역할 분리(노동과 가사)에 기반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에의 참여정도가 증가하였다. 서구의 경우 보육서비스 확대, 부모 휴가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였고(Lewis et al., 2008), 남성 역시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된 결과 남성의 가사참여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남성의 가사부담 정도는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으며(표 3-3 참조)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이 여전히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자로 남아 있어(Treas & Drobníč, 2010), 가족내 성역할 변화가 지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Sayer, 2010).

유교에 기반한 남성 가부장적 문화를 유지해왔던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서구 가치관이 유입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힘입어 전통적 가족 관념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가구 내 성역할 인식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가구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커짐에 따라 성역할이 '역할분리'에서 '역할공유'라는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이재경 외, 2012).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가부장제와 성별분업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에 있어 강한 가족주의(familism)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만으로 평등한 젠더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여성들의 이중노동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즉, 노동시장내 성별분리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이고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여성들에게 가사노동 부담이 더욱 커졌다(조주은, 2007).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정도가 낮는데 이는 유교의 뿌리 깊은 남성 가부장제문화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사 일은 여성의 몫이며 가사참여를 배우자를 도와준다는 인식이 강하며 여성 역시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갖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가구 중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소득수준이 높아도 가사분담은 여성 몫이라는 연구(김수정, 김은지, 2007)는 우리사회에서 전통적 역할 규범이 얼마나 강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가구 내에서 가사부담이 여성에 전가되는 것이 여성의 혼인 및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성 평등적 인식 및 태도는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

가구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젊은 층일수록 가사에 보다 적극적(Ishii-Kunz, 2013)임은 일차적으로 교육

이 남녀 모두에게 성 평등적 가치관을 형성케 함을 의미한다. 학력수준이 높고 여성이 풀타임으로 근무할 때 남성의 가사참여정도가 높아진다(Curtice, 1995; 은기수, 2009). 남성 역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참여도가 증가하고 남성이 진보적 태도를 가질 경우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wa, 2007). 성 역할 인식은 부부간 개인적 특성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은 남성 중심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남성에게 연공급 임금이 제공되는 대신 장시간 노동이 요구되며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체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현실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대로 여성은 핵심적 직무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승진이 제한되어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점으로 퇴직하였다가 비정규노동자로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Brinton et al, 1995; Yu, 2009; Takeuchi & Tsutsui, 2015; Nemoto, 2012; 김영미, 2012; 정이환 외, 2012). 이처럼 노동시장구조가 과도한 성별격차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교환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를 떠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가사분담은 제도적 요인과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구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여성 노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다. 성, 연령, 학력 및 가구소득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단, 가사분담은 유배우 가정에 해당되므로 본 분석에서는 유배우 가구에 한정해 남녀 간 가사참여에 대한 인식 및 가사노동 참여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KGSS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실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사참여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보면 생각과 행동이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65.9%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43.8%로 22.1%p가 감소하였다. 반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30.7%에서 2016년 53.5%로 22.8%p가 증가해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가사부담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실제 유배우 가구의 가사분담 실태를 보면 남편의 17.8%, 부인의 15.5%만이 공평하게 분

답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80%내외가 부인이 가사를 전담하거나 혹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 대비 실제 생활습관 변화의 지체현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관행과 장거리 통근시간 등이 남성의 가사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 3-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가사분담실태

(단위: %)

| 구분          |      | 부인이 주도 | 공평하게 분담 | 남편이 주도 |     |
|-------------|------|--------|---------|--------|-----|
|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2002 | 65.9   | 30.7    | 3.4    |     |
|             | 2006 | 65.3   | 32.4    | 2.3    |     |
|             | 2010 | 61.3   | 36.8    | 1.9    |     |
|             | 2016 | 43.8   | 53.5    | 2.7    |     |
| 가사분담 실태     | 2002 | 부인     | 88.9    | 8.1    | 3.0 |
|             |      | 남편     | 89.5    | 7.5    | 3.0 |
|             | 2006 | 부인     | 89.7    | 7.9    | 2.3 |
|             |      | 남편     | 87.4    | 10.0   | 2.6 |
|             | 2010 | 부인     | 87.7    | 10.3   | 2.0 |
|             |      | 남편     | 78.9    | 17.8   | 3.2 |
| 2016        | 부인   | 80.9   | 15.5    | 3.6    |     |

주: 2010년까지는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2012이후는 13세 이상임

실제 남 녀간 가사노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불균등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지만 사별·이혼인 경우를 제외하면 30~40분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큰 변화가 없어 여성에게 일과 가사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성은 미혼일 때는 남성에게 비해 2배 수준에 그쳤으나 유배우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해 식사준비에서부터 집안청소, 세탁, 자녀 돌봄 등 가사 일이 대부분 여성에게 떠넘겨 있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비경제활동 여성에게 비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지만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가 아닌 여성들이 가사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표 3-2〉 혼인상태 및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장 추이

(단위: 시간:분)

|    |           | 혼인상태 |      |      |      |      |      | 맞벌이상태 |      |       |      |
|----|-----------|------|------|------|------|------|------|-------|------|-------|------|
|    |           | 미혼   |      | 유배우  |      | 사별이혼 |      | 맞벌이   |      | 비 맞벌이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04 | 가사노동      | 0:21 | 0:49 | 0:38 | 4:35 | 1:13 | 2:52 | 0:32  | 3:28 | 0:31  | 6:25 |
|    | 가정관리      | 0:18 | 0:45 | 0:24 | 3:28 | 1:04 | 2:34 | 0:20  | 2:47 | 0:15  | 4:19 |
|    | 가족/가구원돌보기 | 0:03 | 0:04 | 0:14 | 1:07 | 0:09 | 0:18 | 0:12  | 0:41 | 0:16  | 2:06 |
| 09 | 가사노동      | 0:26 | 0:54 | 0:43 | 4:26 | 1:22 | 2:48 | 0:37  | 3:20 | 0:39  | 6:18 |
|    | 가정관리      | 0:24 | 0:50 | 0:29 | 3:21 | 1:14 | 2:33 | 0:24  | 2:38 | 0:19  | 4:11 |
|    | 가족/가구원돌보기 | 0:02 | 0:04 | 0:14 | 1:05 | 0:08 | 0:15 | 0:13  | 0:42 | 0:20  | 2:07 |
| 14 | 가사노동      | 0:28 | 1:03 | 0:50 | 4:19 | 1:29 | 2:43 | 0:40  | 3:14 | 0:47  | 6:16 |
|    | 가정관리      | 0:27 | 1:00 | 0:34 | 3:19 | 1:24 | 2:33 | 0:26  | 2:35 | 0:25  | 4:14 |
|    | 가족/가구원돌보기 | 0:01 | 0:03 | 0:16 | 1:00 | 0:05 | 0:10 | 0:14  | 0:39 | 0:22  | 2:02 |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여성가족부(2015. 12. 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 일일 무급노동시간(가사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5분으로 OECD 평균(137.6분)의 1/3에 불과하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녀 간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무려 182분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 포르투갈, 이탈리아 다음으로 격차가 큰 수준이다. 서구의 경우 대부분 남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여성의 60%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20%수준에 그쳐,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영향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정도가 극히 낮으며 대부분의 가사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져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3-3〉 주요국 일일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

(단위: 분)

| 국가      | 무급    |       | 유급    |       | 일일 총 노동시간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오스트리아   | 135.3 | 268.9 | 364.8 | 248.8 | 500.1     | 517.7 |
| 벨기에     | 150.8 | 245.0 | 265.6 | 189.0 | 416.4     | 434.0 |
| 캐나다     | 159.6 | 253.6 | 341.4 | 267.0 | 501.0     | 520.6 |
| 덴마크     | 186.1 | 242.8 | 260.1 | 194.6 | 446.2     | 437.4 |
| 핀란드     | 159.0 | 232.0 | 249.0 | 210.0 | 408.0     | 442.0 |
| 프랑스     | 142.7 | 232.5 | 233.4 | 172.5 | 376.0     | 405.0 |
| 독일      | 163.8 | 268.8 | 281.6 | 180.9 | 445.4     | 449.7 |
| 이탈리아    | 103.8 | 315.2 | 349.3 | 197.5 | 453.1     | 512.7 |
| 일본      | 61.9  | 299.3 | 471.5 | 206.4 | 533.3     | 505.6 |
| 한국      | 45.0  | 227.3 | 421.9 | 273.3 | 466.9     | 500.6 |
| 멕시코     | 112.6 | 373.3 | 467.6 | 233.2 | 580.3     | 606.5 |
| 네덜란드    | 132.9 | 254.3 | 354.0 | 205.5 | 486.8     | 459.7 |
| 노르웨이    | 162.4 | 211.4 | 291.8 | 228.4 | 454.2     | 439.8 |
| 포르투갈    | 96.3  | 328.2 | 372.3 | 231.3 | 468.6     | 559.4 |
| 스페인     | 153.9 | 258.1 | 333.8 | 245.8 | 487.8     | 503.9 |
| 스웨덴     | 154.0 | 206.5 | 321.9 | 268.7 | 475.9     | 475.2 |
| 터키      | 116.4 | 376.7 | 360.3 | 123.7 | 476.7     | 500.3 |
| 영국      | 140.6 | 257.8 | 297.2 | 196.6 | 437.9     | 454.4 |
| 미국      | 148.6 | 242.1 | 322.4 | 241.9 | 471.0     | 484.0 |
| OECD 평균 | 137.6 | 271.7 | 328.5 | 215.3 | 466.1     | 487.0 |

자료: <http://stats.oecd.org>(2016. 11. 22 접속)

이어서 KGSS조사를 통한 가사노동시간 참여 실태를 살펴보자. 가사 참여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2006년 조사에는 3개 문항이었으나 2016년에 2개 문항이 추가되어 총 5가지 항목(저녁식사준비, 세탁, 집안청소, 집안수리, 장보기)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사참여 정도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참여실태를 거의 매일에서부터 일 년에 한번 미만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가구단위로 여성의 가사부담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과도한 가사부담이 여성의 혼인 및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바 여기에서는 전체 한국인이 아닌 유배우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특성별로 여성의 가사 분담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구 내 성역할 분담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지표가 가사분담률이다. KGSS 조사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가사일 참여정도를 몇 가지 지표로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가지 항목(저녁식사준비, 세탁, 집안청소)을 이용해 여성의 가사분담률을 구하였다<sup>8)</sup>. 본인 및 배우자의 가사분담 정도를 7가지 척도로 기입하게 하였는데 각 항목의 값을 1년을 기준으로 총 가사노동일수로 전환한 후<sup>9)</sup>, 각각 3개 항목의 값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남녀별 평균 가사노동일수를 합산한 후 이중 여성 가사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여성 가사분담률( $=1/(a+b)$ )을 구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가사분담률은 0에서 1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여성의 부담이 크다.

아래의 <표 3-4>는 상기의 방법을 이용해 산출한 유배우가구의 여성가사분담률을 보여준다. 여성 가사분담률이 2006년 85.8%에서 2016년 79.9%로 지난 10년동안 5.9%p가 하락해 완만하지만 남성의 가사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특성은 연령, 응답자의 학력수준, 가구소득, 가구형태, 미성년자녀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집단 간 편차가 커져 집단 간 인식 및 태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사항별로 구분해 살펴보자.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6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여성 가사분담률이 가장 높았지만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가 크지 않아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사 일은 대부분이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에는 40대와 30세미만 집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집단에서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40대는 자녀 양육부담 외에 교육지원과 관련한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로 그만큼 여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층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성 평등적 가치관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훨씬 높음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하락해 교육확대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신장이 성 평등적 태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가구

8) 2006년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3가지 항목만을 이용함

9) 예를 들어 저녁식사준비에 대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 365, 일주일에 몇 번은 주당 3.5일로 간주하여 182.5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각 응답값을 연 일수로 환산하였음

소득기준으로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여준다. 3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 남성 홀부양자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저소득 근로자일 가능성이 큰데 홀부양자의 경우 여성에게 가사부담이 전가되며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는데 그만큼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이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다. 가구형태는 앞의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성이 가구부양 책임을 갖는 경우 가사분담률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맞벌이, 남성홀벌이 순으로 나타나 가사분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여부와 가구경제에서의 역할에 따라 강한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가사부담은 일상적인 가사 일 외에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침을 감안하여 미성년자녀의 구성유형을 기준으로 여성의 가사분담률을 살펴보았다<sup>10)</sup>. 여성의 가사분담률은 학령자녀가 없거나 미취학자녀만 있는 경우 가장 낮았고 미취학자녀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가진 가구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나 중고생자녀에 비해 초등생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소폭 높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활하기에는 어린 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물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2016년 자료에서는 자녀 연령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하였음

〈표 3-4〉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여성의 가사부담률

|       |            | 2006  |      |       | 2016  |     |       |
|-------|------------|-------|------|-------|-------|-----|-------|
|       |            | 평균    | N    | 표준편차  | 평균    | N   | 표준편차  |
| 전체    |            | 0.858 | 1045 | 0.185 | 0.799 | 614 | 0.232 |
| 연령    | 18-29      | 0.836 | 39   | 0.174 | 0.846 | 13  | 0.149 |
|       | 30-39      | 0.861 | 301  | 0.177 | 0.765 | 110 | 0.194 |
|       | 40-49      | 0.854 | 379  | 0.187 | 0.850 | 143 | 0.193 |
|       | 50-59      | 0.851 | 166  | 0.186 | 0.794 | 143 | 0.260 |
|       | 60대 이상     | 0.877 | 160  | 0.198 | 0.783 | 205 | 0.253 |
| 학력    | 고졸 미만      | 0.872 | 226  | 0.193 | 0.807 | 148 | 0.228 |
|       | 고졸         | 0.873 | 374  | 0.170 | 0.810 | 179 | 0.246 |
|       | 대학재학 및 중퇴  | 0.844 | 117  | 0.186 | 0.794 | 91  | 0.219 |
|       | 대학졸업 이상    | 0.837 | 328  | 0.194 | 0.787 | 196 | 0.227 |
| 가구 소득 | 300미만      | 0.868 | 490  | 0.182 | 0.781 | 177 | 0.254 |
|       | 300-499만   | 0.845 | 320  | 0.191 | 0.832 | 172 | 0.187 |
|       | 500만 이상    | 0.858 | 221  | 0.184 | 0.790 | 230 | 0.240 |
| 가구 형태 | 맞벌이        | 0.825 | 124  | 0.206 | 0.804 | 264 | 0.227 |
|       | 남성 홀벌이     | 0.835 | 373  | 0.192 | 0.826 | 218 | 0.210 |
|       | 여성 홀벌이     | 0.859 | 228  | 0.181 | 0.723 | 38  | 0.334 |
|       | 모두 비경활     | 0.901 | 315  | 0.162 | 0.755 | 94  | 0.234 |
| 미성년자녀 | 미취학자녀만 유   | 0.841 | 145  | 0.176 |       |     |       |
|       | 초등생자녀만 유   | 0.880 | 110  | 0.164 |       |     |       |
|       | 중고생자녀만 유   | 0.865 | 168  | 0.192 |       |     |       |
|       | 미취학+초등생    | 0.896 | 87   | 0.144 |       |     |       |
|       | 미취학+중고생    | 0.879 | 5    | 0.250 |       |     |       |
|       | 초등생+중고생    | 0.860 | 125  | 0.173 |       |     |       |
|       | 미취학+초등+중고생 | 0.913 | 8    | 0.101 |       |     |       |
|       | 학령자녀 없음    | 0.846 | 397  | 0.202 |       |     |       |

〈표 3-5〉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저녁식사준비

(단위: %)

| 구분   |          | 2006년 |      |      |      |      |      | 2016년 |      |     |      |      |      |
|------|----------|-------|------|------|------|------|------|-------|------|-----|------|------|------|
|      |          | 본인    |      |      | 배우자  |      |      | 본인    |      |     | 배우자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전 체  |          | 84.0  | 9.7  | 3.1  | 11.5 | 13.4 | 61.0 | 78.2  | 15.5 | 3.9 | 15.3 | 12.3 | 53.9 |
| 연령   | 18-29    | 72.4  | 10.3 | 10.3 | 10.3 | 20.7 | 44.8 | 72.7  | 18.2 | 9.1 | 36.4 | 27.3 | 18.2 |
|      | 30-39    | 81.5  | 11.5 | 5.5  | 16.2 | 12.6 | 60.6 | 70.3  | 20.3 | 7.8 | 21.9 | 17.2 | 39.1 |
|      | 40-49    | 86.6  | 10.4 | 0.5  | 10.4 | 16.8 | 55.9 | 76.7  | 17.4 | 4.7 | 16.3 | 18.6 | 55.8 |
|      | 50-59    | 81.8  | 8.0  | 3.4  | 11.5 | 9.2  | 66.7 | 72.0  | 17.3 | 4.0 | 10.7 | 6.7  | 61.3 |
|      | 60대 이상   | 91.0  | 4.5  | 0.0  | 1.5  | 7.6  | 77.3 | 89.9  | 9.1  | 0.0 | 11.2 | 6.1  | 60.2 |
| 교육수준 | 고졸 미만    | 84.1  | 7.6  | 2.3  | 6.9  | 10.0 | 67.7 | 93.3  | 5.3  | 0.0 | 13.3 | 5.3  | 58.7 |
|      | 고졸       | 90.1  | 6.2  | 1.2  | 10.0 | 13.3 | 61.8 | 81.3  | 10.3 | 4.7 | 12.3 | 16.0 | 57.5 |
|      | 대재/중퇴    | 85.5  | 9.7  | 3.2  | 11.5 | 16.4 | 50.8 | 73.2  | 21.4 | 3.6 | 14.3 | 14.3 | 48.2 |
|      | 대졸이상     | 73.3  | 17.3 | 6.7  | 18.0 | 15.3 | 58.0 | 66.0  | 25.8 | 6.2 | 20.6 | 12.4 | 49.5 |
| 가구소득 | 300미만    | 90.0  | 4.8  | 2.2  | 10.1 | 10.1 | 65.9 | 84.4  | 10.0 | 4.4 | 14.6 | 5.6  | 56.2 |
|      | 300-499만 | 82.3  | 12.5 | 2.6  | 13.1 | 19.4 | 52.4 | 80.2  | 13.2 | 3.3 | 15.4 | 20.9 | 47.3 |
|      | 500만이상   | 72.6  | 16.2 | 6.0  | 12.0 | 11.1 | 65.8 | 72.3  | 20.8 | 4.6 | 16.2 | 10.8 | 56.9 |
| 가구형태 | 맞벌이      | 70.2  | 15.8 | 8.8  | 14.0 | 19.3 | 49.1 | 70.3  | 20.9 | 5.4 | 14.2 | 14.9 | 55.4 |
|      | 남자       | 87.2  | 8.5  | 2.1  | 10.9 | 19.6 | 56.5 | 85.5  | 11.1 | 2.6 | 19.0 | 13.8 | 49.1 |
|      | 여자       | 73.8  | 16.2 | 4.8  | 10.5 | 12.4 | 58.4 | 63.6  | 18.2 | 9.1 | 9.1  | 4.5  | 59.1 |
|      | 모두 비경활   | 94.1  | 3.7  | 0.7  | 11.9 | 11.9 | 66.4 | 91.7  | 8.3  | 0.0 | 12.5 | 4.2  | 58.3 |

주: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몇 번,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일주일에 한번정도, ⑤한 달에 한번정도 ⑥일 년에 몇 번 이하를 의미함

이어서 〈표 3-5〉~〈표 3-9〉는 여성 유배우 표본에 한정하여 5가지 항목별로 연령, 학력, 가구소득 및 가구형태별로 본인 및 배우자의 가사 참여정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저녁식사준비의 경우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남성의 식사준비 참여빈도가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이 거의 매일 준비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2016년 표본에서 청년층의 경우 남성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식사를 준비하는 비중이 36.4%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의 요리 열풍의 영향으로 요리를 직업으로 택하거나 취미로 배우는 청년들이 증가하였고 그

만큼 식사준비 참여정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본인의 저녁식사 준비정도가 낮아지고 배우자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저녁식사준비 정도가 낮아지지만 배우자의 가사참여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반찬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식사준비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로 보면 여성 홀별이 가구에서 여성의 가사참여정도가 가장 낮고 비경활가구와 남성 홀별이 가구의 여성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06년에는 홀별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가사참여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에는 여자 홀별이에 비해 남자 홀별이 가구에서 배우자의 가사분담정도가 높아졌다.

〈표 3-6〉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세탁

(단위: %)

| 구 분  |          | 2006년 |      |      |      |      |      | 2016년 |      |      |      |      |      |
|------|----------|-------|------|------|------|------|------|-------|------|------|------|------|------|
|      |          | 본인    |      |      | 배우자  |      |      | 본인    |      |      | 배우자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전 체  |          | 64.2  | 27.8 | 5.6  | 9.1  | 9.0  | 71.1 | 54.9  | 35.8 | 8.1  | 12.0 | 12.9 | 59.9 |
| 연령   | 18-29    | 55.2  | 24.1 | 17.2 | 10.3 | 10.3 | 58.6 | 54.5  | 36.4 | 9.1  | 0.0  | 36.4 | 27.3 |
|      | 30-39    | 62.0  | 29.5 | 6.5  | 10.7 | 9.1  | 71.6 | 54.7  | 35.9 | 9.4  | 20.3 | 20.3 | 40.6 |
|      | 40-49    | 64.4  | 30.7 | 4.0  | 9.9  | 11.4 | 64.9 | 55.8  | 39.5 | 4.7  | 12.8 | 14.0 | 65.1 |
|      | 50-59    | 65.9  | 25.0 | 5.7  | 9.2  | 6.9  | 78.2 | 52.0  | 34.7 | 10.7 | 10.7 | 9.3  | 64.0 |
|      | 60대 이상   | 71.6  | 19.4 | 3.0  | 1.5  | 3.0  | 84.8 | 56.6  | 33.3 | 8.1  | 8.2  | 7.1  | 68.4 |
| 교육수준 | 고졸 미만    | 72.7  | 18.2 | 5.3  | 4.6  | 6.2  | 78.5 | 61.3  | 30.7 | 6.7  | 9.3  | 10.7 | 64.0 |
|      | 고졸       | 67.8  | 27.3 | 3.7  | 10.8 | 9.5  | 68.5 | 55.1  | 33.6 | 9.3  | 9.4  | 12.3 | 64.2 |
|      | 대재/중퇴    | 64.5  | 29.0 | 4.8  | 6.6  | 9.8  | 62.3 | 51.8  | 41.1 | 7.1  | 14.3 | 16.1 | 50.0 |
|      | 대졸이상     | 50.7  | 36.7 | 9.3  | 11.4 | 10.1 | 72.5 | 51.5  | 39.2 | 8.2  | 15.5 | 13.4 | 57.7 |
| 가구소득 | 300미만    | 70.0  | 24.1 | 3.7  | 6.4  | 8.6  | 74.4 | 50.0  | 38.9 | 10.0 | 7.9  | 12.4 | 59.6 |
|      | 300-499만 | 62.0  | 30.7 | 6.3  | 12.0 | 11.5 | 66.0 | 69.2  | 25.3 | 5.5  | 17.6 | 16.5 | 51.6 |
|      | 500만이상   | 53.0  | 32.5 | 9.4  | 10.3 | 6.0  | 72.6 | 46.9  | 41.5 | 10.0 | 12.3 | 10.0 | 64.6 |
| 가구형태 | 맞벌이      | 49.1  | 31.6 | 17.5 | 17.5 | 5.3  | 61.4 | 49.3  | 41.2 | 7.4  | 13.5 | 15.5 | 56.1 |
|      | 남자       | 63.8  | 25.5 | 8.5  | 13.0 | 10.9 | 69.6 | 64.1  | 29.9 | 6.0  | 11.2 | 14.7 | 58.6 |
|      | 여자       | 54.8  | 35.2 | 6.2  | 8.1  | 9.6  | 67.9 | 36.4  | 45.5 | 13.6 | 9.1  | 9.1  | 59.1 |
|      | 모두 비경활   | 74.7  | 21.6 | 2.2  | 7.5  | 9.0  | 76.0 | 58.3  | 29.2 | 12.5 | 10.4 | 2.1  | 75.0 |

주: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 에 몇 번,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일주일에 한번정도, ⑤한 달에 한번정도 ⑥일 년에 몇 번 이하를 의미함

세탁일은 거의 매일 하는 정도가 낮는데 2006년에는 64.2%에서 2016년 54.9%로 감소하였다. 배우자의 세탁일 참여정도는 2006년에는 저녁식사준비에 비해 낮았으나 2016년에는 참여율이 증가해 12.0%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세탁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06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2016년에는 연령별 격차가 완화되었고 특히 30대 배우자의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가사부담은 줄고 배우자의 참여율은 높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가사분담정도가 증가하고 가구형태는 맞벌이와 여성홀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부담정도가 낮았다. 특이한 점은 여성 홀벌이 가구의 경우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집안일 참여 정도가 가장 낮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홀벌이 가구의 경우 남성이 고연령으로 이미 노동시장에서 은퇴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사를 분담할 수 없는 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안청소의 경우 여성이 일을 하는 비중이 높지만 다른 가사일에 비해 남성의 참여도가 높다. 집안청소는 식사준비나 세탁처럼 특별히 여성의 손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안청소는 2006년에는 70.3%가 거의 매일 청소를 하였으나 2016년에는 이 비중이 59.4%로 크게 하락하였다. 대신 배우자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참여하는 비중이 2006년 14.9%에서 2016년 21.6%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인적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거의 매일 청소하는 비중이 증가하는데, 특이하게도 3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일 청소하는 정도가 많다. 해당 연령대에는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는데 그만큼 자주 집안청소를 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 참여도 역시 이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어린 자녀들이 어질러 놓은 집안을 정리하는데 여성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청소 빈도는 하락하고 배우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는데 가구소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된다. 가구형태는 남자 홀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전담하는 비중이 높다. 여자 홀벌이와 맞벌이 가구를 비교하면 남자 홀벌이 가구에 비해 여성들이 거의 매일 청소하는 비중은 낮지만 배우자의 참여도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여자 홀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집안청소를 하는 경우가 2016년 18.2%인데 반해 맞벌이 가구는 27.7%로 나타나 맞벌이 가구에서 남성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 홀벌이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과 가사일이라는 이중부담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3-7〉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집안청소

(단위: %)

| 구 분  |          | 2006년 |      |      |      |      |      | 2016년 |      |      |      |      |      |
|------|----------|-------|------|------|------|------|------|-------|------|------|------|------|------|
|      |          | 본인    |      |      | 배우자  |      |      | 본인    |      |      | 배우자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전 체  |          | 70.3  | 20.5 | 6.3  | 19.8 | 14.9 | 48.1 | 59.4  | 26.9 | 9.9  | 21.6 | 16.5 | 39.5 |
| 연령   | 18-29    | 62.1  | 17.2 | 20.7 | 20.7 | 24.1 | 34.5 | 63.6  | 36.4 | 0.0  | 18.2 | 36.4 | 18.2 |
|      | 30-39    | 77.5  | 13.5 | 6.5  | 24.2 | 13.6 | 44.9 | 64.1  | 25.0 | 10.9 | 29.7 | 20.3 | 20.3 |
|      | 40-49    | 63.9  | 30.2 | 4.0  | 20.3 | 18.3 | 44.6 | 59.3  | 25.6 | 12.8 | 25.6 | 18.6 | 47.7 |
|      | 50-59    | 68.2  | 19.3 | 9.1  | 17.2 | 12.6 | 52.9 | 49.3  | 30.7 | 14.7 | 21.3 | 13.3 | 41.3 |
|      | 60대 이상   | 74.6  | 14.9 | 3.0  | 7.6  | 7.6  | 68.2 | 63.6  | 25.3 | 4.0  | 13.3 | 12.2 | 45.9 |
| 교육수준 | 고졸 미만    | 75.8  | 14.4 | 3.8  | 12.3 | 11.5 | 63.1 | 70.7  | 18.7 | 5.3  | 14.7 | 14.7 | 48.0 |
|      | 고졸       | 74.0  | 19.8 | 4.1  | 18.7 | 14.5 | 46.9 | 57.9  | 27.1 | 12.1 | 11.3 | 18.9 | 44.3 |
|      | 대재/중퇴    | 74.2  | 19.4 | 6.5  | 19.7 | 18.0 | 37.7 | 67.9  | 17.9 | 12.5 | 25.0 | 14.3 | 35.7 |
|      | 대졸이상     | 58.0  | 27.3 | 12.0 | 28.0 | 17.3 | 41.3 | 47.4  | 38.1 | 9.3  | 36.1 | 16.5 | 29.9 |
| 가구소득 | 300미만    | 78.1  | 14.1 | 3.7  | 15.4 | 14.2 | 52.4 | 64.4  | 27.8 | 2.2  | 14.6 | 15.7 | 42.7 |
|      | 300-499만 | 69.3  | 22.4 | 7.3  | 25.1 | 15.2 | 45.0 | 63.7  | 24.2 | 9.9  | 19.8 | 17.6 | 37.4 |
|      | 500만 이상  | 53.0  | 33.3 | 10.3 | 21.4 | 17.1 | 43.6 | 51.5  | 30.8 | 14.6 | 30.0 | 16.2 | 38.5 |
| 가구형태 | 맞벌이      | 59.6  | 24.6 | 10.5 | 28.1 | 7.0  | 47.4 | 52.0  | 33.8 | 12.2 | 27.7 | 19.6 | 37.2 |
|      | 남자       | 78.7  | 14.9 | 4.3  | 21.7 | 17.4 | 45.7 | 70.9  | 17.1 | 10.3 | 17.2 | 19.0 | 40.5 |
|      | 여자       | 59.5  | 27.6 | 9.0  | 20.1 | 13.9 | 45.0 | 45.5  | 31.8 | 9.1  | 18.2 | 13.6 | 45.5 |
|      | 모두 비경활   | 79.2  | 15.2 | 3.7  | 17.5 | 17.2 | 51.1 | 60.4  | 27.1 | 2.1  | 14.6 | 2.1  | 41.7 |

주: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몇 번,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일주일에 한번정도, ⑤한 달에 한번정도 ⑥일 년에 몇 번 이하를 의미함

집안수리는 집안청소에 비해 남성의 지식과 근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가 처리하며 참여정도는 일년에 몇 번이 하가 대부분이다. 여성의 집안수리 참여정도는 일관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다만 50세 이하 연령집단과 고졸미만과 대학재학 및 중퇴집단, 300만원 미만 그리고 여성 홀벌이 및 부부 모두 비경활인 집단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았다. 반대로 배우자 참여도는 대체적으로 해당 연령집단에서 다소 낮았다.

장보기는 일 특성상 일주일에 한번 혹은 몇 번하는 경우(73.2%)가 거의 대부분이며 반찬이나 부식거리 구매처가 과거 전통시장이나 인근 슈퍼에서 대형마트로 전환됨에 따라 남성의 참여도가 높은 분야이다. 배우자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25.2%로 5가지 가사일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인적특성별로 구분해보면 30대가 보다 빈번하게 장을 보며 배우자의 참여도가 가장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일주일에 몇 번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배우자의 참여도 역시 높다. 가구형태의 경우 맞벌이가구가 일주에 한번 정도가 가장 높고 배우자 참여도는 여성 홀벌이 가구에서 높았다.

〈표 3-8〉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집안수리

(단위: %)

| 구 분  |          | 2016년 |     |      |      |      |      |
|------|----------|-------|-----|------|------|------|------|
|      |          | 본인    |     |      | 배우자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전 체  |          | 9.0   | 2.4 | 3.9  | 13.2 | 20.7 | 58.1 |
| 연령   | 18-29    | 18.2  | 0.0 | 9.1  | 27.3 | 27.3 | 36.4 |
|      | 30-39    | 9.4   | 4.7 | 1.6  | 21.9 | 29.7 | 39.1 |
|      | 40-49    | 10.5  | 2.3 | 1.2  | 14.0 | 24.4 | 58.1 |
|      | 50-59    | 5.3   | 2.7 | 5.3  | 12.0 | 18.7 | 62.7 |
|      | 60대 이상   | 9.1   | 1.0 | 6.1  | 6.1  | 12.2 | 69.4 |
| 교육수준 | 고졸 미만    | 14.7  | 1.3 | 8.0  | 4.0  | 20.0 | 65.3 |
|      | 고졸       | 8.4   | 2.8 | 3.7  | 15.1 | 19.8 | 56.6 |
|      | 대재/중퇴    | 10.7  | 3.6 | 3.6  | 16.1 | 23.2 | 50.0 |
|      | 대졸이상     | 4.1   | 2.1 | 1.0  | 16.5 | 20.6 | 58.8 |
| 가구소득 | 300미만    | 13.3  | 2.2 | 4.4  | 10.1 | 14.6 | 67.4 |
|      | 300-499만 | 7.7   | 2.2 | 2.2  | 18.7 | 22.0 | 49.5 |
|      | 500만이상   | 4.6   | 1.5 | 5.4  | 13.1 | 23.1 | 59.2 |
| 가구형태 | 맞벌이      | 8.8   | 4.1 | 2.7  | 16.9 | 23.0 | 52.7 |
|      | 남자       | 7.7   | 1.7 | 2.6  | 8.6  | 21.6 | 62.1 |
|      | 여자       | 13.6  | 0.0 | 13.6 | 13.6 | 18.2 | 63.6 |
|      | 모두 비경활   | 10.4  | 0.0 | 6.3  | 12.5 | 12.5 | 62.5 |

주: ① 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몇 번,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일주일에 한번정도, ⑤한 달에 한번정도 ⑥일 년에 몇 번 이하를 의미함

〈표 3-9〉 유배우 여성표본의 가사 참여정도: 장보기

(단위: %)

| 구 분  |          | 2016년 |      |      |      |      |      |
|------|----------|-------|------|------|------|------|------|
|      |          | 본인    |      |      | 배우자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전 체  |          | 22.1  | 43.6 | 29.6 | 25.2 | 19.5 | 34.8 |
| 연령   | 18-29    | 18.2  | 54.5 | 9.1  | 9.1  | 63.6 | 0.0  |
|      | 30-39    | 25.0  | 45.3 | 26.6 | 34.9 | 23.8 | 14.3 |
|      | 40-49    | 22.1  | 46.5 | 30.2 | 25.6 | 31.4 | 31.4 |
|      | 50-59    | 17.3  | 50.7 | 26.7 | 26.7 | 10.7 | 45.3 |
|      | 60대 이상   | 24.2  | 33.3 | 35.4 | 19.4 | 8.2  | 46.9 |
| 교육수준 | 고졸 미만    | 30.7  | 29.3 | 34.7 | 26.7 | 8.0  | 45.3 |
|      | 고졸       | 21.5  | 41.1 | 31.8 | 11.3 | 19.8 | 45.3 |
|      | 대재/중퇴    | 17.9  | 55.4 | 21.4 | 33.9 | 26.8 | 21.4 |
|      | 대졸이상     | 18.6  | 50.5 | 27.8 | 34.4 | 24.0 | 22.9 |
| 가구소득 | 300미만    | 23.3  | 35.6 | 35.6 | 22.5 | 12.4 | 39.3 |
|      | 300-499만 | 28.6  | 47.3 | 18.7 | 24.4 | 22.2 | 33.3 |
|      | 500만이상   | 16.2  | 46.2 | 33.8 | 27.7 | 23.8 | 31.5 |
| 가구형태 | 맞벌이      | 18.9  | 44.6 | 32.4 | 23.6 | 25.0 | 35.1 |
|      | 남자       | 25.6  | 43.6 | 25.6 | 23.5 | 20.0 | 34.8 |
|      | 여자       | 18.2  | 45.5 | 22.7 | 36.4 | 9.1  | 36.4 |
|      | 모두 비경활   | 25.0  | 39.6 | 33.3 | 29.2 | 6.3  | 33.3 |

주: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몇 번, ③일주일에 한번 정도, ④일주일에 한번정도, ⑤한 달에 한번정도 ⑥일 년에 몇 번 이하를 의미함

## 나. 한국인의 성역할 인식

소위 남성부양자(male bread-winner)모델은 공적-사적 영역을 규정지어 오랜 기간동안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역할관념이 지배해왔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각국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지원함에 따라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보아야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불경기 때 여자를 우선 해고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하락하고 있음은 우리사회 역시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 더 나아가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경제활동의 단

위를 가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박중서, 2013).

여성의 성역할 인식은 특히 여성의 학력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함께 변화하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가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성역할 인식은 더욱 변화하였을 것이다. 여성 고용률은 2006년 48.8%에서 2015년 49.9%로 1.1%p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고학력화의 진전으로 2006년 여성 취업자중 대졸이상자가 29.4%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40.1%로 증가하여 지난 9년 동안 무려 10.7%p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대학진학률 증가로 성 평등 의식이 확산되었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여성이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과 가정간의 이분법 약화에 기여하였다(김수정, 조효진, 2016).

여기에 더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구소득이 정체·감소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커졌다. 그만큼 가정경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고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의식이 제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정서적 발달과 안녕을 위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제문화의 영향과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남성의 가사참여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성역할 갈등은 더욱 클 것이다.

남성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일자리 문제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였는데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성평등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지만 일자리 경쟁은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관의 확산을 가져왔을 수 있다. 최근 일자리를 둘러싼 남녀 간 갈등이 '여혐논쟁'으로 치달았음은 남성들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혐논쟁이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성역할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다. KGSS에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4개인데 3개 항목은 동일하지만 1개 항목은 상이하다. 동일항목은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괜찮다'이다. 상이한 항목은 2006년의 경우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이고 2016년에는 '어머니가 취업하면 미취학자녀는 상당히 어

려움을 겪게 된다'이다. 각 항목은 전적으로 찬성부터 전적으로 반대까지 7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찬성과 반대도 아님을 0으로 설정한 후 전적으로 찬성 -3, 상당히 찬성 -2 약간찬성 -1 그리고 약간반대 1, 상당히 반대 2, 전적으로 반대 3으로 전환한 후 응답자의 성, 연령 등 인적특성에 따라 평균점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로 각 항목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후 성별로 연령, 학력, 경제활동여부 등으로 세분하여 각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한다.

먼저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2006년에는 -0.38이었으나 2016년에는 0.14로 나타나 지난 10년 동안 남편의 성공을 위해 여성이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응답을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으로 분류한 결과 2006년에는 부정적 응답이 50%를 상회하였으나 2016년에는 4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반대로 긍정적 응답은 30%대 중반에서 40%중반으로 10%p 가량 증가해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과 2016년간 응답 값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크게 감소하고 긍정적 응답 역시 소폭 상승해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인식변화가 큰 편이다.

〈표 3-10〉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 1.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      |      |      |      |       |
|--|------|------|------|-------|-------|------|------|------|------|-------|
| 구분   | 2006 |      |      |       |       | 2016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남자   | 50.3 | 16.0 | 33.7 | -0.35 | 712   | 35.7 | 20.0 | 44.3 | 0.18 | 476   |
| 여자   | 51.6 | 12.2 | 36.2 | -0.41 | 887   | 39.0 | 17.2 | 43.8 | 0.11 | 575   |
| 전체   | 51.0 | 13.9 | 35.1 | -0.38 | 1,599 | 37.5 | 18.5 | 44.1 | 0.14 | 1,051 |
| 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      |      |       |       |      |      |      |      |       |
| 구분   | 2006 |      |      |       |       | 2016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남자   | 45.4 | 15.9 | 38.7 | -0.20 | 711   | 33.6 | 19.1 | 47.3 | 0.29 | 476   |
| 여자   | 39.6 | 15.0 | 45.4 | 0.07  | 889   | 33.7 | 15.7 | 50.6 | 0.34 | 575   |
| 전체   | 42.2 | 15.4 | 42.4 | -0.05 | 1,600 | 33.7 | 17.2 | 49.1 | 0.32 | 1,051 |

| 3.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      |      |      |       |       |      |    |    |    |     |
|-------------------------------|------|------|------|-------|-------|------|----|----|----|-----|
| 구분                            | 2006 |      |      |       |       | 2016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남자                            | 69.2 | 19.3 | 11.5 | -0.90 | 711   |      |    |    |    |     |
| 여자                            | 76.3 | 15.2 | 8.5  | -1.17 | 887   |      |    |    |    |     |
| 전체                            | 73.2 | 17.0 | 9.8  | -1.05 | 1,598 |      |    |    |    |     |

| 4. 어머니가 취업하면 미취학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      |    |    |    |     |      |      |      |       |       |
|------------------------------------|------|----|----|----|-----|------|------|------|-------|-------|
| 구분                                 | 2006 |    |    |    |     | 2016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남자                                 |      |    |    |    |     | 62.2 | 16.2 | 21.6 | -0.71 | 476   |
| 여자                                 |      |    |    |    |     | 69.7 | 12.3 | 17.9 | -0.98 | 575   |
| 전체                                 |      |    |    |    |     | 66.3 | 14.1 | 19.6 | -0.86 | 1,051 |

| 5.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괜찮다 |      |      |      |      |       |      |      |      |      |       |
|----------------------------------|------|------|------|------|-------|------|------|------|------|-------|
| 구분                               | 2006 |      |      |      |       | 2016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남자                               | 16.7 | 17.0 | 66.3 | 1.07 | 712   | 12.4 | 17.6 | 70.0 | 1.32 | 476   |
| 여자                               | 17.8 | 10.6 | 71.6 | 1.25 | 886   | 17.0 | 15.1 | 67.8 | 1.23 | 575   |
| 전체                               | 17.3 | 13.5 | 69.2 | 1.17 | 1,598 | 14.9 | 16.3 | 68.8 | 1.27 | 1,051 |

두 번째 항목인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든가 질문에 대해 2006년 -0.05에서 2016년 0.32로 나타나 전통적인 가구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응답을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으로 분류해보면 부정적 응답은 2006년 42.2%에서 2016년 33.7%로 감소하고 긍정적 응답은 42.4%에서 2016년 49.1%로 소폭 증가해 약 50%만이 부정적 응답에서 긍정적 응답으로 변화하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인식전환 정도가 높다. 즉, 2006년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전통적인 성 역할분담 인식을 갖는 경향이 강했으나 2016년에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수년동안 지속된 가구경제의 어려움이 여성들이 가구에 머물기보다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남성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 번째 항목인 남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사를 분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3.2%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남녀 모두 가사분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사분담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고 반대하는 의견은 낮다.

네 번째 항목인 어머니가 취업하면 미취학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라는 질문에 대해 -0.86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일반국민들 대다수가 미취학자녀 양육시 어머니의 조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기 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사회적 인식<sup>11)</sup>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3세 아동 신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유아기에는 엄마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정도가 매우 높다. 이는 서구에 비해 열악한 보육서비스와 종종 발생하는 보육기관에서의 체벌이나 불량음식 제공과 같은 사건이 일반 국민들에게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항목인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괜찮으냐는 질문에 대해 2006년 1.17, 2016년 1.27로 반대의견이 소폭 높아졌지만 이미 2006년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증대되자 언제든지 실직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성 주부양자 모델을 약화시켰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가구경제를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오래전에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응답을 부정적 응답과 긍정적 응답으로 분류해보면 부정적 응답은 2006년 17.3에서 2016년 14.9%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응답은 2006년 69.2%에서 2016년 68.8%로 오히려 감소하고 중립적인 의견이 13.5%에서 16.3%로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의 인식변화 측면보다는 2006년과 2016년 표본의 성별 분포의 영향으로 보인다<sup>12)</sup>. 여성의 인식변화는 이하의 연령 및 학력별 분포를 통해 변화 추이를 파악할

11) 일례로 일본에는 아이가 세 살 먹을 때까지는 집에서 엄마 손에 자라야 한다는 '3세 아동 신화'가 있음(노리토시, 2016).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본 부모의 약 70%가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함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독일 durtl 여성이 3세 이하의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경우 그 여성은 아이를 다소 소홀히 한다고 보는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여성을 폄하하는 단어(Rabenmütter: 무자비한 엄마)가 존재할 정도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 만큼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으나 여성은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모두 감소했다.

이어서 각 항목을 성별로 구분한 후 인적특성별로 성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표 3-11>은 자신보다는 남편의 경력개발이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청년층에서만 긍정적 응답이 50% 이상이었으나 2016년에는 40대까지 확대되어 남성의 성 역할인식이 크게 변모하였다. 50세 이상의 경우 2006년에는 부정적 응답비중이 50%를 상회하였으나 2016년에는 60세 이상에서만 부정적 응답이 60%를 상회할 뿐 대다수 연령집단에서 긍정적 응답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평균값이 소폭 낮을 뿐 남성과 동일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아 고연령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성 역할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12) 2006년 및 2016년 표본의 성 및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성 및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 구 분  |    | 18-29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소계    |
|------|----|-------|------|------|------|-------|-------|
| 2006 | 남자 | 22.0  | 21.8 | 27.7 | 12.2 | 16.2  | 714   |
|      | 여자 | 19.2  | 26.2 | 24.8 | 12.2 | 17.6  | 891   |
|      | 소계 | 20.4  | 24.2 | 26.1 | 12.2 | 17.0  | 1,605 |
| 2016 | 남자 | 22.1  | 17.2 | 14.7 | 18.1 | 27.9  | 476   |
|      | 여자 | 15.5  | 16.0 | 17.4 | 15.8 | 35.4  | 576   |
|      | 소계 | 18.4  | 16.5 | 16.2 | 16.8 | 32.0  | 1,052 |

〈표 3-11〉 아내의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위: %, 명)

| 구 분    |          | 2006     |      |      |       |       | 2016 |      |      |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 남<br>자 | 연령       | 18~29세   | 25.5 | 24.2 | 50.3  | 0.45  | 157  | 12.4 | 16.2 | 71.4  | 1.24  | 105 |
|        |          | 30대      | 42.9 | 18.6 | 38.5  | -0.08 | 156  | 25.6 | 22.0 | 52.4  | 0.51  | 82  |
|        |          | 40대      | 56.6 | 12.6 | 30.8  | -0.42 | 198  | 25.7 | 30.0 | 44.3  | 0.37  | 70  |
|        |          | 50대      | 58.6 | 9.2  | 32.2  | -0.69 | 87   | 41.9 | 23.3 | 34.9  | -0.19 | 86  |
|        |          | 60세 이상   | 77.2 | 12.3 | 10.5  | -1.46 | 114  | 61.7 | 14.3 | 24.1  | -0.74 | 133 |
|        |          | 소계       | 50.3 | 16.0 | 33.7  | -0.35 | 712  | 35.7 | 20.0 | 44.3  | 0.18  | 476 |
|        | 학력       | 고졸미만     | 74.6 | 11.0 | 14.4  | -1.32 | 118  | 62.4 | 15.1 | 22.6  | -0.82 | 93  |
|        |          | 고졸       | 62.4 | 15.2 | 22.5  | -0.83 | 178  | 45.4 | 17.6 | 37.0  | -0.19 | 108 |
|        |          | 대재, 중퇴   | 33.9 | 20.3 | 45.8  | 0.25  | 192  | 18.0 | 21.6 | 60.4  | 0.91  | 111 |
|        |          | 대졸이상     | 42.0 | 15.6 | 42.4  | 0.02  | 224  | 26.2 | 23.2 | 50.6  | 0.48  | 164 |
|        |          | 소계       | 50.3 | 16.0 | 33.7  | -0.35 | 712  | 35.7 | 20.0 | 44.3  | 0.18  | 476 |
|        | 가구<br>소득 | 300미만    | 57.1 | 16.4 | 26.6  | -0.65 | 354  | 45.9 | 22.9 | 31.2  | -0.35 | 170 |
|        |          | 300~499만 | 44.3 | 18.0 | 37.6  | -0.08 | 194  | 35.5 | 22.3 | 42.1  | 0.11  | 121 |
|        |          | 500만이상   | 41.1 | 12.3 | 46.6  | 0.03  | 146  | 28.6 | 15.6 | 55.8  | 0.64  | 154 |
|        |          | 소계       | 50.1 | 16.0 | 33.9  | -0.34 | 694  | 37.1 | 20.2 | 42.7  | 0.12  | 445 |
|        | 부부<br>경활 | 맞벌이      | 60.3 | 14.7 | 25.0  | -0.90 | 68   | 38.5 | 15.4 | 46.2  | 0.22  | 117 |
| 남자     |          | 54.6     | 14.3 | 31.1 | -0.43 | 328   | 38.2 | 29.4 | 32.4 | -0.11 | 102   |     |
| 여자     |          | 75.0     | 10.0 | 15.0 | -1.35 | 20    | 68.8 | 12.5 | 18.8 | -1.13 | 16    |     |
| 모두 비경활 |          | 65.3     | 20.4 | 14.3 | -1.00 | 49    | 66.7 | 14.6 | 18.8 | -1.06 | 48    |     |
| 소계     |          | 57.4     | 14.8 | 27.7 | -0.60 | 465   | 44.9 | 20.1 | 35.0 | -0.19 | 283   |     |
| 여<br>자 | 연령       | 18~29세   | 19.3 | 19.3 | 61.4  | 0.78  | 171  | 13.5 | 13.5 | 73.0  | 1.35  | 89  |
|        |          | 30대      | 45.9 | 11.2 | 42.9  | -0.05 | 233  | 19.6 | 15.2 | 65.2  | 0.82  | 92  |
|        |          | 40대      | 55.9 | 10.9 | 33.2  | -0.55 | 220  | 31.0 | 20.0 | 49.0  | 0.45  | 100 |
|        |          | 50대      | 69.7 | 8.3  | 22.0  | -1.12 | 109  | 38.5 | 22.0 | 39.6  | 0.04  | 91  |
|        |          | 60세 이상   | 77.3 | 10.4 | 12.3  | -1.56 | 154  | 63.1 | 16.3 | 20.7  | -0.90 | 203 |
|        |          | 소계       | 51.6 | 12.2 | 36.2  | -0.41 | 887  | 39.0 | 17.2 | 43.8  | 0.11  | 575 |
|        | 학력       | 고졸미만     | 77.3 | 8.7  | 14.0  | -1.53 | 229  | 62.8 | 16.3 | 20.9  | -0.90 | 172 |
|        |          | 고졸       | 60.1 | 11.7 | 28.3  | -0.67 | 283  | 42.9 | 18.6 | 38.6  | -0.05 | 140 |
|        |          | 대재, 중퇴   | 33.5 | 14.4 | 52.1  | 0.31  | 167  | 22.4 | 17.8 | 59.8  | 0.93  | 107 |
|        |          | 대졸이상     | 26.1 | 13.8 | 60.1  | 0.65  | 203  | 20.5 | 16.7 | 62.8  | 0.79  | 156 |
|        |          | 소계       | 51.7 | 11.9 | 36.4  | -0.40 | 882  | 39.0 | 17.2 | 43.8  | 0.11  | 575 |
|        | 가구<br>소득 | 300미만    | 63.7 | 9.4  | 26.9  | -0.88 | 435  | 51.9 | 16.8 | 31.3  | -0.44 | 214 |
|        |          | 300~499만 | 45.9 | 13.9 | 40.2  | -0.14 | 259  | 31.0 | 13.5 | 55.6  | 0.51  | 126 |
|        |          | 500만이상   | 30.0 | 15.0 | 55.0  | 0.45  | 160  | 29.8 | 18.5 | 51.7  | 0.51  | 178 |
|        |          | 소계       | 52.0 | 11.8 | 36.2  | -0.41 | 854  | 39.2 | 16.6 | 44.2  | 0.12  | 518 |
|        | 부부<br>경활 | 맞벌이      | 56.1 | 12.3 | 31.6  | -0.74 | 57   | 29.9 | 22.4 | 47.6  | 0.40  | 147 |
| 남자     |          | 80.9     | 8.5  | 10.6 | -1.45 | 47    | 48.7 | 14.5 | 36.8 | -0.20 | 117   |     |
| 여자     |          | 51.4     | 12.4 | 36.2 | -0.38 | 210   | 54.5 | 18.2 | 27.3 | -0.45 | 22    |     |
| 모두 비경활 |          | 58.7     | 10.0 | 31.2 | -0.59 | 269   | 60.4 | 22.9 | 16.7 | -0.77 | 48    |     |
| 소계     |          | 57.6     | 11.0 | 31.4 | -0.60 | 583   | 42.5 | 19.5 | 38.0 | -0.03 | 334   |     |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지만 특히 대졸자와 대재 및 대학중퇴자간 간격이 크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2006년에는 부정적 응답자가 남녀 모두 70%를 상회하지만 대졸이상자는 남성 41.1%, 여성 26.1%에 그쳐 대졸 여성의 성차별 인식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증가하였다. 다만 대졸여성의 경우만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작는데 이는 2006년에 대졸여성의 인식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작았다.

다음으로 가구소득과 가구 형태로 구분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남성표본의 경우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의 변화폭이 크고 여성 표본은 500만원 이하 표본에서 변화폭이 크다. 성별로 가구소득별로 변화폭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분명치 않다. 가구형태로 보면 남성 표본의 경우 부부 모두 비경활인 가구와 여성 홀별이가가 부정적 응답이 높았고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여성 홀별이나 부부 모두 비경활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 표본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 표본은 2006년에는 남자 홀별이 가구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2016년에는 여성 홀별이와 비경활가구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항목은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성역할 분리에 대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2006년에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38.7%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47.3%로 증가하였고 여성 역시 2006년 45.4%에서 2016년 50.6%로 변화하였다. 평균값 변화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변화폭이 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보다 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변화폭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0.7% 포인트 내외가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은 50세이상 집단에서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젊은 층은 이미 성 평등 인식 정도가 높았고 인식변화가 주로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1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단위: %, 명)

| 구 분    |       | 2006     |      |      |       |       | 2016 |      |      |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
| 남<br>자 | 연령    | 18~29세   | 23.6 | 17.8 | 58.6  | 0.58  | 157  | 9.5  | 20.0 | 70.5  | 1.30  | 105 |
|        |       | 30대      | 39.1 | 18.6 | 42.3  | 0.08  | 156  | 19.5 | 19.5 | 61.0  | 0.87  | 82  |
|        |       | 40대      | 50.3 | 16.2 | 33.5  | -0.31 | 197  | 34.3 | 21.4 | 44.3  | 0.13  | 70  |
|        |       | 50대      | 51.7 | 17.2 | 31.0  | -0.49 | 87   | 39.5 | 19.8 | 40.7  | -0.03 | 86  |
|        |       | 60세 이상   | 71.1 | 7.9  | 21.1  | -1.25 | 114  | 57.1 | 16.5 | 26.3  | -0.56 | 133 |
|        |       | 소계       | 45.4 | 15.9 | 38.7  | -0.20 | 711  | 33.6 | 19.1 | 47.3  | 0.29  | 476 |
|        | 학력    | 고졸미만     | 68.6 | 9.3  | 22.0  | -1.14 | 118  | 59.1 | 16.1 | 24.7  | -0.66 | 93  |
|        |       | 고졸       | 54.2 | 16.9 | 28.8  | -0.55 | 177  | 38.9 | 18.5 | 42.6  | 0.08  | 108 |
|        |       | 대재, 중퇴   | 30.7 | 19.3 | 50.0  | 0.35  | 192  | 16.2 | 22.5 | 61.3  | 0.95  | 111 |
|        |       | 대졸이상     | 38.8 | 15.6 | 45.5  | 0.09  | 224  | 27.4 | 18.9 | 53.7  | 0.52  | 164 |
|        |       | 소계       | 45.4 | 15.9 | 38.7  | -0.20 | 711  | 33.6 | 19.1 | 47.3  | 0.29  | 476 |
|        | 가구 소득 | 300미만    | 51.0 | 15.0 | 34.0  | -0.42 | 353  | 42.4 | 20.6 | 37.1  | -0.09 | 170 |
|        |       | 300~499만 | 40.7 | 20.1 | 39.2  | -0.08 | 194  | 32.2 | 24.0 | 43.8  | 0.26  | 121 |
|        |       | 500만이상   | 39.0 | 13.0 | 47.9  | 0.16  | 146  | 26.6 | 15.6 | 57.8  | 0.62  | 154 |
|        |       | 소계       | 45.6 | 16.0 | 38.4  | -0.20 | 693  | 34.2 | 19.8 | 46.1  | 0.25  | 445 |
|        | 부부경활  | 맞벌이      | 54.4 | 13.2 | 32.4  | -0.60 | 68   | 34.2 | 18.8 | 47.0  | 0.26  | 117 |
| 남자     |       | 49.4     | 15.5 | 35.1 | -0.30 | 328   | 46.1 | 18.6 | 35.3 | -0.13 | 102   |     |
| 여자     |       | 65.0     | 10.0 | 25.0 | -1.15 | 20    | 56.3 | 18.8 | 25.0 | -0.63 | 16    |     |
| 모두 비경활 |       | 63.3     | 20.4 | 16.3 | -1.00 | 49    | 58.3 | 16.7 | 25.0 | -0.69 | 48    |     |
| 소계     |       | 52.3     | 15.5 | 32.3 | -0.45 | 465   | 43.8 | 18.4 | 37.8 | -0.09 | 283   |     |
| 여<br>자 | 연령    | 18~29세   | 12.9 | 12.3 | 74.9  | 1.25  | 171  | 10.1 | 11.2 | 78.7  | 1.65  | 89  |
|        |       | 30대      | 26.2 | 21.5 | 52.4  | 0.55  | 233  | 16.3 | 17.4 | 66.3  | 1.05  | 92  |
|        |       | 40대      | 35.5 | 18.2 | 46.4  | 0.20  | 220  | 18.0 | 23.0 | 59.0  | 0.79  | 100 |
|        |       | 50대      | 63.3 | 10.1 | 26.6  | -0.82 | 109  | 35.2 | 13.2 | 51.6  | 0.35  | 91  |
|        |       | 60세 이상   | 78.2 | 7.1  | 14.7  | -1.51 | 156  | 59.1 | 14.3 | 26.6  | -0.77 | 203 |
|        |       | 소계       | 39.6 | 15.0 | 45.4  | 0.07  | 889  | 33.7 | 15.7 | 50.6  | 0.34  | 575 |
|        | 학력    | 고졸미만     | 74.0 | 7.4  | 18.6  | -1.29 | 231  | 59.3 | 15.1 | 25.6  | -0.77 | 172 |
|        |       | 고졸       | 37.5 | 18.7 | 43.8  | 0.11  | 283  | 35.0 | 15.7 | 49.3  | 0.24  | 140 |
|        |       | 대재, 중퇴   | 23.4 | 15.6 | 61.1  | 0.84  | 167  | 20.6 | 19.6 | 59.8  | 1.03  | 107 |
|        |       | 대졸이상     | 17.2 | 17.2 | 65.5  | 0.92  | 203  | 13.5 | 13.5 | 73.1  | 1.21  | 156 |
|        |       | 소계       | 39.7 | 14.8 | 45.5  | 0.07  | 884  | 33.7 | 15.7 | 50.6  | 0.34  | 575 |
|        | 가구 소득 | 300미만    | 50.3 | 15.3 | 34.3  | -0.41 | 437  | 47.7 | 14.5 | 37.9  | -0.28 | 214 |
|        |       | 300~499만 | 30.9 | 16.2 | 52.9  | 0.44  | 259  | 26.2 | 16.7 | 57.1  | 0.61  | 126 |
|        |       | 500만이상   | 25.0 | 11.3 | 63.8  | 0.74  | 160  | 20.2 | 16.3 | 63.5  | 0.97  | 178 |
|        |       | 소계       | 39.7 | 14.8 | 45.4  | 0.06  | 856  | 33.0 | 15.6 | 51.4  | 0.37  | 518 |
|        | 부부경활  | 맞벌이      | 43.9 | 14.0 | 42.1  | -0.11 | 57   | 20.4 | 17.0 | 62.6  | 0.86  | 147 |
| 남자     |       | 66.0     | 8.5  | 25.5 | -0.96 | 47    | 35.9 | 14.5 | 49.6 | 0.15  | 117   |     |
| 여자     |       | 33.8     | 16.7 | 49.5 | 0.32  | 210   | 50.0 | 18.2 | 31.8 | -0.27 | 22    |     |
| 모두 비경활 |       | 42.8     | 18.6 | 38.7 | -0.14 | 269   | 58.3 | 20.8 | 20.8 | -0.94 | 48    |     |
| 소계     |       | 41.5     | 16.6 | 41.9 | -0.04 | 583   | 33.2 | 16.8 | 50.0 | 0.28  | 334   |     |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학재학·중퇴 및 졸업자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2016년의 경우 고졸미만 집단은 부정적 응답자비중이 남자 59.1%, 여자 59.3%인 반면 대졸이상은 남자 27.4%, 여자 13.5%이다. 이는 대학교육이 성 평등의식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가구소득과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평균값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가구형태로는 남성 표본의 경우 비경활가구와 여성 홀별이 가구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다. 그러나 여성표본은 2006년에는 남자 홀별이, 2016년에는 여성 홀별이와 비경활가구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녀 그리고 조사시점별로 서로 상이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과 2016년 평균값 변화를 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변화율이 가장 컸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된 결과로 보여진다. 특이한 점은 여성표본의 경우 여성 홀별이가구와 비경활가구 모두 2006년 대비 2016년에 성 평등 인식정도가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여성 홀별이의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에 따른 피로감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비경활가구의 경우 남성 비경활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2006년에 비해 부정적 응답은 증가하고 긍정적 응답이 감소한 원인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번째 항목인 남자들이 보다 많이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질문은 2006년에만 질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식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2006년 자료를 통해 남녀 인적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찬성 응답비율이 높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가사에 대한 높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배우자의 가사 참여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가사참여 요구정도가 높는데 남성은 연령별로 찬성 응답비율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여성은 50세 이상과 그 이하 집단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중고령자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정도가 남성보다 높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 보다 성 평등적 인식을 갖고 있

다.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별로 구분해보면 남성표본은 가구형태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여성 표본은 여성 홀벌이와 비경활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중립적인 응답을 한 자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표 3-13〉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단위: %, 명)

| 구 분  |          | 남자   |      |      |       |      | 여자   |      |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 연령   | 18~29세   | 75.2 | 19.7 | 5.1  | -1.01 | 157  | 87.7 | 9.4  | 2.9  | -1.47 | 171  |
|      | 30대      | 64.7 | 22.4 | 12.8 | -0.79 | 156  | 79.0 | 16.7 | 4.3  | -1.31 | 233  |
|      | 40대      | 69.0 | 17.3 | 13.7 | -0.83 | 197  | 79.1 | 13.6 | 7.3  | -1.18 | 220  |
|      | 50대      | 63.2 | 21.8 | 14.9 | -0.82 | 87   | 77.1 | 11.0 | 11.9 | -1.17 | 109  |
|      | 60세 이상   | 71.9 | 15.8 | 12.3 | -1.06 | 114  | 55.2 | 24.7 | 20.1 | -0.58 | 154  |
|      | 소계       | 69.2 | 19.3 | 11.5 | -0.90 | 711  | 76.3 | 15.2 | 8.5  | -1.17 | 887  |
| 학력   | 고졸미만     | 68.6 | 16.1 | 15.3 | -0.95 | 118  | 62.0 | 17.9 | 20.1 | -0.64 | 229  |
|      | 고졸       | 60.5 | 23.7 | 15.8 | -0.77 | 177  | 76.7 | 17.3 | 6.0  | -1.26 | 283  |
|      | 대재, 중퇴   | 71.9 | 20.8 | 7.3  | -0.92 | 192  | 83.2 | 12.0 | 4.8  | -1.30 | 167  |
|      | 대졸이상     | 74.1 | 16.1 | 9.8  | -0.95 | 224  | 87.7 | 10.3 | 2.0  | -1.55 | 203  |
|      | 소계       | 69.2 | 19.3 | 11.5 | -0.90 | 711  | 76.6 | 14.9 | 8.5  | -1.17 | 882  |
| 가구소득 | 300미만    | 64.9 | 23.8 | 11.3 | -0.86 | 353  | 72.0 | 17.7 | 10.3 | -1.06 | 435  |
|      | 300~499만 | 73.2 | 15.5 | 11.3 | -0.94 | 194  | 78.8 | 15.1 | 6.2  | -1.22 | 259  |
|      | 500만이상   | 72.6 | 13.7 | 13.7 | -0.86 | 146  | 85.6 | 7.5  | 6.9  | -1.42 | 160  |
|      | 소계       | 68.8 | 19.3 | 11.8 | -0.88 | 693  | 76.6 | 15.0 | 8.4  | -1.18 | 854  |
| 부부경활 | 맞벌이      | 69.1 | 16.2 | 14.7 | -0.87 | 68   | 61.4 | 19.3 | 19.3 | -0.82 | 57   |
|      | 남자       | 67.1 | 19.2 | 13.7 | -0.82 | 328  | 72.3 | 10.6 | 17.0 | -1.00 | 47   |
|      | 여자       | 70.0 | 15.0 | 15.0 | -0.95 | 20   | 84.8 | 7.1  | 8.1  | -1.43 | 210  |
|      | 모두 비경활   | 71.4 | 20.4 | 8.2  | -1.08 | 49   | 71.6 | 20.9 | 7.5  | -1.02 | 268  |
|      | 소계       | 68.0 | 18.7 | 13.3 | -0.86 | 465  | 75.4 | 14.9 | 9.6  | -1.15 | 582  |

어머니 취업이 미취학자녀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질문은 2016년에만 조사가 이루어져 역시 인식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2016년 자료를 이용해 남녀 간 인적 특성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찬성 응답비율이 높은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여성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큼을 보여준다.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테 특이하게도 청년층과 30세 이상 집단 간 인식괴리가 큰 편이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남성의 찬성 응답

비중이 여성에 비해 소폭 높다. 청년층의 경우 출산한 자의 비율이 높지 않다면 이들의 자녀보살핌에 대한 인식은 관념적인 수준일 것이며 실제 양육 경험이 있는 30세 이상 집단에서 자녀 보살핌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찬성 응답비율은 감소하고 반대 응답은 증가하고 있다. 대학재학 및 중퇴집단이 오히려 대졸자집단에 비해 찬성 응답비율이 낮은 것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퇴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미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13)</sup>. 가구소득기준으로는 남성 표본의 경우 큰 차이가 없고 여성표본은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고 300~499만원 중위소득 표본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다.

〈표 3-14〉 어머니가 취업하면 미취학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단위: %, 명)

| 구 분   |          | 남자   |      |      |       |      | 여자   |      |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 연령    | 18~29세   | 39.0 | 22.9 | 38.1 | 0.13  | 105  | 47.2 | 16.9 | 36.0 | 0.02  | 89   |
|       | 30대      | 58.5 | 20.7 | 20.7 | -0.54 | 82   | 70.7 | 14.1 | 15.2 | -1.04 | 92   |
|       | 40대      | 58.6 | 22.9 | 18.6 | -0.83 | 70   | 71.0 | 12.0 | 17.0 | -1.01 | 100  |
|       | 50대      | 73.3 | 9.3  | 17.4 | -1.05 | 86   | 79.1 | 5.5  | 15.4 | -1.22 | 91   |
|       | 60세 이상   | 77.4 | 9.0  | 13.5 | -1.20 | 133  | 74.4 | 12.8 | 12.8 | -1.28 | 203  |
|       | 소계       | 62.2 | 16.2 | 21.6 | -0.71 | 476  | 69.7 | 12.3 | 17.9 | -0.98 | 575  |
| 학력    | 고졸미만     | 77.4 | 11.8 | 10.8 | -1.40 | 93   | 72.7 | 14.0 | 13.4 | -1.22 | 172  |
|       | 고졸       | 67.6 | 13.9 | 18.5 | -0.81 | 108  | 65.7 | 12.1 | 22.1 | -0.84 | 140  |
|       | 대재, 중퇴   | 45.0 | 19.8 | 35.1 | -0.05 | 111  | 63.6 | 13.1 | 23.4 | -0.62 | 107  |
|       | 대졸이상     | 61.6 | 17.7 | 20.7 | -0.70 | 164  | 74.4 | 10.3 | 15.4 | -1.10 | 156  |
|       | 소계       | 62.2 | 16.2 | 21.6 | -0.71 | 476  | 69.7 | 12.3 | 17.9 | -0.98 | 575  |
| 가구 소득 | 300미만    | 63.5 | 17.6 | 18.8 | -0.83 | 170  | 71.5 | 12.6 | 15.9 | -1.12 | 214  |
|       | 300~499만 | 63.6 | 14.0 | 22.3 | -0.72 | 121  | 65.9 | 11.9 | 22.2 | -0.76 | 126  |
|       | 500만이상   | 63.0 | 16.2 | 20.8 | -0.72 | 154  | 73.0 | 10.1 | 16.9 | -1.03 | 178  |
|       | 소계       | 63.4 | 16.2 | 20.4 | -0.76 | 445  | 70.7 | 11.6 | 17.8 | -1.00 | 518  |
| 부부경활  | 맞벌이      | 69.2 | 12.8 | 17.9 | -0.94 | 117  | 71.4 | 9.5  | 19.0 | -1.07 | 147  |
|       | 남자       | 74.5 | 14.7 | 10.8 | -1.12 | 102  | 81.2 | 8.5  | 10.3 | -1.35 | 117  |
|       | 여자       | 81.3 | 6.3  | 12.5 | -1.25 | 16   | 72.7 | 18.2 | 9.1  | -1.14 | 22   |
|       | 모두 비경활   | 72.9 | 8.3  | 18.8 | -1.08 | 48   | 77.1 | 14.6 | 8.3  | -1.38 | 48   |
|       | 소계       | 72.4 | 12.4 | 15.2 | -1.05 | 283  | 75.7 | 10.5 | 13.8 | -1.22 | 334  |

13) 2016년 패널의 경우 대학재학 및 중퇴자 중 53.7%가 미혼이고 41.7%가 기혼자임

부부 경활상태별로는 남성 표본의 경우 맞벌이가구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고 여성 홀벌이와 부부 비경활가구에서 부정적 응답비중이 높다. 반대로 여성 표본에서는 남자 홀벌이에서 부정적 응답비중이 높고 맞벌이 가구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가피하게 자녀양육을 부모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인식이 반대하는 비중이 높다. 남성 표본의 여성 홀벌이와 비경활 가구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집단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는데(전체 표본의 평균 연령은 53.3세이지만 남자표본의 여성 홀벌이는 63.8세, 비경활 가구는 71.4세임) 그만큼 전통적인 자녀 양육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가구부양자인 남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선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남녀 모두 긍정적(반대)응답이 높으며 남녀 간에 비해보면 여성의 긍정적 응답이 소폭 높다.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40세미만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남성표본에서의 변화폭이 큰 편이다. 여성의 경우 이미 2006년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변화폭이 크다.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으며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보다 성 평등적 인식을 갖고 있다. 학력별 분포에서 특징적인 점은 남성 표본의 경우 대졸이상자가 대학재학·중퇴 혹은 고졸자 집단에 비해 긍정적 응답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내내 지속된 대졸청년실업 여파로 남녀 간 일자리경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여성표본은 2006년에는 대졸이상자가 대학재학·중퇴자에 비해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았으나 2016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해 대졸여성들의 직장 내에서의 성 차별인식이 크게 변모하였음을 보여준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남성 표본의 경우 2006년에는 300~499만 표본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2016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성표본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으며 2006년과 2016년 평균값을 비교하면 남성표본은 300만원 미만, 여성표본은 3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평균값이 소폭 하락하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직장 내 성차별 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로 구분해보면 남성표본의 경우 남성 홀벌이가구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남성의 고용안정이 가계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

다. 실제 경제위기로 실업가능성이 높아지면 남성의 성-역할 관념이 보다 강화되며 여성 역시 성-역할 이분법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Bittman et al, 2003).

〈표 3-15〉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괜찮다

(단위: %, 명)

| 구 분    |       | 2006     |      |      |      |      | 2016 |      |      |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시점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시점수  |     |
| 남<br>자 | 연령    | 18~29세   | 8.3  | 19.1 | 72.6 | 1.28 | 157  | 2.9  | 15.2 | 81.9 | 1.85 | 105 |
|        |       | 30대      | 12.8 | 21.8 | 65.4 | 1.15 | 156  | 8.5  | 9.8  | 81.7 | 1.66 | 82  |
|        |       | 40대      | 17.3 | 15.7 | 67.0 | 1.08 | 197  | 14.3 | 28.6 | 57.1 | 1.13 | 70  |
|        |       | 50대      | 21.8 | 9.2  | 69.0 | 1.11 | 87   | 12.8 | 19.8 | 67.4 | 1.16 | 86  |
|        |       | 60세 이상   | 28.7 | 15.7 | 55.7 | 0.62 | 115  | 21.1 | 17.3 | 61.7 | 0.89 | 133 |
|        |       | 소계       | 16.7 | 17.0 | 66.3 | 1.07 | 712  | 12.4 | 17.6 | 70.0 | 1.32 | 476 |
|        | 학력    | 고졸미만     | 31.1 | 10.9 | 58.0 | 0.66 | 119  | 20.4 | 21.5 | 58.1 | 0.85 | 93  |
|        |       | 고졸       | 12.4 | 16.4 | 71.2 | 1.29 | 177  | 14.8 | 15.7 | 69.4 | 1.25 | 108 |
|        |       | 대재, 중퇴   | 11.5 | 17.7 | 70.8 | 1.15 | 192  | 9.0  | 14.4 | 76.6 | 1.64 | 111 |
|        |       | 대졸이상     | 17.0 | 20.1 | 62.9 | 1.04 | 224  | 8.5  | 18.9 | 72.6 | 1.41 | 164 |
|        |       | 소계       | 16.7 | 17.0 | 66.3 | 1.07 | 712  | 12.4 | 17.6 | 70.0 | 1.32 | 476 |
|        | 가구 소득 | 300미만    | 15.0 | 15.8 | 69.2 | 1.09 | 354  | 20.0 | 18.8 | 61.2 | 0.94 | 170 |
|        |       | 300~499만 | 17.5 | 24.2 | 58.2 | 0.97 | 194  | 6.6  | 18.2 | 75.2 | 1.53 | 121 |
|        |       | 500만이상   | 19.9 | 11.6 | 68.5 | 1.13 | 146  | 9.1  | 15.6 | 75.3 | 1.51 | 154 |
|        |       | 소계       | 16.7 | 17.3 | 66.0 | 1.07 | 694  | 12.6 | 17.5 | 69.9 | 1.30 | 445 |
|        | 부부경활  | 맞벌이      | 26.5 | 13.2 | 60.3 | 0.79 | 68   | 18.8 | 17.9 | 63.2 | 1.08 | 117 |
|        |       | 남자       | 18.2 | 16.4 | 65.3 | 1.04 | 329  | 4.9  | 18.6 | 76.5 | 1.62 | 102 |
|        |       | 여자       | 20.0 | 25.0 | 55.0 | 0.90 | 20   | 31.3 | 6.3  | 62.5 | 0.56 | 16  |
|        |       | 모두 비경활   | 26.5 | 18.4 | 55.1 | 0.67 | 49   | 18.8 | 27.1 | 54.2 | 0.69 | 48  |
|        |       | 소계       | 20.4 | 16.5 | 63.1 | 0.96 | 466  | 14.5 | 19.1 | 66.4 | 1.18 | 283 |
| 여<br>자 | 연령    | 18~29세   | 5.8  | 4.1  | 90.1 | 1.96 | 171  | 3.4  | 4.5  | 92.1 | 2.18 | 89  |
|        |       | 30대      | 12.4 | 8.2  | 79.4 | 1.59 | 233  | 4.3  | 13.0 | 82.6 | 1.91 | 92  |
|        |       | 40대      | 14.1 | 10.9 | 75.0 | 1.37 | 220  | 11.0 | 17.0 | 72.0 | 1.46 | 100 |
|        |       | 50대      | 30.3 | 6.4  | 63.3 | 0.73 | 109  | 18.7 | 18.7 | 62.6 | 1.05 | 91  |
|        |       | 60세 이상   | 35.9 | 24.2 | 39.9 | 0.12 | 153  | 31.0 | 18.2 | 50.7 | 0.46 | 203 |
|        |       | 소계       | 17.8 | 10.6 | 71.6 | 1.25 | 886  | 17.0 | 15.1 | 67.8 | 1.23 | 575 |
|        | 학력    | 고졸미만     | 30.7 | 18.0 | 51.3 | 0.44 | 228  | 32.6 | 18.0 | 49.4 | 0.40 | 172 |
|        |       | 고졸       | 16.3 | 9.2  | 74.6 | 1.42 | 283  | 16.4 | 19.3 | 64.3 | 1.12 | 140 |
|        |       | 대재, 중퇴   | 9.0  | 5.4  | 85.6 | 1.79 | 167  | 7.5  | 12.1 | 80.4 | 1.79 | 107 |
|        |       | 대졸이상     | 12.8 | 8.4  | 78.8 | 1.49 | 203  | 7.1  | 10.3 | 82.7 | 1.85 | 156 |
|        |       | 소계       | 17.8 | 10.6 | 71.6 | 1.25 | 881  | 17.0 | 15.1 | 67.8 | 1.23 | 575 |
|        | 가구 소득 | 300미만    | 20.0 | 13.4 | 66.6 | 1.07 | 434  | 25.2 | 16.4 | 58.4 | 0.82 | 214 |
|        |       | 300~499만 | 16.6 | 7.3  | 76.1 | 1.40 | 259  | 11.9 | 11.1 | 77.0 | 1.52 | 126 |
|        |       | 500만이상   | 13.8 | 5.6  | 80.6 | 1.56 | 160  | 11.2 | 14.6 | 74.2 | 1.52 | 178 |
|        |       | 소계       | 17.8 | 10.1 | 72.1 | 1.26 | 853  | 17.2 | 14.5 | 68.3 | 1.19 | 518 |
|        | 부부경활  | 맞벌이      | 14.0 | 10.5 | 75.4 | 1.42 | 57   | 10.9 | 15.6 | 73.5 | 1.48 | 147 |
|        |       | 남자       | 25.5 | 12.8 | 61.7 | 0.85 | 47   | 17.1 | 17.1 | 65.8 | 1.05 | 117 |
|        |       | 여자       | 16.7 | 8.6  | 74.8 | 1.35 | 210  | 22.7 | 18.2 | 59.1 | 0.82 | 22  |
|        |       | 모두 비경활   | 21.3 | 11.6 | 67.2 | 1.01 | 268  | 27.1 | 14.6 | 58.3 | 0.81 | 48  |
|        |       | 소계       | 19.2 | 10.5 | 70.3 | 1.16 | 582  | 16.2 | 16.2 | 67.7 | 1.19 | 334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사 남성에 비해 여성의 해고율이 훨씬 높았고 가족이데올로기가 확산된 것은(조순경, 1998) 성역할 인식이 거시경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여성표본은 맞벌이 가구의 긍정적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고용조정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의 고용보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 낮은 고용률의 핵심인바 정부는 보육정책 및 가족친화정책 등을 통해 일-가정 영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바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성 차별적 기업문화의 영향으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 외에 여성 취업에 대한 여성 및 우리사회의 가치관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동안 가부장제문화에 의한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화의 지체현상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은 남성과 여성을 사회 각 부문에서 분리하고 그 분리된 영역에 위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체계(곽현주, 최은영, 2015)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남성은 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하는 것이다(강이수, 신경아, 2001). 즉, 남성은 가구주로 가구원을 부양해야하며 남성과 여성은 역할이 상이하 며, 자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가정(사회)에서 성장했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 역시 여성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취업,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에는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Goldin, 1990)과 가구의 소득수준(Mammen & Paxson, 2000)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Leibowith & Klerman, 1995). 우리나라의 역시 여성의 학력수준이 증가하고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구소득 감소·정체는 여성의 취업요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작업장 규범이나 관행, 노동시장 구조도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시장 내 성 차별적인 고용관행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은 여성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킨다. 노동시장내 차별은 신자유적 고용관행의 확산과 함께 보다 적나라 하게 작동하고 있다. 채용시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되고 여성의 경우 관리직 승진에 필요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된다. 이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관리직이 되기 전에 퇴직하고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차적 해고대상으로 여성을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남성 중심의 작업장 문화와 장시간 근로관행은 여성에게 장기근속 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은 가사 및 자녀양육부담뿐 아니라 노동 시장 내 성 차별을 안고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국가 간 경제활동참여율 차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할분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이하다. 성역할과 여성의 경제활동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Fortin, 2005)에 따르면 성 역할인식이 보수적일수록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으며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 역할인식이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e & Vella, 2013). 국내연구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다(이미정, 2002). 다만 성 역할의 크기는 학력, 가계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상이했다(민경희, 2003). 한편, 여성 취업에 있어 남편의 가치관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경애(1999)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를 전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며 오히려 배우자의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여성의 취업의지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유연화의 진전으로 남성부양자모델이 흔들리고 가구소득은 정체한데 반해 교육이나 주거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 역할분리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모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2016년 KGSS에서 조사된 여성의 취업인식문항을 이용해 여성의 취업 의식이 어떤가를 살펴본다. KGSS 2016년 조사에서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은 3개 문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취업모도 비취업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듯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있는 일이다. 이

들 질문은 여성의 취업이 가사일이나 자녀 돌봄과 같은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각 항목은 매우 찬성부터 매우 반대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아님을 0으로 설정한 후 매우 찬성 -2, 다소 찬성 -1 그리고 다소 반대 1, 매우 반대 2로 전환하여 응답자의 성, 연령 등 인적특성에 따른 평균점수를 비교하였다. 이하에서도 먼저 성별로 각 항목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후 성별로 연령, 학력, 경제활동여부 등으로 세분한 후 각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성별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취업모도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남녀 모두 -0.79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찬성 응답과 반대 응답 간 비중을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찬성하는 비중은 소폭 높고 반대하는 비중은 낮아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은 실제 자녀부양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시 자녀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할 것이라는 미안함을 보다 많이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문항인 전일제 취업시 일-가정양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느끼는 부담감이 컸다. 남녀별 응답 분포를 보면 남성은 찬성 응답자가 41.3%인데 반해 여성은 51.3%로 10%p의 차이가 있고 반대 응답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6.4%p 높았다. 남성의 높은 가사분담 의식과 달리 실제 참여정도가 낮은 현실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전일제로 취업할 경우 가사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 문항은 전업주부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소폭 높은 수준이다. 찬성 비중은 성별로 차이가 없고 반대의 경우 여성이 소폭 높아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집안에 머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정도가 소폭 높다. 여성의 경우 성역할 분리가 가정 내에서 불평등한 지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느낄 것이다. 다만 남녀 모두 전업주부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81.0%로 나타난 것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성 역할 분리의식이 강하다는 점과 함께 최근 들어 가사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표 3-16〉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1. 취업모도 비취업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수 있다 |      |      |      |       |       |
|--|------|------|------|-------|-------|
| 구분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남자   | 70.2 | 15.9 | 14.0 | -0.79 | 473   |
| 여자   | 68.9 | 15.4 | 15.7 | -0.79 | 573   |
| 전체   | 69.5 | 15.6 | 14.9 | -0.79 | 1,046 |
| 2.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      |      |      |       |       |
| 구분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남자   | 41.3 | 24.0 | 34.7 | -0.01 | 475   |
| 여자   | 51.3 | 20.4 | 28.3 | -0.29 | 573   |
| 전체   | 46.8 | 22.0 | 31.2 | -0.17 | 1,048 |
| 3.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      |      |      |       |       |
| 구분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수   |
| 남자   | 81.0 | 15.6 | 3.4  | -1.16 | 474   |
| 여자   | 81.0 | 13.6 | 5.4  | -1.14 | 573   |
| 전체   | 81.0 | 14.5 | 4.5  | -1.15 | 1,047 |

다음으로 성별 인적특성별로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취업모도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남녀 모두 평균값이 동일하지만 남성이 찬성비율은 소폭 높고 반대비율은 낮아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는 장도가 소폭 높다. 이는 아내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자녀돌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구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성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30세미만의 찬성정도가 높고 여성은 50대, 30세미만, 40대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마련, 교육문제 때문에 남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경제활동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태를 반영하듯 젊은 층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찬성비율이 높아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자녀부양에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경험 혹은 자신의

여성자녀들이 가사를 전담하기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바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3-17〉 취업모도 비취업모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단위: %, 명)

| 구 분  |          | 남자   |      |      |       |      | 여자   |      |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 연령   | 18~29세   | 75.2 | 10.5 | 14.3 | -0.89 | 105  | 75.3 | 14.6 | 10.1 | -1.01 | 89   |
|      | 30대      | 77.8 | 17.3 | 4.9  | -0.93 | 81   | 67.4 | 21.7 | 10.9 | -0.77 | 92   |
|      | 40대      | 67.1 | 17.1 | 15.7 | -0.70 | 70   | 79.0 | 13.0 | 8.0  | -0.97 | 100  |
|      | 50대      | 74.4 | 14.0 | 11.6 | -0.83 | 86   | 79.1 | 12.1 | 8.8  | -1.05 | 91   |
|      | 60세 이상   | 60.3 | 19.8 | 19.8 | -0.65 | 131  | 57.2 | 15.4 | 27.4 | -0.48 | 201  |
|      | 소계       | 70.2 | 15.9 | 14.0 | -0.79 | 473  | 68.9 | 15.4 | 15.7 | -0.79 | 573  |
| 학력   | 고졸미만     | 61.5 | 19.8 | 18.7 | -0.70 | 91   | 52.9 | 18.8 | 28.2 | -0.41 | 170  |
|      | 고졸       | 67.6 | 16.7 | 15.7 | -0.72 | 108  | 73.6 | 15.7 | 10.7 | -0.90 | 140  |
|      | 대재, 중퇴   | 75.7 | 15.3 | 9.0  | -0.86 | 111  | 76.6 | 13.1 | 10.3 | -0.92 | 107  |
|      | 대졸이상     | 73.0 | 13.5 | 13.5 | -0.83 | 163  | 76.9 | 12.8 | 10.3 | -1.01 | 156  |
|      | 소계       | 70.2 | 15.9 | 14.0 | -0.79 | 473  | 68.9 | 15.4 | 15.7 | -0.79 | 573  |
| 가구소득 | 300미만    | 63.1 | 18.5 | 18.5 | -0.64 | 168  | 53.1 | 19.7 | 27.2 | -0.43 | 213  |
|      | 300~499만 | 69.2 | 18.3 | 12.5 | -0.78 | 120  | 78.6 | 9.5  | 11.9 | -0.90 | 126  |
|      | 500만이상   | 78.6 | 9.1  | 12.3 | -0.91 | 154  | 81.5 | 13.5 | 5.1  | -1.12 | 178  |
|      | 소계       | 70.1 | 15.2 | 14.7 | -0.77 | 442  | 69.1 | 15.1 | 15.9 | -0.78 | 517  |
| 부부경활 | 맞벌이      | 74.4 | 17.9 | 7.7  | -0.91 | 117  | 79.6 | 12.9 | 7.5  | -0.99 | 147  |
|      | 남자       | 62.4 | 20.8 | 16.8 | -0.66 | 101  | 73.5 | 15.4 | 11.1 | -0.89 | 117  |
|      | 여자       | 87.5 | 0.0  | 12.5 | -1.13 | 16   | 81.8 | 0.0  | 18.2 | -0.82 | 22   |
|      | 모두 비경활   | 61.7 | 17.0 | 21.3 | -0.55 | 47   | 60.4 | 16.7 | 22.9 | -0.63 | 48   |
|      | 소계       | 68.7 | 17.8 | 13.5 | -0.78 | 281  | 74.9 | 13.5 | 11.7 | -0.89 | 334  |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여성 고졸미만 만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는데 이들은 고연령층 저학력여성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찬성 응답비율이 높는데 특히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여성표본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찬성 응답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가구형태로 구분해보면 남성표본은 여성 홀벌이, 여성 표본은 맞벌이가구가 찬성 응답비율이 높았다. 남성표본에서 여성 홀벌이 가구는 여성이 실질적인 부양자라는 점, 여성 표본의 맞벌이 가구는 여성 취업이 가구경제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자

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활력 제고가 높은 찬성비율로 나타났을 것이다.

2번째 문항인 전일제 취업과 가사일간의 양립에 대해서는 여성의 찬성정도가 높는데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은 증가하고 반대는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여성은 30세를 기점으로 분절이 발생하고 있는데 남성은 관념적인 인식을 여성은 전일제 취업시 가사일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실질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학력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대졸이상자 집단은 고졸이나 대학재학 및 중퇴자 집단에 비해 찬성자 비중이 높는데 고학력자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정도가 높다는 점이 취업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18〉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이 상당히 어려워 진다

(단위: %, 명)

| 구 분   | 남자       |      |      |      |       | 여자  |      |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
| 연령    | 18~29세   | 25.7 | 29.5 | 44.8 | 0.34  | 105 | 32.6 | 23.6 | 43.8 | 0.21  | 89  |
|       | 30대      | 30.5 | 28.0 | 41.5 | 0.24  | 82  | 55.4 | 16.3 | 28.3 | -0.30 | 92  |
|       | 40대      | 45.7 | 22.9 | 31.4 | -0.16 | 70  | 50.0 | 19.0 | 31.0 | -0.24 | 100 |
|       | 50대      | 43.0 | 19.8 | 37.2 | -0.09 | 86  | 58.2 | 17.6 | 24.2 | -0.49 | 91  |
|       | 60세 이상   | 56.8 | 20.5 | 22.7 | -0.32 | 132 | 55.2 | 22.9 | 21.9 | -0.45 | 201 |
|       | 소계       | 41.3 | 24.0 | 34.7 | -0.01 | 475 | 51.3 | 20.4 | 28.3 | -0.29 | 573 |
| 학력    | 고졸미만     | 53.3 | 19.6 | 27.2 | -0.27 | 92  | 57.1 | 22.4 | 20.6 | -0.45 | 170 |
|       | 고졸       | 38.9 | 34.3 | 26.9 | -0.11 | 108 | 49.3 | 21.4 | 29.3 | -0.33 | 140 |
|       | 대재, 중퇴   | 27.0 | 27.9 | 45.0 | 0.29  | 111 | 43.9 | 19.6 | 36.4 | -0.07 | 107 |
|       | 대졸이상     | 45.7 | 17.1 | 37.2 | 0.00  | 164 | 51.9 | 17.9 | 30.1 | -0.25 | 156 |
|       | 소계       | 41.3 | 24.0 | 34.7 | -0.01 | 475 | 51.3 | 20.4 | 28.3 | -0.29 | 573 |
| 가구 소득 | 300미만    | 40.2 | 29.0 | 30.8 | -0.06 | 169 | 60.1 | 17.4 | 22.5 | -0.45 | 213 |
|       | 300~499만 | 43.8 | 19.8 | 36.4 | 0.03  | 121 | 42.9 | 23.0 | 34.1 | -0.13 | 126 |
|       | 500만이상   | 44.2 | 19.5 | 36.4 | -0.05 | 154 | 51.7 | 18.0 | 30.3 | -0.26 | 178 |
|       | 소계       | 42.6 | 23.2 | 34.2 | -0.03 | 444 | 53.0 | 19.0 | 28.0 | -0.31 | 517 |
| 부부경활  | 맞벌이      | 49.6 | 16.2 | 34.2 | -0.21 | 117 | 54.4 | 18.4 | 27.2 | -0.36 | 147 |
|       | 남자       | 42.2 | 30.4 | 27.5 | -0.09 | 102 | 47.4 | 22.4 | 30.2 | -0.25 | 116 |
|       | 여자       | 50.0 | 12.5 | 37.5 | -0.06 | 16  | 63.6 | 22.7 | 13.6 | -0.59 | 22  |
|       | 모두 비경활   | 63.8 | 17.0 | 19.1 | -0.36 | 47  | 54.2 | 27.1 | 18.8 | -0.54 | 48  |
|       | 소계       | 49.3 | 21.3 | 29.4 | -0.18 | 282 | 52.6 | 21.3 | 26.1 | -0.36 | 333 |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와 500만원이상 고소득가구에서 찬성의견이 높다. 저학력과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는데 이들은 그만큼 여성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형태로 보면 남성표본의 경우 비경활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찬성도가 높다. 비경활가구는 가구소득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이고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 반대로 여성표본은 여성 홀벌이가구와 비경활가구에서 긍정적 인식정도가 높다. 여성 홀벌이의 경우 자신이 아니면 가계를 꾸려가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이 비경활가구는 여성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찬성의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번째 문항인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긍정적 의견이 다소 높다. 인적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녀 모두 찬성의견은 동일하지만 여성이 반대와 중립 의견이 낮아 여성들이 가정주부로 자리매김 되는 것을 보다 기피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역 U자' 형 패턴을 보여주는데 특히 30~40대 연령집단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 이는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 출산 혹은 자녀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는데 남성들은 이것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성은 30~4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 경력단절에 따른 아쉬움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학력별로는 남성은 대졸이상자 집단에서 찬성의견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고졸미만 집단에서 가장 낮다. 남성 고학력집단은 맞벌이나 혹은 남성 홀벌이 가구비중이 높는데 이들은 50% 가까이가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여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긍정적 인식 정도가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여성 표본의 고졸미만 집단은 비경활가구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구소득 정도가 낮기 때문에 여성이 전업주부로 가정에 머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정도가 높다고 보여진다.

가구소득별로 구분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 가구소득이 높으면 여성이 가정주부로서 가사일에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구소득이 높더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찬성 정도가 낮는데 고소득 가구 일지라도 여성은 가정주부로 머물기보다는 밖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가구형태로는 남자 표본의 경우 남자 홀벌이 여성 표본은 비경활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찬성하는 정도가 낮다. 남자 홀벌이는 여성이 가정주부로 가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여성

표본에서 비경활가구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이라는 점이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 오는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3-19〉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단위: %, 명)

| 구 분  | 남자       |      |      |     |       | 여자  |      |      |      |       |     |
|------|----------|------|------|-----|-------|-----|------|------|------|-------|-----|
|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찬성  | 보통   | 반대   | 평균   | 사례 수  |     |
| 연령   | 18~29세   | 72.4 | 21.9 | 5.7 | -1.01 | 105 | 87.6 | 7.9  | 4.5  | -1.16 | 89  |
|      | 30대      | 84.1 | 14.6 | 1.2 | -1.17 | 82  | 76.1 | 18.5 | 5.4  | -1.05 | 92  |
|      | 40대      | 88.6 | 10.0 | 1.4 | -1.30 | 70  | 79.0 | 16.0 | 5.0  | -1.09 | 100 |
|      | 50대      | 82.6 | 15.1 | 2.3 | -1.14 | 86  | 82.2 | 7.8  | 10.0 | -1.10 | 90  |
|      | 60세 이상   | 80.9 | 14.5 | 4.6 | -1.20 | 131 | 80.7 | 15.3 | 4.0  | -1.22 | 202 |
|      | 전체       | 81.0 | 15.6 | 3.4 | -1.16 | 474 | 81.0 | 13.6 | 5.4  | -1.14 | 573 |
| 학력   | 고졸미만     | 78.0 | 16.5 | 5.5 | -1.16 | 91  | 78.9 | 17.0 | 4.1  | -1.20 | 171 |
|      | 고졸       | 75.9 | 21.3 | 2.8 | -1.11 | 108 | 80.6 | 13.7 | 5.8  | -1.11 | 139 |
|      | 대재, 중퇴   | 81.1 | 14.4 | 4.5 | -1.09 | 111 | 84.1 | 12.1 | 3.7  | -1.16 | 107 |
|      | 대졸이상     | 86.0 | 12.2 | 1.8 | -1.23 | 164 | 81.4 | 10.9 | 7.7  | -1.10 | 156 |
|      | 전체       | 81.0 | 15.6 | 3.4 | -1.16 | 474 | 81.0 | 13.6 | 5.4  | -1.14 | 573 |
| 가구소득 | 300미만    | 75.6 | 19.0 | 5.4 | -1.06 | 168 | 79.3 | 14.1 | 6.6  | -1.13 | 213 |
|      | 300~499만 | 78.5 | 18.2 | 3.3 | -1.07 | 121 | 78.4 | 16.8 | 4.8  | -1.10 | 125 |
|      | 500만이상   | 90.3 | 8.4  | 1.3 | -1.31 | 154 | 85.4 | 9.6  | 5.1  | -1.17 | 178 |
|      | 전체       | 81.5 | 15.1 | 3.4 | -1.15 | 443 | 81.2 | 13.2 | 5.6  | -1.14 | 516 |
| 부부경활 | 맞벌이      | 86.3 | 11.1 | 2.6 | -1.24 | 117 | 74.8 | 17.7 | 7.5  | -1.04 | 147 |
|      | 남자       | 84.3 | 13.7 | 2.0 | -1.21 | 102 | 90.6 | 6.8  | 2.6  | -1.32 | 117 |
|      | 여자       | 87.5 | 6.3  | 6.3 | -1.50 | 16  | 81.0 | 4.8  | 14.3 | -1.10 | 21  |
|      | 모두 비경활   | 87.0 | 10.9 | 2.2 | -1.30 | 46  | 70.8 | 25.0 | 4.2  | -1.04 | 48  |
|      | 전체       | 85.8 | 11.7 | 2.5 | -1.25 | 281 | 80.2 | 14.1 | 5.7  | -1.14 | 333 |

상기의 결과를 통해볼 때 문항별로 다소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동의정도가 소폭 높는데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사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자 여성이 돈도 벌여오고 가사일도 잘해주기를 바라는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여성들은 배우자의 자녀 돌봄이나 가사일 참여가 낮은 현실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 다루기 어렵다는 태도가 남성에 비해 중립적 혹은 반대 의견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결론

본 절은 KGSS 2006년 및 2016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 사회의 성차별인식수준 및 지난 10년간의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성 차별인식을 보여주는 3가지 유형의 항목(본인 및 배우자의 가사참여, 성역할 인식, 여성 취업에의 인식)을 성별로 구분해 살펴본 후 이어서 인적 특성별로 세분화해 연령, 학력수준, 소득, 취업상태 등에 따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가사참여는 성 평등의식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남성의 가사참여 불가피성을 반영하듯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사에 참여하는 정도는 극히 낮아 관념적 인식과 실제 행동간 간극이 컸다. 즉, 3개 항목을 이용해 가사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2006년 85.8%에서 2016년 79.9%로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가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적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이 취업상태에 있을수록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가사부담이 큰데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여성의 가사부담이 컸다. 가사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참여가 증가했지만 가사의 내용에 따라 남성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식사준비의 경우 여전히 여성의 분담정도가 높고 반대로 집안청소는 식사준비나 세탁에 비해 남성의 분담률이 높았다. 반대로 집안수리는 상시적 일이 아니며 성격상 남성의 참여가 불가피해 여성의 분담률이 낮고 장보기도 최근 유통구조 변화를 반영하듯 남성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가사참여는 일차적으로 가사일의 성적 적합성(sex-specific housework)이라는 영향을 받지만 맞벌이처럼 남성의 조력이 불가피한 경우 참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홀벌이인 경우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크게 높아 보유자원의 차이가 여성에게 가사일을 전담케 한다는 기존연구결과를 보여주며, 고연령층 비중이 높은 여성 홀벌이의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높아 전통적인 성차별인식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인식은 분야별로 인식차기 컸다. 불경기에는 우선적으로 여성을 해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녀 모두 동의정도가 낮았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성평등적 인식

정도가 높았는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남성 부양자모델이 흔들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불가피해지자 노동시장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남편의 성공을 지원하거나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를 꾸리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정도가 15%p가량 감소해 성차별인식이 비교적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는 대학교육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사회의 성차별인식은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전일제 취업이 미취학자녀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녀 모두 동의정도가 높아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차별인식 정도가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충분치 않고 자녀 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조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양육과 취업간 충돌을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동의정도가 높는데 현실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여성들이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남성의 경우 가사와 자녀를 동시에 잘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관념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녀 간 인식차이는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취업하더라도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지에 대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동의 정도가 낮았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자 여성이 돈도 벌어들이고 가사일도 잘해주기를 바라는 양가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들은 배우자의 가사나 자녀 돌봄에의 참여정도가 낮은 현실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 제 4 장

## 가족 간 행위와 만족도

제1절 서론

제2절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생활의 공유

제3절 건강 상태

제4절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제5절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 4

## 가족 간 행위와 만족도 <<

###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족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 중에서 가족 간의 저녁식사 빈도, 여가생활의 공유 정도와 함께 건강상태 그리고 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는 저녁식사 빈도, 가족과 여가생활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부부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부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1.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생활의 공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하루의 생활 중에서 가족과의 교류보다는 불특정 다수와의 교류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밖의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간의 대면시간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간 교류의 감소가 물리적·심리적 소외를 경험하는 비율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지영숙, 이태진, 2001). 따라서 가족 간에 저녁식사를 함께 하거나 여가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원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고 생활만족도 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가족과의 식사는 다양한 보호 기능 및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식사가 청소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즉, 가족과의 식사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 가족과의 유대감을 높이며, 자기 통제 및 정서적 안녕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기술행위를 증진시키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긍정적 자기개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식사를 자주 하는 것은 전반적 가족 기능에 긍정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식사 빈도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섭식문제, 물질남용, 우울, 자살, 반사회적 행동 및 폭력 등의 횡수가 줄어드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가 하면,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경미 외, 2012).

가족여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나 주로 가족여가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 중심으로 정의하거나 기능중심으로 정의한다. 전자의 경우 핵가족 및 그와 동거하는 부모, 형제 중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면, 가정의 기능 중심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가족원의 결합력을 발달시키는 통합적 기능,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을 위한 능력개발·창조적 기능, 교육적 기능, 심리적 안정성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지영숙, 이태진, 2001 재인용). 이러한 가족여가는 가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가정의 안정성과 가족원의 결합력을 발달시키고,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경이 되며,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장이 되는 등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가족원에게 근본적인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윤소영, 2009 재인용).

## 2. 건강 인식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빈곤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인식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내용이라 하겠다.

특히,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 중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건강격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교육은 학력주의를 통한 구조적 이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또는 통제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건강에 이득을 주는 핵심적 요인으로 평가받는다(김진영, 2007 재인용). 소득 역시 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연령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누적적 이득 가설이 가장 힘을 얻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건강과 연관되는 자원이나 위험요인의 누적적 차이를 가져오며, 이러한 자원 혹은 위험요인에서의 증대되는 격차가 건강의 격차

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김진영, 2007 재인용).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다. 행복한 삶에 대한 만족정도는 생활만족도란 개념 외에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생활만족도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결혼만족도 역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우선 협의적 정의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 국한하여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 부부라는 이차적 관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선호로 정의할 수 있다(조혜선, 2003). 반면, 광의적 정의에서는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 전반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및 친족,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혼생활의 모든 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 등의 주관적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현숙, 2001). 그러나 협의적 정의나 광의적 정의 모두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해 본인이 가진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공통된다.

이러한 생활만족도나 결혼만족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요인들이 매개 또는 조절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요인을 단편적으로 정의내리기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저녁식사 빈도, 가족과 여가생활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그리고 부부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 제2절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생활의 공유

### 1. 가족과의 저녁식사

생활만족도에 있어 성,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함께 개인의 취업여부나 맞벌이 여부 등과 같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 식사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것이 10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4-1>은 성별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거의 매일’ 가족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으며, 남녀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0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2.9%p, 3.2%p 더 높아졌으나, 유의미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4-1> 성별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2006 남성 | 46.8  | 28.1    | 15.9    | 6.5      | 1.8      | 0.7      | 0.2         | 602   |
| 2006 여성 | 46.4  | 29.9    | 16.1    | 4.6      | 1.3      | 0.7      | 1.0         | 763   |
| 2016 남성 | 49.7  | 29.4    | 11.6    | 7.0      | 1.3      | .5       | 0.5         | 388   |
| 2016 여성 | 49.6  | 30.0    | 11.6    | 5.1      | 3.6      | 0.0      | 0.2         | 474   |

다음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2006년과 2016년 모두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거의 매일’ 식사하는 비율과 ‘일주일에 몇 번’ 식사하는 비율이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거의 매일’ 가족과 식사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일주일에 몇 번’ 식사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가족과 저녁식사를 할 가능성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표 4-2〉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2006 | 100만원 미만 | 81.0    | 8.6     | 7.6      | 1.0      | 1.0      | 1.0         | 105   |
|      | 100-199  | 55.8    | 23.4    | 10.8     | 6.1      | 2.2      | 0.9         | 231   |
|      | 200-299  | 48.1    | 27.3    | 16.0     | 6.1      | 1.7      | 0.3         | 293   |
|      | 300-399  | 41.2    | 32.9    | 17.7     | 4.9      | 2.1      | 0.8         | 243   |
|      | 400-499  | 40.1    | 34.7    | 19.2     | 4.2      | .6       | 1.2         | 167   |
|      | 500만원 이상 | 35.3    | 36.4    | 18.7     | 6.7      | 1.4      | 0.4         | 283   |
| 2016 | 100만원 미만 | 63.6    | 11.7    | 6.5      | 5.2      | 11.7     | 1.3         | 77    |
|      | 100-199  | 70.6    | 14.1    | 8.2      | 2.4      | 1.2      | 1.2         | 85    |
|      | 200-299  | 54.3    | 23.9    | 10.9     | 9.8      | 1.1      | 0.0         | 92    |
|      | 300-399  | 56.7    | 25.8    | 14.2     | 1.7      | 1.7      | 0.0         | 120   |
|      | 400-499  | 50.0    | 33.3    | 8.8      | 5.9      | 2.0      | 0.0         | 102   |
|      | 500만원 이상 | 36.6    | 40.5    | 14.2     | 6.8      | 1.6      | 0.0         | 309   |

〈표 4-3〉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2006년과 2016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과 저녁을 ‘거의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4세 미만의 청년층과 35-49세의 중년층은 가족과 ‘거의 매일’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34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2006년에는 34.8%, 2016년에는 38.6%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비교했을 때 2006년에는 40.7%p, 2016년에는 29.7%p의 차이를 보인다. 다만, 2016년에 청년층들이 가족과 ‘거의 매일’ 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고령층이 다소 감소하여 고령층과의 격차는 2006년과 대비하여 감소하였다.

〈표 4-3〉 연령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2006 | 18-34  | 34.8    | 36.6    | 18.0     | 7.3      | 1.8      | 0.8         | 399   |
|      | 35-49  | 44.7    | 31.9    | 16.6     | 4.5      | 1.0      | 0.7         | 595   |
|      | 50-64  | 53.9    | 19.7    | 16.2     | 5.7      | 2.2      | 0.9         | 228   |
|      | 65세 이상 | 75.5    | 11.2    | 7.7      | 3.5      | 2.1      | 0.0         | 143   |
| 2016 | 18-34  | 38.6    | 37.3    | 12.7     | 8.2      | 3.2      | 0.0         | 220   |
|      | 35-49  | 43.2    | 38.7    | 11.9     | 4.9      | 0.0      | 0.4         | 243   |
|      | 50-64  | 52.3    | 26.9    | 12.5     | 5.6      | 1.9      | 0.5         | 216   |
|      | 65세 이상 | 68.3    | 12.0    | 8.7      | 4.9      | 6.0      | 0.0         | 183   |

〈표 4-4〉는 학력에 따라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 분포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력이 증가할수록 가족과 ‘거의 매일’ 식사한다는 비율은 감소는 반면, ‘일주일에 몇 번’ 함께 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도별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표 4-4〉 교육수준에 따른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2006 | 고졸 미만   | 58.8    | 18.6    | 14.3     | 4.3      | 1.8      | 1.1         | 279   |
|      | 고졸      | 51.9    | 24.4    | 16.2     | 4.6      | 1.2      | 1.0         | 414   |
|      | 대학 재학   | 36.4    | 37.4    | 15.3     | 8.2      | 2.0      | 0.3         | 294   |
|      | 대학졸업 이상 | 39.7    | 35.5    | 17.6     | 5.1      | 1.3      | 0.3         | 375   |
| 2016 | 고졸 미만   | 74.7    | 10.8    | 4.8      | 5.4      | 4.3      | 0.0         | 186   |
|      | 고졸      | 49.8    | 31.6    | 9.3      | 4.7      | 3.3      | 0.5         | 215   |
|      | 대학 재학   | 43.2    | 35.5    | 13.1     | 6.0      | 1.6      | 0.5         | 183   |
|      | 대학졸업 이상 | 37.1    | 37.1    | 16.9     | 7.2      | 1.4      | 0.0         | 278   |

아래의 <표 4-5>는 지역에 따라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2006년과 2016년 모두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경우 ‘거의 매일’ 식사한다는 비율이 월등이 더 높았는데, 그 격차가 2006년에는 25.5%였으며, 2016년에는 35.7%p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도농 간의 차이가 약 10%p 증가하였다. 즉, 대도시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거의 매일’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농어촌의 경우 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도농 간의 격차가 증가하였다.

<표 4-5> 지역에 따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2006 | 대도시   | 40.1    | 33.1    | 17.1     | 6.3      | 1.4      | 0.9         | 444   |
|      | 중소도시  | 46.6    | 29.0    | 16.9     | 5.2      | 1.7      | 0.5         | 769   |
|      | 농어촌   | 65.6    | 17.9    | 8.6      | 4.0      | 1.3      | 0.7         | 151   |
| 2016 | 대도시   | 38.9    | 38.0    | 15.8     | 3.6      | 2.7      | 0.0         | 221   |
|      | 중소도시  | 47.0    | 32.3    | 11.1     | 7.3      | 2.0      | 0.2         | 496   |
|      | 농어촌   | 74.6    | 8.5     | 7.0      | 4.9      | 4.2      | 0.7         | 142   |

## 2.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의 빈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아래의 <표 4-6>은 성별에 따른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의 빈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족과 ‘한달에 한 번’ 정도 여가생활을 공유한다는 비율이 남녀 가장 높았다. 또한, ‘한달에 한 번’ 정도라는 비율은 2006년에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해당 층의 남성 비율이 소폭 상승하여 남녀 간에 3.2%p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녀 간에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표 4-6〉 성별에 따른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 2006 | 남성    | 5.2     | 11.0    | 23.2     | 25.6     | 20.4     | 4.5         | 10.0  | 598 |
|      | 여성    | 3.9     | 11.9    | 24.6     | 25.5     | 17.8     | 4.8         | 11.4  | 764 |
| 2016 | 남성    | 5.9     | 12.4    | 17.8     | 29.4     | 21.9     | 5.2         | 7.5   | 388 |
|      | 여성    | 6.8     | 13.9    | 20.0     | 26.2     | 18.6     | 4.9         | 9.7   | 474 |

〈표 4-7〉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평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가의 빈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인지, 그리고 2006년과 대비하여 2016년에 그 차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일주일에 한 번’ 여가를 함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16년에는 4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다는 ‘한달에 한 번’ 정도 가족과 여가를 즐기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변화(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 2006 | 100만원 미만 | 10.6    | 6.7     | 8.7      | 10.6     | 18.3     | 3.8         | 41.3  | 104 |
|      | 100-199  | 5.6     | 6.5     | 18.2     | 28.6     | 23.4     | 3.5         | 14.3  | 231 |
|      | 200-299  | 3.1     | 13.0    | 25.7     | 25.7     | 18.5     | 6.2         | 7.9   | 292 |
|      | 300-399  | 4.5     | 14.5    | 24.4     | 25.2     | 17.8     | 4.5         | 9.1   | 242 |
|      | 400-499  | 5.4     | 13.8    | 26.9     | 28.1     | 18.0     | 4.2         | 3.6   | 167 |
|      | 500만원 이상 | 2.5     | 13.1    | 31.4     | 26.5     | 19.1     | 3.9         | 3.5   | 283 |
| 2016 | 100만원 미만 | 16.9    | 6.5     | 5.2      | 13.0     | 18.2     | 3.9         | 36.4  | 77  |
|      | 100-199  | 8.2     | 12.9    | 7.1      | 24.7     | 16.5     | 15.3        | 15.3  | 85  |
|      | 200-299  | 3.3     | 18.5    | 17.4     | 31.5     | 19.6     | 3.3         | 6.5   | 92  |
|      | 300-399  | 6.7     | 13.3    | 29.2     | 26.7     | 19.2     | 0.8         | 4.2   | 120 |
|      | 400-499  | 3.9     | 15.7    | 17.6     | 35.3     | 19.6     | 3.9         | 3.9   | 102 |
|      | 500만원 이상 | 4.5     | 13.3    | 23.0     | 30.7     | 21.7     | 4.2         | 2.6   | 309 |

앞서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있어 연령에 따른 큰 차이를 보았는데, 가족과의 여가빈도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표 4-8 참조).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34세 미만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그 격차가 2006년 13.3%p, 2016년에는 13.9%p로 약 13%p의 차이를 보인다.

〈표 4-8〉 연령에 따른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격차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 2006 | 18-34  | 3.8     | 11.3    | 24.6     | 28.6     | 19.6     | 5.3         | 6.8   | 398 |
|      | 35-49  | 3.0     | 14.1    | 28.8     | 27.1     | 18.0     | 3.2         | 5.7   | 594 |
|      | 50-64  | 6.1     | 6.1     | 18.4     | 24.1     | 20.6     | 7.5         | 17.1  | 228 |
|      | 65세 이상 | 9.9     | 9.9     | 11.3     | 12.7     | 18.3     | 4.9         | 33.1  | 142 |
| 2016 | 18-34  | 2.7     | 15.9    | 23.2     | 25.9     | 23.2     | 5.5         | 3.6   | 220 |
|      | 35-49  | 4.5     | 15.6    | 26.3     | 29.6     | 17.7     | 4.1         | 2.1   | 243 |
|      | 50-64  | 6.5     | 10.6    | 14.8     | 37.5     | 19.4     | 3.2         | 7.9   | 216 |
|      | 65세 이상 | 13.1    | 9.8     | 9.3      | 15.3     | 20.2     | 7.7         | 24.6  | 183 |

다음으로 〈표 4-9〉는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과의 여가빈도에 있어서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모든 학력수준에서 가족과 여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갖는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 또는 ‘일년에 한 번 미만’ 처럼 그 빈도가 양극단으로 갈수록 해당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여가를 즐기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여가를 즐기는 경우에 있어 2006년에 고졸미만의 경우 11.9%인데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32.1%로 20.2%p의 격차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15.1%p의 차이를 보인다.

〈표 4-9〉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 2006 | 고졸 미만   | 6.5     | 6.5     | 11.9     | 18.7     | 19.1     | 7.2         | 30.2  | 278 |
|      | 고졸      | 3.4     | 9.7     | 27.3     | 31.4     | 16.2     | 3.9         | 8.2   | 414 |
|      | 대학 재학   | 5.5     | 10.9    | 20.8     | 27.3     | 24.9     | 5.5         | 5.1   | 293 |
|      | 대학졸업 이상 | 3.5     | 17.9    | 32.1     | 23.0     | 16.8     | 3.2         | 3.5   | 374 |
| 2016 | 고졸 미만   | 9.1     | 9.1     | 10.8     | 20.4     | 20.4     | 7.5         | 22.6  | 186 |
|      | 고졸      | 6.0     | 12.1    | 18.1     | 29.3     | 19.1     | 6.5         | 8.8   | 215 |
|      | 대학 재학   | 3.8     | 14.8    | 18.0     | 35.5     | 21.9     | 2.7         | 3.3   | 183 |
|      | 대학졸업 이상 | 6.5     | 15.8    | 25.9     | 25.9     | 19.4     | 3.6         | 2.9   | 278 |

마지막으로 〈표 4-10〉은 여가 빈도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처럼 도시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과 여가를 즐긴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일 년에 몇 번’ 정도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4-10〉 지역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빈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 2006 | 대도시   | 4.5     | 14.2    | 24.1     | 24.3     | 21.2     | 4.1         | 7.7   | 444 |
|      | 중소도시  | 5.1     | 11.1    | 25.6     | 28.6     | 16.0     | 4.8         | 8.9   | 767 |
|      | 농어촌   | 1.3     | 6.0     | 16.0     | 14.0     | 27.3     | 6.0         | 29.3  | 150 |
| 2016 | 대도시   | 6.3     | 15.4    | 21.7     | 24.9     | 17.6     | 4.1         | 10.0  | 221 |
|      | 중소도시  | 6.0     | 14.5    | 19.8     | 30.0     | 18.5     | 4.8         | 6.3   | 496 |
|      | 농어촌   | 7.7     | 5.6     | 12.0     | 23.9     | 28.9     | 7.0         | 14.8  | 142 |

### 제3절 건강상태

본 절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인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본인 및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

먼저, <표 4-11>은 성별에 따라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2006년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에 있어 남녀 간의 격차는 15.7%p이고, 2016년에는 14.1%p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여성들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남녀 간 인식에 있어서 연도별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표 4-11> 성별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성별 | 남성   | 63.6 | 23.0 | 13.4  | 714  | 63.4 | 19.3 | 17.2  | 476 |
|    | 여성   | 47.9 | 29.3 | 22.8  | 891  | 49.3 | 24.8 | 25.9  | 576 |

다음으로 <표 4-12>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격차를 살펴본 것이다. 2006년과 2016년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저소득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2〉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월평균<br>가구<br>소득 | 100만원<br>미만 | 26.0 | 25.5 | 48.5  | 196  | 22.4 | 19.7 | 57.9  | 152 |
|                 | 100-199     | 51.3 | 26.0 | 22.7  | 269  | 47.6 | 20.0 | 32.4  | 105 |
|                 | 200-299     | 55.8 | 30.3 | 13.9  | 330  | 57.5 | 27.6 | 15.0  | 127 |
|                 | 300-399     | 59.8 | 27.7 | 12.5  | 271  | 57.0 | 28.9 | 14.1  | 135 |
|                 | 400-499     | 64.8 | 26.4 | 8.8   | 182  | 67.0 | 23.2 | 9.8   | 112 |
|                 | 500만원<br>이상 | 66.7 | 22.9 | 10.5  | 306  | 69.9 | 19.9 | 10.2  | 332 |

그리고 연령에 따라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2006년의 경우 34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6.5%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비해 38.6%p 더 높았으며, 2016년에는 그 차이가 42.3%이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2006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4-13〉 연령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연령 | 18-34  | 66.5 | 25.3 | 8.2   | 501  | 72.4 | 18.2 | 9.5   | 275 |
|    | 35-49  | 59.1 | 27.6 | 13.4  | 635  | 64.3 | 21.7 | 14.1  | 263 |
|    | 50-64  | 43.7 | 31.0 | 25.4  | 268  | 54.9 | 28.2 | 16.9  | 255 |
|    | 65세 이상 | 27.9 | 19.9 | 52.2  | 201  | 30.1 | 21.6 | 48.3  | 259 |

〈표 4-14〉는 학력에 따라 본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는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졸미만의 경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학력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며, 대졸이상자와는 그 격차가 2006년에 31.4%p였던 것이 2016년에는 40.8%p까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표 4-14〉 학력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고졸 미만   | 29.7 | 28.3 | 41.9 | 353   | 27.4 | 22.9 | 49.6 | 266   |
| 고졸      | 53.1 | 31.2 | 15.6 | 461   | 50.0 | 29.0 | 21.0 | 248   |
| 대학 재학   | 66.9 | 24.8 | 8.4  | 359   | 71.1 | 20.2 | 8.7  | 218   |
| 대학졸업 이상 | 68.1 | 21.3 | 10.5 | 427   | 73.1 | 18.1 | 8.8  | 320   |

마지막으로 〈표 4-15〉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본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앞서 연령에 따른 건강인식의 격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는 최근 농어촌이 고령화됨에 따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4-15〉 지역에 따른 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대도시 | 63.6 | 22.8 | 13.6 | 514   | 64.9 | 17.0 | 18.1 | 282   |     |
| 지역  | 중소도시 | 53.4 | 28.9 | 17.7  | 903  | 56.0 | 25.7 | 18.3  | 579 |
| 농어촌 | 38.0 | 25.1 | 36.9 | 187   | 42.0 | 19.1 | 38.8 | 188   |     |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4-16>은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건강상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배우자에 비해 남성배우자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6년에 비해 2016년 배우자의 건강이 좋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4-16>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성별 | 남성   | 58.7 | 26.8 | 14.5  | 470  | 55.2 | 23.8 | 21.0  | 281 |
|    | 여성   | 52.5 | 29.2 | 18.3  | 585  | 51.6 | 28.4 | 20.0  | 335 |

다음으로 <표 4-17>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격차를 살펴본 것이다. 이 역시 본인에 대한 건강상태 인식과 마찬가지로 2006년과 2016년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저소득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7>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월평균가<br>구소득 | 100만원 미만 | 28.6 | 27.4 | 44.0  | 84   | 22.2 | 22.2 | 55.6  | 54  |
|             | 100-199  | 43.9 | 31.8 | 24.3  | 173  | 36.8 | 17.6 | 45.6  | 68  |
|             | 200-299  | 56.1 | 28.0 | 15.9  | 239  | 43.9 | 36.8 | 19.3  | 57  |
|             | 300-399  | 58.3 | 27.6 | 14.1  | 192  | 55.4 | 31.5 | 13.0  | 92  |
|             | 400-499  | 66.4 | 24.4 | 9.2   | 131  | 56.3 | 27.5 | 16.3  | 80  |
|             | 500만원 이상 | 64.4 | 28.4 | 7.2   | 222  | 65.7 | 25.2 | 9.1   | 230 |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역시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층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4-18> 배우자의 연령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연령 | 18-34  | 64.3 | 28.7 | 7.0   | 157  | 76.8 | 12.5 | 10.7  | 56  |
|    | 35-49  | 59.9 | 28.8 | 11.3  | 566  | 62.4 | 30.5 | 7.1   | 210 |
|    | 50-64  | 46.1 | 31.1 | 22.8  | 219  | 54.6 | 29.8 | 15.6  | 205 |
|    | 65세 이상 | 37.2 | 18.6 | 44.2  | 113  | 29.0 | 20.7 | 50.3  | 145 |

<표 4-19>는 배우자의 학력에 따라 건강상태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는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4-19> 배우자의 학력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학력 | 고졸 미만   | 36.7 | 29.3 | 34.1  | 229  | 33.8 | 27.7 | 38.5  | 148 |
|    | 고졸      | 56.1 | 29.1 | 14.8  | 378  | 45.6 | 30.0 | 24.4  | 180 |
|    | 대학 재학   | 63.9 | 26.9 | 9.2   | 119  | 63.7 | 26.4 | 9.9   | 91  |
|    | 대학졸업 이상 | 64.1 | 26.7 | 9.1   | 329  | 70.1 | 21.8 | 8.1   | 197 |

그리고 <표 4-20>은 배우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상태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20> 배우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지역 대도시 | 59.9 | 25.4 | 14.7 | 327   | 60.1 | 25.2 | 14.7 | 143   |
| 중소도시   | 55.0 | 30.5 | 14.5 | 607   | 54.5 | 28.7 | 16.8 | 363   |
| 농어촌    | 44.2 | 23.3 | 32.5 | 120   | 40.2 | 18.7 | 41.1 | 107   |

##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주관적 건강

다음으로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인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의 분석과는 달리 월평균가구소득과 연령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4-21>은 응답자의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응답자 부친의 주관적 건강인식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인데, 2006년과 2016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2006년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인식에 있어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선형적인 격차를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부모의 건강 역시 좋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2016년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U자형의 패턴을 보인다. 즉, 저소득층에서 본인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300만원 이상 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표 4-21〉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응답자 부모의 주관적 건강인식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부친 | 100만원 미만 | 20.7 | 48.3 | 31.0  | 29   | 46.7 | 26.7 | 26.7  | 15  |
|    | 100-199  | 34.3 | 28.4 | 37.3  | 102  | 39.1 | 30.4 | 30.4  | 23  |
|    | 200-299  | 34.1 | 31.8 | 34.1  | 170  | 28.1 | 49.1 | 22.8  | 57  |
|    | 300-399  | 40.8 | 27.6 | 31.6  | 152  | 28.6 | 50.8 | 20.6  | 63  |
|    | 400-499  | 45.8 | 25.4 | 28.8  | 118  | 40.0 | 28.3 | 31.7  | 60  |
|    | 500만원 이상 | 38.6 | 30.4 | 31.0  | 184  | 43.6 | 30.3 | 26.2  | 195 |
| 모친 | 100만원 미만 | 7.8  | 39.2 | 52.9  | 51   | 40.0 | 25.0 | 35.0  | 20  |
|    | 100-199  | 23.2 | 31.8 | 45.0  | 151  | 17.1 | 37.1 | 45.7  | 35  |
|    | 200-299  | 24.5 | 32.8 | 42.7  | 253  | 16.7 | 42.3 | 41.0  | 78  |
|    | 300-399  | 31.9 | 29.5 | 38.6  | 207  | 25.0 | 45.5 | 29.5  | 88  |
|    | 400-499  | 28.0 | 30.7 | 41.3  | 150  | 32.9 | 18.8 | 48.2  | 85  |
|    | 500만원 이상 | 30.7 | 30.3 | 39.0  | 241  | 30.6 | 32.2 | 37.3  | 255 |

다음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본인 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으로 아래의 〈표 4-22〉와 같다. 이 역시 본인의 건강상태 인식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비율이 증가한다. 다만, 본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생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례가 매우 제한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22〉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응답자 부모의 주관적 건강 인식 차이와 변화(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부친 | 18-34  | 39.6 | 35.4 | 25.0  | 432  | 44.5 | 36.7 | 18.8  | 256 |
|    | 35-49  | 34.8 | 24.0 | 41.2  | 313  | 30.3 | 34.9 | 34.9  | 152 |
|    | 50-64  | 36.7 | 33.3 | 30.0  | 30   | 28.0 | 36.0 | 36.0  | 50  |
|    | 65세 이상 | 0.0  | 0.0  | 100.0 | 1    | 0.0  | 0.0  | 100.0 | 2   |
| 모친 | 18-34  | 33.2 | 36.3 | 30.5  | 485  | 38.0 | 38.8 | 23.2  | 263 |
|    | 35-49  | 22.3 | 27.5 | 50.2  | 498  | 22.0 | 33.0 | 45.0  | 218 |
|    | 50-64  | 20.0 | 33.3 | 46.7  | 90   | 18.4 | 24.8 | 56.8  | 125 |
|    | 65세 이상 | 0.0  | 28.6 | 71.4  | 7    | 12.5 | 12.5 | 75.0  | 8   |

마지막으로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는 응답자의 월평균가구소득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고자 한다(표 4-23 참조). 본인 부모의 건강상태 인식과 마찬가지로 2006년과 2016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2006년의 경우에는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 부모의 건강이 좋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2016년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U자형의 패턴을 보인다.

〈표 4-23〉 배우자의 부친의 주관적 건강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부친 | 100만원 미만 | 33.3 | 0.0  | 66.7  | 3    | 0.0  | 0.0  | 100.0 | 1   |
|    | 100-199  | 35.3 | 23.5 | 41.2  | 51   | 37.5 | 25.0 | 37.5  | 8   |
|    | 200-299  | 36.1 | 29.9 | 34.0  | 97   | 38.1 | 47.6 | 14.3  | 21  |
|    | 300-399  | 37.8 | 22.2 | 40.0  | 90   | 30.8 | 38.5 | 30.8  | 39  |
|    | 400-499  | 43.1 | 34.5 | 22.4  | 58   | 37.5 | 25.0 | 37.5  | 32  |
|    | 500만원 이상 | 34.4 | 31.3 | 34.4  | 96   | 42.0 | 25.0 | 33.0  | 88  |
| 모친 | 100만원 미만 | 11.1 | 5.6  | 83.3  | 18   | 28.6 | 0.0  | 71.4  | 7   |
|    | 100-199  | 27.3 | 23.2 | 49.5  | 99   | 22.2 | 22.2 | 55.6  | 18  |
|    | 200-299  | 24.5 | 31.3 | 44.2  | 163  | 22.6 | 38.7 | 38.7  | 31  |
|    | 300-399  | 27.9 | 32.4 | 39.7  | 136  | 20.4 | 36.7 | 42.9  | 49  |
|    | 400-499  | 27.5 | 30.4 | 42.2  | 102  | 24.5 | 24.5 | 51.0  | 49  |
|    | 500만원 이상 | 36.8 | 24.7 | 38.5  | 174  | 29.0 | 31.0 | 40.0  | 145 |

## 제4절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

###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생활만족도가 2006년과 2016년 간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생활만족도의 남성과 여성 간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이라는 태도를 보인 비율은 2006년 38%에서 2016년 45.9%로 7.9%p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인 인식은 22.6%(2006년)에서 13.3%(2016년)로 9.3%p 감소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4-24>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성별 | 남성   | 38.0 | 39.4 | 22.6  | 713  | 45.9 | 40.8 | 13.3  | 473 |
|    | 여성   | 38.4 | 41.0 | 20.6  | 890  | 47.4 | 39.4 | 13.2  | 574 |

다음의 <표 4-25>는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나, 연도별로 소득계층에 따른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06년과 2016년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사람들 간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은 2006년 24.4%p, 2016년 31.3%p의 격차를 보인다.

〈표 4-25〉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월<br>평<br>균<br>가<br>구<br>소<br>득 | 100만원 미만 | 28.9 | 34.0 | 37.1  | 194  | 30.3 | 38.2 | 31.6  | 152 |
|                                 | 100-199  | 25.3 | 45.4 | 29.4  | 269  | 43.7 | 43.7 | 12.6  | 103 |
|                                 | 200-299  | 33.6 | 48.8 | 17.6  | 330  | 40.9 | 46.5 | 12.6  | 127 |
|                                 | 300-399  | 42.1 | 36.9 | 21.0  | 271  | 42.5 | 48.5 | 9.0   | 134 |
|                                 | 400-499  | 48.4 | 39.6 | 12.1  | 182  | 42.9 | 41.1 | 16.1  | 112 |
| 500만원 이상                        | 53.3     | 33.3 | 13.4 | 306   | 62.2 | 31.4 | 6.3  | 331   |     |

또한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2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2006년과 2016년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34세 이하 청년층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생활만족도의 '긍정적' 인식은 2006년 15.8%, 2016년은 15.4%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고령자들의 생활만족도의 저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령자들은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약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녀와의 정서적·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건강의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장명숙, 박경숙, 2012).

〈표 4-26〉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연령 | 18-34  | 46.5 | 34.1 | 19.4  | 501  | 53.3 | 34.7 | 12.0  | 274 |
|    | 35-49  | 37.5 | 43.5 | 19.1  | 635  | 52.9 | 37.3 | 9.9   | 263 |
|    | 50-64  | 30.2 | 45.1 | 24.6  | 268  | 42.1 | 46.5 | 11.4  | 254 |
|    | 65세 이상 | 30.7 | 39.2 | 30.2  | 199  | 37.9 | 42.2 | 19.9  | 256 |

다음으로 <표 4-27>는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더 뚜렷하다. 즉, 고졸미만인 사람들과 대학졸업 이상의 사람들 간의 생활만족도의 격차는 2006년에는 약 22%p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25%p의 차이를 보인다. 앞서 <표 4-2>에서 소득에 따른 차이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갖고 있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7> 학력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학력 | 고졸 미만   | 27.4 | 43.6 | 29.1  | 351  | 36.4 | 43.6 | 20.1  | 264 |
|    | 고졸      | 31.0 | 46.6 | 22.3  | 461  | 34.0 | 53.8 | 12.1  | 247 |
|    | 대학 재학   | 44.8 | 35.9 | 19.2  | 359  | 52.1 | 33.2 | 14.7  | 217 |
|    | 대학졸업 이상 | 49.4 | 34.7 | 15.9  | 427  | 61.4 | 31.0 | 7.5   | 319 |

그리고 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06년과 2016년 모두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생활만족도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28> 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지역 | 대도시  | 41.5 | 38.4 | 20.1  | 513  | 54.1 | 34.2 | 11.7  | 281 |
|    | 중소도시 | 38.6 | 41.9 | 19.5  | 903  | 45.3 | 43.8 | 10.9  | 576 |
|    | 농어촌  | 26.9 | 38.2 | 34.9  | 186  | 39.0 | 38.0 | 23.0  | 187 |

다음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앞서 살펴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 가족과의 여가생활, 그리고 부부의 건강상태 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4-29>은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것으로 가족들과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이상이라도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다. 특히, 2016년의 경우 가족과 저녁식사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비율이 2006년에 비해 8.9%p 더 높다.

<표 4-29>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저녁 식사 | 일주일<br>몇 번 미만 | 31.9 | 43.8 | 24.3  | 571   | 39.2 | 40.3 | 20.4  | 367 |
|       | 일주일<br>몇 번 이상 | 41.8 | 38.8 | 19.9  | 1,032 | 50.7 | 39.9 | 9.4   | 680 |

다음으로 <표 4-30>은 가족과의 여가 빈도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족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비율이 다소 높지만 아직까지 가족과의 여가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여가 빈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 달에 한번 이상'으로 여가를 함께 하는 경우 생활만족도의 부정적인 인식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0> 가족여가 빈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가족 여가 | 한 달에<br>한번 미만 | 37.5 | 39.7 | 22.8  | 1,194 | 46.6 | 39.5 | 13.9  | 755 |
|       | 한 달에<br>한번 이상 | 40.3 | 42.1 | 17.6  | 409   | 46.9 | 41.4 | 11.6  | 292 |

마지막으로 <표 4-31>은 부부의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 모두가 건강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부 모두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 모두가 건강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할 비율은 2006년에 26.2%p, 2016년에는 37.9%p의 차이를 보이며, 2006년과 2016년의 격차 역시 증가하여 약 12%p를 보여 부부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1> 부부의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부부 건강       | 51.8 | 37.4 | 10.9 | 479   | 65.4 | 31.3 | 3.3  | 272   |
| 부부 건강 상태    |      |      |      |       |      |      |      |       |
| 본인만 건강      | 42.8 | 36.8 | 20.4 | 402   | 57.1 | 33.0 | 9.9  | 312   |
| 배우자만 건강     | 33.7 | 51.9 | 14.4 | 104   | 38.2 | 49.1 | 12.7 | 55    |
| 부부 모두 건강 안함 | 25.6 | 42.9 | 31.6 | 618   | 27.5 | 50.0 | 22.6 | 408   |

## 2. 결혼만족도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및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4-32>은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2>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69.3 | 24.3 | 6.4  | 469   | 72.2 | 23.5 | 4.3  | 281   |
| 여성 | 50.2 | 38.7 | 11.1 | 584   | 53.7 | 34.3 | 11.9 | 335   |

다음의 <표 4-33>은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10년의 시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16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서구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중년기의 경우 자녀양육 요구와 관련하여 만족도가 낮다가 노년기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고 직장에서의 경쟁 등이 줄어들어 다시금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Story et al., 200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령과 결혼만족도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은희, 2002).

<표 4-33> 결혼만족도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연령 | 18-34  | 77.7 | 19.7 | 2.5   | 157  | 76.8 | 21.4 | 1.8   | 56  |
|    | 35-49  | 58.8 | 32.2 | 9.0   | 565  | 71.4 | 21.9 | 6.7   | 210 |
|    | 50-64  | 48.9 | 37.9 | 13.2  | 219  | 55.1 | 36.6 | 8.3   | 205 |
|    | 65세 이상 | 50.9 | 39.3 | 9.8   | 112  | 53.1 | 33.1 | 13.8  | 145 |

<표 4-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300~399만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2006년에는 32.4%p, 2016년에는 28.3%p 더 높다.

<표 4-34>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월평균가<br>구소<br>득 | 100만원 미만 | 38.6 | 47.0 | 14.5  | 83   | 42.6 | 38.9 | 18.5  | 54 |
|                 | 100-199  | 49.7 | 37.6 | 12.7  | 173  | 51.5 | 32.4 | 16.2  | 68 |
|                 | 200-299  | 58.2 | 33.5 | 8.4   | 239  | 56.1 | 36.8 | 7.0   | 57 |
|                 | 300-399  | 57.3 | 34.4 | 8.3   | 192  | 67.4 | 25.0 | 7.6   | 92 |
|                 | 400-499  | 67.2 | 27.5 | 5.3   | 131  | 60.0 | 33.8 | 6.3   | 80 |
| 500만원 이상        | 71.0     | 21.7 | 7.2  | 221   | 70.9 | 23.5 | 5.7  | 230   |    |

아래의 <표 4-35>은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10년 간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2006년과 2016년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70.5%에서 80.2%로 약 10%p 더 증가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기존 논의들도 있으나(Grames et al, 2008), 국내의 경우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주를 이루며(이정은, 이영호, 2000; 최명민, 2010),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다만 학력의 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분석과 같은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앞서 생활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도 월평균 가구소득이나 학력과 같이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변인들이 만족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5> 학력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학력 | 고졸 미만   | 46.5 | 39.9 | 13.6  | 228  | 53.4 | 34.5 | 12.2  | 148 |
|    | 고졸      | 54.1 | 35.8 | 10.1  | 377  | 48.9 | 38.9 | 12.2  | 180 |
|    | 대학 재학   | 63.9 | 29.4 | 6.7   | 119  | 63.7 | 28.6 | 7.7   | 91  |
|    | 대학졸업 이상 | 70.5 | 24.0 | 5.5   | 329  | 80.2 | 17.3 | 2.5   | 197 |

마지막으로 <표 4-36>은 결혼만족도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2006년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48.7%인데 반해, 대도시의 경우에는 67.0%로 약 18.3%p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2016년의 경우에는 농어촌의 경우 2006년에 비해 4.6%p 증가한 53.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으로 18.7%p의 차이를 보인다. 비록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그 격차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농어촌과 대도시의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약 18%p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지역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대도시     | 67.0 | 24.2 | 8.9  | 327   | 72.0 | 23.1 | 4.9 | 143   |
| 지역 중소도시 | 56.1 | 35.0 | 8.9  | 606   | 60.9 | 29.2 | 9.9 | 363   |
| 농어촌     | 48.7 | 41.2 | 10.1 | 119   | 53.3 | 38.3 | 8.4 | 107   |

다음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앞서 살펴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 가족과의 여가생활, 그리고 부부의 건강상태 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4-37〉는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것으로 가족들과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이상이라도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다.

〈표 4-37〉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일주일<br>저녁 몇 번 미만<br>식사 | 49.6 | 33.6 | 16.8 | 244   | 58.8 | 27.2 | 14.0 | 114   |
| 일주일<br>몇 번 이상          | 61.4 | 31.9 | 6.7  | 809   | 63.0 | 29.9 | 7.2  | 502   |

다음으로 〈표 4-38〉는 가족과의 여가 빈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족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긍정적인 비율이 다소 높지만 아직까지 가족과의 여가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여가 빈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다만, ‘한 달에 한번 이상’으로 여가를 함께 하는 경우 결혼만족도의 부정적인 인식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8〉 가족과의 여가생활 빈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여가 활동 | 한 달에 한번 미만 | 58.1 | 31.6 | 10.3  | 754  | 62.4 | 28.9 | 8.7   | 412 |
|       | 한 달에 한번 이상 | 60.2 | 34.1 | 5.7   | 299  | 61.8 | 30.4 | 7.8   | 204 |

마지막으로 〈표 4-39〉은 부부의 건강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 모두가 건강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부 모두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 모두가 건강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할 비율은 2006년에 27.8%p, 2016년에는 35.5%p의 차이를 보인다.

〈표 4-39〉 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변화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 부부 건강 | 71.4        | 24.0 | 4.6  | 479   | 79.5 | 18.7 | 1.8  | 273   |     |
| 저녁 식사 | 본인만 건강      | 53.0 | 35.0 | 12.0  | 117  | 55.6 | 33.3 | 11.1  | 72  |
|       | 배우자만 건강     | 57.7 | 31.7 | 10.6  | 104  | 56.4 | 29.1 | 14.6  | 55  |
|       | 부부 모두 건강 안함 | 43.6 | 42.8 | 13.6  | 353  | 44.0 | 41.7 | 14.4  | 216 |

## 제5절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 1. 연구의 요약

#### 가.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생활의 공유

제2절에서는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생활의 공유에 있어 성,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이것이 10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거의 매일’ 가족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으며, 남녀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006년과 2016년 모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른 ‘거의 매일’ 식사하는 비율과 ‘일주일에 몇 번’ 식사하는 비율이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6년과 2016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과 저녁을 ‘거의 매일’ 먹는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가족과 ‘거의 매일’ 식사한다는 비율은 감소는 반면, ‘일주일에 몇 번’ 함께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도별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006년과 2016년 모두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경우 ‘거의 매일’ 식사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더 높았는데, 그 격차가 2006년에는 25.5%였으며, 2016년에는 35.7%p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도농 간의 차이가 약 10%p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의 빈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보았다. 가족과 ‘한달에 한 번’ 정도 여가생활을 공유한다는 비율이 남녀 가장 높았다. 또한, ‘한달에 한 번’ 정도라는 비율은 2006년에 남녀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해당 층의 남성 비율이 소폭 상승하여 남녀 간에 3.2%p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일주일에 한 번’ 여가를 함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34세 미만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그 격차가 2006년 13.3%p, 2016년에는 13.9%p로 약 13%p의 차이를 보인다. 이와 함께 모든 학력수준에서 가족과 여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갖는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 또는 ‘일년에

한 번 미만'처럼 그 빈도가 양 극단으로 갈수록 해당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나. 건강상태

제3절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인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본인 및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남녀 간 인식에 있어서 연도별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06년과 2016년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저소득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는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지역 간 격차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수록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농어촌 고령화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본인의 건강상태 인식에 있어 각 특성들이 미치는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 다.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제4절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생활만족도가 2006년과 2016년 간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나,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사람들 간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은 2006년 24.4%p, 2016년 31.3%p의 격차를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6년과 2016년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경향을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더 뚜렷하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앞서 살펴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 가족과의 여가생활, 그리고 부부의 건강상태 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들과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이상이라도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의 경우 가족과 저녁식사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비율이 2006년에 비해 8.9%p 더 높다. 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족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비율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부 모두가 건강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부 모두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및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16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399만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2006년과 2016년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2006년의 경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48.7%인데 반해, 대도시의 경우에는 67.0%로 약 18.3%p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앞서 살펴본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 가족과의 여가생활, 그리고 부부의 건강상태 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들과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이상이라도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과 2016년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족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긍정적인 비율이 다소 높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가 건강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부 모두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생활의 공유의 정도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매일 저녁 식사한다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이나 학력은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보다 많은 시간을 가정보다는 노동시장에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족과의 저녁 식사가 가족의 유대감 형성이나 가족원의 결속 강화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관련된다. 본인의 건강상태 인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건강격차의 한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만, 건강격차의 해소는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았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와 부부의 건강상태가 만족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족과의 저녁식사는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등 가족의 안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제 5 장

## 가족주의와 결혼에 대한 태도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한국인의 가족 가치 변화: 2006년과 2016년 비교

제4절 소결



# 5

## 가족주의와 결혼에 대한 태도 <<

### 제1절 들어가는 글

가족 해체가 논의 될 정도로 가족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15-49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1960년에 65%에서 2010년 56%로 감소하였고(계봉오, 2013: 24), 초혼결혼 연령은 1990년 26.3세에서 2015년 31.3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가족이 소규모화 되는데, 젊은 층의 미혼율과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1990년의 9.0%에서 2010년 23.8%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이러한 가족관련 행위들은 유교적 전통을 토대로 한 한국의 대표적인 가치관인 가족주의가 근대화, 서구화, 그리고 세계화를 겪으면서 약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가족 가치 변화는 결혼, 출산(자녀), 성역할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2장 참조).

본 장에서는 2006년과 2016년 동아시아 사회조사의 주제 모듈인 “동아시아의 가족”을 이용하여, 가족주의 및 결혼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지난 10년간의 가족주의 및 결혼 태도에 대한 변화 및 안정성을 이해하려고 한다.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행동양식의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가족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정부에서 가족 관련 행위의 변화에 대한 알맞은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사회복지주체로서의 가족의 역할 과 혼인의 지연 및 비혼과 연계된 저출산을 고려할 때 가족주의와 연결된 가부장제, 효, 결혼,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장은 가족주의 개념 및 차원 그리고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가족주의 관련 태도를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비교해서 가족주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 가족주의

#### 가. 가족주의 정의 및 경험적 연구 검토

가족주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 및 강화된다. 가족주의의 범위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 이상으로 혈연관계를 이루는 모든 친족들이 포함되는데(Keefe., 1984), 그 이유는 가족주의가 보다 확장된 의미의 가족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Sabogal et al., 1987). 가족주의는 개인이 독립적인 행위자이기 이전에,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갖게 되는 강한 충성심(loyalty), 호혜성(reciprocity), 그리고 결속감(solidarity)을 일컫는다(Chang and Kim, 2015). 따라서 가족주의가 개인의 가치 및 태도에 깊게 내재된다는 것은 가족을 통해 얻는 애착과 지지, 또는 가족에 대한 자기 인식이나 의무감 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Mendez-Luck et al., 2016).

가족주의는 가부장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부장제는 남성들의 ‘통제’와 ‘ 지배’가 가족에 내재된 결과인데(Smuts, 1994; Becker, 1999),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가치를 배경으로 한 가족에서 남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아버지의 권위가 가족을 넘어 전반적인 사회체제로 확장되었다(Kruger et al., 2014).

가부장제는 지역이나 세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모습에 차이가 있다. 아시아 문화권의 가부장제는 아버지(남편)의 권위를 중심으로 가계가 운영되며, 가계 계승은 아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Kandiyoti, 1988). 뿐만 아니라 남편-아내 사이의 부부관계 보다 부모-자식관계가 가족의 중심이 되고(Tang and Wang, 2011), 개인의 이익추구를 집단을 위한 것으로 종속시키는 경향이 있다(Juteau and Laurin, 1986).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가계 경제를 책임지거나 제사를 통해 가문의 전통을 계승할 의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신수진, 1999),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 부모의 명예를 선양해야 할 의무 등이 부각된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오랫동안 자리해 온 가족 가치에 배태된 전통적인 규범과 가부장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전통 사회에서 수동적인 존재였던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성 역할 및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Shankar and Northcott, 2009).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에 대한 고찰에 있어, 결혼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결혼은 아시아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족관계의 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이다(Moghdam, 2002).

최근 한국인들의 결혼 문화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초혼 연령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Jones and Yeung, 2014). 그리고 결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여성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여가시간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기혼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Yamamura and Andres, 2015).

하지만, 앞서 제시한 변화들이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이 개선되는 등의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Steven and Eshleman, 1998).

결혼 관련 변수인 동거, 입양, 그리고 이혼 등에 대해 살펴보면, 동거 및 입양에 대해서는 서구와 달리,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의 결혼 적령기의 남녀는 동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동거 비율이 낮으며, 결혼 이외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Choe, 2002). 또한, 유교적 전통으로 인하여 입양이 드물었다(Lee, 2007). 즉, 가족이 결혼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경향이 강했다. 동거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족형성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결혼이 감소하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계봉오(2013)는(1)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시간의 연장을 가져왔고, 경제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독립은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 (2) 혼인은 생애과정의 필수단계라는 규범의 약화, (3)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의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이혼은 개인과 가족에 오명을 남기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부정적으로 여

겨졌는데(Pimentel, 2000), 최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생활에 따르는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다(Yang & Yen, 2011).

이제까지 소개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비록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족형성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결혼으로 맺어지는 가족 관계와 그 구성원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가족주의의 모든 영역의 변화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사회의 가족가치는 다른 아시아 국가 및 서구와 비교하여 더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은기수, 이윤석, 2005), 가족 주기에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예: 세대 간 지원 등)는 여전히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Yi, 2013).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가족가치는 한국인의 삶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아직 유효한 것 같다.

### 제3절 한국인의 가족 가치 변화: 2006과 2016년 비교

본 절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가족 가치 및 태도, 가족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측정 문항은 가족 가치, 가부장제에 대한 인식, 결혼 적정 연령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며, 2006년과 2016년의 설문 문항은 동일하다. 단, 2016년에는 결혼 적정 연령에 대한 문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연령, 지역,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른 가족 가치 변화에 대한 분포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표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결과에서 연령에 따른 가족 가치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변수 중에서도, 연령에 중점을 두어 한국인들의 가족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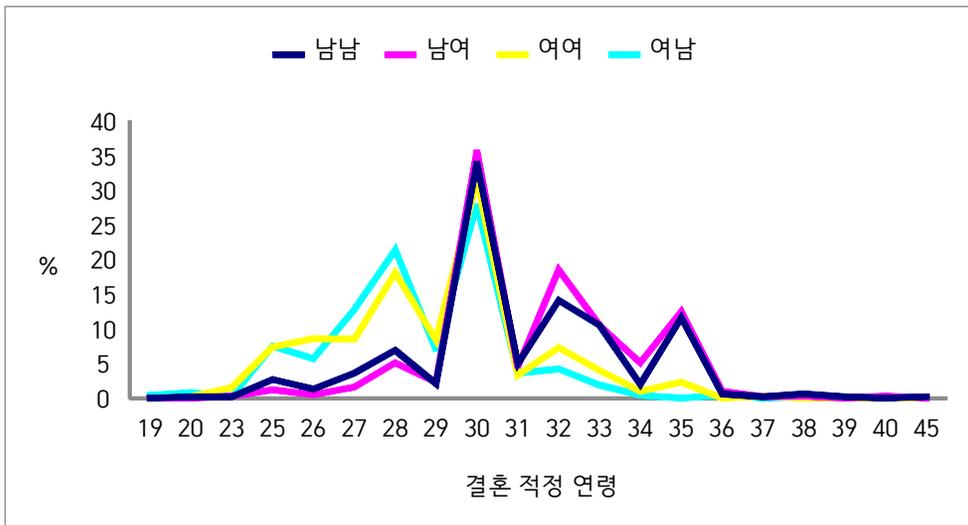
〈표 5-1〉 결혼 적정 연령

(단위: %, 명)

| 구분          |     | 남자         | 여자         |
|-------------|-----|------------|------------|
| 남자 결혼 적정 연령 | 20  | 0.8        | -          |
|             | 23  | 0.2        | 0.3        |
|             | 24  | 0.2        | -          |
|             | 25  | 2.7        | 1.2        |
|             | 26  | 1.3        | 0.5        |
|             | 27  | 3.6        | 1.6        |
|             | 28  | 6.9        | 5.1        |
|             | 29  | 2.1        | 2.3        |
|             | 30  | 34.0       | 35.7       |
|             | 31  | 5.0        | 4.5        |
|             | 32  | 14.1       | 18.5       |
|             | 33  | 10.5       | 10.5       |
|             | 34  | 5.0        | 5.1        |
|             | 35  | 11.6       | 12.5       |
|             | 36  | 0.6        | 1.0        |
|             | 37  | 0.2        | 0.5        |
|             | 38  | 0.6        | 0.3        |
| 39          | 0.2 | -          |            |
| 40          | -   | 0.3        |            |
| 45          | 0.2 | -          |            |
|             | 계   | 476(100.0) | 574(100.0) |
| 여자 결혼 적정 연령 | 19  | 0.4        | -          |
|             | 20  | 0.8        | 0.2        |
|             | 22  | 0.2        | 1.0        |
|             | 23  | 1.5        | 0.2        |
|             | 24  | 1.3        | 0.3        |
|             | 25  | 7.4        | 7.5        |
|             | 26  | 8.6        | 5.7        |
|             | 27  | 12.8       | 8.7        |
|             | 28  | 21.4       | 18.1       |
|             | 29  | 6.9        | 8.4        |
|             | 30  | 27.9       | 31.5       |
|             | 31  | 3.6        | 3.3        |
|             | 32  | 4.2        | 7.3        |
|             | 33  | 1.9        | 4.0        |
|             | 34  | 0.4        | 1.0        |
|             | 35  | -          | 2.3        |
|             | 36  | 0.4        | -          |
| 37          | -   | 0.3        |            |
| 39          | 0.2 | -          |            |
|             | 계   | 476(100.0) | 574(100.0) |

결혼 적정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연령에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34.0%, 여성의 35.7%는 남성의 결혼 적정 연령으로 30세를 생각했으며, 남성의 27.9%, 여성의 31.5%는 여성의 결혼 적정 연령으로 30세를 생각했다. 남녀 모두 30세를 결혼 적정 연령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 여성의 결혼 적정 연령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조금 더 적은 나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26~30세: 남자 77.6% vs. 여자 72.4%).

[그림 5-1] 결혼 적정 연령



<표 5-2>는 지난 25년간의 평균초혼연령의 추세를 보여주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항상 높았으며, 남녀 모두 초혼 연령이 늦추어졌는데 남성은 4.8세, 여성은 5.1세이다.

<표 5-2> 평균초혼연령 (1990-2015년)

(단위: 세)

| 구분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
| 남성 | 27.8 | 28.4 | 29.3 | 30.9 | 31.8 | 32.6 |
| 여성 | 24.9 | 25.3 | 26.5 | 27.7 | 28.9 | 30.0 |
| 평균 | 26.3 | 26.8 | 27.9 | 29.3 | 30.4 | 31.3 |

자료: 통계청(2015), 인구동향조사

〈표 5-3〉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2006 | 18-29세  | 19.2   | 23.8  | 36.0       | 10.7  | 7.9    | 1.8     | 328   |
|      | 30-39세  | 26.2   | 35.5  | 24.9       | 5.7   | 4.9    | 1.5     | 389   |
|      | 40-49세  | 31.8   | 27.0  | 23.2       | 6.2   | 8.4    | 2.4     | 418   |
|      | 50-59세  | 38.8   | 29.1  | 16.3       | 7.1   | 6.6    | 1.0     | 196   |
|      | 60세 이상  | 48.0   | 29.4  | 13.4       | 4.8   | 3.0    | 1.1     | 269   |
| 2016 | 18-29세  | 12.9   | 16.5  | 33.0       | 22.7  | 10.8   | 3.1     | 194   |
|      | 30-39세  | 11.5   | 25.3  | 34.5       | 15.5  | 8.0    | 1.1     | 174   |
|      | 40-49세  | 15.3   | 31.8  | 36.5       | 8.8   | 4.7    | 2.4     | 170   |
|      | 50-59세  | 21.5   | 25.4  | 34.5       | 7.9   | 6.8    | 1.7     | 177   |
|      | 60세 이상  | 34.2   | 28.3  | 23.8       | 9.2   | 3.0    | 0.9     | 336   |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은 2006년에 84.3%, 2016년에 78.1%이다. 2006년의 경우, 주로 60대 이상(90.7%), 여성(85.7%), 고졸 미만(86.4%), 소득 400-499만원(89.0%), 중소도시(84.9%)에서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2016년에는 60대 이상(86.3%), 여성(80.7%), 고졸(83.9%), 소득 300-399만원(83.7%), 농촌(82.9%)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위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는 18-29세가 79.0%, 62.4%(▽16.6%p), 30-39세가 86.6%, 71.3%(▽15.4%p), 40-49세가 82.1%, 83.5%(△1.5%p), 50-59세가 84.2%, 81.4%(▽2.8%p), 60대 이상이 90.7%, 86.3%(▽4.4%p)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82.4%, 75.0%(▽7.4%p), 여성이 85.7%, 80.7%(▽5.0%p)를 차지한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이 86.4%, 83.0%(▽3.4%p), 고졸이 84.6%, 83.9%(▽0.7%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82.5%, 67.4%(▽15.0%p), 대학 졸업 이상이 83.6%, 76.9%(▽6.7%p)이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85.5%, 81.6%(▽3.9%p), 100-199만원이 82.5%, 81.0%(▽1.5%p), 200-299만원이 86.3%, 70.9%(▽15.5%p), 300-399만원이 81.9%, 83.7%(△1.8%p), 400-499만원이 89.0%, 68.8%(▽20.3%p), 500만원 이상이 83.3%, 81.3%(▽2.0%p)로 나타났고, 지역은 대

도시가 83.6%, 73.0%(▽10.6%p), 중소도시가 84.9%, 78.9%(▽6.0%p), 농촌이 83.2%, 82.9%(▽0.4%p)로 조사되었다.

〈표 5-4〉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2006 | 18-29세  | 11.0   | 20.2  | 37.3       | 19.3  | 10.1   | 0.9     | 327   |
|      | 30-39세  | 13.9   | 25.2  | 31.1       | 15.2  | 8.5    | 3.6     | 389   |
|      | 40-49세  | 16.3   | 25.2  | 32.5       | 12.3  | 9.6    | 2.6     | 416   |
|      | 50-59세  | 26.5   | 26.0  | 30.1       | 9.7   | 4.1    | 2.6     | 196   |
|      | 60세 이상  | 37.7   | 30.6  | 15.7       | 9.3   | 5.2    | 1.1     | 268   |
| 2016 | 18-29세  | 8.8    | 16.0  | 34.5       | 21.6  | 9.8    | 6.2     | 194   |
|      | 30-39세  | 4.6    | 17.8  | 28.2       | 23.6  | 11.5   | 8.0     | 174   |
|      | 40-49세  | 8.8    | 17.1  | 32.4       | 20.6  | 12.4   | 5.9     | 170   |
|      | 50-59세  | 14.1   | 20.9  | 26.6       | 15.3  | 15.3   | 5.6     | 177   |
|      | 60세 이상  | 28.0   | 24.7  | 24.4       | 13.1  | 6.8    | 2.4     | 336   |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하는 응답자는 2006년에 74.7%, 2016년에 63.7%이다. 특히, 2006년에서 60대 이상(84.0%), 남성(76.1%), 고졸 미만(79.9%), 소득 400-499만원(80.2%), 대도시(74.9%)에서 더 많았고, 2016년은 60대 이상(77.1%), 여성(64.3%), 고졸 미만(75.5%), 소득 100만원 미만(73.7%), 농촌(69.5%)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위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18-29세가 68.5%, 59.3%(▽9.2%p), 30-39세가 70.2%, 50.6%(▽19.6%p), 40-49세가 74.0%, 58.2%(▽15.8%p), 50-59세가 82.7%, 61.6%(▽21.1%p), 60대 이상이 84.0%, 77.1%(▽6.9%p)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76.1%, 63.0%(▽13.1%p), 여성이 73.6%, 64.3%(▽9.2%p)로 조사되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 미만이 79.9%, 75.5%(▽4.4%p), 고졸이 76.3%, 62.5%(▽13.8%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66.2%, 60.1%(▽6.1%p), 대학 졸업 이상이 75.8%, 57.5%(▽18.3%p)이었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78.6%, 73.7%(▽5.0%p), 100-199만 원이 71.2%, 73.3%(△2.2%p), 200-299만 원이 75.7%, 58.3%(▽

17.4%p), 300-399만 원이 72.6%, 70.4%(▽2.2%p), 400-499만 원이 80.2%, 55.4%(▽24.9%p), 500만 원 이상이 73.1%, 57.8%(▽15.3%p)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74.9%, 63.5%(▽11.4%p), 중소도시가 74.6%, 61.8%(▽12.8%p), 농촌이 74.3%, 69.5%(▽4.8%p)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모-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의 명예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6년과 일관된다.

〈표 5-5〉 가계 계승을 위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 2006 | 18-29세  | 6.7    | 10.1  | 29.4       | 27.8  | 14.4   | 4.6     | 7.0   | 327 |
|      | 30-39세  | 10.0   | 9.3   | 20.8       | 26.5  | 16.5   | 6.9     | 10.0  | 389 |
|      | 40-49세  | 11.7   | 17.7  | 24.9       | 20.3  | 11.2   | 7.9     | 6.2   | 418 |
|      | 50-59세  | 32.3   | 19.0  | 17.9       | 12.8  | 8.7    | 5.1     | 4.1   | 195 |
|      | 60세 이상  | 50.0   | 26.3  | 11.5       | 5.9   | 2.2    | 1.9     | 2.2   | 270 |
| 2016 | 18-29세  | 5.7    | 5.7   | 13.4       | 29.9  | 18.6   | 15.5    | 11.3  | 194 |
|      | 30-39세  | 2.3    | 4.0   | 15.5       | 25.9  | 21.3   | 14.4    | 16.7  | 174 |
|      | 40-49세  | 4.1    | 5.9   | 14.7       | 33.5  | 18.8   | 15.3    | 7.6   | 170 |
|      | 50-59세  | 7.9    | 12.4  | 16.9       | 24.3  | 17.5   | 11.3    | 9.6   | 177 |
|      | 60세 이상  | 29.8   | 19.6  | 20.5       | 13.1  | 10.4   | 4.2     | 2.4   | 336 |

〈표 5-6〉 가계 계승을 위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 2006 | 고졸 미만   | 43.8   | 23.7  | 15.0       | 7.3   | 5.1    | 2.8     | 2.3   | 354 |
|      | 고졸      | 16.3   | 18.3  | 22.4       | 18.9  | 12.0   | 5.2     | 7.0   | 460 |
|      | 대학 재학   | 9.5    | 11.7  | 27.9       | 26.3  | 14.0   | 5.0     | 5.6   | 358 |
|      | 대학졸업 이상 | 10.3   | 9.6   | 21.3       | 26.5  | 13.6   | 8.9     | 9.8   | 427 |
| 2016 | 고졸 미만   | 32.8   | 19.2  | 19.2       | 12.5  | 10.2   | 3.4     | 2.6   | 265 |
|      | 고졸      | 9.7    | 11.3  | 18.5       | 22.6  | 19.4   | 10.5    | 8.1   | 248 |
|      | 대학 재학   | 5.0    | 6.0   | 15.1       | 25.2  | 25.7   | 13.3    | 9.6   | 218 |
|      | 대학졸업 이상 | 4.4    | 7.5   | 14.7       | 32.2  | 12.5   | 15.9    | 12.8  | 320 |

가계 계승을 위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은 2006년에 56.7%, 2016년에 40.8%이다. 2006년을 살펴보면, 주로 60대 이상(87.8%), 남성(63.7%), 고졸 미만(82.5%), 소득 100만원 미만(80.8%), 농촌(73.1%)에서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2016년의 경우에는 60대 이상(69.9%), 남성(42.6%), 고졸 미만(71.3%), 소득 100만원 미만(69.1%), 농촌(63.6%)에서 더 많은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위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을 살펴보면, 18-29세가 46.2%, 24.7%(▽21.4%p), 30-39세가 40.1%, 21.8%(▽18.3%p), 40-49세가 54.3%, 24.7%(▽29.6%p), 50-59세가 69.2%, 37.3%(▽31.9%p), 60대 이상이 87.8%, 69.9%(▽17.8%p)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63.7%, 42.6%(▽21.1%p), 여성이 51.0%, 39.3%(▽11.7%p)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 미만이 82.5%, 71.3%(▽11.2%p), 고졸이 57.0%, 39.5%(▽17.4%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49.2%, 26.1%(▽23.0%p), 대학 졸업 이상이 41.2%, 26.6%(▽14.7%p)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이 80.8%, 69.1%(▽11.8%p), 100-199만 원이 63.7%, 53.3%(▽10.3%p), 200-299만 원이 52.6%, 37.8%(▽14.8%p), 300-399만 원이 55.7%, 38.5%(▽17.2%p), 400-499만 원이 49.5%, 30.4%(▽19.1%p), 500만 원 이상이 44.4%, 28.6%(▽15.8%p)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지역은 대도시가 54.4%, 34.4%(▽20.0%p), 중소도시가 54.5%, 36.4%(▽18.1%p), 농촌이 73.1%, 63.6%(▽9.5%p)로 집계되었다. [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대재/전문대/대학 중퇴의 교육수준에 있는 집단은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2006년(24.6%)과 비교하여, 2016년(48.6%)에 20%p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 2006 | 18-29세  | 9.5    | 22.3  | 34.5       | 21.3  | 10.1   | 1.5     | 0.9   | 328 |
|      | 30-39세  | 20.1   | 21.3  | 36.0       | 12.9  | 6.7    | 1.5     | 1.5   | 389 |
|      | 40-49세  | 19.9   | 34.5  | 28.5       | 9.1   | 4.8    | 2.2     | 1.0   | 417 |
|      | 50-59세  | 32.1   | 27.6  | 28.1       | 6.6   | 3.6    | 1.0     | 1.0   | 196 |
|      | 60세 이상  | 38.3   | 36.4  | 15.2       | 3.7   | 4.1    | 1.1     | 1.1   | 269 |
| 2016 | 18-29세  | 8.2    | 12.9  | 28.9       | 29.9  | 12.9   | 5.7     | 1.5   | 194 |
|      | 30-39세  | 6.9    | 15.5  | 33.9       | 25.3  | 12.6   | 4.0     | 1.7   | 174 |
|      | 40-49세  | 11.8   | 20.0  | 30.6       | 21.8  | 11.8   | 3.5     | 0.6   | 170 |
|      | 50-59세  | 21.5   | 27.7  | 28.2       | 11.9  | 6.2    | 4.0     | 0.6   | 177 |
|      | 60세 이상  | 37.5   | 25.9  | 24.4       | 8.6   | 3.6    | 0.0     | 0.0   | 336 |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은 2006년에 79.9%, 2016년에 69.7%이다. 2006년의 경우, 주로 60대 이상(90.0%), 남성(84.4%), 고졸 미만(88.9%), 소득 100만원 미만(84.9%), 농촌(83.6%)에서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2016년에서도 60대 이상(87.8%), 남성(73.1%), 고졸 미만(85.3%), 소득 100만원 미만(82.9%), 농촌(81.8%)이 더 높았다.

위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는 18-29세가 66.2%, 50.0%(▽16.2%p), 30-39세가 77.4%, 56.3%(▽21.1%p), 40-49세가 83.0%, 62.4%(▽20.6%p), 50-59세가 87.8%, 77.4%(▽10.4%p), 60대 이상이 90.0%, 87.8%(▽2.2%p)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성이 84.4%, 73.1%(▽11.3%p), 여성이 76.3%, 67.0%(▽9.3%p)를 차지했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이 88.9%, 85.3%(▽3.6%p), 고졸이 83.3%, 75.4%(▽7.9%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73.3%, 59.2%(▽14.1%p), 대학 졸업 이상이 74.5%, 59.7%(▽14.8%p)이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84.9%, 82.9%(▽2.0%p), 100-199만원이 84.3%, 81.0%(▽3.3%p), 200-299만원이 81.5%, 68.5%(▽13.0%p), 300-399만원이 74.9%, 66.7%(▽8.2%p), 400-499만원이 81.9%, 66.1%(▽15.8%p), 500만원 이상이 74.8%, 63.0%(▽11.9%p)로 나타났고, 지역은

대도시 78.0%, 61.7%(▽16.3%p), 중소도시 80.3%, 69.8%(▽10.5%p), 농촌 83.6%, 81.8%(▽1.8%p)로 조사되었다.

〈표 5-8〉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2006 | 18-29세  | 3.4    | 5.8   | 16.5       | 49.7  | 11.9   | 4.3     | 328   |
|      | 30-39세  | 6.4    | 8.2   | 21.6       | 45    | 9.3    | 3.9     | 389   |
|      | 40-49세  | 8.6    | 10    | 21.5       | 40.9  | 11.5   | 3.3     | 418   |
|      | 50-59세  | 24.5   | 16.3  | 18.9       | 29.6  | 7.7    | 2.0     | 196   |
|      | 60세 이상  | 27.4   | 21.9  | 19.3       | 21.5  | 5.9    | 1.1     | 270   |
| 2016 | 18-29세  | 2.1    | 3.6   | 9.3        | 58.8  | 6.2    | 8.2     | 194   |
|      | 30-39세  | 1.7    | 5.7   | 17.2       | 50    | 12.1   | 2.9     | 174   |
|      | 40-49세  | 3.5    | 7.1   | 14.1       | 52.4  | 8.2    | 5.3     | 170   |
|      | 50-59세  | 4.5    | 8.5   | 24.3       | 44.6  | 9.0    | 3.4     | 177   |
|      | 60세 이상  | 19.7   | 16.7  | 19.4       | 29.6  | 7.5    | 5.1     | 335   |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하는 응답자는 2006년에 43.4%, 2016년에 35.0%이다. 2006년을 살펴보면, 60대 이상(68.5%), 여성(44.8%), 고졸 미만(66.5%), 소득 100만원 미만(63.0%), 농촌(53.8%)에서 찬성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2016년은 60대 이상(55.8%), 여성(36.1%), 고졸 미만(56.8%), 소득 100만원 미만(54.3%), 농촌(53.5%)에서 높았다.

위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18-29세가 25.6%, 14.9%(▽10.7%p), 30-39세가 36.2%, 24.7%(▽11.5%p), 40-49세가 40.2%, 24.7%(▽15.5%p), 50-59세가 59.7%, 37.3%(▽22.4%p), 60대 이상이 68.5%, 55.8%(▽12.7%p)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41.7%, 33.6%(▽8.0%p), 여성이 44.8%, 36.1%(▽8.8%p)를 차지했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이 66.5%, 56.8%(▽9.7%p), 고졸이 45.2%, 37.5%(▽7.7%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30.4%, 18.8%(▽11.6%p), 대학 졸업 이상이 33.3%, 25.9%(▽7.3%p)이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3.0%, 54.3%(▽8.7%p), 100-199만원이 48.0%, 41.9%(▽6.1%p), 200-299만원이 43.6%, 33.9%

(▽9.8%p), 300-399만원이 34.7%, 28.9%(▽5.8%p), 400-499만원이 41.8%, 29.5%(▽12.3%p), 500만원 이상이 34.6%, 29.2%(▽5.4%p)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지역은 대도시가 40.5%, 29.4%(▽11.1%p), 중소도시가 42.8%, 31.5%(▽11.4%p), 농촌이 53.8%, 53.5%(▽0.3%p)로 나타났다. 2006년 60세 이상 연령의 찬성 비율(68.6%)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젊은층 보다 노년층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지난 2006년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5-9〉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 2006 | 18-29세  | 1.8    | 2.7   | 7.9        | 20.1  | 30.5   | 19.5    | 17.4  | 328 |
|      | 30-39세  | 1.3    | 2.3   | 8.5        | 15.7  | 24.7   | 19.8    | 27.8  | 389 |
|      | 40-49세  | 1.4    | 3.1   | 5.0        | 11.2  | 23.0   | 27.0    | 29.2  | 418 |
|      | 50-59세  | 3.1    | 4.1   | 4.6        | 5.6   | 10.2   | 29.1    | 43.4  | 196 |
|      | 60세 이상  | 3.7    | 1.1   | 1.8        | 1.5   | 10.3   | 26.2    | 55.4  | 271 |
| 2016 | 18-29세  | 7.2    | 4.6   | 14.9       | 26.3  | 24.2   | 12.4    | 10.3  | 194 |
|      | 30-39세  | 5.2    | 4.0   | 14.4       | 26.4  | 21.8   | 16.1    | 12.1  | 174 |
|      | 40-49세  | 2.4    | 7.6   | 12.9       | 20.6  | 27.6   | 15.9    | 12.9  | 170 |
|      | 50-59세  | 5.1    | 4.5   | 10.7       | 14.1  | 22.0   | 23.2    | 20.3  | 177 |
|      | 60세 이상  | 6.3    | 4.8   | 5.1        | 6.0   | 15.2   | 26.5    | 36.3  | 336 |

〈표 5-10〉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 2006 | 남성      | 1.8    | 2.1   | 4.2        | 9.7   | 18.7   | 25.9    | 37.6  | 713 |
|      | 여성      | 2.2    | 3.0   | 7.2        | 13.5  | 23.3   | 22.2    | 28.6  | 889 |
| 2016 | 남성      | 2.7    | 4.0   | 10.5       | 15.8  | 22.7   | 21.4    | 22.9  | 476 |
|      | 여성      | 7.7    | 5.9   | 10.8       | 17.7  | 19.8   | 18.6    | 19.5  | 575 |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반대(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하는 응답은 2006년과 2016년 각각 77.7%와 62.0%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60세 이상(91.9%), 남성(82.2%), 고졸 미만(87.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82.4%), 농촌(87.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60세 이상(78.0%), 남성(67.0%), 고졸 미만(73.2%),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상-199만 원 이하(71.4%), 농촌(70.6%)일수록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견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18-29세가 67.4%, 46.9%(▽20.5%p), 30-39세가 72.2%, 50.0%(▽22.2%p), 40-49세가 79.2%, 56.5%(▽22.7%p), 50-59세가 82.7%, 65.5%(▽17.1%p), 60세 이상이 91.9%, 78.0%(▽13.9%p)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82.2%, 67.0%(▽15.2%p), 여성이 74.0%, 57.9%(▽16.1%p)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졸 미만이 87.3%, 73.2%(▽14.1%p), 고졸이 77.4%, 65.7%(▽11.7%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73.3%, 49.5%(▽23.7%p), 대학졸업 이상이 73.5%, 58.4%(▽15.1%p)이다.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82.4%, 70.4%(▽12.0%p), 100-199만 원이 81.0%, 71.4%(▽9.6%p), 200만 원-299만 원이 77.6%, 55.1%(▽22.5%p), 300-399만 원이 76.0%, 63.0%(▽13.1%p), 400-499만 원이 72.5%, 59.8%(▽12.7%p), 500만 원 이상이 78.1%, 59.0%(▽19.1%p)로 나타났다. 지역은 대도시가 76.8%, 58.9%(▽17.9%p), 중소도시가 76.1%, 60.6%(▽15.4%p), 농촌이 87.6%, 70.6%(▽17.0%p)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남성(17.2%)보다 여성(24.4%)이 7.2%p 차이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하기 위해 갖게 되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표 5-11〉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행복하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2006 | 18-29세  | 8.2    | 16.2  | 26.8       | 34.8  | 8.8    | 4.0     | 328   |
|      | 30-39세  | 11.1   | 19.8  | 25.3       | 28.1  | 9.0    | 3.9     | 388   |
|      | 40-49세  | 12.4   | 28.2  | 23.9       | 22.5  | 7.9    | 3.8     | 418   |
|      | 50-59세  | 24.0   | 28.1  | 21.9       | 14.8  | 6.6    | 3.1     | 196   |
|      | 60세 이상  | 30.4   | 30.7  | 17.4       | 12.2  | 3.3    | 3.3     | 270   |
| 2016 | 18-29세  | 4.6    | 14.4  | 20.6       | 45.4  | 7.7    | 6.7     | 194   |
|      | 30-39세  | 9.2    | 17.2  | 22.4       | 34.5  | 12.1   | 3.4     | 174   |
|      | 40-49세  | 8.2    | 13.5  | 24.1       | 34.7  | 8.8    | 7.6     | 170   |
|      | 50-59세  | 9.0    | 14.7  | 27.7       | 24.9  | 14.1   | 4.5     | 177   |
|      | 60세 이상  | 24.1   | 20.5  | 17.0       | 22.9  | 8.6    | 3.0     | 336   |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행복하다는 의견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하는 응답은 2006년과 2016년 각각 63.3%와 51.2%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60세 이상(78.5%), 남성(64.6%), 고졸 미만(73.4%),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73.4%), 농촌(73.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60세 이상(61.6%), 여성(52.3%), 고졸 미만(61.9%),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59.2%), 농촌(57.8%)일수록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2〉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행복하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2006 | 남성      | 18.0   | 25.3  | 21.3       | 22.5  | 6.3    | 4.1     | 712   |
|      | 여성      | 13.9   | 23.2  | 25.2       | 24.7  | 8.3    | 3.4     | 888   |
| 2016 | 남성      | 12.0   | 18.3  | 19.5       | 30.9  | 10.5   | 5.3     | 476   |
|      | 여성      | 13.7   | 15.5  | 23.1       | 31.5  | 9.6    | 4.3     | 575   |

위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는 18-29세가 51.2%, 39.7%(▽11.5%p), 30-39세가 56.2%, 48.9%(▽7.3%p), 40-49세가 64.6%, 45.9%(▽18.7%p), 50-59세가 74.0%, 51.4%(▽22.6%p), 60대 이상이 78.5%, 61.6%(▽16.9%p)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64.6%, 49.8%(▽14.8%p), 여성이 62.3%, 52.3%(▽9.9%p)를 차지한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이 73.4%, 61.9%(▽11.6%p), 고졸이 62.8%, 47.6%(▽15.2%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54.6%, 42.7%(▽11.9%p), 대학 졸업 이상이 62.8%, 50.9%(▽11.8%p)이다. 소득 분포는 100만 원 미만이 73.4%, 59.2%(▽14.2%p), 100-199만 원이 63.9%, 54.3%(▽9.7%p), 200-299만 원이 63.3%, 50.4%(▽12.9%p), 300-399만 원이 55.2%, 54.1%(▽1.1%p), 400-499만 원이 64.3%, 41.1%(▽23.2%p), 500만 원 이상이 63.1%, 48.8%(▽14.3%p)로 나타났고, 지역 분포는 대도시 61.7%, 51.1%(▽10.7%p), 중소도시 62.0%, 48.9%(▽13.2%p), 농촌 73.7%, 57.8%(▽15.9%p)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결과가 지난 2006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2006년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이 찬성했지만, 2016년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찬성하고 있다.

〈표 5-13〉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행복하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2006 | 18-29세  | 5.8    | 13.1  | 27.7       | 35.4  | 12.5   | 4.3     | 328   |
|      | 30-39세  | 6.7    | 15.4  | 27.0       | 31.1  | 10.8   | 5.1     | 389   |
|      | 40-49세  | 8.6    | 25.4  | 23.0       | 25.4  | 11.8   | 4.3     | 417   |
|      | 50-59세  | 20.0   | 23.6  | 23.6       | 17.4  | 8.2    | 4.6     | 195   |
|      | 60세 이상  | 25.6   | 29.3  | 19.3       | 14.4  | 5.2    | 3.7     | 270   |
| 2016 | 18-29세  | 4.1    | 10.8  | 23.2       | 44.8  | 9.8    | 5.7     | 194   |
|      | 30-39세  | 6.3    | 10.3  | 20.7       | 40.8  | 12.6   | 8.0     | 174   |
|      | 40-49세  | 6.5    | 8.8   | 22.9       | 36.5  | 15.3   | 6.5     | 170   |
|      | 50-59세  | 5.1    | 15.3  | 25.4       | 28.8  | 14.7   | 6.2     | 177   |
|      | 60세 이상  | 23.5   | 19.3  | 17.6       | 22.6  | 10.1   | 3.3     | 336   |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행복하다는 의견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하는 응답은 2006년과 2016년 각각 57.1%와 46.4%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60세 이상(74.1%), 남성(59.4%), 고졸 미만(68.6%),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69.3%), 농촌(66.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60세 이상(60.4%), 여성(46.4%), 고졸 미만(58.9%),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55.3%), 농촌(52.4%)일수록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18-29세가 46.6%, 38.1%(▽8.5%p), 30-39세가 49.1%, 37.4%(▽11.7%p), 40-49세가 57.1%, 38.2%(▽18.8%p), 50-59세가 67.2%, 45.8%(▽21.4%p), 60대 이상이 74.1%, 60.4%(▽13.7%p)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59.4%, 46.4%(▽13.0%p), 여성이 55.2%, 46.4%(▽8.8%p)를 차지한다. 학력은 고졸 미만이 68.6%, 58.9%(▽9.8%p), 고졸이 55.9%, 44.8%(▽11.1%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48.0%, 37.6%(▽10.4%p), 대학 졸업 이상이 56.4%, 43.4%(13.0%p)이다.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69.3%, 55.3%(▽14.0%p), 100-199만 원이 56.5%, 48.6%(▽7.9%p), 200-299만 원이 54.5%, 38.6%(▽16.0%p), 300-399만 원이 49.4%, 48.9%(▽0.6%p), 400-499만 원이 57.5%, 36.6%(▽20.9%p), 500만 원 이상이 59.7%, 45.5%(▽14.2%p)로 나타났고, 지역은 대도시 55.7%, 41.8%(▽13.8%p), 중소도시 56.1%, 46.8%(▽9.3%p), 농촌 66.1%, 52.4%(▽13.7%p)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과가 지난 2006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하지만, [표 4]과 [표 6] 비교하면, 2016년 현재 결혼하지 않은 남자 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표 5-14〉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 2006 | 18-29세  | 1.8    | 6.4   | 27.1       | 18.0  | 22.6   | 14.9    | 9.1   | 328 |
|      | 30-39세  | 3.1    | 4.1   | 17.5       | 16.5  | 19.0   | 20.1    | 19.8  | 389 |
|      | 40-49세  | 1.4    | 5.0   | 12.0       | 11.8  | 20.4   | 24.8    | 24.5  | 416 |
|      | 50-59세  | 1.5    | 2.1   | 9.7        | 6.2   | 15.9   | 23.1    | 41.5  | 195 |
|      | 60세 이상  | 2.2    | 2.2   | 7.1        | 10.0  | 8.6    | 26.0    | 43.9  | 269 |
| 2016 | 18-29세  | 3.6    | 9.3   | 25.8       | 20.1  | 20.6   | 11.3    | 9.3   | 194 |
|      | 30-39세  | 5.7    | 12.6  | 30.5       | 13.2  | 19.0   | 12.1    | 6.9   | 174 |
|      | 40-49세  | 2.4    | 8.8   | 23.5       | 20.0  | 17.1   | 18.8    | 9.4   | 170 |
|      | 50-59세  | 3.4    | 5.6   | 16.9       | 12.4  | 23.7   | 21.5    | 16.4  | 177 |
|      | 60세 이상  | 3.6    | 4.2   | 8.3        | 12.2  | 17.3   | 27.4    | 27.1  | 336 |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에 반대(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하는 응답은 2006년과 2016년 각각 65.1%와 54.5%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50세 이상-59세 이하(80.5%), 여성(66.8%), 고졸 미만(73.9%),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상-199만 원 이하(67.9%), 농촌(7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60세 이상(71.7%), 여성(56.7%), 고졸 (65.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상-199만 원 이하(63.8%), 농촌(62.6%)일수록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의견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는 18-29세가 46.6%, 41.2%(▽5.4%p), 30-39세가 58.9%, 37.9%(▽20.9%p), 40-49세가 69.7%, 45.3%(▽24.4%p), 50-59세가 80.5%, 61.6%(▽18.9%p), 60대 이상이 78.4%, 71.7%(▽6.7%p)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63.1%, 51.9%(▽11.2%p), 여성이 66.8%, 56.7%(▽10.1%p)를 차지한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이 73.9%, 65.3%(▽8.7%p), 고졸이 69.9%, 65.3%(▽4.6%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52.0%, 40.8%(▽11.1%p), 대학 졸업 이상이 63.7%, 46.6%(▽17.1%p)이다. 소득 분포는 100만 원 미만이 66.1%, 59.2%(▽6.9%p), 100-199만 원이 67.9%, 63.8%(▽4.1%p), 200-299만 원이 66.0%, 52.0%(▽14.0%p), 300-399만 원이 62.4%, 55.6%(▽6.8%p), 400-499만 원이

67.4%, 54.5%(▽12.9%p), 500만 원 이상이 63.6%, 50.3%(▽13.3%p)로 나타났고, 지역 분포는 대도시 64.3%, 55.0%(▽9.3%p), 중소도시 64.4%, 51.8%(▽12.6%p), 농촌 70.8%, 62.6%(▽8.2%p)로 조사되었다. 30~39세 연령층은 다수가 동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48.8%), 이는 결혼을 고려하는 나이에서 동거생활의 경험을 반영하는 결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에는 20대가 가장 긍정적이었고(35.3%), 2016년에는 30대가 긍정적이다(48.8%).

〈표 5-15〉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2006 | 18-29세  | 9.2    | 11.9  | 24.2       | 15.9  | 21.4   | 9.5     | 327   |
|      | 30-39세  | 12.9   | 15.7  | 18.0       | 16.5  | 18.3   | 9.5     | 389   |
|      | 40-49세  | 20.2   | 20.2  | 22.4       | 11.8  | 11.3   | 7.0     | 416   |
|      | 50-59세  | 24.0   | 19.4  | 16.8       | 11.2  | 11.7   | 9.2     | 196   |
|      | 60세 이상  | 26.0   | 30.1  | 11.9       | 13.4  | 4.5    | 7.1     | 269   |
| 2016 | 18-29세  | 8.2    | 13.9  | 23.7       | 21.1  | 14.9   | 7.2     | 194   |
|      | 30-39세  | 11.5   | 13.2  | 20.7       | 19.0  | 19.5   | 9.2     | 174   |
|      | 40-49세  | 10.0   | 22.4  | 21.8       | 17.6  | 18.8   | 5.9     | 170   |
|      | 50-59세  | 16.4   | 14.1  | 24.9       | 15.3  | 11.3   | 9.0     | 177   |
|      | 60세 이상  | 30.1   | 18.2  | 16.4       | 14.6  | 7.8    | 7.2     | 335   |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하는 응답은 2006년과 2016년 각각 55.8%와 54.8%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60세 이상(68.0%), 남성(58.6%), 고졸 미만(65.9%),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63.5%), 농촌(59.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60세 이상(64.8%), 남성(57.6%), 고졸 미만(63.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61.8%), 농촌(57.8%)일수록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은 18-29세가 45.3%, 45.9%(△0.6%p), 30-39세가 46.5%, 45.4%(▽1.1%p), 40-49세가 62.7%, 54.1%(▽8.6%p), 50-59세가 60.2%, 55.4%

(▽4.8%p), 60대 이상이 68.0%, 64.8%(▽3.3%p)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58.6%, 57.6%(▽1.1%p), 여성이 53.5%, 52.4%(▽1.1%p)를 차지한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이 65.9%, 63.3%(▽2.7%p), 고졸이 57.8%, 52.8%(▽5.0%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47.2%, 50.9%(△3.7%p), 대학 졸업 이상이 52.4%, 51.9%(▽0.5%p)이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3.5%, 61.8%(▽1.7%p), 100-199만원이 57.1%, 60.0%(△2.9%p), 200-299만원이 53.6%, 56.7%(△3.1%p), 300-399만원이 53.7%, 51.9%(▽1.9%p), 400-499만원이 56.7%, 61.6%(△4.9%p), 500만원 이상이 53.6%, 50.3%(▽3.3%p)로 나타났고, 지역은 대도시 52.3%, 52.1%(▽0.1%p), 중소도시 57.1%, 54.8%(▽2.2%p), 농촌 59.7%, 57.8%(▽1.9%p)로 조사되었다. 2016년 연령에 따라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18~29세(45.8%), 30~39세(45.4%), 40~49세(54.2%), 50~59세(55.4%), 60세 이상(64.7%)인 것으로 볼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의 조건에 자녀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6년과 일관된 분포를 보인다.

〈표 5-16〉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이 최선책이다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 2006 | 18-29세  | 4.3    | 11.0  | 22.6       | 19.8  | 25.0   | 11.6    | 5.8   | 328 |
|      | 30-39세  | 7.7    | 8.2   | 20.6       | 18.5  | 25.4   | 7.7     | 11.8  | 389 |
|      | 40-49세  | 7.4    | 11.5  | 17.5       | 12.5  | 24.2   | 13.2    | 13.7  | 417 |
|      | 50-59세  | 13.8   | 12.8  | 20.4       | 12.2  | 15.3   | 14.8    | 10.7  | 196 |
|      | 60세 이상  | 8.9    | 11.5  | 12.6       | 10.0  | 11.9   | 18.5    | 26.7  | 270 |
| 2016 | 18-29세  | 9.3    | 10.3  | 26.3       | 21.1  | 24.2   | 5.2     | 3.6   | 194 |
|      | 30-39세  | 10.3   | 16.7  | 26.4       | 22.4  | 12.6   | 6.9     | 4.6   | 174 |
|      | 40-49세  | 10.6   | 8.2   | 30.6       | 25.3  | 15.9   | 7.1     | 2.4   | 170 |
|      | 50-59세  | 14.1   | 14.1  | 25.4       | 12.4  | 22.0   | 6.2     | 5.6   | 177 |
|      | 60세 이상  | 9.8    | 11.6  | 15.8       | 16.4  | 15.5   | 14.3    | 16.7  | 336 |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이 최선책이라는 의견에 반대(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하는 응답은 2006년과 2016년 각각 47.6%와 34.7%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60세 이상(57.0%), 남성(49.5%), 고졸(50.1%), 월 평균 가구소

득 100만 원 미만(52.6%), 농촌(5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60세 이상(46.4%), 남성(35.7%), 고졸 미만(45.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46.7%), 농촌(40.1%)일수록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의견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각 연도별(2006년, 2016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연령 분포는 18-29세가 42.4%, 33.0%(▽9.4%p), 30-39세가 45.0%, 24.1%(▽20.8%p), 40-49세가 51.1%, 25.3%(▽25.8%p), 50-59세가 40.8%, 33.9%(▽6.9%p), 60대 이상이 57.0%, 46.4%(▽10.6%p)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49.5%, 35.7%(▽13.8%p), 여성이 46.0%, 33.9%(▽12.1%p)를 차지한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미만이 50.0%, 45.3%(▽4.7%p), 고졸이 50.1%, 29.4%(▽20.7%p), 대재/전문대/대학중퇴가 44.7%, 30.7%(▽14.0%p), 대학 졸업 이상이 45.2%, 32.8%(▽12.4%p)이다. 소득 분포는 100만 원 미만이 52.6%, 46.7%(▽5.9%p), 100-199만 원이 47.2%, 35.2%(▽12.0%p), 200-299만 원이 51.2%, 25.2%(▽26.0%p), 300-399만 원이 44.3%, 29.6%(▽14.7%p), 400-499만 원이 43.6%, 35.7%(▽7.9%p), 500만 원 이상이 46.4%, 32.8%(▽13.6%p)로 나타났고, 지역 분포는 대도시 44.3%, 33.7%(▽10.6%p), 중소도시 48.8%, 33.5%(▽15.3%p), 농촌 50.8%, 40.1%(▽10.7%p)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인구가 가장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각 연령 집단별 절반 이상이 결혼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06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30대와 50대의 이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2016년의 조사결과는 2006년과 상반된다.

## 제4절 소결

### 1. 연구의 요약

#### 1) 초혼 연령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전체 31.3세, 남성 32.6세, 그리고 여성 30세이다. 2016 자료의 적절한 초혼 연령 질문의 평균 초혼 연령은 전체 29.9세, 남성 31.3세, 그리고 여성 28.7세이다. 실질적 평균 초혼 연령이 적절한 연령 보다 조금 많다. 남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적정 초혼 연령(31.0세)과 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적정 초혼 연령(31.4세)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적정 초혼 연령(28.3세)과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결혼 적정 연령(29.0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의 적정 초혼 연령을 많게 생각하고 있다.

#### 2) 출산의 필요성

2006과 일관되게 2016년에도 60세 이상, 남성, 고졸 미만, 소득 100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비교적 강하게 반대한다. 2016년에는 남성(12.4%)에 비해, 여성(24.4%)이 더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10%p△).

#### 3) 결혼 = 행복!

2016년에는 60세 이상, 여성, 고졸 미만, 소득 100만원 미만, 농촌에 거주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결혼한 남자가 행복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보다 결혼한 여자가 행복하다고 여긴다.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하지만,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2006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한 남성이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2016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한 남성이 행복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4) 동거

2006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도 60대 이상, 여성, 고졸, 소득 100-199만원 이

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동거에 대해 부정적이다. 동거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성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2006년(65.1%) 보다 2016년(54.5%)에 동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소하였다(10.6%p▽).

#### 5) 이혼: 자식, 해결책

이혼과 관련된 두 가지 태도에 있어서, 2006과 2016년에 60세 이상, 남성, 고졸 미만, 소득 100만원 미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비슷하게, 2006과 2016년 모두 60대 이상, 남성, 고졸 미만(2006년)/고졸(2016년), 소득 100만원 미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이혼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에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원만하지 않은 생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이혼에 대해, 2006년과 다르게, 2016년에는 30대 그리고 50대도 더 긍정적이 되었다. 이혼이 원만치 않은 부부생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더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 6) 아버지의 권위

2016년에는 60대 이상, 여성, 고졸, 소득 300-399만원,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권위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2016년과 비교하여 2006년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찬성빈도가 높았던 점이다.

#### 7) 부모에게 명예로운 자식

2016년에는 60대 이상, 여성, 고졸 미만, 소득 100만원 미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식이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는데, 이러한 의식은 2006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는 11%p감소하였다. 2016년과 다르게, 2006년에는 남성, 대도시 사람이 더 찬성했다는 여성, 농촌 거주 사람 보다 더 찬성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8)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선호

60대 이상, 남성, 고졸 미만, 소득 100만원 미만, 농촌에 거주할수록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06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는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

선호가 크게 감소하여 더 이상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다(57% vs 41%).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대재/전문대/대학 중퇴의 교육수준의 사람들이 남아선호에 대한 반대가 2006년 24.6%에서 2016년 48.6%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 9) 가족 > 개인

2006년 그리고 2016년에도 60대 이상, 남성, 고졸 미만, 소득 100만원 미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성하였다. 두 년도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개인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결과는, 아직도 이념적이건 상황적이건 아니면 제도적이건 가족주의의 강한 전통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지난 10년간 가족태도는 변화와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변화를 보면, 남아선호(가계 계승을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에 대한 태도는 2006년(56.7%)에서 2016년(40.8%)에 15.9%p의 차이를 보였으며, 아이의 필요성(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2006년(77.7%)에서 2016년(62%)로 15.7%p 감소하여, 가족주의 관련 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다음으로, 결혼생활의 갈등해결방법으로 이혼을 최선책이라는 의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2006년(47.6%)에서 2016년(34.7%)로 12.9%p,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태도는 2006년(63.3%)에서 2016년(51.2%)로, 12.1%p, 부모-자식 관계(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에 대한 가치는 2006년(74.7%)에서 2016년(63.7%)로 11%p,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태도는 2006년(57.1%)에서 2016년(46.4%)로 10.7%p, 동거에 대한 태도는 2006년(65.1%)에서 2016년(54.5%)로, 10.6%p, 개인과 가족관계(자기 자신 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는 2006년(79.9%)에서 2016년(69.7%)로 10.2%p 감소하였는데, 이 변수들 역시 10%p 이상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모든 가족태도가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연령차이, 아버지의

권위, 자식을 위한 이혼 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의 연령에 대한 태도 2006년(43.4%)에서 2016년(35%)로 8.4%p, 아버지의 권위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 역시 2006년(84.3%)에서 2016년(78.1%)로, 6.2%p 감소하였으며,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대한 태도가 2006년(55.8%)에서 2016년(54.8%)로 가장 적은 폭(1.0%)으로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가족주의태도가 쇠퇴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자녀 성장 이후로 생각하는 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은, 가족주의의 대표적인 요소인 부모-자녀관계 우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안정성을 의미함을 뜻하고, 황혼이혼의 증가에 반영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대체로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고, 농촌에 거주할수록 전통적 가족주의 태도를 견지하지만, 가족주의 태도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개인보다는 가족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남아선호적인 생각이 강하다. 반면,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결혼생활의 갈등 해결 방법으로써 이혼을 긍정으로 생각하며,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2016년 경우),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보다 스트레스가 많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Chang and Kim, 2015),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Yamamura and Andres, 2015), 결혼생활의 갈등 해결방법으로써 남성에 비해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연구결과와 일관된다(Yang and Yen, 2011).

또한, 연령에 따라 가족 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모든 가족 가치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남아선호 가치는 20대(24.8%) 보다 60대 이상(69.9%) 노인인구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45.1%p로 세대 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결혼생활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태도에 대해서는 20대(45.9%)와 60대 이상(37.2%)의 차이가 8.7%p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 행위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가족 태도의 수준이 결정되며(Garza and Gallegos, 1985), 세대 간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가족주의가 발현되는 방식과 영역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Sabogal et al., 1987).

본 연구는 2006년과 2016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주의와 연관된 태도를 탐색하

여 10년간의 변화를 성별, 연령, 교육, 소득, 그리고 지역으로 상세히 파악하려고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10년 주기의 두 번의 자료만 이용하였다는 점, 장기간의 가족주의 및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지 못한 점, 그리고 가족주의와 결혼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 관련 태도가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아울러 성별, 또는 세대 간의 차이가 가족주의 관련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성별에 따라 가족 태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은 결혼 후 출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교육 변수는 가족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Jones and Yeung, 2014),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족 태도를 지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며, 기혼 여성들의 경우, 가정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아직 우리사회에서 합리적인 가사 분담은 실제 가정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따라서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가족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가족 태도의 변화와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모든 연령에서 전통적 가족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가 감소하였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그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젊은 층의 미혼율과 1인 가구(독거노인가구 포함)의 증가 등 가족의 소규모화와 향후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쇠퇴가 전망됨을 예상할 때, 전통적 가치관에 기초한 현재 가족 관련 정책들의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새로운 가구 형태에 맞춰 가족이 책임졌던 역할 및 기능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제 6 장

# 세대 간 교환관계 I : 세대 간 교환관계 이론의 한국적 적용과 발전방향 모색

제1절 서론

제2절 세대 간 관계에 관한 이론

제3절 한국의 사회변동과 세대 간 관계의 변화

제4절 사회의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관계 이론의 발전 모색

제5절 결어 및 토의



# 6

## 세대 간 교환관계 I : << 세대 간 교환관계 이론의 한국적 적용과 발전 방향 모색

### 제1절 서론

#### 1. 문제제기

정재기는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와 만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아짐을 발견하였다(정재기, 2007).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한 14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경향이었으며,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세대 간 관계는 이미 상당히 도구적인 특성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국가들은 효에 기반한 세대 간 관계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왔다(Kim & Maeda, 2001).

이처럼 전통적 가족주의와 도구적 성격이 결합한 세대 간 관계의 구체적 특성과 원인이 좀 더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2010년 중반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그냥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최고의 수준이다. 젊은이들은 갈수록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고 있으며, 자식을 낳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각 세대는 밝지 않은 각각의 전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최근의 변화들이 어떻게 세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 한국의 세대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발전을 모색해 보려 한다.

#### 2. 연구질문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세대 간 관계를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이론적 해답을 찾는 데 주력하려 한다. 즉, 우리나라의 세대 간 관계가 가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현대

한국의 가족주의는 어떤 특성을 띠고 있으며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10년전 이미 우리나라 가족주의의 도구적 측면이 강함이 밝혀졌다면 현대 한국 사회는 그 도구적 성격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색하려 한다.

### 3. 보고서의 구성

다음 제2절에서는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을 정리하고 검토하려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는 크게 규범론과 교환론으로 나누어 본 후, 두 이론적 경향이 어떻게 상호 환원될 수 있는지 살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환원으로부터 세대 간 관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다음 3장에서는 우선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앞서 살펴본 이론들에 근거해서 비교, 정리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세대 간 관계 변화에 대해서 정리,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세대 간 관계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가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변동은 2006년과 2016년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의 결과를 비교한 변동을 기준으로 이론을 평가해보려 한다.

다음 4장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적 방향을 모색한다. 동아시아 비교 연구에 대한 평가로부터는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세대관계 연구를 넘어설 필요성을 지적하려 하며, 우리나라의 세대 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로부터는 최근 인구사회변동의 맥락을 세대 관계 연구에 통합할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최근의 인구사회변동을 몇 가지로 나누어, 각 변동이 어떻게 세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도출해보고, 그러한 도출과 연관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려 한다.

## 제2절 세대 간 관계에 관한 이론

### 1. 세대 간 사회적 지지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세대 간 관계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가, 즉 어떤 종속변수를 탐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자면, 세대 간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지지(support)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성년이 되어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을 한 자식과 그 부모 간의 지지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와 분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성년이 된 자식에게 해주는 지지보다는 받는 지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처럼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가 받는 지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데는, 노년기 삶의 질이나 건강, 장수 등에 있어서 그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Everard et al, 2000). 더구나 노인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회활동 범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많이 되었다. 이러한 가족간 지지 중에서 부부간 지지관계나(안경숙, 2005) 자녀로부터의 지지의 중요성(김미령, 2012)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후자에 대한 연구라 볼 수 있다.

세대 간 사회적 지지에는 경제적 지지(financial support),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등이 있다(Chen & Silverstein, 2000). 경제적 지지란 말 그대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다른 사회적 관계에 비해 세대 간 관계에서 많이 연구된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경제적 지지가, 부모가 은퇴 후에는 자녀의 경제적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구적 지지라 함은 청소나 식사준비, 자녀 돌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에는 건강 돌보기가 중요하게 포함될 수 있으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에는 손자녀 돌봐주기가 중요하게 포함될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대화나 연락,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고 축하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지 외에 주로 살펴보는 변수는 세대 간 동거형태(living arrangement)다. 즉, 성인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사는지, 몇 세대가 같이 사는지 등이다. 이처럼 동거형태가 주로 연구되는 근본적 이유는 사실 동거형태에 따라 세

대 간 지지의 수준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나 건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Dean et al., 1992). 경험적으로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유성호, 1997; 정혜영, 이동숙, 2000),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이러한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다(이민아 외, 2011).

이상의 논의를 정의하자면 세대 간 관계는 주로 세대 간 흐르는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조사되어 왔으며, 그러한 세대 간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대 간 동거형태도 많이 연구되어 왔다.

## 2. 규범론과 교환론

세대 간 흐르는 사회적 지지 혹은 지원이 주요 관찰대상이라면, 그러한 지원이 흐르는 경향과 원인에 대한 연구가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주요 이론이 된다. 즉, 세대 간 지원은 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따라 이론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세대간 지지가 한 방향으로 흐르면 그 원인을 주로 규범론에 입각해 이론화하고, 양 방향으로 흐르면 그 원인을 교환론에 입각해 이론화하게 된다.

규범론과 교환론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6-1>과 같다. 우선 성인 자녀와 노년기 부모 간 지지의 방향을 보자면 규범론은 주로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흐름을 중요시(한은주, 김태현, 1994)하는 한편, 교환론은 자녀와 부모 간 양방향 흐름 모두를 중요시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지의 동기는 효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요인이라면 부모 자녀간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지지의 동기는 양측이 주고받는 호혜성이라는 가치라 할 수 있다.

〈표 6-1〉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규범론과 교환론

|           | 규범론       | 교환론      |
|-----------|-----------|----------|
| 지지의 방향    | 일방향       | 양방향      |
| 지지 제공의 동기 | 효         | 호혜성      |
| 환원론적 특성   | 거시 문화적 요인 | 미시 등가 교환 |
| 지역 유관성    | 동아시아      | 서구       |
| 시대 유관성    | 과거        | 현대       |
| 주요 지지 제공자 | 아들/장자     | 모든 자식들   |
| 주요 지지 축   | 부계        | 양계       |

효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론은 주로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세대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이러한 설명을 위해 발전해 왔다면 호혜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환론은 서구의 그것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도 세대 간 교환관계가 좀 더 양방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환론적 설명이 더 자주 시도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최근 연구들은 그러한 이론 틀을 차용하고 있다(박경숙, 2003; 정병은, 2007). 세대 간 교환관계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규범론대 교환론의 구분과 논리적으로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특성은 지지를 주로 제공하는 자녀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자녀의 지지가 흐르는 축이 부계인가 모계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효를 중요시하는 동아시아적 규범론에서는 아들, 특히 첫째 아들의 의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Choi, 1970). 반면 호혜성을 중요시하는 교환론에서는 아들이건 딸이건 모든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아들의 의무 대 모든 자녀의 의무의 차이는 지지가 흐르는 축이 부계(paternal) 중심으로 흐르는가 모계(maternal)쪽으로도 흐르는가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 아들의 의무를 중요시 하던 유교권 문화에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중요한 지원은 부계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딸들은 본인의 부모를 보살피기 보다는 결혼 후 남편의 부모를 보살필 의무가 중요하다. 그러나 딸들에게도 세대 간 보살필 의무가 중요한 경우는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특히 기혼여성도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현대 사회의 경우, 자녀양육의 부담을 친정

엄마와 나누고 친정 엄마에 대한 여러 지원을 하는 경우처럼, 모계를 통해 흐르는 상호 호혜적인 지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 3. 규범론과 교환론 간 환원과 사회변동의 효과

그렇다면 이러한 규범론과 교환론의 구분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 혹은 불가능한가? 바꾸어 말하면 규범론을 교환론으로 이해하고 반대로 교환론을 규범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본 보고서는 그러한 상호 환원론적 설명이 가능하며, 그렇기에 이미 2004년에 우리나라의 세대 간 관계가 보인 도구적 가족주의(정재기, 2007)가 규범론적 틀이나 교환론적 틀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론적인 가족주의와 교환론적인 도구적 성격의 결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중요하게는 규범론과 교환론이 상호 환원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변동에 따라 세대 간 교환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규범론에서 지지의 방향이 일방향적이라는 특성이 어떻게 교환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는 성인기 자녀 혹은 노년기 부모의 생애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데, 자녀가 유아기나 청소년기 생애과정일 때는 지원이 부모로부터 자녀로 일방향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범론적 세대 간 관계도 장기적으로는 양방향적, 교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 자녀들의 높은 교육 성취는 유교문화권 부모들의 헌신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Choi & Nieminen, 2013). 정리하자면, 성장기 자녀에게 부모가 해줘야 하는 규범적 보살핌과 노년기 부모에게 해줘야 하는 규범적 보살핌의 의무는 장기적으로 등가적이거나 호혜성이 기반한 교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규범론적 세대 관계를 생애과정 전체에 걸쳐 교환론적으로 해석해보는 장점은,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이 어떻게 세대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세대 간 교환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부모의 헌신도 길어질 것이다. 한편 자녀의 연령에 따른 효 규범이 작동하여 자녀는 부모에 대한 지지를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청년취업난이 증가할수록 세대 간 관계는 동시적, 호혜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약화되고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더

호혜적, 평등적으로 바뀐 결과라고 해석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보다는 생애과정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지지의 두 방향이 이제 노동시장의 여건 상 겹치는 시기가 길어지는 현상, 즉 여전히 동아시아적 가족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반대로 교환론적 세대 간 관계도 규범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환론에는 근본적인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 깔려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는 지지가 결국 등가적인 수준에서 교환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환에 참여하는 양자, 즉 부모와 자식이 그러한 합리성을 굳이 계산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어떠한 사회적 약속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행위자는 그러한 약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교환론적 관점에서 그러한 약속은 흔히 규범으로 제도화되는데, (Blau, 1986) 세대 간 호혜성이 바로 세대 간 등가교환을 보장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환론적 세대관계를 규범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역시 사회변화에 따른 세대 간 관계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역시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데 반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제도가 사회적으로 지체되는 것은 세대 간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지체상황에서 일하는 여성은 자녀의 양육을 친정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세대 간 지지 교환의 장기적 등가성이 무너지고 부모의 부담을 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이 장기화된다면 사회는 등가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아들 뿐 아니라 딸의 효를 강조하는 규범이 퍼질 수 있다. 이러한 딸의 효 의무의 강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주의 효 규범이 남녀평등적 가치관의 증가와 결합하여 의도하지 않게 딸에게까지 확대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하는 기혼여성의 증가라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원인이라면, 이는 효 규범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호혜적 등가교환을 회복하기 위한 교환론적 기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제3절 한국의 사회변동과 세대 간 관계의 변화

#### 1. 세대 간 관계 자료 및 변수

본 절의 자료 및 변수에 대한 소개는 동아시아 사회조사(EASS)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소개는 향후 세대 간 관계를 조사하는 사회조사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준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소개의 목적은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거나, 반대로 경험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을 평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조사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가. 자료

본 장에서는 동아시아와 대한민국의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자료를 앞에서 검토한 이론에 근거해 해석하고 정리해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검토할 자료와 변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는 동아시아 비교가 가능한 EASS(East Asian Social Survey)를 활용하려 한다. EASS는 동일한 문항들을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4개국에서 동일한 시기에 조사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ASS는 각 국가의 종합사회조사의 조사모듈로 들어가 조사되어 왔다. 세대 간 관계에 대한 EASS 모듈은 2006년과 2016년 조사되어, 10년 간격을 두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2016년 EASS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미 조사가 되어 분석이 가능하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아직 조사설계이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2016년 EASS에 포함된 세대 간 관계 문항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다른 보고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 국가간 세대 간 관계 비교는 2006년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된 기존 논문을 요약, 소개할 것이며, 2006년과 2016년 사이 우리나라 세대 간 관계의 변화도 분석내용을 정리하여 큰 흐름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할 것이다.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변화 내용은 다른 보고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 나. 변수

앞 장에서 검토했듯이 분석의 주요 변수는 사회적 지지 및 이와 관련된 세대 간 동거형태이다. 사회적 지지는 다시 경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나뉜다. EASS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지지 각각에 대한 세대 간 사회적 지지에 관한 규범적 태도도 묻고 있어서 규범이 사람들의 가치로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지, 그러한 가치가 10년 동안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6-2>와 같다.

경제적 지지 행위는 비교적 간단히 물어볼 수 있는 반면, 도구적 지지는 “청소, 식사 준비” 등으로 예를 들어 질문을 한다. 더불어 도구적 지지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지지냐에 따라 예가 달라진다. 지지를 받는 대상이 응답자 본인이면 응답자의 부모이건 노년기 어른일 경우는 “건강을 돌봐주기”가 예로 포함되는 반면, 성인기 자녀가 지지를 받는 대상자일 경우는 “자녀를 돌봐주기”가 예로 포함된다. 건강 돌봐주기와 자녀 돌봐주기는 도구적 지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 지지는 사회조사를 통해 그 정도를 조작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나는 빈도와 연락하는 빈도를 물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만나는 빈도와 연락 빈도는 EASS 모듈에서 묻지 않고,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반복질문에 해당한다.

규범적 태도에 대한 질문은 지지의 종류별로 나누어 묻지 않고 경제적 지지에 대한 태도만 묻거나 전반적인 부양책임에 대해서 묻는다. 경제적 지지에 대한 질문은 제공자를 기혼 남성, 여성인 경우로 나누고, 수혜자는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로 나누어 질문하기 때문에, 규범이 부계 중심에서 모계로 확장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6-2> 세대 간 관계 변수: 2016 EASS 기준

| 변수 개념  | 응답 보기  | 조사 범위   |
|--------|--|---|
| 경제적 지지 |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5점 척도  | 본인 → 부모   |
| 도구적 지지 |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혹은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주기” | 부모 → 본인   |
|        |  | 본인 → 배우자 부모<br>배우자 부모 → 본인<br>본인 → 성인 자녀<br>성인자녀 → 본인 |

| 변수 개념             | 응답 보기  | 조사 범위   |
|-------------------|--|---|
| 정서적 지지: 만나는 빈도    | (00) 같은 집에 살고 있다<br>(01) 거의 매일<br>(02) 일주일에 몇 번<br>(03) 일주일에 한 번 정도<br>(04) 한달에 한 번 정도 | 본인[배우자]의 부친[모친] 각각에 대해 총 4번 질문.<br>동거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만나는 빈도와 연락 빈도만 질문 |
| 정서적 지지: 연락 빈도     | (05) 일년에 몇 번<br>(06) 일년에 한 번 정도<br>(07) 일년에 한 번 미만                                     |   |
| 동거 형태             | (01) 결혼한 아들<br>(02) 결혼한 딸<br>(03) 결혼 안한 자녀<br>(04) 배우자와 단둘이<br>(05) 혼자서<br>(06) 양로시설   |   |
| 규범: 경제적 지원        | “전적으로 찬성” 부터 “전적으로 반대”까지 7점 척도   | 기혼 남성[여성]이 본인[배우자] 부모에게 해줘야 하는지, 총 4개 질문                              |
| 규범: 나이든 부모 부양의 책임 | 다음 중 택1: 장남, 아들, 딸, 아들 딸 상관없이 누구든, 자녀들 공동, 아무도   |   |

전반적인 부양의 책임에 대한 질문은 책임의 주체가 아들인지, 장자인지, 상관없는 지, 심지어 자식은 책임이 전혀 없는지 등을 묻고 있어서, 규범이 장자 혹은 아들 선호에서 모든 자식에게 확장되는지, 아니면 성인자녀들로부터 독립된 생활규범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2. 동아시아의 세대 간 관계

### 가. 세대 간 동거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이론들과 변수들, 자료 중심으로 동아시아 4개 국가들, 즉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간의 세대 간 관계를 비교해 보려 한다. 우선 4개국의 센서스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국가들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자녀와 함께 사는 65세 노인의 비율은 꾸준히 그러나 꽤 빨리 감소해 왔다(Yasuda et al., 2011). 세대 간 동거여부는 주로 보모 세대나 자식 세대간 지원의 필요성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Pimental and Liu, 2004) 서로 긴밀한 지지의 필요성이 줄어들다 보면 동거의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근대화에 따른 유교적 규범론의 약화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대적 교육이 서구보다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에서는 20여년만에

꽤 빠른 세대 간 동거 감소를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Yasuda et al., 2011).

이처럼 세대 간 동거율의 감소를 공통적으로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대 간 동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사용하는 자료와 관심변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2006 EASS 자료를 사용한 연구(Yasuda et al., 2011)에 따르면, 4개국 모두 동거의 아들 선호 경향이 강해서 남편이 형제가 있을 경우 세대 간 동거확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유교적 규범론의 영향이 4개국 모두에서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타이완은 농촌지역의 세대 간 동거율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3세대 확대가족을 바림직하다고 생각할 때 세대 간 동거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 되어 유교적 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도농차이나 확대가족에 대한 규범의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본은 손자 양육의 필요성에 의해, 한국은 아내의 직장 요인 등에 의해 세대 간 동거가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세대 간 동거는 줄어왔고, 2000년대 중반에도 아들 자녀 중심으로 동거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만과 중국은 규범론적 원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세대 간 상호지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결정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표 6-3> 동아시아 4개 지역 간 세대 간 동거 변화와 결정요인, 2006 EASS 근거

| 구분 | 동거율 변화             | 동거 결정 요인    |
|----|--------------------|-------------|
| 한국 | 25년간 꾸준히 혹은 빠르게 감소 | 세대 간 지지의 교환 |
| 일본 |                    | 유교적 가치나 규범  |
| 대만 |                    |             |
| 중국 |                    |             |

## 나. 세대 간 지지

EASS는 경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에 관한 세대 간 양방향 교환을 묻고 있다. 또한 만나는 빈도를 통해 정서적 지지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4개국을 비교한 연구(Lin and Yi, 2013)에 따르면, 4개국 모두에서 아들이 딸보다 경제적 지지를 더 많이 하였고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 즉, 4개국의 성장한 기혼 아들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일상적인 집안일 등의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부모에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가부장적인 권리와 책임감이 4개국 공통으로 규범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지의 측면에서 다른 3개 국가 가장 다른 특징을 보였는데, 딸들이 아들보다 훨씬 부모세대를 많이 만나 정서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구적 지지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지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탐구는 4개국 간 차이점을 잘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종속변수가 최소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 등으로 나뉘는 데다, 지지의 방향도 자식과 부모 간 양방향 각각 조사해야 하고, 심지어 자식 세대는 아들과 딸, 부모 세대는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 각각을 봐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가 가능한 각각의 지지 변수마다 4개국 간 차이점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지 변수 간, 그리고 4개국 간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경제적 지지는 세대 간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반해 도구적 지지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Lin & Yi, 2013). 즉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지를 적게 받는 자식이 부모에게는 경제적 지지를 많이 하는 반면, 도구적 지지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많이 받는 자식이 부모에게도 많이 한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지를 많이 받는 자식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지가 아닌 도구적 지지로 되갚는다.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4개국의 세대 간 지지는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교 문화권의 규범론적 특징을 보이나, 지지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세대 간 오고가는 양상을 본다면 경제적 필요에 의해, 그리고 상호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환론적 특성을 보인다. 결국 앞에서 논했듯이 교환론과 규범론이 배타적 성격이기보다는 상호 환원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한국의 세대 간 관계 변화: 2006년과 2016년

지금까지는 2006년 EASS 동아시아 국가 간 비교를 세대 간 동거와 지지를 중심으로, 규범론과 교환론의 큰 틀에서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세대 간 동거와 지지 행동, 관련 가치관이 2006년과 2016년, 즉 지난 10년 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동아시아 3개국의 2016년 EASS 자료는 아직 분석에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려 한다.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른 보고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최근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의 발전 및 미래 이슈 발굴에 중요한 변화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표 6-4〉는 2006년과 2016년 지난 10년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지에 대한 규범적 태도는 특히 여성과 30, 40대에게서 약화되었다. 미혼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지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특히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을 고려했을 때, 최근 젊은 층과 여성들이 느끼는 취업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도구적 지지에 대해서는 부모와 주고받는 모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대도시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지지에 대해 좀 더 호혜적 가치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6-4〉 세대 간 지지에 대한 규범과 행동의 변화, 2006년과 2016년 EASS 비교

| 변수 개념                | 규범적 태도                                      | 지지 행동                  |
|----------------------|---|------------------------|
| 경제적 지지               | 전반적 약화. 30대와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짐                   | 본인부모와는 늘고 배우자 부모와는 줄어듦 |
| 도구적 지지               | 자녀와 부모간 양방향 모두에 대해 전반적 강화. 특히 대도시에서 강화.     | 10년간 확연히 늘어남           |
| 정서적 지지: 만나거나 접촉하는 빈도 |   | 장남 중심에서 장녀 중심으로        |
| 세대 간 동거              |   | 줄어듦                    |
| 나이든 부모 부양의 책임        | 장남과 아들 중심에서 모든 자녀 공동의 책임으로 30, 40대 중심으로 변화. |                        |

경제적 혹은 도구적 지지에 대한 유교 문화권의 규범적 태도가 약화되었다면 실제 지지 행동은 특히 본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지지의 교환이 규범적 동기보다는 상호성의 동기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짐을 뜻한다. 더구나 배우자보다는 본인 부모 중심으로 지지가 일어난다는 점은 더욱 그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규범과 행동 중 어떤 것이 더욱 변화가 빠른가? 정서적 지지를 본다면 후자라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가장 많이 연락하거나 만나는 대상이 장남과 아들이었다면 2016년에는 확실히 장녀와 딸로 변화했다. 정서적 지지의 측면에서는 이제 부계중심에서 양계중심을 넘어 모계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가 동거에 따른 잦은 접촉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많이 접촉하거나 만나는 자녀와의 동거 비율은 10년 사이에 뚜렷이 줄어들었다.

#### 4. 소결

본 보고서의 시작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미 도구주의적 가족주의를 보이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같은 시기 동아시아 4개국 비교를 통해 대만과 중국은 규범론적 원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나, 한국이나 일본은 세대 간 상호 지지의 필요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점들은 적어도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 한국의 세대간 관계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더 빨리 변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변화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의무감을 덜 느끼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부양의 책임을 아들 중심으로 사고하는 규범에서 벗어나고 모계 중심으로 정서적 지지의 축이 변화한 것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치관 변화 모두의 영향일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도구적 지지 모두 결혼 후에도 본인 부모 중심으로 10년 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은 상호적 교환이 더욱 긴밀하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그로 인해 추론해볼 수 있는 규범적 변화, 그리고 경제적 조건 및 노동시장의 조건 등은 세대 간 교환이론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예를 들어 긴밀한 상호적 교환의 증가는 세대 간 결속(Bengtson et al, 1991)이 강화됨을 의미하는

가? 다음 장에서는 세대 간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검토하면서 이론적 함의를 논하려 한다.

## 제4절 사회의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관계 이론의 발전 모색

### 1. 세대 관계 양면성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2장에서는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정리, 통합적으로 해석해보았고, 3장에서는 동아시아 및 한국의 경험적 연구와 자료의 특성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보고서에서 탐색하려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및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이론과 조사설계의 향상 방안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 이론 및 연구의 한계점을 우선 짚어보려 한다.

동아시아 세대 간 관계 이론 및 조사의 한계점은 우선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2장에서 언급했듯이 지지 혹은 지원이 노년기 삶에 중요하고 더불어 세대 간 동거도 지지의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관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유교적 규범의 영향 하에 여전히 있으면서 서구근대적인 변화를 압축적으로 겪는 경우는, 세대 간 규범의 불일치라던가 규범과 경제적 조건 간의 간극 등이 심할 수 있다. 즉, 세대 간 관계는 지지나 지원 뿐 아니라 갈등이 오가는 관계일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히는 지지와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다.

지지와 갈등은 사람 간의 친밀 관계에서는 서로 환원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지지를 서로 많이 주고받는다 하고 해서 갈등이 적다고 할 수 없고, 갈등이 많다고 지지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서로가 환원할 수 없기에 둘은 공존이 가능하고 이처럼 공존하는 세대관계의 양면성(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Lüscher, K., & Pillemer, K., 1998)은 그 자체로 이론화되고 연구되어야 할 측면이며, 동아시아 뿐 아니라 어느 문화권의 세대 간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갈등의 측면과 양면성을 연구할 필요성은 앞서 살펴 본 최근 우리나라 세대 간 관계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분명 유교 문화적 규범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세대 간 교환이 친부모와의 사이에서 뚜렷이 강화되는

측면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지원의 필요 등이 얽혀 있어, 가치관의 자연스런 변화라기보다는 결혼과 육아와 관련된 삶의 제반 조건이 변하면서 강요된 측면이 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위 문화적 지체(cultural lag: Ogburn, 1950)가 일어나면서 갈등의 측면이 강화되고, 세대 간 관계는 결과적으로 특정 형태의 양면성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양면성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한 이론과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향후 세대 간 관계에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 2. 사회 변동과 세대 관계의 변화

동아시아 세대 간 관계가 연구가 이론적으로 갈등론적 측면과 이를 넘어선 양면론적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 경험적으로는 최근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반영은 특히 향후 세대 간 관계를 예측하고 정책적,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는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것처럼 세대 간 관계의 변동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 가. 청년 취업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2010년 이후 3%에서 4%사이를 유지해 온 반면 청년 실업률은 8.5% 수준에서 2015년 10.2%까지 올랐다(한국일보, 2015.05.13.).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과 이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세대 간 교환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부모의 헌신도 길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이미 “캥거루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통계청 기준 2013년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자녀수는 10년 전에 비해 65% 가량 늘었고, 전체 가구의 16% 이상을 차지한다(최연실, 2014).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자녀의 연령에 따른 효 규범이 작동하여 자녀는 부모에 대한 지지를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청년취업난이 증가할수록 세대 간 지지는 더욱 상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적 지지는 전통적 규범이 호혜적 교환으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생애과정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지지의 두 방향이 이제 노동시장의 여건 상 겹치는 시

기가 길어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녀가 독립해야 하는 생애과정에 접어들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지원을 해주는 상황, 효 규범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희생 규범이 유효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지난 10년간 도구적 지지의 상호성 증가도, 유교적 규범론의 약화보다는 부모 세대의 규범적 지체 현상이 더 중요한 원인인지도 모른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심도있는 분석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이론과 조사는 이러한 규범적 지체 현상과 그에 따른 양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맞벌이는 어느덧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즉, 결혼 후 일하는 여성은 성취동기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직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취업여성의 삶의 단계마다 돌봄과 사직 간 선택을 강요하곤 한다. 실제로 전해진(2016)의 연구는 여성의 사직요인이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1~2년 간격으로 달라지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출산 후에는 사직을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사직 위험률은 V자 모양을 보여 임신 중 보다 출산 후 1~2년 사이에 많이 증가하여, 양육의 현실은 여성이 출산 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도구적 지지는 기혼 여성, 아니 부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은 특히 친정부모에게 많이 의존할 수 있는데, 최근 모계 중심으로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증가 등은 이러한 동기에 의해 기혼 여성이 받은 도구적 지지를 갚는 지지 제공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구적 지지(부모→일하는 기혼 여성)와 정서적 지지(기혼 여성→부모)의 교환은 세대 간 관계를 더 결속적으로 만드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교환론적으로 보자면 주고 받음이 등가적인가를 조사해봐야 할 테고, 규범론적으로는 이러한 지지 교환을 정당화하거나 촉진해줄 규범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규범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난 10년간 특히 여성에게서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본인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지(집안일이나 건강 돌보기 등)를 제공하는 것에 한

해서는 긍정적 태도가 늘었다. 이는 결국 교환론적 필요에 의한 규범의 내면화로 일단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유보적인데, 이러한 경향은 부모가 도구적 지지가 별로 필요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일하는 여성에 대한 돌봄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세대 간 지지 제공이 노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게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OECD 최고로 빠르고 노인 빈곤율 역시 최고로 높다. 이러한 수치는 향후 우리나라 빈곤 노인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 이에 따른 부양비(dependency ratio) 악화의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즉,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뿐 아니라, 가난한 노인 및 청년 실업률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젊은 층이 져야 할 경제적 지지의 의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에서 검토했듯이 젊은 층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부모랑 동거를 하기도 하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지의 규범이 약화되고 있다. 부모와의 동거 비율도 감소하고 있으며, 상호적 지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난한 부모 세대의 삶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도구적 필요에 의한 세대 간 동거는 증가하는 반면 규범적 당위에 의한 동거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동거에 존재하는 세대 간 갈등이나 양면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향후 제도는 어떻게 상황개선이나 예방에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세대 간 동거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에 맞게 사회적 제도를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면, 원하지 않는 세대 간 동거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이 자녀 가구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국가에서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성인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혹은 일하는 여성의 육아보조 제도를 잘 갖추는 것은 젊은 층의 생산성을 높여 부양비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라. 노후 전망과 대응

고용 불안(precarious jobs)은 전세계적 현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고용 불안이 삶에 어떤 영향을 왜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Kalleberg, 2009). 상시적 고용불안이 우리 사회 세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고용불안은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낳고, 이러한 불안은 전 세대에 비해 삶이 못할 수 있다는, 즉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을 수 있다. IMF 금융위기 직후 노동시장에 나온 40대 중반, 상시적 불황과 비정규직의 팽창 속에 일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30대 이하 곧 노동시장에 나올 청년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대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 전망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전망이론(prospect theory: Kahneman & Tversky, 1979)에 의해 밝혀진 사람의 성향에 따르면, 우리는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긍정적 전망이 아닌 부정적 전망으로 상황을 해석할 때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위험 추구 행위는 사회적 일탈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위험 추구 행위가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날 때 일탈(deviance)이 된다(Merton, 1964). 부모 세대에 비해 본인의 경제적, 계층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면 자식의 부모에 대한 태도나 행위가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함의는, 각 세대의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갖춰지지 못했을 때 가족 내 세대 간 지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가족 제도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모세대에 비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2016년 KGSS 문항으로 살펴본 경향은 <표 6-5>와 같다. 10점 척도로 주관적 계층 위치를 제시하고 조사한 결과, 현재 계층과 전망 계층 모두 “5” 정도의 위치가 가장 많았으나, 현 계층에 비해 전망 계층에 “7”의 위치가 많았다. 즉, 아직은 부모세대가 되었을 때의 전망 계층이 현재의 계층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변수 간 교차표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한데,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약간은 상향이동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30년 정도 후 어느 정도는 상향 이동의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정해본다면, 표에 나타난 계층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6-5〉 현재의 주관적 계층과 부모 연령때 전망 계층

(단위: %)

|        | 현재 주관적 계층 위치 |        | 부모가 나이가 되었을 때<br>예상 계층 위치 |        |
|--------|--------------|--------|---------------------------|--------|
|        | 빈도           | 유효 퍼센터 | 빈도                        | 유효 퍼센터 |
| 1 최하층  | 44           | 4.2    | 38                        | 3.8    |
| 2 2    | 44           | 4.2    | 37                        | 3.7    |
| 3 3    | 129          | 12.3   | 97                        | 9.6    |
| 4 4    | 168          | 16.1   | 103                       | 10.2   |
| 5 5    | 288          | 27.5   | 221                       | 21.9   |
| 6 6    | 200          | 19.1   | 199                       | 19.7   |
| 7 7    | 130          | 12.4   | 177                       | 17.5   |
| 8 8    | 32           | 3.1    | 99                        | 9.8    |
| 9 9    | 3            | .3     | 24                        | 2.4    |
| 10 최상층 | 8            | .8     | 16                        | 1.6    |
| 합계     | 1046         | 100.0  | 1011                      | 100.0  |

〈표 6-6〉은 두 변수 간, 즉 현재 주관적 계층 위치와 미래 전망 계층 위치 간의 상관 계수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30대로 접어들면 이미 20대에 비해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진다. 즉, 계층이 상승이동하기보다는 현 위치에 고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30대만 되어도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대부분 경제활동이 제한적이거나 하지 않는 응답자들인 만큼, 계층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30대만 되어도 본인의 계층위치가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부모에 대한 규범적 의무감에서 더 쉽게 벗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표 6-6〉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계층과 전망 계층 간 상관계수

| 18-29  | 30-39  | 40-49  | 50-59  | 60세 이상 |
|--------|--------|--------|--------|--------|
| .462** | .626** | .675** | .647** | .754** |

#### 마. 4차 산업 혁명과 사회 재분배 제도

인구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률이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결합한 우리 사회에서는 부양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고, 도구적 가족주의 혹은 세대 간 관계의 양면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논했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이 지속 되어 국민들이 감지하는 세대 간 비교 전망이 부정적이라면 세대 간 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음을 전망해 보았다. 그렇다면 미래의 세대 간 관계는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가? 4차 산업 혁명이 도래와 이에 대비한 사회 재분배 제도의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세대 간 관계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특성이나 속성이 아직 학문적으로 확립되거나 합의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소개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자주 활용되는데, 자주 꼽은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물인터넷(IoT)의 도래다(Schwab, 2016).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관해서는 고령층은 소외층에 속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계 등의 센서가 발달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의 건강상태나 생체반응을 기록하여 인터넷에 통합시키는 사물인터넷이 활용되는 시대가 온다면, 고령층은 더 이상 소외층이 아닐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지금보다 고령층에게 효과적인 지지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고, 이러한 잠재력이 실현될수록 자식 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조직 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은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소수의 손에서 생산되고 승자독식적 경제가 형성될 가능성이다(Schwab, 2016).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사실 전체 인구가 필요한 가치를 일부에 의해 충분히 생산되기 때문인 문제로서, 4차 산업 혁명이 완성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계 이외의 창조적 활동에 전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 활동은 생산된 부를 효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활성화될 수 없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과 고실업에 점점 시달리는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된 가치가 공공재로서 재분배될수록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 될 것이며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규범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제5절 걸어 및 토의

지금까지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을 통해, 횡단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간 비교를, 종단적으로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세대 간 변화를 짚어보고 그 원인, 앞으로의 변화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사회의 변화방향으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되거나 기대되는 세대 간 관계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보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 등을 짚아보았다.

세대 간 관계는 세대 간 지지 관계와 동거 형태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세대 간 지지는 크게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나 동거를 설명하는 틀은 크게 규범론과 교환론으로 나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대 간 관계에서는 유교 문화권의 효 가치를 중시하는 규범론이 우세했으나 최근 교환론적 상호지지가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효 가치에서 호혜성 가치로, 부계 중심에서 양계로, 아들 중심에서 모든 자식들로, 무엇보다 거시적 문화 요인에서 미시적 등가 교환의 중요성으로 세대 간 관계를 설명하는 틀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세대 간 관계가 구체적 관계별 등가교환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는 것은, 세대 간 관계가 각 세대가 처한 노후 전망, 노동시장의 조건, 자녀 교육의 필요성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세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변동 요인들을 짚아보고 각 요인마다 세대 간 관계의 변화 양상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정책적 함의도 도출해 보았다. 동아시아 4개국 중에 어느 나라보다도 노부모 부양의 규범적 의무가 빨리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변화 방향은 어떠할지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다음의 <표 6-7>은 그러한 지금까지의 작업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6-7〉 사회변동이 세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함의 전망

| 사회 변동               | 수반되는 세대 간 관계 변화                             | 사회적 함의   |
|---------------------|---|--|
| 청년 취업난              | 갠거루 족, 동거 연장에 따른 강제된 호혜적 지지 교환 증가           | 규범적 지체에 따른 세대 간 관계의 양면성 부각                         |
|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 모계 중심의 도구적 지지(손자녀 돌봄)와 정서적 지지(노모 돌봄)의 교환 증가 | 비경제적 지지 중심으로 교환론적 필요에 의한 규범의 내면화                   |
| 가파른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률  | 부양비 악화, 상호 필요에 의한 강제된 동거                    | 동거 규범은 이미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과 빈곤 노인 복지를 동시 향상시킬 필요 |
| 젊은 기혼 세대의 부정적 미래 전망 | 사회적 가치나 효 규범으로부터 이탈 가속화                     | 계층적 하강 이동 억제 필요, 대안적 규범 모색                         |
| 4차 산업 혁명            | 노인 세대에 대한 도구적 지지 기술 발전                      | 사회 재분배를 통한 경제 활동 세대의 미래 전망 호전 필요                   |

이러한 정리로부터 분명한 함의 중 하나는 세대 간 관계는 지지 뿐 아니라 갈등, 그리고 지지와 갈등의 총체로서 양면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변동이 경제활동 세대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양육 규범을 그들의 생애과정 후기에까지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세대 간 관계에서 강조하는 효 규범의 이면인 양육 규범이 효 규범과 동시에 작동하기를 현 우리사회는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회조사에서는 세대 간 관계의 이러한 양면성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조사 설계와 문항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대 간 관계의 변화가 경험적으로 맞는지 판별하고, 기대되는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정리한 〈표 6-7〉은 그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이며, 향후 연구는 이 표의 각 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7 장

## 가족 내 세대관계 II: 인식과 지원형태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분석결과

제3절 소결 및 함의



# 7

## 가족 내 세대관계 II: 인식과 지원형태 <<

### 제1절 개요

한국의 가족 내 세대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한국 세대관계의 특징이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강한 가족 부양관, 부계 중심성, 동거지향성 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성인자녀-부모 간 동거경향의 약화,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등 세대관계의 다양화가 주된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두섭 외, 2000; 한경혜, 윤성은, 2004). 즉, 과거에는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구조적 변화와 가치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세대관계의 다양성(Park, Phua, McNally & Sun, 2005)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노후 부양관(김두섭 외, 2000; 이상림, 김두섭, 2002) 및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접촉빈도, 제공받는 지원 등)를 탐색하거나(정경희 외, 2012), 노인부모와 성인자녀 세대 간 지원 행태를 분석(김정석·김익기, 2000; 박경숙, 2003; 조지현 외, 2012; 한경혜, 김상욱, 2010)한 연구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최근에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게 되었고 세대 간 결속도 이전에 비해 중요해지고 있으며(Bengtson, 2001), 가족형태 다양화 등으로 가족 내 세대관계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가족 내 세대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관계 양상을 포착하고,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세대관계 중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및 부모·성인자녀 간 지원행태를 살펴본다. 첫째,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성인 남녀(만 18세 이상)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측정한 항목과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측정한 항목을 분석하였다.

〈표 7-1〉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측정 변수

| 변수                   |   | 2006/2016  |
|----------------------|---|--|
| 성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결혼 한 성인 남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 1: 전적으로 찬성~<br>7: 전적으로 반대  |
|                      | 결혼 한 성인 여자는 본인의 부모(친정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 1: 전적으로 찬성~<br>7: 전적으로 반대  |
|                      | 결혼 한 성인 남자는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 1: 전적으로 찬성~<br>7: 전적으로 반대  |
|                      | 결혼한 성인 여자는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 1: 전적으로 찬성~<br>7: 전적으로 반대  |
| 노부모 부양의 책임           |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장남 또는 그 가족<br>2: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br>3: 딸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br>4: 아들, 딸 상관없이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br>5: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br>6: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책임이 없다<br>7: 기타 |

둘째, 세대 간 교환행태는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지난 1년간 주고받은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이 어느 정도 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만18세 이상 성인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자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의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표 7-2〉 세대교환 행태 측정 변수

| 변수            |   | 2006/2016                        |
|---------------|---|----------------------------------|
| 자녀·부모간 교환행태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 1: 매우 자주 해드렸다~<br>5: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 |
|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예: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봐드리기) | 1: 매우 자주 해드렸다~<br>5: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 |
|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 1: 매우 자주 해주셨다~<br>5: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 |
|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예: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 1: 매우 자주 해주셨다~<br>5: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 |
| 배우자 부모와의 교환행태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 1: 매우 자주 해드렸다~<br>5: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 |
|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예: 집안일 혹은 건강 돌봐드리기)                  | 1: 매우 자주 해드렸다~<br>5: 전혀 해드리지 않았다 |

| 변수                   |  | 2006/2016                        |
|----------------------|--|----------------------------------|
|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 1: 매우 자주 해주셨다~<br>5: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 |
|                      | 지난 1년간 응답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예: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 1: 매우 자주 해주셨다~<br>5: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 |
|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의 교환행태 |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 1: 매우 자주 해주었다~<br>5: 전혀 해주지 않았다  |
|                      |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예: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 1: 매우 자주 해주었다~<br>5: 전혀 해주지 않았다  |
|                      |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 1: 매우 자주 했다~<br>5: 전혀 하지 않았다     |
|                      |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예: 집안일 혹은 건강 돌봐주기)        | 1: 매우 자주 했다~<br>5: 전혀 하지 않았다     |

## 제2절 주요 분석결과

### 1.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측정한 내용과 노부모 부양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측정한 항목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혼 남성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한다는 응답이 75.6%로 가장 많았고, 보통(찬성도 반대도 아님)이라는 응답이 15.0%, '약간 반대+상당히 반대+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9.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내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기혼남성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를 2006년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다소 줄어들고(84.4%→75.6%), 반대한다는 의견은 다소 증가(5.6%→9.4%)하였다.

〈표 7-3〉 기혼 남성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찬성<br>(전적으로+상당<br>히+약간<br>찬성) | 찬성도<br>반대도<br>아님 | 반대(전<br>적으로+<br>상당히+<br>약간<br>반대) | 계<br>(N) | 찬성<br>(전적으로+<br>로+상당<br>히+약간<br>찬성) | 찬성도<br>반대도<br>아님 | 반대(전<br>적으로+<br>상당히+<br>약간<br>반대) | 계<br>(N) |     |
| 전체          | 84.4                          | 10.0             | 5.6                               | 1,595    | 75.6                                | 15.0             | 9.4                               | 1,052    |     |
| 성별          | 남성                            | 84.7             | 9.7                               | 5.6      | 712                                 | 81.5             | 11.1                              | 7.4      | 476 |
|             | 여성                            | 84.1             | 10.2                              | 5.7      | 883                                 | 70.7             | 18.2                              | 11.1     | 576 |
| 월평균<br>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84.7             | 9.0                               | 6.3      | 189                                 | 79.6             | 11.8                              | 8.6      | 152 |
|             | 100-199                       | 82.8             | 11.6                              | 5.6      | 267                                 | 72.4             | 15.2                              | 12.4     | 105 |
|             | 200-299                       | 83.0             | 11.5                              | 5.5      | 330                                 | 67.7             | 18.1                              | 14.2     | 127 |
|             | 300-399                       | 85.6             | 8.5                               | 5.9      | 271                                 | 77.8             | 9.6                               | 12.6     | 135 |
|             | 400-499                       | 87.4             | 6.0                               | 6.6      | 182                                 | 75.0             | 19.6                              | 5.4      | 112 |
|             | 500만원 이상                      | 83.3             | 11.1                              | 5.6      | 306                                 | 77.4             | 14.5                              | 8.1      | 332 |
| 연령          | 18-29                         | 90.9             | 6.4                               | 2.7      | 328                                 | 86.6             | 11.3                              | 2.1      | 194 |
|             | 30-39                         | 83.8             | 10.8                              | 5.4      | 388                                 | 75.3             | 13.2                              | 11.5     | 174 |
|             | 40-49                         | 85.6             | 10.0                              | 4.3      | 418                                 | 75.3             | 15.9                              | 8.8      | 170 |
|             | 50-59                         | 76.0             | 13.3                              | 10.7     | 196                                 | 74.0             | 15.8                              | 10.2     | 177 |
|             | 60대 이상                        | 81.5             | 10.6                              | 7.9      | 265                                 | 70.3             | 17.2                              | 12.5     | 337 |
| 학력          | 고졸 미만                         | 79.7             | 11.9                              | 8.4      | 344                                 | 72.2             | 15.8                              | 12.0     | 266 |
|             | 고졸                            | 85.0             | 10.2                              | 4.8      | 461                                 | 70.6             | 18.1                              | 11.3     | 248 |
|             | 대학 재학                         | 90.5             | 5.8                               | 3.6      | 359                                 | 82.6             | 11.5                              | 6.0      | 218 |
|             | 대학졸업 이상                       | 82.4             | 11.5                              | 6.1      | 426                                 | 77.5             | 14.4                              | 8.1      | 320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86.7             | 8.8                               | 4.5      | 512                                 | 80.1             | 12.8                              | 7.1      | 282 |
|             | 중소도시                          | 82.1             | 11.5                              | 6.3      | 901                                 | 75.3             | 15.5                              | 9.2      | 579 |
|             | 농어촌                           | 89.0             | 5.5                               | 5.5      | 181                                 | 69.7             | 17.0                              | 13.3     | 188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545, 2016년 N=963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1,049임.

[그림 7-1]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성인남성 → 본인의 부모

(단위: %)



기혼 여성이 본인의 부모(친정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2016년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한다는 응답이 71.7%로 가장 많았고,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이 17.6%, '약간 반대+상당히 반대+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0.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내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기혼 여성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2006년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찬성한다는 의견이 소폭 감소(75.8%→71.7%)하였다.

<표 7-4> 기혼 여성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찬성<br>(전적으로+상당히+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반대(전적으로+상당히+약간 반대) | 계 (N) | 찬성<br>(전적으로+상당히+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반대(전적으로+상당히+약간 반대) | 계 (N) |     |
| 전체   | 75.8                   | 15.8       | 8.4                | 1,595 | 71.7                   | 17.6       | 10.7               | 1,052 |     |
| 성별   | 남성                     | 74.7       | 17.3               | 8.0   | 712                    | 75.2       | 15.3               | 9.5   | 476 |
|      | 여성                     | 76.7       | 14.6               | 8.7   | 883                    | 68.8       | 19.4               | 11.8  | 576 |
| 월평균가 | 100만원 미만               | 75.7       | 14.8               | 9.5   | 189                    | 71.7       | 15.8               | 12.5  | 152 |
|      | 100-199                | 73.8       | 15.4               | 10.9  | 267                    | 66.7       | 20.0               | 13.3  | 105 |

200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찬성<br>(전적으로+상당<br>히+약간<br>찬성) | 찬성도<br>반대도<br>아님 | 반대(전<br>적으로+<br>상당히+<br>약간<br>반대) | 계<br>(N) | 찬성<br>(전적으로+상당<br>히+약간<br>찬성) | 찬성도<br>반대도<br>아님 | 반대(전<br>적으로+<br>상당히+<br>약간<br>반대) | 계<br>(N) |     |
| 구소<br>득  | 200-299                       | 73.0             | 20.3                              | 6.7      | 330                           | 65.4             | 18.1                              | 16.5     | 127 |
|          | 300-399                       | 79.0             | 13.7                              | 7.4      | 271                           | 71.1             | 14.8                              | 14.1     | 135 |
|          | 400-499                       | 77.5             | 14.8                              | 7.7      | 182                           | 74.1             | 18.8                              | 7.1      | 112 |
|          | 500만원 이상                      | 76.1             | 14.7                              | 9.2      | 306                           | 75.9             | 16.0                              | 8.1      | 332 |
| 연령       | 18-29                         | 82.3             | 13.7                              | 4.0      | 328                           | 84.5             | 12.9                              | 2.6      | 194 |
|          | 30-39                         | 79.6             | 13.7                              | 6.7      | 388                           | 74.7             | 13.8                              | 11.5     | 174 |
|          | 40-49                         | 77.3             | 15.6                              | 7.2      | 418                           | 71.8             | 19.4                              | 8.8      | 170 |
|          | 50-59                         | 65.3             | 21.9                              | 12.8     | 196                           | 69.5             | 18.1                              | 12.4     | 177 |
|          | 60대 이상                        | 67.5             | 17.4                              | 15.1     | 265                           | 63.8             | 21.1                              | 15.1     | 337 |
| 학력       | 고졸 미만                         | 64.8             | 20.1                              | 15.1     | 344                           | 65.8             | 19.2                              | 15.0     | 266 |
|          | 고졸                            | 76.6             | 16.7                              | 6.7      | 461                           | 67.7             | 19.8                              | 12.5     | 248 |
|          | 대학 재학                         | 83.0             | 12.0                              | 5.0      | 359                           | 78.0             | 15.6                              | 6.4      | 218 |
|          | 대학졸업 이상                       | 78.2             | 14.6                              | 7.3      | 426                           | 75.3             | 15.9                              | 8.8      | 320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81.1             | 12.9                              | 6.1      | 512                           | 76.2             | 16.0                              | 7.8      | 282 |
|          | 중소도시                          | 72.4             | 18.5                              | 9.1      | 901                           | 71.7             | 17.3                              | 11.1     | 579 |
|          | 농어촌                           | 78.5             | 9.9                               | 11.6     | 181                           | 64.9             | 21.3                              | 13.8     | 188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545, 2016년 N=963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1,049임.

[그림 7-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성인여성 → 본인의 부모

(단위: %)



다음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기혼 남성이 배우자의 부모(친정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2016년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한다는 응답이 69.6%로 가장 많았고,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이 19.9%, '약간 반대+상당히 반대+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내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기혼 남성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를 2006년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비교해 보면, 2016년 조사에서는 2006년 조사에 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다소 줄어들었고(81.4%→69.6%),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13.2%→19.9%)과 반대한다는 응답(5.4%→10.6%)이 소폭 늘어났다.

〈표 7-5〉 기혼 남성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찬성<br>(전적으로+<br>상당히+<br>약간<br>찬성) | 찬성도<br>반대도<br>아님 | 반대(전<br>적으로+<br>상당히+<br>약간<br>반대) | 계<br>(N) | 찬성<br>(전적으로+<br>상당히+<br>약간<br>찬성) | 찬성도<br>반대도<br>아님 | 반대(전<br>적으로+<br>상당히+<br>약간<br>반대) | 계<br>(N) |     |
| 전체              | 81.4                              | 13.2             | 5.4                               | 1,595    | 69.6                              | 19.9             | 10.6                              | 1,052    |     |
| 성별              | 남성                                | 81.0             | 13.1                              | 5.9      | 712                               | 74.8             | 16.6                              | 8.6      | 476 |
|                 | 여성                                | 81.7             | 13.4                              | 5.0      | 883                               | 65.3             | 22.6                              | 12.2     | 576 |
| 월평균<br>소득<br>구분 | 100만원 미만                          | 84.1             | 11.6                              | 4.2      | 189                               | 71.1             | 18.4                              | 10.5     | 152 |
|                 | 100-199                           | 80.1             | 15.0                              | 4.9      | 267                               | 66.7             | 21.0                              | 12.4     | 105 |
|                 | 200-299                           | 79.1             | 15.2                              | 5.8      | 330                               | 60.6             | 25.2                              | 14.2     | 127 |
|                 | 300-399                           | 83.8             | 10.7                              | 5.5      | 271                               | 69.6             | 15.6                              | 14.8     | 135 |
|                 | 400-499                           | 83.0             | 9.9                               | 7.1      | 182                               | 72.3             | 22.3                              | 5.4      | 112 |
|                 | 500만원 이상                          | 79.7             | 14.7                              | 5.6      | 306                               | 73.2             | 17.2                              | 9.6      | 332 |
| 연령              | 18-29                             | 88.4             | 9.5                               | 2.1      | 328                               | 72.2             | 23.2                              | 4.6      | 194 |
|                 | 30-39                             | 79.9             | 14.4                              | 5.7      | 388                               | 71.8             | 15.5                              | 12.6     | 174 |
|                 | 40-49                             | 81.1             | 14.1                              | 4.8      | 418                               | 72.4             | 18.2                              | 9.4      | 170 |
|                 | 50-59                             | 77.0             | 13.8                              | 9.2      | 196                               | 72.9             | 16.9                              | 10.2     | 177 |
|                 | 60대 이상                            | 78.5             | 14.3                              | 7.2      | 265                               | 63.8             | 22.6                              | 13.6     | 337 |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찬성<br>(전적으로+상당히+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반대(전적으로+상당히+약간 반대) | 계 (N) | 찬성<br>(전적으로+상당히+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반대(전적으로+상당히+약간 반대) | 계 (N) |     |
| 학력    | 고졸 미만                  | 77.3       | 16.0               | 6.7   | 344                    | 64.3       | 22.2               | 13.5  | 266 |
|       | 고졸                     | 79.0       | 15.6               | 5.4   | 461                    | 69.4       | 19.0               | 11.7  | 248 |
|       | 대학 재학                  | 88.6       | 7.5                | 3.9   | 359                    | 72.0       | 20.6               | 7.3   | 218 |
|       | 대학졸업 이상                | 81.5       | 12.9               | 5.6   | 426                    | 72.5       | 18.1               | 9.4   | 320 |
| 거주 지역 | 대도시                    | 82.6       | 12.5               | 4.9   | 512                    | 70.6       | 19.9               | 9.6   | 282 |
|       | 중소도시                   | 80.2       | 13.9               | 5.9   | 901                    | 71.8       | 18.5               | 9.7   | 579 |
|       | 농어촌                    | 84.0       | 11.6               | 4.4   | 181                    | 61.7       | 23.9               | 14.4  | 188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545, 2016년 N=963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1,049임.

[그림 7-3]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성인남성 → 배우자의 부모

(단위: %)



기혼 여성이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2016년 자료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한다는 응답이 69.5%로 가장 많았고,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이 20.7%, '약간 반대+상당히 반대+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내부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기혼 여성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를 2006년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비교해 보면, 2016년 조사에서는 2006년 조사에 비해 찬성한다

는 응답(81.3%→69.5%)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13.3%→20.7%)과 반대(5.4%→9.8%)한다는 응답이 늘어났다.

〈표 7-6〉 기혼 여성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찬성<br>(전적으로+상당<br>하+약간<br>찬성) | 찬성도<br>반대도<br>아님 | 반대<br>(전적으로+상당<br>하+약간<br>반대) | 계<br>(N) | 찬성<br>(전적으로+상당<br>하+약간<br>찬성) | 찬성도<br>반대도<br>아님 | 반대(전<br>적으로+<br>상당하+<br>약간<br>반대) | 계<br>(N) |     |
| 전체              | 81.3                          | 13.3             | 5.4                           | 1,595    | 69.5                          | 20.7             | 9.8                               | 1,052    |     |
| 성별              | 남성                            | 79.4             | 15.2                          | 5.5      | 712                           | 74.6             | 18.3                              | 7.1      | 476 |
|                 | 여성                            | 82.9             | 11.8                          | 5.3      | 883                           | 65.3             | 22.7                              | 12.0     | 576 |
| 월평균<br>가구<br>소득 | 100만원 미만                      | 84.7             | 11.1                          | 4.2      | 189                           | 72.4             | 17.8                              | 9.9      | 152 |
|                 | 100-199                       | 80.9             | 13.1                          | 6.0      | 267                           | 68.6             | 20.0                              | 11.4     | 105 |
|                 | 200-299                       | 79.7             | 15.5                          | 4.8      | 330                           | 62.2             | 24.4                              | 13.4     | 127 |
|                 | 300-399                       | 83.8             | 11.4                          | 4.8      | 271                           | 65.9             | 21.5                              | 12.6     | 135 |
|                 | 400-499                       | 81.9             | 11.5                          | 6.6      | 182                           | 71.4             | 23.2                              | 5.4      | 112 |
| 500만원 이상        | 79.4                          | 14.7             | 5.9                           | 306      | 72.6                          | 18.1             | 9.3                               | 332      |     |
| 연령              | 18-29                         | 82.9             | 13.1                          | 4.0      | 328                           | 70.6             | 24.2                              | 5.2      | 194 |
|                 | 30-39                         | 80.4             | 13.9                          | 5.7      | 388                           | 70.7             | 16.7                              | 12.6     | 174 |
|                 | 40-49                         | 82.5             | 12.9                          | 4.5      | 418                           | 71.2             | 20.6                              | 8.2      | 170 |
|                 | 50-59                         | 80.1             | 12.2                          | 7.7      | 196                           | 72.3             | 18.1                              | 9.6      | 177 |
|                 | 60대 이상                        | 79.6             | 14.0                          | 6.4      | 265                           | 65.9             | 22.3                              | 11.9     | 337 |
| 학력              | 고졸 미만                         | 78.8             | 14.0                          | 7.3      | 344                           | 65.0             | 21.8                              | 13.2     | 266 |
|                 | 고졸                            | 81.8             | 13.2                          | 5.0      | 461                           | 70.2             | 20.2                              | 9.7      | 248 |
|                 | 대학 재학                         | 84.4             | 11.1                          | 4.5      | 359                           | 70.2             | 22.5                              | 7.3      | 218 |
|                 | 대학졸업 이상                       | 80.5             | 14.3                          | 5.2      | 426                           | 72.2             | 19.1                              | 8.8      | 320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82.0             | 13.7                          | 4.3      | 512                           | 70.2             | 21.6                              | 8.2      | 282 |
|                 | 중소도시                          | 80.4             | 13.7                          | 6.0      | 901                           | 70.5             | 20.0                              | 9.5      | 579 |
|                 | 농어촌                           | 84.0             | 10.5                          | 5.5      | 181                           | 66.0             | 21.3                              | 12.8     | 188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545, 2016년 N=963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1,049임.

[그림 7-4]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혼 성인여성 → 배우자의 부모

(단위: %)



### 나. 노부모 부양의 책임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6년 조사에서는 ‘아들, 딸 상관없이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30.4%), ‘장남 또는 그 가족’(2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200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응답 경향은 유사하나 2006년에 비해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30.6%→38.5%), 또는 모든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25.6%→30.4%)이 증가했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응답(0.8%→2.2%)도 소폭 늘어났다.

<표 7-7>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장 큰 사람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장남 또는 그 가족 |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 딸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 아들, 딸 상관 없이 또는 그 가족 |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 | 자녀 또는 가족에게는 책임 없음 | 기타  | 계 (N) |
|---------|------------|-------------------|------------------|---------------------|----------------|-------------------|-----|-------|
| 2006 전체 | 28.8       | 12.9              | 0.3              | 30.6                | 25.6           | 0.8               | 1.0 | 1,600 |
| 2016 전체 | 22.5       | 4.8               | 1.0              | 38.5                | 30.4           | 2.2               | 0.6 | 1,052 |
| 2006 남성 | 32.9       | 17.1              | 0.1              | 24.9                | 23.2           | 0.7               | 1.1 | 712   |
| 2006 여성 | 25.6       | 9.5               | 0.5              | 35.2                | 27.5           | 0.9               | 0.9 | 888   |

| 구분   |          | 장남<br>또는 그<br>가족 | 아들 중<br>누구<br>든지<br>또는 그<br>가족 | 딸 중<br>누구<br>든지<br>또는 그<br>가족 | 아들,<br>딸 상관<br>없이<br>또는 그<br>가족 | 모든<br>자녀들<br>또는 그<br>가족 | 자녀<br>또는<br>가족<br>에게는<br>책임<br>없음 | 기타  | 계<br>(N) |
|------|----------|------------------|--------------------------------|-------------------------------|---------------------------------|-------------------------|-----------------------------------|-----|----------|
| 2016 | 남성       | 26.9             | 5.9                            | 0.4                           | 34.2                            | 30.5                    | 1.9                               | 0.2 | 476      |
|      | 여성       | 18.9             | 3.8                            | 1.6                           | 42.0                            | 30.4                    | 2.4                               | 0.9 | 576      |
| 2006 | 100만원 미만 | 39.4             | 7.8                            | 0.0                           | 31.6                            | 20.2                    | 0.0                               | 1.0 | 193      |
|      | 100-199  | 31.0             | 11.6                           | 1.1                           | 31.0                            | 22.8                    | 1.9                               | 0.7 | 268      |
|      | 200-299  | 23.4             | 18.2                           | 0.0                           | 27.7                            | 29.5                    | 0.9                               | 0.3 | 329      |
|      | 300-399  | 29.9             | 12.2                           | 0.4                           | 30.3                            | 24.7                    | 0.7                               | 1.8 | 271      |
|      | 400-499  | 24.2             | 12.6                           | 0.0                           | 30.2                            | 31.3                    | 0.5                               | 1.1 | 182      |
|      | 500만원 이상 | 28.4             | 13.1                           | 0.3                           | 34.0                            | 23.5                    | 0.0                               | 0.7 | 306      |
| 2016 | 100만원 미만 | 42.8             | 3.3                            | 1.3                           | 27.0                            | 17.8                    | 6.6                               | 1.3 | 152      |
|      | 100-199  | 31.4             | 7.6                            | 1.9                           | 30.5                            | 26.7                    | 1.9                               | 0.0 | 105      |
|      | 200-299  | 17.3             | 5.5                            | 0.8                           | 43.3                            | 30.7                    | 2.4                               | 0.0 | 127      |
|      | 300-399  | 17.8             | 3.7                            | 0.7                           | 37.8                            | 37.8                    | 2.2                               | 0.0 | 135      |
|      | 400-499  | 19.6             | 5.4                            | 0.9                           | 42.0                            | 30.4                    | 0.9                               | 0.9 | 112      |
|      | 500만원 이상 | 15.7             | 3.9                            | 0.6                           | 45.2                            | 33.1                    | 0.6                               | 0.9 | 332      |
| 2006 | 18-29    | 16.8             | 10.1                           | 0.6                           | 36.7                            | 35.8                    | 0.0                               | 0.0 | 327      |
|      | 30-39    | 26.2             | 13.6                           | 0.0                           | 29.8                            | 29.8                    | 0.3                               | 0.3 | 389      |
|      | 40-49    | 30.4             | 14.4                           | 0.0                           | 28.9                            | 24.9                    | 0.2                               | 1.2 | 418      |
|      | 50-59    | 27.6             | 15.8                           | 1.0                           | 33.2                            | 17.9                    | 3.1                               | 1.5 | 196      |
|      | 60대 이상   | 45.6             | 10.7                           | 0.4                           | 25.2                            | 13.7                    | 1.9                               | 2.6 | 270      |
| 2016 | 18-29    | 13.4             | 3.1                            | 0.5                           | 42.8                            | 39.2                    | 0.0                               | 1.0 | 194      |
|      | 30-39    | 14.4             | 2.9                            | 0.0                           | 44.8                            | 36.2                    | 1.7                               | 0.0 | 174      |
|      | 40-49    | 17.6             | 4.7                            | 0.6                           | 42.4                            | 33.5                    | 1.2                               | 0.0 | 170      |
|      | 50-59    | 20.3             | 4.5                            | 1.1                           | 37.9                            | 35.0                    | 0.6                               | 0.6 | 177      |
|      | 60대 이상   | 35.6             | 6.8                            | 2.1                           | 31.2                            | 18.4                    | 5.0                               | 0.9 | 337      |
| 2006 | 고졸 미만    | 37.8             | 11.5                           | 0.6                           | 28.9                            | 15.2                    | 2.9                               | 3.2 | 349      |
|      | 고졸       | 28.2             | 14.8                           | 0.7                           | 31.9                            | 23.9                    | .2                                | 0.4 | 461      |
|      | 대학 재학    | 22.3             | 13.6                           | 0.0                           | 29.5                            | 34.3                    | 0.0                               | 0.3 | 359      |
|      | 대학졸업 이상  | 27.2             | 11.5                           | 0.0                           | 31.5                            | 28.9                    | .5                                | 0.5 | 426      |
| 2016 | 고졸 미만    | 36.1             | 7.1                            | 1.1                           | 29.3                            | 19.5                    | 5.6                               | 1.1 | 266      |
|      | 고졸       | 21.8             | 5.6                            | 1.6                           | 39.9                            | 29.8                    | .8                                | 0.4 | 248      |

206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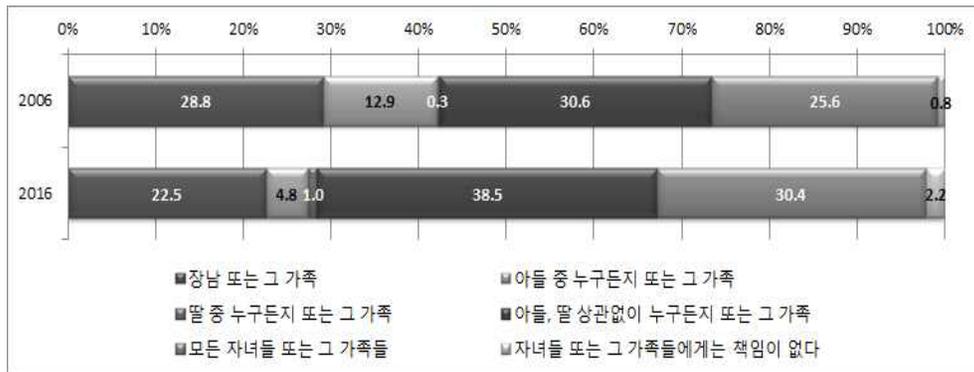
| 구분      | 장남 또는 그 가족 |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 딸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 아들, 딸 상관없이 또는 그 가족 |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 | 자녀 또는 가족에게는 책임 없음 | 기타  | 계 (N) |
|---------|------------|-------------------|------------------|--------------------|----------------|-------------------|-----|-------|
| 대학 재학   | 18.8       | 4.6               | 0.9              | 37.2               | 37.6           | .5                | 0.5 | 218   |
| 대학졸업 이상 | 14.4       | 2.2               | 0.6              | 45.9               | 35.0           | 1.6               | 0.3 | 320   |
| 2006    |            |                   |                  |                    |                |                   |     |       |
| 대도시     | 26.1       | 14.0              | 0.2              | 32.2               | 26.7           | .4                | 0.4 | 513   |
| 중소도시    | 27.3       | 13.0              | 0.3              | 30.9               | 26.2           | 1.0               | 1.3 | 901   |
| 농어촌     | 43.8       | 8.6               | 0.5              | 25.4               | 19.5           | 1.1               | 1.1 | 185   |
| 2016    |            |                   |                  |                    |                |                   |     |       |
| 대도시     | 18.4       | 3.2               | 1.4              | 41.1               | 34.0           | .7                | 1.1 | 282   |
| 중소도시    | 21.4       | 5.2               | 1.0              | 39.4               | 30.6           | 2.1               | 0.3 | 579   |
| 농어촌     | 32.4       | 5.9               | 0.5              | 32.4               | 23.4           | 4.8               | 0.5 | 188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549, 2016년 N=963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1,049임.

[그림 7-5] 노부모 부양 책임 주체

(단위: %)



## 2. 부모-자녀 간 경제적, 도구적 지원 교환 행태

(배우자) 부모-자녀 간 지원 교환 행태는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건강 돌봐드리기, 자녀를 돌봐주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이 접촉한 만 18세 이상 성인자녀에 대한 정보와 가장 많이 접촉한 성인자녀와의 지원 교환 행태도 분석하였다.

### 가. 응답자 본인 부모와의 지원 교환

#### 1) 부모에 대한 지원

현재 본인의 부모가 한 분 이상 생존해 계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본인의 부모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7%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매우 자주 해드렸다+자주 해드렸다)했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 부모에 대한 지원은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과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40대와 5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나 2016년 조사에서는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22.8%→27.7%)이 다소 많았다.

〈표 7-8〉 본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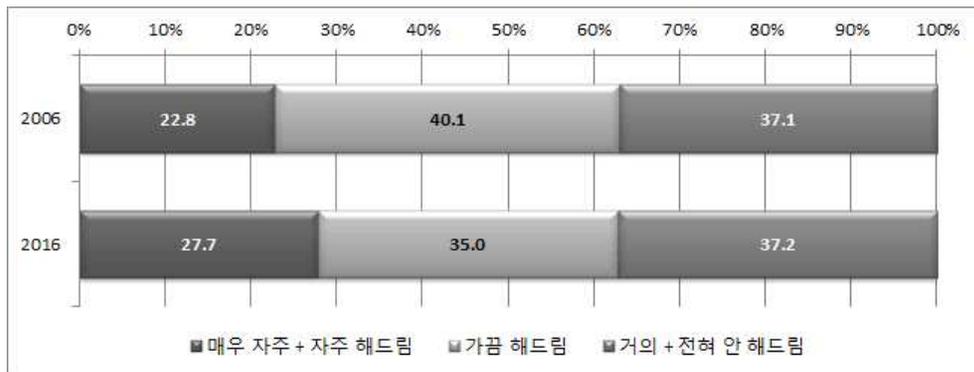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
| 전체   | 22.8     | 40.1     | 37.1      | 1,142    | 27.7     | 35.0     | 37.2      | 642      |     |
| 성별   | 남성       | 26.7     | 37.7      | 35.6     | 506      | 32.0     | 33.0      | 35.0     | 303 |
|      | 여성       | 19.7     | 42.0      | 38.4     | 636      | 23.9     | 36.9      | 39.2     | 339 |
| 월평균가 | 100만원 미만 | 10.7     | 19.6      | 69.6     | 56       | 9.1      | 40.9      | 50.0     | 22  |
|      | 100-199  | 11.3     | 39.3      | 49.4     | 168      | 13.5     | 18.9      | 67.6     | 37  |
|      | 200-299  | 23.0     | 40.2      | 36.7     | 256      | 26.3     | 38.8      | 35.0     | 80  |
| 가구소득 | 300-399  | 17.4     | 47.5      | 35.2     | 219      | 27.7     | 41.5      | 30.9     | 94  |
|      | 400-499  | 27.0     | 39.0      | 34.0     | 159      | 29.7     | 38.5      | 31.9     | 91  |
|      | 500만원 이상 | 35.8     | 40.9      | 23.3     | 257      | 34.5     | 31.8      | 33.7     | 264 |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
| 연령       | 18-29    | 14.1     | 28.4      | 57.5     | 327      | 12.2     | 25.5      | 62.2     | 188 |
|          | 30-39    | 26.6     | 44.4      | 29.0     | 376      | 31.5     | 38.2      | 30.3     | 165 |
|          | 40-49    | 27.6     | 46.2      | 26.1     | 333      | 35.7     | 43.4      | 21.0     | 143 |
|          | 50-59    | 21.2     | 43.5      | 35.3     | 85       | 37.5     | 33.0      | 29.5     | 112 |
|          | 60대 이상   | 19.0     | 33.3      | 47.6     | 21       | 29.4     | 44.1      | 26.5     | 34  |
| 학력       | 고졸 미만    | 17.2     | 39.8      | 43.0     | 93       | 29.0     | 29.0      | 41.9     | 31  |
|          | 고졸       | 21.0     | 45.1      | 33.9     | 357      | 23.0     | 47.4      | 29.6     | 152 |
|          | 대학 재학    | 18.3     | 26.8      | 54.9     | 328      | 20.4     | 29.6      | 50.0     | 196 |
|          | 대학졸업 이상  | 29.9     | 47.3      | 22.8     | 364      | 35.7     | 32.7      | 31.6     | 263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23.1     | 42.6      | 34.3     | 394      | 30.9     | 28.9      | 40.2     | 204 |
|          | 중소도시     | 23.4     | 38.6      | 38.0     | 668      | 26.4     | 38.7      | 34.9     | 375 |
|          | 농어촌      | 16.3     | 40.0      | 43.8     | 80       | 26.2     | 32.8      | 41.0     | 61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115, 2016년 N=588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640임.

[그림 7-6] 본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단위: %)



한편, 기혼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본인 부모에게 얼마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7-9〉 본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2016년)

(단위: %, 명)

| 구분          | 제공한 편 | 가끔 제공 | 제공안한 편 | 계 (N)      | $\chi^2(df)$ |
|-------------|-------|-------|--------|------------|--------------|
| <b>성별</b>   |       |       |        |            |              |
| 남성          | 39.6  | 36.2  | 24.2   | 100.0(149) | 6.05(2)*     |
| 여성          | 27.7  | 46.6  | 25.7   | 100.0(206) |              |
| <b>교육수준</b> |       |       |        |            |              |
| 고졸 미만       | 29.2  | 29.2  | 41.7   | 100.0(24)  | 15.85(6)*    |
| 고졸          | 22.9  | 54.1  | 22.9   | 100.0(109) |              |
| 대학 재학       | 31.5  | 43.8  | 24.7   | 100.0(73)  |              |
| 대학졸업 이상     | 40.9  | 34.9  | 24.2   | 100.0(149) |              |

주: \*p<.05, \*\*p<.01, \*\*\*p<.001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본인의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8.8%가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을 제공하거나 건강을 돌봐드렸다고 응답(매우 자주 해드렸다+자주 해드렸다)했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은 36.4%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연령대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나 2016년 조사에서는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23.4%→28.8%)이 다소 많았다.

〈표 7-10〉 본인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 전체                       | 23.4     | 38.0     | 38.6      | 1,142    | 28.8     | 36.4     | 34.7      | 642      |
| <b>성별</b>                |          |          |           |          |          |          |           |          |
| 남성                       | 24.5     | 38.9     | 36.6      | 506      | 25.1     | 38.9     | 36.0      | 303      |
| 여성                       | 22.5     | 37.3     | 40.3      | 636      | 32.2     | 34.2     | 33.6      | 339      |
| <b>월평균<br/>가구<br/>소득</b>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2.1     | 37.5     | 30.4      | 56       | 27.3     | 27.3     | 45.5      | 22       |
| 100-199                  | 20.2     | 35.7     | 44.0      | 168      | 16.7     | 50.0     | 33.3      | 36       |
| 200-299                  | 23.8     | 37.5     | 38.7      | 256      | 28.8     | 41.3     | 30.0      | 80       |
| 300-399                  | 21.5     | 39.3     | 39.3      | 219      | 21.7     | 32.6     | 45.7      | 92       |
| 400-499                  | 23.9     | 44.7     | 31.4      | 159      | 33.0     | 37.4     | 29.7      | 91       |
| 500만원 이상                 | 25.3     | 32.7     | 42.0      | 257      | 30.5     | 33.1     | 36.5      | 2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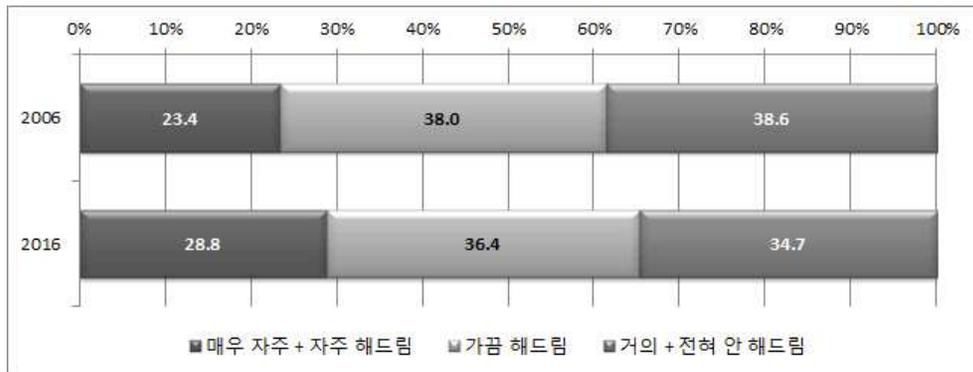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
| 연령       | 18-29    | 30.9     | 41.9      | 27.2     | 327      | 39.3     | 37.2      | 23.6     | 191 |
|          | 30-39    | 21.8     | 38.6      | 39.6     | 376      | 23.9     | 38.7      | 37.4     | 163 |
|          | 40-49    | 19.8     | 38.7      | 41.4     | 333      | 26.6     | 30.1      | 43.4     | 143 |
|          | 50-59    | 17.6     | 24.7      | 57.6     | 85       | 23.2     | 38.4      | 38.4     | 112 |
|          | 60대 이상   | 14.3     | 9.5       | 76.2     | 21       | 21.2     | 42.4      | 36.4     | 33  |
| 학력       | 고졸 미만    | 20.4     | 28.0      | 51.6     | 93       | 15.6     | 34.4      | 50.0     | 32  |
|          | 고졸       | 21.3     | 34.2      | 44.5     | 357      | 19.1     | 38.8      | 42.1     | 152 |
|          | 대학 재학    | 28.4     | 45.1      | 26.5     | 328      | 36.2     | 37.2      | 26.5     | 196 |
|          | 대학졸업 이상  | 21.7     | 37.9      | 40.4     | 364      | 30.5     | 34.7      | 34.7     | 262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23.6     | 39.1      | 37.3     | 394      | 27.6     | 34.5      | 37.9     | 203 |
|          | 중소도시     | 22.6     | 38.3      | 39.1     | 668      | 29.3     | 39.4      | 31.4     | 376 |
|          | 농어촌      | 28.8     | 30.0      | 41.3     | 80       | 31.1     | 24.6      | 44.3     | 61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115, 2016년 N=587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640임.

[그림 7-7] 본인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단위: %)



## 2)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지난 1년간 본인의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4%가 본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매우 자주 해주셨다+자주 해주셨다)했으며, 가끔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21.1%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연령대와 교육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 2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대학재학 중인 응답자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나 2016년 조사에서는 본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25.1%→28.4%)이 소폭 증가했다.

〈표 7-11〉 응답자가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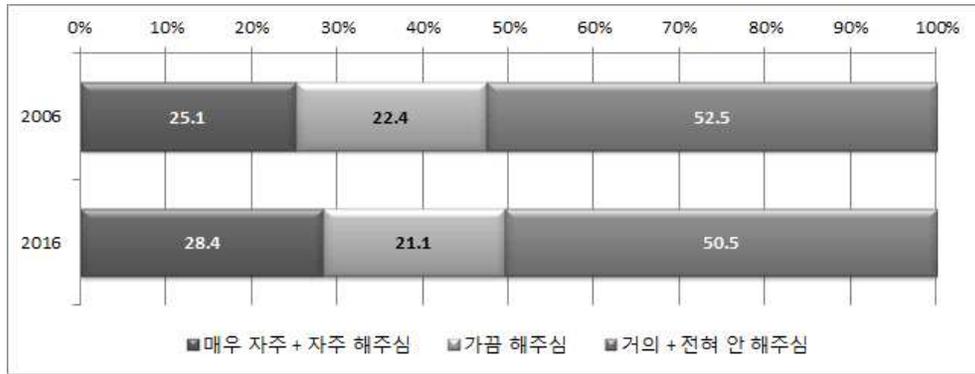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해<br>주신편 | 가끔<br>해주심 | 제공<br>안해주<br>신편 | 계<br>(N) | 제공해<br>주신편 | 가끔<br>해주심 | 제공<br>안해주<br>신편 | 계<br>(N) |     |
| 전체                    | 25.1       | 22.4      | 52.5            | 1,143    | 28.4       | 21.1      | 50.5            | 644      |     |
| 성별                    | 남성         | 29.8      | 22.3            | 47.9     | 507        | 31.9      | 21.4            | 46.7     | 304 |
|                       | 여성         | 21.4      | 22.5            | 56.1     | 636        | 25.3      | 20.9            | 53.8     | 340 |
| 월평균<br>가구<br>소득<br>구분 | 100만원 미만   | 42.9      | 16.1            | 41.1     | 56         | 45.5      | 13.6            | 40.9     | 22  |
|                       | 100-199    | 25.6      | 23.2            | 51.2     | 168        | 24.3      | 10.8            | 64.9     | 37  |
|                       | 200-299    | 19.1      | 26.1            | 54.9     | 257        | 25.0      | 28.8            | 46.3     | 80  |
|                       | 300-399    | 28.3      | 21.5            | 50.2     | 219        | 17.0      | 25.5            | 57.4     | 94  |
|                       | 400-499    | 25.2      | 22.0            | 52.8     | 159        | 24.2      | 20.9            | 54.9     | 91  |
|                       | 500만원 이상   | 21.0      | 20.6            | 58.4     | 257        | 28.3      | 20.4            | 51.3     | 265 |
| 연령                    | 18-29      | 61.2      | 19.9            | 19.0     | 327        | 70.3      | 14.6            | 15.1     | 192 |
|                       | 30-39      | 14.1      | 27.6            | 58.4     | 377        | 18.2      | 27.9            | 53.9     | 165 |
|                       | 40-49      | 9.0       | 23.1            | 67.9     | 333        | 6.3       | 26.6            | 67.1     | 143 |
|                       | 50-59      | 4.7       | 11.8            | 83.5     | 85         | 7.2       | 18.9            | 73.9     | 111 |
|                       | 60대 이상     | 0.0       | 0.0             | 100.0    | 21         | 3.0       | 9.1             | 87.9     | 33  |
| 학력                    | 고졸 미만      | 7.5       | 17.2            | 75.3     | 93         | 21.9      | 9.4             | 68.8     | 32  |
|                       | 고졸         | 13.4      | 22.6            | 64.0     | 358        | 11.9      | 20.5            | 67.5     | 151 |
|                       | 대학 재학      | 54.3      | 16.8            | 29.0     | 328        | 48.2      | 17.8            | 34.0     | 197 |
|                       | 대학졸업 이상    | 14.8      | 28.6            | 56.6     | 364        | 23.9      | 25.4            | 50.8     | 264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30.6      | 26.3            | 43.0     | 395        | 34.3      | 22.1            | 43.6     | 204 |
|                       | 중소도시       | 21.6      | 20.5            | 57.9     | 668        | 26.8      | 21.0            | 52.3     | 377 |
|                       | 농어촌        | 27.5      | 18.8            | 53.8     | 80         | 19.7      | 18.0            | 62.3     | 61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116, 2016년 N=589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642임.

[그림 7-8]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단위: %)



한편, 기혼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본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졸 미만의 응답자가 본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7-12>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2016년)

(단위: %, 명)

| 구분      | 제공해 주신편 | 가끔 해주심 | 제공 안해주신편 | 계 (N)      | $\chi^2(df)$ |
|---------|---------|--------|----------|------------|--------------|
| 연령      |         |        |          |            |              |
| 18-29   | 46.2    | 23.1   | 30.8     | 100.0(13)  |              |
| 30-39   | 14.3    | 30.5   | 55.2     | 100.0(105) |              |
| 40-49   | 5.0     | 26.7   | 68.3     | 100.0(120) | 38.99(8)***  |
| 50-59   | 7.9     | 15.7   | 76.4     | 100.0(89)  |              |
| 60대 이상  | 3.8     | 7.7    | 88.5     | 100.0(26)  |              |
| 교육수준    |         |        |          |            |              |
| 고졸 미만   | 20.8    | 8.3    | 70.8     | 100.0(24)  |              |
| 고졸      | 4.7     | 18.7   | 76.6     | 100.0(107) |              |
| 대학 재학   | 9.6     | 24.7   | 65.8     | 100.0(73)  | 14.79(6)*    |
| 대학졸업 이상 | 12.1    | 28.9   | 59.1     | 100.0(149) |              |

주: \*p<.05, \*\*p<.01, \*\*\*p<.001

지난 1년간 본인의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집안일 혹은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1%가 본인의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매우 자주 해주셨다+자주 해주셨다)했으며, 가끔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연령대와 교육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 20대와 3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반적인 응답결과는 2006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2016년 조사에서 본인의 부모로부터 매우 자주+자주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29.8%→35.1%)이 다소 많았다.

〈표 7-13〉 응답자가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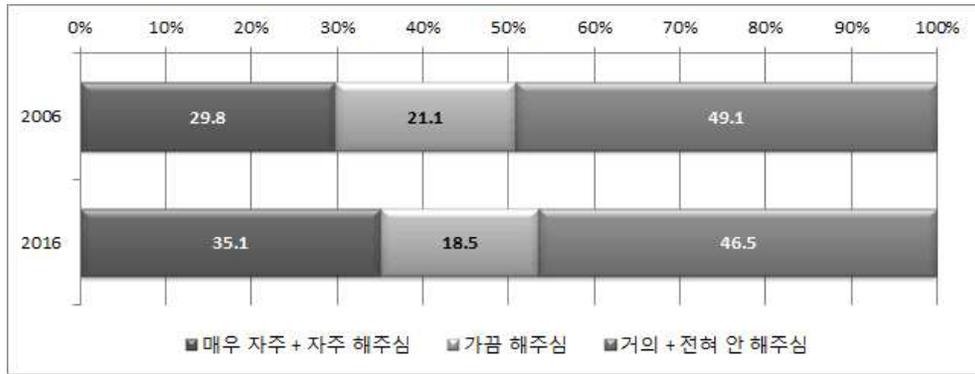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해<br>주신편 | 가끔<br>해주심 | 제공<br>안해주<br>신편 | 계<br>(N) | 제공해<br>주신편 | 가끔<br>해주심 | 제공<br>안해주<br>신편 | 계<br>(N) |     |
| 전체              | 29.8       | 21.1      | 49.1            | 1,143    | 35.1       | 18.5      | 46.5            | 639      |     |
| 성별              | 남성         | 32.7      | 21.9            | 45.4     | 507        | 34.9      | 21.3            | 43.9     | 301 |
|                 | 여성         | 27.5      | 20.4            | 52.0     | 636        | 35.2      | 16.0            | 48.8     | 338 |
| 월평균<br>가구<br>소득 | 100만원 미만   | 32.1      | 23.2            | 44.6     | 56         | 40.9      | 18.2            | 40.9     | 22  |
|                 | 100-199    | 23.8      | 20.8            | 55.4     | 168        | 32.4      | 13.5            | 54.1     | 37  |
|                 | 200-299    | 22.6      | 22.2            | 55.3     | 257        | 33.8      | 21.3            | 45.0     | 80  |
|                 | 300-399    | 31.5      | 23.7            | 44.7     | 219        | 23.9      | 21.7            | 54.3     | 92  |
|                 | 400-499    | 32.7      | 22.0            | 45.3     | 159        | 36.3      | 17.6            | 46.2     | 91  |
| 500만원 이상        | 33.1       | 17.5      | 49.4            | 257      | 34.2       | 17.5      | 48.3            | 263      |     |
| 연령              | 18-29      | 63.6      | 20.5            | 15.9     | 327        | 71.1      | 17.9            | 11.1     | 190 |
|                 | 30-39      | 24.9      | 23.6            | 51.5     | 377        | 34.1      | 26.2            | 39.6     | 164 |
|                 | 40-49      | 10.5      | 21.9            | 67.6     | 333        | 17.5      | 19.6            | 62.9     | 143 |
|                 | 50-59      | 4.7       | 14.1            | 81.2     | 85         | 7.3       | 9.2             | 83.5     | 109 |
|                 | 60대 이상     | 0.0       | 0.0             | 100.0    | 21         | 0.0       | 9.1             | 90.9     | 33  |
| 학력              | 고졸 미만      | 10.8      | 20.4            | 68.8     | 93         | 15.6      | 15.6            | 68.8     | 32  |
|                 | 고졸         | 14.8      | 20.7            | 64.5     | 358        | 16.7      | 14.0            | 69.3     | 150 |
|                 | 대학 재학      | 55.8      | 17.4            | 26.8     | 328        | 49.5      | 20.4            | 30.1     | 196 |
|                 | 대학졸업 이상    | 26.1      | 25.0            | 48.9     | 364        | 37.2      | 19.9            | 42.9     | 261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33.2      | 23.0            | 43.8     | 395        | 40.9      | 20.2            | 38.9     | 203 |
|                 | 중소도시       | 28.1      | 20.5            | 51.3     | 668        | 33.2      | 18.2            | 48.5     | 373 |
|                 | 농어촌        | 27.5      | 16.3            | 56.3     | 80         | 27.9      | 14.8            | 57.4     | 61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1,116, 2016년 N=585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637임.

[그림 7-9]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한편, 기혼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본인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본인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7-14> 본인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2016년)

(단위: %, 명)

| 구분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chi^2$ (df) |
|-------------|----------|----------|-----------|------------|---------------|
| <b>연령</b>   |          |          |           |            |               |
| 18-29       | 38.5     | 30.8     | 30.8      | 100.0(13)  | 61.99(8)***   |
| 30-39       | 26.7     | 33.3     | 40.0      | 100.0(105) |               |
| 40-49       | 13.3     | 20.8     | 65.8      | 100.0(120) |               |
| 50-59       | 6.9      | 6.9      | 86.2      | 100.0(87)  |               |
| 60대 이상      | 0.0      | 7.7      | 92.3      | 100.0(26)  |               |
| <b>교육수준</b> |          |          |           |            |               |
| 고졸 미만       | 12.5     | 16.7     | 70.8      | 100.0(24)  | 22.85(6)**    |
| 고졸          | 8.5      | 10.4     | 81.1      | 100.0(106) |               |
| 대학 재학       | 17.8     | 28.8     | 53.4      | 100.0(73)  |               |
| 대학졸업 이상     | 20.3     | 24.3     | 55.4      | 100.0(148) |               |

주: \*p<.05, \*\*p<.01, \*\*\*p<.001

## 나. 배우자 부모와의 지원 교환

### 1) 배우자 부모에 대한 지원

다음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한 분 이상 생존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배우자의 부모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21.9%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매우 자주 해드렸다+자주 해드렸다)했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은 48.4%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부모에 대한 지원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40대와 5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26.6%→21.9%)하였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40.5%→48.4%)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7-15〉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
| 전체              | 26.6     | 40.5     | 32.9      | 773      | 21.9     | 48.4     | 29.7      | 310      |     |
| 성별              | 남성       | 13.2     | 41.8      | 45.0     | 318      | 15.4     | 53.1      | 31.5     | 143 |
|                 | 여성       | 36.9     | 39.5      | 23.6     | 415      | 27.5     | 44.3      | 28.1     | 167 |
| 월평균<br>가구<br>소득 | 100만원 미만 | 16.7     | 22.2      | 61.1     | 18       | 28.6     | 14.3      | 57.1     | 7   |
|                 | 100-199  | 9.0      | 49.0      | 42.0     | 100      | 11.1     | 61.1      | 27.8     | 18  |
|                 | 200-299  | 23.7     | 30.6      | 45.7     | 173      | 9.7      | 48.4      | 41.9     | 31  |
|                 | 300-399  | 23.1     | 48.3      | 28.6     | 147      | 16.7     | 50.0      | 33.3     | 48  |
|                 | 400-499  | 32.0     | 38.8      | 29.1     | 103      | 14.3     | 51.0      | 34.7     | 49  |
|                 | 500만원 이상 | 39.1     | 42.4      | 18.5     | 184      | 30.8     | 43.8      | 25.3     | 146 |
| 연령              | 18-29    | 20.5     | 46.2      | 33.3     | 39       | 0.0      | 53.8      | 46.2     | 13  |
|                 | 30-39    | 29.6     | 35.2      | 35.2     | 284      | 15.6     | 47.8      | 36.7     | 90  |
|                 | 40-49    | 24.8     | 44.0      | 31.1     | 302      | 30.7     | 45.5      | 23.8     | 101 |
|                 | 50-59    | 27.2     | 49.4      | 23.5     | 81       | 25.6     | 50.0      | 24.4     | 78  |
|                 | 60대 이상   | 22.2     | 22.2      | 55.6     | 27       | 10.7     | 53.6      | 35.7     | 28  |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
| 학력       | 고졸 미만    | 22.2     | 36.1      | 41.7     | 72       | 22.7     | 50.0      | 27.3     | 22  |
|          | 고졸       | 26.8     | 40.4      | 32.7     | 272      | 23.0     | 46.0      | 31.0     | 87  |
|          | 대학 재학    | 27.5     | 38.2      | 34.3     | 102      | 23.1     | 40.0      | 36.9     | 65  |
|          | 대학졸업 이상  | 27.2     | 42.5      | 30.3     | 287      | 20.6     | 53.7      | 25.7     | 136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27.0     | 38.9      | 34.0     | 244      | 22.6     | 56.0      | 21.4     | 84  |
|          | 중소도시     | 27.0     | 41.3      | 31.6     | 433      | 20.3     | 45.5      | 34.2     | 187 |
|          | 농어촌      | 21.4     | 41.1      | 37.5     | 56       | 27.0     | 48.6      | 24.3     | 37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725, 2016년 N=299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308임.

[그림 7-10]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단위: %)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배우자의 부모에게 어느 정도 도구적 지원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4.2%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집안일 혹은 건강 돌봐드리기 등의 도구적 지원을 제공(매우 자주 해드렸다+자주 해드렸다)했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18.0%→14.2%)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34.8%→39.9%)도 소폭 증가하였다.

〈표 7-16〉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제공<br>한편 | 가끔<br>제공 | 제공<br>안한편 | 계<br>(N) |     |
| 전체              | 18.0     | 34.8     | 47.2      | 733      | 14.2     | 39.9     | 45.9      | 338      |     |
| 성별              | 남성       | 6.3      | 31.8      | 61.9     | 318      | 6.5      | 39.0      | 54.5     | 154 |
|                 | 여성       | 27.0     | 37.1      | 35.9     | 415      | 20.5     | 40.5      | 38.9     | 185 |
| 월평균<br>가구<br>소득 | 100만원 미만 | 27.8     | 16.7      | 55.6     | 18       | 25.0     | 25.0      | 50.0     | 8   |
|                 | 100-199  | 14.0     | 35.0      | 51.0     | 100      | 27.8     | 16.7      | 55.6     | 18  |
|                 | 200-299  | 22.5     | 32.9      | 44.5     | 173      | 16.1     | 29.0      | 54.8     | 31  |
|                 | 300-399  | 18.4     | 38.8      | 42.9     | 147      | 11.7     | 51.7      | 36.7     | 60  |
|                 | 400-499  | 18.4     | 36.9      | 44.7     | 103      | 20.8     | 30.2      | 49.1     | 53  |
|                 | 500만원 이상 | 15.2     | 33.7      | 51.1     | 184      | 11.4     | 40.5      | 48.1     | 158 |
| 연령              | 18-29    | 15.4     | 41.0      | 43.6     | 39       | 7.7      | 53.8      | 38.5     | 13  |
|                 | 30-39    | 23.6     | 34.5      | 41.9     | 284      | 16.7     | 44.1      | 39.2     | 102 |
|                 | 40-49    | 15.2     | 36.1      | 48.7     | 302      | 11.5     | 38.1      | 50.4     | 113 |
|                 | 50-59    | 12.3     | 30.9      | 56.8     | 81       | 17.1     | 34.1      | 48.8     | 82  |
|                 | 60대 이상   | 11.1     | 25.9      | 63.0     | 27       | 10.3     | 41.4      | 48.3     | 29  |
| 학력              | 고졸 미만    | 23.6     | 25.0      | 51.4     | 72       | 26.1     | 26.1      | 47.8     | 23  |
|                 | 고졸       | 21.7     | 36.8      | 41.5     | 272      | 14.7     | 36.8      | 48.4     | 95  |
|                 | 대학 재학    | 18.6     | 33.3      | 48.0     | 102      | 17.6     | 43.2      | 39.2     | 74  |
|                 | 대학졸업 이상  | 12.9     | 35.9      | 51.2     | 287      | 10.2     | 42.2      | 47.6     | 147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15.2     | 26.6      | 58.2     | 244      | 15.2     | 47.8      | 37.0     | 92  |
|                 | 중소도시     | 18.5     | 39.5      | 42.0     | 433      | 14.2     | 37.3      | 48.5     | 204 |
|                 | 농어촌      | 26.8     | 33.9      | 39.3     | 56       | 9.8      | 36.6      | 53.7     | 41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725, 2016년 N=327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336임.

[그림 7-11]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단위: %)



2)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지난 1년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매우 자주 해주셨다+자주 해주셨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받았다는 응답은 19.2%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 2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응답 경향은 유사하다.

<표 7-17>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해 주신편  | 가끔 해주심 | 제공 안해주신편 | 계 (N) | 제공해 주신편 | 가끔 해주심 | 제공 안해주신편 | 계 (N) |     |
| 전체        | 7.5      | 16.6   | 75.9     | 733   | 6.5     | 19.2   | 74.3     | 338   |     |
| 성별        | 남성       | 7.5    | 14.2     | 78.3  | 318     | 4.5    | 16.9     | 78.6  | 154 |
|           | 여성       | 7.5    | 18.6     | 74.0  | 415     | 8.1    | 21.1     | 70.8  | 185 |
| 월평균 가구 소득 | 100만원 미만 | 5.6    | 11.1     | 83.3  | 18      | 0.0    | 0.0      | 100.0 | 8   |
|           | 100-199  | 7.0    | 21.0     | 72.0  | 100     | 0.0    | 5.6      | 94.4  | 18  |
|           | 200-299  | 8.1    | 19.1     | 72.8  | 173     | 12.9   | 22.6     | 64.5  | 31  |
|           | 300-399  | 8.2    | 20.4     | 71.4  | 147     | 6.7    | 23.3     | 70.0  | 60  |
|           | 400-499  | 13.6   | 11.7     | 74.8  | 103     | 5.7    | 22.6     | 71.7  | 53  |
|           | 500만원 이상 | 3.8    | 12.5     | 83.7  | 184     | 7.0    | 16.5     | 76.6  | 158 |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해<br>주신편 | 가끔<br>해주심 | 제공<br>안해주<br>신편 | 계<br>(N) | 제공해<br>주신편 | 가끔<br>해주심 | 제공<br>안해주<br>신편 | 계<br>(N) |     |
| 연령       | 18-29      | 10.3      | 33.3            | 56.4     | 39         | 23.1      | 38.5            | 38.5     | 13  |
|          | 30-39      | 12.7      | 18.0            | 69.4     | 284        | 9.8       | 27.5            | 62.7     | 102 |
|          | 40-49      | 4.3       | 15.2            | 80.5     | 302        | 6.2       | 18.6            | 75.2     | 113 |
|          | 50-59      | 2.5       | 13.6            | 84.0     | 81         | 2.4       | 11.0            | 86.6     | 82  |
|          | 60대 이상     | 0.0       | 3.7             | 96.3     | 27         | 0.0       | 6.9             | 93.1     | 29  |
| 학력       | 고졸 미만      | 1.4       | 13.9            | 84.7     | 72         | 0.0       | 8.7             | 91.3     | 23  |
|          | 고졸         | 6.6       | 16.5            | 76.8     | 272        | 5.3       | 21.1            | 73.7     | 95  |
|          | 대학 재학      | 8.8       | 22.5            | 68.6     | 102        | 9.5       | 21.6            | 68.9     | 74  |
|          | 대학졸업 이상    | 9.4       | 15.3            | 75.3     | 287        | 6.8       | 18.4            | 74.8     | 147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7.0       | 18.4            | 74.6     | 244        | 4.3       | 21.7            | 73.9     | 92  |
|          | 중소도시       | 8.3       | 15.9            | 75.8     | 433        | 7.8       | 18.1            | 74.0     | 204 |
|          | 농어촌        | 3.6       | 14.3            | 82.1     | 56         | 4.9       | 19.5            | 75.6     | 41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725, 2016년 N=327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336임.

[그림 7-12]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단위: %)



지난1년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도구적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집안일 지원 또는 자녀 돌봐주기 등의 지원을 매우 자주 또는 자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받았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 역시 성별과 연령대

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20대 이하와 30대 응답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배우자 부모가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해주었다는 응답(12.6%→9.8%)은 소폭 감소하고, 가끔 제공해주었다는 응답(17.1%→23.1%)은 다소 증가했다.

〈표 7-18〉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제공해<br>주신편 | 가끔<br>해주심 | 제공<br>안해주<br>신편 | 계<br>(N) | 제공해<br>주신편 | 가끔<br>해주심 | 제공<br>안해주<br>신편 | 계<br>(N) |     |
| 전체                         | 12.6       | 17.1      | 70.4            | 733      | 9.8        | 23.1      | 67.2            | 338      |     |
| 성별                         | 남성         | 12.9      | 20.4            | 66.7     | 318        | 14.3      | 24.7            | 61.0     | 154 |
|                            | 여성         | 12.3      | 14.5            | 73.3     | 415        | 5.9       | 21.6            | 72.4     | 185 |
| 월평균<br>가구<br>소득<br>구소<br>득 | 100만원 미만   | 0.0       | 16.7            | 83.3     | 18         | 0.0       | 0.0             | 100.0    | 8   |
|                            | 100-199    | 6.0       | 16.0            | 78.0     | 100        | 5.6       | 16.7            | 77.8     | 18  |
|                            | 200-299    | 9.2       | 18.5            | 72.3     | 173        | 9.7       | 38.7            | 51.6     | 31  |
|                            | 300-399    | 15.0      | 17.0            | 68.0     | 147        | 6.7       | 20.0            | 73.3     | 60  |
|                            | 400-499    | 21.4      | 19.4            | 59.2     | 103        | 11.3      | 28.3            | 60.4     | 53  |
|                            | 500만원 이상   | 14.1      | 15.2            | 70.7     | 184        | 11.4      | 19.6            | 69.0     | 158 |
| 연령                         | 18-29      | 17.9      | 38.5            | 43.6     | 39         | 15.4      | 61.5            | 23.1     | 13  |
|                            | 30-39      | 20.8      | 15.8            | 63.4     | 284        | 13.7      | 39.2            | 47.1     | 102 |
|                            | 40-49      | 7.3       | 18.5            | 74.2     | 302        | 11.5      | 17.7            | 70.8     | 113 |
|                            | 50-59      | 4.9       | 7.4             | 87.7     | 81         | 4.9       | 11.0            | 84.1     | 82  |
|                            | 60대 이상     | 0.0       | 11.1            | 88.9     | 27         | 0.0       | 3.4             | 96.6     | 29  |
| 학력                         | 고졸 미만      | 2.8       | 9.7             | 87.5     | 72         | 8.7       | 8.7             | 82.6     | 23  |
|                            | 고졸         | 10.7      | 17.3            | 72.1     | 272        | 2.1       | 18.9            | 78.9     | 95  |
|                            | 대학 재학      | 15.7      | 23.5            | 60.8     | 102        | 12.2      | 28.4            | 59.5     | 74  |
|                            | 대학졸업 이상    | 15.7      | 16.4            | 67.9     | 287        | 13.6      | 25.2            | 61.2     | 147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13.9      | 18.4            | 67.6     | 244        | 12.0      | 31.5            | 56.5     | 92  |
|                            | 중소도시       | 12.2      | 16.6            | 71.1     | 433        | 10.3      | 19.6            | 70.1     | 204 |
|                            | 농어촌        | 8.9       | 14.3            | 76.8     | 56         | 2.4       | 22.0            | 75.6     | 41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725, 2016년 N=327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336임.

[그림 7-13]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 다.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만 18세 이상)와의 지원 교환

다음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가 누구인지, 그 자녀와의 교환 행태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 1)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

만 18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6년에는 '장녀'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남'(33.8%), '차남 이하 아들'(14.4%), '차녀 이하 딸'(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많이 접촉한 성인자녀가 장녀라는 응답(30.6%→36.0%)이 다소 증가한 반면, 장남(38.0%→33.8%) 또는 차남 이하 아들(17.0%→14.4%)이라는 응답은 소폭 감소했다.

〈표 7-19〉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 (2006/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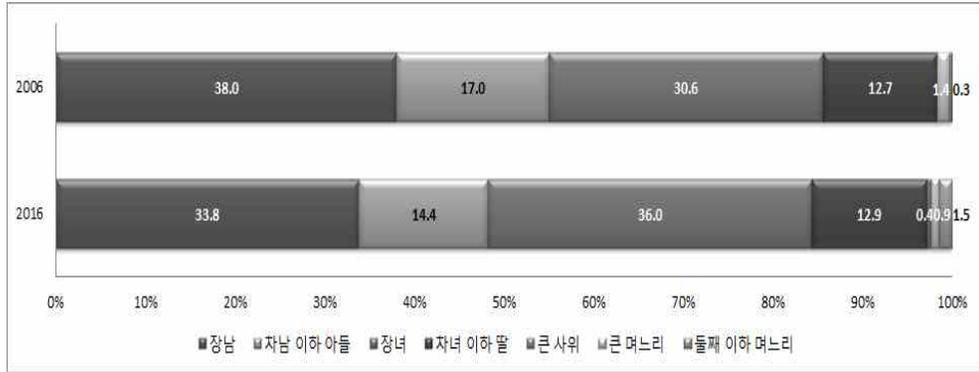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 장남       | 차남<br>이하<br>아들 | 장녀   | 차녀<br>이하<br>딸 | 큰사위  | 큰<br>며느리 | 둘째<br>이하<br>며느리 | 계<br>(N) |     |
|---------|----------|----------------|------|---------------|------|----------|-----------------|----------|-----|
| 2006 전체 | 38.0     | 17.0           | 30.6 | 12.7          | 0.0  | 1.4      | 0.3             | 576      |     |
| 2016 전체 | 33.8     | 14.4           | 36.0 | 12.9          | 0.4  | 0.9      | 1.5             | 541      |     |
| 2006 남성 | 39.0     | 16.5           | 30.3 | 13.0          | 0.0  | 0.9      | 0.4             | 231      |     |
| 2006 여성 | 37.4     | 17.4           | 30.7 | 12.5          | 0.0  | 1.7      | 0.3             | 345      |     |
| 2016 남성 | 32.7     | 13.1           | 40.7 | 11.2          | 0.5  | 0.9      | 0.9             | 214      |     |
| 2016 여성 | 34.6     | 15.3           | 33.0 | 14.1          | 0.3  | 0.9      | 1.8             | 327      |     |
| 2006    | 100만원 미만 | 38.7           | 20.0 | 17.3          | 20.7 | 0.0      | 2.0             | 1.3      | 150 |
|         | 100-199  | 37.1           | 18.1 | 29.3          | 13.8 | 0.0      | 1.7             | 0.0      | 116 |
|         | 200-299  | 42.9           | 16.3 | 33.7          | 7.1  | 0.0      | 0.0             | 0.0      | 98  |
|         | 300-399  | 32.8           | 13.4 | 38.8          | 13.4 | 0.0      | 1.5             | 0.0      | 67  |
|         | 400-499  | 45.0           | 12.5 | 35.0          | 7.5  | 0.0      | 0.0             | 0.0      | 40  |
| 2016    | 500만원 이상 | 38.1           | 13.1 | 44.0          | 3.6  | 0.0      | 1.2             | 0.0      | 84  |
| 2006    | 100만원 미만 | 32.8           | 22.1 | 27.0          | 17.2 | 0.0      | 0.0             | 0.8      | 122 |
|         | 100-199  | 40.0           | 18.7 | 26.7          | 12.0 | 1.3      | 1.3             | 0.0      | 75  |
|         | 200-299  | 35.2           | 9.3  | 37.0          | 11.1 | 0.0      | 3.7             | 3.7      | 54  |
|         | 300-399  | 35.5           | 3.2  | 46.8          | 11.3 | 0.0      | 1.6             | 1.6      | 62  |
|         | 400-499  | 34.7           | 6.1  | 40.8          | 16.3 | 0.0      | 0.0             | 2.0      | 49  |
| 2016    | 500만원 이상 | 32.1           | 12.1 | 44.3          | 9.3  | 0.7      | 0.7             | 0.7      | 140 |
| 2006    | 30-39    | 33.3           | 0.0  | 66.7          | 0.0  | 0.0      | 0.0             | 0.0      | 3   |
|         | 40-49    | 42.5           | 7.1  | 44.9          | 5.5  | 0.0      | 0.0             | 0.0      | 127 |
|         | 50-59    | 34.3           | 13.5 | 39.3          | 11.2 | 0.0      | 1.1             | 0.6      | 178 |
|         | 60대 이상   | 38.4           | 24.3 | 17.5          | 17.2 | 0.0      | 2.2             | 0.4      | 268 |
| 2016    | 40-49    | 42.9           | 3.2  | 44.4          | 9.5  | 0.0      | 0.0             | 0.0      | 63  |
|         | 50-59    | 31.3           | 12.0 | 48.0          | 8.0  | 0.0      | .7              | 0.0      | 150 |
|         | 60대 이상   | 33.2           | 17.7 | 29.0          | 15.9 | .6       | 1.2             | 2.4      | 328 |
| 2006    | 고졸 미만    | 34.5           | 21.8 | 25.4          | 16.6 | 0.0      | 1.3             | 0.3      | 307 |
|         | 고졸       | 42.1           | 13.2 | 34.9          | 7.9  | 0.0      | 2.0             | 0.0      | 152 |
|         | 대학 재학    | 59.4           | 3.1  | 28.1          | 9.4  | 0.0      | 0.0             | 0.0      | 32  |
|         | 대학졸업 이상  | 35.0           | 10.0 | 45.0          | 8.8  | 0.0      | 1.3             | 0.0      | 80  |
| 2016    | 고졸 미만    | 35.4           | 18.8 | 26.7          | 15.4 | 0.4      | 0.8             | 2.5      | 240 |
|         | 고졸       | 32.3           | 12.4 | 44.1          | 9.3  | 0.6      | 0.6             | 0.6      | 161 |
|         | 대학 재학    | 26.7           | 3.3  | 60.0          | 10.0 | 0.0      | 0.0             | 0.0      | 30  |
|         | 대학졸업 이상  | 34.5           | 10.9 | 38.2          | 13.6 | 0.0      | 1.8             | 0.9      | 110 |
| 2006    | 대도시      | 38.4           | 12.6 | 39.0          | 8.2  | 0.0      | 1.9             | 0.0      | 159 |
|         | 중소도시     | 37.1           | 17.3 | 29.6          | 14.6 | 0.0      | 1.0             | .3       | 294 |
|         | 농어촌      | 40.2           | 22.1 | 21.3          | 13.9 | 0.0      | 1.6             | .8       | 122 |
| 2016    | 대도시      | 35.7           | 8.7  | 42.6          | 9.6  | 0.0      | 1.7             | 1.7      | 115 |
|         | 중소도시     | 33.8           | 14.6 | 36.2          | 12.9 | 0.3      | 1.0             | 1.0      | 287 |
|         | 농어촌      | 32.8           | 18.2 | 29.9          | 16.1 | 0.7      | 0.0             | 2.2      | 137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555, 2016년 N=502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539임.

[그림 7-14]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

(단위: %)



가장 자주 접촉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0%가 현재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와 동거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동거여부는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40대, 50대 응답자가 60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한 경우 동거중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43.1%→30.0%)이 다소 감소했다.

<표 7-20>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 자녀와 동거 여부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2016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계 (N) | 그렇다  | 아니다  | 계 (N) |     |
| 전체       | 43.1     | 56.9 | 576   | 30.0 | 70.0 | 540   |     |
| 성별       | 남성       | 45.0 | 55.0  | 231  | 29.0 | 71.0  | 214 |
|          | 여성       | 41.7 | 58.3  | 345  | 30.7 | 69.3  | 326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13.3 | 86.7  | 150  | 5.8  | 94.2  | 121 |
|          | 100-199  | 38.8 | 61.2  | 116  | 20.0 | 80.0  | 75  |
|          | 200-299  | 54.1 | 45.9  | 98   | 25.9 | 74.1  | 54  |
|          | 300-399  | 67.2 | 32.8  | 67   | 40.3 | 59.7  | 62  |
|          | 400-499  | 70.0 | 30.0  | 40   | 40.8 | 59.2  | 49  |
|          | 500만원 이상 | 54.8 | 45.2  | 84   | 49.3 | 50.7  | 1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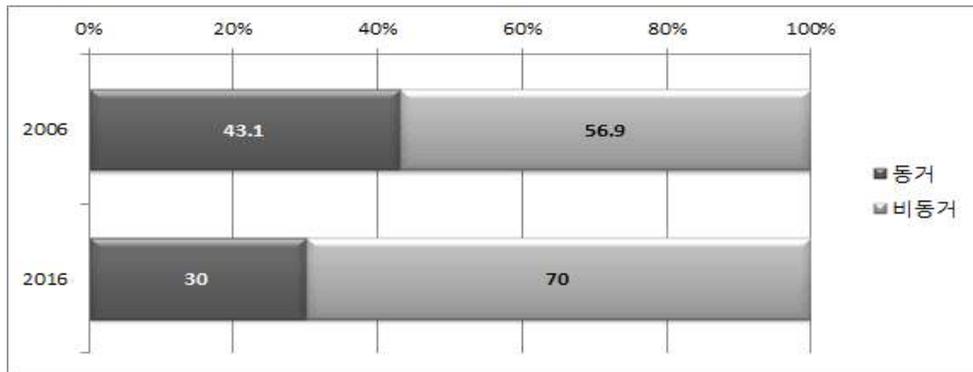
| 구분    | 2006    |      |       | 2016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계 (N) | 그렇다  | 아니다  | 계 (N) |     |
| 연령    | 30-39   | 0.0  | 100.0 | 3    | 0.0  | 0.0   | 0.0 |
|       | 40-49   | 66.1 | 33.9  | 127  | 58.7 | 41.3  | 63  |
|       | 50-59   | 46.1 | 53.9  | 178  | 49.3 | 50.7  | 150 |
|       | 60대 이상  | 30.6 | 69.4  | 268  | 15.6 | 84.4  | 327 |
| 학력    | 고졸 미만   | 36.2 | 63.8  | 307  | 15.5 | 84.5  | 239 |
|       | 고졸      | 51.3 | 48.7  | 152  | 37.3 | 62.7  | 161 |
|       | 대학 재학   | 53.1 | 46.9  | 32   | 53.3 | 46.7  | 30  |
|       | 대학졸업 이상 | 48.8 | 51.3  | 80   | 44.5 | 55.5  | 110 |
| 거주 지역 | 대도시     | 48.4 | 51.6  | 159  | 41.7 | 58.3  | 115 |
|       | 중소도시    | 44.9 | 55.1  | 294  | 32.9 | 67.1  | 286 |
|       | 농어촌     | 32.0 | 68.0  | 122  | 14.6 | 85.4  | 137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555, 2016년 N=501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538임.

[그림 7-15]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

(단위: %)



## 2)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지원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게 지난 1년간 응답자가 제공한 경제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7%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매우 자주+자주 했다)했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지원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연령대,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40대와 5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31.5%→26.7%)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49.5%→56.5%)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7-21〉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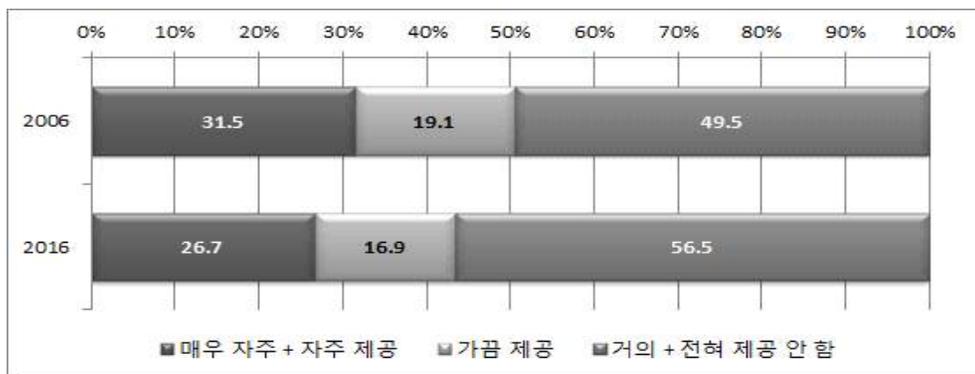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해주<br>었다 | 가끔<br>해주<br>었다 | 해주지<br>않았다 | 계<br>(N) | 해주<br>었다 | 가끔<br>해주<br>었다 | 해주지<br>않았다 | 계<br>(N) |     |
| 전체              | 31.5     | 19.1           | 49.5       | 572      | 26.7     | 16.9           | 56.5       | 540      |     |
| 성별              | 남성       | 31.0           | 24.0       | 45.0     | 229      | 27.6           | 17.3       | 55.1     | 214 |
|                 | 여성       | 31.8           | 15.7       | 52.5     | 343      | 26.1           | 16.6       | 57.4     | 326 |
| 월평균<br>가구<br>소득 | 100만원 미만 | 8.7            | 14.7       | 76.7     | 150      | 4.1            | 10.7       | 85.2     | 122 |
|                 | 100-199  | 23.9           | 23.9       | 52.2     | 113      | 12.0           | 22.7       | 65.3     | 75  |
|                 | 200-299  | 36.7           | 17.3       | 45.9     | 98       | 25.9           | 14.8       | 59.3     | 54  |
|                 | 300-399  | 41.8           | 20.9       | 37.3     | 67       | 25.8           | 22.6       | 51.6     | 62  |
|                 | 400-499  | 53.8           | 28.2       | 17.9     | 39       | 44.9           | 20.4       | 34.7     | 49  |
| 500만원 이상        | 61.9     | 17.9           | 20.2       | 84       | 53.2     | 16.5           | 30.2       | 139      |     |
| 연령              | 30-39    | 33.3           | 66.7       | 0.0      | 3        | 0.0            | 0.0        | 0.0      | 0.0 |
|                 | 40-49    | 70.9           | 15.0       | 14.2     | 127      | 74.6           | 7.9        | 17.5     | 63  |
|                 | 50-59    | 38.4           | 23.7       | 37.9     | 177      | 43.3           | 20.0       | 36.7     | 150 |
|                 | 60대 이상   | 7.9            | 17.4       | 74.7     | 265      | 9.8            | 17.1       | 73.1     | 327 |
| 학력              | 고졸 미만    | 17.4           | 16.8       | 65.8     | 304      | 10.8           | 14.2       | 75.0     | 240 |
|                 | 고졸       | 43.4           | 25.0       | 31.6     | 152      | 33.1           | 20.0       | 46.9     | 160 |
|                 | 대학 재학    | 43.8           | 21.9       | 34.4     | 32       | 40.0           | 13.3       | 46.7     | 30  |
|                 | 대학졸업 이상  | 59.5           | 16.5       | 24.1     | 79       | 48.2           | 19.1       | 32.7     | 110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40.9           | 20.8       | 38.4     | 159      | 29.6           | 13.9       | 56.5     | 115 |
|                 | 중소도시     | 32.2           | 19.2       | 48.6     | 292      | 29.4           | 16.4       | 54.2     | 286 |
|                 | 농어촌      | 17.5           | 15.8       | 66.7     | 120      | 19.0           | 19.7       | 61.3     | 137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551, 2016년 N=501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538임.

〔그림 6-16〕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단위: %)



지난1년 간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1%가 도구적 지원을 제공(매우 자주 +자주 했다)했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은 22.4%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은 응답자의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연령대,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4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34.4%→29.1%)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44.4%→48.5%)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7-22〉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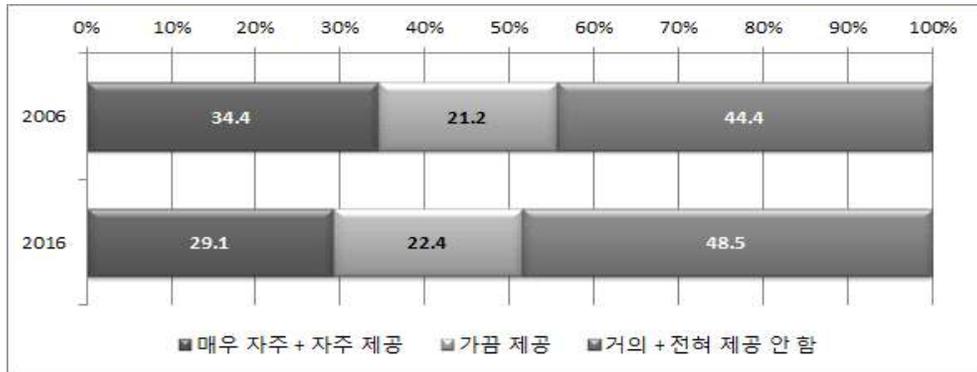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해주<br>었다 | 가끔<br>해주<br>었다 | 해주지<br>않았다 | 계<br>(N) | 해주<br>었다 | 가끔<br>해주<br>었다 | 해주지<br>않았다 | 계<br>(N) |     |
| 전체              | 34.4     | 21.2           | 44.4       | 572      | 29.1     | 22.4           | 48.5       | 540      |     |
| 성별              | 남성       | 27.2           | 21.9       | 50.9     | 228      | 20.6           | 23.4       | 56.1     | 214 |
|                 | 여성       | 39.2           | 20.6       | 40.1     | 344      | 34.7           | 21.8       | 43.6     | 326 |
| 월평균<br>가구<br>소득 | 100만원 미만 | 19.3           | 12.7       | 68.0     | 150      | 11.5           | 15.6       | 73.0     | 122 |
|                 | 100-199  | 34.2           | 21.9       | 43.9     | 114      | 21.3           | 28.0       | 50.7     | 75  |
|                 | 200-299  | 32.0           | 32.0       | 36.1     | 97       | 33.3           | 20.4       | 46.3     | 54  |
|                 | 300-399  | 44.8           | 26.9       | 28.4     | 67       | 29.0           | 33.9       | 37.1     | 62  |
|                 | 400-499  | 56.4           | 25.6       | 17.9     | 39       | 42.9           | 26.5       | 30.6     | 49  |
| 500만원 이상        | 41.7     | 17.9           | 40.5       | 84       | 43.9     | 19.4           | 36.7       | 139      |     |
| 연령              | 30-39    | 0.0            | 33.3       | 66.7     | 3        | 0.0            | 0.0        | 0.0      | 0.0 |
|                 | 40-49    | 52.8           | 26.0       | 21.3     | 127      | 60.3           | 23.8       | 15.9     | 63  |
|                 | 50-59    | 35.2           | 23.3       | 41.5     | 176      | 34.7           | 22.0       | 43.3     | 150 |
|                 | 60대 이상   | 25.6           | 17.3       | 57.1     | 266      | 20.5           | 22.3       | 57.2     | 327 |
| 학력              | 고졸 미만    | 29.3           | 18.8       | 52.0     | 304      | 17.9           | 21.7       | 60.4     | 240 |
|                 | 고졸       | 36.8           | 25.0       | 38.2     | 152      | 35.6           | 25.6       | 38.8     | 160 |
|                 | 대학 재학    | 40.6           | 25.0       | 34.4     | 32       | 40.0           | 23.3       | 36.7     | 30  |
|                 | 대학졸업 이상  | 46.8           | 21.5       | 31.6     | 79       | 40.9           | 19.1       | 40.0     | 110 |
| 거주<br>지역        | 대도시      | 39.6           | 19.5       | 40.9     | 159      | 40.0           | 20.9       | 39.1     | 115 |
|                 | 중소도시     | 36.8           | 23.7       | 39.5     | 291      | 30.8           | 21.7       | 47.6     | 286 |
|                 | 농어촌      | 22.3           | 17.4       | 60.3     | 121      | 16.1           | 25.5       | 58.4     | 137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551, 2016년 N=501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538임.

[그림 7-17]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단위: %)



### 3)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지원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8%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았다고(매우 자주 + 자주 했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26.8%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월평균 가구소득, 연령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60대 이상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자주+자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변화가 없었으며, 가끔 받았다는 응답(25.7%→26.8%)은 소폭 상승하였다.

〈표 7-23〉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 | 가끔 받았다 | 거의+전혀 받지 않았다 | 계 (N) |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 | 가끔 받았다 | 거의+전혀 받지 않았다 | 계 (N) |     |
| 전체       | 24.8         | 25.7   | 49.6         | 573   | 24.8         | 26.8   | 48.4         | 541   |     |
| 성별       | 남성           | 20.4   | 25.7         | 53.9  | 230          | 22.9   | 27.1         | 50.0  | 214 |
|          | 여성           | 27.7   | 25.7         | 46.6  | 343          | 26.0   | 26.6         | 47.4  | 327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34.7   | 28.0         | 37.3  | 150          | 31.1   | 33.6         | 35.2  | 122 |
|          | 100-199      | 23.9   | 30.1         | 46.0  | 113          | 30.7   | 26.7         | 42.7  | 75  |
|          | 200-299      | 17.3   | 24.5         | 58.2  | 98           | 35.2   | 24.1         | 40.7  | 54  |
|          | 300-399      | 16.4   | 37.3         | 46.3  | 67           | 29.0   | 22.6         | 48.4  | 62  |
|          | 400-499      | 30.0   | 17.5         | 52.5  | 40           | 14.3   | 22.4         | 63.3  | 49  |
| 500만원 이상 | 15.5         | 9.5    | 75.0         | 84    | 16.4         | 20.7   | 62.9         | 140   |     |
| 연령       | 30-39        | 0.0    | 0.0          | 100.0 | 3            | 0.0    | 0.0          | 0.0   | 0.0 |
|          | 40-49        | 8.7    | 11.8         | 79.5  | 127          | 9.5    | 9.5          | 81.0  | 63  |
|          | 50-59        | 18.0   | 28.1         | 53.9  | 178          | 16.0   | 24.7         | 59.3  | 150 |
|          | 60대 이상       | 37.4   | 30.9         | 31.7  | 265          | 31.7   | 31.1         | 37.2  | 328 |
| 학력       | 고졸 미만        | 31.3   | 29.6         | 39.1  | 304          | 36.7   | 30.4         | 32.9  | 240 |
|          | 고졸           | 19.7   | 24.3         | 55.9  | 152          | 17.4   | 25.5         | 57.1  | 161 |
|          | 대학 재학        | 18.8   | 15.6         | 65.6  | 32           | 6.7    | 20.0         | 73.3  | 30  |
|          | 대학졸업 이상      | 8.8    | 17.5         | 73.8  | 80           | 14.5   | 22.7         | 62.7  | 110 |
| 거주 지역    | 대도시          | 23.9   | 26.4         | 49.7  | 159          | 23.5   | 27.0         | 49.6  | 115 |
|          | 중소도시         | 23.5   | 24.6         | 51.9  | 293          | 22.6   | 24.4         | 53.0  | 287 |
|          | 농어촌          | 29.2   | 26.7         | 44.2  | 120          | 29.9   | 31.4         | 38.7  | 137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552, 2016년 N=502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539임.

〔그림 7-18〕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단위: %)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1%가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았다고(매우 자주 + 자주 했다) 응답했으며, 가끔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34.8%로 나타났다.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받았다는 응답(25.6%→20.1%)은 다소 감소했고, 받지 않았다는 응답(40.6%→45.1%)은 소폭 상승하였다.

〈표 7-24〉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구분       | 2006         |        |              |       | 2016         |        |              |       |     |
|----------|--------------|--------|--------------|-------|--------------|--------|--------------|-------|-----|
|          |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 | 가끔 받았다 | 거의+전혀 받지 않았다 | 계 (N) |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 | 가끔 받았다 | 거의+전혀 받지 않았다 | 계 (N) |     |
| 전체       | 25.6         | 33.8   | 40.6         | 574   | 20.1         | 34.8   | 45.1         | 541   |     |
| 성별       | 남성           | 30.9   | 30.9         | 38.3  | 230          | 18.7   | 34.6         | 46.7  | 214 |
|          | 여성           | 22.1   | 35.8         | 42.2  | 344          | 21.1   | 34.9         | 44.0  | 327 |
| 월평균 가구소득 | 100만원 미만     | 26.0   | 26.7         | 47.3  | 150          | 20.5   | 29.5         | 50.0  | 122 |
|          | 100-199      | 28.1   | 34.2         | 37.7  | 114          | 16.0   | 26.7         | 57.3  | 75  |
|          | 200-299      | 20.4   | 40.8         | 38.8  | 98           | 25.9   | 38.9         | 35.2  | 54  |
|          | 300-399      | 29.9   | 44.8         | 25.4  | 67           | 21.0   | 38.7         | 40.3  | 62  |
|          | 400-499      | 25.0   | 37.5         | 37.5  | 40           | 14.3   | 38.8         | 46.9  | 49  |
|          | 500만원 이상     | 22.6   | 27.4         | 50.0  | 84           | 21.4   | 38.6         | 40.0  | 140 |
| 연령       | 30-39        | 33.3   | 0.0          | 66.7  | 3            | 0.0    | 0.0          | 0.0   | 0   |
|          | 40-49        | 23.6   | 40.2         | 36.2  | 127          | 15.9   | 39.7         | 44.4  | 63  |
|          | 50-59        | 21.3   | 36.5         | 42.1  | 178          | 18.0   | 41.3         | 40.7  | 150 |
|          | 60대 이상       | 29.3   | 29.3         | 41.4  | 266          | 22.0   | 30.8         | 47.3  | 328 |
| 학력       | 고졸 미만        | 27.2   | 33.4         | 39.3  | 305          | 25.0   | 29.6         | 45.4  | 240 |
|          | 고졸           | 26.3   | 35.5         | 38.2  | 152          | 18.0   | 39.8         | 42.2  | 161 |
|          | 대학 재학        | 25.0   | 25.0         | 50.0  | 32           | 6.7    | 33.3         | 60.0  | 30  |
|          | 대학졸업 이상      | 17.5   | 35.0         | 47.5  | 80           | 16.4   | 39.1         | 44.5  | 110 |
| 거주지역     | 대도시          | 23.3   | 37.7         | 39.0  | 159          | 17.4   | 37.4         | 45.2  | 115 |
|          | 중소도시         | 24.9   | 35.8         | 39.2  | 293          | 19.5   | 34.5         | 46.0  | 287 |
|          | 농어촌          | 29.8   | 24.0         | 46.3  | 121          | 24.1   | 32.8         | 43.1  | 137 |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06년 N=553, 2016년 N=502임.

2) 거주지역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016년 N=539임.

[그림 7-19]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 제3절 소결 및 함의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세대관계 중 (노)부모 부양관과 부모·성인자녀 세대 간 경제적, 도구적 지원 교환 행태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KGSS 조사에 의하면, 기혼 성인자녀가 본인 부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 가량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혼 성인자녀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70% 가량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KGSS 와 비교할 때 기혼자녀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가 소폭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에 대한 지원 규범은 여전히 유효함이 확인되었으며,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둘째,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2016년 KGSS 조사에서는 ‘아들, 딸 상관없이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응답(38.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30.4%), ‘장남 또는 그 가족’(22.5%)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를 2006년 KGSS와 비교하면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장남 또는 그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친족관계가 전통적 부계적 구조와 규범에 기반하여 작동하면서 모계/친정 부모와의 교류가 억제되어 왔던 것과 달리 부계중심성이 쇠퇴하고 양계화가 진행되면서 세대 간 지원교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선행 연구(한경혜, 김상욱, 2010)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대해 자녀 등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약 2%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에서 노부모 부양에 관한 가족중심 부양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부모·자녀 간 지원 교환 행태를 살펴본 결과이다. 첫째, 지난 1년간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7%가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도 35.0%로 조사되었다. 특히, 응답자가 40대와 50대인 경우,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지난 1년간 본인의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8.8%가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끔 제공했다는 응답도 36.4%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본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8.4%가 부모로부터 매우 자주+자주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2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넷째, 전체 응답자의 35.1%는 지난 1년간 본인의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와 30대 응답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본인의 부모와의 경제적, 도구적 지원 행태는 2006 KGSS결과와도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배우자 부모와의 지원 교환 행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21.9%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40대와 5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해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전체 응답자의 14.2%는 지난 1년간 배우자의 부모에게 도구적 지

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도구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셋째, 전체 응답자의 6.5%는 지난 1년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 이하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넷째, 전체 응답자의 9.8%는 지난 1년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20대와 30대 응답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경제적, 도구적 지원 행태는 2006 KGSS결과와도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자녀와의 지원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KGSS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 가장 자주 접촉한 자녀는 '장녀'(36.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남'(33.8%), '차남 이하 아들'(14.4%), '차녀 이하 딸'(12.9%) 순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은 30.0%로 나타났다. 2006 KGSS 결과와 비교할 때 '장녀'라는 응답이 다소 증가한 반면, 장남 또는 차남 이하 아들이라는 응답이 소폭 감소하였고,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도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둘째,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6.7%가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지원했다고 응답하였으며, 29.1%가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지원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지원은 응답자 내부 특성별 차이가 나타나 경제적 지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40대, 50대 응답자가, 도구적 지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40대 응답자가,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들에게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셋째,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지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4.8%가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20.1%가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응답자가 60대 이상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에 대한 성

인자녀의 경제적 지원 의무에 대한 규범은 전반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가족부양관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노부모 부양에 있어 가족부양 규범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부양의 주체는 더 이상 전통적 직계가족규범에서 특별한 의무와 권리를 가졌던 장남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장남 중심의 부양 체계에서 모든 자녀가 동등하게 부모 부양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 역시 ‘딸’이 증가하고 있는 등 부계중심성과 양계화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녀와의 지원 행태를 살펴보면 부모가 성인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행태가 아닌, 양방향에서 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호혜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20대, 30대 응답자의 경우 부모세대로부터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40대, 50대 응답자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아 세대관계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장기적인 관계라는 점(박경숙, 2003)도 확인되었다. 다만, 지원교환에 있어 부계중심적인 특성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으며, 계층에 따른 교환행태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2016년 KGSS 조사를 통해 나타난 세대관계의 양상과 2006년과의 비교를 통한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및 성인자녀와 부모세대의 지원교환 현황을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가족 내 세대관계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미혼 성인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관계,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3세대 동거가족, 가족 돌봄을 둘러싼 수정확대가족 등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제 8 장

##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III : 동거와 근접거주의 행태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결론



# 8

##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III : << 동거와 근접거주의 행태

### 제1절 서론

#### 1. 문제제기

세대간 교환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리적 근접성이다(Silverstein & Bengtson, 1997; 김미영·이성우 2009; Choi & Choi 2015). 지리적 근접성이란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지리적으로 가까이 사는지를 의미한다. 즉, 한 집에서 함께 살거나(동거), 가까이 거주하는 경우(근접거주), 혹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형태가 갖는 규정성을 바탕으로 세대간 교환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은 최근 들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2010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처가살이를 하는 남성은 5만3675명인 반면 시집살이를 하는 여성은 19만8656명으로 남편쪽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아내쪽 부모의 경우에 비해 3.7배 더 많았다. 하지만 1990년 조사에서는 처가살이하던 남성은 1만8088명에 불과했고 시집살이 하던 여성은 44만4634명으로 남편쪽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25배에 달했었다. 즉 남편쪽 부모와 동거비중은 줄고 있는 반면 아내쪽 부모와 동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 세대간 근접성의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양상을 보고자 한다. 비교 분석에서 살펴볼 지점은 동거와 근접거주의 양태변화이다. 전통적으로는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중 맏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도시화와 함께 결혼 후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늘어갔다. 혼인 이전에도 경제력을 갖춘 경우엔 분가하는 경우도 늘었다. 동시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생겨났다. 성인 자녀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필요가 생겼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에

는, 성인이 되고,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있었다.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력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녀와 함께 살 필요성도 생겨났다. 과거에 대비 형제자매수가 줄어들어 따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더 흔해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자원과 필요성에 따라, 혹은 성인자녀의 자원의 필요성에 따라 동거와 근접거주가 달라진다. 한국사회는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상당히 높은 노인자살률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의 고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인세대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자녀세대와의 근접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을 하고,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두 가지 책임에서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세대가 이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모세대로부터 자녀보육지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세대의 필요성에 따른 지리적 근접성의 양상은 저출산과 낮은 여성취업률이라는 사회문제가 개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근접거주의 등장이다. 동거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부모와 가까이 거주하는 것이다. 전통적 관습과 새로운 필요성이 타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논점은 성별 차이이다.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가고 경제력을 갖추는 경우에 분가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성별로 차이가 나타날까? 성 역할에 대한 취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보면, 이러한 분가는 남성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취업이 늘어나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성의 분가도 과거 보다는 빠르게 증가하였을 수 있다. 성별 차이는 기혼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혼인한 부부의 경우 남편 쪽 부모와 아내 쪽 부모 어느 쪽과 동거 내지 근접거주를 하는지가 주목할 부분이다.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남편 쪽 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현실에서 취업여성이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친정 부모의 손길이다. 이러한 도움을 기대하고 아내쪽 부모와 동거하거나 근접거주하는 경우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논점은 세대주기별 변화이다. 부모와 동거 내지 근접거주의 필요성과 자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변화한다. 가족형성기 이전에는 성인자녀의 경우 경제력을 갖추었다면 부모의 경제적이거나 도구적 지원이 절실하지 않다. 또한 부모도 아직 장년기나 초기 노년기인 경우가 많아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는 시기에는 성인자녀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성

인자녀가 장년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연령대가 많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를 가까이서 보살필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러한 필요성은 건강뿐 아니라 경제력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3절에서는 동거와 근접거주, 성별 차이, 세대주기별 변화를 주목하여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자 한다.

## 2. 분석방법에 있어서 논점들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은 몇 가지 방법론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쌍방향성이다. 부모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동시에 자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 더욱 어려운 점은 이 관계가 일대일로 매칭되는 것이 다자구조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각각에 대하여 근접성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와 모가 분리하여 거주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근접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남편 쪽 부모와 아내쪽 부모라는 두 방향이 존재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여럿 있을 경우 그 중 특정 자녀와는 동거 혹은 근접 거주할 수 있으나 다른 자녀와는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기혼자의 경우 남편의 부모뿐 아니라 아내의 부모간에 동거 혹은 거주거리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관계에서 근접성을 결정짓는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다. (한경혜, 김상욱 2010; 최슬기, 최새은 2012) 여기에서는 자녀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 8-1〉 지리적 근접성 분석 관련 변수

| 변수 개념       | 조사 문항  | 응답 보기  | 응답 조정   |
|-------------|--|--|---|
| 부모 생존여부     | 본인의 부친의 생존여부<br>본인의 모친의 생존여부<br>배우자의 부친의 생존여부<br>배우자의 모친의 생존여부                     | 1. 생존<br>2. 사망   | 좌동  |
|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 본인의 부친과 떨어져 사는 거리<br>본인의 모친과 떨어져 사는 거리<br>배우자의 부친과 떨어져 사는 거리<br>배우자의 모친과 떨어져 사는 거리 | 0. 같은 집에 살고 있다<br>1. 옆집, 같은 건물, 또는 집 근처<br>2. 걸어서 15분 미만 거리<br>3. 차나 전철 등으로 15-30분 미만 거리<br>4. 차나 전철 등으로 30분-1시간 미만 거리<br>5. 차나 전철 등으로 1-3시간 미만 거리<br>6. 차나 전철 등으로 3시간 이상 거리 | 1. 동거<br>2. 15분 이내<br>3. 차로 1시간 미만<br>4. 차로 1시간 이상  |
| 응답자의 성      | 성별   | 1. 남자<br>2. 여자   | 1. 남자<br>2. 여자                                      |
| 응답자의 연령     | 만나이  | 만나이  | 1. 18~34세<br>2. 35~49세<br>3. 50~64세                 |
| 응답자의 혼인상태   | 혼인상태   | 1. 기혼<br>2. 사별<br>3. 이혼<br>4. 별거<br>5. 미혼<br>6. 동거   | 1. 배우자 있음<br>2. 배우자 없음                              |
| 응답자의 소득수준   | 월평균 가구소득   | 1. 100만원 미만<br>2. 100~199만<br>3. 200~299만<br>4. 300~399만<br>5. 400~499만<br>6. 500만원 이상   | 1. 300만 미만<br>2. 300만~500만<br>3. 500만 이상            |
| 응답자의 교육수준   | 최종학력 및 졸업여부  | 1. 초등학교<br>2. 중학교<br>3. 고등학교<br>4. 전문대학(2,3년제)<br>5. 대학교(4년제)<br>6. 대학원(석사과정)<br>7. 대학원(박사과정)  | 1. 고졸미만<br>2. 고졸<br>3. 대재/전문대/대학 중퇴<br>4. 4년제 대졸 이상 |
| 응답자의 거주지    |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 1. 큰 도시<br>2. 큰 도시 주변<br>3. 작은 도시<br>4. 시골마을<br>5. 외딴 곳  | 1. 대도시<br>2. 중소도시<br>3. 농촌                          |

지리적 근접성은 동거와 따로 살 경우 부모와 성인자녀(응답자)간에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되었다(표 8-1 참조). 15분 이내 거주와 15분에서 차로 1시간 이내를 구분하였다. 즉 15분 이내 접근 가능할 경우를 근접거주로 본 것이다. 이는 “국이 식지 않을 거리”로 비록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거리를 15분 이내로 본 것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생애주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크게 세 단계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그룹인 18~34세는 미혼과 결혼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부모 세대도 장년기이거나 초기 노인기에 속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그룹인 35~49세는 자녀 출산과 양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은 응답자가 장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이 때 부모들은 후기 노인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단순화하였다. 배우자 있음에는 기혼뿐 아니라 동거도 포함토록 하였다.

〈표 8-2〉 샘플의 크기

|                               |                | 2006년 | 2016년 |
|-------------------------------|----------------|-------|-------|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중 한분이라도 생존한 경우 |                | 1,262 | 713   |
| 미혼자녀로서 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한 경우       | 응답자가 남성:       | 215   | 156   |
|                               | 응답자가 여성:       | 196   | 134   |
| 기혼자녀로서 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한 경우       | 남편의 부모가 있는 경우: | 707   | 335   |
|                               | 아내의 부모가 있는 경우: | 759   | 360   |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표 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의 근접성이 연구주제인 만큼 분석대상은 적어도 한분의 부모가 생존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자료에는 1,262개 사례가, 2016년에는 713개 사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미혼자녀로서 부모와의 근접성을 분석함에는 응답자가 미혼이며 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기혼자녀의 경우는 남편부모와 아내부모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 제2절 분석결과

### 1. 성인 자녀와 부모 간에 지리적 근접성

〈표 8-3〉는 성인자녀와 부모 간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조사에 응답한 성인들 중 부모가 한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 2006년에는 동거가 24.9% 근접거주가 8.4%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동거가 27.8% 근접거주가 12.5%로 변화하였다. 동거에서 2.9%p가 늘어났고 근접거주는 4.1%p가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 지리적 근접성이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집단에서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미혼남성은 동거가 2006년에 59.1%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3.9%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2006년 55.6%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5.2%로 소폭이지만 줄어들었다. 두드러지게 늘어난 경우는 기혼자가 아내의 부모가 동거하는 경우이다. 2006년 1.7%에 불과했던 아내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2016년에는 2.8%로 늘었다. 미혼과 기혼, 남편부모와 아내부모 모두 근접거주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8-3〉 성인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전체      | 24.9 | 8.4       | 33.0      | 33.8      | 1,262 | 27.8 | 12.5      | 27.6      | 32.1      | 713     |
| 미혼남성    | 59.1 | 0.5       | 12.1      | 28.4      | 215   | 53.9 | 3.2       | 11.5      | 31.4      | 156     |
| 미혼여성    | 55.6 | 2.0       | 13.8      | 28.6      | 196   | 55.2 | 6.0       | 9.7       | 29.1      | 134     |
| 기혼-남편부모 | 9.3  | 7.9       | 36.2      | 46.5      | 707   | 9.0  | 13.4      | 38.2      | 39.4      | 335     |
| 기혼-아내부모 | 1.7  | 7.3       | 39.4      | 51.5      | 759   | 2.8  | 10.3      | 35.0      | 51.9      | 360     |

〈표 8-4〉 성인 자녀 연령별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전체     | 24.9 | 8.4       | 33.0      | 33.8      | 1,262 | 27.8 | 12.5      | 27.6      | 32.1      | 713     |
| 18~34세 | 45.7 | 7.6       | 21.4      | 25.3      | 499   | 50.9 | 6.7       | 14.7      | 27.5      | 273     |
| 35~49세 | 11.4 | 10.0      | 39.1      | 39.5      | 598   | 14.1 | 19.8      | 36.3      | 29.8      | 248     |
| 50~64세 | 11.5 | 4.7       | 44.6      | 39.2      | 148   | 12.9 | 10.6      | 35.9      | 40.6      | 170     |

\* 전체에는 응답자가 65세 이상에서 남편쪽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표 8-4〉는 생애주기별로 지리적 근접성이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2006년에는 18~34세 시기에는 45.7%가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7.6%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11.4%가 동거하고 10.0%가 근접거주하였다. 50~64세 집단에서는 11.5%가 동거하고 4.7%가 근접거주하였다. 2016년에는 18~34세 시기에는 50.9%가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6.7%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14.1%가 동거하고 19.8%가 근접거주하였다. 50~64세 집단에서는 12.9%가 동거하고 10.6%가 근접거주하였다. 동거의 비중은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변화가 두드러진 부분은 근접거주이다. 근접거주는 18~34세 집단에서는 두 시기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35~49세와 50~64세에서는 두 배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 2. 배우자 없는 자녀와 부모 간에 지리적 근접성

### 가. 미혼 남성 자녀와 부모간에 지리적 근접성

〈표 8-5〉은 미혼남성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세대 주기별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미혼남성중에서 동거하거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6년에는 18~34세 시기에 60.9%가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0%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50.0%가 동거하고 3.1%가 근접거주하였다. 2016년에는 18~34세 시기에 33.3%가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0%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18.2%가 동거

하고 0%가 근접거주하였다.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가 나중으로 갈수록 동거비중은 줄어들었다. 2006년은 35~49세에서 절반 정도는 동거하였는데, 2016년에는 18.2%로 크게 줄어들었다. 생애주기가 점차 늦춰져가고 있음을 고려하면, 변화양상의 크기와 속도가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동거와 분가를 고려할 뿐, 근접거주의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미혼남성의 부모가 대체로 장년과 초기 노년층에 해당함을 고려하고, 자녀양육과 가사의 부담이 적은 미혼남성의 상황을 고려하면 양 측면 모두 근접거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50~64세의 경우는 미혼남성의 샘플수가 많지 않아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없었다.

〈표 8-5〉 미혼 남성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동거   | 15분 이내 | 1시간 이내 | 1시간 이상 | 사례 수 | 동거   | 15분 이내 | 1시간 이내 | 1시간 이상 | 사례 수 |
| 전체     | 59.1 | 0.5    | 12.1   | 28.4   | 215  | 61.0 | 4.1    | 10.6   | 24.4   | 156  |
| 18~34세 | 60.9 | 0.0    | 10.1   | 29.1   | 179  | 33.3 | 0.0    | 9.5    | 57.1   | 123  |
| 35~49세 | 50.0 | 3.1    | 18.8   | 28.1   | 32   | 18.2 | 0.0    | 18.2   | 63.6   | 21   |
| 50~64세 | 0.0  | 0.0    | 100    | 0.0    | 3    | 0.0  | 0.0    | 100    | 0.0    | 11   |

주: 전체에는 응답자가 65세 이상에서 남편쪽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표 8-6〉은 미혼남성 중에서도 18~34세에 해당하는 집단의 특성별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동거의 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200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48.3%이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82.8%가 동거를 하였다.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300만원 미만에서는 40.0%이었던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74.5%가 동거를 하였다.

교육수준은 2006년도에는 대학중퇴/전문대졸이 68.0% 동거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6년도에는 고졸에서 70.0%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도에는 농촌에서 동거비중이 66.7%로 가장 높았으나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6년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더 벌어져 농촌은 71.4가 동거하였으

나 대도시에서는 52.9%이었다.

〈표 8-6〉 18~34세 미혼 남성 자녀의 특성별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 2006 |           |           |           |         | 2016 |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전체               |                 | 60.9 | 0.0       | 10.1      | 29.1      | 179     | 61.0 | 4.1       | 10.6      | 24.4      | 123     |
| 가<br>구<br>소<br>득 | 300미만           | 48.3 | 0.0       | 11.2      | 40.5      | 89      | 40.0 | 10.0      | 13.3      | 36.7      | 30      |
|                  | 300~499만        | 66.0 | 0.0       | 7.6       | 26.4      | 53      | 59.3 | 3.7       | 11.1      | 25.9      | 27      |
|                  | 500만 이상         | 82.8 | 0.0       | 10.3      | 6.9       | 29      | 74.5 | 2.1       | 2.1       | 21.3      | 47      |
| 교<br>육<br>수<br>준 | 고졸 미만           | 50.0 | 0.0       | 0.0       | 50.0      | 4       | 100  | 0.0       | 0.0       | 0.0       | 1       |
|                  | 고졸              | 52.6 | 0.0       | 31.6      | 15.8      | 19      | 70.0 | 0.0       | 30.0      | 0.0       | 10      |
|                  | 대재/전문대<br>/대학중퇴 | 68.0 | 0.0       | 7.2       | 24.8      | 125     | 64.3 | 4.3       | 10.0      | 21.4      | 70      |
|                  | 대졸 이상           | 38.7 | 0.0       | 9.7       | 51.6      | 31      | 52.4 | 4.8       | 7.1       | 35.7      | 42      |
| 지<br>역           | 대도시             | 60.0 | 0.0       | 8.0       | 32.0      | 75      | 52.9 | 3.9       | 5.9       | 37.3      | 51      |
|                  | 중소도시            | 61.1 | 0.0       | 11.6      | 27.4      | 95      | 66.2 | 4.6       | 13.9      | 15.4      | 65      |
|                  | 농촌              | 66.7 | 0.0       | 11.1      | 22.2      | 9       | 71.4 | 0.0       | 14.3      | 14.3      | 7       |

## 나. 미혼 여성 자녀와 부모 간에 지리적 근접성

〈표 8-7〉은 미혼여성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세대 주기별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는 18~34세 시기에 64.4%가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1.2%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14.3%가 동거하고 9.5%가 근접거주하였다. 2016년에는 18~34세 시기에 66.7%가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0%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41.7%가 동거하고 25.0%가 근접 거주하였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비중이 18~34세에서는 소폭 증가하였던 반면, 35~49세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근접거주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35~49세 집단의 경우 샘플수가 20개 남짓으로 크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50~64세의 경우는 미혼여성의 샘플수가 10개 정도로 적어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없었다.

〈표 8-7〉 미혼 여성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전체     | 55.6 | 2.0       | 13.8      | 28.6      | 196     | 55.2 | 6.0       | 9.7       | 29.1      | 134     |
| 18~34세 | 64.4 | 1.2       | 10.4      | 23.9      | 163     | 66.7 | 0.0       | 6.5       | 26.9      | 93      |
| 35~49세 | 14.3 | 9.5       | 28.6      | 47.6      | 21      | 41.7 | 25.0      | 8.3       | 25.0      | 24      |
| 50~64세 | 10.0 | 0.0       | 30.0      | 60.0      | 10      | 13.3 | 13.3      | 26.7      | 46.7      | 15      |

\* 전체에는 응답자가 65세 이상에서 남편쪽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표 8-8〉은 미혼여성 중에서도 18~34세에 해당하는 집단의 특성별 자녀와 부모간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동거의 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200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39.3%이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87.5%가 동거를 하였다.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300만원 미만에서는 18.2%이었던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75.6%가 동거를 하였다.

교육수준은 2006년도에는 대학중퇴/전문대졸이 66.3% 동거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대학중퇴/전문대졸이 71.1%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도에는 농촌에서 동거비중이 81.8%로 가장 높았다. 2016년도에는 농촌의 경우 100% 동거하고 있었으나 사례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중소도시의 경우에 81.6%가 동거하였다. 대체로 남성 대비 여성의 경우가 동거 비중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8〉 18~34세 미혼 여성 자녀의 특성별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 전체           | 64.4            | 1.2       | 10.4      | 23.9      | 163     | 66.7 | 0.0       | 6.5       | 26.9      | 93      |    |
| 가<br>구<br>소득 | 300미만           | 39.3      | 1.8       | 16.1      | 42.9    | 56   | 18.2      | 0.0       | 18.2      | 63.6    | 22 |
|              | 300~499만        | 69.6      | 0.0       | 10.7      | 19.6    | 56   | 80.0      | 0.0       | 6.7       | 13.3    | 15 |
|              | 500만 이상         | 87.5      | 2.5       | 2.5       | 7.5     | 40   | 75.6      | 0.0       | 2.4       | 22.0    | 41 |
| 교육<br>수준     | 고졸 미만           | 100       | 0.0       | 0.0       | 0.0     | 3    | 100       | 0.0       | 0.0       | 0.0     | 1  |
|              | 고졸              | 61.1      | 0.0       | 16.7      | 22.2    | 18   | 60.0      | 0.0       | 0.0       | 40.0    | 5  |
|              | 대재/전문대<br>/대학중퇴 | 66.3      | 1.1       | 8.4       | 24.2    | 95   | 71.1      | 0.0       | 4.4       | 24.4    | 45 |
|              | 대졸 이상           | 59.6      | 2.1       | 12.8      | 25.5    | 47   | 61.9      | 0.0       | 9.5       | 28.6    | 42 |
| 지역           | 대도시             | 67.2      | 1.6       | 6.6       | 24.6    | 61   | 40.5      | 0.0       | 10.8      | 48.7    | 37 |
|              | 중소도시            | 60.4      | 1.1       | 14.3      | 24.2    | 91   | 81.6      | 0.0       | 4.1       | 14.3    | 49 |
|              | 농촌              | 81.8      | 0.0       | 0.0       | 18.2    | 11   | 100       | 0.0       | 0.0       | 0.0     | 7  |

### 3. 기혼 자녀와 부모 간에 지리적 근접성

#### 가.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표 8-9〉는 기혼자 중에서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세대주기별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는 18~34세 시기에 7.1%가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13.6%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8.9%가 동거하고 6.3%가 근접 거주하였다. 50~64세 집단에서는 세 생애주기 중 가장 큰 14.8%가 동거하였고 6.8%가 근접 거주하였다. 2016년에는 18~34세 시기에 3.7%만이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13.0%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6.7%가 동거하고 14.0%가 근접거주하였다. 50~64세에서는 15.6%가 동거하였고 10.4%가 근접 거주하였다.

동거의 비중은 생애주기가 나중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지점은 근접거주의 증가이다. 지난 10년 동안 특히 35~49세 집단에서 근접거주가 늘어났다. 2016년

을 보면 18~34세와 35~49세 집단은 동거보다도 근접거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혼인과 함께 분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자식 간에 지원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근접거주를 하는 경우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8-9〉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전체     | 9.3  | 7.9       | 36.2      | 46.5      | 707     | 9.0  | 13.4      | 38.2      | 39.4      | 335     |
| 18~34세 | 7.1  | 13.6      | 41.6      | 37.7      | 154     | 3.7  | 13.0      | 33.3      | 50.0      | 54      |
| 35~49세 | 8.9  | 6.3       | 34.3      | 50.5      | 463     | 6.7  | 14.0      | 41.3      | 38.0      | 179     |
| 50~64세 | 14.8 | 6.8       | 37.5      | 40.9      | 88      | 15.6 | 10.4      | 36.5      | 37.5      | 96      |

\* 전체에는 응답자가 65세 이상에서 남편쪽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표 8-10〉은 기혼자 중에서도 18~34세에 해당하는 집단의 특성별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동거의 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200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4.0%만이 동거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17.2%가 동거를 하였다. 201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0%만이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5.6%가 동거를 하였다.

교육수준은 2006년도에는 고졸이 9.3% 동거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졸이 11.1%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도에는 농촌에서 동거비중이 20.0%로 가장 높았다. 2016년도에는 농촌의 경우 20.0% 동거하였다. 농촌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표 8-10〉 18~34세(응답자 기준) 시기,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 전체               | 7.1             | 13.6      | 41.6      | 37.7      | 154     | 3.7  | 13.0      | 33.3      | 50.0      | 54      |    |
| 가<br>구<br>소<br>득 | 300미만           | 4.0       | 15.8      | 38.2      | 42.1    | 76   | 0.0       | 20.0      | 10.0      | 70.0    | 10 |
|                  | 300~499만        | 6.3       | 10.4      | 40.0      | 43.8    | 48   | 4.6       | 9.1       | 36.4      | 50.0    | 22 |
|                  | 500만 이상         | 17.2      | 10.3      | 55.2      | 17.2    | 29   | -         | -         | -         | -       | 18 |
| 교<br>육<br>수<br>준 | 고졸 미만           | -         | -         | -         | -       | 0    | -         | -         | -         | -       | 0  |
|                  | 고졸              | 9.3       | 11.1      | 42.6      | 37.0    | 54   | 11.1      | 11.1      | 11.1      | 66.7    | 9  |
|                  | 대재/전문대<br>/대학중퇴 | 6.9       | 24.1      | 37.9      | 31.0    | 29   | 6.7       | 6.7       | 46.7      | 40.0    | 15 |
|                  | 대졸 이상           | 5.6       | 11.3      | 42.3      | 40.9    | 71   | 0.0       | 16.7      | 33.3      | 50.0    | 30 |
| 지<br>역           | 대도시             | 5.4       | 23.2      | 41.1      | 30.4    | 56   | 5.9       | 0.0       | 41.2      | 52.9    | 17 |
|                  | 중소도시            | 6.8       | 8.0       | 43.2      | 42.1    | 88   | 0.0       | 21.9      | 31.3      | 46.9    | 32 |
|                  | 농촌              | 20.0      | 10.0      | 30.0      | 40.0    | 10   | 20.0      | 0.0       | 20.0      | 60.0    | 5  |

〈표 8-11〉은 기혼자 중에서도 35~49세에 해당하는 집단의 특성별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이 200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10.4%가 동거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가장 작은 6.1%가 동거를 하였다. 201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13.0%만이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5.6%가 동거를 하였다. 18~34세와 달리 가구소득이 올라갈수록 동거비중이 줄어들었다.

교육수준은 2006년도에는 고졸미만이 17.2% 동거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졸미만이 20.0%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도에는 농촌에서 동거비중이 34.4%로 가장 높았다. 2016년도에는 농촌의 경우 23.5% 동거하여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8-11〉 35~49세(응답자 기준) 시기,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 동거              | 15분 이내 | 1시간 이내 | 1시간 이상 | 사례 수 | 동거   | 15분 이내 | 1시간 이내 | 1시간 이상 | 사례 수 |     |
| 전체               | 8.9             | 6.3    | 34.3   | 50.5   | 463  | 6.7  | 14.0   | 41.3   | 38.0   | 179  |     |
| 가<br>구<br>소<br>득 | 300미만           | 10.4   | 6.5    | 40.9   | 42.2 | 154  | 13.0   | 21.7   | 43.5   | 21.7 | 23  |
|                  | 300~499만        | 9.7    | 5.7    | 32.0   | 52.6 | 175  | 5.2    | 10.3   | 43.1   | 41.4 | 58  |
|                  | 500만 이상         | 6.1    | 6.1    | 30.5   | 57.3 | 131  | 5.6    | 14.4   | 41.1   | 38.9 | 90  |
| 교<br>육<br>수<br>준 | 고졸 미만           | 17.2   | 3.5    | 27.6   | 51.7 | 29   | 20.0   | 40.0   | 20.0   | 20.0 | 5   |
|                  | 고졸              | 12.2   | 7.2    | 31.5   | 49.2 | 181  | 10.2   | 10.2   | 51.0   | 28.6 | 49  |
|                  | 대재/전문대<br>/대학중퇴 | 7.6    | 7.6    | 36.4   | 48.5 | 66   | 10.6   | 14.9   | 36.2   | 38.3 | 47  |
|                  | 대졸 이상           | 4.8    | 5.4    | 37.4   | 52.4 | 187  | 1.3    | 14.1   | 40.0   | 44.9 | 78  |
| 지<br>역           | 대도시             | 6.7    | 8.1    | 34.9   | 50.3 | 149  | 3.9    | 13.7   | 37.3   | 45.1 | 51  |
|                  | 중소도시            | 7.1    | 5.3    | 34.8   | 52.8 | 282  | 5.5    | 13.6   | 44.6   | 36.4 | 110 |
|                  | 농촌              | 34.4   | 6.3    | 28.1   | 31.3 | 32   | 23.5   | 17.7   | 29.4   | 29.4 | 17  |

〈표 8-12〉는 기혼자 중에서도 50~64세에 해당하는 중년기 집단의 특성별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이 200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13.2%가 동거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가장 작은 20.0%가 동거를 하였다. 201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33.3%가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13.2%가 동거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전 생애주기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동거비중이 커졌다. 노부모의 건강과 경제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간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2006년도에는 고졸이 20.7% 동거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6년도에는 대학중퇴/전문대졸이 33.3%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도에는 농촌에서 동거비중이 50.0%로 가장 높았다. 2016년도에는 중소도시에서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18.0%가 동거하였다.

〈표 8-12〉 50~64세(응답자 기준) 시기, 남편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 전체               | 14.8            | 6.8       | 37.5      | 40.9      | 88      | 15.6 | 10.4      | 36.5      | 37.5      | 96      |    |
| 가<br>구<br>소<br>득 | 300미만           | 13.2      | 5.3       | 44.7      | 36.8    | 38   | 33.3      | 8.3       | 41.7      | 16.7    | 12 |
|                  | 300~499만        | 13.0      | 8.7       | 34.8      | 43.5    | 23   | 14.3      | 17.9      | 39.0<br>3 | 28.6    | 28 |
|                  | 500만 이상         | 20.0      | 8.0       | 32.0      | 40.0    | 25   | 13.2      | 7.6       | 32.1      | 47.2    | 53 |
| 교<br>육<br>수<br>준 | 고졸 미만           | 14.7      | 8.08      | 47.1      | 29.4    | 34   | 16.7      | 25.0      | 25.0      | 33.3    | 12 |
|                  | 고졸              | 20.7      | 6.9       | 24.1      | 48.3    | 29   | 12.8      | 5.1       | 43.6      | 38.5    | 39 |
|                  | 대재/전문대<br>/대학중퇴 | 0.0       | 0.0       | 33.3      | 66.7    | 6    | 33.3      | 0.0       | 33.0      | 33.0    | 9  |
|                  | 대졸 이상           | 10.5      | 5.3       | 42.1      | 42.1    | 19   | 13.9      | 13.9      | 33.3      | 38.9    | 36 |
| 지<br>역           | 대도시             | 18.8      | 9.4       | 34.4      | 37.5    | 32   | 5.0       | 5.0       | 35.0      | 55.0    | 20 |
|                  | 중소도시            | 6.3       | 4.2       | 45.8      | 43.8    | 48   | 18.0      | 8.2       | 39.3      | 34.4    | 61 |
|                  | 농촌              | 50.0      | 12.5      | 0.0       | 37.5    | 8    | 14.3      | 28.6      | 28.6      | 28.6    | 14 |

## 나.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표 8-13〉은 기혼자 중에서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세대주기별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는 18~34세 시기에 2.6%가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는 11.8%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1.6%가 동거하고 7.1%가 근접 거주하였다. 50~64세 집단에서는 1%만이 동거하였고 근접거주도 1%에 불과하였다. 2016년에는 18~34세 시기에 동거비중이 0%이었고 근접거주는 14.8%이었다. 35~49세 집단에서는 3.4%가 동거하고 12.9%가 근접거주하였다. 50~64세에서는 2.7%가 동거하였고 5.3%가 근접 거주하였다.

기혼자 전체 중 처가와 동거하는 비중은 2006년 1.7%에서 2016년 2.8%로 1.1%p 증가하였다. 소폭 증가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아내쪽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근접거주는 2006년 7.3%에서 2016년 10.3%로 3%p 증가하였다. 특히 35~49세 집단에서 근접거주가 두드러졌다.

아내쪽 부모와는 동거 보다는 근접거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혼인과 함께 분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내쪽 부모-자식 간에 지원을 주고 받기 위해서라도 근접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3〉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전체     | 1.7  | 7.3       | 39.4      | 51.5      | 759     | 2.8  | 10.3      | 35.0      | 51.9      | 360     |
| 18~34세 | 2.6  | 11.8      | 43.1      | 42.5      | 153     | 0.0  | 14.8      | 37.0      | 48.2      | 54      |
| 35~49세 | 1.6  | 7.1       | 35.3      | 55.9      | 496     | 3.4  | 12.9      | 35.8      | 48.0      | 179     |
| 50~64세 | 1.0  | 1.0       | 53.1      | 44.8      | 96      | 2.7  | 5.3       | 34.5      | 57.5      | 113     |

\* 전체에는 응답자가 65세 이상에서 아내쪽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표 8-14〉는 기혼자 중에서도 18~34세에 해당하는 집단의 특성별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동거의 비중이 높았지만 그 변화폭은 크지 않았다. 가구소득이 200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2.7%만이 동거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3.6%가 동거를 하였다. 201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0%만이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5.6%가 동거를 하였다. 근접거주는 2006년도에는 300~499만원 소득집단에서 16.0%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16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에서 21.1%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2006년도에는 고졸이 3.8% 동거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근접거주는 2006년도에는 대학중퇴/전문대졸 집단에서 20.0%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16년도에는 대졸 이상에서 20.0%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도에는 농촌에서 동거비중이 10.0%로 가장 높았다. 농촌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표 8-14〉 18~34세(응답자 기준) 시기,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 전체               | 2.6             | 11.8      | 43.1      | 42.5      | 153     | 0.0  | 14.8      | 37.0      | 48.2      | 54      |    |
| 가<br>구<br>소<br>득 | 300미만           | 2.7       | 10.8      | 37.8      | 48.7    | 74   | 0.0       | 0.0       | 50.0      | 50.0    | 10 |
|                  | 300~499만        | 2.0       | 16.0      | 44.0      | 38.0    | 50   | 0.0       | 19.1      | 33.3      | 47.6    | 21 |
|                  | 500만 이상         | 3.6       | 7.1       | 57.1      | 32.1    | 28   | 0.0       | 21.1      | 42.1      | 36.8    | 19 |
| 교<br>육<br>수<br>준 | 고졸 미만           | -         | -         | -         | -       | 0    | -         | -         | -         | -       | 0  |
|                  | 고졸              | 3.8       | 11.3      | 37.7      | 47.2    | 53   | 0.0       | 0.0       | 33.3      | 66.7    | 9  |
|                  | 대재/전문대<br>/대학중퇴 | 3.3       | 20.0      | 40.0      | 36.7    | 30   | 0.0       | 13.3      | 40.0      | 46.7    | 15 |
|                  | 대졸 이상           | 1.4       | 8.6       | 48.6      | 41.4    | 70   | 0.0       | 20.0      | 36.7      | 43.3    | 30 |
| 지<br>역           | 대도시             | 0.0       | 9.3       | 51.9      | 38.9    | 54   | 0.0       | 16.7      | 22.2      | 61.1    | 18 |
|                  | 중소도시            | 3.4       | 13.5      | 38.2      | 44.9    | 89   | 0.0       | 15.6      | 46.9      | 37.5    | 32 |
|                  | 농촌              | 10.0      | 10.0      | 40.0      | 40.0    | 10   | 0.0       | 0.0       | 25.0      | 75.0    | 4  |

〈표 8-15〉는 기혼자 중에서도 35~49세에 해당하는 집단의 특성별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이 생애주기는 여성의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이다. 가구소득이 200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1.7%가 동거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소폭이지만 가장 많은 2.4%가 동거를 하였다. 201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4.2%가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5.4%가 동거를 하였다.

교육수준은 2006년도에는 고졸미만이 2.9% 동거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다. 2016년도에는 대학중퇴/전문대졸이 5.9%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도에는 대도시에서 동거비중이 1.8%로 가장 높았다. 2016년도에도 대도시에서 6.1%가 동거하여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동거비중이 높았던 반면 35~49세의 기혼여성의 경우엔 대도시에서 동거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표 8-15〉 35~49세(응답자 기준) 시기,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 전체               | 1.6             | 7.1       | 35.3      | 55.9      | 496     | 3.4  | 12.9      | 35.8      | 48.0      | 179     |     |
| 가<br>구<br>소<br>득 | 300미만           | 1.7       | 7.8       | 34.1      | 56.4    | 179  | 4.2       | 12.5      | 41.7      | 41.7    | 24  |
|                  | 300~499만        | 1.1       | 8.4       | 38.4      | 51.6    | 190  | 0.0       | 16.1      | 35.7      | 48.2    | 56  |
|                  | 500만 이상         | 2.4       | 4.0       | 32.0      | 61.6    | 125  | 5.4       | 9.8       | 33.7      | 51.1    | 92  |
| 교<br>육<br>수<br>준 | 고졸 미만           | 2.9       | 2.9       | 31.4      | 62.9    | 35   | 0.0       | 0.0       | 50.0      | 50.0    | 4   |
|                  | 고졸              | 1.0       | 9.1       | 37.3      | 52.6    | 209  | 2.1       | 12.8      | 34.0      | 51.1    | 47  |
|                  | 대재/전문대<br>/대학중퇴 | 1.5       | 6.2       | 40.0      | 52.3    | 65   | 5.9       | 11.8      | 37.3      | 45.1    | 51  |
|                  | 대졸 이상           | 2.0       | 5.9       | 32.1      | 59.4    | 187  | 2.6       | 14.3      | 35.1      | 48.1    | 77  |
| 지<br>역           | 대도시             | 1.8       | 7.3       | 31.7      | 58.5    | 164  | 6.1       | 14.3      | 24.5      | 55.1    | 49  |
|                  | 중소도시            | 1.7       | 6.1       | 37.4      | 54.9    | 297  | 2.7       | 14.3      | 41.1      | 42.0    | 112 |
|                  | 농촌              | 0.0       | 14.3      | 34.3      | 51.4    | 35   | 0.0       | 0.0       | 29.4      | 70.6    | 17  |

〈표 8-16〉은 기혼자 중에서도 50~64세에 해당하는 중년기 집단의 특성별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이 200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2.1%가 동거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동거하는 경우가 조사되지 않았다. 2016년에는 300만원 미만에서는 5.9%가 동거하였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3.7%가 동거를 하였다.

교육수준은 2006년도에는 대졸이 4.2% 동거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6년도에는 대학중퇴/전문대졸이 11.1%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6년도에는 중소도시에서 동거비중이 1.7%로 가장 높았다. 2016년도에는 대도시에서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4.0%가 동거하였다.

〈표 8-16〉 50~64세(응답자 기준) 시기, 아내쪽 부모와 지리적 근접성 (2006/2016년)

(단위: %, 명)

| 구 분              | 2006            |           |           |           |         | 2016 |           |           |           |         |    |
|------------------|-----------------|-----------|-----------|-----------|---------|------|-----------|-----------|-----------|---------|----|
|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동거   | 15분<br>이내 | 1시간<br>이내 | 1시간<br>이상 | 사례<br>수 |    |
| 전체               | 1.0             | 1.0       | 53.1      | 44.8      | 96      | 2.7  | 5.3       | 34.5      | 57.5      | 113     |    |
| 가<br>구<br>소<br>득 | 300미만           | 2.1       | 0.0       | 53.2      | 44.7    | 47   | 5.9       | 17.7      | 41.2      | 35.3    | 17 |
|                  | 300~499만        | 0.0       | 0.0       | 47.6      | 52.4    | 21   | 0.0       | 5.3       | 39.5      | 55.3    | 38 |
|                  | 500만 이상         | 0.0       | 3.9       | 57.7      | 38.5    | 26   | 3.7       | 1.9       | 29.6      | 64.8    | 54 |
| 교<br>육<br>수<br>준 | 고졸 미만           | 0.0       | 0.0       | 44.4      | 55.6    | 36   | 5.6       | 11.1      | 22.2      | 61.1    | 18 |
|                  | 고졸              | 0.0       | 0.0       | 58.1      | 41.9    | 31   | 0.0       | 6.5       | 30.4      | 63.0    | 46 |
|                  | 대재/전문대<br>/대학중퇴 | 0.0       | 0.0       | 40.0      | 60.0    | 5    | 11.1      | 0.0       | 66.7      | 22.2    | 9  |
|                  | 대졸 이상           | 4.2       | 4.2       | 62.5      | 29.2    | 24   | 2.5       | 2.5       | 37.5      | 57.5    | 40 |
| 지<br>역           | 대도시             | 0.0       | 0.0       | 51.9      | 48.2    | 27   | 4.0       | 4.0       | 4.0       | 52.0    | 25 |
|                  | 중소도시            | 1.7       | 1.7       | 53.3      | 43.3    | 60   | 2.9       | 5.8       | 31.9      | 59.4    | 69 |
|                  | 농촌              | 0.0       | 0.0       | 55.6      | 44.4    | 9    | 0.0       | 5.6       | 38.9      | 55.6    | 18 |

### 제3절 결론

제3절에서는 KGSS 2006년 및 2016년 자료를 이용해 세대간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세대간 관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시기 간에 동거의 비중은 24.9%에서 27.8%로 소폭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동안에 15분 이내에 근접 거주함을 의미하는 근접성은 8.4%에서 12.5%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근접성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들에게서, 18~39세의 젊은 응답자들보다도 35~49세의 집단과 50~64세 집단에서 크게 늘었다. 자녀양육 관련 부모세대로부터 도구적 지원 필요성과, 노부모가 연로해짐에 따라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동거하지 않고 근접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전통적 가치관과 실용적인 필요성간에 타협된 결과일 수 있다. 수치로 보면 크진 않지만 아내쪽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특히 근접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분석결과를 특정 요인을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 샘플수가 충분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는 주어진 수치값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요인보다는 형제자매수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인구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화일 수도 있다. 이 절은 근접성 양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인에 대한 검증은 보다 정직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9 장

## 가족관계와 정치행위

제1절 서론: 가족과 정치

제2절 맥락으로서의 가족

제3절 가족관계와 정치행태

제4절 결론



# 9

## 가족관계와 정치행위 <<

### 제1절 서론: 가족과 정치

현대 정치 이론이나 정치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은 무시되거나 대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라는 주제가 상이한 가치, 신념, 의견, 이해관계들 간 갈등을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플라톤 같은 고대 현인들조차 가족을 정치에서 자연스럽게 배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Daub et al, 2013). 그러나 최근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작 정치과정에서 논쟁적인 이슈들은 가족가치, 동성결혼, 일-가족 양립, 낙태 등과 같이 가족이 관련된 것들이다. 즉 가족은 정치적 담론의 소재이고 대상이 되기는 하나 족벌정치처럼 부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연구에서 주체적인 위상을 가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치에서 가족이 배제된 역사는 근현대 정치철학과 정치연구에서 지속되다가, Foucault(1976)의 정치와 권력에 대한 환기를 계기로 사상적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는 “섹슈얼리티의 역사”에서 가족을 통제의 주체이자 성적 충족의 장소로 정의하면서 가족을 경제적 계급, 민족성, 시민권, 그리고 인종 등이 재생산되는 사회체계의 핵심적 지점으로 표현한다(Foucault, 1976). 그에게 가족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정치가 재생산되는 주요 공간 중 하나이다. 더 이상 가족은 정치적 담론 공간에서 대상화되는 객체가 아닌 주체적으로 권력을 생산, 강화, 재생산하는 정치행위가 일상화된 공간이다.

사회학에서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의 교수들이 개인의 정치행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의 정치적 복권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미국 경험적 사회학의 대부로 칭송되며 이 연구팀을 이끌었던 Lazarsfeld는 정치행위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맥락이 투표 참여와 지지후보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 개인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interests)와 선호(preferences)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Berelson et al, 1954). 노조, 정당, 미디어 등이 유권자의 지지 후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종교,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투

표를 할 것인지를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매체는 유권자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선호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나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다면, 이 차이가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Lazarsfeld et al, 1968). 따라서 가족은 당파성의 주요 원천이다. 가족구성원들은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서로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Lazarsfeld의 주장이다.

정치 태도와 행위를 경험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과는 물론 정치학이다. 정치학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사회학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선거와 투표 연구의 주도권이 1960년대 초반부터 미시건 대학교 정치학자들의 손으로 넘어오고, 이들이 정치심리학적 입장에서 정치 태도와 행위를 설명하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미시건 학파의 연구는 맥락과 사회적 관계에 의한 정치 태도와 행위 설명이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투표참여와 지지후보 선택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전면에 내세운다(Campbell et al., 1960). 정당일체감은 개인이 특정 정당에 가지고 있는 동질감 또는 일종의 충성심을 의미한다. 정당일체감은 개인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구자들은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의 하나로 간주하는데, 이 정체성은 가족 구성원과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정당일체감은 일단 형성되면 거의 변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선거에서의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른 모든 투표결정 요인들에 선행한다(박원호, 송정민, 2012). 가족과 정치 간 관계의 맥락에서, 정당일체감이 중요한 이유는 그 형성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당일체감은 정치사회화 과정 초기에 형성되는데, 이 과정은 대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부모, 형제, 친척들은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진 정치적 지향과 선호는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정당일체감의 내용과 강도를 결정한다(Campbell et al., 1960). 즉 가족구성원들, 특히 부모의 정치 태도는 자녀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족이 정치 태도와 행위에 대한 경험연구에서 현대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지점이다.

본 연구는 가족과 정치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선 정치성향의 세대 간 상속 또는 세대 간 전이가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세대 간 전이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족 간 정치대화과 정치 태도 및 행위 간 관계를 분석한다. 세대 간 정치성향 및 지지후보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그러한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제2절 맥락으로서의 가족

### 1. 가족과 정치사회화

통상적으로 정치조사에는 시민들의 정치적 정향(orientation), 가치(values), 태도(attitude), 행태(behavior)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해당 공동체의 정치적 특성을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정치조사가 주로 선거기간에 이루어지고, 선거결과 예측이 주된 목적이며, 제한된 수효의 문항과 비확률표집의 단발·다수 조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조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적 내용이 어떻게 가족과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가족은 개인이 정치적 정향, 가치, 태도를 형성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의 핵심적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의 정치문화를 습득하는 과정, 또는 정치생활의 양식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정치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이 해당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이며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정치적 정향을 가지게 된다.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은 가족, 동료집단, 학교, 매스미디어 등의 영향을 받고 정서적, 인지적, 평가적 측면에서 정치적 정향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성향을 만들고 표현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특히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권위, 질서, 규율 등을 배우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사회,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 등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간다. 그 결과 개인은 자신만의 정치적 자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정치적 자아는 특정한 정치가나 정책에 대한 태도와 판단체계를 발달시킨다.

정치의식과 태도가 젊은 성년 시기에 중심으로 형성되며 가족 내의 사회화를 통해 전승된다는 전통적 연구(Jennings, 2007)를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바탕을 둔 논의까지 서구에서 정치사회화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정치사회화 연구를 경험적으로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사회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 개인들이 젊은 성인(young adult)이 되는 시점인데, 예컨대 중고생과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연구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수십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구성되고 풍화(風化)되는 사회화 과정을 긴 호흡에서 추적한 서구 연구 성과들(Jennings & Niemi, 1981; Jennings & Markus 1984; Sears & Funk, 1999)에 비견할 만한 연구의 전망조차 난망하다.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종합사회조사가 지니는 장점은 보다 풍부한 문항의 내용을 가지고 적어도 현재의 횡단면적인(cross-sectional) 정보를 통해서 사회화 과정의 내용과 결과를 나름대로 재구성해볼 수 있을 여지를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 언젠가는 한국적인 정치사회화를 본격적으로 규명할 바탕이 마련된다 할 것이다.

## 2. 사회적 관계와 정치

선거 과정에서 지지후보 선택과 같은 정치 행위가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위자가 위치한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Schmitt-Beck et al, 2016).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때, 유권자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김석호, 한수진, 2015). 이는 투표의 전염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가령 나와 다른 사람 간 투표 선택의 불일치는 다른 사람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의 결정을 바꾸게 한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대화는 투표참여와 지지 정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McClurg, 2012).

사회적 연결망 속성과 정치적 행위의 관계에 주목한 이론적 설명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용(content)에 주목하는데, 정치적 대화가 정치적 학습과 설득을 이끄는 심의의 교환(deliberative exchange)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연결망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 결정을 바로잡도록 도와준다(Redlawsk & Lau, 1997). 이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결정이 이념이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며 완전한 정보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의한 투표 참여 촉진, 정당과 후보 지지의 영향을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은 동원(mobilization)에 의한 효과에 주목한다. 동원은 후보자, 정당, 운동원, 단체 등이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며,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동원되었다고 한다(Rosenstone & Hansen, 2003: 25-26). 다른 사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의 연결망이 보다 동질적이고 촘촘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연고에 기초한 사적신뢰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동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McDonough, Shin, & Moises, 1998; Park & Shin, 2005). 따라서 동원이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지지후보 선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인 것은 자명하다.

어떤 시각으로 사회적 관계와 정치 행위 간 관계를 바라보던지 간에 동원이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해 흐르는 정보와 기회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사회적 연결망은 종종 선거에 대한 정보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개인들이 맺는 관계가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Downs, 1957). 사회적 연결망을 타고 흐르는 정보는 정치적 계산과 의견 형성 그리고 정치적 정보 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정치적인 정보를 획득하는데 투자할 시간에 제한받는다(Fiske & Taylor, 1991). 이러한 연결망을 통한 정보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타인과의 정치적 대화가 유권자에게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는 주장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비밀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기도 한다. Gerber 외(2013)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두 주장은 각각 절반 정도의 유권자에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기에 사회적 연결망의 속성을 고려했을 경우, 사회적 관계 내 정치적 동질성이 높은 경우 정치적 대화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 그리고 투표 참여에 대한 결정에 사회적 관계는 강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관계들의 효과는 항상 유효한 것일까?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사회적 관계의 정치 태도와 행위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둘 간의 관계가 기대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에서의 관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맥락이 위계적인 조직문화가 지배적인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간 관계라면, 그 관계가 아무

리 밀접하더라도 평등한 분위기에서 정치적 대화와 토론을 거쳐 서로 정치적 영향을 주고받는다(김석호, 한수진, 2015).

그래서 몇몇 연구들은 정치적 선호와 투표 선택은 사회적 맥락에 배태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다(Huckfeldt & Sprague, 1991). 정치적 토론 대상(political discussant)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 토론이 어떤 세팅에서 이루어지는가도 동시에 중요한 것이다. 가령 특정 맥락에서의 정치적 대화나 토론은 특정 당파적 신호(partisan cue)만이 정당처럼 여겨져 다른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하고, 이 같은 맥락에서의 정치담론의 상호작용은 서로를 납득시키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토론 상대가 누구인가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선택은 항상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맥락적 요인은 양자 간 토론에서 영향력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요인들로 기능한다. 따라서 사회연결망이 가지는 정치행태의 효과나 정치토론의 긍정적 신호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 영향에 대한 다층적인 관점과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 간 구성원들 간의 토론은, 설사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 토론이라 할지라도, 상호 정치적 영향을 주고받기에 가장 이상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의 파급효과도 가장 강력하다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 3. 가족 간 대화와 정치 태도 및 행위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연결망의 속성(크기, 범위, 밀도, 동질성, 이질성 등)은 개인의 정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내에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라면 더욱 그렇다(McClurg et al, 2013). Johnston(1995)은 이를 이웃 효과(neighborhood effect)로 설명한다. 그는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이웃 효과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가족, 친구, 이웃 등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떤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결망이 대부분 공간적으로 한정된 조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정보도 그러한 공간적 한계 안에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특히 편향적이거나 부정확한 정치정보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집중된 맥락에서 더 효과를 발휘한다(Cox, 1969). 이러한 공간적 집중이 이웃 효과를 만든다. 이웃 효과는 경험적으

로 꾸준히 검증되어 왔는데, 그 후속연구 결과들 중 특기할만한 것이 '대화에 의한 전환(conversion by conversation)이다(Eagles, 1995a; 1995b).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친구, 직장동료의 태도가 전이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Curtice(1995)와 같은 학자는 정치적 대화가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결과가 반드시 이웃 효과의 존재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들 간 정치대화의 존재 여부가 정치적 관심 수준, 투표 참여,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동원이라는 시각으로 정치 대화나 토론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기존 연구는 가족 내 정치 대화 또는 토론을 가족 구성원에 의한 지지후보 요청과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동원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그 주체도 가족, 친구, 이웃, 모임 및 단체, 학교, 직장, 후보자, 정당활동가, 선거운동원 등으로 다양하다. 소속단체 임원, 후보자, 정당활동가, 선거운동원에 의한 동원보다 가족, 친구, 이웃에 의한 동원이 갖는 투표 참여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지지를 요청했을 때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지지를 요청했을 때보다 투표할 확률을 세 배 이상 높이며, 배우자와의 정치적 토론의 빈도에 따라 투표 참여 가능성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한다(Huckfeldt and Sprague, 1991).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투표 참여 의지를 밝히면 이 결정이 전염성이 있어 나머지 구성원들의 투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Zuckerman et al, 2007). 요약하면, 유권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지지를 부탁하는 경우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가 지지를 부탁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투표 참여에 대한 효과가 전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기존 연구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선거 또는 정치에 대한 대화 및 토론이 유권자들을 간접적으로 동원하는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노력해 왔다(McClurg, 2003; Rolfe, 2012) Glaser(1959)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원은 유권자의 가족 중 남은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정당 운동원이나 시민 단체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가구에서 가장 정치화된(politicized) 구성원과 접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가구 내의 동원 효과는 구성원들의 정치 성향이 동질적인 경우보다 이질적인 경우에 더 크다. 이는 정치에 대한 대화나 토론을 행태적 전염(contagion)보

다 토론을 메커니즘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된다. 즉 가족 구성원들 간 정치적 태도와 성향이 같을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기존 태도가 강화될 뿐이지만, 반대로 그것이 이질적일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기존의 태도와 판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의미 있는 타자가 제시하는 대안적 논리를 심사숙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토론하는 상대방이 특정한 정치적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를 참고해 투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된 바 있다. 더욱이 그 상대방이 가족 구성원이고 정치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경우라면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바꿀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Johnston, 1995). Miller(1977)의 표현을 빌면 “정치적 대화를 하는 가족들은 함께 투표”한다.

### 제3절 가족관계와 정치행태

#### 1. 정치 성향의 대물림

##### 가. 2016년 투표참여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투표참여와 지지정당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우선 투표행태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인 투표참여(turn out)이다. 통상 선거조사에서 투표참여—투표참여 여부의 회상(recall)—의 과대보고(over-reporting)는 항상 문제였다(Burden, 2000; Hanmer et al. 2010; Karp and Brockington 2005; Silver, Anderson, and Abramson 1986). 그 이유가 선택적 표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문제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매우 단순한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선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자료에서 보이는 투표참여율이 실제 투표 참여율보다 매우 높아,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는 95%에 육박하는 샘플의 참여율이 보고된 적도 있다(이내영, 서현진, 2013).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투표 참여율 또한 실제 투표율이었던 60%를 상당히 상회하는 약 77%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1〉 성별 투표참여율

(단위: %, 명)

|    | 구분 | 투표 참여 | 계 (N) |
|----|----|-------|-------|
| 성별 | 남성 | 76.3  | 456   |
|    | 여성 | 78.4  | 541   |

〈표 9-1〉에서 보이는 투표참여율을 다시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로 나타낸 것인데 보이는 것처럼 성별 투표참여율은 여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 .05$ )이며 최근 보고되고 있는 투표율의 남녀 격차와도 일치한다.

〈표 9-2〉 연령대별 투표 참여

(단위: %, 명)

|    | 구분     | 투표 참여 | 계 (N) |
|----|--------|-------|-------|
| 연령 | 18-29세 | 69.4  | 183   |
|    | 30-39세 | 68.3  | 167   |
|    | 40-49세 | 76.4  | 165   |
|    | 50-59세 | 79.2  | 173   |
|    | 60세 이상 | 86.7  | 309   |

〈표 9-2〉는 연령대별 투표참여율을 나타낸다. 잘 알려진 것처럼 투표참여율은 가장 고연령대인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투표참여율도 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부분은, 40대와 50대의 투표율 차이가 70%대 후반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고, 20대와 30대의 투표율 격차는 오히려 30대가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30대와 40대의 투표율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첫 투표이거나 군복무 투표 등으로 인해 20대의 투표율이 반드시 30대보다 낮지는 않다는 사실과 사회진출 초기에 처한 30대의 투표율이 낮아질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타 조사들의 결과와도 다르지 않다.

〈표 9-3〉 가구소득별 투표 참여

(단위: %, 명)

|    | 구분        | 투표 참여 | 계 (N) |
|----|-----------|-------|-------|
| 소득 | 100만원 미만  | 78.9  | 133   |
|    | 100-199만원 | 76.7  | 103   |
|    | 200-299만원 | 71.1  | 121   |
|    | 300-399만원 | 74.0  | 131   |
|    | 400-499만원 | 75.9  | 108   |
|    | 500만원 이상  | 81.9  | 326   |

〈표 9-3〉는 소득구간별 투표율을 보인 것인데, 전형적인 U자형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최저소득층과 5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이 가장 투표 참여율이 높은 두 그룹이었으며 이들의 중간에 위치한 월소득 200-299만원 집단이 투표율 71%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9-4〉 교육수준별 투표 참여

(단위: %, 명)

|    | 구분      | 투표 참여 | 계 (N) |
|----|---------|-------|-------|
| 학력 | 고졸 미만   | 80.6  | 242   |
|    | 고졸      | 70.9  | 237   |
|    | 대학 재학   | 70.3  | 209   |
|    | 대학졸업 이상 | 84.8  | 309   |

〈표 9-4〉는 학력별 투표참여를 보인 것인데, 이 역시 소득구간별 투표참여와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가장 학력수준이 높은 대졸이상이 약 85%의 투표참여율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구간인 '고졸 미만'층 또한 투표참여율이 약 8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반면 그 중간 그룹들인 '고졸'이나 '대재, 전문대, 대학중퇴' 집단은 70~71%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5〉 거주지역별 투표참여율

(단위: %, 명)

| 구분   |      | 투표 참여 | 계 (N) |
|------|------|-------|-------|
| 거주지역 | 대도시  | 83.1  | 266   |
|      | 중소도시 | 73.8  | 557   |
|      | 농촌   | 80.1  | 171   |

〈표 9-5〉는 거주규모별 투표율을 나타내는데, 대도시 거주자들이 83%로 가장 높았고, 농촌지역이 80%로 그 다음이었으며 중소도시가 약 7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U-자형”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집계자료들에서 보이는 투표참여율과도 일치한다.

## 나. 투표 정당

일반적으로 선거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변수는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여부이다. 또한 어떤 변수들이 이상의 투표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선거연구의 오랜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각 인구학적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표 9-6〉 성별 정당 선택

(단위: %, 명)

| 구분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기타  | 계 (N) |     |
|----|------|--------|------|------|-----|-------|-----|
| 성별 | 남성   | 39.3   | 35.9 | 18.7 | 3.8 | 2.4   | 348 |
|    | 여성   | 45.1   | 35.1 | 15.3 | 2.6 | 1.9   | 424 |

〈표 9-6〉은 정당별 후보자 선택 상황을 보여준다. 가장 주요하게는, 여성 유권자들이 남성유권자들보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더 강했던 반면, 국민의당은 남성유권자들이 여성유권자들보다 약 3%-포인트 더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녀에게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성향의

정의당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연령별 정당지지

(단위: %, 명)

| 구분        | 새누리당 | 더불어<br>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기타  | 계 (N) |
|-----------|------|------------|------|-----|-----|-------|
| 18-29세    | 18.9 | 57.5       | 18.9 | 3.2 | 1.6 | 127   |
| 30-39세    | 24.6 | 52.6       | 14.9 | 7.0 | 0.9 | 114   |
| 연령 40-49세 | 31.8 | 42.1       | 18.2 | 4.7 | 3.1 | 126   |
| 50-59세    | 43.1 | 30.7       | 20.5 | 3.7 | 2.1 | 137   |
| 60세 이상    | 66.1 | 17.2       | 14.2 | 0.3 | 2.2 | 268   |

〈표 9-7〉은 연령대별 정당지지를 보여준다. 한국정치의 오래되고 고착화된 패턴인 노여소야(老與少野)는 이곳에서도 드러나는데,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0대 이상에서는 66%에 이르렀던데 반해, 가장 젊은 층인 20대에서는 19%도 채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연령과 거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와 역(逆)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증감이 연령과 선형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30대에서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다른 정당 후보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위세는 약 40% 이상의 지지를 얻은 40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보아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50대에서 30%대로 떨어져서 새누리당에게 뒤지며, 60대 이상에서는 17%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의외의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각 연령대별로 고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 20%를 얻어서 가장 지지층이 두터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20대에서도 19%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존 양당체제로부터 이탈한 무당파들과 전통적인 호남의 지역적 지지를 합친 국민의당 지지기반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9-8〉 가구소득별 정당지지

(단위: %, 명)

| 구분 | 새누리당      | 더불어<br>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기타  | 계 (N) |     |
|----|-----------|------------|------|------|-----|-------|-----|
| 소득 | 100만원 미만  | 57.1       | 24.8 | 15.2 | 0.0 | 2.9   | 105 |
|    | 100-199만원 | 58.2       | 21.5 | 15.2 | 0.0 | 5.1   | 79  |
|    | 200-299만원 | 48.8       | 39.5 | 7.0  | 3.5 | 1.1   | 86  |
|    | 300-399만원 | 38.1       | 42.3 | 15.5 | 2.0 | 2.0   | 97  |
|    | 400-499만원 | 36.6       | 36.6 | 18.3 | 6.1 | 2.5   | 82  |
|    | 500만원 이상  | 34.1       | 40.4 | 19.9 | 4.2 | 1.5   | 267 |

〈표 9-8〉은 소득수준별 정당지지의 분포를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에서 거의 60%에 이르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당지지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러한 200만원 이상 중-고 소득집단에서 고르게 40%를 넘거나 육박하는 지지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양당체제를 비집고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유의미한 제3당이 출현했다는 점이었다. 국민의당 또한 전 소득구간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으며 특히 최고소득 두 집단인 400만원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은 약 20%에 육박하는 지지를 거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교육수준별 정당지지

(단위: %, 명)

| 구분 | 새누리당    | 더불어<br>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기타  | 계 (N) |     |
|----|---------|------------|------|------|-----|-------|-----|
| 학력 | 고졸 미만   | 63.6       | 20.0 | 13.3 | 0.5 | 2.6   | 195 |
|    | 고졸      | 46.4       | 32.7 | 17.9 | 1.8 | 1.1   | 168 |
|    | 대학 재학   | 31.3       | 42.2 | 19.0 | 4.1 | 3.4   | 147 |
|    | 대학졸업 이상 | 30.5       | 45.0 | 17.6 | 5.3 | 1.5   | 262 |

〈표 9-9〉는 교육수준별 정당지지의 양상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고졸 미만의 저교육 집단에서 가장 높은 67%의 지지를 거두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45%의 지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당은 대재, 전문대, 대학 중퇴자 등으로 구성된 중간집단에서 거의 20%에 육박하는 지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학력과 지지도의 선형적 관계를 보인 정당은 정의당인데,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5.3%를, 그리고 고졸미만 집단에서는 1% 미만의 지지율에 그쳤다.

〈표 9-10〉 거주지역별 정당지지

(단위: %, 명)

| 구분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기타  | 계 (N) |     |
|-------|------|--------|------|------|-----|-------|-----|
| 거주 지역 | 대도시  | 34.9   | 37.0 | 21.3 | 4.6 | 2.3   | 221 |
|       | 중소도시 | 43.7   | 35.7 | 16.1 | 2.7 | 1.8   | 411 |
|       | 농촌   | 51.1   | 31.5 | 12.4 | 2.2 | 2.9   | 137 |

〈표 9-10〉이 보여주는 거주규모별 정당지지의 패턴은 매우 흥미롭다. 우선 농촌지역을 먼저 보았을 때, 새누리당이 과반에 이르는 51%로 압도적인 1위인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대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21%의 지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비교적 고르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35%를 넘는 지지도를 보였다. 정의당 또한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 다. 정당지지의 세대 간 전승

부모의 정치 성향은 자식에게 얼마나 전승되는가? 예컨대 미국의 투표행태 문헌은 정당일체감(partisan identification)을 정의하고 이것이 주로 가족 내 사회화를 통해 전승되며, 이후 유권자로서 활동할 전 기간동안 매우 강력하고 안정된 형태로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ampbell et al. 1980). 이하에서는 본 자료에서 나타난 세대 간,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전승되는 정치성향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해당 문항은 “귀하의 아버지(생존해 계시지 않을 경우 어머니)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했습니까?”로 측정되었다. 세대 간 정치성향의 전승을 측

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의 정당과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지지하는 후보의 정당이 일치 여부를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9-11〉 성별 정치성향의 세대 간 전승

(단위: %, 명)

| 구분 | 같은 후보 지지 | 다른 후보 지지 | 계 (N) |
|----|----------|----------|-------|
| 성별 | 남성       | 48.3     | 209   |
|    | 여성       | 53.8     | 247   |

〈표 9-11〉이 보여주는 것은 성별 간 동일후보 지지여부이다. 부모 세대와 지지하는 정당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것이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정당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영향을 더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세대의 정치선호와 일치할 가능성이 약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9-12〉 연령별 정치성향의 세대간 전승

(단위: %, 명)

| 구분 | 같은 후보 지지 | 다른 후보 지지 | 계 (N) |
|----|----------|----------|-------|
| 연령 | 18-29세   | 56.1     | 123   |
|    | 30-39세   | 45.0     | 109   |
|    | 40-49세   | 43.3     | 104   |
|    | 50-59세   | 56.6     | 90    |
|    | 60세 이상   | 67.0     | 30    |

〈표 9-12〉는 연령별 정치성향의 전승정도를 보인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곳에서 부모와 정치성향의 일치정도가 역시 U자 형을 그린다라는 것이다. 즉,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이 가장 자신들의 부모와 동일한 정당선호를 지닌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50대로서 57%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20대들의 56%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자신들의 부모와 동일한 정당선호를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3,40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9-13〉 소득수준별 정치성향의 전승

(단위: %, 명)

|    | 구분        | 같은 후보 지지 | 다른 후보 지지 | 계 (N) |
|----|-----------|----------|----------|-------|
| 소득 | 100만원 미만  | 57.1     | 42.9     | 14    |
|    | 100-199만원 | 52.2     | 47.8     | 23    |
|    | 200-299만원 | 58.9     | 41.1     | 51    |
|    | 300-399만원 | 54.8     | 45.2     | 62    |
|    | 400-499만원 | 42.2     | 57.8     | 64    |
|    | 500만원 이상  | 50.7     | 49.3     | 211   |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일정한 선형적인 패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진적으로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양태를 그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패턴은 교육수준의 영향을 보이는 〈표 9-14〉와 결합해서 보면 비교적 분명해지는데, 이곳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정치적 선호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4〉 교육수준별 정치성향의 전승

(단위: %, 명)

|    | 구분      | 같은 후보 지지 | 다른 후보 지지 | 계 (N) |
|----|---------|----------|----------|-------|
| 학력 | 고졸 미만   | 65.3     | 34.7     | 23    |
|    | 고졸      | 61.1     | 38.9     | 95    |
|    | 대학 재학   | 56.2     | 43.8     | 128   |
|    | 대학졸업 이상 | 42.4     | 57.6     | 210   |

〈표 9-15〉는 거주지역별로 얼마나 부모와 자식 세대가 동일한 정당선호를 지니는지를 보인 것이다. 역시 이곳에서도 볼 수 있는 패턴은 농촌 지역이 가장 부모와 자식 세대가 일치하며,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부모와 자식의 정당선호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표 9-15〉 거주지역별 정치성향의 전승

(단위: %, 명)

| 구분   | 같은 후보 지지 | 다른 후보 지지 | 계 (N) |
|------|----------|----------|-------|
| 거주지역 |          |          |       |
| 대도시  | 46.2     | 53.8     | 156   |
| 중소도시 | 53.1     | 46.9     | 254   |
| 농촌   | 59.2     | 40.8     | 44    |

## 2. 가족관계와 정치 행태

여기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족 및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는가를 살펴본다. 아울러 가족이나 친족 구성원에 의한 정치적 동원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정치대화 수준에 따라 정치관심, 정치냉소, 정치참여 수준, 그리고 정치성향의 세대 간 전승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대화가 어느 정도인지 응답자 입장에서 정확히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의 정치대화가 어느 정도 인지를 ‘매우 자주’부터 ‘전혀 하지 않음’의 5점 척도로 응답자에게 질문하였다. 가족 간 정치대화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올해 4월 13일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과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아래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치행태에 대한 가족관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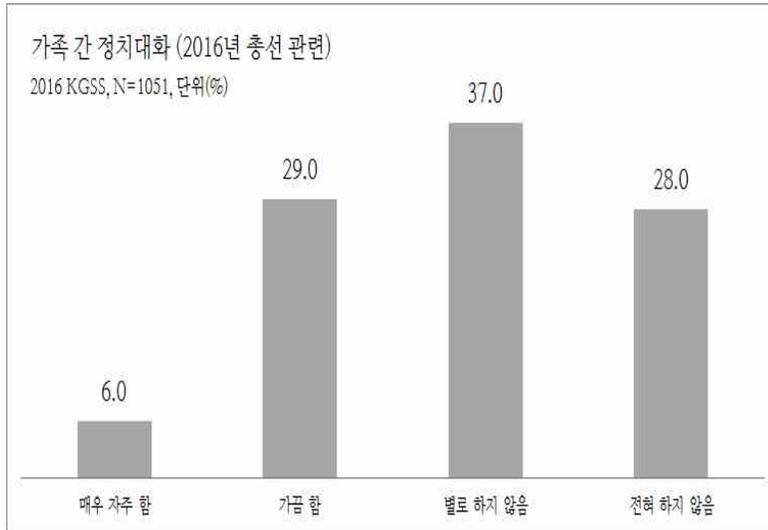
### 가. 가족 간 정치 대화와 동원

[그림 9-1]은 가족 간 정치대화의 전체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1051명의 6.0%만이 가족 간 정치대화를 매우 자주 하고 있으며, 가끔 한다는 비율은 29.0%이다. 이 둘을 합하면 약 35%의 응답자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가족과 정치에 대한 대화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와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비율은 각각 37.0%와 28.0%로 가족 간 정치대화를 한다는 비율보

다 월등히 높다.

[그림 9-1] 가족 간 정치대화

(단위: %)



이제 가족 간 정치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거주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자. 먼저 <표 9-16>은 가족 간 정치대화의 수준을 성별로 보여준다.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은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다.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구성원들과 정치대화를 자주 하는 비율이 더 높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낮다.

<표 9-16> 성별 가족 간 정치대화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 함 | 가끔 했음 | 별로 하지 않음 | 전혀 하지 않음 | 계 (N) |
|----|---------|-------|----------|----------|-------|
| 성별 |         |       |          |          |       |
| 남성 | 5.7     | 28.4  | 37.8     | 28.2     | 476   |
| 여성 | 6.3     | 29.6  | 36.4     | 27.8     | 575   |

성별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에 차이가 없는 반면, 연령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가족 간 정치대화를 자주 하는 수준은 50대가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40대, 20대, 60대, 30대의 순이다. 가족과의 정치대화 수준을 ‘매우 자주’와 ‘가끔’을 합해 그 수치를 살펴보면, 50대는 48.0%로 가장 높고, 40대 39.4%, 20대 33.5%, 60대 30.1%, 30대 28.1% 등이다. 50대와 40대의 가족과의 정치대화가 높은 것은 이들 세대가 대개 베이비부머 세대와 386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많고 정치 사안에 대한 의견도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20대의 가족 간 정치대화가 30대와 60대보다 높은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측컨대, 20대가 50대를 부모로 둔 세대이기 때문에 가족과 정치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50대의 정치대화 상대가 자녀인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9-17〉 연령별 가족 간 정치대화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 함 | 가끔 했음 | 별로 하지 않음 | 전혀 하지 않음 | 계 (N) |     |
|----|---------|-------|----------|----------|-------|-----|
| 연령 | 18-29세  | 5.7   | 27.8     | 38.7     | 27.8  | 194 |
|    | 30-39세  | 4.6   | 24.1     | 43.1     | 28.2  | 174 |
|    | 40-49세  | 8.2   | 31.2     | 38.2     | 22.4  | 170 |
|    | 50-59세  | 6.2   | 41.8     | 36.2     | 15.8  | 177 |
|    | 60세 이상  | 5.7   | 24.4     | 32.7     | 37.2  | 336 |

학력에 따른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많이 달라진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정치대화를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대학졸업 이상의 집단에서 가족과의 정치대화 수준이 가장 높다. ‘매우 자주’와 ‘가끔’을 합한 비율이 44.5%로 20-30대에 머물고 있는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두드러지는 결과는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과 대화를 별로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78.2%로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대개 고령층이고 위에서 살펴본 연령대별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에서 60대 이상 세대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표 9-18〉 교육수준별 가족 간 정치대화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 함 | 가끔 했음 | 별로 하지<br>않음 | 전혀 하지<br>않음 | 계 (N) |
|---------|---------|-------|-------------|-------------|-------|
| 고졸 미만   | 3.4     | 18.4  | 35.0        | 43.2        | 266   |
| 학 력 고졸  | 5.7     | 31.1  | 35.9        | 27.4        | 248   |
| 대학 재학   | 7.3     | 28.0  | 43.1        | 21.6        | 218   |
| 대학졸업 이상 | 7.5     | 37.0  | 35.4        | 20.1        | 319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은 높아진다(표 9-19 참조).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 집단에서 가족과 정치대화를 자주 또는 가끔 하는 비율은 46.1%로 가장 높으며, 400만원-499만원이 40.7%로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대 초반으로 가장 낮다.

〈표 9-19〉 소득수준별 가족 간 정치대화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br>함 | 가끔 했음 | 별로 하지<br>않음 | 전혀 하지<br>않음 | 계 (N) |
|---------------|------------|-------|-------------|-------------|-------|
| 100만원 미만      | 3.3        | 19.1  | 25.0        | 52.6        | 152   |
| 100-199만원     | 3.8        | 22.9  | 39.1        | 34.3        | 105   |
| 소 득 200-299만원 | 5.5        | 23.6  | 44.9        | 26.0        | 127   |
| 300-399만원     | 7.4        | 26.7  | 40.7        | 25.2        | 135   |
| 400-499만원     | 1.8        | 39.6  | 42.3        | 16.2        | 111   |
| 500만원 이상      | 9.3        | 36.8  | 36.8        | 17.2        | 332   |

가족 간 정치대화의 수준은 거주 지역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서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와 농촌의 순이다. 가족 간 정치대화를 매우 또는 가끔 하는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서 각각 39.7%, 37.2%, 21.9%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차이는 적은 반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9-20〉 거주지역별 가족 간 정치대화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 함 | 가끔 했음 | 별로 하지 않음 | 전혀 하지 않음 | 계 (N) |     |
|-------|---------|-------|----------|----------|-------|-----|
| 거주 지역 | 대도시     | 9.2   | 30.5     | 36.5     | 23.8  | 282 |
|       | 중소도시    | 4.5   | 32.7     | 36.5     | 26.3  | 578 |
|       | 농촌      | 5.9   | 16.0     | 38.3     | 39.9  | 188 |

가족 간 정치대화의 수준과 정치행태 간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족 간 정치적 상호작용의 다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에 대해 살펴보자. 〈표 9-21〉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이 다른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요청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은 가부장 중심적인데다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간 정치적 소통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어떤지에 따라 부부가 정치적 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별 평등이 정착된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정치적 지식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성별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남편들이 그들의 정치적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mith, 2016). 이는 노동시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성차별이 심할수록 아내가 부부사이의 정치적 대화에서 약자가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표 9-21〉 성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단위: %, 명)

| 구분 | 가족이나 친척 | 직장 동료 | 이웃  | 친구   | 종교집단 지도자나 신도 | 동호회 | 선거운동원 | 기타  | 계 (N) |
|----|---------|-------|-----|------|--------------|-----|-------|-----|-------|
| 남성 | 7.6     | 5.9   | 8.2 | 11.6 | 1.9          | 6.3 | 27.2  | 2.7 | 476   |
| 여성 | 13.2    | 4.9   | 8.7 | 8.3  | 3.0          | 3.0 | 25.6  | 1.0 | 575   |

주: 있음의 비율만 표기함

가구소득 수준과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았는가의 여부 간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물론 가구소득 수준이 400-499만원과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각각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동원을 받은 비율이 각각 14.4%와 13.6%로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과 100-199만원 집단에서 해당 비율이 각각 4.6%와 8.6%로 나타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299만원 집단에서도 가족이나 친척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경우가 13.4%로 높은 편인 반면, 300-399만원 집단에서는 8.1%로 낮아 그러한 주장을 강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표 9-22〉 가구소득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단위: %, 명)

| 구분        | 가족이나 친척 | 직장동료 | 이웃   | 친구   | 종교집단 지도자나 신도 | 동호회 | 선거운동원 | 기타  | 계 (N) |
|-----------|---------|------|------|------|--------------|-----|-------|-----|-------|
| 100만원 미만  | 4.6     | 0.7  | 7.2  | 5.9  | 2.6          | 1.3 | 13.2  | 0.0 | 152   |
| 100-199만원 | 8.6     | 3.8  | 12.4 | 8.6  | 1.0          | 1.9 | 20.0  | 1.4 | 105   |
| 200-299만원 | 13.4    | 5.5  | 7.9  | 10.2 | 2.4          | 1.6 | 26.8  | 2.5 | 127   |
| 300-399만원 | 8.1     | 8.1  | 8.9  | 10.4 | 2.2          | 5.9 | 23.7  | 1.4 | 135   |
| 400-499만원 | 14.4    | 3.6  | 8.1  | 9.9  | 4.5          | 3.6 | 29.1  | 5.6 | 111   |
| 500만원 이상  | 13.6    | 8.1  | 9.0  | 12.0 | 2.4          | 7.6 | 36.6  | 1.8 | 332   |

주: 있음의 비율만 표기함

연령과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았는가의 여부 간 관계는 뚜렷한 편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으로부터 정치적 동원을 받을 가능성은 확연히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은 경우는 5.1%로 가장 낮다.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정치적 동원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35-49세로 이 집단의 14.1%가 그러한 경험을 지난 총선에서 한 바 있다고 응답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집단인 50-64세는 가족이나 친척(12.2%)보다는 이웃(14.1%)과 친구(15.3%)로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관계를 맺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9-23 참조).

〈표 9-23〉 연령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단위: %, 명)

| 구분     | 가족이나 친척 | 직장동료 | 이웃   | 친구   | 종교집단 지도자나 신도 | 동호회 | 선거운동원 | 기타  | 계 (N) |
|--------|---------|------|------|------|--------------|-----|-------|-----|-------|
| 18-34세 | 11.3    | 3.3  | 2.9  | 6.5  | 1.5          | 1.5 | 29.2  | 1.2 | 275   |
| 35-49세 | 14.1    | 7.6  | 9.5  | 9.1  | 1.9          | 3.8 | 31.3  | 3.3 | 263   |
| 50-64세 | 12.2    | 7.8  | 14.1 | 15.3 | 3.5          | 9.8 | 27.8  | 1.8 | 255   |
| 65세 이상 | 5.1     | 2.7  | 7.8  | 8.5  | 3.1          | 3.1 | 16.7  | 0.6 | 258   |

주: 있음의 비율만 표기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는 경우도 증가한다. 대학졸업 이상의 14.7%, 대재/전문대/대학중퇴의 11.9%, 고졸의 11.3%가 가족이나 친척의 정치적 동원에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졸미만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부탁을 받은 경우가 4.2%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위의 가구소득 수준과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간 관계가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동원 경험이 많다는 결과와 결부시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에 의한 정치적 동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가족 내 정치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식견이나 삶의 여유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 집단일수록 정치적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고 정보의 공유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정보와 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표 9-24 참조).

〈표 9-24〉 교육수준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단위: %, 명)

| 구분      | 가족이나 친척 | 직장 동료 | 이웃   | 친구   | 종교집단 지도자나 신도 | 동호회 | 선거운동원 | 기타  | 계 (N) |
|---------|---------|-------|------|------|--------------|-----|-------|-----|-------|
| 고졸 미만   | 4.2     | 0.8   | 9.0  | 6.4  | 1.5          | 1.9 | 14.3  | 0.6 | 266   |
| 고졸      | 11.3    | 7.3   | 10.1 | 12.5 | 2.4          | 4.4 | 24.2  | 1.8 | 248   |
| 대학 재학   | 11.9    | 4.6   | 6.4  | 7.8  | 3.2          | 3.2 | 31.3  | 1.6 | 218   |
| 대학졸업 이상 | 14.7    | 8.2   | 8.2  | 11.9 | 2.8          | 7.5 | 34.6  | 2.8 | 319   |

주: 있음의 비율만 표기함

마지막으로, 거주지역 규모와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간 관계를 살펴보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표 9-25 참조). 대도시에 사는 경우 해당 비율이 13.5%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10.0%, 농어촌 8.6%의 순이다.

〈표 9-25〉 거주지역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정치적 동원

(단위: %, 명)

| 구분   | 가족이나 친척 | 직장 동료 | 이웃  | 친구   | 종교집단 지도자나 신도 | 동호회 | 선거운동원 | 기타  | 계 (N) |
|------|---------|-------|-----|------|--------------|-----|-------|-----|-------|
| 대도시  | 13.5    | 5.0   | 7.4 | 10.6 | 2.1          | 5.7 | 27.0  | 4.0 | 282   |
| 중소도시 | 10.0    | 6.2   | 8.7 | 9.9  | 2.6          | 4.7 | 27.4  | 1.1 | 578   |
| 농어촌  | 8.6     | 3.2   | 9.6 | 8.5  | 2.7          | 2.1 | 22.3  | 0.8 | 1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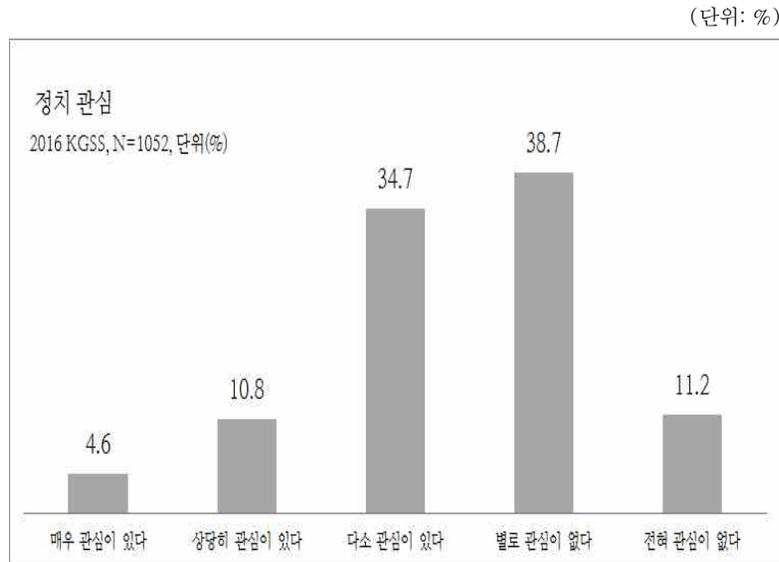
주: 있음의 비율만 표기함

## 나. 가족 간 정치 대화와 정치 태도 및 행위

이제 가족 간 정치 대화가 정치 태도와 행위 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보자. 정치 태도와 행위를 보여주는 변수들로는 정치관심, 정치적 냉소, 투표 참여, 정치성향의 세대 전승 등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정치 태도와 행위를 측정하는 항목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항목들을 선정한 것은 가족 간 정치대화의 수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이를 표출하기 위한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보다 정치관심이나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행위인 투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정치관심과 냉소, 그리고 투표가 가족 간 정치대화과 직접적으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 간 정치대화과 정치관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심의 분포를 살펴보면, 별로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각각 38.7%와 11.2%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반면 매우 또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비율은 각각 4.6%와 10.8%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비율의 1/3 수준이다. 다소 관심이 있다는 경우는 34.7%이어서, 이 셋을 모두 합한다 하더라도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림 9-2] 정치 관심



〈표 9-26〉은 성별 정치관심을 보여준다.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관심이 매우 높은데, 남성의 경우 관심 있다는 비율이 21.9%인 반면, 여성의 경우 10.1%이다. 관심이 없다는 비율도 남성의 경우 39.1%에 그치지만 여성의 경우 58.9%에 이른다. 앞서 투표참여, 가족 간 정치적 대화와 정치 동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간 정치적 소통에 있어서의 성별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정치관심에서도 지속된다.

〈표 9-26〉 성별 정치관심

(단위: %, 명)

| 구분 | 관심 있음 | 보통   | 관심 없음 | 계 (N) |
|----|-------|------|-------|-------|
| 남성 | 21.9  | 39.1 | 39.1  | 476   |
| 여성 | 10.1  | 31.1 | 58.9  | 576   |

〈표 9-27〉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12.5%)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5%)에 비해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7.0%)과 500만원 이상(21.1%)의 정치관심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즉 정치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진 비율이 소득에 따라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100만원 미만(63.2%)에서 월등이 높다.

〈표 9-27〉 가구소득별 정치관심

(단위: %, 명)

| 구분        | 관심 있음 | 보통   | 관심 없음 | 계 (N) |
|-----------|-------|------|-------|-------|
| 100만원 미만  | 12.5  | 24.3 | 63.2  | 152   |
| 100-199만원 | 10.5  | 27.6 | 61.9  | 105   |
| 200-299만원 | 12.6  | 37.0 | 50.4  | 127   |
| 300-399만원 | 14.8  | 36.3 | 48.9  | 135   |
| 400-499만원 | 17.0  | 38.4 | 44.6  | 112   |
| 500만원 이상  | 21.1  | 38.6 | 40.4  | 332   |

정치에 대한 관심은 40대에서 18.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 20대, 50대 순이다. 60대 이상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비율이 13.7%로 가장 낮다. 흥미로운 사실은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만 놓고 보면 40대가 가장 높지만, 여기에 ‘보통이다’를 합하면 50대가 57.1%로 가장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이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40대는 이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20대와 30대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이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40대에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집단과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집단 간 분리가 뚜렷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표 9-28 참조).

〈표 9-28〉 연령별 정치관심

(단위: %, 명)

| 구분     | 관심 있음 | 보통   | 관심 없음 | 계 (N) |
|--------|-------|------|-------|-------|
| 18-29세 | 15.0  | 41.2 | 43.8  | 194   |
| 30-39세 | 16.7  | 35.1 | 48.3  | 174   |
| 40-49세 | 18.8  | 29.4 | 51.8  | 170   |
| 50-59세 | 14.7  | 42.4 | 42.9  | 177   |
| 60세 이상 | 13.7  | 29.4 | 57.0  | 337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음이 드러난다. 특히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이다. 정치관심이 가장 높은 대학졸업 이상 집단과 고졸미만 집단 간 차이는 거의 두 배에 이른다(표 9-29 참조).

〈표 9-29〉 교육수준별 정치관심

(단위: %, 명)

| 구분      | 관심 있음 | 보통   | 관심 없음 | 계 (N) |
|---------|-------|------|-------|-------|
| 고졸 미만   | 9.8   | 27.1 | 63.2  | 266   |
| 고졸      | 10.9  | 32.7 | 56.5  | 248   |
| 대학 재학   | 12.4  | 40.8 | 46.8  | 218   |
| 대학졸업 이상 | 25.6  | 38.4 | 35.9  | 320   |

〈표 9-30〉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중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정치관심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농촌에 사는 사람의 경우 정치에 관심 없다는 비율이 61.7%로 나타나 대도시 거주자의 41.5%보다 매우 높다. 요약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표 9-30〉 거주지역별 정치관심

(단위: %, 명)

| 구분   | 관심 있음 | 보통   | 관심 없음 | 계 (N) |
|------|-------|------|-------|-------|
| 대도시  | 23.4  | 35.1 | 41.5  | 282   |
| 중소도시 | 12.1  | 38.0 | 49.9  | 579   |
| 농촌   | 13.8  | 24.5 | 61.7  | 188   |

〈표 9-31〉은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관심 간 관계를 보여준다. 표는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관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연히 드러낸다. 특히 가족 간 정치대화를 매우 자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에 매우 또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비율이 39.7%, 정치대화를 가끔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해당 비율이 26.6%이다. 반면 정치대화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중 정치에 매우 또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비율이 각각 8.5%와 7.8%로 현저한 대조를 나타낸다.

〈표 9-31〉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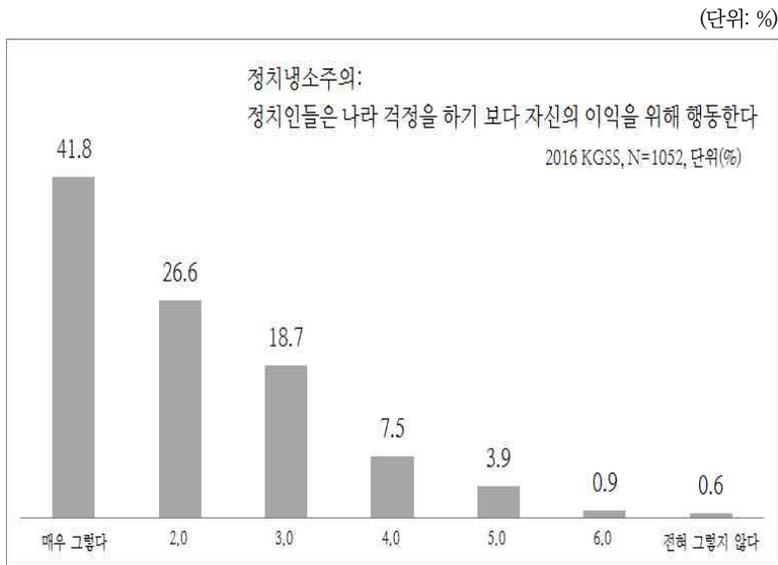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 매우 관심이 있다 | 상당히 관심이 있다 | 다소 관심이 있다 | 별로 관심이 없다 | 전혀 관심이 없다 | 계 (N) |
|------------|-----------|------------|-----------|-----------|-----------|-------|
| 매우 자주 함    | 17.5      | 22.2       | 44.4      | 14.3      | 1.6       | 63    |
| 가족 간 정치 토론 |           |            |           |           |           |       |
| 가끔 했음      | 4.6       | 22.0       | 44.3      | 26.2      | 3.0       | 305   |
| 별로 하지 않음   | 3.1       | 5.4        | 35.2      | 48.3      | 8.0       | 389   |
| 전혀 하지 않음   | 3.7       | 4.1        | 21.8      | 44.2      | 26.2      | 294   |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세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정치인들은 나라 걱정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정치적 냉소주의 I), 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정치적 냉소주의 II), 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정치적 냉소주의 III) 등이다. 이 세 가지 정치적 냉소주의 질문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림 9-3]은 정치적 냉소주의 척도 중 하나인 ‘정치인들은 나라 걱정을 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을 매우 그렇다(7점)부터 중간(4점)까지를 더하면 약 95%에 이른다. 즉 한국인 대부분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1.8%나 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0.6%밖에 되지 않아 한국인이 정치인들을 얼마나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림 9-3] 정치적 냉소주의 I



정치인들이 나라 걱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자. 위의 정치관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와 다르게 정치냉소주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될 뿐,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인식한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정치인들에 대한 냉소가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이 확인된다.

〈표 9-32〉 성별 정치적 냉소주의 I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남성 | 5.5    | 5.3 | 89.3 | 476   |
| 여성 | 5.2    | 9.4 | 85.4 | 576   |

가구소득별 차이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이 나라 걱정을 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구체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사람의 82.2%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반면,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91.1%, 500만원 이상은 90.4%가 정치인을 불신한다.

〈표 9-33〉 가구소득별 정치냉소주의 I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100만원 미만  | 5.9    | 11.8 | 82.2 | 152   |
| 100-199만원 | 5.7    | 13.3 | 81.0 | 105   |
| 200-299만원 | 4.7    | 9.5  | 85.8 | 127   |
| 300-399만원 | 5.9    | 5.9  | 88.2 | 135   |
| 400-499만원 | 4.5    | 4.5  | 91.1 | 112   |
| 500만원 이상  | 5.4    | 4.2  | 90.4 | 332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만 낮을 뿐이지 노인의 약 80%가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표 9-34〉 연령별 정치냉소주의 I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18-34세 | 4.7    | 5.5  | 89.8 | 275   |
| 35-49세 | 3.4    | 6.5  | 90.1 | 263   |
| 50-64세 | 5.9    | 5.5  | 88.6 | 255   |
| 65세 이상 | 7.3    | 12.7 | 79.9 | 259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이 나라 걱정을 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학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의 약 90%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표 9-35〉 교육수준별 정치냉소주의 I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고졸 미만   | 5.3    | 14.3 | 80.5 | 266   |
| 고졸      | 4.8    | 6.1  | 89.1 | 248   |
| 대학 재학   | 3.7    | 6.0  | 90.4 | 218   |
| 대학졸업 이상 | 6.9    | 4.1  | 89.1 | 320   |

거주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다.

〈표 9-36〉 거주지역별 정치냉소주의 I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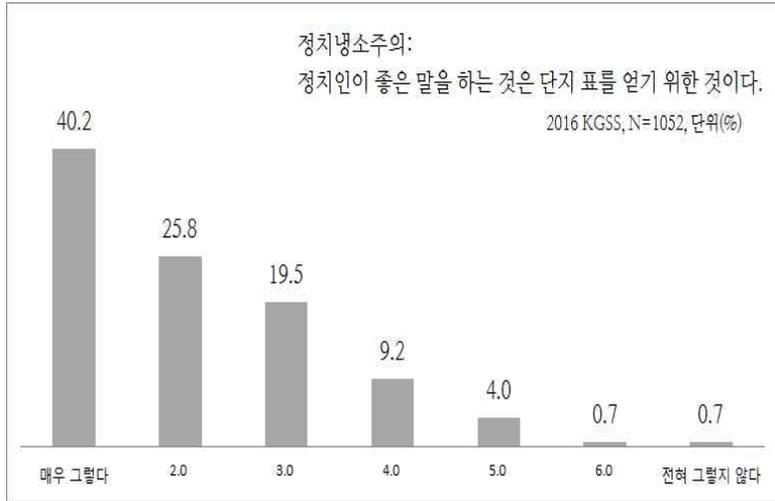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대도시  | 6.0    | 4.6  | 89.4 | 282   |
| 중소도시 | 4.7    | 7.9  | 87.4 | 579   |
| 농어촌  | 6.4    | 10.6 | 83.0 | 188   |

[그림 9-4]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두 번째 척도인 '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보여준다. 정치적 냉소 1에서와 마찬가지로 척도의 중간인 4점을 포함한 1점부터 4점까지의 합이 90%를 훌쩍 넘

는다. 즉 한국인의 90% 이상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9-4] 정치적 냉소주의 II

(단위: %)



정치인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성도 위의 정치인들은 나라 걱정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정치인들에 대한 냉소가 85%를 넘을 정도로 높다.

<표 9-37> 성별 정치냉소주의 II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남성 | 5.5    | 8.6 | 85.9 | 476   |
| 여성 | 5.2    | 9.7 | 85.1 | 576   |

가구소득별 차이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약간 강하다. 구체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사람의 82.9%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반면,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91.1%, 500만원 이상은 87.1%가 정치인을 불신한다.

〈표 9-38〉 가구소득별 정치냉소주의 II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100만원 미만  | 4.0    | 13.2 | 82.9 | 152   |
| 100-199만원 | 7.6    | 16.2 | 76.2 | 105   |
| 200-299만원 | 3.9    | 7.9  | 88.2 | 127   |
| 300-399만원 | 5.2    | 6.7  | 88.2 | 135   |
| 400-499만원 | 3.6    | 5.4  | 91.1 | 112   |
| 500만원 이상  | 6.0    | 6.9  | 87.1 | 332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 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만 낮을 뿐이지 노인의 약 80%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표 9-39〉 연령별 정치냉소주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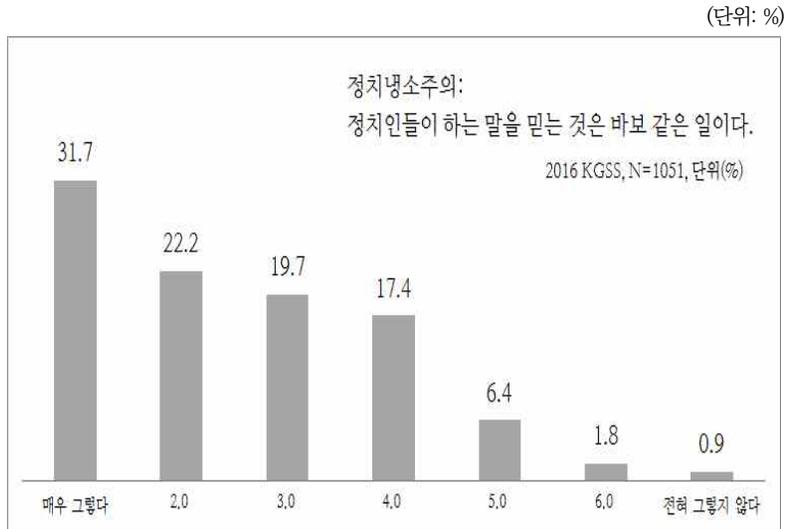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18-29세 | 4.7    | 9.1  | 86.2 | 275   |
| 30-39세 | 3.0    | 7.6  | 89.4 | 263   |
| 40-49세 | 6.3    | 7.5  | 86.3 | 255   |
| 50-59세 | 7.3    | 12.7 | 79.9 | 259   |

교육수준별 및 거주지역 규모별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따로 표를 통해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적 냉소주의 척도의 마지막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 대해 정치적 냉소주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척도의 중간인 4점을 포함한 1점부터 4점까지의 합이 90%를 훌쩍 넘는다. 즉 한국인의 90% 이상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고 믿는다(그림 9-5 참조).

[그림 9-5] 정치적 냉소주의 III



정치적 냉소주의III 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냉소 수준이 마찬가지로 높다. 다만 위의 두 가지 정치적 냉소주의와 비교했을 때 이 경우에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9-40> 성별 정치적 냉소주의 III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남성 | 9.9    | 17.9 | 72.3 | 476   |
| 여성 | 8.4    | 17.0 | 74.6 | 575   |

소득수준에 따른 정치적 냉소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인 400만원 이상에서 정치적 냉소 수준이 약간 더 높을 뿐이다.

〈표 9-41〉 가구소득별 정치적 냉소주의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100만원 미만  | 9.2    | 19.7 | 71.1 | 152   |
| 100-199만원 | 10.5   | 19.1 | 70.5 | 105   |
| 200-299만원 | 9.5    | 16.5 | 74.0 | 127   |
| 300-399만원 | 11.1   | 15.6 | 73.3 | 135   |
| 400-499만원 | 5.4    | 17.9 | 76.8 | 112   |
| 500만원 이상  | 7.8    | 15.4 | 76.8 | 332   |

연령에 따른 정치적 냉소는 위의 두 가지 정치적 냉소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9-42〉 연령별 정치적 냉소주의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18-34세 | 7.7    | 19.0 | 73.4 | 274   |
| 35-49세 | 6.5    | 14.1 | 79.5 | 263   |
| 50-64세 | 9.8    | 15.7 | 74.5 | 255   |
| 65세 이상 | 12.4   | 20.9 | 66.8 | 259   |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다만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저학력 집단에서 정치적 냉소가 가장 약함을 알 수 있다.

〈표 9-43〉 교육수준별 정치적 냉소주의 Ⅲ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고졸 미만   | 12.0   | 21.1 | 66.9 | 266   |
| 고졸      | 7.7    | 17.3 | 75.0 | 248   |
| 대학 재학   | 6.9    | 16.1 | 77.1 | 218   |
| 대학졸업 이상 | 9.1    | 15.4 | 75.6 | 319   |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냉소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약간 높다.

〈표 9-44〉 거주지역별 정치적 냉소주의 III

(단위: %, 명)

| 구분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대도시  | 8.9    | 13.5 | 77.6 | 281   |
| 중소도시 | 9.2    | 19.3 | 71.5 | 579   |
| 농어촌  | 9.0    | 17.0 | 73.9 | 188   |

이제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적 냉소주의 간 관계를 살펴보자. 〈표 9-45〉는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에 따른 정치적 냉소주의 I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결과는 정치적 냉소주의가 가장 높은 집단이 가족 간 정치대화를 매우 자주하는 집단과 가족 간 정치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에 따른 정치적 냉소 I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가족 간 정치대화가 없을수록 정치적 냉소가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하나 정치대화를 자주하는데 정치적 냉소가 높은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과 정치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치 지식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정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정치적 냉소주의 I의 질문 내용이 ‘정치인들은 나라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표 9-45〉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적 냉소주의 I

| 구분        | 평균       | 전체평균 | F     |
|-----------|----------|------|-------|
| 가족 간 정치대화 | 매우 자주 함  | 6.25 | 3.05* |
|           | 가끔 했음    | 5.91 |       |
|           | 별로 하지 않음 | 5.79 |       |
|           | 전혀 하지 않음 | 5.96 |       |

주: 정치적 냉소주의1: 정치인들은 나라 걱정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P<0.001, \*\*P<0.01, \*P<0.5

정치적 냉소주의Ⅱ(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의 결과도 위의 정치적 냉소주의Ⅰ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표 9-46 참조). 즉 정치적 냉소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가족 간 정치 대화를 매우 자주하는 집단과 가족 간 정치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집단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9-46〉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적 냉소주의Ⅱ

|              | 구분       | 평균   | 전체평균 | F       |
|--------------|----------|------|------|---------|
| 가족 간<br>정치대화 | 매우 자주 함  | 6.17 | 5.84 | 6.43*** |
|              | 가끔 했음    | 5.83 |      |         |
|              | 별로 하지 않음 | 5.66 |      |         |
|              | 전혀 하지 않음 | 6.03 |      |         |

주: 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P<0.001, \*\*P<0.01, \*P<0.5

정치적 냉소주의Ⅲ(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의 결과도 위의 정치적 냉소Ⅰ과 정치적 냉소Ⅱ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표 9-47 참조). 다시 말해, 정치적 냉소의 수준은 가족 간 정치 대화를 매우 자주하는 경우와 가족 간 정치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9-47〉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적 냉소주의Ⅲ

|              | 구분       | 평균   | 전체평균 | F       |
|--------------|----------|------|------|---------|
| 가족 간<br>정치대화 | 매우 자주 함  | 5.83 | 5.46 | 7.21*** |
|              | 가끔 했음    | 5.42 |      |         |
|              | 별로 하지 않음 | 5.26 |      |         |
|              | 전혀 하지 않음 | 5.71 |      |         |

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P<0.001, \*\*P<0.01, \*P<0.5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이 투표참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9-48〉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치대화를 가족과 하는 사람이 정치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족 간 정치 대화를 매우 또는 가끔 하는 경우

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투표한 비율은 각각 87.3%와 87.8%인 반면, 가족 간 정치 대화를 별로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76.8%와 68.5%이다. 특히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정치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매우 자주 하는 사람 간 투표율의 차이가 약 20%p가 날 정도로 두드러진다. 결론적으로 지난 총선 국면에서 가족 구성원들 중 누구와라도 정치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경우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더 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은 위의 가족 간 정치대화 수준에 따른 정치관심과 정치적 냉소 수준 차이에 대한 결과를 상기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표 9-48〉 가족 간 정치대화와 투표 참여(국회의원 선거)

(단위: %, 명)

| 구분           | 투표했음     | 투표 하지 않음 | 계 (N) |
|--------------|----------|----------|-------|
| 매우 자주 함      | 87.3     | 12.7     | 63    |
| 가족 간<br>정치토론 | 가끔 했음    | 12.2     | 303   |
|              | 별로 하지 않음 | 23.2     | 384   |
|              | 전혀 하지 않음 | 31.5     | 289   |

마지막으로,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성향의 세대 간 전승에 대해 살펴보면, 정치토론을 가족 구성원들끼리 많이 한다고 해서 정치성향의 세대 간 전승이 반드시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오히려 정치토론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같은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57.9%로 가장 많았다.

〈표 9-49〉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성향의 세대 간 전승

(단위: %, 명)

| 구분           | 같은 후보 지지 | 다른 후보 지지 | 계 (N) |
|--------------|----------|----------|-------|
| 매우 자주 함      | 54.6     | 45.5     | 33    |
| 가족 간<br>정치토론 | 가끔 했음    | 44.9     | 176   |
|              | 별로 하지 않음 | 56.1     | 171   |
|              | 전혀 하지 않음 | 57.9     | 42.1  |

## 제4절 결론

한국 정치에서 가족은 특별한 존재다. 광복 이후 국가가 국민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가족주의는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가족주의는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중심적 가치체계 및 정체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명희, 2016). 이는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포함한 복합적인 원인과 경과를 고려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숨겨진 관계항을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 태도와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족이 갖는 의미는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가족은, 교육기관이나 또래집단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정치사회화의 공간이다. 물론 그러한 정치사회화의 결과가 이전 세대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전 세대의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치사회화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정치체에 대해 갖는 태도 및 감정을 형성시켜가는 과정이자 그 정치체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스스로의 태도 및 감정을 정립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택휘 1980, 446).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과 정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치성향의 세대 간 상속 또는 세대 간 전이가 사회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후, 세대 간 전이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 간 정치대화와 정치 태도 및 행위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대 간 정치성향 및 지지후보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관계의 성립이 가능한 주요 메커니즘은 가족 간 정치 대화와 토론이라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가족 간 정치토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 동일한 정치성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전이, 정치 대화와 토론, 그리고 정치관심과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모 세대인 50대와 자녀 세대인 20대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에 있어서의 동질성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투표참가를 덜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젊은 세대의 낮은 정치관심과 냉소로 인한 부모 세대의 정치성향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작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낮은 참여가 계속된다면 미래 한국사회는 정치실패 또는 거버넌스의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의 결과는 향후 가족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정에서 고민해 볼 문제로 정책적 함의가 적지 않다.

제 10 장

##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제1절 성역할 인식 변화

제2절 가족간 행위와 만족도

제3절 결혼의 절대성

제4절 세대간 교환관계



## 제1절 성역할 인식 변화

비교분석 대상국가들의 가사분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배우 상태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가사 참여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 대만 - 한국 - 일본의 순으로 남성들의 가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남편의 가사 참여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저녁 식사 준비에 관한 문항이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남편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는 의견이 24.2%에 달하였고, 대만은 그 절반 수준인 12.2%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7.1%와 4.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저녁식사 준비를 한다는 응답은 중국 51.4%, 대만 27.9%, 한국 23.9%, 일본 11.1%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이상 저녁식사 준비로 응답의 범위를 넓힐 경우 대만의 37.5%와 근접한 37.3%로 두 국가 간 차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일 년에 한번 미만, 다시 말해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대만은 44.3%, 한국은 29.1%로 오히려 한국의 응답률이 훨씬 더 낮은 점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가사 분담이 가족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비록 전반적인 낮은 가사 참여 정도에도 불구하고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세탁과 집안 청소에 대한 응답에서도 대략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세탁의 경우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남편이 세탁일을 하는 경우는 중국(49.9%), 대만(34.7%), 한국(32.6%), 일본(1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 년에 한번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일본(60.2%), 대만(49.0%), 한국(36.9%), 중국(21.8%)로 나타났다. 세탁일 참여가 '일 년에 한번 미만'이라는 응답 분포는 중국(21.8%), 한국(36.9%), 대만(49.0%), 일본(60.2%)였다.

그리고 집안청소의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로 한국이 대만보다 더 높은 남편 가사 참여도를 보였다. '거의 매일' 남편이 참여한다는 응답은 중국(19.4%), 한국(11.9%), 대만(11.0%), 일본(6.0%)였으며,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남편이 참여한다는 응답은 중국

(66.6%), 한국(55.7%), 대만(45.2%), 일본(15.8%)로 나타났다. 한편 ‘일년에 한번 미만’으로 집안청소를 한다는 응답은 중국(9.5%), 한국(17.0%), 대만(25.0%), 일본(28.6%)로 나타나 대만과 일본 사이의 격차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교적 높은 남편 가사참여도 비율이 높은 집단은 중국-대만-한국-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 분포 및 가사의 내용에 따른 참여도에서는 일률적인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젠더 역할, 연령집단 및 지역 간 태도의 차이, 가사 내용에 대한 문화적 태도 등이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4개국 모두에서 가사 일에 참여하는 남성의 절대적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사회에서 가족 내 보수적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1〉 기혼 남성의 가사참여 정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일에 몇 번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한달에 한 번 정도 | 일년에 몇 번 | 일년에 한 번 정도 | 일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13a: 저녁 식사 준비 |       |          |             |            |         |            |            |       |
| 일본            | 4.7   | 6.4      | 7.1         | 8.3        | 13.8    | 3.8        | 55.9       | 719   |
| 대만            | 12.2  | 15.7     | 9.6         | 8.8        | 7.9     | 1.5        | 44.3       | 657   |
| 중국            | 24.2  | 27.2     | 15.9        | 9.0        | 8.6     | 2.8        | 12.4       | 1,134 |
| 한국            | 7.1   | 16.8     | 13.4        | 13.2       | 14.7    | 5.8        | 29.1       | 464   |
| 13b: 세탁       |       |          |             |            |         |            |            |       |
| 일본            | 5.8   | 6.5      | 7.1         | 5.7        | 10.9    | 3.8        | 60.2       | 719   |
| 대만            | 11.7  | 14.2     | 8.8         | 5.6        | 8.1     | 2.6        | 49.0       | 657   |
| 중국            | 11.4  | 19.7     | 18.8        | 12.1       | 11.4    | 4.9        | 21.8       | 1,134 |
| 한국            | 6.5   | 14.2     | 11.9        | 13.2       | 10.3    | 7.1        | 36.9       | 464   |
| 13c: 집안 청소    |       |          |             |            |         |            |            |       |
| 일본            | 6.0   | 9.8      | 17.7        | 14.1       | 19.9    | 3.9        | 28.6       | 717   |
| 대만            | 11.0  | 15.5     | 18.7        | 13.1       | 11.7    | 5.0        | 25.0       | 657   |
| 중국            | 19.4  | 30.0     | 17.2        | 10.1       | 10.8    | 3.1        | 9.5        | 1,134 |
| 한국            | 11.9  | 18.8     | 25.0        | 13.8       | 10.1    | 3.5        | 17.0       | 464   |

앞서 기혼 남성들의 국가별 가사 참여 정도는 여성들의 가사참여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의 가사참여 정도의 방향성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정확하게 역방향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녁식사 준비의 경우 중국에서는 ‘거의 매일’ 참가한다는 남편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중국 여성(아내)의 경우에도 같은 응답 비율이 비교 대상 4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분석 샘플이 부부 대상으로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같이 준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식사를 준비에 참여한다는 남성의 비율이 12.2%로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여성의 응답률은 58.5%로 다른 국가들의 수치를 크게 밀돌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가사참여 정도의 범위를 다소 확장하여 일주일에 2회 이상 한다는 응답 비율은 저녁 식사의 경우에는 일본(96.6%), 중국(94.6%), 한국(93.7%), 대만(78.4%)였고, 세탁에 있어서는 일본(96.9%), 한국(91.9%), 중국(89.2%), 대만(8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 저녁 식사에 대한 응답에 비해 세탁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세탁의 경우에는 외식과 같은 가사 노동의 외부화가 상대적으로 덜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안 청소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이상 한다는 기혼 여성의 응답 비율은 중국(93.3%), 한국(90.7%), 일본(82.4%), 대만(70.5%)인 것으로 나타나서 앞서의 남편에서의 응답 순위 순서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과 대만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 정도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가사 노동의 주요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저녁 식사 준비, 세탁, 집안 청소 모두에서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의 남성의 가사분담이 실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사결과도 함께 존재한다. 유배우 여성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질문을 앞서 <표 10-1>과 동일한 형식으로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유배우 남성들의 자기 평가 응답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그 차이는 국가와 질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저녁 식사 준비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이 여성의 배우자 평가에서는 29.5%로 나타났지만, 남성들

의 자기 평가에서는 37.5%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탁에 대해서는 같은 응답이 모두 34.7%로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0-2〉 기혼 여성의 가사참여 정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일에 몇 번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한달에 한 번 정도 | 일년에 몇 번 | 일년에 한 번 정도 | 일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13a: 저녁 식사 준비 |       |          |             |            |         |            |            |       |
| 일본            | 90.6  | 6.0      | 2.0         | 0.3        | 0.4     | 0.3        | 0.5        | 797   |
| 대만            | 58.5  | 19.9     | 9.1         | 3.4        | 2.4     | 1.0        | 5.8        | 624   |
| 중국            | 86.1  | 8.5      | 1.9         | 1.1        | 0.6     | 0.4        | 1.6        | 1,448 |
| 한국            | 83.9  | 9.8      | 3.1         | 1.4        | 0.7     | 0.7        | 0.5        | 582   |
| 13b: 세탁       |       |          |             |            |         |            |            |       |
| 일본            | 80.5  | 16.4     | 1.9         | 0.3        | 0.5     | 0.1        | 0.4        | 799   |
| 대만            | 67.0  | 22.1     | 5.0         | 1.1        | 1.3     | 0.2        | 3.4        | 624   |
| 중국            | 58.0  | 31.2     | 6.8         | 1.3        | 0.7     | 0.1        | 1.8        | 1,448 |
| 한국            | 64.1  | 27.8     | 5.7         | 1.0        | 0.7     | 0.2        | 0.5        | 582   |
| 13c: 집안 청소    |       |          |             |            |         |            |            |       |
| 일본            | 52.2  | 30.2     | 15.0        | 1.6        | 0.3     | 0.0        | 0.8        | 801   |
| 대만            | 47.6  | 22.9     | 18.4        | 4.5        | 3.0     | 0.2        | 3.4        | 624   |
| 중국            | 71.5  | 21.8     | 4.2         | 0.8        | 0.6     | 0.3        | 1.0        | 1,448 |
| 한국            | 70.1  | 20.6     | 6.4         | 1.4        | 0.7     | 0.0        | 0.9        | 582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사 참여 평가에 대한 응답자에 따른 평가 분포 차이의 공통된 두 가지 패턴이 발견되는데, 우선 남성의 자기 평가 결과가 여성의 배우자 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 일관되게 나타난다. 차이가 가장 컸던 경우는 한국의 청소에 관한 평가였는데, 일주일 1회 이상 청소한다는 비율이 여성의 배우자 평가에서는 37.0%에 그쳤지만, 남성의 자기 평가에서는 55.7%로 그 차이가 18.7%p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가장 차이가 작았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만의 세탁에 관한 문항이었다.

두 번째 패턴은 저녁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모든 문항에서 한국에서의 응답자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성의 자기 평가 응답에서 일주일 1회 이

상 가사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저녁 식사 준비, 세탁, 청소 각각에서 37.3%, 32.6%, 55.7%였지만, 여성의 배우자 평가 응답에서는 25.6%, 20.0%, 37.0%로 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3가지 모든 가사 영역에서 일주일 1회 이상 가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자기 평가와 배우자 간의 차이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론 두 질문 문항의 응답자와 그 배우자가 동시에 설문에 참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평가 응답과 배우자 평가 응답 결과가 정확하게 같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단지 이들 수치가 대표성을 확보한 샘플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10-3〉 기혼 여성의 가사참여 정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저녁 식사 준비 |       |         |         |          |          |          |             |       |
| 일본       | 4.3   | 6.9     | 6.8     | 5.8      | 14.3     | 5.7      | 56.2        | 793   |
| 대만       | 10.2  | 9.9     | 9.4     | 9.7      | 14.4     | 3.4      | 43.0        | 618   |
| 중국       | 21.8  | 23.2    | 17.8    | 11.6     | 9.7      | 1.9      | 13.9        | 1,447 |
| 한국       | 4.6   | 9.5     | 11.5    | 13.4     | 16.2     | 7.0      | 37.8        | 582   |
| 세탁       |       |         |         |          |          |          |             |       |
| 일본       | 4.8   | 6.7     | 5.1     | 5.4      | 10.6     | 6.6      | 60.9        | 792   |
| 대만       | 11.0  | 11.7    | 12.0    | 7.9      | 11.0     | 3.2      | 43.2        | 618   |
| 중국       | 13.8  | 16.9    | 15.3    | 13.6     | 12.2     | 3.7      | 24.5        | 1,447 |
| 한국       | 3.8   | 7.1     | 9.1     | 9.0      | 11.5     | 8.8      | 50.8        | 581   |
| 집안 청소    |       |         |         |          |          |          |             |       |
| 일본       | 4.3   | 7.7     | 10.4    | 13.6     | 17.7     | 9.9      | 36.4        | 795   |
| 대만       | 10.4  | 11.7    | 17.3    | 12.5     | 12.6     | 6.2      | 29.5        | 618   |
| 중국       | 16.9  | 22.1    | 19.9    | 11.7     | 11.3     | 3.3      | 14.8        | 1,447 |
| 한국       | 4.8   | 12.4    | 19.8    | 15.0     | 15.5     | 3.6      | 29.0        | 58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결과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큰 수준이고, 성별 간, 그리고 국가 간 차이의 패턴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표집 과정에서 나타난 오차가 아닌 비표집 차이로 여겨진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배우자 간 가사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별 가사노동 참여 정도 평가의 차이 발생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이 문제는 젠더 인식 및 방법론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2006년 동아시아 사회조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및 가사와 관련된 젠더 차별적 인식에 대해 몇 가지 공통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표 10-4 참조). 조사 결과를 통해 동아시아 4개국 간의 젠더 문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응답 패턴에 남편의 가사 참여 분포와는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남편의 가사 참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중국-대만-한국-일본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젠더 관련 인식을 보면 오히려 이러한 순서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해 차별적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전적으로 찬성'부터 '약간찬성'까지의 응답 비율)는 중국(61.9%), 대만(57.8%), 한국(51.6%), 일본(35.3%)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는 앞서 의견보다는 다소 낮은 동의율 수준이지만 마찬가지로 순서인 중국(56.5%), 대만(49.0%), 한국(39.6%), 일본(35.1%)로 나타났다. '한편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는데, 중국(19.6%), 한국(17.9%), 대만(15.1%), 일본(11.6%)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남편의 가사 참여와 관련된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76.3%), 일본(69.7), 대만(65.0), 중국(55.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문항은 남편의 실제 가사 참여 수준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대로 젠더 인식이나 가사 관련 양성평등 의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표 10-4〉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        |         |       |
| 일본  | 2.3     | 12.3   | 18.6  | 43.8       | 12.0  | 9.5    | 1.6     | 2,117 |
| 대만  | 14.0    | 21.3   | 19.4  | 14.1       | 18.5  | 8.4    | 4.3     | 2,101 |
| 중국  | 5.1     | 18.6   | 39.0  | 18.9       | 14.9  | 2.5    | 1.0     | 3,208 |
| 한국  | 13.7    | 15.8   | 21.6  | 13.9       | 19.5  | 10.3   | 5.3     | 1,599 |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        |       |            |       |        |         |       |
| 일본  | 2.8     | 13.1   | 20.6  | 39.4       | 11.8  | 9.7    | 2.8     | 2,121 |
| 대만  | 18.1    | 18.6   | 15.4  | 9.9        | 22.9  | 9.8    | 5.2     | 2,102 |
| 중국  | 5.5     | 17.5   | 33.1  | 18.6       | 17.8  | 5.8    | 1.7     | 3,208 |
| 한국  | 11.3    | 12.4   | 18.5  | 15.4       | 20.9  | 13.6   | 7.9     | 1,600 |
|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         |        |       |            |       |        |         |       |
| 일본  | 4.6     | 19.8   | 38.2  | 29.6       | 5.4   | 2.2    | 0.3     | 2,122 |
| 대만  | 9.3     | 22.1   | 32.4  | 19.5       | 11.4  | 3.2    | 2.1     | 2,098 |
| 중국  | 3.2     | 14.3   | 33.0  | 32.0       | 14.7  | 2.5    | 0.5     | 3,208 |
| 한국  | 10.9    | 25.1   | 37.2  | 17.0       | 5.8   | 2.6    | 1.4     | 1,598 |
|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         |        |       |            |       |        |         |       |
| 일본  | 1.0     | 3.9    | 7.4   | 37.6       | 16.5  | 22.6   | 11.0    | 2,122 |
| 대만  | 2.5     | 4.3    | 7.7   | 12.6       | 21.4  | 23.6   | 27.9    | 2,097 |
| 중국  | 1.6     | 4.7    | 13.8  | 23.6       | 29.9  | 14.3   | 12.2    | 3,208 |
| 한국  | 1.9     | 4.7    | 10.7  | 13.5       | 21.4  | 22.1   | 25.7    | 1,598 |

〈표 10-5〉 남성의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        |         |       |
| 일본  | 1.6     | 11.7   | 17.2  | 47.9       | 9.7   | 10.3   | 1.7     | 955   |
| 대만  | 12.6    | 20.3   | 18.8  | 17.9       | 18.7  | 8.2    | 3.6     | 1,055 |
| 중국  | 5.4     | 19.1   | 39.1  | 21.1       | 12.7  | 1.9    | 0.8     | 1,454 |
| 한국  | 11.9    | 15.2   | 23.2  | 16.0       | 18.4  | 10.1   | 5.2     | 712   |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        |       |            |       |        |         |       |
| 일본  | 2.9     | 14.7   | 22.9  | 40.7       | 9.2   | 7.4    | 2.2     | 960   |
| 대만  | 17.5    | 20.7   | 16.9  | 12.4       | 19.9  | 9.0    | 3.6     | 1,055 |
| 중국  | 5.6     | 16.6   | 33.6  | 19.5       | 18.4  | 5.3    | 1.2     | 1,454 |
| 한국  | 11.7    | 14.5   | 19.3  | 15.9       | 20.8  | 11.3   | 6.6     | 711   |
|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         |        |       |            |       |        |         |       |
| 일본  | 3.1     | 15.9   | 34.9  | 34.4       | 7.5   | 3.6    | 0.5     | 961   |
| 대만  | 7.8     | 20.3   | 34.6  | 20.1       | 12.1  | 3.3    | 1.8     | 1,054 |
| 중국  | 2.2     | 12.7   | 30.1  | 33.7       | 17.5  | 3.2    | 0.6     | 1,454 |
| 한국  | 8.9     | 21.0   | 39.4  | 19.3       | 6.6   | 3.2    | 1.7     | 711   |
|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         |        |       |            |       |        |         |       |
| 일본  | 0.9     | 3.7    | 8.5   | 41.4       | 15.8  | 22.5   | 7.2     | 960   |
| 대만  | 2.1     | 4.5    | 7.5   | 14.7       | 25.9  | 24.8   | 20.5    | 1,052 |
| 중국  | 1.2     | 4.5    | 15.1  | 29.2       | 30.3  | 12.2   | 7.6     | 1,454 |
| 한국  | 1.5     | 3.9    | 11.2  | 17.0       | 23.2  | 21.9   | 21.2    | 712   |

〈표 10-6〉 여성의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       |            |       |        |         |       |
| 일본  | 2.8     | 12.7   | 19.8  | 40.5       | 13.7  | 9.0    | 1.6     | 1,162 |
| 대만  | 15.5    | 22.3   | 20.0  | 10.2       | 18.4  | 8.7    | 5.0     | 1,046 |
| 중국  | 4.9     | 18.1   | 38.9  | 17.1       | 16.8  | 3.0    | 1.2     | 1,754 |
| 한국  | 15.1    | 16.2   | 20.3  | 12.2       | 20.3  | 10.5   | 5.4     | 887   |
|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        |       |            |       |        |         |       |
| 일본  | 2.7     | 11.8   | 18.6  | 38.2       | 13.9  | 11.5   | 3.3     | 1,161 |
| 대만  | 18.7    | 16.4   | 13.9  | 7.5        | 26.0  | 10.6   | 6.9     | 1,047 |
| 중국  | 5.5     | 18.3   | 32.7  | 17.8       | 17.3  | 6.3    | 2.2     | 1,754 |
| 한국  | 10.9    | 10.8   | 17.9  | 15.0       | 21.0  | 15.4   | 9.0     | 889   |
|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                         |         |        |       |            |       |        |         |       |
| 일본  | 5.9     | 22.9   | 40.9  | 25.5       | 3.7   | 1.0    | 0.1     | 1,161 |
| 대만  | 10.9    | 24.0   | 30.1  | 18.8       | 10.7  | 3.2    | 2.4     | 1,044 |
| 중국  | 4.0     | 15.6   | 35.4  | 30.5       | 12.3  | 1.9    | 0.5     | 1,754 |
| 한국  | 12.5    | 28.4   | 35.4  | 15.2       | 5.1   | 2.1    | 1.2     | 887   |
|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켜도 괜찮다.                     |         |        |       |            |       |        |         |       |
| 일본  | 1.1     | 4.0    | 6.5   | 34.5       | 17.0  | 22.7   | 14.1    | 1,162 |
| 대만  | 3.0     | 4.2    | 7.9   | 10.4       | 16.8  | 22.3   | 35.4    | 1,045 |
| 중국  | 1.9     | 4.9    | 12.8  | 18.9       | 29.6  | 16.0   | 16.0    | 1,754 |
| 한국  | 2.3     | 5.3    | 10.3  | 10.6       | 20.0  | 22.2   | 29.4    | 886   |

그런데 이상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젠더인식은 4개국 모두에서 개별 국가 내 남녀 간 인식의 분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 응답에서 성별 차이는 문항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남성 일/가정 역할 차이 의견(남성 69.3%; 여성 76.3%)와 성별 일/가정 역할 차이 의견(남성 45.5%; 여성 39.6%)에 대한 동의율에서 그 차이가 컸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의견 동의율(남성 45.0%; 여성 55.0%), 대만은 남편 경력 우선 의견(남성 51.7%; 여성 57.8%)과 성별 일/가정 역할 차이 의견(남성 57.8%; 여성 51.7%)에 대한 동의율에서 차이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성별 일/가정 역할 차이 의견(남성 40.5%; 여성 33.1%)과 가사분담 의견(남성 53.9%; 여성 6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별 동의율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항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젠더 차별 인식의 정도에 대한 성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이러한 차별적 문화 인식이 비록 남성에게 좀 더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에서 내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2절 가족간 행위와 만족도

2절에서는 가족 간의 행위와 만족도에 있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들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4개국 간에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빈도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거의 매일’ 식사를 한다는 비율은 중국이 7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만(69.7%), 일본(55.4%) 순이었으며, 한국은 46.6%로 가장 적었다. 반면, ‘일주에 몇 번’ 식사를 같이 한다는 비율은 한국이 2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본(26.4%), 대만(16.2%), 중국(9.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4개국들 중에서 중화권에 속하는 중국과 대만이 유사하고 이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10-7〉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일본 | 55.4  | 26.4    | 11.0    | 2.7      | 3.1      | 0.6      | 0.8         | 1,940 |
| 대만 | 69.7  | 16.2    | 7.5     | 3.6      | 2.5      | 0.2      | 0.6         | 2,001 |
| 중국 | 76.9  | 9.5     | 4.1     | 2.5      | 4.5      | 2.2      | 0.3         | 3,123 |
| 한국 | 46.6  | 29.1    | 16.0    | 5.4      | 1.5      | 0.7      | 0.7         | 1,365 |

다음으로 가족과의 여가 활동하는 빈도에 있어서 동아시아 4개국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족들과의 여가활동을 ‘거의 매일’한다는 비율은 대만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10.5%), 한국(4.5%) 순이었으며 일본이 1.4%로 가장 낮았다. 국가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한달에 한번’이 2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한번’(24%) 순이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가족과의 여가활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일년에 몇 번’이 32.3%로 가장 높았다. 일본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보다는 ‘한달에 한 번’미만으로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권에 속하는 대만과 중국의 경우도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의 경우 ‘거의 매일’ 가족과 여가활동을 갖는다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78.5%로 가족과의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우 ‘일년에 몇 번’만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에 한번’ 미만인 비율이 72.4%로 나타났다.

〈표 10-8〉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빈도

(단위: %, 명)

| 구분 | 거의 매일 | 일주일에 몇 번 | 일주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계 (N) |
|----|-------|----------|----------|----------|----------|----------|-------------|-------|
| 일본 | 1.4   | 3.4      | 10.5     | 17.6     | 32.3     | 17.6     | 17.3        | 1,924 |
| 대만 | 46.1  | 18.3     | 14.1     | 9.8      | 8.0      | 1.7      | 2.1         | 2,001 |
| 중국 | 10.5  | 7.2      | 9.8      | 12.5     | 25.3     | 14.5     | 20.1        | 3,061 |
| 한국 | 4.5   | 11.5     | 24.0     | 25.6     | 18.9     | 4.7      | 10.8        | 1,362 |

이처럼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와 여가활동 공유 빈도를 통해 가족 간의 교류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면 동아시아 4개국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대만은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정도가 모두 높은 편이며, 중국은 저녁식사 빈도는 많지만 여가활동은 적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저녁식사와 여가활동 모두 여타 4개국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족 간의 교류를 많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만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일본은 가족주의의 약화로 인한 가족 간 교류의 감소와 개인주의

화의 강화가 눈에 띈다.

다음은 본인은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동아시아 4개국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고, 중국과 대만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아주 좋다’는 비율에 비해 ‘다소 좋다’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중국과 대만의 경우 ‘보통’보다는 ‘다소 좋다’와 ‘아주 좋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인식을 통해 동아시아 4개국의 객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만인과 중국인들은 본인 및 배우자들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9〉 주관적 건강

(단위: %, 명)

| 구분      | 아주 좋다 | 다소 좋다 | 보통   | 다소 안좋다 | 아주 안 좋다 | 계 (N) |
|---------|-------|-------|------|--------|---------|-------|
| 본인의 건강  |       |       |      |        |         |       |
| 일본      | 15.6  | 33.1  | 38.7 | 10.5   | 2.1     | 2,123 |
| 대만      | 26.2  | 45.7  | 11.5 | 14.6   | 2.1     | 2,102 |
| 중국      | 21.5  | 54.6  | 9.7  | 11.4   | 2.8     | 3,205 |
| 한국      | 24.1  | 30.8  | 26.5 | 12.0   | 6.7     | 1,605 |
| 배우자의 건강 |       |       |      |        |         |       |
| 일본      | 15.8  | 36.4  | 35.3 | 10.6   | 1.9     | 1,517 |
| 대만      | 25.9  | 47.4  | 10.9 | 14.1   | 1.7     | 1,278 |
| 중국      | 22.5  | 57.1  | 9.0  | 9.8    | 1.6     | 2,566 |
| 한국      | 20.7  | 34.6  | 28.2 | 11.6   | 5.0     | 1,055 |

다음으로 동아시아 4개국들 간의 결혼생활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결혼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4개국 모두 불만족보다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만족도의 강도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만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26.1%로 가장 높으며, 이에 비해 중국은 13.2%로 가장 낮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그 비율이 각각 21.8%와 20%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 만족’을 비롯한 다른 선택지에 응답한 비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결혼만족도는 대만이 가장 높지만 중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앞의 두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10〉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보통   | 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계 (N) |
|----|-------|-------|------|--------|--------|-------|
| 일본 | 20.0  | 40.5  | 31.0 | 6.8    | 1.7    | 1,512 |
| 대만 | 26.1  | 56.7  | 12.0 | 3.8    | 1.4    | 1,269 |
| 중국 | 13.2  | 69.4  | 13.9 | 2.6    | 0.9    | 2,586 |
| 한국 | 21.8  | 36.9  | 32.3 | 6.4    | 2.7    | 1,053 |

다음으로 생활만족도는 중국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국만을 비교하기로 한다. 만족한다는 비율(‘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의 합)을 보면 대만이 71.6%로 가장 높고, 일본 48.7%, 그리고 한국이 38.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종합해보면, 대만은 양자 모두 높은 편이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결혼만족도나 생활만족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10-11〉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보통   | 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계 (N) |
|----|-------|-------|------|--------|--------|-------|
| 일본 | 10.7  | 38.0  | 37.5 | 11.3   | 2.5    | 2,125 |
| 대만 | 15.9  | 55.7  | 15.9 | 10.7   | 1.9    | 2,101 |
| 한국 | 6.6   | 31.7  | 40.3 | 16.5   | 4.9    | 1,603 |

### 제3절 결혼의 절대성

비교분석 대상 국가들의 가족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영역의(남편과 부인의 연령, 출산의 필요성, 결혼과 행복, 동거, 이혼 등에 대한 인식)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가족 가치 영역에 따라 동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은 대만(52.2%) - 중국(49.3%) - 한국(43.4%) - 일본(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15%로 나타났고, 한국은 12.1%이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 5.1%와 1.1%로 매우 낮았다. 전반적으로 반대(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은 한국(77.7%) - 중국(50.6%) - 대만(50.5%) - 일본(4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32.6%로 나타났고, 대만은 15%였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 7.8%와 5.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비교하면, 27.5%p로 편차가 가장 크다.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은 한국(63.3%) - 중국(39.9%) - 대만(38.1%) - 일본(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15.7%로 나타난 반면, 대만은 6%, 일본과 중국은 각 3%와 1.8%로 매우 낮았다. 한국은 유일하게 절반 이상이 찬성하였으며, 전체 반대(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는 대만이 3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은 한국(57.1%) - 중국(38.6%) - 일본(32.1%) - 대만(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변수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감소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일하게 절반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인다. 전체 반대(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는 앞서 남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만이 40.4%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은 한국(65.2%) - 대만(52.2%) - 일본(47%) - 중국(4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25.6%, 대만은 17.4%로 나타났고,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 7%와 4.3%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은 한국(55.8%) - 중국(42.3%) - 일본(38.3%) - 대만(3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17.6%로 나타났고, 반면 대만 7%, 일본과 중국은 각 4.4%,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전체적으로 반대(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하는 의견은 대만이 유일하게 절반 이상(5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은 중국(49.7%) - 대만(45.2%) - 한국(37.5%) - 일본(2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34.5%로 나타났고, 대만 19.7%, 일본과 한국이 각 19.1%, 18.8%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대(전적으로 반대, 상당히 반대, 약간 반대)하는 의견이 47.5%로 가장 높았고, 대만이 45.8%로 뒤를 이어 이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교적 가족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근소하게 한국-중국-대만-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할 때, 가족 가치 영역에 따라 비교대상국가 사이의 일관된 차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가구 형태의 변화, 세대 및 지역 간 인식의 차이, 가족 해체에 대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하지만, 동아시아 4개국에서 가족 가치에 동의하는 수준이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각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 가치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10-12〉 국가별 결혼관련 가치관 (2006년)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             |         |        |       |            |       |        |         |       |
| 일본                                 | 1.1     | 5.6    | 10.7  | 68.0       | 3.3   | 8.6    | 3.1     | 2,118 |
| 대만                                 | 15.2    | 21.8   | 15.2  | 31.8       | 11.2  | 3.0    | 1.9     | 2,102 |
| 중국                                 | 5.1     | 13.6   | 30.6  | 38.0       | 10.4  | 1.6    | 0.8     | 3,208 |
| 한국                                 | 12.1    | 11.5   | 19.8  | 39.0       | 9.6   | 3.1    | 4.8     | 1,601 |
|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         |        |       |            |       |        |         |       |
| 일본                                 | 2.0     | 9.4    | 8.0   | 35.6       | 22.8  | 17.2   | 5.1     | 2,119 |
| 대만                                 | 5.9     | 9.8    | 18.2  | 15.6       | 18.0  | 16.7   | 15.8    | 2,102 |
| 중국                                 | 2.5     | 7.5    | 18.3  | 21.2       | 29.9  | 12.9   | 7.8     | 3,208 |
| 한국                                 | 2.1     | 2.6    | 5.9   | 11.8       | 21.2  | 23.9   | 32.6    | 1,602 |
|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         |        |       |            |       |        |         |       |
| 일본                                 | 3.0     | 12.7   | 17.6  | 59.1       | 3.4   | 3.2    | 1.0     | 2,113 |
| 대만                                 | 6.0     | 15.1   | 17.0  | 27.5       | 25.0  | 6.3    | 3.2     | 2,100 |
| 중국                                 | 1.8     | 9.1    | 29.0  | 40.9       | 15.1  | 3.4    | 0.8     | 3,208 |
| 한국                                 | 15.7    | 24.1   | 23.5  | 23.7       | 7.4   | 3.7    | 1.8     | 1,600 |
|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         |        |       |            |       |        |         |       |
| 일본                                 | 2.5     | 12.4   | 17.2  | 59.4       | 4.2   | 3.0    | 1.2     | 2,107 |
| 대만                                 | 3.6     | 11.5   | 16.5  | 28.1       | 27.4  | 8.4    | 4.6     | 2,097 |
| 중국                                 | 1.7     | 9.2    | 27.7  | 41.9       | 15.6  | 2.9    | 1.0     | 3,208 |
| 한국                                 | 11.8    | 20.9   | 24.4  | 26.0       | 10.1  | 4.4    | 2.3     | 1,599 |
|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         |        |       |            |       |        |         |       |
| 일본                                 | 1.1     | 10.7   | 13.7  | 27.6       | 25.3  | 17.4   | 4.3     | 2,120 |
| 대만                                 | 4.1     | 11.3   | 18.8  | 13.6       | 18.2  | 16.6   | 17.4    | 2,102 |
| 중국                                 | 1.5     | 6.1    | 18.4  | 27.3       | 26.4  | 13.3   | 7.0     | 3,208 |
| 한국                                 | 2.1     | 4.3    | 15.3  | 13.2       | 18.0  | 21.6   | 25.6    | 1,597 |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찬성도 반대도 아님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        |       |            |       |        |         |       |
| 일본   | 4.4     | 14.4   | 19.5  | 41.9       | 10.1  | 8.0    | 1.8     | 2,116 |
| 대만   | 7.0     | 12.7   | 14.2  | 13.3       | 22.4  | 16.6   | 13.8    | 2,102 |
| 중국   | 2.7     | 10.6   | 29.0  | 23.3       | 22.9  | 7.9    | 3.6     | 3,208 |
| 한국   | 17.6    | 19.0   | 19.2  | 14.0       | 14.0  | 8.4    | 7.9     | 1,597 |
| 부부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         |        |       |            |       |        |         |       |
| 일본   | 1.2     | 9.6    | 19.1  | 46.7       | 13.2  | 8.1    | 2.1     | 2,119 |
| 대만   | 8.7     | 16.8   | 19.7  | 9.0        | 21.7  | 13.5   | 10.6    | 2,102 |
| 중국   | 3.2     | 12.0   | 34.5  | 23.5       | 18.0  | 6.3    | 2.5     | 3,208 |
| 한국   | 7.9     | 10.8   | 18.8  | 15.0       | 21.5  | 12.6   | 13.4    | 1,600 |

가부장제 가치에 관한 응답 분포에서도 살펴보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하는 의견은 한국(84.3%) - 중국(83.4%) - 대만(80.8%) - 일본(5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31.4%, 대만이 27.2%로 나타났고, 중국은 17.5%인 반면, 일본은 4.5%로 그 수치가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4개국 모두에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였다.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하는 의견은 중국(88.2%) - 대만(86.5%) - 한국(74.7%) - 일본(4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35.5%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19.5%이며, 반면, 일본은 3.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에 관한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찬성(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하는 의견은 한국(56.7%) - 중국(45.3%) - 대만(44.7%) - 일본(4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절반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19.3%이다. 대만은 18.8%로 같은 응답범주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 중국과 일본은 7.9%, 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중국이 ‘약간 찬성’하는 의견이 22.4%로 가장 높아 전체 순위

에서는 대만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동아시아 4개국 모두에서 가부장제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두드러졌으며, 중국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가부장제 가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 비슷하게 부모-자식 관계를 강조하는 가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면, 일본은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동의하였다.

〈표 10-13〉 가족 관련 가치관 (2006년)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보통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         |        |       |      |       |        |         |       |
| 일본                                  | 4.5     | 20.5   | 30.1  | 34.8 | 5.4   | 4.0    | 0.7     | 2,116 |
| 대만                                  | 27.2    | 28.3   | 25.3  | 7.0  | 9.1   | 2.1    | 1.1     | 2,100 |
| 중국                                  | 17.5    | 29.2   | 36.7  | 9.9  | 6.1   | 0.5    | 0.1     | 3,208 |
| 한국                                  | 31.4    | 29.1   | 23.8  | 6.9  | 6.3   | 1.7    | 0.9     | 1,600 |
|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        |       |      |       |        |         |       |
| 일본                                  | 3.3     | 15.6   | 25.4  | 36.6 | 9.6   | 7.5    | 2.0     | 2,115 |
| 대만                                  | 35.5    | 32.8   | 18.2  | 8.3  | 3.9   | 0.6    | 0.7     | 2,101 |
| 중국                                  | 19.5    | 34.8   | 33.9  | 9.1  | 2.2   | 0.3    | 0.2     | 3,208 |
| 한국                                  | 19.5    | 25.2   | 30.0  | 13.6 | 8.0   | 2.3    | 1.4     | 1,596 |
|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         |        |       |      |       |        |         |       |
| 일본                                  | 5.8     | 18.7   | 18.9  | 42.7 | 4.5   | 7.3    | 2.2     | 2,115 |
| 대만                                  | 18.8    | 11.5   | 14.4  | 19.8 | 18.9  | 8.8    | 7.9     | 2,102 |
| 중국                                  | 7.9     | 15.0   | 22.4  | 24.8 | 18.1  | 6.6    | 5.4     | 3,208 |
| 한국                                  | 19.3    | 15.7   | 21.7  | 20.0 | 11.3  | 5.6    | 6.4     | 1,599 |

## 제4절 세대간 교환관계

### 1.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비교분석 대상 국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혼 성인 남녀가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살펴보면 대만-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찬성한다(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기혼 성인남녀가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이러한 경향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한 성인 남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중국(87.7%)-대만(86.5%)-한국(84.3%)-일본(56.6%) 순으로 찬성한다(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는 의견이 많았고, 결혼한 성인 여자가 본인의 부모(친정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중국(85.4%)-한국(75.8%)-대만(61.5%)-일본(41.2%) 순으로 찬성한다(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기혼 성인남녀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한국-중국-대만-일본 순으로 찬성한다(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성인남녀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는 4개국 중 일본에서 낮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혼 성인 남성 또는 여성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해 약간+상당히+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각각 20.9%, 22.5%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만, 중국, 한국에서의 반대한다는 응답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기혼 성인남녀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한국과 중국에서 대만과 일본에 비해 찬성한다(전적으로 찬성+상당히 찬성+약간 찬성)는 의견이 많았다.

〈표 10-14〉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 전적으로 찬성 | 상당히 찬성 | 약간 찬성 | 보통   | 약간 반대 | 상당히 반대 | 전적으로 반대 | 계 (N) |
|-----------------------------------|---------|--------|-------|------|-------|--------|---------|-------|
| 7a: 결혼 안한 성인 남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         |        |       |      |       |        |         |       |
| 일본                                | 4.2     | 16.9   | 22.1  | 35.8 | 8.3   | 10.9   | 1.7     | 2,067 |
| 대만                                | 30.7    | 32.9   | 20.2  | 9.1  | 4.6   | 1.6    | 0.9     | 2,102 |
| 중국                                | 11.0    | 26.5   | 31.7  | 16.7 | 10.1  | 2.6    | 1.3     | 3,207 |
| 한국                                | 20.5    | 21.7   | 35.1  | 13.3 | 6.5   | 1.9    | 0.9     | 1,595 |
| 7b: 결혼 안한 성인 여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         |        |       |      |       |        |         |       |
| 일본                                | 3.0     | 14.1   | 21.8  | 38.8 | 9.4   | 11.1   | 2.0     | 2,028 |
| 대만                                | 23.9    | 28.7   | 24.7  | 13.2 | 6.4   | 2.0    | 1.1     | 2,102 |
| 중국                                | 10.6    | 25.5   | 30.4  | 19.0 | 10.1  | 3.1    | 1.3     | 3,207 |
| 한국                                | 17.7    | 19.4   | 36.2  | 16.3 | 7.3   | 2.1    | 0.9     | 1,595 |
| 7c: 결혼한 성인 남자는 본인의 부모에게           |         |        |       |      |       |        |         |       |
| 일본                                | 7.1     | 25.4   | 24.1  | 31.3 | 5.3   | 5.6    | 1.2     | 2,086 |
| 대만                                | 32.4    | 31.3   | 22.8  | 8.2  | 3.9   | 0.8    | 0.6     | 2,102 |
| 중국                                | 20.6    | 35.9   | 31.2  | 10.3 | 1.8   | 0.3    | 0.1     | 3,207 |
| 한국                                | 20.9    | 30.0   | 33.4  | 10.0 | 3.6   | 0.9    | 1.1     | 1,595 |
| 7d: 결혼 한 성인 여자는 본인의 부모(친정 부모)에게   |         |        |       |      |       |        |         |       |
| 일본                                | 3.6     | 15.6   | 22.0  | 40.3 | 9.0   | 8.2    | 1.4     | 2,049 |
| 대만                                | 13.1    | 17.8   | 30.6  | 19.5 | 11.4  | 4.7    | 2.9     | 2,102 |
| 중국                                | 18.7    | 33.7   | 33.0  | 11.6 | 2.6   | 0.4    | 0.1     | 3,207 |
| 한국                                | 13.6    | 24.8   | 37.4  | 15.8 | 5.8   | 1.3    | 1.4     | 1,595 |
| 7e: 결혼 한 성인 남자는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에게 |         |        |       |      |       |        |         |       |
| 일본                                | 3.2     | 13.2   | 21.6  | 41.2 | 9.8   | 9.4    | 1.5     | 2,085 |
| 대만                                | 7.6     | 14.5   | 32.9  | 24.6 | 13.2  | 3.8    | 3.4     | 2,102 |
| 중국                                | 14.9    | 31.5   | 34.4  | 15.4 | 3.2   | 0.5    | 0.1     | 3,207 |
| 한국                                | 14.0    | 24.9   | 42.5  | 13.2 | 3.5   | 0.9    | 1.0     | 1,595 |
| 7f: 결혼 한 성인 여자는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에게    |         |        |       |      |       |        |         |       |
| 일본                                | 3.0     | 13.2   | 22.1  | 40.9 | 9.5   | 9.6    | 1.6     | 2,054 |
| 대만                                | 9.4     | 18.0   | 29.5  | 24.2 | 12.0  | 3.9    | 3.0     | 2,101 |
| 중국                                | 14.8    | 30.5   | 35.2  | 15.4 | 3.4   | 0.5    | 0.1     | 3,207 |
| 한국                                | 15.1    | 25.4   | 40.8  | 13.3 | 3.5   | 0.9    | 1.0     | 1,595 |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에 대해 한국의 경우에는 ‘아들 딸 상관없이 또는 그 가족’(30.6%)이라는 응답과 ‘장남 또는 그 가족’(28.8%)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한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이라는 응답(일본: 63.6%, 대만: 70.5%, 중국: 61.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61.0%)이라는 응답에 이어 ‘아들 딸 상관없이 또는 그 가족’(19.8%)이라는 응답이 많아 노부모 부양에 있어 부계중심적 성향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3개국에 비해 ‘자녀들 또는 그 가족에게 책임 없음’(6.1%)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도 특징적이다.

〈표 10-15〉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감

(단위: %, 명)

| 구분 | 장남 또는 그 가족 |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 딸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 아들 딸 상관없이 또는 그 가족 |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 |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겐 책임 없음 | 기타  | 계 (N) |
|----|------------|-------------------|------------------|-------------------|-----------------|----------------------|-----|-------|
| 일본 | 15.7       | 2.8               | 0.4              | 9.8               | 63.6            | 6.1                  | 1.5 | 2,116 |
| 대만 | 4.6        | 14.6              | 0.4              | 8.3               | 70.5            | 0.5                  | 1.1 | 2,098 |
| 중국 | 9.7        | 6.6               | 1.5              | 19.8              | 61.0            | 1.3                  | 0.1 | 3,208 |
| 한국 | 28.8       | 12.9              | 0.3              | 30.6              | 25.6            | 0.8                  | 1.0 | 1,600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4개국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중국과 한국이 일본, 대만에 비해 기혼 성인남녀가 본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부모 부양의 책임에 있어서는 한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요컨대, 한국은 일본, 대만, 중국에 비해 노부모 부양에 있어 가족부양 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계중심적인 특성도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에 있어 가족부양 규범이 작동하고 있지만 부계중심성은 한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 2. 부모-자녀 간 경제적, 도구적 지원 교환 행태

다음에는 부모-자녀 간 경제적, 도구적 지원 교환 행태에 대한 4개국의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본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대만(31.3%)-한국(22.8%)-중국(22.7%)-일본(11.3%) 순으로 응답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매우 자주+자주)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본인의 부모에게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드리기 등의 도구적 지원을 제공(매우 자주+자주) 했다는 응답 역시 경제적 지원과 유사하게 대만(30.5%)-중국(23.8%)-한국(23.4%)-일본(15.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결과와 유사하게 직접적인 교환 행태에 있어서도 일본이 다른 3개국에 비해 응답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지난 1년간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가족의 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집단으로서 가족 인식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한 선행연구(조지현·오세근·양철호, 2012: 14)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표 10-16〉 부모-자녀간 경제적 도구적 교환관계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br>해드렸다 | 자주<br>해드렸다 | 가끔<br>해드렸다 | 거의<br>해드리지<br>않았다 | 전혀<br>해드리지<br>않았다 | 계 (N) |
|--|---------------|------------|------------|-------------------|-------------------|-------|
| 8a: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기                           |               |            |            |                   |                   |       |
| 일본   | 4.3           | 7.0        | 19.3       | 29.2              | 40.1              | 1,221 |
| 대만   | 15.2          | 16.1       | 29.2       | 16.9              | 22.7              | 1,458 |
| 중국   | 3.7           | 19.0       | 37.5       | 23.6              | 16.3              | 2,123 |
| 한국   | 6.7           | 16.1       | 40.1       | 22.4              | 14.7              | 1,142 |
| 8b: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드리기 |               |            |            |                   |                   |       |
| 일본   | 5.9           | 9.2        | 32.1       | 24.6              | 28.3              | 1,223 |
| 대만   | 10.7          | 19.8       | 33.7       | 18.5              | 17.3              | 1,459 |
| 중국   | 4.5           | 19.3       | 33.0       | 28.2              | 15.0              | 2,133 |
| 한국   | 5.5           | 17.9       | 38.0       | 26.6              | 12.0              | 1,142 |

응답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응답자가 본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은 한국(25.1%)-대만(15.4%)-일본(14.3%)-중국(13.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의+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대만(71.0%)-중국(65.9%)-일본(58.5%)-한국(57.1%) 순으로 나타나 대만은 자녀에 따라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집안일 혹은 자녀돌보주기)의 경우에는 대만(36.1%)-한국(29.9%)-일본(25.0%)-중국(21.9%) 순으로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거의+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4개국(일본: 54.4%, 대만: 48.0%, 중국: 57.3%, 한국: 49.1%)에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은 4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지원보다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한국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25.1%)이 일본(14.3%), 대만(15.4%), 중국(13.8%)에 비해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다.

〈표 10-17〉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 해주셨다 | 자주 해주셨다 | 가끔 해주셨다 |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 |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 | 계 (N) |
|---|------------|---------|---------|-------------|-------------|-------|
| 9a: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            |         |         |             |             |       |
| 일본  | 5.7        | 8.6     | 27.2    | 24.1        | 34.4        | 1,222 |
| 대만  | 7.7        | 7.7     | 13.7    | 14.4        | 56.6        | 1,458 |
| 중국  | 3.3        | 10.5    | 20.4    | 20.9        | 45.0        | 2,133 |
| 한국  | 11.3       | 13.8    | 22.4    | 22.1        | 30.5        | 1,143 |
| 9b: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보주기 |            |         |         |             |             |       |
| 일본  | 13.8       | 11.2    | 20.6    | 16.0        | 38.4        | 1,222 |
| 대만  | 18.0       | 18.1    | 15.9    | 10.5        | 37.5        | 1,457 |
| 중국  | 6.6        | 15.3    | 20.8    | 23.5        | 33.8        | 2,108 |
| 한국  | 14.9       | 15.0    | 21.1    | 18.2        | 30.9        | 1,143 |

유배우 상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지원 교환 행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은 한국(26.6%)-대만(18.1%)-중국(14.4%)-일본(5.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께 집안일 또는 건강돌봐드리기 등의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은 대만(20.9%)-한국(18.0%)-중국(17.9%)-일본(12.2%)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인 부모와의 지원 교환행태와 유사하게, 일본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5.6%)과 도구적 지원(12.2%)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률이 3개국과 비교할 때 낮았다.

〈표 10-18〉 배우자의 부모와의 지원교환 형태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br>해드렸다 | 자주<br>해드렸다 | 가끔<br>해드렸다 | 거의<br>해드리지<br>않았다 | 전혀<br>해드리지<br>않았다 | 계 (N) |
|---|---------------|------------|------------|-------------------|-------------------|-------|
| 11a: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기                           |               |            |            |                   |                   |       |
| 일본  | 2.2           | 3.4        | 14.4       | 30.1              | 49.9              | 855   |
| 대만  | 6.6           | 11.5       | 28.8       | 20.9              | 32.2              | 817   |
| 중국  | 2.2           | 12.2       | 40.3       | 29.2              | 16.2              | 1,597 |
| 한국  | 12.0          | 14.6       | 40.5       | 22.8              | 10.1              | 733   |
| 11b: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드리기 |               |            |            |                   |                   |       |
| 일본  | 6.4           | 5.8        | 18.8       | 28.1              | 40.9              | 858   |
| 대만  | 7.3           | 13.6       | 23.0       | 21.3              | 34.8              | 817   |
| 중국  | 4.3           | 13.6       | 28.2       | 31.5              | 22.4              | 1,590 |
| 한국  | 5.6           | 12.4       | 34.8       | 33.0              | 14.2              | 733   |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지난 1년간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은 한국(7.6%)-중국(5.2%)-일본(5.1%)-대만(2.0%) 순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또는 자녀 돌봐주기 등 도구적 지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은 대만(13.5%)-한국(12.5%)-중국(10.7%)-일본(7.5%) 순으로 나타났다. 즉, 4개국 모두에서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빈도가 높았던 것이 특징이다.

〈표 10-19〉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 해주셨다 | 자주 해주셨다 | 가끔 해주셨다 | 거의 해주시지 않았다 | 전혀 해주시지 않았다 | 계 (N) |
|--|------------|---------|---------|-------------|-------------|-------|
| 12a: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            |         |         |             |             |       |
| 일본   | 1.2        | 3.9     | 21.2    | 27.6        | 46.2        | 855   |
| 대만   | 0.5        | 1.5     | 4.7     | 8.3         | 85.1        | 817   |
| 중국   | 0.7        | 4.5     | 14.2    | 23.7        | 56.8        | 1,589 |
| 한국   | 2.1        | 5.5     | 16.6    | 33.2        | 42.7        | 733   |
| 12b: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봐주기 |            |         |         |             |             |       |
| 일본   | 1.4        | 6.1     | 17.8    | 22.9        | 51.8        | 853   |
| 대만   | 5.8        | 7.7     | 12.9    | 10.9        | 62.8        | 817   |
| 중국   | 2.2        | 8.5     | 18.0    | 28.2        | 43.1        | 1,585 |
| 한국   | 3.8        | 8.7     | 17.1    | 30.0        | 40.4        | 733   |

다음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의 경제적, 도구적 지원 교환 행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응답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가장 자주 접촉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자녀는 일본을 제외한 대만(40.5%), 중국(49.9%), 한국(38.3%)에서 '장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녀'라는 응답(대만: 28.2%, 중국: 36.4%, 한국: 30.8%)이 많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녀'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남'(36.0%)으로 조사되었다.

〈표 10-20〉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 장남   | 차남 이하 아들 | 장녀   | 차녀 이하 딸 | 큰 사위 | 둘째 이하 사위 | 큰 며느리 | 둘째 이하 며느리 | 계 (N) |
|----|------|----------|------|---------|------|----------|-------|-----------|-------|
| 일본 | 36.0 | 9.2      | 41.6 | 10.9    | 0.1  | -        | 2.0   | 0.3       | 1,174 |
| 대만 | 40.5 | 17.4     | 28.2 | 13.4    | -    | -        | 0.4   | 0.1       | 904   |
| 중국 | 49.9 | 7.7      | 36.4 | 5.5     | 0.1  | -        | 0.1   | 0.3       | 1,414 |
| 한국 | 38.3 | 17.0     | 30.8 | 12.2    | -    | -        | 1.4   | 0.4       | 572   |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대만(66.7%)-일본(51.8%)-한국(43.2%)-중국(42.0%) 순으로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10-21〉 자녀와의 동거여부

(단위: %, 명)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계 (N) |
|----|------|------|-------|
| 일본 | 51.8 | 48.2 | 1,228 |
| 대만 | 66.7 | 33.3 | 872   |
| 중국 | 42.0 | 58.0 | 1,416 |
| 한국 | 43.2 | 56.8 | 572   |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에게 응답자가 제공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31.5%)-중국(27.6%)-대만(23.3%)-일본(19.1%) 순으로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매우 자주+자주) 했다는 응답은 대만(42.4%)-한국(34.7%)-중국(34.2%)-일본(2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22〉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 해주었다 | 자주 해주었다 | 가끔 해주었다 | 거의 해주지 않았다 | 전혀 해주지 않았다 | 계 (N) |
|--|------------|---------|---------|------------|------------|-------|
| 10-2a: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            |         |         |            |            |       |
| 일본   | 8.9        | 10.2    | 25.1    | 27.4       | 28.4       | 1,213 |
| 대만   | 13.0       | 10.3    | 11.6    | 10.1       | 55.0       | 902   |
| 중국   | 6.3        | 21.3    | 20.0    | 19.3       | 33.1       | 1,412 |
| 한국   | 19.9       | 11.6    | 19.2    | 17.9       | 31.5       | 569   |
| 10-2b: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보주기 |            |         |         |            |            |       |
| 일본   | 12.5       | 13.6    | 24.1    | 19.3       | 30.5       | 1,205 |
| 대만   | 24.9       | 17.5    | 15.7    | 10.0       | 31.8       | 902   |
| 중국   | 10.4       | 23.8    | 21.4    | 21.7       | 22.7       | 1,349 |
| 한국   | 19.9       | 14.8    | 21.1    | 15.3       | 29.0       | 569   |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구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은 한국(24.9%)-대만(24.6%)-중국(21.6%)-일본(6.8%) 순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접촉한 성인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은 대만(29.4%)-한국(25.8%)-중국(20.6%)-일본(1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했다는 응답(19.1%)에 비해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은 6.8%에 그쳐 다른 3개국에 비해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와 함께, 도구적 지원의 경우에는 4개국에서 모두 응답자가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제공했다는 응답에 비해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매우 자주+자주 받았다는 응답이 적게 나타났다.

〈표 10-23〉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구적 지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매우 자주<br>했다 | 자주 했다 | 가끔<br>했다 | 거의 하지<br>않았다 | 전혀 하지<br>않았다 | 계 (N) |
|--|-------------|-------|----------|--------------|--------------|-------|
| 10-2a: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             |       |          |              |              |       |
| 일본   | 2.5         | 4.3   | 16.6     | 26.1         | 50.5         | 1,214 |
| 대만   | 11.1        | 13.5  | 21.4     | 12.1         | 41.9         | 902   |
| 중국   | 2.8         | 18.8  | 29.6     | 17.9         | 30.8         | 1,378 |
| 한국   | 9.1         | 15.8  | 25.6     | 16.3         | 33.2         | 570   |
| 10-2b: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주기 |             |       |          |              |              |       |
| 일본   | 3.8         | 8.0   | 32.5     | 24.2         | 31.5         | 1,212 |
| 대만   | 10.0        | 19.4  | 30.7     | 19.4         | 20.6         | 903   |
| 중국   | 2.6         | 18.0  | 31.1     | 29.1         | 19.3         | 1,393 |
| 한국   | 8.6         | 17.2  | 33.8     | 19.3         | 21.2         | 57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자녀와 부모세대의 가족 내 세대교환 행태는 전반적으로 부모세대와 성인자녀 세대가 서로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주고받는 호혜적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 세대관계는 응답자와 부모의 관계(예: 부모/배우자

의 부모)에 따라 주고받는 지원 영역(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및 빈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보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은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다른 3개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 가부장적 특성에 기반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약해지고, 가족 가치관 및 세대관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사회보장시스템, 즉 공적 연금제도 및 개호보험제도의 정착으로 노인이 자녀세대로부터 부양을 받을 필요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내부 다양성(예: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부모세대와 성인자녀 세대의 가족 내 교환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과거와 비교할 때 어떤 변화(예: 양계화)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이수, 신경아(2001). 여성과 일: 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동녘.
- 계봉오, 김중백, 김현식, 이민아, 이상림, 조영태(2013). 인구와 보건의 사회학: 건강과 사회를 위하여. 다산출판사.
- 고용노동부(2013). 일·가족양립실태조사. 각 년도.
- 곽현주, 최은영(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88(1), pp.429-256.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0).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2012). 가족 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pp.279-300.
- 김경애(1999).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지지망에 관한 연구. 동덕여성연구, 4, pp.7-32.
-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 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pp.55-89.
- 김명희(2016). 한국의 국민 형성과 '가족주의'의 정치적 재생산 한국전쟁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생애체험 및 정치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1, pp.246-285.
- 김미영, 이성우(2009). 노부모-자녀 동거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차이, 1985-2005. 농촌계획, 15(4), pp.89-107.
- 김미령(2012). 노인의 스트레스와 성인자녀의 지지가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pp.1-27.
- 김석호, 한수진(2015).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른 이유로 투표하는가? 동원과 시민성의 선거 간 차별적 효과에 대한 연구. 조사연구, 16(3), pp.105-139.
- 김수정, 조효진(2016). 미취학 자녀를 둔 X세대 남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40(1), pp.185-213.
- 김수정, 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pp.147-174.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김연우, 이가은, 윤아름(2012).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렬(201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미(2012). 동아시아 가구고용형태의 다양성: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여성학논집, 29(2), pp.107-137.

-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pp.155-168.
- 김진영(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한국사회학, 41(3), pp.127-153.
- 김혜영(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5(2), pp.255-292.
- 김혜영, 김상돈, 박선애(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은영, 서영주(2011). 서울시 30, 40대 자녀양육 남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 민경희(200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성역할과 이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2), pp.97-143.
- 박경숙(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 pp.61-94.
- 박원호, 송정민(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1), pp.115-143.
- 박종서(2013). 가족의 역할 및 관계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용석, 최호진, 정다혜(201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수진(1999).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 -근본사상과 정착과정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가족관계학, 3(3), pp.127-152.
- 안경숙(2005). 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pp.1-19.
- 양소남, 신창식(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pp.70-103.
- 염동훈, 김혜영, 안치민(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른 분석. 한국노년학, 17(2), pp.37-50.
- 윤소영(2009).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가정관리학, 27(4) pp.189-201.
-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pp.241-258.
- 은기수(2009). 아시아적 가족가치의 동아시아 사회비교연구. 2009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은기수, 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pp.107-132.
- 이내영, 서현진(201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명진, 최슬기, 안소영, 박기태(20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2002). 젊은 세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한국인구학, 25(2), pp.139-162.
- 이민아(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할. 한국 사회학, 47(2), pp.143-176.
- 이민아, 김지범, 강정환(2011). 동거형태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갖는 매개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29, pp.41-67.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pp.95-140.
- 이삼식, 이지혜(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립, 김두섭(2002). 세대간 교환관계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5(1), pp.83-111.
- 이윤석, 김필숙, 심규선(2016).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미사거시적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간예정).
- 이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pp.99-119.
- 이재경, 나성은, 조인경(2012). 동아시아 기혼여성의 성별분업에 관한 태도와 실천: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여성학논집, 29(2), pp.139-173.
- 이정은,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 임상, 19(3), pp.531-548.
- 이택휘(1980). 정치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도덕성의 발달과의 관련에서. 한국정치학, 4.
- 장명숙, 박경숙(201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 32(2), pp.232-266.
- 장미나, 한경혜(2015). 일·가족·여가활동 시간비율로 살펴본 맞벌이부부의 역할분배유형과 유형별 일상정서경험. 가족과 문화, 27(2), pp.98-129.
-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영란, 주재선, 김소영, 오현경, 김수지(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전혜진(2016). 경력단절의 미시적 요인 분석: 여성의 사직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복지 및 배우자 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39(3), pp.107-137.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지현, 권중돈, 김수봉, 이소정, 이용식, 이윤환, 최성재, 김소영(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은(2007).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7(2), pp.503-518.
- 정성호(2015).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인구학, 38(2), pp.113-134.
- 정이환, 김영미, 권현지(2012).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의 여성고용: 한국과 대만비교. 한국여성학, 28(1), pp.147-181.
- 정재기(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 국제간 비교의 맥락에서. 한국인구학, 30(3), pp.157-178.
- 정현숙(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연구, 대한가정학, 39(12), pp.205-224.
- 정혜정, 이동숙(2000). 부부단독가구 노인과 자녀동거 가구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5(2), pp.67-91.
- 조순경(1998). 경제 위기와 여성 고용 정치. 한국여성학, 14(2), pp.5-33.
- 조주은(2007). 신자유주의의 시간압박 문화와 기혼여성노동자. 문화과학, 49, pp.66-77.
- 조지현, 오세근, 양철호(2011). 동아시아 4개국의 노인부양의식 및 노인부양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일본·중국·대만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22, pp.7-42.
-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pp.91-115.
- 지영숙, 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 유형. 한국가정관리학, 19(2), pp.153-165.
- 진미정(2012). OECD Family Database 지표를 통해 본 가족정책의 범위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명민(2010). 결혼행복감의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9: 85-113
- 최슬기, 최새은(2012). 세대간 애정적 결속에 있어서 부계와 모계의 비교 연구. 조사연구, 13(1), pp.89-112.
- 최연실(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 32(4), pp.75-89.
- 최필선, 민인식(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pp.57-83.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1.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보도자료. 2012.4.26.
- 통계청(201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2012. 12.11.
-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5. 6. 29.
- 통계청(2015). 인구동향조사 2015. 통계설명자료. 2015.12.
- 통계청(2015). 2014년 출생 통계(확정). 보도자료. 2015.8.25.
- 통계청(2016). 2015년 출생 통계(확정). 보도자료. 2016.8.24.
-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보도자료. 2016.11.1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한경혜, 김상욱(2010). 세대 간 지원교환 설명요인에 있어서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사회학*, 44(4), pp.1-31.
- 한경혜, 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pp.177-203.
- 한국일보 (2015.05.13.) “4월 청년 실업률 10.2% 역대 최고… 날씨 맞하는 정부”
- 한은주, 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pp.95-116.
- 홍승아, 최인희, 최진희, 유은경(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 최진희, 진민정, 김수진(2015).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ecker, Mary. (1999). Patriarchy and Inequality: Towards Substantive Feminism. *Universty if chicago Legal Forum*, 1999(1), pp.21-88.
- Bengtson, V. L., & Roberts, R. E.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856-870.
- Bengts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pp.1-16.
- Berelson, Lazarsfeld,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u, Peter M. ([1964] 1986.)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Brunswick: Transaction.
- Brinton, M. C., Lee, Y. J., Parish, W. L. (1995). Married women's employment in rapidly industrializing societies: Examples from 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5).
- Brinton, Mary (2001). *Married women's labor in east asian economics*. in Mary Brinton(ed).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Stanford Univ. Press.
- Burden, Barry C. (2000). Voter Turnout and the National Election Studies. *Political Analysis*, 8(4), pp.389-398.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80).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bell, Converse, Miller,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Chang, W., Kim, R. (2015). Are married men healthier than single women? A gender comparison of the health effects of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East Asia. *PLoS ONE*, 10(7), pp.1-16.
- Chen, X., Silverstein, M. (2000).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in China. *Research on aging*, 22(1), pp.43-65.
- Choe M., Westley, S. B., Retherford, R. D. (2002). *Tradition and change in marriage and family life*. In: *East-West Center*. The Future of Population in Asia. Honolulu, HI: East-West Center.
- Choi, J. S. (1970). Comparative study on the traditional families in Korea, Japan and China. *Families in East and West*, pp.202-210.
- Choi, S. H. J., & Nieminen, T. A. (2013). Factors influencing the higher educ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onfucian East Asia.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32(2), pp.161-173.
- Choi, Seulki., Saeun Choi. (2015). *Geographical proximity with elderly parents of Korean married women in 30-40s*. KDI School Working Paper Series.
- Cochran, W. G. (1977). *Sampling Techniques (3rd ed.)*. New York: Wiley.
- Cox, K. R. (1969). The Voting Decision in a Spatial Context. *Progress in Geography*, 1, pp.81-117.

- Curtice, J. (1995). Is talking across the garden fence of political import? In spatial and contextual models in political research. *London: Taylor and Francis*, pp.195-211.
- Daub, Adrian., Michael Thomas Taylor. (2013). Introduction: Family Politics. *Republics of Letters: A Journal for the Study of Knowledge, Politics and the Arts*, 3(2), pp.1-7.
- Dean, A., Kolody, B., Wood, P., Matt, G. E. (1992). The influence of living alone on depression in elderly person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4(1), pp.3-18.
- Deniz Kandiyoti. (1988). Bargaining with patriarchy. *Gender and Society. Special Issue to Honor Jessie Bernard*, 2(3), pp. 274-290.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Brothers.
- Eagles, M., ed. (1995a). Spatial and Contextual Models of Political Behaviour. *Special issue of Political Geography*, 14 (6/7).
- Eagles, M., ed. (1995b). *Spatial and Contextual Models in Political Research*. London: Taylor and Francis.
- Everard, K. M., Lach, H. W., Fisher, E. B., & Baum, M. C. (2000). Relationship of activity and social support to the functional health of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4), pp.S208-S212.
- Farre, L. and Vella, F. (201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its implications for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Economica*, 80(318), pp.219-247.
- Fiske, S. T., and S. E. Taylor.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 Hill.
- Fortin, M., Nicole. (2005).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labour-market outcomes of women across OECD countr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1(3), pp.416-438.
- Foucault M. (1976). *The history of sexuality. Pantheon books*, new york.
- Fuwa Makiko. (2007).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pp.751-767.
- Garza, Raymond T. and Placida I, Gallegos. (1985).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 personal choice: a humanistic perspective in acculturation.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7(4), pp.365-379.
- Gerber, A. S., Huber, G. A., Doherty D., Dowling C. M., Hill S. J. (2013). Who wants to discuss vote choice with others? polarization in preferences for deliberation. *Public Opinion*, 77(2), pp.474-496.
- Glaser, William A. (1959). The Family and Voting Turnout. *Public Opinion Quarterly*, 23(4), pp.563-570.
- Goldin, C., (1990). *Understanding the Gender Gap: An economic history of american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rnick, J. C. and M. K. Meyers.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Hanmer, Michael J. Won-Ho Park., Michael W. Traugott, Richard G. Niemi., Paul S. Herrnson., Benjamin B. Bederson., Frederick C. Conrad. (2010). Losing Fewer Votes The Impact of Changing Voting Systems on Residual Vot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3(1), pp.129-42.
- Huckfeldt, Robert and John Sprague. (1991) Discussant effects on vote choice: Intimacy, structure, and interdependence. *The Journal of Politics*, 53(1), pp.122-158.
- Jennings, M. Kent, and Gregory B. Markus. (1984) Partisan Orientations over the Long Haul: Results from the Three-Wave Political Socialization Panel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4), pp.1000-1018.
- Jennings, M. Kent, and Richard G Niemi. (1981). *Generations and Politics : A Panel Study of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nnings, M. Kent. (2007). *Political Socialization*. in Dalton, Russell J., and Hans-Dieter Klingemann, eds. (2009).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1 editi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Gavin W., and Wei-Jun Jean Yeung. (2014). Marriage in Asia. *Journal of Family Issues*, 35(12), pp.1567-1583.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s society*, pp.263-291.

-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pp.1-22.
- Karp, Jeffrey A., and David Brockington. (2005). Social Desirability and Response Valid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Overdecorating Voter Turnout in Five Countries. *Journal of Politics*, 67(3), pp.825-840.
- Keefe, S. E. (1984). Real and ideal extend familism among Mexican Americans and Anglo Amerocans: On the meaning of "close" family ties. *Human Organization*, 43(1), pp.65-70.
- Kim, I. K., & Maeda, D. (2001). A comparative study on sociodemographic changes and long-term health care needs of the elderly in Jap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3), pp.237-255.
- Kish, L. (1965). *Survey Sampling*. New York: Wiley.
- Kruger, D. J. (2014). Patriarchy, Male Competition, and Excess Male Mortality. *Evolutionary behavioral Sciences*, 8(1), pp.3-11.
-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6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columbia Univ. Press.
- Lee, B. J. (2007). Adoption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6(1), pp.75-83.
- Leibowitz, Arleen and Jacob. Alex Klerman. (1995). Explaining Changes in Married Mothers' Employment over Time. *Demography*, 32, pp.365-78.
- Lewis, J., T. Knijn, C. Martin & I. Ostner. (2008). Patterns of development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or parents in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K in 2000s, *Social Politics*, 15(3), pp.261-286.
- Lin, J. P., & Yi, C. C.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ternational Sociology*, 28(3), pp.297-315.
- Lüscher, K., & Pillemer, K. (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3-425.
- Maki Takeuchi., Junya Tsutsui. (2015). Combining Egalitarian Working Lives with Traditional Attitudes: Gender role attitudes in Taiwan,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25. pp.100-116.

- Mammen Kristin, Christina Paxson (2000), Women's 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4), pp.141-164.
- Masako Ishii-Kuntz. (2013). Work environment and Japanes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Family Issues*, 34(2), pp.252-271.
- McClurg, S. D., Wade, M. L., Write-Philips, M. V. (2013). He said, She said: sex, social network, and voting behavior. *American Politics Research*, 41(6), pp.1102-1123.
- McClurg, Scott D. (2003).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ole of Social Interaction in Explaining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4), pp.448-464.
- McDonough P., Shin ., D. C., Moisses J., A. (1998). Democratization and participation: comparing Spain, Brazil, and Korea. *The journal of Politics*, 60(4), pp.919-953.
- Mendez-Luck, C., Applewhite, S. R., Lala, V. E., and Toyokawa. N. (2016). The concept of familism in the lived experiences of Mexican-origin caregiv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 pp.813-829.
- Merton, R. K. (1964). Anomie, anomia, and social interaction: Contexts of deviant behavior. *Anomie and deviant behavior*, pp.213-242.
- Miller, W. L. (1977). *Electoral Dynamics in Britain since 1918*. London: Macmillan.
- Moghadam, Valentine M. (2002). Patriarchy, the Taleban, and politics of public space in Afghanista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5(1), pp.19-31.
- Nemoto, Kumiko. (2012). Long working hours and the corporate gender divide in Japa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20(5), pp.512-527.
- OECD(2014). *OECD Family database*.
- Ogburn, W. F. (1950). Social evolution reconsidered. *Social Change*, pp.369-93.
- Park, K. S., Phua, V., McNally, J., & Sun, R. (2005). Diversity and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Elderly parent-adult child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005(20), pp.285-305.
- Pimental, Ellen Efron. (2000). Just How Do I Love Thee?: Marital Relations in Urban Chin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pp.32-47.
- Pimentel, E.E. & Liu, J. (2004). Exploring nonnormative coresidence in urban China: Living with wives'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 pp.821-836.
- Redlawsk., David. Lau, Richard (1997). Voting Correctl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3), pp.585-598.
- Rolfe, Meredith. (2012). *Voter Turnout: A Social Theory of Politic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stone, S.J., Hansen, J.M.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Longman, New York.
- Sabogal F, Marin G, Otero-Sabogal R, VanOss Marin B, Perez-Stable EJ. (1987). Hispanic familism and acculturation: What changes and what doesn'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9, pp.397-412.
- Sarndal, C.-E., Swensson, B., Wretman, J. (1992). *Model Assisted Survey Sampling*. New York: Springer.
- Sayer, Liana. (2010). *Trends in Housework*. in *Judith Treas and Sonja Drobnič(eds). Dividing the domestic: Men, women and household work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tanford Univ. Press.
- Schmitt-Beck, Rüdiger and Julia Partheymüller. (2016). A Two Stage Theory of Discussant influence on Vote Choice in Multiparty System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pp.321-348.
- Schwab, Klaus. (2016.01.14.)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Sears, David O., and Carolyn L. Funk. (1999). Evidence of the Long-Term Persistence of Adults' Political Predispositions. *Journal of Politics*, 61(1), pp.1-28.
- Shankar, Irene, and Herbert Northcott. (2009). Through my son: Immigrant women bargain with patriarchy.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pp.424-434.
- Silverstein, Merrill and Vern L. Bengtson.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pp.429-460.
- Silver, Brian D., Barbara A. Anderson, and Paul R. Abramson. (1986). Who Overreports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pp.613-624.

- Smith, A. E. (2016). *When political talk is pillow talk: how gender empowerment affects gaps in perceived political knowledge and vote choice between husbands and wives around the world*. Political networks workshops & conference 2015.
- Smuts, Barbara. (1994). *The Evolutionary Origins of Patriarchy*. Walter de Gruyter, Inc. Newyork: USA.
- Sokhey, Anand Edward., Scott D. McClurg. (2012). Social Networks and Correct Voting. *The Journal of Politics*, 74(3), pp.751-764.
- Steven Stack., J. Ross Eshleman. (1998). Marital Status and Happiness: A 17-N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2), pp.527-536.
- Story, T. N., Berg, C. A., Smith, T. W., Beveridge, R., Henry, N. J. M., Pearce, G. (2007). Age, marital satisfaction, and optimism as predictors of positive sentiment override in middle-aged and older married couples, *Psychology and Aging*, 22(40), pp.719-727.
- Tang, Wen-hui Anna, and Hong-zen, Wang. (2011). From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determined independent women: How Vietnamese immigrants spouses negotiate Taiwan's patriarchy family system.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4, pp.424-434.
- Treas, J and S. Drobnič(eds). *Dividing the domestic: Men, women and household work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Stanford Univ. Press.
- Yamamura and Andres. (2015). Influence of age of child on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of males and females: a comparative study among East Asian countries. *Economics and Econometrics Research Institute*, 2, pp.1-37.
- Yang WS, Yen PC. (2011). A comparative study of marital dissolution in East Asian societies: gender attitudes and social expectations towards marriage in Taiwan, Korea and Japan. *Asian Journal of Society & Science*, 39, pp.751-775.
- Yasuda, T., Iwai, N., Yi, C. C., & Xie, G. (2011).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in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the East Asian social survey 2006.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pp. 703-722.
- Yi, Chin-Chun. (2013). Changing East Asian Families: Values and Behaviors. *International Sociology*, 28(3), pp.253-256.

- Yu, Wei-shin(2009). *Gendered Trajectories: Women, work and social Change in Japan and Taiwan*. Stanford Univ. Press.
- Zuckerman, Alan S., Josip Dasovic and Jennifer Fitzgerald. (2007). *Partisan Families. The Social logic of bounded partisanship in Germany and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성역할 인식변화

<부표 1-1> 집안일의 빈도-저녁 식사 준비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11.8  | 20.9    | 13.1    | 12.4     | 13.1     | 5.1      | 23.7        | 711   |
| 여성        | 69.6  | 14.0    | 7.8     | 3.7      | 1.9      | 0.8      | 2.3         | 888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9.4  | 26.8    | 18.8    | 11.7     | 8.0      | 3.1      | 12.3        | 325   |
| 30-39세    | 49.6  | 16.2    | 12.1    | 7.5      | 7.7      | 2.1      | 4.9         | 389   |
| 40-49세    | 48.6  | 14.4    | 7.7     | 7.9      | 6.2      | 4.6      | 10.8        | 418   |
| 50-59세    | 50.0  | 13.8    | 5.6     | 6.6      | 9.2      | 1.0      | 13.8        | 196   |
| 60세 이상    | 53.7  | 13.0    | 4.1     | 3.0      | 3.7      | 1.5      | 21.1        | 270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6.5  | 25.3    | 17.3    | 10.8     | 7.8      | 2.8      | 9.4         | 498   |
| 35-49세    | 51.6  | 13.3    | 8.5     | 7.3      | 6.8      | 3.6      | 9.0         | 634   |
| 50-64세    | 50.9  | 13.5    | 6.0     | 6.7      | 8.2      | 0.8      | 13.9        | 267   |
| 65세 이상    | 53.8  | 13.1    | 3.0     | 1.5      | 3.0      | 2.0      | 23.6        | 19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57.0  | 14.0    | 6.0     | 3.1      | 3.1      | 2.0      | 14.8        | 351   |
| 고졸        | 55.8  | 14.4    | 5.7     | 5.2      | 5.0      | 3.3      | 10.7        | 459   |
| 대재        | 26.7  | 22.3    | 15.6    | 11.7     | 8.4      | 2.2      | 13.1        | 359   |
| 대학졸업 이상   | 34.7  | 17.9    | 13.9    | 10.4     | 10.9     | 3.1      | 9.2         | 424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0.8  | 16.0    | 7.2     | 2.6      | 3.1      | 0.0      | 10.3        | 194   |
| 100-199만원 | 43.7  | 17.2    | 8.2     | 7.5      | 6.7      | 4.9      | 11.9        | 268   |
| 200-299만원 | 45.7  | 16.8    | 8.8     | 6.7      | 7.3      | 2.4      | 12.2        | 328   |
| 300-399만원 | 46.5  | 15.9    | 10.7    | 9.2      | 4.1      | 1.9      | 11.8        | 271   |
| 400-499만원 | 37.9  | 17.6    | 15.4    | 7.1      | 11.0     | 1.1      | 9.9         | 182   |
| 500만원 이상  | 33.8  | 18.7    | 10.2    | 11.2     | 9.2      | 4.3      | 12.8        | 305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6.8  | 19.3    | 10.7    | 8.2      | 9.4      | 3.5      | 12.1        | 513   |
| 중소도시      | 46.9  | 16.1    | 10.1    | 7.9      | 6.1      | 2.3      | 10.6        | 900   |
| 농어촌       | 49.5  | 15.2    | 8.7     | 4.4      | 3.8      | 2.2      | 16.3        | 184   |

<부표 1-2> 집안일의 빈도-저녁 식사 준비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19.8  | 20.6    | 17.7    | 11.1     | 11.1     | 3.6      | 16.2        | 476   |
| 여성        | 65.6  | 18.2    | 6.9     | 3.7      | 2.1      | 1.0      | 2.4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6.0  | 28.9    | 22.2    | 13.4     | 8.8      | 2.6      | 8.3         | 194   |
| 30-39세    | 37.4  | 27.0    | 16.7    | 7.5      | 5.8      | 2.3      | 3.5         | 174   |
| 40-49세    | 47.7  | 19.4    | 12.9    | 5.3      | 6.5      | 1.8      | 6.5         | 170   |
| 50-59세    | 42.9  | 21.5    | 9.0     | 7.9      | 9.6      | 2.3      | 6.8         | 177   |
| 60세 이상    | 65.0  | 8.6     | 4.2     | 3.6      | 3.0      | 2.1      | 13.7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1.5  | 28.0    | 21.1    | 12.7     | 7.6      | 1.8      | 7.3         | 275   |
| 35-49세    | 44.9  | 22.4    | 13.7    | 4.9      | 6.5      | 2.7      | 4.9         | 263   |
| 50-64세    | 49.8  | 16.9    | 7.5     | 7.5      | 7.1      | 2.8      | 8.6         | 255   |
| 65세 이상    | 64.9  | 9.3     | 4.3     | 2.7      | 3.5      | 1.5      | 13.9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67.3  | 8.7     | 3.8     | 3.8      | 3.4      | 2.6      | 10.5        | 266   |
| 고졸        | 50.8  | 18.6    | 11.7    | 4.8      | 5.2      | 0.8      | 8.1         | 248   |
| 대재        | 33.0  | 25.2    | 15.6    | 8.7      | 7.3      | 1.8      | 8.3         | 218   |
| 대학졸업 이상   | 29.7  | 24.7    | 15.9    | 10.3     | 8.4      | 3.1      | 7.8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7.1  | 13.8    | 5.3     | 3.3      | 1.3      | 0.7      | 8.6         | 152   |
| 100-199만원 | 51.4  | 13.3    | 12.4    | 1.9      | 6.7      | 1.9      | 12.4        | 105   |
| 200-299만원 | 41.7  | 24.4    | 13.4    | 8.7      | 3.9      | 1.6      | 6.3         | 127   |
| 300-399만원 | 42.2  | 16.3    | 14.8    | 11.9     | 5.2      | 2.2      | 7.4         | 135   |
| 400-499만원 | 41.1  | 18.8    | 11.6    | 3.6      | 14.3     | 0.9      | 9.8         | 112   |
| 500만원 이상  | 37.1  | 22.9    | 13.0    | 8.7      | 7.2      | 2.7      | 8.4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6.2  | 24.1    | 14.9    | 6.0      | 8.9      | 1.4      | 8.5         | 282   |
| 중소도시      | 45.3  | 19.0    | 11.9    | 8.5      | 5.9      | 2.4      | 7.1         | 579   |
| 농어촌       | 56.4  | 13.3    | 6.9     | 4.3      | 3.2      | 2.7      | 13.3        | 188   |

〈부표 1-3〉 집안일의 빈도-세탁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계<br>(N) |
|-----------|----------|------------|------------|-------------|-------------|-------------|-------------------|----------|
|           | 거의<br>매일 | 일주에<br>몇 번 | 일주에<br>한 번 | 한 달에<br>한 번 | 일 년에<br>몇 번 | 일 년에<br>한 번 | 일 년에<br>한 번<br>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7.9      | 20.0       | 14.4       | 12.4        | 9.0         | 6.1         | 30.3              | 710      |
| 여성        | 53.0     | 28.7       | 10.7       | 3.2         | 1.9         | 0.6         | 1.9               | 888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2.3     | 28.9       | 20.6       | 13.2        | 7.1         | 4.6         | 13.2              | 325      |
| 30-39세    | 35.5     | 29.6       | 13.4       | 6.2         | 4.9         | 2.1         | 8.5               | 389      |
| 40-49세    | 37.1     | 23.9       | 8.9        | 6.9         | 4.8         | 3.8         | 14.6              | 418      |
| 50-59세    | 40.3     | 20.9       | 8.7        | 8.2         | 3.6         | 2.6         | 15.8              | 196      |
| 60세 이상    | 42.6     | 17.4       | 8.9        | 1.5         | 4.4         | 1.5         | 23.7              | 270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7.3     | 31.3       | 19.1       | 11.0        | 6.4         | 3.8         | 11.0              | 498      |
| 35-49세    | 39.0     | 24.1       | 9.6        | 6.5         | 4.7         | 3.2         | 12.9              | 634      |
| 50-64세    | 42.0     | 19.1       | 8.2        | 7.1         | 4.1         | 2.3         | 17.2              | 267      |
| 65세 이상    | 41.2     | 18.6       | 9.6        | 0.5         | 4.0         | 1.5         | 24.6              | 19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47.9     | 18.8       | 10.0       | 2.6         | 3.4         | 1.1         | 16.2              | 351      |
| 고졸        | 41.8     | 25.9       | 9.8        | 4.6         | 3.3         | 2.6         | 12.0              | 459      |
| 대재        | 19.5     | 25.9       | 14.2       | 13.1        | 6.4         | 3.9         | 17.0              | 359      |
| 대학졸업 이상   | 22.4     | 27.8       | 15.3       | 9.2         | 7.3         | 4.3         | 13.7              | 424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46.9     | 22.2       | 17.0       | 1.0         | 2.6         | 0.5         | 9.8               | 194      |
| 100-199만원 | 33.6     | 24.3       | 12.3       | 8.2         | 3.7         | 1.5         | 16.4              | 268      |
| 200-299만원 | 32.9     | 28.1       | 9.8        | 5.2         | 5.8         | 3.1         | 15.2              | 328      |
| 300-399만원 | 33.6     | 23.6       | 13.7       | 7.0         | 4.8         | 3.0         | 14.4              | 271      |
| 400-499만원 | 28.0     | 28.0       | 13.2       | 9.3         | 6.0         | 5.0         | 10.4              | 182      |
| 500만원 이상  | 25.9     | 22.3       | 11.2       | 11.8        | 6.9         | 4.6         | 17.4              | 305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6.1     | 24.0       | 14.4       | 8.6         | 6.8         | 4.5         | 15.6              | 513      |
| 중소도시      | 36.1     | 25.7       | 11.6       | 6.9         | 4.4         | 2.6         | 12.8              | 900      |
| 농어촌       | 37.0     | 23.4       | 10.3       | 5.4         | 3.3         | 1.1         | 19.6              | 184      |

<부표 1-4> 집안일의 빈도-세탁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12.8  | 25.0    | 22.1    | 10.3     | 9.9      | 2.9      | 17.0        | 476   |
| 여성        | 43.4  | 37.9    | 11.6    | 2.1      | 1.2      | 0.7      | 3.1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1.9  | 37.6    | 20.6    | 9.3      | 7.7      | 4.1      | 8.8         | 194   |
| 30-39세    | 28.7  | 39.1    | 19.0    | 4.6      | 6.9      | 0.0      | 1.7         | 174   |
| 40-49세    | 34.7  | 30.0    | 15.9    | 4.1      | 4.7      | 0.6      | 10.0        | 170   |
| 50-59세    | 29.9  | 29.4    | 17.0    | 9.0      | 4.0      | 2.3      | 8.5         | 177   |
| 60세 이상    | 37.4  | 27.6    | 12.5    | 3.6      | 3.6      | 1.5      | 14.0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6.4  | 39.3    | 20.4    | 8.0      | 6.2      | 2.9      | 6.9         | 275   |
| 35-49세    | 33.1  | 31.9    | 16.7    | 4.2      | 6.8      | 0.4      | 6.8         | 263   |
| 50-64세    | 33.7  | 28.6    | 14.5    | 7.8      | 3.1      | 2.4      | 9.8         | 255   |
| 65세 이상    | 35.9  | 27.8    | 13.5    | 3.1      | 4.3      | 1.2      | 14.3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9.5  | 27.8    | 11.7    | 3.4      | 4.5      | 1.5      | 11.7        | 266   |
| 고졸        | 33.9  | 30.2    | 14.5    | 3.6      | 6.9      | 1.6      | 9.3         | 248   |
| 대재        | 22.0  | 38.5    | 18.4    | 6.4      | 4.6      | 2.8      | 7.3         | 218   |
| 대학졸업 이상   | 23.1  | 32.5    | 20.3    | 9.1      | 4.7      | 1.3      | 9.1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7.5  | 34.2    | 14.5    | 2.0      | 1.3      | 0.7      | 9.9         | 152   |
| 100-199만원 | 26.7  | 37.1    | 13.3    | 2.9      | 7.6      | 1.0      | 11.4        | 105   |
| 200-299만원 | 26.0  | 38.6    | 15.8    | 6.3      | 1.6      | 3.9      | 7.9         | 127   |
| 300-399만원 | 35.6  | 24.4    | 14.8    | 11.9     | 6.7      | 2.2      | 4.4         | 135   |
| 400-499만원 | 30.4  | 28.6    | 17.0    | 4.5      | 9.8      | 0.9      | 8.9         | 112   |
| 500만원 이상  | 26.2  | 31.3    | 18.7    | 6.0      | 4.8      | 1.5      | 11.5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2.3  | 39.0    | 14.2    | 6.4      | 6.7      | 1.8      | 9.6         | 282   |
| 중소도시      | 30.7  | 29.9    | 19.2    | 5.9      | 4.8      | 1.6      | 7.9         | 579   |
| 농어촌       | 36.2  | 28.2    | 11.2    | 4.8      | 3.7      | 2.1      | 13.8        | 188   |

〈부표 1-5〉 집안일의 빈도-집안 청소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계<br>(N) |
|-----------|----------|------------|------------|-------------|-------------|-------------|-------------------|----------|
|           | 거의<br>매일 | 일주에<br>몇 번 | 일주에<br>한 번 | 한 달에<br>한 번 | 일 년에<br>몇 번 | 일 년에<br>한 번 | 일 년에<br>한 번<br>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11.4     | 23.1       | 25.4       | 15.1        | 8.3         | 3.8         | 13.0              | 710      |
| 여성        | 60.4     | 22.2       | 10.5       | 3.8         | 1.7         | 0.1         | 1.4               | 888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8.8     | 28.9       | 23.7       | 16.9        | 5.5         | 3.1         | 3.1               | 325      |
| 30-39세    | 46.5     | 19.8       | 18.5       | 6.9         | 4.4         | 0.8         | 3.1               | 389      |
| 40-49세    | 39.7     | 24.6       | 16.0       | 7.9         | 3.6         | 2.6         | 5.5               | 418      |
| 50-59세    | 40.8     | 21.4       | 16.3       | 5.6         | 7.1         | 1.0         | 7.7               | 196      |
| 60세 이상    | 47.8     | 16.7       | 9.3        | 5.6         | 3.7         | 0.7         | 16.3              | 270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4.9     | 27.9       | 23.5       | 13.5        | 5.2         | 2.4         | 2.6               | 498      |
| 35-49세    | 44.8     | 21.3       | 15.6       | 7.6         | 3.8         | 1.9         | 5.1               | 634      |
| 50-64세    | 43.8     | 18.4       | 15.0       | 7.1         | 6.0         | 0.8         | 9.0               | 267      |
| 65세 이상    | 46.2     | 19.1       | 8.5        | 3.5         | 4.0         | 1.0         | 17.6              | 19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51.3     | 17.4       | 10.0       | 5.1         | 4.0         | 0.6         | 11.7              | 351      |
| 고졸        | 47.7     | 20.3       | 14.8       | 5.5         | 3.5         | 2.2         | 6.1               | 459      |
| 대재        | 25.9     | 25.9       | 19.2       | 16.7        | 5.0         | 3.3         | 3.9               | 359      |
| 대학졸업 이상   | 29.0     | 26.7       | 23.6       | 9.0         | 6.1         | 0.9         | 4.7               | 424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50.5     | 21.7       | 15.0       | 3.1         | 1.0         | 0.0         | 8.8               | 194      |
| 100-199만원 | 42.5     | 20.2       | 11.9       | 9.7         | 4.9         | 1.5         | 9.3               | 268      |
| 200-299만원 | 41.2     | 20.4       | 18.0       | 7.6         | 5.5         | 1.8         | 5.5               | 328      |
| 300-399만원 | 41.3     | 22.1       | 18.8       | 7.8         | 3.0         | 2.6         | 4.4               | 271      |
| 400-499만원 | 33.0     | 26.9       | 17.6       | 9.3         | 7.1         | 2.2         | 3.9               | 182      |
| 500만원 이상  | 26.2     | 25.6       | 20.7       | 12.8        | 6.6         | 1.6         | 6.6               | 305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0.8     | 25.2       | 19.5       | 9.9         | 5.3         | 2.7         | 6.6               | 513      |
| 중소도시      | 41.7     | 22.0       | 17.1       | 8.4         | 4.7         | 1.3         | 4.8               | 900      |
| 농어촌       | 45.7     | 18.5       | 10.3       | 7.6         | 2.7         | 1.1         | 14.1              | 184      |

<부표 1-6> 집안일의 빈도-집안 청소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17.4  | 25.6    | 26.9    | 12.0     | 7.6      | 1.9      | 8.6         | 476   |
| 여성        | 47.1  | 31.8    | 13.4    | 3.5      | 1.6      | 0.5      | 2.3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4.4  | 40.2    | 22.7    | 13.4     | 6.2      | 1.0      | 2.1         | 194   |
| 30-39세    | 31.0  | 32.8    | 23.6    | 5.2      | 5.8      | 0.0      | 1.7         | 174   |
| 40-49세    | 37.7  | 24.7    | 21.8    | 5.3      | 5.9      | 0.0      | 4.7         | 170   |
| 50-59세    | 31.6  | 28.8    | 19.2    | 11.9     | 2.3      | 1.7      | 4.5         | 177   |
| 60세 이상    | 45.1  | 22.9    | 14.5    | 3.6      | 2.7      | 2.1      | 9.2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8.6  | 38.9    | 23.6    | 10.6     | 5.5      | 0.7      | 2.2         | 275   |
| 35-49세    | 36.1  | 26.6    | 21.7    | 5.7      | 6.5      | 0.0      | 3.4         | 263   |
| 50-64세    | 35.7  | 27.5    | 18.0    | 8.6      | 2.8      | 2.0      | 5.5         | 255   |
| 65세 이상    | 45.2  | 22.4    | 14.3    | 4.3      | 2.3      | 1.9      | 9.7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47.4  | 20.7    | 13.9    | 4.9      | 3.8      | 2.3      | 7.1         | 266   |
| 고졸        | 35.1  | 29.4    | 18.2    | 4.0      | 6.9      | 0.8      | 5.7         | 248   |
| 대재        | 28.4  | 31.7    | 22.5    | 11.5     | 3.7      | 0.5      | 1.8         | 218   |
| 대학졸업 이상   | 24.7  | 33.8    | 23.1    | 9.1      | 3.1      | 0.9      | 5.3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50.0  | 23.0    | 14.5    | 4.0      | 2.0      | 1.3      | 5.3         | 152   |
| 100-199만원 | 36.2  | 21.0    | 21.9    | 7.6      | 4.8      | 1.0      | 7.6         | 105   |
| 200-299만원 | 30.7  | 35.4    | 21.3    | 5.5      | 0.8      | 2.4      | 3.9         | 127   |
| 300-399만원 | 31.1  | 28.9    | 20.7    | 8.9      | 5.2      | 0.7      | 4.4         | 135   |
| 400-499만원 | 29.5  | 32.1    | 19.6    | 6.3      | 7.1      | 0.9      | 4.5         | 112   |
| 500만원 이상  | 29.5  | 30.4    | 20.8    | 8.4      | 4.8      | 0.6      | 5.4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9.4  | 34.0    | 19.2    | 6.0      | 6.0      | 1.1      | 4.3         | 282   |
| 중소도시      | 34.2  | 28.0    | 21.1    | 7.8      | 3.5      | 1.0      | 4.5         | 579   |
| 농어촌       | 37.8  | 25.0    | 15.4    | 8.0      | 4.3      | 1.6      | 8.0         | 188   |

〈부표 1-7〉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50.3 | 16.0 | 33.7 | 712   | 35.7 | 20.0 | 44.3 | 476   |
| 여성        | 51.6 | 12.2 | 36.2 | 887   | 39.0 | 17.2 | 43.8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22.3 | 21.7 | 56.1 | 328   | 12.9 | 15.0 | 72.2 | 194   |
| 30-39세    | 44.7 | 14.1 | 41.1 | 389   | 22.4 | 18.4 | 59.2 | 174   |
| 40-49세    | 56.2 | 11.7 | 32.1 | 418   | 28.8 | 24.1 | 47.1 | 170   |
| 50-59세    | 64.8 | 8.7  | 26.5 | 196   | 40.1 | 22.6 | 37.3 | 177   |
| 60세 이상    | 77.2 | 11.2 | 11.6 | 268   | 62.5 | 15.5 | 22.0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8.7 | 18.6 | 52.7 | 501   | 14.9 | 15.6 | 69.5 | 275   |
| 35-49세    | 53.3 | 12.9 | 33.8 | 634   | 27.4 | 22.4 | 50.2 | 263   |
| 50-64세    | 67.5 | 8.6  | 23.9 | 268   | 46.3 | 20.4 | 33.3 | 255   |
| 65세 이상    | 78.1 | 12.2 | 9.7  | 196   | 63.2 | 15.5 | 21.3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6.4 | 9.5  | 14.1 | 347   | 62.6 | 15.9 | 21.5 | 265   |
| 고졸        | 61.0 | 13.0 | 26.0 | 461   | 44.0 | 18.2 | 37.9 | 248   |
| 대재        | 33.7 | 17.6 | 48.8 | 359   | 20.2 | 19.7 | 60.1 | 218   |
| 대학졸업 이상   | 34.4 | 14.8 | 50.8 | 427   | 23.4 | 20.0 | 56.6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8.3 | 14.6 | 17.2 | 192   | 59.2 | 16.5 | 24.3 | 152   |
| 100-199만원 | 60.4 | 9.4  | 30.3 | 267   | 49.5 | 22.9 | 27.6 | 105   |
| 200-299만원 | 56.7 | 13.9 | 29.4 | 330   | 37.0 | 20.5 | 42.5 | 127   |
| 300-399만원 | 46.5 | 14.4 | 39.2 | 271   | 34.8 | 19.3 | 45.9 | 135   |
| 400-499만원 | 43.4 | 17.6 | 39   | 182   | 31.3 | 16.1 | 52.7 | 112   |
| 500만원 이상  | 35.3 | 13.7 | 51   | 306   | 29.2 | 17.2 | 53.6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46.2 | 15.8 | 38.0 | 513   | 27.0 | 17.0 | 56.0 | 282   |
| 중소도시      | 51.2 | 13.0 | 35.8 | 902   | 38.0 | 19.0 | 43.0 | 579   |
| 농어촌       | 63.4 | 13.1 | 23.5 | 183   | 50.8 | 19.3 | 30.0 | 187   |

<부표 1-8>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45.4 | 15.9 | 38.7 | 711   | 33.6 | 19.1 | 47.3 | 476   |
| 여성        | 39.6 | 15.0 | 45.4 | 889   | 33.7 | 15.7 | 50.6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8.0 | 14.9 | 67.1 | 328   | 9.8  | 16.0 | 74.2 | 194   |
| 30-39세    | 31.4 | 20.3 | 48.3 | 389   | 17.8 | 18.4 | 63.8 | 174   |
| 40-49세    | 42.4 | 17.3 | 40.3 | 417   | 24.7 | 22.4 | 52.9 | 170   |
| 50-59세    | 58.2 | 13.3 | 28.6 | 196   | 37.3 | 16.4 | 46.3 | 177   |
| 60세 이상    | 75.2 | 7.4  | 17.4 | 270   | 58.3 | 15.2 | 26.5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1.2 | 17.8 | 61.1 | 501   | 10.2 | 17.1 | 72.7 | 275   |
| 35-49세    | 39.8 | 17.5 | 42.7 | 633   | 24.3 | 20.5 | 55.1 | 263   |
| 50-64세    | 60.8 | 11.6 | 27.6 | 268   | 43.5 | 16.9 | 39.6 | 255   |
| 65세 이상    | 77.8 | 7.6  | 14.7 | 198   | 58.5 | 14.3 | 27.1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2.2 | 8.0  | 19.8 | 349   | 59.3 | 15.5 | 25.3 | 265   |
| 고졸        | 43.9 | 18.0 | 38.0 | 460   | 36.7 | 16.9 | 46.4 | 248   |
| 대재        | 27.3 | 17.6 | 55.2 | 359   | 18.4 | 21.1 | 60.6 | 218   |
| 대학졸업 이상   | 28.6 | 16.4 | 55.0 | 427   | 20.6 | 16.3 | 63.1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7.3 | 10.4 | 22.3 | 193   | 57.9 | 19.7 | 22.4 | 152   |
| 100-199만원 | 51.9 | 11.9 | 36.2 | 268   | 42.9 | 15.2 | 41.9 | 105   |
| 200-299만원 | 39.8 | 20.7 | 39.6 | 329   | 32.3 | 15.8 | 52.0 | 127   |
| 300-399만원 | 35.7 | 15.1 | 49.1 | 271   | 28.9 | 20.0 | 51.1 | 135   |
| 400-499만원 | 34.1 | 22   | 44   | 182   | 29.5 | 20.5 | 50.0 | 112   |
| 500만원 이상  | 31.7 | 12.1 | 56.2 | 306   | 23.2 | 16.0 | 60.8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9.1 | 15.6 | 45.3 | 512   | 25.5 | 15.3 | 59.2 | 282   |
| 중소도시      | 40.4 | 16.5 | 43.1 | 902   | 33.0 | 18.8 | 48.2 | 579   |
| 농어촌       | 59.5 | 9.2  | 31.4 | 185   | 47.6 | 15.5 | 36.9 | 187   |

〈부표 1-9〉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시키도 괜찮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16.7 | 17.0 | 66.3 | 712   | 12.4 | 17.7 | 70.0 | 476   |
| 여성        | 17.8 | 10.6 | 71.6 | 886   | 17.0 | 15.1 | 67.8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7.0  | 11.3 | 81.7 | 328   | 3.1  | 10.3 | 86.6 | 194   |
| 30-39세    | 12.6 | 13.6 | 73.8 | 389   | 6.3  | 11.5 | 82.2 | 174   |
| 40-49세    | 15.6 | 13.2 | 71.2 | 417   | 12.4 | 21.8 | 65.9 | 170   |
| 50-59세    | 26.5 | 7.7  | 65.8 | 196   | 15.8 | 19.2 | 65.0 | 177   |
| 60세 이상    | 32.8 | 20.5 | 46.6 | 268   | 27.1 | 17.9 | 55.1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7.2  | 13.0 | 79.8 | 501   | 2.9  | 10.2 | 86.9 | 275   |
| 35-49세    | 16.0 | 12.6 | 71.4 | 633   | 11.4 | 18.6 | 70.0 | 263   |
| 50-64세    | 28.7 | 9.3  | 61.9 | 268   | 15.7 | 16.9 | 67.5 | 255   |
| 65세 이상    | 32.2 | 23.0 | 44.9 | 196   | 30.6 | 19.8 | 49.6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0.8 | 15.6 | 53.6 | 347   | 28.3 | 19.3 | 52.5 | 265   |
| 고졸        | 14.8 | 12.0 | 73.3 | 460   | 15.7 | 17.7 | 66.5 | 248   |
| 대재        | 10.3 | 12.0 | 77.7 | 359   | 8.3  | 13.3 | 78.4 | 218   |
| 대학졸업 이상   | 15.0 | 14.5 | 70.5 | 427   | 7.8  | 14.7 | 77.5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24.7 | 19.9 | 55.5 | 191   | 31.6 | 19.1 | 49.3 | 152   |
| 100-199만원 | 17.5 | 10.1 | 72.4 | 268   | 21.9 | 22.9 | 55.2 | 105   |
| 200-299만원 | 14   | 14.9 | 71.1 | 329   | 13.4 | 11.0 | 75.6 | 127   |
| 300-399만원 | 16.3 | 14.8 | 69.1 | 271   | 10.4 | 11.1 | 78.5 | 135   |
| 400-499만원 | 18.2 | 14.3 | 67.6 | 182   | 8.0  | 18.8 | 73.2 | 112   |
| 500만원 이상  | 16.7 | 8.5  | 74.9 | 306   | 10.2 | 15.1 | 74.7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15.0 | 13.3 | 71.7 | 512   | 12.4 | 11.7 | 75.9 | 282   |
| 중소도시      | 16.6 | 13.8 | 69.6 | 902   | 13.6 | 17.1 | 69.3 | 579   |
| 농어촌       | 27.3 | 12.6 | 60.1 | 183   | 23.0 | 20.9 | 56.2 | 187   |

<부표 1-10> 배우자의 집안일 빈도-저녁 식사 준비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81.8  | 11.4    | 3.2     | 1.7      | 0.4      | 0.0      | 1.5         | 466   |
| 여성        | 4.6   | 9.5     | 11.5    | 13.4     | 16.2     | 7.0      | 37.8        | 582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28.2  | 15.4    | 7.7     | 15.4     | 20.5     | 2.6      | 10.3        | 39    |
| 30-39세    | 28.9  | 9.0     | 12.0    | 10.0     | 13.6     | 6.0      | 20.6        | 301   |
| 40-49세    | 40.0  | 12.6    | 7.4     | 9.5      | 8.2      | 4.0      | 18.4        | 380   |
| 50-59세    | 40.4  | 9.6     | 7.2     | 5.4      | 7.2      | 1.2      | 28.9        | 166   |
| 60세 이상    | 56.2  | 6.8     | 1.9     | 3.1      | 2.5      | 3.1      | 26.5        | 162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8.0  | 11.5    | 11.5    | 10.8     | 17.2     | 4.5      | 16.6        | 157   |
| 35-49세    | 36.6  | 11.2    | 8.7     | 9.8      | 9.4      | 4.8      | 19.5        | 563   |
| 50-64세    | 43.8  | 10.1    | 5.5     | 5.1      | 5.5      | 1.4      | 28.6        | 217   |
| 65세 이상    | 56.8  | 4.5     | 2.7     | 2.7      | 3.6      | 3.6      | 26.1        | 111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9.7  | 9.7     | 4.9     | 6.2      | 7.1      | 3.5      | 29.1        | 227   |
| 고졸        | 35.1  | 8.5     | 7.7     | 8.5      | 11.2     | 4.3      | 24.7        | 376   |
| 대재        | 41.0  | 15.4    | 6.8     | 8.6      | 11.1     | 3.4      | 13.7        | 117   |
| 대학졸업 이상   | 42.1  | 11.0    | 10.4    | 9.2      | 7.6      | 4.0      | 15.9        | 328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43.4  | 6.0     | 2.4     | 3.6      | 4.8      | 4.8      | 34.9        | 83    |
| 100-199만원 | 46.2  | 6.4     | 7.6     | 5.9      | 6.4      | 4.7      | 22.8        | 171   |
| 200-299만원 | 41.2  | 9.2     | 6.3     | 8.0      | 10.9     | 4.2      | 20.2        | 238   |
| 300-399만원 | 32.8  | 13.2    | 9.5     | 12.7     | 9.5      | 3.2      | 19.1        | 189   |
| 400-499만원 | 32.8  | 13.7    | 10.7    | 10.7     | 9.9      | 3.8      | 18.3        | 131   |
| 500만원 이상  | 37.4  | 11.3    | 8.6     | 6.8      | 9.9      | 3.6      | 22.5        | 22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40.4  | 12.0    | 6.8     | 8.0      | 9.6      | 1.9      | 21.3        | 324   |
| 중소도시      | 37.3  | 10.0    | 9.5     | 8.6      | 9.5      | 5.3      | 19.9        | 603   |
| 농어촌       | 42.5  | 7.5     | 2.5     | 6.7      | 6.7      | 2.5      | 31.7        | 120   |

〈부표 1-11〉 배우자의 집안일 빈도-저녁 식사 준비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계<br>(N) |
|-----------|----------|------------|------------|-------------|-------------|-------------|-------------------|----------|
|           | 거의<br>매일 | 일주에<br>몇 번 | 일주에<br>한 번 | 한 달에<br>한 번 | 일 년에<br>몇 번 | 일 년에<br>한 번 | 일 년에<br>한 번<br>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68.9     | 19.3       | 3.9        | 2.9         | 0.7         | 0.0         | 4.3               | 280      |
| 여성        | 6.6      | 12.0       | 15.3       | 12.3        | 13.8        | 7.2         | 32.9              | 33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23.1     | 7.7        | 30.8       | 23.1        | 15.4        | 0.0         | 0.0               | 13       |
| 30-39세    | 25.5     | 22.7       | 15.5       | 13.6        | 11.8        | 2.7         | 8.2               | 110      |
| 40-49세    | 27.3     | 12.6       | 12.6       | 12.6        | 9.1         | 8.4         | 17.5              | 143      |
| 50-59세    | 34.3     | 19.6       | 7.0        | 4.2         | 7.0         | 2.1         | 25.9              | 143      |
| 60세 이상    | 46.8     | 10.7       | 6.3        | 3.4         | 4.9         | 2.9         | 24.9              | 205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7.9     | 21.4       | 25.0       | 14.3        | 12.5        | 3.6         | 5.4               | 56       |
| 35-49세    | 28.6     | 15.2       | 11.9       | 13.3        | 10.0        | 6.2         | 14.8              | 210      |
| 50-64세    | 36.3     | 18.1       | 6.9        | 4.9         | 7.8         | 2.9         | 23.0              | 204      |
| 65세 이상    | 49.3     | 9.0        | 6.3        | 2.1         | 2.8         | 2.1         | 28.5              | 144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41.9     | 12.8       | 8.8        | 3.4         | 4.7         | 3.4         | 25.0              | 148      |
| 고졸        | 36.3     | 7.8        | 8.9        | 10.6        | 6.7         | 3.4         | 26.3              | 179      |
| 대재        | 24.2     | 25.3       | 9.9        | 9.9         | 12.1        | 6.6         | 12.1              | 91       |
| 대학졸업 이상   | 33.7     | 19.4       | 12.2       | 8.2         | 9.2         | 3.6         | 13.8              | 196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44.4     | 13.0       | 3.7        | 0.0         | 3.7         | 0.0         | 35.2              | 54       |
| 100-199만원 | 46.3     | 13.4       | 10.5       | 4.5         | 6.0         | 3.0         | 16.4              | 67       |
| 200-299만원 | 35.7     | 12.5       | 8.9        | 8.9         | 7.1         | 1.8         | 25.0              | 56       |
| 300-399만원 | 39.1     | 16.3       | 9.8        | 12.0        | 5.4         | 5.4         | 12.0              | 92       |
| 400-499만원 | 32.5     | 18.8       | 8.8        | 11.3        | 7.5         | 1.3         | 20.0              | 80       |
| 500만원 이상  | 29.6     | 16.5       | 11.7       | 7.8         | 10.0        | 5.2         | 19.1              | 230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3.8     | 15.5       | 11.3       | 7.0         | 10.6        | 4.2         | 17.6              | 142      |
| 중소도시      | 30.9     | 18.2       | 11.1       | 8.8         | 6.1         | 3.9         | 21.0              | 362      |
| 농어촌       | 50.5     | 5.6        | 5.6        | 6.5         | 9.4         | 2.8         | 19.6              | 107      |

<부표 1-12> 배우자의 집안일 빈도-세탁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68.0  | 22.1    | 6.4     | 1.3      | 0.2      | 0.4      | 1.5         | 466   |
| 여성        | 3.8   | 7.1     | 9.1     | 9.0      | 11.5     | 8.8      | 50.8        | 581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8.0  | 20.5    | 10.3    | 7.7      | 12.8     | 10.3     | 20.5        | 39    |
| 30-39세    | 21.7  | 15.0    | 9.0     | 6.7      | 10.3     | 6.0      | 31.3        | 300   |
| 40-49세    | 35.5  | 14.2    | 8.4     | 6.8      | 5.3      | 4.7      | 25.0        | 380   |
| 50-59세    | 30.1  | 13.3    | 9.0     | 4.2      | 4.2      | 4.8      | 34.3        | 166   |
| 60세 이상    | 50.6  | 9.3     | 3.1     | 1.2      | 3.1      | 3.1      | 29.6        | 162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9.9  | 17.3    | 12.8    | 8.3      | 10.9     | 7.1      | 23.7        | 156   |
| 35-49세    | 31.3  | 14.2    | 7.6     | 6.4      | 6.9      | 5.2      | 28.4        | 563   |
| 50-64세    | 34.6  | 13.4    | 7.8     | 3.7      | 3.7      | 4.2      | 32.7        | 217   |
| 65세 이상    | 51.4  | 7.2     | 2.7     | 0.9      | 3.6      | 3.6      | 30.6        | 111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3.0  | 12.8    | 4.9     | 4.0      | 5.3      | 2.6      | 37.4        | 227   |
| 고졸        | 28.7  | 11.4    | 8.8     | 6.1      | 6.7      | 6.4      | 31.9        | 376   |
| 대재        | 35.9  | 19.7    | 6.8     | 5.1      | 7.7      | 5.1      | 19.7        | 117   |
| 대학졸업 이상   | 34.9  | 15.0    | 9.5     | 6.1      | 6.7      | 5.2      | 22.6        | 327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6.1  | 8.4     | 7.2     | 3.6      | 4.8      | 4.8      | 34.9        | 83    |
| 100-199만원 | 35.7  | 14.0    | 5.3     | 7.0      | 5.9      | 5.3      | 26.9        | 171   |
| 200-299만원 | 34.2  | 13.5    | 5.5     | 4.2      | 7.6      | 5.9      | 29.1        | 237   |
| 300-399만원 | 30.2  | 12.7    | 9.0     | 7.4      | 7.9      | 2.7      | 30.2        | 189   |
| 400-499만원 | 28.2  | 13.0    | 12.2    | 6.9      | 6.1      | 6.1      | 27.5        | 131   |
| 500만원 이상  | 29.3  | 18.0    | 9.5     | 4.1      | 5.9      | 5.4      | 27.9        | 22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5.2  | 15.1    | 8.0     | 4.9      | 5.3      | 4.0      | 27.5        | 324   |
| 중소도시      | 30.1  | 13.3    | 8.5     | 6.0      | 7.8      | 5.8      | 28.6        | 602   |
| 농어촌       | 35.8  | 12.5    | 5.0     | 5.0      | 3.3      | 4.2      | 34.2        | 120   |

〈부표 1-13〉 배우자의 집안일 빈도-세탁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계<br>(N) |
|-----------|----------|------------|------------|-------------|-------------|-------------|-------------------|----------|
|           | 거의<br>매일 | 일주에<br>몇 번 | 일주에<br>한 번 | 한 달에<br>한 번 | 일 년에<br>몇 번 | 일 년에<br>한 번 | 일 년에<br>한 번<br>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53.9     | 30.0       | 7.1        | 2.9         | 0.7         | 0.4         | 5.0               | 280      |
| 여성        | 3.6      | 11.7       | 12.0       | 12.9        | 12.0        | 5.1         | 42.8              | 33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5.4     | 30.8       | 0.0        | 30.8        | 7.7         | 7.7         | 7.7               | 13       |
| 30-39세    | 17.3     | 28.2       | 18.2       | 12.7        | 7.3         | 1.8         | 14.6              | 110      |
| 40-49세    | 21.7     | 18.2       | 9.8        | 9.8         | 9.8         | 3.5         | 27.3              | 143      |
| 50-59세    | 27.3     | 22.4       | 7.7        | 5.6         | 5.6         | 3.5         | 28.0              | 143      |
| 60세 이상    | 35.1     | 14.6       | 7.3        | 5.4         | 5.4         | 2.4         | 29.8              | 205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4.3     | 30.4       | 16.1       | 17.9        | 7.1         | 1.8         | 12.5              | 56       |
| 35-49세    | 21.0     | 21.0       | 11.9       | 10.5        | 9.1         | 3.3         | 23.3              | 210      |
| 50-64세    | 29.4     | 20.1       | 7.8        | 5.9         | 6.4         | 3.4         | 27.0              | 204      |
| 65세 이상    | 35.4     | 14.6       | 6.9        | 4.9         | 4.2         | 2.1         | 31.9              | 144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1.1     | 18.2       | 6.8        | 8.1         | 6.8         | 3.4         | 25.7              | 148      |
| 고졸        | 28.5     | 14.0       | 8.9        | 8.4         | 6.2         | 1.7         | 32.4              | 179      |
| 대재        | 19.8     | 25.3       | 12.1       | 9.9         | 5.5         | 5.5         | 22.0              | 91       |
| 대학졸업 이상   | 24.5     | 24.5       | 11.7       | 7.7         | 8.2         | 2.6         | 20.9              | 196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5.2     | 16.7       | 3.7        | 1.9         | 5.6         | 0.0         | 37.0              | 54       |
| 100-199만원 | 34.3     | 20.9       | 13.4       | 9.0         | 4.5         | 1.5         | 16.4              | 67       |
| 200-299만원 | 25.0     | 19.6       | 3.6        | 14.3        | 5.4         | 3.6         | 28.6              | 56       |
| 300-399만원 | 29.4     | 21.7       | 8.7        | 12.0        | 7.6         | 6.5         | 14.1              | 92       |
| 400-499만원 | 26.3     | 20.0       | 13.8       | 10.0        | 6.3         | 0.0         | 23.8              | 80       |
| 500만원 이상  | 23.0     | 20.9       | 10.9       | 5.7         | 7.8         | 3.5         | 28.3              | 230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1.8     | 22.5       | 13.4       | 6.3         | 8.5         | 2.8         | 24.7              | 142      |
| 중소도시      | 23.5     | 21.3       | 9.7        | 8.6         | 6.6         | 3.0         | 27.4              | 362      |
| 농어촌       | 43.0     | 13.1       | 5.6        | 10.3        | 4.7         | 1.9         | 21.5              | 107      |

<부표 1-14> 배우자의 집안일 빈도-집안 청소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69.7  | 19.3    | 7.5     | 1.7      | 0.4      | 0.2      | 1.1         | 466   |
| 여성        | 4.8   | 12.4    | 19.8    | 15.0     | 15.5     | 3.6      | 29.0        | 582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20.5  | 18.0    | 15.4    | 20.5     | 18.0     | 5.1      | 2.6         | 39    |
| 30-39세    | 24.9  | 16.0    | 19.3    | 10.0     | 13.6     | 2.3      | 14.0        | 301   |
| 40-49세    | 34.0  | 15.8    | 15.5    | 10.5     | 7.4      | 2.1      | 14.7        | 380   |
| 50-59세    | 34.3  | 17.5    | 11.5    | 7.2      | 6.0      | 1.2      | 22.3        | 166   |
| 60세 이상    | 51.9  | 11.1    | 4.9     | 3.1      | 3.7      | 1.9      | 23.5        | 162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0.4  | 19.8    | 20.4    | 15.3     | 12.1     | 2.6      | 9.6         | 157   |
| 35-49세    | 32.0  | 14.9    | 16.2    | 9.6      | 10.1     | 2.3      | 14.9        | 563   |
| 50-64세    | 37.3  | 17.1    | 10.1    | 6.9      | 5.1      | 1.4      | 22.1        | 217   |
| 65세 이상    | 54.1  | 9.0     | 4.5     | 1.8      | 4.5      | 1.8      | 24.3        | 111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4.4  | 14.1    | 7.9     | 6.6      | 7.1      | 2.6      | 27.3        | 227   |
| 고졸        | 31.7  | 13.0    | 15.2    | 9.6      | 10.4     | 1.1      | 19.2        | 376   |
| 대재        | 33.3  | 21.4    | 15.4    | 9.4      | 5.1      | 5.1      | 10.3        | 117   |
| 대학졸업 이상   | 35.7  | 17.1    | 17.4    | 10.1     | 9.5      | 1.8      | 8.5         | 328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9.8  | 8.4     | 8.4     | 3.6      | 4.8      | 1.2      | 33.7        | 83    |
| 100-199만원 | 37.4  | 17.0    | 7.6     | 11.7     | 6.4      | 2.3      | 17.5        | 171   |
| 200-299만원 | 37.8  | 13.9    | 13.5    | 7.6      | 9.2      | 3.4      | 14.7        | 238   |
| 300-399만원 | 30.2  | 15.3    | 16.9    | 10.1     | 9.0      | 1.1      | 17.5        | 189   |
| 400-499만원 | 27.5  | 13.7    | 21.4    | 9.9      | 13.0     | 3.1      | 11.5        | 131   |
| 500만원 이상  | 29.3  | 19.8    | 16.7    | 9.9      | 9.5      | 1.4      | 13.5        | 22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5.8  | 17.6    | 15.4    | 8.6      | 7.4      | 1.9      | 13.3        | 324   |
| 중소도시      | 32.3  | 14.8    | 15.1    | 9.3      | 11.0     | 2.3      | 15.3        | 603   |
| 농어촌       | 34.2  | 13.3    | 7.5     | 9.2      | 1.7      | 1.7      | 32.5        | 120   |

〈부표 1-15〉 배우자의 집안일 빈도-집안 청소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계<br>(N) |
|-----------|----------|------------|------------|-------------|-------------|-------------|-------------------|----------|
|           | 거의<br>매일 | 일주에<br>몇 번 | 일주에<br>한 번 | 한 달에<br>한 번 | 일 년에<br>몇 번 | 일 년에<br>한 번 | 일 년에<br>한 번<br>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52.9     | 28.2       | 7.9        | 4.3         | 1.4         | 0.7         | 4.6               | 280      |
| 여성        | 8.4      | 14.1       | 21.6       | 16.5        | 14.4        | 2.4         | 22.8              | 33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23.1     | 15.4       | 15.4       | 30.8        | 15.4        | 0.0         | 0.0               | 13       |
| 30-39세    | 23.6     | 29.1       | 20.9       | 14.6        | 7.3         | 0.0         | 4.6               | 110      |
| 40-49세    | 21.0     | 17.5       | 18.9       | 12.6        | 10.5        | 2.8         | 16.8              | 143      |
| 50-59세    | 30.1     | 21.0       | 15.4       | 8.4         | 11.2        | 0.7         | 13.3              | 143      |
| 60세 이상    | 36.1     | 18.1       | 9.8        | 8.3         | 5.4         | 2.4         | 20.0              | 205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7.9     | 30.4       | 23.2       | 16.1        | 8.9         | 0.0         | 3.6               | 56       |
| 35-49세    | 23.3     | 20.0       | 18.6       | 13.8        | 9.5         | 1.9         | 12.9              | 210      |
| 50-64세    | 30.9     | 19.6       | 16.2       | 8.3         | 10.3        | 1.5         | 13.2              | 204      |
| 65세 이상    | 37.5     | 18.8       | 6.3        | 8.3         | 4.2         | 2.1         | 22.9              | 144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5.8     | 16.2       | 9.5        | 9.5         | 4.7         | 3.4         | 21.0              | 148      |
| 고졸        | 31.3     | 19.0       | 8.9        | 12.3        | 8.9         | 1.7         | 17.9              | 179      |
| 대재        | 19.8     | 27.5       | 19.8       | 8.8         | 11.0        | 2.2         | 11.0              | 91       |
| 대학졸업 이상   | 25.0     | 21.9       | 23.5       | 11.7        | 9.7         | 0.0         | 8.2               | 196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8.9     | 14.8       | 3.7        | 9.3         | 3.7         | 1.9         | 27.8              | 54       |
| 100-199만원 | 35.8     | 20.9       | 14.9       | 7.5         | 6.0         | 1.5         | 13.4              | 67       |
| 200-299만원 | 32.1     | 14.3       | 12.5       | 14.3        | 3.6         | 1.8         | 21.4              | 56       |
| 300-399만원 | 32.6     | 25.0       | 9.8        | 12.0        | 4.4         | 3.3         | 13.0              | 92       |
| 400-499만원 | 25.0     | 26.3       | 16.3       | 11.3        | 5.0         | 0.0         | 16.3              | 80       |
| 500만원 이상  | 21.7     | 20.9       | 21.7       | 10.9        | 13.5        | 1.3         | 10.0              | 230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4.7     | 20.4       | 25.4       | 5.6         | 9.9         | 1.4         | 12.7              | 142      |
| 중소도시      | 26.5     | 22.9       | 13.8       | 12.4        | 7.5         | 1.7         | 15.2              | 362      |
| 농어촌       | 41.1     | 13.1       | 7.5        | 13.1        | 9.4         | 0.9         | 15.0              | 107      |

## 2. 가족간 행위와 만족도

〈부표 2-1〉 생활만족도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38.0 | 39.4 | 22.6 | 713   | 45.9 | 40.8 | 13.3 | 473   |
| 여성        | 38.4 | 41.0 | 20.6 | 890   | 47.4 | 39.4 | 13.2 | 57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46.3 | 31.1 | 22.6 | 328   | 52.8 | 33.7 | 13.5 | 193   |
| 30-39세    | 42.2 | 42.9 | 14.9 | 389   | 55.2 | 35.6 | 9.2  | 174   |
| 40-49세    | 37.0 | 42.5 | 20.5 | 419   | 51.2 | 38.8 | 10.0 | 170   |
| 50-59세    | 30.1 | 44.9 | 25.0 | 196   | 42.6 | 45.5 | 11.9 | 176   |
| 60세 이상    | 30.6 | 41.0 | 28.4 | 271   | 38.6 | 43.7 | 17.7 | 334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46.5 | 34.1 | 19.4 | 501   | 53.3 | 34.7 | 12.0 | 274   |
| 35-49세    | 37.5 | 43.5 | 19.1 | 635   | 52.9 | 37.3 | 9.9  | 263   |
| 50-64세    | 30.2 | 45.1 | 24.6 | 268   | 42.1 | 46.5 | 11.4 | 254   |
| 65세 이상    | 30.7 | 39.2 | 30.2 | 199   | 37.9 | 42.2 | 19.9 | 256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7.4 | 43.6 | 29.1 | 351   | 36.4 | 43.6 | 20.1 | 264   |
| 고졸        | 31.0 | 46.6 | 22.3 | 461   | 34.0 | 53.8 | 12.1 | 247   |
| 대재        | 44.8 | 35.9 | 19.2 | 359   | 52.1 | 33.2 | 14.7 | 217   |
| 대학졸업 이상   | 49.4 | 34.7 | 15.9 | 427   | 61.4 | 31.0 | 7.5  | 319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28.9 | 34.0 | 37.1 | 194   | 30.3 | 38.2 | 31.6 | 152   |
| 100-199만원 | 25.3 | 45.4 | 29.4 | 269   | 43.7 | 43.7 | 12.6 | 103   |
| 200-299만원 | 33.6 | 48.8 | 17.6 | 330   | 40.9 | 46.5 | 12.6 | 127   |
| 300-399만원 | 42.1 | 36.9 | 21.0 | 271   | 42.5 | 48.5 | 9.0  | 134   |
| 400-499만원 | 48.4 | 39.6 | 12.1 | 182   | 42.9 | 41.1 | 16.1 | 112   |
| 500만원 이상  | 53.3 | 33.3 | 13.4 | 306   | 62.2 | 31.4 | 6.3  | 331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41.5 | 38.4 | 20.1 | 513   | 54.1 | 34.2 | 11.7 | 281   |
| 중소도시      | 38.6 | 41.9 | 19.5 | 903   | 45.3 | 43.8 | 10.9 | 576   |
| 농어촌       | 26.9 | 38.2 | 34.9 | 186   | 39.0 | 38.0 | 23.0 | 187   |

〈부표 2-2〉 저녁식사 빈도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계<br>(N) |
|-----------|----------|------------|------------|-------------|-------------|-------------|-------------------|----------|
|           | 거의<br>매일 | 일주에<br>몇 번 | 일주에<br>한 번 | 한 달에<br>한 번 | 일 년에<br>몇 번 | 일 년에<br>한 번 | 일 년에<br>한 번<br>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46.8     | 28.1       | 15.9       | 6.5         | 1.8         | 0.7         | 0.2               | 602      |
| 여성        | 46.4     | 29.9       | 16.1       | 4.6         | 1.3         | 0.7         | 1.0               | 763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1.0     | 35.3       | 19.6       | 9.4         | 2.4         | 1.2         | 1.2               | 255      |
| 30-39세    | 45.7     | 34.1       | 14.7       | 4.0         | 0.9         | 0.3         | 0.3               | 346      |
| 40-49세    | 42.7     | 32.6       | 17.8       | 4.6         | 1.0         | 0.8         | 0.5               | 393      |
| 50-59세    | 50.0     | 20.6       | 17.6       | 6.5         | 2.9         | 1.2         | 1.2               | 170      |
| 60세 이상    | 72.6     | 12.9       | 9.0        | 3.5         | 1.5         | 0.0         | 0.5               | 201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34.8     | 36.6       | 18.0       | 7.3         | 1.8         | 0.8         | 0.8               | 399      |
| 35-49세    | 44.7     | 31.9       | 16.6       | 4.5         | 1.0         | 0.7         | 0.5               | 595      |
| 50-64세    | 53.9     | 19.7       | 16.2       | 5.7         | 2.2         | 0.9         | 1.3               | 228      |
| 65세 이상    | 75.5     | 11.2       | 7.7        | 3.5         | 2.1         | 0.0         | 0.0               | 143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58.8     | 18.6       | 14.3       | 4.3         | 1.8         | 1.1         | 1.1               | 279      |
| 고졸        | 51.9     | 24.4       | 16.2       | 4.6         | 1.2         | 1.0         | 0.7               | 414      |
| 대재        | 36.4     | 37.4       | 15.3       | 8.2         | 2.0         | 0.3         | 0.3               | 294      |
| 대학졸업 이상   | 39.7     | 35.5       | 17.6       | 5.1         | 1.3         | 0.3         | 0.5               | 375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1.0     | 8.6        | 7.6        | 1.0         | 1.0         | 0.0         | 1.0               | 105      |
| 100-199만원 | 55.8     | 23.4       | 10.8       | 6.1         | 2.2         | 0.9         | 0.9               | 231      |
| 200-299만원 | 48.1     | 27.3       | 16.0       | 6.1         | 1.7         | 0.3         | 0.3               | 293      |
| 300-399만원 | 41.2     | 32.9       | 17.7       | 4.9         | 2.1         | 0.8         | 0.4               | 243      |
| 400-499만원 | 40.1     | 34.7       | 19.2       | 4.2         | 0.6         | 1.2         | 0.0               | 167      |
| 500만원 이상  | 35.3     | 36.4       | 18.7       | 6.7         | 1.4         | 0.4         | 1.1               | 283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40.1     | 33.1       | 17.1       | 6.3         | 1.4         | 0.9         | 1.1               | 444      |
| 중소도시      | 46.6     | 29.0       | 16.9       | 5.2         | 1.7         | 0.5         | 0.1               | 769      |
| 농어촌       | 65.6     | 17.9       | 8.6        | 4.0         | 1.3         | 0.7         | 2.0               | 151      |

〈부표 2-3〉 저녁식사 빈도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49.7  | 29.4    | 11.6    | 7.0      | 1.3      | .5       | 0.5         | 388   |
| 여성        | 49.6  | 30.0    | 11.6    | 5.1      | 3.6      | 0.0      | 0.2         | 47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4.4  | 40.3    | 13.6    | 8.4      | 3.2      | 0.0      | 0.0         | 154   |
| 30-39세    | 48.0  | 36.5    | 8.8     | 4.7      | 1.4      | 0.7      | 0.0         | 148   |
| 40-49세    | 41.0  | 37.3    | 14.3    | 6.2      | 0.0      | 0.0      | 1.2         | 161   |
| 50-59세    | 41.7  | 34.6    | 14.1    | 5.8      | 2.6      | 0.6      | 0.6         | 156   |
| 60세 이상    | 71.2  | 10.7    | 8.6     | 4.9      | 4.5      | 0.0      | 0.0         | 243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38.6  | 37.3    | 12.7    | 8.2      | 3.2      | 0.0      | 0.0         | 220   |
| 35-49세    | 43.2  | 38.7    | 11.9    | 4.9      | 0.0      | 0.4      | 0.8         | 243   |
| 50-64세    | 52.3  | 26.9    | 12.5    | 5.6      | 1.9      | 0.5      | 0.5         | 216   |
| 65세 이상    | 68.3  | 12.0    | 8.7     | 4.9      | 6.0      | 0.0      | 0.0         | 183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4.7  | 10.8    | 4.8     | 5.4      | 4.3      | 0.0      | 0.0         | 186   |
| 고졸        | 49.8  | 31.6    | 9.3     | 4.7      | 3.3      | 0.5      | 0.9         | 215   |
| 대재        | 43.2  | 35.5    | 13.1    | 6.0      | 1.6      | 0.5      | 0.0         | 183   |
| 대학졸업 이상   | 37.1  | 37.1    | 16.9    | 7.2      | 1.4      | 0.0      | 0.4         | 278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3.6  | 11.7    | 6.5     | 5.2      | 11.7     | 1.3      | 0.0         | 77    |
| 100-199만원 | 70.6  | 14.1    | 8.2     | 2.4      | 1.2      | 1.2      | 2.4         | 85    |
| 200-299만원 | 54.3  | 23.9    | 10.9    | 9.8      | 1.1      | 0.0      | 0.0         | 92    |
| 300-399만원 | 56.7  | 25.8    | 14.2    | 1.7      | 1.7      | 0.0      | 0.0         | 120   |
| 400-499만원 | 50.0  | 33.3    | 8.8     | 5.9      | 2.0      | 0.0      | 0.0         | 102   |
| 500만원 이상  | 36.6  | 40.5    | 14.2    | 6.8      | 1.6      | 0.0      | 0.3         | 309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8.9  | 38.0    | 15.8    | 3.6      | 2.7      | 0.0      | 0.9         | 221   |
| 중소도시      | 47.0  | 32.3    | 11.1    | 7.3      | 2.0      | 0.2      | 0.2         | 496   |
| 농어촌       | 74.6  | 8.5     | 7.0     | 4.9      | 4.2      | 0.7      | 0.0         | 142   |

〈부표 2-4〉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빈도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계<br>(N) |
|-----------|----------|------------|------------|-------------|-------------|-------------|-------------------|----------|
|           | 거의<br>매일 | 일주에<br>몇 번 | 일주에<br>한 번 | 한 달에<br>한 번 | 일 년에<br>몇 번 | 일 년에<br>한 번 | 일 년에<br>한 번<br>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5.2      | 11.0       | 23.2       | 25.6        | 20.4        | 4.5         | 10.0              | 598      |
| 여성        | 3.9      | 11.9       | 24.6       | 25.5        | 17.8        | 4.8         | 11.4              | 76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4.7      | 9.1        | 19.7       | 30.7        | 20.9        | 7.1         | 7.9               | 254      |
| 30-39세    | 2.9      | 15.4       | 36.8       | 28.4        | 12.2        | 1.4         | 2.9               | 345      |
| 40-49세    | 2.8      | 13.5       | 23.4       | 25.2        | 22.9        | 4.3         | 7.9               | 393      |
| 50-59세    | 5.9      | 5.3        | 17.2       | 26.6        | 22.5        | 7.7         | 14.8              | 169      |
| 60세 이상    | 9.0      | 9.5        | 14.4       | 13.9        | 17.4        | 5.5         | 30.3              | 201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3.8      | 11.3       | 24.6       | 28.6        | 19.6        | 5.3         | 6.8               | 398      |
| 35-49세    | 3.0      | 14.1       | 28.8       | 27.1        | 18.0        | 3.2         | 5.7               | 594      |
| 50-64세    | 6.1      | 6.1        | 18.4       | 24.1        | 20.6        | 7.5         | 17.1              | 228      |
| 65세 이상    | 9.9      | 9.9        | 11.3       | 12.7        | 18.3        | 4.9         | 33.1              | 142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6.5      | 6.5        | 11.9       | 18.7        | 19.1        | 7.2         | 30.2              | 278      |
| 고졸        | 3.4      | 9.7        | 27.3       | 31.4        | 16.2        | 3.9         | 8.2               | 414      |
| 대재        | 5.5      | 10.9       | 20.8       | 27.3        | 24.9        | 5.5         | 5.1               | 293      |
| 대학졸업 이상   | 3.5      | 17.9       | 32.1       | 23.0        | 16.8        | 3.2         | 3.5               | 374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10.6     | 6.7        | 8.7        | 10.6        | 18.3        | 3.8         | 41.3              | 104      |
| 100-199만원 | 5.6      | 6.5        | 18.2       | 28.6        | 23.4        | 3.5         | 14.3              | 231      |
| 200-299만원 | 3.1      | 13.0       | 25.7       | 25.7        | 18.5        | 6.2         | 7.9               | 292      |
| 300-399만원 | 4.5      | 14.5       | 24.4       | 25.2        | 17.8        | 4.5         | 9.1               | 242      |
| 400-499만원 | 5.4      | 13.8       | 26.9       | 28.1        | 18.0        | 4.2         | 3.6               | 167      |
| 500만원 이상  | 2.5      | 13.1       | 31.4       | 26.5        | 19.1        | 3.9         | 3.5               | 283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4.5      | 14.2       | 24.1       | 24.3        | 21.2        | 4.1         | 7.7               | 444      |
| 중소도시      | 5.1      | 11.1       | 25.6       | 28.6        | 16.0        | 4.8         | 8.9               | 767      |
| 농어촌       | 1.3      | 6.0        | 16.0       | 14.0        | 27.3        | 6.0         | 29.3              | 150      |

<부표 2-5>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빈도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계 (N) |
|-----------|-------|---------|---------|----------|----------|----------|-------------|-------|
|           | 거의 매일 | 일주에 몇 번 | 일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일 년에 몇 번 | 일 년에 한 번 | 일 년에 한 번 미만 |       |
| 성별        |       |         |         |          |          |          |             |       |
| 남성        | 5.9   | 12.4    | 17.8    | 29.4     | 21.9     | 5.2      | 7.5         | 388   |
| 여성        | 6.8   | 13.9    | 20.0    | 26.2     | 18.6     | 4.9      | 9.7         | 47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2.6   | 9.7     | 20.1    | 27.9     | 28.6     | 6.5      | 4.5         | 154   |
| 30-39세    | 5.4   | 28.4    | 29.7    | 25.0     | 8.1      | 2.0      | 1.4         | 148   |
| 40-49세    | 3.1   | 9.9     | 24.8    | 30.4     | 23.6     | 5.6      | 2.5         | 161   |
| 50-59세    | 5.8   | 7.7     | 14.1    | 41.7     | 21.2     | 2.6      | 7.1         | 156   |
| 60세 이상    | 11.9  | 11.9    | 11.1    | 18.1     | 18.9     | 7.0      | 21.0        | 243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7   | 15.9    | 23.2    | 25.9     | 23.2     | 5.5      | 3.6         | 220   |
| 35-49세    | 4.5   | 15.6    | 26.3    | 29.6     | 17.7     | 4.1      | 2.1         | 243   |
| 50-64세    | 6.5   | 10.6    | 14.8    | 37.5     | 19.4     | 3.2      | 7.9         | 216   |
| 65세 이상    | 13.1  | 9.8     | 9.3     | 15.3     | 20.2     | 7.7      | 24.6        | 183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9.1   | 9.1     | 10.8    | 20.4     | 20.4     | 7.5      | 22.6        | 186   |
| 고졸        | 6.0   | 12.1    | 18.1    | 29.3     | 19.1     | 6.5      | 8.8         | 215   |
| 대재        | 3.8   | 14.8    | 18.0    | 35.5     | 21.9     | 2.7      | 3.3         | 183   |
| 대학졸업 이상   | 6.5   | 15.8    | 25.9    | 25.9     | 19.4     | 3.6      | 2.9         | 278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16.9  | 6.5     | 5.2     | 13.0     | 18.2     | 3.9      | 36.4        | 77    |
| 100-199만원 | 8.2   | 12.9    | 7.1     | 24.7     | 16.5     | 15.3     | 15.3        | 85    |
| 200-299만원 | 3.3   | 18.5    | 17.4    | 31.5     | 19.6     | 3.3      | 6.5         | 92    |
| 300-399만원 | 6.7   | 13.3    | 29.2    | 26.7     | 19.2     | .8       | 4.2         | 120   |
| 400-499만원 | 3.9   | 15.7    | 17.6    | 35.3     | 19.6     | 3.9      | 3.9         | 102   |
| 500만원 이상  | 4.5   | 13.3    | 23.0    | 30.7     | 21.7     | 4.2      | 2.6         | 309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6.3   | 15.4    | 21.7    | 24.9     | 17.6     | 4.1      | 10.0        | 221   |
| 중소도시      | 6.0   | 14.5    | 19.8    | 30.0     | 18.5     | 4.8      | 6.3         | 496   |
| 농어촌       | 7.7   | 5.6     | 12.0    | 23.9     | 28.9     | 7.0      | 14.8        | 142   |

〈부표 2-6〉 결혼생활만족도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69.3 | 24.3 | 6.4  | 469   | 72.2 | 23.5 | 4.3  | 281   |
| 여성        | 50.2 | 38.7 | 11.1 | 584   | 53.7 | 34.3 | 11.9 | 33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69.2 | 28.2 | 2.6  | 39    | 61.5 | 38.5 | 0.0  | 13    |
| 30-39세    | 68.6 | 27.1 | 4.3  | 303   | 79.1 | 16.4 | 4.5  | 110   |
| 40-49세    | 57.6 | 31.6 | 10.8 | 380   | 68.5 | 24.5 | 7.0  | 143   |
| 50-59세    | 50.9 | 35.9 | 13.2 | 167   | 58.7 | 33.6 | 7.7  | 143   |
| 60세 이상    | 48.2 | 40.9 | 11.0 | 164   | 51.2 | 36.2 | 12.6 | 20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77.7 | 19.7 | 2.5  | 157   | 76.8 | 21.4 | 1.8  | 56    |
| 35-49세    | 58.8 | 32.2 | 9.0  | 565   | 71.4 | 21.9 | 6.7  | 210   |
| 50-64세    | 48.9 | 37.9 | 13.2 | 219   | 55.1 | 36.6 | 8.3  | 205   |
| 65세 이상    | 50.9 | 39.3 | 9.8  | 112   | 53.1 | 33.1 | 13.8 | 145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46.5 | 39.9 | 13.6 | 228   | 53.4 | 34.5 | 12.2 | 148   |
| 고졸        | 54.1 | 35.8 | 10.1 | 377   | 48.9 | 38.9 | 12.2 | 180   |
| 대재        | 63.9 | 29.4 | 6.7  | 119   | 63.7 | 28.6 | 7.7  | 91    |
| 대학졸업 이상   | 70.5 | 24.0 | 5.5  | 329   | 80.2 | 17.3 | 2.5  | 197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8.6 | 47.0 | 14.5 | 83    | 42.6 | 38.9 | 18.5 | 54    |
| 100-199만원 | 49.7 | 37.6 | 12.7 | 173   | 51.5 | 32.4 | 16.2 | 68    |
| 200-299만원 | 58.2 | 33.5 | 8.4  | 239   | 56.1 | 36.8 | 7.0  | 57    |
| 300-399만원 | 57.3 | 34.4 | 8.3  | 192   | 67.4 | 25.0 | 7.6  | 92    |
| 400-499만원 | 67.2 | 27.5 | 5.3  | 131   | 60.0 | 33.8 | 6.3  | 80    |
| 500만원 이상  | 71.0 | 21.7 | 7.2  | 221   | 70.9 | 23.5 | 5.7  | 230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67.0 | 24.2 | 8.9  | 327   | 72.0 | 23.1 | 4.9  | 143   |
| 중소도시      | 56.1 | 35.0 | 8.9  | 606   | 60.9 | 29.2 | 9.9  | 363   |
| 농어촌       | 48.7 | 41.2 | 10.1 | 119   | 53.3 | 38.3 | 8.4  | 107   |

〈부표 2-7〉 본인의 주관적 건강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63.6 | 23.0 | 13.4 | 714   | 63.4 | 19.3 | 17.2 | 476   |
| 여성        | 47.9 | 29.3 | 22.8 | 891   | 49.3 | 24.8 | 25.9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67.7 | 25.9 | 6.4  | 328   | 76.8 | 15.5 | 7.7  | 194   |
| 30-39세    | 60.9 | 26.2 | 12.9 | 389   | 69.5 | 20.1 | 10.3 | 174   |
| 40-49세    | 59.4 | 27.4 | 13.1 | 419   | 57.6 | 24.7 | 17.6 | 170   |
| 50-59세    | 45.9 | 33.2 | 20.9 | 196   | 56.5 | 28.8 | 14.7 | 177   |
| 60세 이상    | 30.4 | 21.2 | 48.4 | 273   | 35.0 | 22.8 | 42.1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66.5 | 25.3 | 8.2  | 501   | 72.4 | 18.2 | 9.5  | 275   |
| 35-49세    | 59.1 | 27.6 | 13.4 | 635   | 64.3 | 21.7 | 14.1 | 263   |
| 50-64세    | 43.7 | 31.0 | 25.4 | 268   | 54.9 | 28.2 | 16.9 | 255   |
| 65세 이상    | 27.9 | 19.9 | 52.2 | 201   | 30.1 | 21.6 | 48.3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9.7 | 28.3 | 41.9 | 353   | 27.4 | 22.9 | 49.6 | 266   |
| 고졸        | 53.1 | 31.2 | 15.6 | 461   | 50.0 | 29.0 | 21.0 | 248   |
| 대재        | 66.9 | 24.8 | 8.4  | 359   | 71.1 | 20.2 | 8.7  | 218   |
| 대학졸업 이상   | 68.1 | 21.3 | 10.5 | 427   | 73.1 | 18.1 | 8.8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26.0 | 25.5 | 48.5 | 196   | 22.4 | 19.7 | 57.9 | 152   |
| 100-199만원 | 51.3 | 26.0 | 22.7 | 269   | 47.6 | 20.0 | 32.4 | 105   |
| 200-299만원 | 55.8 | 30.3 | 13.9 | 330   | 57.5 | 27.6 | 15.0 | 127   |
| 300-399만원 | 59.8 | 27.7 | 12.5 | 271   | 57.0 | 28.9 | 14.1 | 135   |
| 400-499만원 | 64.8 | 26.4 | 8.8  | 182   | 67.0 | 23.2 | 9.8  | 112   |
| 500만원 이상  | 66.7 | 22.9 | 10.5 | 306   | 69.9 | 19.9 | 10.2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63.6 | 22.8 | 13.6 | 514   | 64.9 | 17.0 | 18.1 | 282   |
| 중소도시      | 53.4 | 28.9 | 17.7 | 903   | 56.0 | 25.7 | 18.3 | 579   |
| 농어촌       | 38.0 | 25.1 | 36.9 | 187   | 42.0 | 19.1 | 38.8 | 188   |

〈부표 2-8〉 배우자의 주관적 건강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58.7 | 26.8 | 14.5 | 470   | 55.2 | 23.8 | 21.0 | 281   |
| 여성        | 52.5 | 29.2 | 18.3 | 585   | 51.6 | 28.4 | 20.0 | 33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64.1 | 28.2 | 7.7  | 39    | 69.2 | 23.1 | 7.7  | 13    |
| 30-39세    | 62.0 | 29.7 | 8.3  | 303   | 77.3 | 14.5 | 8.2  | 110   |
| 40-49세    | 59.6 | 28.1 | 12.3 | 381   | 55.9 | 36.4 | 7.7  | 143   |
| 50-59세    | 49.1 | 29.3 | 21.6 | 167   | 58.0 | 27.3 | 14.7 | 143   |
| 60세 이상    | 37.0 | 24.2 | 38.8 | 165   | 34.3 | 25.1 | 40.6 | 20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64.3 | 28.7 | 7.0  | 157   | 76.8 | 12.5 | 10.7 | 56    |
| 35-49세    | 59.9 | 28.8 | 11.3 | 566   | 62.4 | 30.5 | 7.1  | 210   |
| 50-64세    | 46.1 | 31.1 | 22.8 | 219   | 54.6 | 29.8 | 15.6 | 205   |
| 65세 이상    | 37.2 | 18.6 | 44.2 | 113   | 29.0 | 20.7 | 50.3 | 145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6.7 | 29.3 | 34.1 | 229   | 33.8 | 27.7 | 38.5 | 148   |
| 고졸        | 56.1 | 29.1 | 14.8 | 378   | 45.6 | 30.0 | 24.4 | 180   |
| 대재        | 63.9 | 26.9 | 9.2  | 119   | 63.7 | 26.4 | 9.9  | 91    |
| 대학졸업 이상   | 64.1 | 26.7 | 9.1  | 329   | 70.1 | 21.8 | 8.1  | 197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28.6 | 27.4 | 44.0 | 84    | 22.2 | 22.2 | 55.6 | 54    |
| 100-199만원 | 43.9 | 31.8 | 24.3 | 173   | 36.8 | 17.6 | 45.6 | 68    |
| 200-299만원 | 56.1 | 28.0 | 15.9 | 239   | 43.9 | 36.8 | 19.3 | 57    |
| 300-399만원 | 58.3 | 27.6 | 14.1 | 192   | 55.4 | 31.5 | 13.0 | 92    |
| 400-499만원 | 66.4 | 24.4 | 9.2  | 131   | 56.3 | 27.5 | 16.3 | 80    |
| 500만원 이상  | 64.4 | 28.4 | 7.2  | 222   | 65.7 | 25.2 | 9.1  | 230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59.9 | 25.4 | 14.7 | 327   | 60.1 | 25.2 | 14.7 | 143   |
| 중소도시      | 55.0 | 30.5 | 14.5 | 607   | 54.5 | 28.7 | 16.8 | 363   |
| 농어촌       | 44.2 | 23.3 | 32.5 | 120   | 40.2 | 18.7 | 41.1 | 107   |

〈부표 2-9〉 응답자 부친의 주관적 건강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42.3 | 30.2 | 27.5  | 338   | 40.9 | 38.6 | 20.5  | 220   |
| 여성        | 33.8 | 31.1 | 35.2  | 438   | 35.0 | 33.3 | 31.7  | 240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9.8 | 37.1 | 23.1  | 294   | 43.3 | 36.4 | 20.3  | 187   |
| 30-39세    | 36.6 | 31.5 | 31.9  | 279   | 42.7 | 36.6 | 20.6  | 131   |
| 40-49세    | 35.5 | 18.0 | 46.5  | 172   | 25.6 | 34.4 | 40.0  | 90    |
| 50-59세    | 35.7 | 35.7 | 28.6  | 28    | 28.9 | 37.8 | 33.3  | 45    |
| 60세 이상    | 33.3 | 0.0  | 66.7  | 3     | 14.3 | 14.3 | 71.4  | 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39.6 | 35.4 | 25.0  | 432   | 44.5 | 36.7 | 18.8  | 256   |
| 35-49세    | 34.8 | 24.0 | 41.2  | 313   | 30.3 | 34.9 | 34.9  | 152   |
| 50-64세    | 36.7 | 33.3 | 30.0  | 30    | 28.0 | 36.0 | 36.0  | 50    |
| 65세 이상    | 0.0  | 0.0  | 100.0 | 1     | 0.0  | 0.0  | 100.0 | 2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1.4 | 25.7 | 42.9  | 35    | 15.4 | 30.8 | 53.8  | 13    |
| 고졸        | 27.6 | 30.0 | 42.4  | 203   | 32.2 | 35.6 | 32.2  | 87    |
| 대재        | 43.3 | 33.0 | 23.7  | 270   | 36.8 | 35.6 | 27.6  | 163   |
| 대학졸업 이상   | 39.9 | 29.5 | 30.6  | 268   | 42.6 | 36.5 | 20.8  | 197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20.7 | 48.3 | 31.0  | 29    | 46.7 | 26.7 | 26.7  | 15    |
| 100-199만원 | 34.3 | 28.4 | 37.3  | 102   | 39.1 | 30.4 | 30.4  | 23    |
| 200-299만원 | 34.1 | 31.8 | 34.1  | 170   | 28.1 | 49.1 | 22.8  | 57    |
| 300-399만원 | 40.8 | 27.6 | 31.6  | 152   | 28.6 | 50.8 | 20.6  | 63    |
| 400-499만원 | 45.8 | 25.4 | 28.8  | 118   | 40.0 | 28.3 | 31.7  | 60    |
| 500만원 이상  | 38.6 | 30.4 | 31.0  | 184   | 43.6 | 30.3 | 26.2  | 195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7.9 | 32.4 | 29.7  | 290   | 38.7 | 33.7 | 27.6  | 163   |
| 중소도시      | 38.1 | 30.2 | 31.6  | 443   | 37.6 | 39.6 | 22.7  | 255   |
| 농어촌       | 27.9 | 23.3 | 48.8  | 43    | 37.5 | 20.0 | 42.5  | 40    |

〈부표 2-10〉 응답자 모친의 주관적 건강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30.0 | 35.1 | 34.9 | 484   | 31.7 | 35.5 | 32.8 | 290   |
| 여성        | 24.3 | 29.4 | 46.3 | 596   | 24.7 | 31.8 | 43.5 | 32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6.8 | 35.8 | 27.4 | 318   | 40.3 | 38.7 | 21.0 | 186   |
| 30-39세    | 23.9 | 36.2 | 39.9 | 356   | 29.0 | 38.3 | 32.7 | 162   |
| 40-49세    | 22.7 | 22.7 | 54.7 | 309   | 19.5 | 30.1 | 50.4 | 133   |
| 50-59세    | 19.0 | 36.7 | 44.3 | 79    | 20.6 | 26.5 | 52.9 | 102   |
| 60세 이상    | 16.7 | 16.7 | 66.7 | 18    | 9.7  | 16.1 | 74.2 | 31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33.2 | 36.3 | 30.5 | 485   | 38.0 | 38.8 | 23.2 | 263   |
| 35-49세    | 22.3 | 27.5 | 50.2 | 498   | 22.0 | 33.0 | 45.0 | 218   |
| 50-64세    | 20.0 | 33.3 | 46.7 | 90    | 18.4 | 24.8 | 56.8 | 125   |
| 65세 이상    | 0.0  | 28.6 | 71.4 | 7     | 12.5 | 12.5 | 75.0 | 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14.9 | 27.6 | 57.5 | 87    | 17.2 | 20.7 | 62.1 | 29    |
| 고졸        | 19.3 | 29.0 | 51.7 | 331   | 19.9 | 28.4 | 51.8 | 141   |
| 대재        | 36.3 | 35.0 | 28.7 | 314   | 31.8 | 33.3 | 34.9 | 192   |
| 대학졸업 이상   | 28.4 | 33.0 | 38.5 | 348   | 31.0 | 38.1 | 31.0 | 252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7.8  | 39.2 | 52.9 | 51    | 40.0 | 25.0 | 35.0 | 20    |
| 100-199만원 | 23.2 | 31.8 | 45.0 | 151   | 17.1 | 37.1 | 45.7 | 35    |
| 200-299만원 | 24.5 | 32.8 | 42.7 | 253   | 16.7 | 42.3 | 41.0 | 78    |
| 300-399만원 | 31.9 | 29.5 | 38.6 | 207   | 25.0 | 45.5 | 29.5 | 88    |
| 400-499만원 | 28.0 | 30.7 | 41.3 | 150   | 32.9 | 18.8 | 48.2 | 85    |
| 500만원 이상  | 30.7 | 30.3 | 39.0 | 241   | 30.6 | 32.2 | 37.3 | 255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8.8 | 32.8 | 38.4 | 372   | 34.7 | 34.2 | 31.1 | 193   |
| 중소도시      | 26.8 | 31.9 | 41.3 | 630   | 25.5 | 34.2 | 40.3 | 365   |
| 농어촌       | 17.9 | 28.2 | 53.8 | 78    | 22.2 | 24.1 | 53.7 | 54    |

〈부표 2-11〉 배우자의 부친의 주관적 건강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36.9 | 29.4 | 33.7  | 187   | 36.0 | 33.7 | 30.3  | 89    |
| 여성        | 37.1 | 27.7 | 35.2  | 213   | 40.6 | 25.5 | 34.0  | 10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7.9 | 34.5 | 27.6  | 29    | 58.3 | 16.7 | 25.0  | 12    |
| 30-39세    | 41.3 | 27.5 | 31.2  | 189   | 45.9 | 31.8 | 22.4  | 85    |
| 40-49세    | 34.0 | 30.1 | 35.9  | 153   | 29.4 | 26.5 | 44.1  | 68    |
| 50-59세    | 25.0 | 16.7 | 58.3  | 24    | 32.0 | 36.0 | 32.0  | 25    |
| 60세 이상    | 20.0 | 40.0 | 40.0  | 5     | 20.0 | 20.0 | 60.0  | 5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48.2 | 24.6 | 27.2  | 114   | 55.3 | 23.4 | 21.3  | 47    |
| 35-49세    | 33.5 | 31.1 | 35.4  | 257   | 33.9 | 30.5 | 35.6  | 118   |
| 50-64세    | 25.9 | 22.2 | 51.9  | 27    | 28.6 | 35.7 | 35.7  | 28    |
| 65세 이상    | 0.0  | 0.0  | 100.0 | 2     | 50.0 | 0.0  | 50.0  | 2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2.7 | 27.3 | 50.0  | 22    | 16.7 | 50.0 | 33.3  | 6     |
| 고졸        | 30.3 | 28.0 | 41.7  | 132   | 25.6 | 33.3 | 41.0  | 39    |
| 대재        | 39.1 | 29.7 | 31.3  | 64    | 36.0 | 32.0 | 32.0  | 50    |
| 대학졸업 이상   | 42.9 | 28.6 | 28.6  | 182   | 46.0 | 25.0 | 29.0  | 10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3.3 | 0.0  | 66.7  | 3     | 0.0  | 0.0  | 100.0 | 1     |
| 100-199만원 | 35.3 | 23.5 | 41.2  | 51    | 37.5 | 25.0 | 37.5  | 8     |
| 200-299만원 | 36.1 | 29.9 | 34.0  | 97    | 38.1 | 47.6 | 14.3  | 21    |
| 300-399만원 | 37.8 | 22.2 | 40.0  | 90    | 30.8 | 38.5 | 30.8  | 39    |
| 400-499만원 | 43.1 | 34.5 | 22.4  | 58    | 37.5 | 25.0 | 37.5  | 32    |
| 500만원 이상  | 34.4 | 31.3 | 34.4  | 96    | 42.0 | 25.0 | 33.0  | 88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8.4 | 30.4 | 31.2  | 138   | 37.3 | 27.1 | 35.6  | 59    |
| 중소도시      | 35.0 | 27.9 | 37.1  | 240   | 39.7 | 31.0 | 29.3  | 116   |
| 농어촌       | 50.0 | 22.7 | 27.3  | 22    | 35.0 | 25.0 | 40.0  | 20    |

〈부표 2-12〉 배우자의 모친의 주관적 건강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31.1 | 26.5 | 42.4 | 302   | 26.6 | 31.5 | 42.0 | 143   |
| 여성        | 26.7 | 29.5 | 43.8 | 397   | 25.1 | 28.7 | 46.1 | 167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6.8 | 39.5 | 23.7 | 38    | 30.8 | 46.2 | 23.1 | 13    |
| 30-39세    | 31.8 | 29.9 | 38.3 | 274   | 35.6 | 26.7 | 37.8 | 90    |
| 40-49세    | 27.3 | 27.3 | 45.5 | 286   | 18.0 | 42.0 | 40.0 | 100   |
| 50-59세    | 19.7 | 22.4 | 57.9 | 76    | 21.8 | 20.5 | 57.7 | 78    |
| 60세 이상    | 24.0 | 20.0 | 56.0 | 25    | 31.0 | 17.2 | 51.7 | 29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38.8 | 29.3 | 32.0 | 147   | 35.4 | 39.6 | 25.0 | 48    |
| 35-49세    | 27.1 | 29.3 | 43.7 | 451   | 23.9 | 34.2 | 41.9 | 155   |
| 50-64세    | 22.0 | 22.0 | 56.0 | 91    | 21.3 | 20.2 | 58.5 | 94    |
| 65세 이상    | 10.0 | 20.0 | 70.0 | 10    | 46.2 | 15.4 | 38.5 | 13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17.6 | 20.6 | 61.8 | 68    | 19.0 | 23.8 | 57.1 | 21    |
| 고졸        | 24.1 | 29.5 | 46.4 | 261   | 24.1 | 31.0 | 44.8 | 87    |
| 대재        | 32.6 | 30.4 | 37.0 | 92    | 16.9 | 32.3 | 50.8 | 65    |
| 대학졸업 이상   | 34.2 | 28.1 | 37.8 | 278   | 32.1 | 29.2 | 38.7 | 137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11.1 | 5.6  | 83.3 | 18    | 28.6 | 0.0  | 71.4 | 7     |
| 100-199만원 | 27.3 | 23.2 | 49.5 | 99    | 22.2 | 22.2 | 55.6 | 18    |
| 200-299만원 | 24.5 | 31.3 | 44.2 | 163   | 22.6 | 38.7 | 38.7 | 31    |
| 300-399만원 | 27.9 | 32.4 | 39.7 | 136   | 20.4 | 36.7 | 42.9 | 49    |
| 400-499만원 | 27.5 | 30.4 | 42.2 | 102   | 24.5 | 24.5 | 51.0 | 49    |
| 500만원 이상  | 36.8 | 24.7 | 38.5 | 174   | 29.0 | 31.0 | 40.0 | 145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1.5 | 29.4 | 39.1 | 235   | 23.8 | 36.9 | 39.3 | 84    |
| 중소도시      | 27.4 | 28.6 | 44.0 | 409   | 27.5 | 28.6 | 43.9 | 189   |
| 농어촌       | 25.5 | 20.0 | 54.5 | 55    | 22.9 | 22.9 | 54.3 | 35    |

### 3. 가족주의 결혼에 대한 태도

〈부표 3-1〉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b>성별</b>      |      |      |      |       |      |      |      |       |
| 남성             | 41.7 | 40.1 | 18.2 | 713   | 33.6 | 47.3 | 19.1 | 476   |
| 여성             | 44.8 | 38.2 | 17.0 | 888   | 36.1 | 42.3 | 21.6 | 574   |
| <b>연령(1)</b>   |      |      |      |       |      |      |      |       |
| 18-29세         | 25.6 | 49.7 | 24.7 | 328   | 15.0 | 58.8 | 26.3 | 194   |
| 30-39세         | 36.3 | 45.0 | 18.8 | 389   | 24.7 | 50.0 | 25.3 | 174   |
| 40-49세         | 40.2 | 40.9 | 18.9 | 418   | 24.7 | 52.4 | 22.9 | 170   |
| 50-59세         | 59.7 | 29.6 | 10.7 | 196   | 37.3 | 44.6 | 18.1 | 177   |
| 60세 이상         | 68.5 | 21.5 | 10.0 | 270   | 55.8 | 29.6 | 14.6 | 335   |
| <b>연령(2)</b>   |      |      |      |       |      |      |      |       |
| 18-34세         | 28.5 | 47.7 | 23.8 | 501   | 17.1 | 57.5 | 25.5 | 275   |
| 35-49세         | 39.4 | 42.6 | 18.0 | 634   | 25.5 | 50.2 | 24.3 | 263   |
| 50-64세         | 60.3 | 27.3 | 12.4 | 267   | 40.0 | 43.5 | 16.5 | 255   |
| 65세 이상         | 70.9 | 21.6 | 7.5  | 199   | 58.8 | 26.1 | 15.2 | 257   |
| <b>학력</b>      |      |      |      |       |      |      |      |       |
| 고졸 미만          | 66.3 | 23.4 | 10.3 | 350   | 56.8 | 24.6 | 18.6 | 264   |
| 고졸             | 45.2 | 37.0 | 17.8 | 460   | 37.5 | 41.1 | 21.4 | 248   |
| 대재             | 30.4 | 49.0 | 20.6 | 359   | 18.8 | 55.5 | 25.7 | 218   |
| 대학졸업 이상        | 33.3 | 45.9 | 20.9 | 427   | 25.9 | 56.3 | 17.8 | 320   |
| <b>월평균가구소득</b>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3.0 | 28.1 | 8.9  | 192   | 54.3 | 31.8 | 13.9 | 151   |
| 100-199만원      | 48.0 | 34.6 | 17.5 | 269   | 41.9 | 31.4 | 26.7 | 105   |
| 200-299만원      | 43.6 | 40.3 | 16.1 | 330   | 33.9 | 47.2 | 18.9 | 127   |
| 300-399만원      | 34.7 | 46.1 | 19.2 | 271   | 28.9 | 43.7 | 27.4 | 135   |
| 400-499만원      | 41.8 | 34.1 | 24.2 | 182   | 29.5 | 50.0 | 20.5 | 112   |
| 500만원 이상       | 34.6 | 45.1 | 20.3 | 306   | 29.2 | 50.0 | 20.8 | 332   |
| <b>지역</b>      |      |      |      |       |      |      |      |       |
| 대도시            | 40.6 | 40.4 | 19.1 | 513   | 29.4 | 52.1 | 18.4 | 282   |
| 중소도시           | 42.8 | 40.0 | 17.2 | 901   | 31.5 | 46.7 | 21.8 | 578   |
| 농어촌            | 53.8 | 31.2 | 15.1 | 186   | 53.5 | 26.7 | 19.8 | 187   |

〈부표 3-2〉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8.1  | 9.7  | 82.2 | 713   | 17.2 | 15.8 | 67.0 | 476   |
| 여성        | 12.5 | 13.5 | 74.0 | 889   | 24.4 | 17.7 | 57.9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2.5 | 20.1 | 67.4 | 328   | 26.8 | 26.3 | 46.9 | 194   |
| 30-39세    | 12.1 | 15.7 | 72.2 | 389   | 23.6 | 26.4 | 50.0 | 174   |
| 40-49세    | 9.6  | 11.2 | 79.2 | 418   | 22.9 | 20.6 | 56.5 | 170   |
| 50-59세    | 11.7 | 5.6  | 82.7 | 196   | 20.3 | 14.1 | 65.5 | 177   |
| 60세 이상    | 6.7  | 1.5  | 91.9 | 271   | 16.1 | 6.0  | 78.0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1.4 | 20.0 | 68.7 | 501   | 26.2 | 28.7 | 45.1 | 275   |
| 35-49세    | 11.2 | 11.7 | 77.1 | 634   | 22.8 | 20.2 | 57.0 | 263   |
| 50-64세    | 10.1 | 5.2  | 84.7 | 268   | 16.5 | 13.3 | 70.2 | 255   |
| 65세 이상    | 7.0  | 0.5  | 92.5 | 199   | 18.6 | 4.3  | 77.1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10.0 | 2.9  | 87.1 | 350   | 21.1 | 5.7  | 73.2 | 265   |
| 고졸        | 10.9 | 11.7 | 77.5 | 461   | 21.0 | 13.3 | 65.7 | 248   |
| 대재        | 10.3 | 16.4 | 73.3 | 359   | 26.2 | 24.3 | 49.5 | 218   |
| 대학졸업 이상   | 11.0 | 15.5 | 73.5 | 427   | 17.8 | 23.8 | 58.4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13.5 | 4.2  | 82.4 | 193   | 22.4 | 7.2  | 70.4 | 152   |
| 100-199만원 | 11.2 | 7.8  | 81   | 269   | 19.1 | 9.5  | 71.4 | 105   |
| 200-299만원 | 7.3  | 15.2 | 77.6 | 330   | 27.6 | 17.3 | 55.1 | 127   |
| 300-399만원 | 10.4 | 13.7 | 76   | 271   | 20.7 | 16.3 | 63.0 | 135   |
| 400-499만원 | 13.8 | 13.7 | 72.5 | 182   | 22.3 | 17.9 | 59.8 | 112   |
| 500만원 이상  | 9.4  | 12.4 | 78.2 | 306   | 17.8 | 23.2 | 59.0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9.9  | 13.3 | 76.8 | 513   | 22.0 | 19.2 | 58.9 | 282   |
| 중소도시      | 11.4 | 12.5 | 76.1 | 902   | 20.9 | 18.5 | 60.6 | 579   |
| 농어촌       | 8.1  | 4.3  | 87.6 | 186   | 20.9 | 8.6  | 70.6 | 187   |

〈부표 3-3〉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64.6 | 22.5 | 12.9 | 712   | 49.8 | 30.9 | 19.3 | 476   |
| 여성        | 62.3 | 24.7 | 13.1 | 888   | 52.4 | 31.5 | 16.2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51.2 | 34.8 | 14.0 | 328   | 39.7 | 45.4 | 15.0 | 194   |
| 30-39세    | 56.2 | 28.1 | 15.7 | 388   | 48.9 | 34.5 | 16.7 | 174   |
| 40-49세    | 64.6 | 22.5 | 12.9 | 418   | 45.9 | 34.7 | 19.4 | 170   |
| 50-59세    | 74.0 | 14.8 | 11.2 | 196   | 51.4 | 24.9 | 23.7 | 177   |
| 60세 이상    | 78.5 | 12.2 | 9.3  | 270   | 61.6 | 22.9 | 15.5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52.1 | 33.3 | 14.6 | 501   | 44.4 | 42.2 | 13.5 | 275   |
| 35-49세    | 62.4 | 23.7 | 13.9 | 633   | 44.9 | 34.6 | 20.5 | 263   |
| 50-64세    | 74.3 | 13.8 | 11.9 | 268   | 52.6 | 23.9 | 23.5 | 255   |
| 65세 이상    | 79.8 | 12.6 | 7.6  | 198   | 63.6 | 23.3 | 13.2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3.4 | 13.8 | 12.9 | 349   | 61.9 | 22.6 | 15.5 | 265   |
| 고졸        | 62.8 | 21.7 | 15.4 | 460   | 47.6 | 27.4 | 25.0 | 248   |
| 대재        | 54.6 | 34.3 | 11.1 | 359   | 42.7 | 37.6 | 19.7 | 218   |
| 대학졸업 이상   | 62.8 | 25.3 | 11.9 | 427   | 50.9 | 36.9 | 12.2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73.4 | 15.1 | 11.5 | 192   | 59.2 | 29.0 | 11.8 | 152   |
| 100-199만원 | 64.1 | 22.3 | 13.8 | 269   | 54.3 | 21.0 | 24.8 | 105   |
| 200-299만원 | 63.3 | 23.6 | 13   | 330   | 50.4 | 28.4 | 21.3 | 127   |
| 300-399만원 | 55.3 | 28.9 | 16   | 270   | 54.1 | 28.2 | 17.8 | 135   |
| 400-499만원 | 64.3 | 24.7 | 11.1 | 182   | 41.1 | 34.8 | 24.1 | 112   |
| 500만원 이상  | 63   | 23.5 | 13.4 | 306   | 48.8 | 34.3 | 16.9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61.7 | 26.4 | 11.9 | 512   | 51.1 | 35.8 | 13.1 | 282   |
| 중소도시      | 62.0 | 24.3 | 13.7 | 901   | 48.9 | 31.3 | 19.9 | 579   |
| 농어촌       | 73.7 | 13.4 | 12.9 | 186   | 57.8 | 24.6 | 17.7 | 187   |

〈부표 3-4〉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59.4 | 24.7 | 15.9 | 712   | 46.4 | 33.4 | 20.2 | 476   |
| 여성        | 55.2 | 27.1 | 17.7 | 887   | 46.4 | 32.7 | 20.9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46.6 | 35.4 | 18.0 | 328   | 38.1 | 44.9 | 17.0 | 194   |
| 30-39세    | 49.1 | 31.1 | 19.8 | 389   | 37.4 | 40.8 | 21.8 | 174   |
| 40-49세    | 57.1 | 25.4 | 17.5 | 417   | 38.2 | 36.5 | 25.3 | 170   |
| 50-59세    | 67.2 | 17.4 | 15.4 | 195   | 45.8 | 28.8 | 25.4 | 177   |
| 60세 이상    | 74.1 | 14.4 | 11.5 | 270   | 60.4 | 22.6 | 17.0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46.7 | 34.9 | 18.4 | 501   | 40.4 | 41.8 | 17.8 | 275   |
| 35-49세    | 55.0 | 26.5 | 18.5 | 633   | 35.4 | 39.9 | 24.7 | 263   |
| 50-64세    | 67.8 | 16.5 | 15.7 | 267   | 47.8 | 26.7 | 25.5 | 255   |
| 65세 이상    | 75.8 | 14.7 | 9.6  | 198   | 62.8 | 22.9 | 14.3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68.5 | 16.3 | 15.2 | 349   | 58.9 | 24.5 | 16.6 | 265   |
| 고졸        | 55.9 | 23.5 | 20.7 | 460   | 44.8 | 29.0 | 26.2 | 248   |
| 대재        | 48.0 | 37.7 | 14.3 | 358   | 37.6 | 41.3 | 21.1 | 218   |
| 대학졸업 이상   | 56.4 | 27.2 | 16.4 | 427   | 43.4 | 37.5 | 19.1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9.3 | 18.8 | 12   | 192   | 55.3 | 31.6 | 13.2 | 152   |
| 100-199만원 | 56.5 | 23.1 | 20.5 | 269   | 48.6 | 24.8 | 26.7 | 105   |
| 200-299만원 | 54.6 | 27.6 | 17.9 | 330   | 38.6 | 36.2 | 25.2 | 127   |
| 300-399만원 | 49.5 | 32.5 | 18.1 | 271   | 48.9 | 27.4 | 23.7 | 135   |
| 400-499만원 | 57.4 | 28.2 | 14.4 | 181   | 36.6 | 39.3 | 24.1 | 112   |
| 500만원 이상  | 59.7 | 22.3 | 18   | 305   | 45.5 | 34.6 | 19.9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55.7 | 29.1 | 15.2 | 512   | 41.8 | 40.4 | 17.7 | 282   |
| 중소도시      | 56.1 | 26.2 | 17.7 | 900   | 46.8 | 31.6 | 21.6 | 579   |
| 농어촌       | 66.1 | 16.7 | 17.2 | 186   | 52.4 | 26.2 | 21.4 | 187   |

〈부표 3-5〉 결혼 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22.5 | 14.5 | 63.1 | 712   | 31.5 | 16.6 | 51.9 | 476   |
| 여성        | 21.0 | 12.2 | 66.8 | 885   | 29.4 | 13.9 | 56.7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5.4 | 18.0 | 46.7 | 328   | 38.7 | 20.1 | 41.2 | 194   |
| 30-39세    | 24.7 | 16.5 | 58.9 | 389   | 48.9 | 13.2 | 37.9 | 174   |
| 40-49세    | 18.5 | 11.8 | 69.7 | 416   | 34.7 | 20.0 | 45.3 | 170   |
| 50-59세    | 13.3 | 6.2  | 80.5 | 195   | 26.0 | 12.4 | 61.6 | 177   |
| 60세 이상    | 11.5 | 10.0 | 78.4 | 269   | 16.1 | 12.2 | 71.7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32.3 | 17.4 | 50.3 | 501   | 40.0 | 17.8 | 42.2 | 275   |
| 35-49세    | 20.1 | 13.5 | 66.5 | 632   | 41.4 | 17.9 | 40.7 | 263   |
| 50-64세    | 12.4 | 6.0  | 81.7 | 267   | 22.8 | 12.6 | 64.7 | 255   |
| 65세 이상    | 12.2 | 11.7 | 76.1 | 197   | 16.3 | 12.0 | 71.7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16.4 | 10.1 | 73.6 | 348   | 20.8 | 14.0 | 65.3 | 265   |
| 고졸        | 19.4 | 10.7 | 69.9 | 459   | 25.0 | 9.7  | 65.3 | 248   |
| 대재        | 32.4 | 15.6 | 52.0 | 358   | 38.5 | 20.6 | 40.8 | 218   |
| 대학졸업 이상   | 19.7 | 16.6 | 63.7 | 427   | 36.9 | 16.6 | 46.6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21.9 | 12   | 66.2 | 192   | 26.3 | 14.5 | 59.2 | 152   |
| 100-199만원 | 22.0 | 10.1 | 68   | 268   | 19.1 | 17.1 | 63.8 | 105   |
| 200-299만원 | 19.8 | 14.3 | 66   | 329   | 37.0 | 11.0 | 52.0 | 127   |
| 300-399만원 | 23.7 | 14   | 62.4 | 271   | 34.1 | 10.4 | 55.6 | 135   |
| 400-499만원 | 18.3 | 14.4 | 67.4 | 181   | 33.9 | 11.6 | 54.5 | 112   |
| 500만원 이상  | 23.6 | 12.8 | 63.6 | 305   | 31.0 | 18.7 | 50.3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1.9 | 13.9 | 64.3 | 512   | 28.4 | 16.7 | 55.0 | 282   |
| 중소도시      | 22.3 | 13.4 | 64.4 | 899   | 32.3 | 15.9 | 51.8 | 579   |
| 농어촌       | 18.4 | 10.8 | 70.8 | 185   | 26.7 | 10.7 | 62.6 | 187   |

〈부표 3-6〉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58.6 | 13.1 | 28.2 | 708   | 57.6 | 18.1 | 24.4 | 476   |
| 여성        | 53.5 | 14.6 | 31.8 | 889   | 52.4 | 16.4 | 31.2 | 574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45.3 | 15.9 | 38.8 | 327   | 45.9 | 21.1 | 33.0 | 194   |
| 30-39세    | 46.5 | 16.5 | 37.0 | 389   | 45.4 | 19.0 | 35.6 | 174   |
| 40-49세    | 62.7 | 11.8 | 25.5 | 416   | 54.1 | 17.7 | 28.2 | 170   |
| 50-59세    | 60.2 | 11.2 | 28.6 | 196   | 55.4 | 15.3 | 29.4 | 177   |
| 60세 이상    | 68.0 | 13.4 | 18.6 | 269   | 64.8 | 14.6 | 20.6 | 335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44.4 | 16.0 | 39.6 | 500   | 45.8 | 19.6 | 34.6 | 275   |
| 35-49세    | 58.2 | 13.5 | 28.3 | 632   | 51.0 | 19.0 | 30.0 | 263   |
| 50-64세    | 62.3 | 11.6 | 26.1 | 268   | 59.6 | 14.5 | 25.9 | 255   |
| 65세 이상    | 68.0 | 13.7 | 18.3 | 197   | 63.4 | 15.2 | 21.4 | 257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66.3 | 14.3 | 19.4 | 350   | 63.3 | 15.9 | 20.8 | 264   |
| 고졸        | 57.8 | 11.1 | 31.1 | 460   | 52.8 | 14.1 | 33.1 | 248   |
| 대재        | 47.2 | 17.3 | 35.5 | 358   | 50.9 | 20.2 | 28.9 | 218   |
| 대학졸업 이상   | 52.4 | 13.9 | 33.7 | 424   | 51.9 | 18.4 | 29.7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63.5 | 16.7 | 19.8 | 192   | 61.8 | 14.5 | 23.7 | 152   |
| 100-199만원 | 57.1 | 13.1 | 29.9 | 268   | 60.0 | 14.3 | 25.7 | 105   |
| 200-299만원 | 53.7 | 14.6 | 31.9 | 330   | 56.7 | 17.3 | 26.0 | 127   |
| 300-399만원 | 53.7 | 14.1 | 32.3 | 270   | 51.9 | 19.3 | 28.9 | 135   |
| 400-499만원 | 56.6 | 12.2 | 31.1 | 180   | 61.6 | 9.8  | 28.6 | 112   |
| 500만원 이상  | 53.7 | 12.4 | 34   | 306   | 50.3 | 18.4 | 31.3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52.3 | 13.7 | 34.1 | 511   | 52.1 | 17.4 | 30.5 | 282   |
| 중소도시      | 57.1 | 13.6 | 29.4 | 899   | 54.8 | 18.0 | 27.2 | 578   |
| 농어촌       | 59.7 | 16.1 | 24.2 | 186   | 57.8 | 14.4 | 27.8 | 187   |

〈부표 3-7〉 부부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36.1 | 14.4 | 49.5 | 711   | 45.8 | 18.5 | 35.7 | 476   |
| 여성        | 38.5 | 15.5 | 46.0 | 889   | 46.6 | 19.5 | 33.9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7.8 | 19.8 | 42.4 | 328   | 45.9 | 21.1 | 33.0 | 194   |
| 30-39세    | 36.5 | 18.5 | 45.0 | 389   | 53.5 | 22.4 | 24.1 | 174   |
| 40-49세    | 36.5 | 12.5 | 51.1 | 417   | 49.4 | 25.3 | 25.3 | 170   |
| 50-59세    | 47.0 | 12.2 | 40.8 | 196   | 53.7 | 12.4 | 33.9 | 177   |
| 60세 이상    | 33.0 | 10.0 | 57.0 | 270   | 37.2 | 16.4 | 46.4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35.7 | 19.8 | 44.5 | 501   | 47.6 | 21.8 | 30.6 | 275   |
| 35-49세    | 37.8 | 14.2 | 48.0 | 633   | 51.3 | 24.0 | 24.7 | 263   |
| 50-64세    | 42.2 | 10.8 | 47.0 | 268   | 48.2 | 12.6 | 39.2 | 255   |
| 65세 이상    | 34.4 | 11.1 | 54.6 | 198   | 37.6 | 17.4 | 45.0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9.3 | 11.2 | 49.6 | 349   | 35.5 | 19.3 | 45.3 | 265   |
| 고졸        | 36.9 | 13.0 | 50.1 | 461   | 48.4 | 22.2 | 29.4 | 248   |
| 대재        | 38.0 | 17.3 | 44.7 | 358   | 46.8 | 22.5 | 30.7 | 218   |
| 대학졸업 이상   | 36.5 | 18.3 | 45.2 | 427   | 53.1 | 14.1 | 32.8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4.9 | 12.5 | 52.6 | 192   | 35.5 | 17.8 | 46.7 | 152   |
| 100-199만원 | 40.5 | 12.3 | 47.3 | 269   | 46.7 | 18.1 | 35.2 | 105   |
| 200-299만원 | 34.3 | 14.6 | 51.2 | 330   | 52.0 | 22.8 | 25.2 | 127   |
| 300-399만원 | 40.2 | 15.5 | 44.3 | 271   | 49.6 | 20.7 | 29.6 | 135   |
| 400-499만원 | 38.1 | 18.2 | 43.7 | 181   | 49.1 | 15.2 | 35.7 | 112   |
| 500만원 이상  | 37.2 | 16.3 | 46.4 | 306   | 50.0 | 17.2 | 32.8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7.3 | 18.4 | 44.3 | 512   | 47.2 | 19.2 | 33.7 | 282   |
| 중소도시      | 37.7 | 13.5 | 48.8 | 902   | 47.3 | 19.2 | 33.5 | 579   |
| 농어촌       | 36.8 | 12.4 | 50.8 | 185   | 41.2 | 18.7 | 40.1 | 187   |

〈부표 3-8〉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82.4 | 7.7  | 9.8  | 712   | 75.0 | 15.6 | 9.5  | 476   |
| 여성        | 85.7 | 6.2  | 8.1  | 888   | 80.7 | 9.9  | 9.4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79.0 | 10.7 | 10.3 | 328   | 62.4 | 22.7 | 15.0 | 194   |
| 30-39세    | 86.6 | 5.7  | 7.7  | 389   | 71.3 | 15.5 | 13.2 | 174   |
| 40-49세    | 82.0 | 6.2  | 11.8 | 418   | 83.5 | 8.8  | 7.7  | 170   |
| 50-59세    | 84.2 | 7.1  | 8.6  | 196   | 81.4 | 7.9  | 10.7 | 177   |
| 60세 이상    | 90.8 | 4.8  | 4.5  | 269   | 86.3 | 9.2  | 4.5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80.5 | 9.4  | 10.2 | 501   | 63.6 | 22.6 | 13.8 | 275   |
| 35-49세    | 84.6 | 5.7  | 9.8  | 634   | 80.6 | 9.1  | 10.3 | 263   |
| 50-64세    | 85.5 | 6.0  | 8.6  | 268   | 82.4 | 9.0  | 8.6  | 255   |
| 65세 이상    | 91.3 | 5.6  | 3.0  | 197   | 86.8 | 8.5  | 4.7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86.2 | 5.4  | 8.4  | 513   | 83.0 | 9.8  | 7.2  | 265   |
| 고졸        | 84.6 | 7.6  | 7.8  | 424   | 83.9 | 10.5 | 5.7  | 248   |
| 대재        | 82.5 | 6.7  | 10.9 | 477   | 67.4 | 16.5 | 16.1 | 218   |
| 대학졸업 이상   | 83.6 | 7.5  | 8.9  | 174   | 76.9 | 13.4 | 9.7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5.4 | 5.2  | 9.4  | 193   | 81.6 | 11.8 | 6.6  | 152   |
| 100-199만원 | 82.4 | 8.2  | 9.4  | 268   | 81.0 | 12.4 | 6.7  | 105   |
| 200-299만원 | 86.3 | 6.1  | 7.6  | 329   | 70.9 | 18.1 | 11.0 | 127   |
| 300-399만원 | 81.9 | 8.1  | 10.0 | 271   | 83.7 | 7.4  | 8.9  | 135   |
| 400-499만원 | 89.0 | 5.0  | 6.0  | 182   | 68.8 | 16.1 | 15.2 | 112   |
| 500만원 이상  | 83.4 | 6.9  | 9.8  | 306   | 81.3 | 9.6  | 9.0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83.6 | 7.4  | 9.0  | 513   | 73.1 | 15.3 | 11.7 | 282   |
| 중소도시      | 84.9 | 6.9  | 8.2  | 901   | 78.9 | 11.2 | 9.8  | 579   |
| 농어촌       | 83.2 | 5.4  | 11.4 | 185   | 82.9 | 12.3 | 4.8  | 187   |

<부표 3-9>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76.1 | 13.4 | 10.6 | 711   | 63.0 | 20.0 | 17.0 | 476   |
| 여성        | 73.6 | 13.8 | 12.7 | 885   | 64.4 | 16.4 | 19.3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68.5 | 19.3 | 12.2 | 327   | 59.3 | 21.7 | 19.1 | 194   |
| 30-39세    | 70.2 | 15.2 | 14.7 | 389   | 50.6 | 23.6 | 25.9 | 174   |
| 40-49세    | 74.1 | 12.3 | 13.6 | 416   | 58.2 | 20.6 | 21.2 | 170   |
| 50-59세    | 82.6 | 9.7  | 7.7  | 196   | 61.6 | 15.3 | 23.2 | 177   |
| 60세 이상    | 84.0 | 9.3  | 6.7  | 268   | 77.1 | 13.1 | 9.8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69.4 | 16.8 | 13.8 | 500   | 55.6 | 22.2 | 22.2 | 275   |
| 35-49세    | 72.6 | 14.1 | 13.5 | 632   | 56.7 | 21.7 | 21.7 | 263   |
| 50-64세    | 81.1 | 10.1 | 9    | 268   | 65.1 | 15.3 | 19.6 | 255   |
| 65세 이상    | 86.7 | 8.7  | 4.6  | 196   | 78.3 | 12.4 | 9.3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80.2 | 12.1 | 7.7  | 348   | 75.5 | 12.5 | 12.1 | 265   |
| 고졸        | 76.3 | 13.3 | 10.5 | 459   | 62.5 | 19.4 | 18.2 | 248   |
| 대재        | 66.3 | 18.4 | 15.4 | 358   | 60.1 | 20.2 | 19.7 | 218   |
| 대학졸업 이상   | 75.9 | 11.0 | 13.2 | 426   | 57.5 | 20.0 | 22.5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78.6 | 13.5 | 7.8  | 192   | 73.7 | 14.5 | 11.8 | 152   |
| 100-199만원 | 71.3 | 13.9 | 15   | 267   | 73.3 | 13.3 | 13.3 | 105   |
| 200-299만원 | 75.8 | 13.7 | 10.6 | 329   | 58.3 | 20.5 | 21.3 | 127   |
| 300-399만원 | 72.7 | 15.2 | 12.2 | 270   | 70.4 | 15.6 | 14.1 | 135   |
| 400-499만원 | 80.2 | 12.6 | 7.2  | 182   | 55.4 | 22.3 | 22.3 | 112   |
| 500만원 이상  | 73.1 | 12.8 | 14.1 | 305   | 57.8 | 18.7 | 23.5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74.9 | 14.0 | 11.1 | 513   | 63.5 | 17.0 | 19.5 | 282   |
| 중소도시      | 74.6 | 13.5 | 11.9 | 899   | 61.8 | 18.8 | 19.3 | 579   |
| 농어촌       | 74.3 | 13.1 | 12.6 | 183   | 69.5 | 17.1 | 13.4 | 187   |

〈부표 3-10〉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63.7 | 19.3 | 17.0 | 711   | 42.7 | 26.5 | 30.9 | 476   |
| 여성        | 51.0 | 20.6 | 28.4 | 888   | 39.3 | 21.0 | 39.7 | 57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46.2 | 27.8 | 26.0 | 327   | 24.7 | 29.9 | 45.4 | 194   |
| 30-39세    | 40.1 | 26.5 | 33.4 | 389   | 21.8 | 25.9 | 52.3 | 174   |
| 40-49세    | 54.3 | 20.3 | 25.4 | 418   | 24.7 | 33.5 | 41.8 | 170   |
| 50-59세    | 69.2 | 12.8 | 18.0 | 195   | 37.3 | 24.3 | 38.4 | 177   |
| 60세 이상    | 87.8 | 5.9  | 6.3  | 270   | 69.9 | 13.1 | 17.0 | 336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43.8 | 27.4 | 28.8 | 500   | 23.6 | 29.5 | 46.9 | 275   |
| 35-49세    | 49.7 | 22.4 | 27.9 | 634   | 24.0 | 30.0 | 46.0 | 263   |
| 50-64세    | 73.0 | 11.2 | 15.7 | 267   | 42.0 | 23.5 | 34.5 | 255   |
| 65세 이상    | 89.4 | 5.6  | 5.1  | 198   | 75.2 | 10.5 | 14.3 | 258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82.2 | 7.5  | 10.3 | 349   | 71.3 | 12.5 | 16.2 | 265   |
| 고졸        | 57.0 | 18.9 | 24.1 | 460   | 39.5 | 22.6 | 37.9 | 248   |
| 대재        | 49.2 | 26.3 | 24.6 | 358   | 26.2 | 25.2 | 48.6 | 218   |
| 대학졸업 이상   | 41.2 | 26.5 | 32.3 | 427   | 26.6 | 32.2 | 41.3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0.8 | 8.8  | 10.4 | 193   | 69.1 | 16.5 | 14.5 | 152   |
| 100-199만원 | 63.7 | 14.6 | 21.7 | 267   | 53.3 | 16.2 | 30.5 | 105   |
| 200-299만원 | 52.6 | 23.7 | 23.7 | 329   | 37.8 | 18.9 | 43.3 | 127   |
| 300-399만원 | 55.7 | 20.7 | 23.6 | 271   | 38.5 | 21.5 | 40.0 | 135   |
| 400-499만원 | 49.5 | 23.6 | 26.9 | 182   | 30.4 | 24.1 | 45.5 | 112   |
| 500만원 이상  | 44.5 | 24.8 | 30.7 | 306   | 28.6 | 30.1 | 41.3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54.4 | 24.0 | 21.6 | 513   | 34.4 | 23.1 | 42.6 | 282   |
| 중소도시      | 54.5 | 19.8 | 25.7 | 899   | 36.4 | 26.6 | 37.0 | 579   |
| 농어촌       | 73.1 | 10.2 | 16.7 | 186   | 63.6 | 14.4 | 21.9 | 187   |

<부표 3-11>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자녀 훈육과 교육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계 (N) |
|-----------|-------|-------|---------|---------|---------|-------------|-------|
|           | 항상 내가 | 대개 내가 | 부부가 똑같이 | 대개 배우자가 | 항상 배우자가 | 가족 중 다른 사람이 |       |
| 성별        |       |       |         |         |         |             |       |
| 남성        | 7.1   | 13.7  | 44.0    | 28.0    | 6.8     | 0.5         | 439   |
| 여성        | 13.3  | 36.1  | 40.1    | 7.4     | 2.7     | 0.4         | 551   |
| 연령(1)     |       |       |         |         |         |             |       |
| 18-29세    | 22.7  | 18.2  | 45.5    | 9.1     | 0.0     | 4.6         | 22    |
| 30-39세    | 8.5   | 34.6  | 43.0    | 12.1    | 1.8     | 0.0         | 272   |
| 40-49세    | 8.3   | 25.9  | 43.1    | 19.0    | 3.7     | 0.0         | 374   |
| 50-59세    | 13.5  | 20.9  | 39.3    | 20.9    | 4.9     | 0.6         | 163   |
| 60세 이상    | 14.5  | 18.9  | 39.0    | 15.1    | 11.3    | 1.3         | 159   |
| 연령(2)     |       |       |         |         |         |             |       |
| 18-34세    | 11.0  | 33.1  | 46.6    | 6.8     | 1.7     | 0.9         | 22    |
| 35-49세    | 8.4   | 28.4  | 42.4    | 17.8    | 3.1     | 0.0         | 272   |
| 50-64세    | 12.6  | 20.9  | 39.1    | 19.5    | 7.4     | 0.5         | 374   |
| 65세 이상    | 16.8  | 17.8  | 39.3    | 15.0    | 9.4     | 1.9         | 163   |
| 학력        |       |       |         |         |         |             |       |
| 고졸 미만     | 14.6  | 17.8  | 38.8    | 16.9    | 11.0    | 0.9         | 219   |
| 고졸        | 12.0  | 30.2  | 41.1    | 14.0    | 2.8     | 0.0         | 358   |
| 대재        | 5.5   | 38.2  | 40.0    | 13.6    | 1.8     | 0.9         | 110   |
| 대학졸업 이상   | 7.6   | 23.1  | 45.5    | 20.5    | 3.0     | 0.3         | 303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100만원 미만  | 16.9  | 14.3  | 36.4    | 22.1    | 9.1     | 1.3         | 77    |
| 100-199만원 | 14.6  | 21.2  | 42.4    | 13.3    | 8.5     | 0.0         | 165   |
| 200-299만원 | 11.6  | 24.0  | 44.9    | 14.7    | 4.4     | 0.4         | 225   |
| 300-399만원 | 6.0   | 33.5  | 42.3    | 15.9    | 2.2     | 0.0         | 182   |
| 400-499만원 | 9.1   | 33.9  | 37.2    | 14.1    | 5.0     | 0.8         | 121   |
| 500만원 이상  | 7.2   | 26.3  | 42.6    | 21.5    | 1.9     | 0.5         | 209   |
| 지역        |       |       |         |         |         |             |       |
| 대도시       | 9.0   | 24.6  | 41.9    | 20.3    | 3.7     | 0.7         | 301   |
| 중소도시      | 11.7  | 26.1  | 43.1    | 14.8    | 4.0     | 0.4         | 575   |
| 농어촌       | 8.9   | 31.0  | 35.4    | 15.0    | 9.7     | 0.0         | 113   |

〈부표 3-12〉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자녀 훈육과 교육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계<br>(N) |
|-----------|-------|-------|------------|------------|------------|-------------------|----------|
|           | 항상 내가 | 대개 내가 | 부부가<br>독같이 | 대개<br>배우자가 | 항상<br>배우자가 | 가족 중<br>다른<br>사람이 |          |
| 성별        |       |       |            |            |            |                   |          |
| 남성        | 10.5  | 13.2  | 49.4       | 20.2       | 6.2        | 0.4               | 257      |
| 여성        | 12.2  | 32.2  | 44.4       | 7.2        | 3.4        | 0.6               | 320      |
| 연령(1)     |       |       |            |            |            |                   |          |
| 18-29세    | 9.1   | 9.1   | 63.6       | 18.2       | 0.0        | 0.0               | 11       |
| 30-39세    | 6.5   | 31.5  | 47.8       | 10.9       | 3.3        | 0.0               | 92       |
| 40-49세    | 8.5   | 29.1  | 46.8       | 10.6       | 5.0        | 0.0               | 141      |
| 50-59세    | 12.8  | 21.3  | 50.4       | 13.5       | 2.1        | 0.0               | 141      |
| 60세 이상    | 15.1  | 18.8  | 42.2       | 15.1       | 7.3        | 1.6               | 192      |
| 연령(2)     |       |       |            |            |            |                   |          |
| 18-34세    | 8.9   | 33.3  | 46.7       | 6.7        | 4.4        | 0.0               | 45       |
| 35-49세    | 7.5   | 28.1  | 48.2       | 12.1       | 4.0        | 0.0               | 199      |
| 50-64세    | 12.4  | 20.9  | 50.8       | 12.4       | 2.5        | 1.0               | 201      |
| 65세 이상    | 16.7  | 18.2  | 37.9       | 17.4       | 9.1        | 0.8               | 132      |
| 학력        |       |       |            |            |            |                   |          |
| 고졸 미만     | 17.8  | 17.8  | 35.6       | 17.8       | 8.9        | 2.2               | 135      |
| 고졸        | 12.0  | 22.3  | 50.9       | 10.9       | 4.0        | 0.0               | 175      |
| 대재        | 10.6  | 30.6  | 52.9       | 4.7        | 1.2        | 0.0               | 85       |
| 대학졸업 이상   | 6.6   | 26.4  | 47.8       | 15.4       | 3.9        | 0.0               | 182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100만원 미만  | 27.7  | 19.2  | 34.0       | 8.5        | 10.6       | 0.0               | 47       |
| 100-199만원 | 11.3  | 17.7  | 37.1       | 24.2       | 6.5        | 3.2               | 62       |
| 200-299만원 | 9.4   | 20.8  | 47.2       | 13.2       | 9.4        | 0.0               | 53       |
| 300-399만원 | 7.1   | 31.0  | 47.6       | 10.7       | 3.6        | 0.0               | 84       |
| 400-499만원 | 11.7  | 23.4  | 52.0       | 11.7       | 1.3        | 0.0               | 77       |
| 500만원 이상  | 10.0  | 25.5  | 48.6       | 13.6       | 1.8        | 0.5               | 220      |
| 지역        |       |       |            |            |            |                   |          |
| 대도시       | 8.2   | 28.9  | 43.0       | 14.1       | 5.9        | 0.0               | 135      |
| 중소도시      | 10.2  | 22.5  | 51.8       | 12.3       | 2.9        | 0.3               | 342      |
| 농어촌       | 20.6  | 20.6  | 35.1       | 12.4       | 9.3        | 2.1               | 97       |

<부표 3-12>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본인의 부모에 대한 지원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계 (N) |
|-----------|-------|-------|---------|---------|---------|-------------|-------|
|           | 항상 내가 | 대개 내가 | 부부가 똑같이 | 대개 배우자가 | 항상 배우자가 | 가족 중 다른 사람이 |       |
| 성별        |       |       |         |         |         |             |       |
| 남성        | 5.8   | 17.9  | 54.0    | 18.9    | 3.4     | 0.0         | 291   |
| 여성        | 12.2  | 29.3  | 46.7    | 8.6     | 2.8     | 0.5         | 433   |
| 연령(1)     |       |       |         |         |         |             |       |
| 18-29세    | 18.9  | 8.1   | 64.9    | 5.4     | 2.7     | 0.0         | 37    |
| 30-39세    | 9.6   | 26.0  | 51.0    | 11.6    | 1.7     | 0.0         | 292   |
| 40-49세    | 9.5   | 25.3  | 46.9    | 14.4    | 3.6     | 0.3         | 305   |
| 50-59세    | 8.1   | 28.4  | 50.0    | 9.5     | 4.1     | 0.0         | 74    |
| 60세 이상    | 0.0   | 12.5  | 37.5    | 31.3    | 12.5    | 6.3         | 16    |
| 연령(2)     |       |       |         |         |         |             |       |
| 18-34세    | 10.3  | 19.4  | 58.7    | 10.3    | 1.3     | 0.0         | 155   |
| 35-49세    | 10.0  | 26.3  | 47.0    | 13.4    | 3.1     | 0.2         | 479   |
| 50-64세    | 7.1   | 25.9  | 48.2    | 12.9    | 4.7     | 1.2         | 85    |
| 65세 이상    | 0.0   | 20.0  | 40.0    | 20.0    | 20.0    | 0.0         | 5     |
| 학력        |       |       |         |         |         |             |       |
| 고졸 미만     | 10.3  | 19.4  | 58.7    | 10.3    | 1.3     | 0.0         | 72    |
| 고졸        | 10.0  | 26.3  | 47.0    | 13.4    | 3.1     | 0.2         | 285   |
| 대재        | 7.1   | 25.9  | 48.2    | 12.9    | 4.7     | 1.2         | 96    |
| 대학졸업 이상   | 0.0   | 20.0  | 40.0    | 20.0    | 20.0    | 0.0         | 271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100만원 미만  | 5.3   | 15.8  | 42.1    | 21.1    | 15.8    | 0.0         | 19    |
| 100-199만원 | 14.0  | 25.8  | 47.3    | 6.5     | 5.4     | 1.1         | 93    |
| 200-299만원 | 10.4  | 24.3  | 50.9    | 12.1    | 2.3     | 0.0         | 173   |
| 300-399만원 | 6.9   | 21.2  | 56.2    | 13.7    | 2.1     | 0.0         | 146   |
| 400-499만원 | 10.9  | 24.6  | 50.0    | 11.8    | 2.7     | 0.0         | 110   |
| 500만원 이상  | 8.5   | 28.8  | 45.8    | 14.7    | 1.7     | 0.6         | 177   |
| 지역        |       |       |         |         |         |             |       |
| 대도시       | 7.1   | 25.0  | 52.1    | 12.5    | 2.9     | 0.4         | 240   |
| 중소도시      | 10.7  | 22.8  | 49.9    | 13.5    | 2.8     | 0.2         | 429   |
| 농어촌       | 12.7  | 38.2  | 36.4    | 7.3     | 5.5     | 0.0         | 55    |

〈부표 3-13〉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본인의 부모에 대한 지원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계<br>(N) |
|-----------|-------|-------|------------|------------|------------|-------------------|----------|
|           | 항상 내가 | 대개 내가 | 부부가<br>독같이 | 대개<br>배우자가 | 항상<br>배우자가 | 가족 중<br>다른<br>사람이 |          |
| 성별        |       |       |            |            |            |                   |          |
| 남성        | 8.0   | 18.4  | 61.7       | 9.5        | 2.0        | 0.5               | 201      |
| 여성        | 11.4  | 25.0  | 53.0       | 5.7        | 2.7        | 2.3               | 264      |
| 연령(1)     |       |       |            |            |            |                   |          |
| 18-29세    | 15.4  | 23.1  | 61.5       | 0.0        | 0.0        | 0.0               | 13       |
| 30-39세    | 7.6   | 14.3  | 66.7       | 8.6        | 2.9        | 0.0               | 105      |
| 40-49세    | 9.0   | 26.9  | 56.7       | 3.7        | 1.5        | 2.2               | 134      |
| 50-59세    | 10.8  | 21.6  | 55.0       | 9.0        | 1.8        | 1.8               | 111      |
| 60세 이상    | 11.8  | 24.5  | 48.0       | 9.8        | 3.9        | 2.0               | 102      |
| 연령(2)     |       |       |            |            |            |                   |          |
| 18-34세    | 9.3   | 18.5  | 64.8       | 3.7        | 3.7        | 0.0               | 54       |
| 35-49세    | 8.6   | 22.2  | 60.1       | 6.1        | 1.5        | 1.5               | 198      |
| 50-64세    | 11.3  | 25.2  | 53.0       | 8.0        | 1.3        | 1.3               | 151      |
| 65세 이상    | 11.3  | 17.7  | 48.4       | 12.9       | 6.5        | 3.2               | 62       |
| 학력        |       |       |            |            |            |                   |          |
| 고졸 미만     | 13.5  | 18.9  | 46.0       | 13.5       | 5.4        | 2.7               | 74       |
| 고졸        | 9.5   | 23.4  | 55.5       | 5.8        | 2.9        | 2.9               | 137      |
| 대재        | 10.7  | 20.2  | 60.7       | 4.8        | 2.4        | 1.2               | 84       |
| 대학졸업 이상   | 8.2   | 23.5  | 60.6       | 7.1        | 0.6        | 0.0               | 17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100만원 미만  | 28.6  | 14.3  | 38.1       | 9.5        | 4.8        | 4.8               | 21       |
| 100-199만원 | 14.7  | 23.5  | 44.1       | 8.8        | 5.9        | 2.9               | 34       |
| 200-299만원 | 7.5   | 15.0  | 62.5       | 10.0       | 2.5        | 2.5               | 40       |
| 300-399만원 | 3.8   | 25.3  | 60.8       | 5.1        | 2.5        | 2.5               | 79       |
| 400-499만원 | 9.6   | 23.3  | 54.8       | 11.0       | 1.4        | 0.0               | 73       |
| 500만원 이상  | 10.2  | 22.8  | 58.9       | 5.6        | 1.5        | 1.0               | 197      |
| 지역        |       |       |            |            |            |                   |          |
| 대도시       | 9.2   | 22.0  | 62.4       | 4.6        | 1.8        | 0.0               | 109      |
| 중소도시      | 8.2   | 22.1  | 58.2       | 8.2        | 1.8        | 1.4               | 280      |
| 농어촌       | 16.4  | 21.9  | 45.2       | 6.9        | 5.5        | 4.1               | 73       |

<부표 3-14>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고가의 가정용품 구매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계 (N) |
|-----------|-------|-------|---------|---------|---------|-------------|-------|
|           | 항상 내가 | 대개 내가 | 부부가 똑같이 | 대개 배우자가 | 항상 배우자가 | 가족 중 다른 사람이 |       |
| 성별        |       |       |         |         |         |             |       |
| 남성        | 5.0   | 11.6  | 58.3    | 17.4    | 6.7     | 1.1         | 465   |
| 여성        | 10.5  | 19.8  | 56.7    | 7.9     | 4.1     | 1.0         | 582   |
| 연령(1)     |       |       |         |         |         |             |       |
| 18-29세    | 10.3  | 15.4  | 61.5    | 5.1     | 5.1     | 2.6         | 39    |
| 30-39세    | 5.6   | 13.9  | 67.7    | 9.9     | 3.0     | 0.0         | 303   |
| 40-49세    | 7.4   | 18.6  | 58.6    | 11.1    | 4.2     | 0.0         | 377   |
| 50-59세    | 9.6   | 15.1  | 54.2    | 17.5    | 3.0     | 0.6         | 166   |
| 60세 이상    | 11.7  | 16.1  | 37.7    | 14.8    | 14.2    | 5.6         | 162   |
| 연령(2)     |       |       |         |         |         |             |       |
| 18-34세    | 7.0   | 12.7  | 66.9    | 8.9     | 3.8     | 0.6         | 157   |
| 35-49세    | 6.8   | 17.4  | 61.4    | 10.7    | 3.7     | 0.0         | 562   |
| 50-64세    | 9.6   | 15.6  | 49.5    | 17.9    | 6.4     | 0.9         | 218   |
| 65세 이상    | 12.7  | 15.5  | 39.1    | 12.7    | 12.7    | 7.3         | 110   |
| 학력        |       |       |         |         |         |             |       |
| 고졸 미만     | 10.8  | 17.0  | 49.8    | 12.6    | 6.7     | 3.1         | 223   |
| 고졸        | 8.8   | 18.0  | 54.9    | 10.9    | 6.4     | 1.1         | 377   |
| 대재        | 5.9   | 12.6  | 68.1    | 12.6    | 0.8     | 0.0         | 119   |
| 대학졸업 이상   | 6.1   | 14.6  | 61.6    | 13.1    | 4.6     | 0.0         | 328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100만원 미만  | 10.8  | 15.7  | 37.4    | 21.7    | 7.2     | 7.2         | 83    |
| 100-199만원 | 8.8   | 14.1  | 54.1    | 10.0    | 11.8    | 1.2         | 170   |
| 200-299만원 | 6.3   | 17.7  | 63.9    | 7.6     | 4.2     | 0.4         | 238   |
| 300-399만원 | 8.9   | 12.5  | 60.9    | 14.1    | 3.7     | 0.0         | 192   |
| 400-499만원 | 6.9   | 19.2  | 58.5    | 10.8    | 3.9     | 0.8         | 130   |
| 500만원 이상  | 7.7   | 18.5  | 57.2    | 13.5    | 2.7     | 0.5         | 222   |
| 지역        |       |       |         |         |         |             |       |
| 대도시       | 6.4   | 17.5  | 59.5    | 11.4    | 4.9     | 0.3         | 326   |
| 중소도시      | 8.3   | 14.9  | 57.6    | 13.4    | 5.0     | 0.8         | 603   |
| 농어촌       | 10.3  | 18.8  | 51.3    | 7.7     | 7.7     | 4.3         | 117   |

〈부표 3-15〉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고가의 가정용품 구매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계<br>(N) |
|-----------|-------|-------|------------|------------|------------|-------------------|----------|
|           | 항상 내가 | 대개 내가 | 부부가<br>독같이 | 대개<br>배우자가 | 항상<br>배우자가 | 가족 중<br>다른<br>사람이 |          |
| 성별        |       |       |            |            |            |                   |          |
| 남성        | 10.0  | 12.2  | 57.2       | 15.1       | 3.7        | 1.9               | 271      |
| 여성        | 11.6  | 17.7  | 55.1       | 11.0       | 2.5        | 2.1               | 327      |
| 연령(1)     |       |       |            |            |            |                   |          |
| 18-29세    | 15.4  | 7.7   | 69.2       | 7.7        | 0.0        | 0.0               | 13       |
| 30-39세    | 6.4   | 21.1  | 61.5       | 8.3        | 2.8        | 0.0               | 109      |
| 40-49세    | 8.5   | 17.7  | 61.7       | 9.2        | 2.8        | 0.0               | 141      |
| 50-59세    | 9.4   | 15.8  | 56.8       | 15.8       | 1.4        | 0.7               | 139      |
| 60세 이상    | 15.8  | 10.2  | 47.5       | 16.3       | 4.6        | 5.6               | 196      |
| 연령(2)     |       |       |            |            |            |                   |          |
| 18-34세    | 14.4  | 11.5  | 48.2       | 15.8       | 3.6        | 6.5               | 139      |
| 35-49세    | 13.0  | 14.7  | 54.2       | 13.6       | 4.0        | 0.6               | 177      |
| 50-64세    | 10.1  | 14.6  | 60.7       | 12.4       | 2.3        | 0.0               | 89       |
| 65세 이상    | 6.7   | 18.7  | 61.1       | 10.4       | 2.1        | 1.0               | 193      |
| 학력        |       |       |            |            |            |                   |          |
| 고졸 미만     | 9.1   | 14.6  | 65.5       | 9.1        | 1.8        | 0.0               | 55       |
| 고졸        | 7.7   | 19.7  | 61.1       | 8.7        | 2.9        | 0.0               | 208      |
| 대재        | 11.6  | 14.6  | 55.3       | 15.6       | 1.5        | 1.5               | 199      |
| 대학졸업 이상   | 15.4  | 9.6   | 45.6       | 16.9       | 5.9        | 6.6               | 136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100만원 미만  | 14.3  | 4.1   | 53.1       | 14.3       | 4.1        | 10.2              | 49       |
| 100-199만원 | 15.4  | 13.9  | 41.5       | 21.5       | 4.6        | 3.1               | 65       |
| 200-299만원 | 10.9  | 10.9  | 60.0       | 10.9       | 5.5        | 1.8               | 55       |
| 300-399만원 | 7.7   | 15.4  | 60.4       | 12.1       | 3.3        | 1.1               | 91       |
| 400-499만원 | 12.8  | 18.0  | 57.7       | 9.0        | 2.6        | 0.0               | 78       |
| 500만원 이상  | 9.2   | 18.8  | 56.8       | 13.5       | 0.9        | 0.9               | 229      |
| 지역        |       |       |            |            |            |                   |          |
| 대도시       | 9.9   | 14.2  | 58.9       | 12.1       | 3.6        | 1.4               | 141      |
| 중소도시      | 10.3  | 16.0  | 57.8       | 13.1       | 2.0        | 0.9               | 351      |
| 농어촌       | 14.6  | 13.6  | 47.6       | 12.6       | 4.9        | 6.8               | 103      |

#### 4. 세대간 교환관계

〈부표 4-1〉 기혼 남성이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b>성별</b>      |      |      |      |       |      |      |      |       |
| 남성             | 84.7 | 9.7  | 5.6  | 712   | 81.5 | 11.1 | 7.4  | 476   |
| 여성             | 84.1 | 10.2 | 5.7  | 883   | 70.7 | 18.2 | 11.1 | 576   |
| <b>연령(1)</b>   |      |      |      |       |      |      |      |       |
| 18-29세         | 90.9 | 6.4  | 2.7  | 328   | 86.6 | 11.3 | 2.1  | 194   |
| 30-39세         | 83.8 | 10.8 | 5.4  | 388   | 75.3 | 13.2 | 11.5 | 174   |
| 40-49세         | 85.6 | 10.0 | 4.3  | 418   | 75.3 | 15.9 | 8.8  | 170   |
| 50-59세         | 76.0 | 13.3 | 10.7 | 196   | 74.0 | 15.8 | 10.2 | 177   |
| 60세 이상         | 81.5 | 10.6 | 7.9  | 265   | 70.3 | 17.2 | 12.5 | 337   |
| <b>연령(2)</b>   |      |      |      |       |      |      |      |       |
| 18-34세         | 87.4 | 8.8  | 3.8  | 500   | 83.3 | 12.0 | 4.7  | 275   |
| 35-49세         | 85.8 | 9.6  | 4.6  | 634   | 75.3 | 14.8 | 9.9  | 263   |
| 50-64세         | 76.9 | 12.3 | 10.8 | 268   | 72.2 | 15.3 | 12.5 | 255   |
| 65세 이상         | 82.4 | 10.9 | 6.7  | 193   | 71.0 | 18.1 | 10.8 | 259   |
| <b>학력</b>      |      |      |      |       |      |      |      |       |
| 고졸 미만          | 79.7 | 11.9 | 8.4  | 344   | 72.2 | 15.8 | 12.0 | 266   |
| 고졸             | 85.0 | 10.2 | 4.8  | 461   | 70.6 | 18.1 | 11.3 | 248   |
| 대재             | 90.5 | 5.8  | 3.6  | 359   | 82.6 | 11.5 | 6.0  | 218   |
| 대학졸업 이상        | 82.4 | 11.5 | 6.1  | 426   | 77.5 | 14.4 | 8.1  | 320   |
| <b>월평균가구소득</b>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4.7 | 9.0  | 6.3  | 189   | 79.6 | 11.8 | 8.6  | 152   |
| 100-199만원      | 82.8 | 11.6 | 5.6  | 267   | 72.4 | 15.2 | 12.4 | 105   |
| 200-299만원      | 83.0 | 11.5 | 5.5  | 330   | 67.7 | 18.1 | 14.2 | 127   |
| 300-399만원      | 85.6 | 8.5  | 5.9  | 271   | 77.8 | 9.6  | 12.6 | 135   |
| 400-499만원      | 87.4 | 6.0  | 6.6  | 182   | 75.0 | 19.6 | 5.4  | 112   |
| 500만원 이상       | 83.3 | 11.1 | 5.6  | 306   | 77.4 | 14.5 | 8.1  | 332   |
| <b>지역</b>      |      |      |      |       |      |      |      |       |
| 대도시            | 86.7 | 8.8  | 4.5  | 512   | 80.1 | 12.8 | 7.1  | 282   |
| 중소도시           | 82.1 | 11.5 | 6.3  | 901   | 75.3 | 15.5 | 9.2  | 579   |
| 농어촌            | 89.0 | 5.5  | 5.5  | 181   | 69.7 | 17.0 | 13.3 | 188   |

〈부표 4-2〉 기혼 여성이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74.7 | 17.3 | 8.0  | 712   | 75.2 | 15.3 | 9.5  | 476   |
| 여성        | 76.7 | 14.6 | 8.7  | 883   | 68.8 | 19.4 | 11.8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82.3 | 13.7 | 4.0  | 328   | 84.5 | 12.9 | 2.6  | 194   |
| 30-39세    | 79.6 | 13.7 | 6.7  | 388   | 74.7 | 13.8 | 11.5 | 174   |
| 40-49세    | 77.3 | 15.6 | 7.2  | 418   | 71.8 | 19.4 | 8.8  | 170   |
| 50-59세    | 65.3 | 21.9 | 12.8 | 196   | 69.5 | 18.1 | 12.4 | 177   |
| 60세 이상    | 67.5 | 17.4 | 15.1 | 265   | 63.8 | 21.1 | 15.1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80.8 | 14.4 | 4.8  | 500   | 81.1 | 13.8 | 5.1  | 275   |
| 35-49세    | 78.5 | 14.4 | 7.1  | 634   | 73.4 | 16.7 | 9.9  | 263   |
| 50-64세    | 66.8 | 19.4 | 13.8 | 268   | 67.1 | 18.4 | 14.5 | 255   |
| 65세 이상    | 66.3 | 19.2 | 14.5 | 193   | 64.5 | 21.6 | 13.9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64.8 | 20.1 | 15.1 | 344   | 65.8 | 19.2 | 15.0 | 266   |
| 고졸        | 76.6 | 16.7 | 6.7  | 461   | 67.7 | 19.8 | 12.5 | 248   |
| 대재        | 83.0 | 12.0 | 5.0  | 359   | 78.0 | 15.6 | 6.4  | 218   |
| 대학졸업 이상   | 78.2 | 14.6 | 7.3  | 426   | 75.3 | 15.9 | 8.8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75.7 | 14.8 | 9.5  | 189   | 71.7 | 15.8 | 12.5 | 152   |
| 100-199만원 | 73.8 | 15.4 | 10.9 | 267   | 66.7 | 20.0 | 13.3 | 105   |
| 200-299만원 | 73.0 | 20.3 | 6.7  | 330   | 65.4 | 18.1 | 16.5 | 127   |
| 300-399만원 | 79.0 | 13.7 | 7.4  | 271   | 71.1 | 14.8 | 14.1 | 135   |
| 400-499만원 | 77.5 | 14.8 | 7.7  | 182   | 74.1 | 18.8 | 7.1  | 112   |
| 500만원 이상  | 76.1 | 14.7 | 9.2  | 306   | 75.9 | 16.0 | 8.1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81.1 | 12.9 | 6.1  | 512   | 76.2 | 16.0 | 7.8  | 282   |
| 중소도시      | 72.4 | 18.5 | 9.1  | 901   | 71.7 | 17.3 | 11.1 | 579   |
| 농어촌       | 78.5 | 9.9  | 11.6 | 181   | 64.9 | 21.3 | 13.8 | 188   |

〈부표 4-3〉 기혼 남성이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께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81.0 | 13.1 | 5.9 | 712   | 74.8 | 16.6 | 8.6  | 476   |
| 여성        | 81.7 | 13.4 | 5.0 | 883   | 65.3 | 22.6 | 12.2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88.4 | 9.5  | 2.1 | 328   | 72.2 | 23.2 | 4.6  | 194   |
| 30-39세    | 79.9 | 14.4 | 5.7 | 388   | 71.8 | 15.5 | 12.6 | 174   |
| 40-49세    | 81.1 | 14.1 | 4.8 | 418   | 72.4 | 18.2 | 9.4  | 170   |
| 50-59세    | 77.0 | 13.8 | 9.2 | 196   | 72.9 | 16.9 | 10.2 | 177   |
| 60세 이상    | 78.5 | 14.3 | 7.2 | 265   | 63.8 | 22.6 | 13.6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84.2 | 12.6 | 3.2 | 500   | 71.3 | 21.5 | 7.3  | 275   |
| 35-49세    | 81.7 | 13.1 | 5.2 | 634   | 73.0 | 16.7 | 10.3 | 263   |
| 50-64세    | 76.1 | 14.9 | 9.0 | 268   | 69.8 | 17.6 | 12.5 | 255   |
| 65세 이상    | 80.3 | 13.0 | 6.7 | 193   | 64.1 | 23.6 | 12.4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7.3 | 16.0 | 6.7 | 344   | 64.3 | 22.2 | 13.5 | 266   |
| 고졸        | 79.0 | 15.6 | 5.4 | 461   | 69.4 | 19.0 | 11.7 | 248   |
| 대재        | 88.6 | 7.5  | 3.9 | 359   | 72.0 | 20.6 | 7.3  | 218   |
| 대학졸업 이상   | 81.5 | 12.9 | 5.6 | 426   | 72.5 | 18.1 | 9.4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4.1 | 11.6 | 4.2 | 189   | 71.1 | 18.4 | 10.5 | 152   |
| 100-199만원 | 80.1 | 15.0 | 4.9 | 267   | 66.7 | 21.0 | 12.4 | 105   |
| 200-299만원 | 79.1 | 15.2 | 5.8 | 330   | 60.6 | 25.2 | 14.2 | 127   |
| 300-399만원 | 83.8 | 10.7 | 5.5 | 271   | 69.6 | 15.6 | 14.8 | 135   |
| 400-499만원 | 83.0 | 9.9  | 7.1 | 182   | 72.3 | 22.3 | 5.4  | 112   |
| 500만원 이상  | 79.7 | 14.7 | 5.6 | 306   | 73.2 | 17.2 | 9.6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82.6 | 12.5 | 4.9 | 512   | 70.6 | 19.9 | 9.6  | 282   |
| 중소도시      | 80.2 | 13.9 | 5.9 | 901   | 71.8 | 18.5 | 9.7  | 579   |
| 농어촌       | 84.0 | 11.6 | 4.4 | 181   | 61.7 | 23.9 | 14.4 | 188   |

〈부표 4-4〉 기혼 여성이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br>(N)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79.4 | 15.2 | 5.5 | 712      | 74.6 | 18.3 | 7.1  | 476      |
| 여성        | 82.9 | 11.8 | 5.3 | 883      | 65.3 | 22.7 | 12.0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82.9 | 13.1 | 4.0 | 328      | 70.6 | 24.2 | 5.2  | 194      |
| 30-39세    | 80.4 | 13.9 | 5.7 | 388      | 70.7 | 16.7 | 12.6 | 174      |
| 40-49세    | 82.5 | 12.9 | 4.5 | 418      | 71.2 | 20.6 | 8.2  | 170      |
| 50-59세    | 80.1 | 12.2 | 7.7 | 196      | 72.3 | 18.1 | 9.6  | 177      |
| 60세 이상    | 79.6 | 14.0 | 6.4 | 265      | 65.9 | 22.3 | 11.9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81.0 | 14.8 | 4.2 | 500      | 69.8 | 22.5 | 7.6  | 275      |
| 35-49세    | 82.6 | 12.1 | 5.2 | 634      | 71.9 | 18.6 | 9.5  | 263      |
| 50-64세    | 79.1 | 13.1 | 7.8 | 268      | 69.0 | 19.2 | 11.8 | 255      |
| 65세 이상    | 80.8 | 13.5 | 5.7 | 193      | 67.2 | 22.4 | 10.4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8.8 | 14.0 | 7.3 | 344      | 65.0 | 21.8 | 13.2 | 266      |
| 고졸        | 81.8 | 13.2 | 5.0 | 461      | 70.2 | 20.2 | 9.7  | 248      |
| 대재        | 84.4 | 11.1 | 4.5 | 359      | 70.2 | 22.5 | 7.3  | 218      |
| 대학졸업 이상   | 80.5 | 14.3 | 5.2 | 426      | 72.2 | 19.1 | 8.8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4.7 | 11.1 | 4.2 | 189      | 72.4 | 17.8 | 9.9  | 152      |
| 100-199만원 | 80.9 | 13.1 | 6.0 | 267      | 68.6 | 20.0 | 11.4 | 105      |
| 200-299만원 | 79.7 | 15.5 | 4.8 | 330      | 62.2 | 24.4 | 13.4 | 127      |
| 300-399만원 | 83.8 | 11.4 | 4.8 | 271      | 65.9 | 21.5 | 12.6 | 135      |
| 400-499만원 | 81.9 | 11.5 | 6.6 | 182      | 71.4 | 23.2 | 5.4  | 112      |
| 500만원 이상  | 79.4 | 14.7 | 5.9 | 306      | 72.6 | 18.1 | 9.3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82.0 | 13.7 | 4.3 | 512      | 70.2 | 21.6 | 8.2  | 282      |
| 중소도시      | 80.4 | 13.7 | 6.0 | 901      | 70.5 | 20.0 | 9.5  | 579      |
| 농어촌       | 84.0 | 10.5 | 5.5 | 181      | 66.0 | 21.3 | 12.8 | 188      |

390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부표 4-5〉 본인이 본인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26.7 | 37.7 | 35.6  | 506   | 32.0 | 33.0 | 35.0  | 303   |
| 여성        | 19.7 | 42.0 | 38.4  | 636   | 23.9 | 36.9 | 39.2  | 339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4.1 | 28.4 | 57.5  | 327   | 12.2 | 25.5 | 62.2  | 188   |
| 30-39세    | 26.6 | 44.4 | 29.0  | 376   | 31.5 | 38.2 | 30.3  | 165   |
| 40-49세    | 27.6 | 46.2 | 26.1  | 333   | 35.7 | 43.4 | 21.0  | 143   |
| 50-59세    | 21.2 | 43.5 | 35.3  | 85    | 37.5 | 33.0 | 29.5  | 112   |
| 60세 이상    | 19.0 | 33.3 | 47.6  | 21    | 29.4 | 44.1 | 26.5  | 34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8.4 | 32.9 | 48.7  | 499   | 18.4 | 29.6 | 52.1  | 267   |
| 35-49세    | 27.2 | 46.6 | 26.3  | 537   | 33.6 | 41.0 | 25.3  | 229   |
| 50-64세    | 20.4 | 41.8 | 37.8  | 98    | 35.8 | 36.5 | 27.7  | 137   |
| 65세 이상    | 25.0 | 37.5 | 37.5  | 8     | 33.3 | 22.2 | 44.4  | 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17.2 | 39.8 | 43.0  | 93    | 29.0 | 29.0 | 41.9  | 31    |
| 고졸        | 21.0 | 45.1 | 33.9  | 357   | 23.0 | 47.4 | 29.6  | 152   |
| 대재        | 18.3 | 26.8 | 54.9  | 328   | 20.4 | 29.6 | 50.0  | 196   |
| 대학졸업 이상   | 29.9 | 47.3 | 22.8  | 364   | 35.7 | 32.7 | 31.6  | 263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10.7 | 19.6 | 69.6  | 56    | 9.1  | 40.9 | 50.0  | 22    |
| 100-199만원 | 11.3 | 39.3 | 49.4  | 168   | 13.5 | 18.9 | 67.6  | 37    |
| 200-299만원 | 23.0 | 40.2 | 36.7  | 256   | 26.3 | 38.8 | 35.0  | 80    |
| 300-399만원 | 17.4 | 47.5 | 35.2  | 219   | 27.7 | 41.5 | 30.9  | 94    |
| 400-499만원 | 27.0 | 39.0 | 34.0  | 159   | 29.7 | 38.5 | 31.9  | 91    |
| 500만원 이상  | 35.8 | 40.9 | 23.3  | 257   | 34.5 | 31.8 | 33.7  | 264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3.1 | 42.6 | 34.3  | 394   | 30.9 | 28.9 | 40.2  | 204   |
| 중소도시      | 23.4 | 38.6 | 38.0  | 668   | 26.4 | 38.7 | 34.9  | 375   |
| 농어촌       | 16.3 | 40.0 | 43.8  | 80    | 26.2 | 32.8 | 41.0  | 61    |

〈부표 4-6〉 본인이 본인의 부모에게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24.5 | 38.9 | 36.6     | 506      | 25.1 | 38.9 | 36.0     | 303      |
| 여성        | 22.5 | 37.3 | 40.3     | 636      | 32.2 | 34.2 | 33.6     | 339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30.9 | 41.9 | 27.2     | 327      | 39.3 | 37.2 | 23.6     | 191      |
| 30-39세    | 21.8 | 38.6 | 39.6     | 376      | 23.9 | 38.7 | 37.4     | 163      |
| 40-49세    | 19.8 | 38.7 | 41.4     | 333      | 26.6 | 30.1 | 43.4     | 143      |
| 50-59세    | 17.6 | 24.7 | 57.6     | 85       | 23.2 | 38.4 | 38.4     | 112      |
| 60세 이상    | 14.3 | 9.5  | 76.2     | 21       | 21.2 | 42.4 | 36.4     | 33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7.9 | 41.5 | 30.7     | 499      | 34.7 | 37.3 | 28.0     | 268      |
| 35-49세    | 20.5 | 38.0 | 41.5     | 537      | 25.8 | 33.6 | 40.6     | 229      |
| 50-64세    | 16.3 | 22.4 | 61.2     | 98       | 22.8 | 40.4 | 36.8     | 136      |
| 65세 이상    | 25.0 | 12.5 | 62.5     | 8        | 22.2 | 22.2 | 55.6     | 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0.4 | 28.0 | 51.6     | 93       | 15.6 | 34.4 | 50.0     | 32       |
| 고졸        | 21.3 | 34.2 | 44.5     | 357      | 19.1 | 38.8 | 42.1     | 152      |
| 대재        | 28.4 | 45.1 | 26.5     | 328      | 36.2 | 37.2 | 26.5     | 196      |
| 대학졸업 이상   | 21.7 | 37.9 | 40.4     | 364      | 30.5 | 34.7 | 34.7     | 262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2.1 | 37.5 | 30.4     | 56       | 27.3 | 27.3 | 45.5     | 22       |
| 100-199만원 | 20.2 | 35.7 | 44.0     | 168      | 16.7 | 50.0 | 33.3     | 36       |
| 200-299만원 | 23.8 | 37.5 | 38.7     | 256      | 28.8 | 41.3 | 30.0     | 80       |
| 300-399만원 | 21.5 | 39.3 | 39.3     | 219      | 21.7 | 32.6 | 45.7     | 92       |
| 400-499만원 | 23.9 | 44.7 | 31.4     | 159      | 33.0 | 37.4 | 29.7     | 91       |
| 500만원 이상  | 25.3 | 32.7 | 42.0     | 257      | 30.5 | 33.1 | 36.5     | 266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3.6 | 39.1 | 37.3     | 394      | 27.6 | 34.5 | 37.9     | 203      |
| 중소도시      | 22.6 | 38.3 | 39.1     | 668      | 29.3 | 39.4 | 31.4     | 376      |
| 농어촌       | 28.8 | 30.0 | 41.3     | 80       | 31.1 | 24.6 | 44.3     | 61       |

〈부표 4-7〉 본인의 부모가 본인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29.8 | 22.3 | 47.9  | 507   | 31.9 | 21.4 | 46.7  | 304   |
| 여성        | 21.4 | 22.5 | 56.1  | 636   | 25.3 | 20.9 | 53.8  | 340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61.2 | 19.9 | 19.0  | 327   | 70.3 | 14.6 | 15.1  | 192   |
| 30-39세    | 14.1 | 27.6 | 58.4  | 377   | 18.2 | 27.9 | 53.9  | 165   |
| 40-49세    | 9.0  | 23.1 | 67.9  | 333   | 6.3  | 26.6 | 67.1  | 143   |
| 50-59세    | 4.7  | 11.8 | 83.5  | 85    | 7.2  | 18.9 | 73.9  | 111   |
| 60세 이상    | 0.0  | 0.0  | 100.0 | 21    | 3.0  | 9.1  | 87.9  | 33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47.3 | 24.2 | 28.5  | 499   | 55.7 | 18.5 | 25.8  | 271   |
| 35-49세    | 8.7  | 23.2 | 68.0  | 538   | 10.0 | 27.1 | 62.9  | 229   |
| 50-64세    | 4.1  | 10.2 | 85.7  | 98    | 5.9  | 17.0 | 77.0  | 135   |
| 65세 이상    | 0.0  | 0.0  | 100.0 | 8     | 11.1 | 11.1 | 77.8  | 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5  | 17.2 | 75.3  | 93    | 21.9 | 9.4  | 68.8  | 32    |
| 고졸        | 13.4 | 22.6 | 64.0  | 358   | 11.9 | 20.5 | 67.5  | 151   |
| 대재        | 54.3 | 16.8 | 29.0  | 328   | 48.2 | 17.8 | 34.0  | 197   |
| 대학졸업 이상   | 14.8 | 28.6 | 56.6  | 364   | 23.9 | 25.4 | 50.8  | 264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42.9 | 16.1 | 41.1  | 56    | 45.5 | 13.6 | 40.9  | 22    |
| 100-199만원 | 25.6 | 23.2 | 51.2  | 168   | 24.3 | 10.8 | 64.9  | 37    |
| 200-299만원 | 19.1 | 26.1 | 54.9  | 257   | 25.0 | 28.8 | 46.3  | 80    |
| 300-399만원 | 28.3 | 21.5 | 50.2  | 219   | 17.0 | 25.5 | 57.4  | 94    |
| 400-499만원 | 25.2 | 22.0 | 52.8  | 159   | 24.2 | 20.9 | 54.9  | 91    |
| 500만원 이상  | 21.0 | 20.6 | 58.4  | 257   | 28.3 | 20.4 | 51.3  | 265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0.6 | 26.3 | 43.0  | 395   | 34.3 | 22.1 | 43.6  | 204   |
| 중소도시      | 21.6 | 20.5 | 57.9  | 668   | 26.8 | 21.0 | 52.3  | 377   |
| 농어촌       | 27.5 | 18.8 | 53.8  | 80    | 19.7 | 18.0 | 62.3  | 61    |

〈부표 4-8〉 본인의 부모가 본인을 위해 집안일 혹은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32.7 | 21.9 | 45.4  | 507   | 34.9 | 21.3 | 43.9  | 301   |
| 여성        | 27.5 | 20.4 | 52.0  | 636   | 35.2 | 16.0 | 48.8  | 338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63.6 | 20.5 | 15.9  | 327   | 71.1 | 17.9 | 11.1  | 190   |
| 30-39세    | 24.9 | 23.6 | 51.5  | 377   | 34.1 | 26.2 | 39.6  | 164   |
| 40-49세    | 10.5 | 21.9 | 67.6  | 333   | 17.5 | 19.6 | 62.9  | 143   |
| 50-59세    | 4.7  | 14.1 | 81.2  | 85    | 7.3  | 9.2  | 83.5  | 109   |
| 60세 이상    | 0.0  | 0.0  | 100.0 | 21    | 0.0  | 9.1  | 90.9  | 33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53.1 | 23.2 | 23.6  | 499   | 62.3 | 19.8 | 17.9  | 268   |
| 35-49세    | 13.4 | 21.0 | 65.6  | 538   | 21.4 | 22.7 | 55.9  | 229   |
| 50-64세    | 4.1  | 12.2 | 83.7  | 98    | 6.0  | 9.0  | 85.0  | 133   |
| 65세 이상    | 0.0  | 0.0  | 100.0 | 8     | 0.0  | 11.1 | 88.9  | 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10.8 | 20.4 | 68.8  | 93    | 15.6 | 15.6 | 68.8  | 32    |
| 고졸        | 14.8 | 20.7 | 64.5  | 358   | 16.7 | 14.0 | 69.3  | 150   |
| 대재        | 55.8 | 17.4 | 26.8  | 328   | 49.5 | 20.4 | 30.1  | 196   |
| 대학졸업 이상   | 26.1 | 25.0 | 48.9  | 364   | 37.2 | 19.9 | 42.9  | 261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2.1 | 23.2 | 44.6  | 56    | 40.9 | 18.2 | 40.9  | 22    |
| 100-199만원 | 23.8 | 20.8 | 55.4  | 168   | 32.4 | 13.5 | 54.1  | 37    |
| 200-299만원 | 22.6 | 22.2 | 55.3  | 257   | 33.8 | 21.3 | 45.0  | 80    |
| 300-399만원 | 31.5 | 23.7 | 44.7  | 219   | 23.9 | 21.7 | 54.3  | 92    |
| 400-499만원 | 32.7 | 22.0 | 45.3  | 159   | 36.3 | 17.6 | 46.2  | 91    |
| 500만원 이상  | 33.1 | 17.5 | 49.4  | 257   | 34.2 | 17.5 | 48.3  | 263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3.2 | 23.0 | 43.8  | 395   | 40.9 | 20.2 | 38.9  | 203   |
| 중소도시      | 28.1 | 20.5 | 51.3  | 668   | 33.2 | 18.2 | 48.5  | 373   |
| 농어촌       | 27.5 | 16.3 | 56.3  | 80    | 27.9 | 14.8 | 57.4  | 61    |

<부표 4-9>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                 | 계 (N) |
|-----------|------|----------------|------|---------------|---------|----------------|----------|-----------------|-------|
|           | 장남   | 차남<br>이하<br>아들 | 장녀   | 차녀<br>이하<br>딸 | 큰<br>사위 | 둘째<br>이하<br>사위 | 큰<br>며느리 | 둘째<br>이하<br>며느리 |       |
| 성별        |      |                |      |               |         |                |          |                 |       |
| 남성        | 39.0 | 16.5           | 30.3 | 13.0          | -       | -              | 0.9      | 0.4             | 231   |
| 여성        | 37.4 | 17.4           | 30.7 | 12.5          | -       | -              | 1.7      | 0.3             | 345   |
| 연령(1)     |      |                |      |               |         |                |          |                 |       |
| 18-29세    | -    | -              | -    | -             | -       | -              | -        | -               | 0     |
| 30-39세    | 33.3 | 0.0            | 66.7 | 0.0           | -       | -              | 0.0      | 0.0             | 3     |
| 40-49세    | 42.5 | 7.1            | 44.9 | 5.5           | -       | -              | 0.0      | 0.0             | 127   |
| 50-59세    | 34.3 | 13.5           | 39.3 | 11.2          | -       | -              | 1.1      | 0.6             | 178   |
| 60세 이상    | 38.4 | 24.3           | 17.5 | 17.2          | -       | -              | 2.2      | 0.4             | 268   |
| 연령(2)     |      |                |      |               |         |                |          |                 |       |
| 18-34세    | -    | -              | -    | -             | -       | -              | -        | -               | 0     |
| 35-49세    | 42.3 | 6.9            | 45.4 | 5.4           | -       | -              | 0.0      | 0.0             | 130   |
| 50-64세    | 33.2 | 17.2           | 34.4 | 13.2          | -       | -              | 1.6      | 0.4             | 250   |
| 65세 이상    | 41.3 | 23.5           | 15.8 | 16.8          | -       | -              | 2.0      | 0.5             | 196   |
| 학력        |      |                |      |               |         |                |          |                 |       |
| 고졸 미만     | 34.5 | 21.8           | 25.4 | 16.6          | -       | -              | 1.3      | 0.3             | 307   |
| 고졸        | 42.1 | 13.2           | 34.9 | 7.9           | -       | -              | 2.0      | 0.0             | 152   |
| 대재        | 59.4 | 3.1            | 28.1 | 9.4           | -       | -              | 0.0      | 0.0             | 32    |
| 대학졸업 이상   | 35.0 | 10.0           | 45.0 | 8.8           | -       | -              | 1.3      | 0.0             | 8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8.7 | 20.0           | 17.3 | 20.7          | -       | -              | 2.0      | 1.3             | 150   |
| 100-199만원 | 37.1 | 18.1           | 29.3 | 13.8          | -       | -              | 1.7      | 0.0             | 116   |
| 200-299만원 | 42.9 | 16.3           | 33.7 | 7.1           | -       | -              | 0.0      | 0.0             | 98    |
| 300-399만원 | 32.8 | 13.4           | 38.8 | 13.4          | -       | -              | 1.5      | 0.0             | 67    |
| 400-499만원 | 45.0 | 12.5           | 35.0 | 7.5           | -       | -              | 0.0      | 0.0             | 40    |
| 500만원 이상  | 38.1 | 13.1           | 44.1 | 3.6           | -       | -              | 1.2      | 0.0             | 84    |
| 지역        |      |                |      |               |         |                |          |                 |       |
| 대도시       | 38.4 | 12.6           | 39.0 | 8.2           | -       | -              | 1.9      | 0.0             | 159   |
| 중소도시      | 37.1 | 17.3           | 29.6 | 14.6          | -       | -              | 1.0      | 0.3             | 294   |
| 농어촌       | 40.2 | 22.1           | 21.3 | 13.9          | -       | -              | 1.6      | 0.8             | 122   |

〈부표 4-10〉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                 | 계<br>(N) |
|-----------|------|----------------|------|---------------|---------|----------------|----------|-----------------|----------|
|           | 장남   | 차남<br>이하<br>아들 | 장녀   | 차녀<br>이하<br>딸 | 큰<br>사위 | 둘째<br>이하<br>사위 | 큰<br>며느리 | 둘째<br>이하<br>며느리 |          |
| 성별        |      |                |      |               |         |                |          |                 |          |
| 남성        | 32.7 | 13.1           | 40.7 | 11.2          | 0.5     | 0.0            | 0.9      | 0.9             | 214      |
| 여성        | 34.6 | 15.3           | 33.0 | 14.1          | 0.3     | 0.0            | 0.9      | 1.8             | 327      |
| 연령(1)     |      |                |      |               |         |                |          |                 |          |
| 18-29세    | -    | -              | -    | -             | -       | -              | -        | -               | 0        |
| 30-39세    | -    | -              | -    | -             | -       | -              | -        | -               | 0        |
| 40-49세    | 42.9 | 3.2            | 44.4 | 9.5           | 0.0     | 0.0            | 0.0      | 0.0             | 63       |
| 50-59세    | 31.3 | 12.0           | 48.0 | 8.0           | 0.0     | 0.0            | 0.7      | 0.0             | 150      |
| 60세 이상    | 33.2 | 17.7           | 29.0 | 15.9          | 0.6     | 0.0            | 1.2      | 2.4             | 328      |
| 연령(2)     |      |                |      |               |         |                |          |                 |          |
| 18-34세    | -    | -              | -    | -             | -       | -              | -        | -               | 0        |
| 35-49세    | 42.9 | 3.2            | 44.4 | 9.5           | 0.0     | 0.0            | 0.0      | 0.0             | 63       |
| 50-64세    | 30.7 | 11.1           | 44.4 | 12.0          | 0.4     | 0.0            | 0.9      | 0.4             | 225      |
| 65세 이상    | 34.4 | 20.2           | 26.5 | 14.6          | 0.4     | 0.0            | 1.2      | 2.8             | 253      |
| 학력        |      |                |      |               |         |                |          |                 |          |
| 고졸 미만     | 35.4 | 18.8           | 26.7 | 15.4          | 0.4     | 0.0            | 0.8      | 2.5             | 240      |
| 고졸        | 32.3 | 12.4           | 44.1 | 9.3           | 0.6     | 0.0            | 0.6      | 0.6             | 161      |
| 대재        | 26.7 | 3.3            | 60.0 | 10.0          | 0.0     | 0.0            | 0.0      | 0.0             | 30       |
| 대학졸업 이상   | 34.5 | 10.9           | 38.2 | 13.6          | 0.0     | 0.0            | 1.8      | 0.9             | 11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2.8 | 22.1           | 27.0 | 17.2          | 0.0     | 0.0            | 0.0      | 0.8             | 122      |
| 100-199만원 | 40.0 | 18.7           | 26.7 | 12.0          | 1.3     | 0.0            | 1.3      | 0.0             | 75       |
| 200-299만원 | 35.2 | 9.3            | 37.0 | 11.1          | 0.0     | 0.0            | 3.7      | 3.7             | 54       |
| 300-399만원 | 35.5 | 3.2            | 46.8 | 11.3          | 0.0     | 0.0            | 1.6      | 1.6             | 62       |
| 400-499만원 | 34.7 | 6.1            | 40.8 | 16.3          | 0.0     | 0.0            | 0.0      | 2.0             | 49       |
| 500만원 이상  | 32.1 | 12.1           | 44.3 | 9.3           | 0.7     | 0.0            | 0.7      | 0.7             | 140      |
| 지역        |      |                |      |               |         |                |          |                 |          |
| 대도시       | 35.7 | 8.7            | 42.6 | 9.6           | 0.0     | 0.0            | 1.7      | 1.7             | 115      |
| 중소도시      | 33.8 | 14.6           | 36.2 | 12.9          | 0.3     | 0.0            | 1.0      | 1.0             | 287      |
| 농어촌       | 32.8 | 18.2           | 29.9 | 16.1          | 0.7     | 0.0            | 0.0      | 2.2             | 137      |

〈부표 4-11〉 자녀와의 동거여부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2016 |      |       |
|-----------|------|-------|-------|------|------|-------|
|           | 동거   | 비동거   | 계 (N) | 동거   | 비동거  | 계 (N) |
| 성별        |      |       |       |      |      |       |
| 남성        | 45.0 | 55.0  | 231   | 29.0 | 71.0 | 214   |
| 여성        | 41.7 | 58.3  | 345   | 30.7 | 69.3 | 326   |
| 연령(1)     |      |       |       |      |      |       |
| 18-29세    | -    | -     | 0     | -    | -    | 0     |
| 30-39세    | 0.0  | 100.0 | 3     | -    | -    | 0     |
| 40-49세    | 66.1 | 33.9  | 127   | 58.7 | 41.3 | 63    |
| 50-59세    | 46.1 | 53.9  | 178   | 49.3 | 50.7 | 150   |
| 60세 이상    | 30.6 | 69.4  | 268   | 15.6 | 84.4 | 327   |
| 연령(2)     |      |       |       |      |      |       |
| 18-34세    | -    | -     | 0     | -    | -    | 0     |
| 35-49세    | 64.6 | 35.4  | 130   | 58.7 | 41.3 | 63    |
| 50-64세    | 44.4 | 55.6  | 250   | 40.9 | 59.1 | 225   |
| 65세 이상    | 27.0 | 73.0  | 196   | 13.1 | 86.9 | 252   |
| 학력        |      |       |       |      |      |       |
| 고졸 미만     | 36.2 | 63.8  | 307   | 15.5 | 84.5 | 239   |
| 고졸        | 51.3 | 48.7  | 152   | 37.3 | 62.7 | 161   |
| 대재        | 53.1 | 46.9  | 32    | 53.3 | 46.7 | 30    |
| 대학졸업 이상   | 48.8 | 51.3  | 80    | 44.5 | 55.5 | 11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100만원 미만  | 13.3 | 86.7  | 150   | 5.8  | 94.2 | 121   |
| 100-199만원 | 38.8 | 61.2  | 116   | 20.0 | 80.0 | 75    |
| 200-299만원 | 54.1 | 45.9  | 98    | 25.9 | 74.1 | 54    |
| 300-399만원 | 67.2 | 32.8  | 67    | 40.3 | 59.7 | 62    |
| 400-499만원 | 70.0 | 30.0  | 40    | 40.8 | 59.2 | 49    |
| 500만원 이상  | 54.8 | 45.2  | 84    | 49.3 | 50.7 | 140   |
| 지역        |      |       |       |      |      |       |
| 대도시       | 48.4 | 51.6  | 159   | 41.7 | 58.3 | 115   |
| 중소도시      | 44.9 | 55.1  | 294   | 32.9 | 67.1 | 286   |
| 농어촌       | 32.0 | 68.0  | 122   | 14.6 | 85.4 | 137   |

〈부표 4-12〉 본인이 성인자녀를 위해 한 일(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31.0 | 24.0 | 45.0     | 229      | 27.6 | 17.3 | 55.1     | 214      |
| 여성        | 31.8 | 15.7 | 52.5     | 343      | 26.1 | 16.6 | 57.4     | 32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    | -    | -        | 0        | -    | -    | -        | 0        |
| 30-39세    | 33.3 | 66.7 | 0.0      | 3        | -    | -    | -        | 0        |
| 40-49세    | 70.9 | 15.0 | 14.2     | 127      | 74.6 | 7.9  | 17.5     | 63       |
| 50-59세    | 38.4 | 23.7 | 37.9     | 177      | 43.3 | 20.0 | 36.7     | 150      |
| 60세 이상    | 7.9  | 17.4 | 74.7     | 265      | 9.8  | 17.1 | 73.1     | 32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    | -    | -        | 0        | -    | -    | -        | 0        |
| 35-49세    | 70.0 | 16.2 | 13.8     | 130      | 74.6 | 7.9  | 17.5     | 63       |
| 50-64세    | 30.9 | 23.7 | 45.4     | 249      | 35.6 | 20.9 | 43.6     | 225      |
| 65세 이상    | 6.2  | 15.0 | 78.8     | 193      | 6.7  | 15.5 | 77.8     | 252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17.4 | 16.8 | 65.8     | 304      | 10.8 | 14.2 | 75.0     | 240      |
| 고졸        | 43.4 | 25.0 | 31.6     | 152      | 33.1 | 20.0 | 46.9     | 160      |
| 대재        | 43.8 | 21.9 | 34.4     | 32       | 40.0 | 13.3 | 46.7     | 30       |
| 대학졸업 이상   | 59.5 | 16.5 | 24.1     | 79       | 48.2 | 19.1 | 32.7     | 11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7  | 14.7 | 76.7     | 150      | 4.1  | 10.7 | 85.2     | 122      |
| 100-199만원 | 23.9 | 23.9 | 52.2     | 113      | 12.0 | 22.7 | 65.3     | 75       |
| 200-299만원 | 36.7 | 17.3 | 45.9     | 98       | 25.9 | 14.8 | 59.3     | 54       |
| 300-399만원 | 41.8 | 20.9 | 37.3     | 67       | 25.8 | 22.6 | 51.6     | 62       |
| 400-499만원 | 53.8 | 28.2 | 17.9     | 39       | 44.9 | 20.4 | 34.7     | 49       |
| 500만원 이상  | 61.9 | 17.9 | 20.2     | 84       | 53.2 | 16.5 | 30.2     | 139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40.9 | 20.8 | 38.4     | 159      | 29.6 | 13.9 | 56.5     | 115      |
| 중소도시      | 32.2 | 19.2 | 48.6     | 292      | 29.4 | 16.4 | 54.2     | 286      |
| 농어촌       | 17.5 | 15.8 | 66.7     | 120      | 19.0 | 19.7 | 61.3     | 137      |

<부표 4-13> 본인이 성인자녀를 위해 한 일 (물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27.2 | 21.9 | 50.9  | 228   | 20.6 | 23.4 | 56.1  | 214   |
| 여성        | 39.2 | 20.6 | 40.1  | 344   | 34.7 | 21.8 | 43.6  | 32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    | -    | -     | 0     | -    | -    | -     | 0     |
| 30-39세    | 0.0  | 33.3 | 66.7  | 3     | -    | -    | -     | 0     |
| 40-49세    | 52.8 | 26.0 | 21.3  | 127   | 60.3 | 23.8 | 15.9  | 63    |
| 50-59세    | 35.2 | 23.3 | 41.5  | 176   | 34.7 | 22.0 | 43.3  | 150   |
| 60세 이상    | 25.6 | 17.3 | 57.1  | 266   | 20.5 | 22.3 | 57.2  | 32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0.0  | 0.0  | 0.0   | 0     | 0.0  | 0.0  | 0.0   | 0     |
| 35-49세    | 51.5 | 26.2 | 22.3  | 130   | 60.3 | 23.8 | 15.9  | 63    |
| 50-64세    | 35.5 | 23.4 | 41.1  | 248   | 33.8 | 24.0 | 42.2  | 225   |
| 65세 이상    | 21.6 | 14.9 | 63.4  | 194   | 17.1 | 20.6 | 62.3  | 252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9.3 | 18.8 | 52.0  | 304   | 17.9 | 21.7 | 60.4  | 240   |
| 고졸        | 36.8 | 25.0 | 38.2  | 152   | 35.6 | 25.6 | 38.8  | 160   |
| 대재        | 40.6 | 25.0 | 34.4  | 32    | 40.0 | 23.3 | 36.7  | 30    |
| 대학졸업 이상   | 46.8 | 21.5 | 31.6  | 79    | 40.9 | 19.1 | 40.0  | 11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19.3 | 12.7 | 68.0  | 150   | 19.3 | 12.7 | 68.0  | 150   |
| 100-199만원 | 34.2 | 21.9 | 43.9  | 114   | 34.2 | 21.9 | 43.9  | 114   |
| 200-299만원 | 32.0 | 32.0 | 36.1  | 97    | 32.0 | 32.0 | 36.1  | 97    |
| 300-399만원 | 44.8 | 26.9 | 28.4  | 67    | 44.8 | 26.9 | 28.4  | 67    |
| 400-499만원 | 56.4 | 25.6 | 17.9  | 39    | 56.4 | 25.6 | 17.9  | 39    |
| 500만원 이상  | 41.7 | 17.9 | 40.5  | 84    | 41.7 | 17.9 | 40.5  | 84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39.6 | 19.5 | 40.9  | 159   | 40.0 | 20.9 | 39.1  | 115   |
| 중소도시      | 36.8 | 23.7 | 39.5  | 291   | 30.8 | 21.7 | 47.6  | 286   |
| 농어촌       | 22.3 | 17.4 | 60.3  | 121   | 16.1 | 25.5 | 58.4  | 137   |

〈부표 4-14〉 성인자녀가 본인을 위해 한 일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20.4 | 25.7 | 53.9     | 230      | 22.9 | 27.1 | 50.0     | 214      |
| 여성        | 27.7 | 25.7 | 46.6     | 343      | 26.0 | 26.6 | 47.4     | 327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    | -    | -        | 0        | -    | -    | -        | 0        |
| 30-39세    | 0.0  | 0.0  | 100.0    | 3        | -    | -    | -        | 0        |
| 40-49세    | 8.7  | 11.8 | 79.5     | 127      | 9.5  | 9.5  | 81.0     | 63       |
| 50-59세    | 18.0 | 28.1 | 53.9     | 178      | 16.0 | 24.7 | 59.3     | 150      |
| 60세 이상    | 37.4 | 30.9 | 31.7     | 265      | 31.7 | 31.1 | 37.2     | 328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    | -    | -        | 0        | -    | -    | -        | 0        |
| 35-49세    | 8.5  | 11.5 | 80.0     | 130      | 9.5  | 9.5  | 81.0     | 63       |
| 50-64세    | 22.0 | 28.0 | 50.0     | 250      | 18.7 | 26.2 | 55.1     | 225      |
| 65세 이상    | 39.4 | 32.1 | 28.5     | 193      | 34.0 | 31.6 | 34.4     | 253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1.3 | 29.6 | 39.1     | 304      | 36.7 | 30.4 | 32.9     | 240      |
| 고졸        | 19.7 | 24.3 | 55.9     | 152      | 17.4 | 25.5 | 57.1     | 161      |
| 대재        | 18.8 | 15.6 | 65.6     | 32       | 6.7  | 20.0 | 73.3     | 30       |
| 대학졸업 이상   | 8.8  | 17.5 | 73.8     | 80       | 14.5 | 22.7 | 62.7     | 11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4.7 | 28.0 | 37.3     | 150      | 31.1 | 33.6 | 35.2     | 122      |
| 100-199만원 | 23.9 | 30.1 | 46.0     | 113      | 30.7 | 26.7 | 42.7     | 75       |
| 200-299만원 | 17.3 | 24.5 | 58.2     | 98       | 35.2 | 24.1 | 40.7     | 54       |
| 300-399만원 | 16.4 | 37.3 | 46.3     | 67       | 29.0 | 22.6 | 48.4     | 62       |
| 400-499만원 | 30.0 | 17.5 | 52.5     | 40       | 14.3 | 22.4 | 63.3     | 49       |
| 500만원 이상  | 15.5 | 9.5  | 75.0     | 84       | 16.4 | 20.7 | 62.9     | 140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3.9 | 26.4 | 49.7     | 159      | 23.5 | 27.0 | 49.6     | 115      |
| 중소도시      | 23.5 | 24.6 | 51.9     | 293      | 22.6 | 24.4 | 53.0     | 287      |
| 농어촌       | 29.2 | 26.7 | 44.2     | 120      | 29.9 | 31.4 | 38.7     | 137      |

〈부표 4-15〉 성인자녀가 본인을 위해 한 일 (물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30.9 | 30.9 | 38.3     | 230      | 18.7 | 34.6 | 46.7     | 214      |
| 여성        | 22.1 | 35.8 | 42.2     | 344      | 21.1 | 34.9 | 44.0     | 327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    | -    | -        | 0        | -    | -    | -        | 0        |
| 30-39세    | 33.3 | 0.0  | 66.7     | 3        | -    | -    | -        | 0        |
| 40-49세    | 23.6 | 40.2 | 36.2     | 127      | 15.9 | 39.7 | 44.4     | 63       |
| 50-59세    | 21.3 | 36.5 | 42.1     | 178      | 18.0 | 41.3 | 40.7     | 150      |
| 60세 이상    | 29.3 | 29.3 | 41.4     | 266      | 22.0 | 30.8 | 47.3     | 328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    | -    | -        | 0        | -    | -    | -        | 0        |
| 35-49세    | 23.8 | 39.2 | 36.9     | 130      | 15.9 | 39.7 | 44.4     | 63       |
| 50-64세    | 22.0 | 35.6 | 42.4     | 250      | 19.6 | 37.8 | 42.7     | 225      |
| 65세 이상    | 31.4 | 27.8 | 40.7     | 194      | 21.7 | 30.8 | 47.4     | 253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7.2 | 33.4 | 39.3     | 305      | 25.0 | 29.6 | 45.4     | 240      |
| 고졸        | 26.3 | 35.5 | 38.2     | 152      | 18.0 | 39.8 | 42.2     | 161      |
| 대재        | 25.0 | 25.0 | 50.0     | 32       | 6.7  | 33.3 | 60.0     | 30       |
| 대학졸업 이상   | 17.5 | 35.0 | 47.5     | 80       | 16.4 | 39.1 | 44.5     | 11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26.0 | 26.7 | 47.3     | 150      | 20.5 | 29.5 | 50.0     | 122      |
| 100-199만원 | 28.1 | 34.2 | 37.7     | 114      | 16.0 | 26.7 | 57.3     | 75       |
| 200-299만원 | 20.4 | 40.8 | 38.8     | 98       | 25.9 | 38.9 | 35.2     | 54       |
| 300-399만원 | 29.9 | 44.8 | 25.4     | 67       | 21.0 | 38.7 | 40.3     | 62       |
| 400-499만원 | 25.0 | 37.5 | 37.5     | 40       | 14.3 | 38.8 | 46.9     | 49       |
| 500만원 이상  | 22.6 | 27.4 | 50.0     | 84       | 21.4 | 38.6 | 40.0     | 140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3.3 | 37.7 | 39.0     | 159      | 17.4 | 37.4 | 45.2     | 115      |
| 중소도시      | 24.9 | 35.8 | 39.2     | 293      | 19.5 | 34.5 | 46.0     | 287      |
| 농어촌       | 29.8 | 24.0 | 46.3     | 121      | 24.1 | 32.8 | 43.1     | 137      |

〈부표 4-16〉 배우자 부모를 위해 한 일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13.2 | 41.8 | 45.0  | 318   | 15.4 | 53.1 | 31.5  | 143   |
| 여성        | 36.9 | 39.5 | 23.6  | 415   | 27.5 | 44.3 | 28.1  | 167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20.5 | 46.2 | 33.3  | 39    | 0.0  | 53.8 | 46.2  | 13    |
| 30-39세    | 29.6 | 35.2 | 35.2  | 284   | 15.6 | 47.8 | 36.7  | 90    |
| 40-49세    | 24.8 | 44.0 | 31.1  | 302   | 30.7 | 45.5 | 23.8  | 101   |
| 50-59세    | 27.2 | 49.4 | 23.5  | 81    | 25.6 | 50.0 | 24.4  | 78    |
| 60세 이상    | 22.2 | 22.2 | 55.6  | 27    | 10.7 | 53.6 | 35.7  | 28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3.2 | 35.1 | 41.7  | 151   | 14.6 | 54.2 | 31.3  | 48    |
| 35-49세    | 27.8 | 41.8 | 30.4  | 474   | 24.4 | 44.9 | 30.8  | 156   |
| 50-64세    | 27.8 | 43.3 | 28.9  | 97    | 23.2 | 50.5 | 26.3  | 95    |
| 65세 이상    | 9.1  | 36.4 | 54.5  | 11    | 9.1  | 54.5 | 36.4  | 11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2.2 | 36.1 | 41.7  | 72    | 22.7 | 50.0 | 27.3  | 22    |
| 고졸        | 26.8 | 40.4 | 32.7  | 272   | 23.0 | 46.0 | 31.0  | 87    |
| 대재        | 27.5 | 38.2 | 34.3  | 102   | 23.1 | 40.0 | 36.9  | 65    |
| 대학졸업 이상   | 27.2 | 42.5 | 30.3  | 287   | 20.6 | 53.7 | 25.7  | 136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16.7 | 22.2 | 61.1  | 18    | 28.6 | 14.3 | 57.1  | 7     |
| 100-199만원 | 9.0  | 49.0 | 42.0  | 100   | 11.1 | 61.1 | 27.8  | 18    |
| 200-299만원 | 23.7 | 30.6 | 45.7  | 173   | 9.7  | 48.4 | 41.9  | 31    |
| 300-399만원 | 23.1 | 48.3 | 28.6  | 147   | 16.7 | 50.0 | 33.3  | 48    |
| 400-499만원 | 32.0 | 38.8 | 29.1  | 103   | 14.3 | 51.0 | 34.7  | 49    |
| 500만원 이상  | 39.1 | 42.4 | 18.5  | 184   | 30.8 | 43.8 | 25.3  | 146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27.0 | 38.9 | 34.0  | 244   | 22.6 | 56.0 | 21.4  | 84    |
| 중소도시      | 27.0 | 41.3 | 31.6  | 433   | 20.3 | 45.5 | 34.2  | 187   |
| 농어촌       | 21.4 | 41.1 | 37.5  | 56    | 27.0 | 48.6 | 24.3  | 37    |

〈부표 4-17〉 배우자 부모를 위해 한 일 (물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6.3  | 31.8 | 61.9  | 318   | 6.5  | 39.0 | 54.5  | 154   |
| 여성        | 27.0 | 37.1 | 35.9  | 415   | 20.5 | 40.5 | 38.9  | 18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5.4 | 41.0 | 43.6  | 39    | 7.7  | 53.8 | 38.5  | 13    |
| 30-39세    | 23.6 | 34.5 | 41.9  | 284   | 16.7 | 44.1 | 39.2  | 102   |
| 40-49세    | 15.2 | 36.1 | 48.7  | 302   | 11.5 | 38.1 | 50.4  | 113   |
| 50-59세    | 12.3 | 30.9 | 56.8  | 81    | 17.1 | 34.1 | 48.8  | 82    |
| 60세 이상    | 11.1 | 25.9 | 63.0  | 27    | 10.3 | 41.4 | 48.3  | 29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6.6 | 39.1 | 44.4  | 151   | 13.2 | 47.2 | 39.6  | 53    |
| 35-49세    | 19.8 | 34.6 | 45.6  | 474   | 13.7 | 40.0 | 46.3  | 175   |
| 50-64세    | 13.4 | 30.9 | 55.7  | 97    | 16.2 | 34.3 | 49.5  | 99    |
| 65세 이상    | 0.0  | 18.2 | 81.8  | 11    | 8.3  | 50.0 | 41.7  | 12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3.6 | 25.0 | 51.4  | 72    | 26.1 | 26.1 | 47.8  | 23    |
| 고졸        | 21.7 | 36.8 | 41.5  | 272   | 14.7 | 36.8 | 48.4  | 95    |
| 대재        | 18.6 | 33.3 | 48.0  | 102   | 17.6 | 43.2 | 39.2  | 74    |
| 대학졸업 이상   | 12.9 | 35.9 | 51.2  | 287   | 10.2 | 42.2 | 47.6  | 147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27.8 | 16.7 | 55.6  | 18    | 25.0 | 25.0 | 50.0  | 8     |
| 100-199만원 | 14.0 | 35.0 | 51.0  | 100   | 27.8 | 16.7 | 55.6  | 18    |
| 200-299만원 | 22.5 | 32.9 | 44.5  | 173   | 16.1 | 29.0 | 54.8  | 31    |
| 300-399만원 | 18.4 | 38.8 | 42.9  | 147   | 11.7 | 51.7 | 36.7  | 60    |
| 400-499만원 | 18.4 | 36.9 | 44.7  | 103   | 20.8 | 30.2 | 49.1  | 53    |
| 500만원 이상  | 15.2 | 33.7 | 51.1  | 184   | 11.4 | 40.5 | 48.1  | 158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15.2 | 26.6 | 58.2  | 244   | 15.2 | 47.8 | 37.0  | 92    |
| 중소도시      | 18.5 | 39.5 | 42.0  | 433   | 14.2 | 37.3 | 48.5  | 204   |
| 농어촌       | 26.8 | 33.9 | 39.3  | 56    | 9.8  | 36.6 | 53.7  | 41    |

〈부표 4-18〉 배우자 부모가 본인을 위해 한 일 (경제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7.5  | 14.2 | 78.3     | 318      | 4.5  | 16.9 | 78.6     | 154      |
| 여성        | 7.5  | 18.6 | 74.0     | 415      | 8.1  | 21.1 | 70.8     | 18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0.3 | 33.3 | 56.4     | 39       | 23.1 | 38.5 | 38.5     | 13       |
| 30-39세    | 12.7 | 18.0 | 69.4     | 284      | 9.8  | 27.5 | 62.7     | 102      |
| 40-49세    | 4.3  | 15.2 | 80.5     | 302      | 6.2  | 18.6 | 75.2     | 113      |
| 50-59세    | 2.5  | 13.6 | 84.0     | 81       | 2.4  | 11.0 | 86.6     | 82       |
| 60세 이상    | 0.0  | 3.7  | 96.3     | 27       | 0.0  | 6.9  | 93.1     | 29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5.9 | 25.8 | 58.3     | 151      | 15.1 | 35.8 | 49.1     | 53       |
| 35-49세    | 6.1  | 15.0 | 78.9     | 474      | 6.9  | 20.0 | 73.1     | 175      |
| 50-64세    | 2.1  | 12.4 | 85.6     | 97       | 2.0  | 9.1  | 88.9     | 99       |
| 65세 이상    | 0.0  | 0.0  | 100.0    | 11       | 0.0  | 16.7 | 83.3     | 12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1.4  | 13.9 | 84.7     | 72       | 0.0  | 8.7  | 91.3     | 23       |
| 고졸        | 6.6  | 16.5 | 76.8     | 272      | 5.3  | 21.1 | 73.7     | 95       |
| 대재        | 8.8  | 22.5 | 68.6     | 102      | 9.5  | 21.6 | 68.9     | 74       |
| 대학졸업 이상   | 9.4  | 15.3 | 75.3     | 287      | 6.8  | 18.4 | 74.8     | 147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5.6  | 11.1 | 83.3     | 18       | 0.0  | 0.0  | 100.0    | 8        |
| 100-199만원 | 7.0  | 21.0 | 72.0     | 100      | 0.0  | 5.6  | 94.4     | 18       |
| 200-299만원 | 8.1  | 19.1 | 72.8     | 173      | 12.9 | 22.6 | 64.5     | 31       |
| 300-399만원 | 8.2  | 20.4 | 71.4     | 147      | 6.7  | 23.3 | 70.0     | 60       |
| 400-499만원 | 13.6 | 11.7 | 74.8     | 103      | 5.7  | 22.6 | 71.7     | 53       |
| 500만원 이상  | 3.8  | 12.5 | 83.7     | 184      | 7.0  | 16.5 | 76.6     | 158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7.0  | 18.4 | 74.6     | 244      | 4.3  | 21.7 | 73.9     | 92       |
| 중소도시      | 8.3  | 15.9 | 75.8     | 433      | 7.8  | 18.1 | 74.0     | 204      |
| 농어촌       | 3.6  | 14.3 | 82.1     | 56       | 4.9  | 19.5 | 75.6     | 41       |

〈부표 4-19〉 배우자 부모가 본인을 위해 한 일 (물리적 지원)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12.9 | 20.4 | 66.7     | 318      | 14.3 | 24.7 | 61.0     | 154      |
| 여성        | 12.3 | 14.5 | 73.3     | 415      | 5.9  | 21.6 | 72.4     | 185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7.9 | 38.5 | 43.6     | 39       | 15.4 | 61.5 | 23.1     | 13       |
| 30-39세    | 20.8 | 15.8 | 63.4     | 284      | 13.7 | 39.2 | 47.1     | 102      |
| 40-49세    | 7.3  | 18.5 | 74.2     | 302      | 11.5 | 17.7 | 70.8     | 113      |
| 50-59세    | 4.9  | 7.4  | 87.7     | 81       | 4.9  | 11.0 | 84.1     | 82       |
| 60세 이상    | 0.0  | 11.1 | 88.9     | 27       | 0.0  | 3.4  | 96.6     | 29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23.2 | 23.2 | 53.6     | 151      | 9.4  | 50.9 | 39.6     | 53       |
| 35-49세    | 11.2 | 17.1 | 71.7     | 474      | 13.7 | 23.4 | 62.9     | 175      |
| 50-64세    | 4.1  | 7.2  | 88.7     | 97       | 4.0  | 10.1 | 85.9     | 99       |
| 65세 이상    | 0.0  | 18.2 | 81.8     | 11       | 0.0  | 0.0  | 100.0    | 12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2.8  | 9.7  | 87.5     | 72       | 8.7  | 8.7  | 82.6     | 23       |
| 고졸        | 10.7 | 17.3 | 72.1     | 272      | 2.1  | 18.9 | 78.9     | 95       |
| 대재        | 15.7 | 23.5 | 60.8     | 102      | 12.2 | 28.4 | 59.5     | 74       |
| 대학졸업 이상   | 15.7 | 16.4 | 67.9     | 287      | 13.6 | 25.2 | 61.2     | 147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0.0  | 16.7 | 83.3     | 18       | 0.0  | 0.0  | 100.0    | 8        |
| 100-199만원 | 6.0  | 16.0 | 78.0     | 100      | 5.6  | 16.7 | 77.8     | 18       |
| 200-299만원 | 9.2  | 18.5 | 72.3     | 173      | 9.7  | 38.7 | 51.6     | 31       |
| 300-399만원 | 15.0 | 17.0 | 68.0     | 147      | 6.7  | 20.0 | 73.3     | 60       |
| 400-499만원 | 21.4 | 19.4 | 59.2     | 103      | 11.3 | 28.3 | 60.4     | 53       |
| 500만원 이상  | 14.1 | 15.2 | 70.7     | 184      | 11.4 | 19.6 | 69.0     | 158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13.9 | 18.4 | 67.6     | 244      | 12.0 | 31.5 | 56.5     | 92       |
| 중소도시      | 12.2 | 16.6 | 71.1     | 433      | 10.3 | 19.6 | 70.1     | 204      |
| 농어촌       | 8.9  | 14.3 | 76.8     | 56       | 2.4  | 22.0 | 75.6     | 41       |

〈부표 4-20〉 저녁식사 준비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45.8 | 12.4 | 41.8     | 710      | 58.0 | 11.1 | 30.9     | 476      |
| 여성        | 91.3 | 3.7  | 5.0      | 888      | 90.8 | 3.6  | 5.6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64.9 | 11.7 | 23.4     | 325      | 67.0 | 13.4 | 19.6     | 194      |
| 30-39세    | 77.9 | 7.5  | 14.7     | 389      | 81.0 | 7.5  | 11.5     | 174      |
| 40-49세    | 70.6 | 7.9  | 21.5     | 418      | 80.0 | 5.3  | 14.7     | 170      |
| 50-59세    | 69.4 | 6.6  | 24.0     | 196      | 73.4 | 7.9  | 18.6     | 177      |
| 60세 이상    | 70.7 | 3.0  | 26.3     | 270      | 77.7 | 3.6  | 18.7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69.1 | 10.8 | 20.1     | 498      | 70.5 | 12.7 | 16.7     | 275      |
| 35-49세    | 73.3 | 7.3  | 19.4     | 634      | 81.0 | 4.9  | 14.1     | 263      |
| 50-64세    | 70.4 | 6.7  | 22.8     | 267      | 74.1 | 7.5  | 18.4     | 255      |
| 65세 이상    | 69.8 | 1.5  | 28.6     | 199      | 78.4 | 2.7  | 18.9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6.9 | 3.1  | 19.9     | 351      | 79.7 | 3.8  | 16.5     | 266      |
| 고졸        | 75.8 | 5.2  | 19.0     | 459      | 81.0 | 4.8  | 14.1     | 248      |
| 대재        | 64.6 | 11.7 | 23.7     | 359      | 73.9 | 8.7  | 17.4     | 218      |
| 대학졸업 이상   | 66.5 | 10.4 | 23.1     | 424      | 70.3 | 10.3 | 19.4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4.0 | 2.6  | 13.4     | 194      | 86.2 | 3.3  | 10.5     | 152      |
| 100-199만원 | 69.0 | 7.5  | 23.5     | 268      | 77.1 | 1.9  | 21.0     | 105      |
| 200-299만원 | 71.3 | 6.7  | 22.0     | 328      | 79.5 | 8.7  | 11.8     | 127      |
| 300-399만원 | 73.1 | 9.2  | 17.7     | 271      | 73.3 | 11.9 | 14.8     | 135      |
| 400-499만원 | 70.9 | 7.1  | 22.0     | 182      | 71.4 | 3.6  | 25.0     | 112      |
| 500만원 이상  | 62.6 | 11.1 | 26.2     | 305      | 72.9 | 8.7  | 18.4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66.9 | 8.2  | 25.0     | 513      | 75.2 | 6.0  | 18.8     | 282      |
| 중소도시      | 73.1 | 7.9  | 19.0     | 900      | 76.2 | 8.5  | 15.4     | 579      |
| 농어촌       | 73.4 | 4.3  | 22.3     | 184      | 76.6 | 4.3  | 19.1     | 188      |

〈부표 4-21〉 세탁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자주   | 가끔   | 전혀<br>안함 | 계<br>(N) |
| 성별        |      |      |          |          |      |      |          |          |
| 남성        | 42.3 | 12.4 | 45.4     | 710      | 59.9 | 10.3 | 29.8     | 476      |
| 여성        | 92.5 | 3.2  | 4.4      | 888      | 92.9 | 2.1  | 5.0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61.8 | 13.2 | 24.9     | 325      | 70.1 | 9.3  | 20.6     | 194      |
| 30-39세    | 78.4 | 6.2  | 15.4     | 389      | 86.8 | 4.6  | 8.6      | 174      |
| 40-49세    | 69.9 | 6.9  | 23.2     | 418      | 80.6 | 4.1  | 15.3     | 170      |
| 50-59세    | 69.9 | 8.2  | 21.9     | 196      | 76.3 | 9.0  | 14.7     | 177      |
| 60세 이상    | 68.9 | 1.5  | 29.6     | 270      | 77.4 | 3.6  | 19.0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67.7 | 11.0 | 21.3     | 498      | 76.0 | 8.0  | 16.0     | 275      |
| 35-49세    | 72.7 | 6.5  | 20.8     | 634      | 81.7 | 4.2  | 14.1     | 263      |
| 50-64세    | 69.3 | 7.1  | 23.6     | 267      | 76.9 | 7.8  | 15.3     | 255      |
| 65세 이상    | 69.3 | .5   | 30.2     | 199      | 77.2 | 3.1  | 19.7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6.6 | 2.6  | 20.8     | 351      | 78.9 | 3.4  | 17.7     | 266      |
| 고졸        | 77.6 | 4.6  | 17.9     | 459      | 78.6 | 3.6  | 17.7     | 248      |
| 대재        | 59.6 | 13.1 | 27.3     | 359      | 78.9 | 6.4  | 14.7     | 218      |
| 대학졸업 이상   | 65.6 | 9.2  | 25.2     | 424      | 75.9 | 9.1  | 15.0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1 | 1.0  | 12.9     | 194      | 86.2 | 2.0  | 11.8     | 152      |
| 100-199만원 | 70.1 | 8.2  | 21.6     | 268      | 77.1 | 2.9  | 20.0     | 105      |
| 200-299만원 | 70.7 | 5.2  | 24.1     | 328      | 80.3 | 6.3  | 13.4     | 127      |
| 300-399만원 | 70.8 | 7.0  | 22.1     | 271      | 74.8 | 11.9 | 13.3     | 135      |
| 400-499만원 | 69.2 | 9.3  | 21.4     | 182      | 75.9 | 4.5  | 19.6     | 112      |
| 500만원 이상  | 59.3 | 11.8 | 28.9     | 305      | 76.2 | 6.0  | 17.8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64.5 | 8.6  | 26.9     | 513      | 75.5 | 6.4  | 18.1     | 282      |
| 중소도시      | 73.3 | 6.9  | 19.8     | 900      | 79.8 | 5.9  | 14.3     | 579      |
| 농어촌       | 70.7 | 5.4  | 23.9     | 184      | 75.5 | 4.8  | 19.7     | 188      |

〈부표 4-22〉 집안청소 (2006/2016년)

(단위: %, 명)

|           | 2006 |      |       |       | 2016 |      |       |       |
|-----------|------|------|-------|-------|------|------|-------|-------|
|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자주   | 가끔   | 전혀 안함 | 계 (N) |
| 성별        |      |      |       |       |      |      |       |       |
| 남성        | 59.9 | 15.1 | 25.1  | 710   | 70.0 | 12.0 | 18.1  | 476   |
| 여성        | 93.0 | 3.8  | 3.2   | 888   | 92.2 | 3.5  | 4.3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71.4 | 16.9 | 11.7  | 325   | 77.3 | 13.4 | 9.3   | 194   |
| 30-39세    | 84.8 | 6.9  | 8.2   | 389   | 87.4 | 5.2  | 7.5   | 174   |
| 40-49세    | 80.4 | 7.9  | 11.7  | 418   | 84.1 | 5.3  | 10.6  | 170   |
| 50-59세    | 78.6 | 5.6  | 15.8  | 196   | 79.7 | 11.9 | 8.5   | 177   |
| 60세 이상    | 73.7 | 5.6  | 20.7  | 270   | 82.5 | 3.6  | 13.9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76.3 | 13.5 | 10.2  | 498   | 81.1 | 10.5 | 8.4   | 275   |
| 35-49세    | 81.7 | 7.6  | 10.7  | 634   | 84.4 | 5.7  | 9.9   | 263   |
| 50-64세    | 77.2 | 7.1  | 15.7  | 267   | 81.2 | 8.6  | 10.2  | 255   |
| 65세 이상    | 73.9 | 3.5  | 22.6  | 199   | 81.9 | 4.2  | 13.9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78.6 | 5.1  | 16.2  | 351   | 82.0 | 4.9  | 13.2  | 266   |
| 고졸        | 82.8 | 5.4  | 11.8  | 459   | 82.7 | 4.0  | 13.3  | 248   |
| 대재        | 71.0 | 16.7 | 12.3  | 359   | 82.6 | 11.5 | 6.0   | 218   |
| 대학졸업 이상   | 79.2 | 9.0  | 11.8  | 424   | 81.6 | 9.1  | 9.4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87.1 | 3.1  | 9.8   | 194   | 87.5 | 3.9  | 8.6   | 152   |
| 100-199만원 | 74.6 | 9.7  | 15.7  | 268   | 79.0 | 7.6  | 13.3  | 105   |
| 200-299만원 | 79.6 | 7.6  | 12.8  | 328   | 87.4 | 5.5  | 7.1   | 127   |
| 300-399만원 | 82.3 | 7.7  | 10.0  | 271   | 80.7 | 8.9  | 10.4  | 135   |
| 400-499만원 | 77.5 | 9.3  | 13.2  | 182   | 81.3 | 6.3  | 12.5  | 112   |
| 500만원 이상  | 72.5 | 12.8 | 14.8  | 305   | 80.7 | 8.4  | 10.8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75.4 | 9.9  | 14.6  | 513   | 82.6 | 6.0  | 11.3  | 282   |
| 중소도시      | 80.8 | 8.4  | 10.8  | 900   | 83.2 | 7.8  | 9.0   | 579   |
| 농어촌       | 74.5 | 7.6  | 17.9  | 184   | 78.2 | 8.0  | 13.8  | 188   |

<부표 4-23>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 (2006년)

(단위: %, 명)

|                | 2006       |                   |                  |                    |                |                    | 기타  | 계 (N) |
|----------------|------------|-------------------|------------------|--------------------|----------------|--------------------|-----|-------|
|                | 장남 또는 그 가족 |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 딸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 아들, 딸 상관없이 또는 그 가족 |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 | 자녀 또는 가족에 게는 책임 없음 |     |       |
| <b>성별</b>      |            |                   |                  |                    |                |                    |     |       |
| 남성             | 32.9       | 17.1              | 0.1              | 24.9               | 23.2           | 0.7                | 1.1 | 712   |
| 여성             | 25.6       | 9.5               | 0.5              | 35.2               | 27.5           | 0.9                | 0.9 | 888   |
| <b>연령(1)</b>   |            |                   |                  |                    |                |                    |     |       |
| 18-29세         | 16.8       | 10.1              | 0.6              | 36.7               | 35.8           | 0.0                | 0.0 | 327   |
| 30-39세         | 26.2       | 13.6              | 0.0              | 29.8               | 29.8           | 0.3                | 0.3 | 389   |
| 40-49세         | 30.4       | 14.4              | 0.0              | 28.9               | 24.9           | 0.2                | 1.2 | 418   |
| 50-59세         | 27.6       | 15.8              | 1.0              | 33.2               | 17.9           | 3.1                | 1.5 | 196   |
| 60세 이상         | 45.6       | 10.7              | 0.4              | 25.2               | 13.7           | 1.9                | 2.6 | 270   |
| <b>연령(2)</b>   |            |                   |                  |                    |                |                    |     |       |
| 18-34세         | 20.2       | 10.8              | 0.4              | 34.2               | 34.2           | 0.2                | 0.0 | 500   |
| 35-49세         | 28.9       | 14.5              | 0.0              | 29.3               | 26.2           | 0.2                | 0.9 | 634   |
| 50-64세         | 29.5       | 16.4              | 0.7              | 31.7               | 17.5           | 2.6                | 1.5 | 268   |
| 65세 이상         | 49.5       | 8.1               | 0.5              | 24.2               | 12.6           | 2.0                | 3.0 | 198   |
| <b>학력</b>      |            |                   |                  |                    |                |                    |     |       |
| 고졸 미만          | 37.8       | 11.5              | 0.6              | 28.9               | 15.2           | 2.9                | 3.2 | 349   |
| 고졸             | 28.2       | 14.8              | 0.7              | 31.9               | 23.9           | 0.2                | 0.4 | 461   |
| 대재             | 22.3       | 13.6              | 0.0              | 29.5               | 34.3           | 0.0                | 0.3 | 359   |
| 대학졸업 이상        | 27.2       | 11.5              | 0.0              | 31.5               | 28.9           | 0.5                | 0.5 | 426   |
| <b>월평균가구소득</b> |            |                   |                  |                    |                |                    |     |       |
| 100만원 미만       | 39.4       | 7.8               | 0.0              | 31.6               | 20.2           | 0.0                | 1.0 | 193   |
| 100-199만원      | 31.0       | 11.6              | 1.1              | 31.0               | 22.8           | 1.9                | 0.7 | 268   |
| 200-299만원      | 23.4       | 18.2              | 0.0              | 27.7               | 29.5           | 0.9                | 0.3 | 329   |
| 300-399만원      | 29.9       | 12.2              | 0.4              | 30.3               | 24.7           | 0.7                | 1.8 | 271   |
| 400-499만원      | 24.2       | 12.6              | 0.0              | 30.2               | 31.3           | 0.5                | 1.1 | 182   |
| 500만원 이상       | 28.4       | 13.1              | 0.3              | 34.0               | 23.5           | 0.0                | 0.7 | 306   |
| <b>지역</b>      |            |                   |                  |                    |                |                    |     |       |
| 대도시            | 26.1       | 14.0              | 0.2              | 32.2               | 26.7           | 0.4                | 0.4 | 513   |
| 중소도시           | 27.3       | 13.0              | 0.3              | 30.9               | 26.2           | 1.0                | 1.3 | 901   |
| 농어촌            | 43.8       | 8.6               | 0.5              | 25.4               | 19.5           | 1.1                | 1.1 | 185   |

〈부표 4-24〉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 (2016년)

(단위: %, 명)

|           | 2016                |                            |                           |                             |                         |                                   | 기타  | 계<br>(N) |
|-----------|---------------------|----------------------------|---------------------------|-----------------------------|-------------------------|-----------------------------------|-----|----------|
|           | 장남<br>또는<br>그<br>가족 | 아들 중<br>누구든지<br>또는 그<br>가족 | 딸 중<br>누구든지<br>또는 그<br>가족 | 아들, 딸<br>상관없이<br>또는 그<br>가족 | 모든<br>자녀들<br>또는 그<br>가족 | 자녀<br>또는<br>가족에<br>게는<br>책임<br>없음 |     |          |
| 성별        |                     |                            |                           |                             |                         |                                   |     |          |
| 남성        | 26.9                | 5.9                        | 0.4                       | 34.2                        | 30.5                    | 1.9                               | 0.2 | 476      |
| 여성        | 18.9                | 3.8                        | 1.6                       | 42.0                        | 30.4                    | 2.4                               | 0.9 | 576      |
| 연령(1)     |                     |                            |                           |                             |                         |                                   |     |          |
| 18-29세    | 13.4                | 3.1                        | 0.5                       | 42.8                        | 39.2                    | 0.0                               | 1.0 | 194      |
| 30-39세    | 14.4                | 2.9                        | 0.0                       | 44.8                        | 36.2                    | 1.7                               | 0.0 | 174      |
| 40-49세    | 17.6                | 4.7                        | 0.6                       | 42.4                        | 33.5                    | 1.2                               | 0.0 | 170      |
| 50-59세    | 20.3                | 4.5                        | 1.1                       | 37.9                        | 35.0                    | 0.6                               | 0.6 | 177      |
| 60세 이상    | 35.6                | 6.8                        | 2.1                       | 31.2                        | 18.4                    | 5.0                               | 0.9 | 337      |
| 연령(2)     |                     |                            |                           |                             |                         |                                   |     |          |
| 18-34세    | 11.6                | 2.9                        | 0.4                       | 45.5                        | 38.5                    | 0.4                               | 0.7 | 275      |
| 35-49세    | 18.6                | 4.2                        | 0.4                       | 41.1                        | 34.2                    | 1.5                               | 0.0 | 263      |
| 50-64세    | 20.8                | 6.3                        | 2.0                       | 39.2                        | 29.4                    | 1.2                               | 1.2 | 255      |
| 65세 이상    | 39.8                | 5.8                        | 1.5                       | 27.8                        | 18.9                    | 5.8                               | 0.4 | 259      |
| 학력        |                     |                            |                           |                             |                         |                                   |     |          |
| 고졸 미만     | 36.1                | 7.1                        | 1.1                       | 29.3                        | 19.5                    | 5.6                               | 1.1 | 266      |
| 고졸        | 21.8                | 5.6                        | 1.6                       | 39.9                        | 29.8                    | 0.8                               | 0.4 | 248      |
| 대재        | 18.8                | 4.6                        | 0.9                       | 37.2                        | 37.6                    | 0.5                               | 0.5 | 218      |
| 대학졸업 이상   | 14.4                | 2.2                        | 0.6                       | 45.9                        | 35.0                    | 1.6                               | 0.3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100만원 미만  | 42.8                | 3.3                        | 1.3                       | 27.0                        | 17.8                    | 6.6                               | 1.3 | 152      |
| 100-199만원 | 31.4                | 7.6                        | 1.9                       | 30.5                        | 26.7                    | 1.9                               | 0.0 | 105      |
| 200-299만원 | 17.3                | 5.5                        | 0.8                       | 43.3                        | 30.7                    | 2.4                               | 0.0 | 127      |
| 300-399만원 | 17.8                | 3.7                        | 0.7                       | 37.8                        | 37.8                    | 2.2                               | 0.0 | 135      |
| 400-499만원 | 19.6                | 5.4                        | 0.9                       | 42.0                        | 30.4                    | 0.9                               | 0.9 | 112      |
| 500만원 이상  | 15.7                | 3.9                        | 0.6                       | 45.2                        | 33.1                    | 0.6                               | 0.9 | 332      |
| 지역        |                     |                            |                           |                             |                         |                                   |     |          |
| 대도시       | 18.4                | 3.2                        | 1.4                       | 41.1                        | 34.0                    | 0.7                               | 1.1 | 282      |
| 중소도시      | 21.4                | 5.2                        | 1.0                       | 39.4                        | 30.6                    | 2.1                               | 0.3 | 579      |
| 농어촌       | 32.4                | 5.9                        | 0.5                       | 32.4                        | 23.4                    | 4.8                               | 0.5 | 188      |

## 5. 가족관계와 정치행위

〈부표 5-1〉 2016 총선 성별 투표참여율 (2016년)

(단위: %, 명)

|           | 투표 참여 | 계 (N) |
|-----------|-------|-------|
| 성별        |       |       |
| 남성        | 76.3  | 456   |
| 여성        | 78.4  | 541   |
| 연령(1)     |       |       |
| 18-29세    | 69.4  | 183   |
| 30-39세    | 68.3  | 167   |
| 40-49세    | 76.4  | 165   |
| 50-59세    | 79.2  | 173   |
| 60세 이상    | 86.7  | 309   |
| 연령(2)     |       |       |
| 18-34세    | 69.3  | 267   |
| 35-49세    | 74.6  | 260   |
| 50-64세    | 82.3  | 254   |
| 65세 이상    | 87.6  | 259   |
| 학력        |       |       |
| 고졸 미만     | 80.6  | 242   |
| 고졸        | 70.9  | 237   |
| 대재        | 70.3  | 209   |
| 대학졸업 이상   | 84.4  | 309   |
| 월평균가구소득   |       |       |
| 100만원 미만  | 78.9  | 133   |
| 100-199만원 | 76.7  | 103   |
| 200-299만원 | 71.1  | 121   |
| 300-399만원 | 74.0  | 131   |
| 400-499만원 | 75.9  | 108   |
| 500만원 이상  | 81.9  | 326   |
| 지역        |       |       |
| 대도시       | 83.1  | 266   |
| 중소도시      | 73.8  | 557   |
| 농어촌       | 80.1  | 171   |

〈부표 5-2〉 정치관심 (2016년)

(단위: %, 명)

|           | 관심있음 | 보통   | 관심없음 | 계 (N) |
|-----------|------|------|------|-------|
| 성별        |      |      |      |       |
| 남성        | 21.9 | 39.1 | 39.1 | 476   |
| 여성        | 10.1 | 31.1 | 58.9 | 576   |
| 연령(1)     |      |      |      |       |
| 18-29세    | 15.0 | 41.2 | 43.8 | 194   |
| 30-39세    | 16.7 | 35.1 | 48.3 | 174   |
| 40-49세    | 18.8 | 29.4 | 51.8 | 170   |
| 50-59세    | 14.7 | 42.4 | 42.9 | 177   |
| 60세 이상    | 13.7 | 29.4 | 57.0 | 337   |
| 연령(2)     |      |      |      |       |
| 18-34세    | 15.3 | 41.1 | 43.6 | 275   |
| 35-49세    | 18.3 | 29.7 | 52.1 | 263   |
| 50-64세    | 14.5 | 40.4 | 45.1 | 255   |
| 65세 이상    | 13.5 | 27.4 | 59.1 | 259   |
| 학력        |      |      |      |       |
| 고졸 미만     | 9.8  | 27.1 | 63.2 | 266   |
| 고졸        | 10.9 | 32.7 | 56.5 | 248   |
| 대재        | 12.4 | 40.8 | 46.8 | 218   |
| 대학졸업 이상   | 25.6 | 38.4 | 35.9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100만원 미만  | 12.5 | 24.3 | 63.2 | 152   |
| 100-199만원 | 10.5 | 27.6 | 61.9 | 105   |
| 200-299만원 | 12.6 | 37.0 | 50.4 | 127   |
| 300-399만원 | 14.8 | 36.3 | 48.9 | 135   |
| 400-499만원 | 17.0 | 38.4 | 44.6 | 112   |
| 500만원 이상  | 21.1 | 38.6 | 40.4 | 332   |
| 지역        |      |      |      |       |
| 대도시       | 23.4 | 35.1 | 41.5 | 282   |
| 중소도시      | 12.1 | 38.0 | 49.9 | 579   |
| 농어촌       | 13.8 | 24.5 | 61.7 | 188   |

〈부표 5-3〉 응답자 아버지의 지지여부 (2016년)

(단위: %, 명)

|           |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같은 후보를 지지했다 |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 누구를 지지했는지 모르겠다 |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 계 (N) |
|-----------|-------------------------|-------------------------|----------------|--------------------|-------|
| 성별        |                         |                         |                |                    |       |
| 남성        | 20.4                    | 13.4                    | 30.7           | 35.5               | 476   |
| 여성        | 23.8                    | 13.1                    | 22.0           | 41.1               | 572   |
| 연령(1)     |                         |                         |                |                    |       |
| 18-29세    | 36.5                    | 17.7                    | 45.3           | 0.5                | 192   |
| 30-39세    | 27.7                    | 25.4                    | 41.6           | 5.2                | 173   |
| 40-49세    | 31.2                    | 20.6                    | 32.4           | 15.9               | 170   |
| 50-59세    | 25.4                    | 14.1                    | 24.3           | 36.2               | 177   |
| 60세 이상    | 5.1                     | .3                      | 4.5            | 90.2               | 336   |
| 연령(2)     |                         |                         |                |                    |       |
| 18-34세    | 33.5                    | 21.0                    | 44.5           | 1.1                | 272   |
| 35-49세    | 30.4                    | 21.3                    | 35.4           | 12.9               | 263   |
| 50-64세    | 22.8                    | 10.2                    | 20.9           | 46.1               | 254   |
| 65세 이상    | 1.5                     | 0.0                     | 1.9            | 96.5               | 259   |
| 학력        |                         |                         |                |                    |       |
| 고졸 미만     | 5.3                     | 0.8                     | 6.0            | 88.0               | 266   |
| 고졸        | 23.6                    | 8.1                     | 30.1           | 38.2               | 246   |
| 대재        | 34.1                    | 14.7                    | 41.9           | 9.2                | 217   |
| 대학졸업 이상   | 27.3                    | 26.6                    | 28.5           | 17.6               | 319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100만원 미만  | 5.9                     | 0.0                     | 8.6            | 85.5               | 152   |
| 100-199만원 | 15.4                    | 8.7                     | 11.5           | 64.4               | 104   |
| 200-299만원 | 19.8                    | 11.1                    | 31.7           | 37.3               | 126   |
| 300-399만원 | 20.3                    | 9.8                     | 39.1           | 30.8               | 133   |
| 400-499만원 | 33.9                    | 20.5                    | 26.8           | 18.8               | 112   |
| 500만원 이상  | 31.6                    | 22.0                    | 26.8           | 19.6               | 332   |
| 지역        |                         |                         |                |                    |       |
| 대도시       | 24.9                    | 19.6                    | 27.8           | 27.8               | 281   |
| 중소도시      | 24.8                    | 13.2                    | 27.4           | 34.5               | 576   |
| 농어촌       | 10.6                    | 4.3                     | 18.1           | 67.0               | 188   |

〈부표 5-4〉 응답자 아버지의 지지후보 (2016년)

(단위: %, 명)

|           | 새누리당 | 더불어민<br>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기타  | 두 분 모두<br>생존해 계시지<br>않는다 | 계 (N) |
|-----------|------|------------|------|-----|-----|--------------------------|-------|
| 성별        |      |            |      |     |     |                          |       |
| 남성        | 40.8 | 15.5       | 3.8  | 1.1 | 3.0 | 35.9                     | 471   |
| 여성        | 34.2 | 16.3       | 3.2  | 1.4 | 3.4 | 41.6                     | 565   |
| 연령(1)     |      |            |      |     |     |                          |       |
| 18-29세    | 52.7 | 32.3       | 7.5  | 2.7 | 4.3 | 0.5                      | 186   |
| 30-39세    | 55.6 | 28.1       | 4.7  | 1.8 | 4.7 | 5.3                      | 171   |
| 40-49세    | 55.6 | 17.8       | 5.3  | 1.2 | 4.1 | 16.0                     | 169   |
| 50-59세    | 44.0 | 12.0       | 2.9  | 1.1 | 3.4 | 36.6                     | 175   |
| 60세 이상    | 6.3  | 1.8        | 0.0  | .3  | 1.2 | 90.4                     | 335   |
| 연령(2)     |      |            |      |     |     |                          |       |
| 18-34세    | 54.7 | 29.8       | 6.8  | 2.6 | 4.9 | 1.1                      | 265   |
| 35-49세    | 54.4 | 22.6       | 5.0  | 1.1 | 3.8 | 13.0                     | 261   |
| 50-64세    | 36.7 | 10.0       | 2.0  | 0.8 | 4.0 | 46.6                     | 251   |
| 65세 이상    | 2.3  | 0.8        | 0.0  | 0.4 | 0.0 | 96.5                     | 259   |
| 학력        |      |            |      |     |     |                          |       |
| 고졸 미만     | 7.1  | 3.0        | 0.4  | 0.0 | 1.5 | 88.0                     | 266   |
| 고졸        | 38.1 | 13.5       | 2.9  | 2.0 | 4.9 | 38.5                     | 244   |
| 대재        | 51.2 | 28.0       | 7.1  | 0.9 | 3.3 | 9.5                      | 211   |
| 대학졸업 이상   | 52.4 | 20.6       | 4.1  | 1.9 | 3.2 | 17.8                     | 315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100만원 미만  | 6.0  | 4.7        | 0.7  | 0.0 | 1.3 | 87.2                     | 149   |
| 100-199만원 | 19.2 | 9.6        | 2.9  | 0.0 | 3.8 | 64.4                     | 104   |
| 200-299만원 | 37.6 | 18.4       | 0.8  | 3.2 | 2.4 | 37.6                     | 125   |
| 300-399만원 | 40.8 | 20.0       | 2.3  | 2.3 | 3.1 | 31.5                     | 130   |
| 400-499만원 | 54.5 | 17.9       | 4.5  | 0.9 | 3.6 | 18.8                     | 112   |
| 500만원 이상  | 50.5 | 20.7       | 5.5  | 1.5 | 2.1 | 19.8                     | 329   |
| 지역        |      |            |      |     |     |                          |       |
| 대도시       | 43.6 | 18.5       | 4.0  | 1.1 | 4.4 | 28.4                     | 275   |
| 중소도시      | 40.5 | 16.1       | 3.5  | 1.8 | 3.2 | 34.9                     | 570   |
| 농어촌       | 17.0 | 11.7       | 2.7  | 0.0 | 1.6 | 67.0                     | 188   |

<부표 5-5> 정치냉소주의: 정치인들이 나라 걱정을 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2016년)

(단위: %, 명)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성별        |        |      |      |       |
| 남성        | 5.5    | 5.3  | 89.3 | 476   |
| 여성        | 5.2    | 9.4  | 85.4 | 576   |
| 연령(1)     |        |      |      |       |
| 18-29세    | 3.6    | 6.2  | 90.2 | 194   |
| 30-39세    | 5.2    | 4.0  | 90.8 | 174   |
| 40-49세    | 3.5    | 7.7  | 88.8 | 170   |
| 50-59세    | 6.8    | 5.7  | 87.6 | 177   |
| 60세 이상    | 6.5    | 11.0 | 82.5 | 337   |
| 연령(2)     |        |      |      |       |
| 18-34세    | 4.7    | 5.5  | 89.8 | 275   |
| 35-49세    | 3.4    | 6.5  | 90.1 | 263   |
| 50-64세    | 5.9    | 5.5  | 88.6 | 255   |
| 65세 이상    | 7.3    | 12.7 | 79.9 | 259   |
| 학력        |        |      |      |       |
| 고졸 미만     | 5.3    | 14.3 | 80.5 | 266   |
| 고졸        | 4.8    | 6.1  | 89.1 | 248   |
| 대재        | 3.7    | 6.0  | 90.4 | 218   |
| 대학졸업 이상   | 6.9    | 4.1  | 89.1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100만원 미만  | 5.9    | 11.8 | 82.2 | 152   |
| 100-199만원 | 5.7    | 13.3 | 81.0 | 105   |
| 200-299만원 | 4.7    | 9.5  | 85.8 | 127   |
| 300-399만원 | 5.9    | 5.9  | 88.2 | 135   |
| 400-499만원 | 4.5    | 4.5  | 91.1 | 112   |
| 500만원 이상  | 5.4    | 4.2  | 90.4 | 332   |
| 지역        |        |      |      |       |
| 대도시       | 6.0    | 4.6  | 89.4 | 282   |
| 중소도시      | 4.7    | 7.9  | 87.4 | 579   |
| 농어촌       | 6.4    | 10.6 | 83.0 | 188   |

〈부표 5-6〉 정치냉소주의2: 정치인들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2016년)

(단위: %, 명)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성별        |        |      |      |       |
| 남성        | 5.5    | 8.6  | 85.9 | 476   |
| 여성        | 5.2    | 9.7  | 85.1 | 576   |
| 연령(1)     |        |      |      |       |
| 18-29세    | 4.6    | 9.8  | 85.6 | 194   |
| 30-39세    | 3.5    | 8.1  | 88.5 | 174   |
| 40-49세    | 3.5    | 7.1  | 89.4 | 170   |
| 50-59세    | 6.8    | 7.3  | 85.9 | 177   |
| 60세 이상    | 6.8    | 11.6 | 81.6 | 337   |
| 연령(2)     |        |      |      |       |
| 18-34세    | 4.7    | 9.1  | 86.2 | 275   |
| 35-49세    | 3.0    | 7.6  | 89.4 | 263   |
| 50-64세    | 6.3    | 7.5  | 86.3 | 255   |
| 65세 이상    | 7.3    | 12.7 | 79.9 | 259   |
| 학력        |        |      |      |       |
| 고졸 미만     | 5.6    | 12.8 | 81.6 | 266   |
| 고졸        | 5.2    | 6.1  | 88.7 | 248   |
| 대재        | 5.5    | 8.7  | 85.8 | 218   |
| 대학졸업 이상   | 5.0    | 9.1  | 85.9 | 320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100만원 미만  | 4.0    | 13.2 | 82.9 | 152   |
| 100-199만원 | 7.6    | 16.2 | 76.2 | 105   |
| 200-299만원 | 3.9    | 7.9  | 88.2 | 127   |
| 300-399만원 | 5.2    | 6.7  | 88.2 | 135   |
| 400-499만원 | 3.6    | 5.4  | 91.1 | 112   |
| 500만원 이상  | 6.0    | 6.9  | 87.1 | 332   |
| 지역        |        |      |      |       |
| 대도시       | 6.4    | 7.5  | 86.2 | 282   |
| 중소도시      | 5.2    | 9.7  | 85.2 | 579   |
| 농어촌       | 4.3    | 10.1 | 85.6 | 188   |

〈부표 5-7〉 정치냉소주의3: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2016년)

(단위: %, 명)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계 (N) |
|-----------|--------|------|------|-------|
| 성별        |        |      |      |       |
| 남성        | 9.9    | 17.9 | 72.3 | 476   |
| 여성        | 8.4    | 17.0 | 74.6 | 575   |
| 연령(1)     |        |      |      |       |
| 18-29세    | 8.8    | 19.7 | 71.5 | 193   |
| 30-39세    | 6.3    | 14.9 | 78.7 | 174   |
| 40-49세    | 5.9    | 14.7 | 79.4 | 170   |
| 50-59세    | 9.6    | 18.1 | 72.3 | 177   |
| 60세 이상    | 11.9   | 18.4 | 69.7 | 337   |
| 연령(2)     |        |      |      |       |
| 18-34세    | 7.7    | 19.0 | 73.4 | 274   |
| 35-49세    | 6.5    | 14.1 | 79.5 | 263   |
| 50-64세    | 9.8    | 15.7 | 74.5 | 255   |
| 65세 이상    | 12.4   | 20.9 | 66.8 | 259   |
| 학력        |        |      |      |       |
| 고졸 미만     | 12.0   | 21.1 | 66.9 | 266   |
| 고졸        | 7.7    | 17.3 | 75.0 | 248   |
| 대재        | 6.9    | 16.1 | 77.1 | 218   |
| 대학졸업 이상   | 9.1    | 15.4 | 75.6 | 319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100만원 미만  | 9.2    | 19.7 | 71.1 | 152   |
| 100-199만원 | 10.5   | 19.1 | 70.5 | 105   |
| 200-299만원 | 9.5    | 16.5 | 74.0 | 127   |
| 300-399만원 | 11.1   | 15.6 | 73.3 | 135   |
| 400-499만원 | 5.4    | 17.9 | 76.8 | 112   |
| 500만원 이상  | 7.8    | 15.4 | 76.8 | 332   |
| 지역        |        |      |      |       |
| 대도시       | 8.9    | 13.5 | 77.6 | 281   |
| 중소도시      | 9.2    | 19.3 | 71.5 | 579   |
| 농어촌       | 9.0    | 17.0 | 73.9 | 188   |

〈부표 5-8〉 20대 국회의원 총선 이야기를 가족과 나눈 빈도 (2016년)

(단위: %, 명)

|           | 매우 자주 했다 | 가끔 했다 | 별로 하지 않았다 | 전혀 하지 않았다 | 계 (N) |
|-----------|----------|-------|-----------|-----------|-------|
| 성별        |          |       |           |           |       |
| 남성        | 5.7      | 28.4  | 37.8      | 28.2      | 476   |
| 여성        | 6.3      | 29.6  | 36.3      | 27.8      | 575   |
| 연령(1)     |          |       |           |           |       |
| 18-29세    | 5.7      | 27.8  | 38.7      | 27.8      | 194   |
| 30-39세    | 4.6      | 24.1  | 43.1      | 28.2      | 174   |
| 40-49세    | 8.2      | 31.2  | 38.2      | 22.4      | 170   |
| 50-59세    | 6.2      | 41.8  | 36.2      | 15.8      | 177   |
| 60세 이상    | 5.7      | 24.4  | 32.7      | 37.2      | 336   |
| 연령(2)     |          |       |           |           |       |
| 18-34세    | 5.5      | 26.5  | 39.3      | 28.7      | 275   |
| 35-49세    | 6.8      | 28.9  | 40.7      | 23.6      | 263   |
| 50-64세    | 6.7      | 39.6  | 36.1      | 17.6      | 255   |
| 65세 이상    | 5.0      | 21.3  | 31.8      | 41.9      | 258   |
| 학력        |          |       |           |           |       |
| 고졸 미만     | 3.4      | 18.4  | 35.0      | 43.2      | 266   |
| 고졸        | 5.6      | 31.0  | 35.9      | 27.4      | 248   |
| 대재        | 7.3      | 28.0  | 43.1      | 21.6      | 218   |
| 대학졸업 이상   | 7.5      | 37.0  | 35.4      | 20.1      | 319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100만원 미만  | 3.3      | 19.1  | 25.0      | 52.6      | 152   |
| 100-199만원 | 3.8      | 22.9  | 39.0      | 34.3      | 105   |
| 200-299만원 | 5.5      | 23.6  | 44.9      | 26.0      | 127   |
| 300-399만원 | 7.4      | 26.7  | 40.7      | 25.2      | 135   |
| 400-499만원 | 1.8      | 39.6  | 42.3      | 16.2      | 111   |
| 500만원 이상  | 9.3      | 36.7  | 36.7      | 17.2      | 332   |
| 지역        |          |       |           |           |       |
| 대도시       | 9.2      | 30.5  | 36.5      | 23.8      | 282   |
| 중소도시      | 4.5      | 32.7  | 36.5      | 26.3      | 578   |
| 농어촌       | 5.9      | 16.0  | 38.3      | 39.9      | 188   |

<부표 5-9> 20대 총선 당시 정치적 부탁 받았는지 여부 (2016년)

(단위: %, 명)

|           | 가족이<br>나<br>친척 | 직장동<br>료 | 이웃   | 친구   | 종교집<br>단<br>지도자<br>나<br>신도 | 동호<br>회 | 선거운<br>동원 | 기타  | 계 (N) |
|-----------|----------------|----------|------|------|----------------------------|---------|-----------|-----|-------|
| 성별        |                |          |      |      |                            |         |           |     |       |
| 남성        | 7.6            | 5.9      | 8.2  | 11.6 | 1.9                        | 6.3     | 27.2      | 2.7 | 476   |
| 여성        | 13.2           | 4.9      | 8.7  | 8.3  | 3.0                        | 3.0     | 25.6      | 1.0 | 575   |
| 연령(1)     |                |          |      |      |                            |         |           |     |       |
| 18-29세    | 13.4           | 3.6      | 2.6  | 6.7  | 2.1                        | 1.0     | 31.1      | 1.7 | 194   |
| 30-39세    | 10.9           | 4.0      | 6.3  | 6.3  | 0.0                        | 1.1     | 23.7      | 1.9 | 174   |
| 40-49세    | 13.5           | 8.8      | 10.0 | 10.6 | 2.9                        | 5.9     | 35.9      | 3.4 | 170   |
| 50-59세    | 10.7           | 9.6      | 15.3 | 15.3 | 4.5                        | 11.3    | 29.9      | 2.5 | 177   |
| 60세 이상    | 7.5            | 3.0      | 8.6  | 10.1 | 2.7                        | 3.9     | 18.2      | 0.5 | 336   |
| 연령(2)     |                |          |      |      |                            |         |           |     |       |
| 18-34세    | 11.3           | 3.3      | 2.9  | 6.5  | 1.5                        | 1.5     | 29.2      | 1.2 | 275   |
| 35-49세    | 14.1           | 7.6      | 9.5  | 9.1  | 1.9                        | 3.8     | 31.3      | 3.3 | 263   |
| 50-64세    | 12.2           | 7.8      | 14.1 | 15.3 | 3.5                        | 9.8     | 27.8      | 1.8 | 255   |
| 65세 이상    | 5.1            | 2.7      | 7.8  | 8.5  | 3.1                        | 3.1     | 16.7      | 0.6 | 258   |
| 학력        |                |          |      |      |                            |         |           |     |       |
| 고졸 미만     | 4.2            | 0.8      | 9.0  | 6.4  | 1.5                        | 1.9     | 14.3      | 0.6 | 266   |
| 고졸        | 11.3           | 7.3      | 10.1 | 12.5 | 2.4                        | 4.4     | 24.2      | 1.8 | 248   |
| 대재        | 11.9           | 4.6      | 6.4  | 7.8  | 3.2                        | 3.2     | 31.3      | 1.6 | 218   |
| 대학졸업 이상   | 14.7           | 8.2      | 8.2  | 11.9 | 2.8                        | 7.5     | 34.6      | 2.8 | 319   |
| 월평균가구소득   |                |          |      |      |                            |         |           |     |       |
| 100만원 미만  | 4.6            | 0.7      | 7.2  | 5.9  | 2.6                        | 1.3     | 13.2      | 0.0 | 152   |
| 100-199만원 | 8.6            | 3.8      | 12.4 | 8.6  | 1.0                        | 1.9     | 20.0      | 1.4 | 105   |
| 200-299만원 | 13.4           | 5.5      | 7.9  | 10.2 | 2.4                        | 1.6     | 26.8      | 2.5 | 127   |
| 300-399만원 | 8.1            | 8.1      | 8.9  | 10.4 | 2.2                        | 5.9     | 23.7      | 1.4 | 135   |
| 400-499만원 | 14.4           | 3.6      | 8.1  | 9.9  | 4.5                        | 3.6     | 29.1      | 5.6 | 111   |
| 500만원 이상  | 13.6           | 8.1      | 9.0  | 12.0 | 2.4                        | 7.6     | 36.6      | 1.8 | 332   |
| 지역        |                |          |      |      |                            |         |           |     |       |
| 대도시       | 13.5           | 5.0      | 7.4  | 10.6 | 2.1                        | 5.7     | 27.0      | 4.0 | 282   |
| 중소도시      | 10.0           | 6.2      | 8.7  | 9.9  | 2.6                        | 4.7     | 27.4      | 1.1 | 578   |
| 농어촌       | 8.6            | 3.2      | 9.6  | 8.5  | 2.7                        | 2.1     | 22.3      | 0.8 | 188   |